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세 미 나 리



학 생 학 습 지 도 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학생 학습 지도서

교회 교육 기구 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 2001년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1/00
번역 승인: 9/06
Doctrine and Covenants and Church History
Student Study Guide의 번역
Korean

목차

본 교재 사용법	1	교리와 성약 23편	
경전을 공부함	2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	35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독서표	7	교리와 성약 24편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로의 초대	8	교회 지도자의 의무	35
뉴욕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교회	11	교리와 성약 25편	
조셉 스미스-역사		에머 스미스 — 선택된 여자	36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다	11	교리와 성약 26편	
교리와 성약의 소개 페이지		만장일치의 법	37
책에 대해 알아보기	14	교리와 성약 27편	
*교리와 성약 1편		후일의 성찬	38
주님의 서문 — 경고의 음성	15	교리와 성약 28편	
교리와 성약 2편		오직 선지자만이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음	39
모로나이의 방문	16	교리와 성약 29편	
교리와 성약 3편		후일에 “선택된 자”에게 주는 약속	40
선지자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다	17	교리와 성약 30편	
교리와 성약 4편		데이비드, 피터, 존 휘트머 — “두려워 말고”	41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함	18	교리와 성약 31편	
교리와 성약 5편		토마스 비 마쉬 — 약속과 경고	42
물문경의 견증자가 약속되다	19	교리와 성약 32편	
교리와 성약 6편		레이맨인에 대한 선교 사업	43
영의 증거	20	교리와 성약 33편	
교리와 성약 7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함	44
계시자 요한의 숨겨진 기록	21	교리와 성약 34편	
교리와 성약 8~9편		을슨 프렛 — “네 음성을 높이고”	45
계시를 받고 인식함	21	교리와 성약 35편	
교리와 성약 10편		시드니 리그돈 — 앞서 가는 사람	46
선지자를 파멸시키려는 음모	23	교리와 성약 36편	
교리와 성약 11편		에드워드 파트리지 — “주의 위대한 사람 중의 하나”	47
“만일 내가 원하면”	24	교리와 성약 37~38편	
교리와 성약 12편		오하이오 주로 집합하여 원수를 피함	48
“이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25	교리와 성약 39~40편	
교리와 성약 13편		제임스 코빌 — 주어진 약속과 잃어버린 약속	49
아론 신권의 회복	25	오하이오 주와 미주리 주에서의 교회	50
교리와 성약 14~16편		교리와 성약 41편	
휘트머 가족의 세 형제를 위한 권고	26	참된 제자란?	50
교리와 성약 17편		교리와 성약 42편	
세 사람의 특별한 견증자를 위한 계시	27	교회에 주는 주님의 법	51
교리와 성약 18편		교리와 성약 43편	
사도의 일과 영혼의 가치	28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52
교리와 성약 19편		교리와 성약 44편	
마틴 해리스를 위한 계명	30	대회의 목적	54
교리와 성약 20편		교리와 성약 45편	
교회의 헌법	3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54
교리와 성약 21편		교리와 성약 46편	
선지자 주신 하나님 감사하옵고	33	영의 은사	56
교리와 성약 22편		교리와 성약 47편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함	34	역사 편찬가의 부름	58
		교리와 성약 48편	
		커틀랜드에서 토지를 매입함	58

*주: 교리와 성약 1편은 오하이오 주 및 미주리 주 기간에 받았다.

교리와 성약 49편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도들의 합동 교단(세이커 교도)를 위한 메시지	59
교리와 성약 50편	
영의 역사를 이해함	60
교리와 성약 51편	
현납의 법에 대한 추가 지시	61
교리와 성약 52편	
새 예루살렘인 시온이 계시됨	62
교리와 성약 53편	
시드니 길버트의 부름	63
교리와 성약 54편	
성약과 결과	64
교리와 성약 55편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가 일하도록 부름받음	64
교리와 성약 56편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꾸지람	65
교리와 성약 57편	
시온의 중심 장소가 계시됨	66
교리와 성약 58편	
시온에 관한 주님의 뜻	67
교리와 성약 59편	
시온과 시온의 스테이크를 위한 계명	69
교리와 성약 60편	
“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며”	71
교리와 성약 61편	
물의 위험	72
교리와 성약 62편	
여러분의 간증이 하늘에 기록됨	73
교리와 성약 63편	
시온을 위해 준비함	73
교리와 성약 64편	
남을 용서함	75
교리와 성약 65편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을 위한 길을 예비한다	77
교리와 성약 66편	
윌리엄 이 매클렐른 — “너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	78
교리와 성약 67편	
경전의 시험	79
교리와 성약 68편	
경전과 하나님의 권세와 부모님	80
교리와 성약 69~70편	
하나님의 계시 — 거룩한 청지기 직분	81
교리와 성약 71편	
“너희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져 형통할 무기가 없느니라.”	82
교리와 성약 72편	
청지기 직분과 감독의 의무에 관한 추가 지시	83
교리와 성약 73편	
성경의 영감역을 완성함	84
교리와 성약 74편	
선지자의 질문	84
교리와 성약 75편	
선교 부름	85
교리와 성약 76편	
영광의 여러 단계에 대한 시현	86
교리와 성약 77편	
요한의 계시에 관한 질문	89
교리와 성약 78편	
감독의 창고를 세워야 할 필요성	90
교리와 성약 79~80편	
선교사 부름	91
교리와 성약 81편	
제일회장단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고	92
교리와 성약 82편	
시온 건설과 관련된 지시	93
교리와 성약 83편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책임	94
교리와 성약 84편	
신권에 관한 계시	94
교리와 성약 85편	
우리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함	97
교리와 성약 86편	
밀과 가라지의 비유	98
교리와 성약 87편	
전쟁의 예언	98
교리와 성약 88편	
감람산: 평화의 메시지	99
교리와 성약 89편	
지혜의 말씀	102
교리와 성약 90편	
왕국의 열쇠	103
교리와 성약 91편	
외경	105
교리와 성약 92편	
가입함	105
교리와 성약 93편	
빛과 진리	106
교리와 성약 94편	
교회 건축 위원회에 주는 지시	107
교리와 성약 95편	
나의 집을 지으라!	108
교리와 성약 96편	
커틀랜드의 토지를 분배함	109
교리와 성약 97편	
성전과 시온	110
교리와 성약 98편	
핍박에 대한 대응	111
교리와 성약 99편	
존 머독에게 주신 선교사 부름	112
교리와 성약 100편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 선교 사업에 관한 권고	113

교리와 성약 101편	미주리 주 잭슨 군에서의 고통에 대한 응답	114
교리와 성약 102편	고등 평의회와 교회 징계	116
교리와 성약 103편	시온은 구속될 것인가?	117
교리와 성약 104편	“내 자신의 방법으로”	118
교리와 성약 105편	시온 진영	120
교리와 성약 106편	“밤에 도적같이”	122
교리와 성약 107편	신권에 대한 계시	123
교리와 성약 108편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125
교리와 성약 109편	커틀랜드 성전 헌납	125
교리와 성약 110편	주님께서서 커틀랜드 성전에 몸소 나타나시어 열쇠가 회복됨	127
교리와 성약 111편	살렘의 보화	128
교리와 성약 112편	십이사도의 업무	129
교리와 성약 113편	성경 구절에 대한 질문	130
교리와 성약 114편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에게 주는 계시	130
교리와 성약 115편	파웨스트의 성전	131
교리와 성약 116편	아담-온다이-아만	132
교리와 성약 117편	“명실상부한 감독이 되라”	133
교리와 성약 118편	새로 부름 받은 사도	134
교리와 성약 119~120편	십일조의 율법	135
교리와 성약 121편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137
교리와 성약 122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139
교리와 성약 123편	기록의 중요성	140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의 교회		141
교리와 성약 124편	거룩한 건물과 거룩한 부름	141
교리와 성약 125편	아이오와 주 제이라헤틀라	143
교리와 성약 126편	브리검 영에게 주는 계시	144
교리와 성약 127~128편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에 대한 지시	144
교리와 성약 129편	세 가지 큰 열쇠	146
교리와 성약 130편	교리에 관한 주요 인용	147
교리와 성약 131~132편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148
* 교리와 성약 133편	구주의 오심을 준비함	151
교리와 성약 134편	정부에 관한 소신	153
교리와 성약 135편	진리를 위한 순교	153
교리와 성약 137편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	156
서부로 이주하는 교회		157
제일회장단의 계승	교회의 차기 회장을 선택함	158
서부로의 대이동 (1845~1847년)	초기 개척자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159
교리와 성약 136편	“모든 백성(은) ... 여러 부대로 편제를 갖추지니라.”	164
브리검 영 회장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피난처를 건설함	165
브리검 영 회장의 유산	후일의 모세	171
존 테일러 회장	자유의 수호자	173
윌포드 우드럽 회장	공식 선언	178
공식 선언-1 및 “세 가지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	주님께서서 복수 결혼을 종식시킴	182
확장의 기간		183
로렌조 스노우 회장	십일조에 관한 계시	183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복음 교리 교사	186
교리와 성약 138편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190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	주님을 섬길 것을 결심함	191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	고귀한 종	195
범세계적인 교회		198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199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복음 신학자, 저술가	202
해롤드 비 리 회장	거대한 삼나무	205

* 주: 교리와 성약 133편은 오하이오 주 및 미주리 주 기간에 받았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223
“걸음의 폭을 넓히십시오.”207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225
공식 선언-2	신앙개조
모든 합당한 남자는 신권을 받을 수 있다.....211	우리가 믿는 것226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교회사에서의 우리의 위치.....229
온 지상이 물문경으로 차고 넘치게 함212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231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지닌 사람216	
고든 비 헝클리 회장	
“나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나는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19	

본 교재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의 경전 학습을 위한 길잡이이다. 본 교재에는 여러분이 읽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항목이 들어 있다.



가 소개

펼쳐진 책 모양의 그림 위에 인쇄된 각 단원의 표제 바로 밑에는 여러분이 읽도록 지정된 각 장 또는 편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이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역사적 배경
- 경전의 그 부분이 그 전후의 장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 여러분이 읽기 전이나 읽는 동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단락의 메시지에 집중하여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질문과 개념

나 경전을 이해함

“경전을 이해함”은 어려운 단어와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서, 그러한 구절에 포함된 생각과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해설이 들어 있다. 그 해설에는 종종 교회 총관리 직원들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다 경전을 공부함

“경전을 공부함” 부분에는 여러분이 그 구절에 담긴 복음 원리들을 찾아내고 생각해 보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질문과 활동이 나와 있다. 교재에는 기록할 여백이 없으므로 노트나 다른 용지를 이용해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경전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도로 시작한다.
- 여러분이 공부할 각 장 또는 편에 대한 소개를 읽고 “읽기 전” 편의 기타 학습법을 고려해 본다. (2쪽 참조)
- 도움이 되도록 해당 “경전을 이해함” 부분을 참조하면서 지정된 장 또는 편을 읽는다. “읽는 동안” 학습법을 사용한다. (4~5쪽 참조) 여러분의 노트에 간단한 기록이나 질문을 적는다. 또 자신에게 중요한 느낌이나 감명받은 것에 대해 적는다.
- 여러분이 공부하는 장 또는 편의 “경전을 공부함” 부분에 나오는 활동을 한다. 때때로 여러분은 몇 개의 활동 중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될 것이다. 만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면 나와 있는 모든 활동을 한다.

가정 학습 세미나리 프로그램

여러분이 가정 학습 세미나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주 읽어야 할 독서 과제를 보여 주는 7쪽의 독서표를 따라야 한다. 세미나리가 매일 이행해야 할 종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읽어야 하며, 비록 매일 세미나리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세미나리 과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만일 한 해의 세미나리 기간이 36주 정도라면 교사는 한 주에 읽어야 할 부분과 완수해야 할 과제를 말해 줄 것이다. 세미나리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날에도 경전을 읽고 이 학습 지도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30~40분은 되어야 한다.

매주 여러분은 교사에게 그 주의 성구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완수한 학습 지도 활동이 담긴 여러분의 노트를 제출해야 한다. 교사는 그것을 읽고 의견을 적어 돌려줄 것이다. 여러분은 두 권의 노트를 준비하여 매주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날장으로 분리되는 루스 리프식 바인더를 이용해서 그 주에 완수한 부분만 제출할 수도 있다. 나중에 교사가 돌려주면 도로 바인더에 끼워 넣는다.

매일반 세미나리 프로그램

만일 여러분이 매일반 세미나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이 학습 지도서를 사용한다.

경전을 공부함

이 학습 지도서는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학습 시간을 경전을 읽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있을 당시 교회 회원들에게 경전 공부에 관해 가지있는 권고를 해 주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여러분은 카드에 그의 아이디어를 적어서 여러분이 경전을 공부하는 동안 볼 수 있는 장소에 둔다.

-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읽는다.
- 매일 경전을 공부한다.
- 매일 경전을 공부할 정규적인 시간을 정한다.
- 산만해지거나 방해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부한다.
- 특정한 양의 장 또는 쪽을 읽는 것보다는 일정한 시간 동안 공부한다.
- 학습 계획을 세운다.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94~96쪽 참조)

후기 성도판 경전에 나와 있는 학습 보조 자료를 사용하거나 훌륭한 학습 기술을 사용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경전 학습에 유익이 될 것이다.

후기 성도 판 경전 학습 보조 자료

전후 참조

전후 참조를 활용하면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경전 참조 성구를 공부할 수 있다.

34 이 "말은 여러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한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이 말이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증언할지니라.

35 이는 이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나의 음성인 연고라. 이는 이것이 나의 영으로써 너희에게 주어짐이요 나의 권능으로써 너희는 이를 서로에게 읽어 줄 수 있되 나의 권능으로써가 아니고는 너희가 이를 갖지 못하였을 것임이니라.

36 그런즉 너희는 내 음성을 들었고 내 말을 안다고 증언할 수 있느니라.

37 그리고 이제 보라, 나는 너를 올리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18편 34~35절을 읽고 각주의 35-7을 참조한다. 각주의 전후 참조 성구를 찾아 읽음으로써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에 관해 어떤 통찰력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

32-1 모로 3:1-4; 교성 20:60; 107:58. 안내 성언하다, 성임. - 변후 1:21; 교성 68:3-4. - 교성 20:27. 34-1 안내 경전.	35-1 교성 1:38. 안내 음성. 36-1 안내 증언하다. 38-1 안내 행위. 40-1 안내 예배. 42-1 교성 20:71; 29:47; 68:27.
---	---

경전 안내서

경전 안내서에는 가나다 순으로 여러 단어와 주제가 실려 있으며, 교회의 표준 경전 네 권과 관련된 참조 성구가 실려 있다. 경전상의 여러 명칭과 주제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담겨 있다.

39 또 이렇게 되리니, 나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큰 '날이 임하기를 곧' 인자가 오는" 정조를 "바라머기 다라리라."
40 또 그들은 정조와 기이한 일들을 보리니, 이는 그러한 것이 위로는 하늘에서와 아래로는 땅에서 보일 것임이라.
41 또 그들은 피와 "불과 연기의 안개를 보리라."
42 또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피로 변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35-1 마 24:6. 37-1 마 13:28; 눅 21:29-31. 39-1 교성 10:55-56. 안내 두려움-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 안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 안내 인자.	- 안내 표적, 시대의. - 변후 3:10-13; 교성 35:15-16; 모세 7:62. 41-1 교성 29:21; 97:25-26. 42-1 욥 2:10; 계 6:12; 교성 88:87; 133:49.
---	--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45편 39절을 읽는다. 구절을 읽다 보면, "나를 경외(두려워-feareth)하는 자는"이라는 문구에서 경외(두려워)라는 단어가 궁금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의미일까? 경전 안내서의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리키는 각주에 주목한다.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참조 성구를 찾아본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경전에서 사용된 두 가지

다른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찾아보려면 경전 안내서의 "두려움" 항목을 살펴본다.

단어와 문구 학습 보조 자료

12 그러나 이 날 곧 주의 날에는 네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네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13 그리고 이 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내 "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

나라.
18 그러하도다, 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니니,
19 참으로, 음식을 위하여 또 의복을 위하여, 맛을 위하여 또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져 육체를 강건하게 하며, 영혼을 활기 있게 하니니라.
20 또 그가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6-1 안내 살인하다. 7-1 시 92:1; 렐 37:37; 교성 46:32. 안내 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8-1 안내 의로운, 의로운. - 안내 회생. - 안내 상한 마음.	9-1 약 1:27. - 안내 안식일. 10-1 안내 예배. 12-1 안내 고백하다, 고백, 설명 시간, 계몽 또는 계몽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여 바치는 계몽, 안내 회생.	13-1 안내 금식하다, 금식, 안내 기쁨. 15-1 안내 감사한, 감사, 감사드림. - 출 25:2; 교성 64:34. - 잠 17:22. - 교성 88:69. 18-1 안내 저구.
--	---	--

교리와 성약 59편 12절에 대한 각주를 보면 헌물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안식일에 어떠한 헌물을 받을 수 있는가?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외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더 완전하고 정확한 성경 번역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하여 계시를 구하도록 명하셨다. (교성 45:60 참조) 그 결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여러 중요한 진리들을 회복하고, 오역의 가능성이 있거나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바로 잡아 놓았다. (신앙개조 1:8 참조) 영감으로 변경된 이 성경 판을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이라고 한다. 그 번역은 "조성"이라는 약어로 나와 있다.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변경 내용 중 일부가 경전 안내서의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발췌문에 나와 있다.

성경 지도 및 사진

경전 안내서에서 볼 수 있는 성경 지도 및 사진은 경전에서 언급된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 역사 연대기, 지도 및 사진

교회는 1999년에 경전 합본에 새로운 지도와 사진을 추가했다. 이 추가 자료들은 후기 성도 흥정역 판에 있던 지도 및 사진과 비슷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또한 교회 역사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연대기가 포함되어 있다. 연대기를 펼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 번역을 어느 해 어느 달에 마쳤는지 찾아본다. 지도 2를 펼쳐서 조셉 스미스 일세의 통나무 집을 찾아본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는가? (주 1 참조)

장 머리글, 편 머리글 및 구절 요약

장과 편 머리글, 그리고 구절 요약을 통해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이나 중요한 배경 지식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89편 머리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후기 성도 판 경전에 포함된 합습 보조 자료는, 유용한 참고 자료가 모두 하나의 소책자로 묶여 있는 것에 비할 수 있다.

학습 기술

니파이는 우리가 경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해야]”(니파이후서 32:3) 한다고 말씀했으며, 예수님은 니파이인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상고하라”(제3니파이 23:1)고 명하셨다. 이런 종류의 학습은 단순히 경전을 빨리 읽어 나가는 것 이상을 뜻한다. 다음의 제안과 기술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도와 줄 것이다. 그것은 세 개의 서로 다른 범주, 즉 읽기 전, 읽는 동안, 읽은 후로 나뉘어진다.

읽기 전

기도



경전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신을 동반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구약에서 우리는 제사장 에스라에 관해 배우는데 그는 “여호와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 하기로 결심하였었다.”(에스라 7:10) 여러분이 경전을 읽을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경전을 읽을 준비한다.

배경 지식을 얻는다

경전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그것을 읽을 때 더 큰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에서 각 편의 머리글은 그 계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합본(몰몬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영문)의 뒤편에 있는 색인에도 유용한 정보가 실려 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경전에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부분의 배경 설명을 담고 있는 교회의 다른 책들과 교재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질문함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누가 이 구절을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이 가르침이 왜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가?”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거나 배우고 싶은가?”

“주님은 이 구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경전을 읽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후기 성도판 경전(영문판)의 보조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교회 교재와 출판물에서도 답을 찾아볼 수 있음을 기억한다.

각 편의 머리글과 성구 요약 읽음



각 편의 머리글은 교리와 성약 각 편의 내용에 대한 간단하고 유용한 역사적 배경이다. 성구 요약은 그 편에 있는 주요 개념의 간단한 개요이다. 본문을 읽기 전에 그 편의 머리글과 성구 요약을 읽는 것은 훌륭한 학습 습관이 될 뿐만 아니라, 읽으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읽는 동안

읽다가 멈추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금덩어리는 지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금덩어리를 얻으려면 땅을 파야만 한다. 만일 천천히 읽어 내려 가거나, 읽는 것을 멈추고 이 책의 각 부분에 나오는 활동 중 몇 가지를 한다면 경전 학습은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본다



사전을 사용한다. 때때로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본 교재의 “경전을 이해함” 편은 많은 어려운 단어와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때때로 주님은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단어와 구절의 의미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설명도 그들의 기록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기억한다.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41편 5절을 읽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본다.

경전을 자신에게 적용한다

성구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경전의 가르침을 더욱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30편 1~2절을 읽으면서 “테이비드”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집어 넣는다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상상해 본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마음 속으로 그려 본다. 예를 들면 조셉 스미스-역사 1장 27~47절을 읽을 때 한 천사가 여러분의 침실에 세 번이나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인지를 상상해 본다.

때때로 경전은 우리에게 상상해 볼 것을 권한다. 엘마서 5장 15~18절을 읽고 멈춰서 엘마가 제안한 대로 해 본다. 그 구절대로 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어 기록한다.

접속어를 찾아본다

접속어에는 그리고, 그러나, ~로 인해, 그러므로, 그럼에도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그것들이 두 가지나 또는 그 이상의 개념들에 관해 무엇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는지를 살펴본다. 때때로 접속어들은 두 가지 일이나 또는 그 이상의 일들이 어떻게 비슷한지 또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준다.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84편 54~55절의 말미암이라는 낱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관해 생각해 본다면, 몰몬경의 중요성에 관해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54 그리고 과거에는 너희 마음이 “민지 알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가버려 다루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55 이 “허영과 편지 알음은 온 교회로 하여금 정죄 아래 놓이게 하였느니라.”

말미암이라는 낱말은 몰몬경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와 그들이 계시 및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사이의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

교리와 성약 45편 30~32절을 읽고 그러나라는 낱말이 후일에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상태의 대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유의해서 본다.

31 또 그 세대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낯치는 “재앙을 보기에까지는 족지 아니하나니, 이는 황폐하게 되는 절망이 그 땅을 뒤덮을 것임이니라.
32 그러나 나의 재자들은 기록한 곳에 “서서 옮기우지 아니하라. 그러나 악인 중에서는 사람들이 그들 죄를 씻을 줄을 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되리라.’

그러나라는 낱말을 강조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재림 전에 있을 파괴의 일부로부터 보호 받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표현 형식을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52편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속임을 피할 수 있는 표현 형식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런 다음에 19절에서 이 표현 형식에 관해 언급하셨다. 14절부터 19절에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구별하는 방법에 관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 이 표현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 이 성구들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



표현 형식 찾기의 또 다른 예는 인과 관계에 관한 주님의 설명을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하면 ~(하)리라는 말을 관찰하여 찾아보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5편에서 마틴 해리스는 주님으로부터 특정한

은사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24절을 읽고, ~하면 ~(하)리라는 표현 형식을 찾아본다. 마틴 해리스가 구하고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 그가 이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들은 말씀을 찾아본다.

낱말, 구절, 또는 개념을 반복하는 것은 찾아보기의 또 다른 형식이다.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11편, 12편의 처음 다섯 구절의 내용을 비교해 본다. 각각의 계시는 주님의 왕국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였던 교회 회원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종 각자를 위해 마련하신 유사한 메시지를 주목해서 본다.

경전에서 목록을 찾아본다



목록은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십계명은 하나의 목록이다.(출애굽기 20장 참조) 제3니파이 12장 3~11절의 진복판단은 하나의 목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찾아내는 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목록들도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관해 교리와 성약 68편 25~31절에서 목록을 만들어 본다.

질문한다

“읽기 전” 편에서 배웠던 것과 같은 질문을 계속한다. 읽으면서, 읽기 전에 했던 질문을 바꾸어 표현해 보거나, 또는 완전히 달라진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경전 공부로부터 더 큰 이해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한 가지다. 우리가 던질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주님은 왜 기록자에게 이것을 경전에 포함시키도록 영감을 주셨을까?”이다. 때때로 기록자가 “이와 같이 우리는 … 을 알 수 있느니라”와 같은 표현을 할 때 그가 남긴 분명한 단서들을 찾아본다.

경전에 나온 질문에 답해 본다

주님은 자주 질문을 주시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몇몇 장로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것에 성임되었더냐?”(교리와 성약 50:13)라고 질문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영 곧 진리를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임되었느니라.”(14절)고 대답하셨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질문은 주어졌지만 답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도 하다. 그런 경우 그 답이 명백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122:8을 참조 바람) 때때로 경전은 답을 제시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이유는 던져진 질문이 약간의 생각을 요하거나 또는 그 답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엘마서 5장 14~33절을 읽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고 가정하면서 그 구절들에 나오는 질문에 답해 본다.

예표와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본다



선지자들은 종종 그들의 메시지를 보다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비유는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하는 방법이지만 그 안에 훨씬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교훈을 더욱 잘 기억하게 해 주며 의미 있게 해 준다.

다음의 제언은 경전에 나오는 상징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경전에 나오는 해석을 찾아본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 많은 요소들은 교리와 성약 86편 1~7절과 101편 64~66절에 설명되어 있다. 때때로 각주의 전후 참조를 이용하여 해석을 찾을 수 있다.
2. 그 상징의 특성에 대해, 그리고 그 상징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38편 24~27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순종하는 아들들에게 갖고 있는 사랑에 관해 말씀하셨다.
3. 그 상징이 구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살핀다. 주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모세서 6:63)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101편 81~91절에서 여인의 청원에 마지못해 응하는 법관은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주님과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는가?

기록한다



종이나 노트를 가까이 두고 기억하고 싶은 생각들, 즉 목록들, 여러분이 얻은 특별한 통찰력 또는 여러분이 읽은 것에 관한 느낌들을 기록한다. 다음에 읽을 때 그 생각이나 통찰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전 여백에도 이러한 것들을 적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전에 있는 중요한 단어와 성구에 표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옳거나 그른 방법이 없다.(여러분은 어찌면 아무런 표시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구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중요한 단어와 어구에 색칠하거나 또는 밑줄을 긋는다. 경전에 표시를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백에 전후 참조 성구를 적는 것이 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여러 성구에 이렇게 해 둬으로써 그 중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성구 사슬을 가지는 것이다. 성구를 표시하는 것은 종종 중요한 구절을 보다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읽은 후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며, 스스로 질문해 보고, 아는 것과 배운 것을 평가하면서 마음 속으로 그 의미를 가능해 보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때때로 이것을 “묵상”(여호수아 1:8 참조)이라고 부른다. 경전에는 상고, 특히 경전을 상고한 결과로서 중요한 계시를 얻은 몇 가지 훌륭한 예가 나와 있다. (교리와 성약

76:15~20; 138:1~11 참조)

경전을 자신에게 적용한다



경전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생활에 비유해 보는 것이다. 경전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방금 읽은 경전에서는 어떤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 원리들은 나의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경전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그 성신은 주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요한복음 16:13)라고 약속하셨던 분이시다.

교리와 성약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과 원리를 많이 이용하여 후일의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모세는 계시의 영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마른 땅 위로 홍해를 통과하게”(교리와 성약 8:3) 했다. 교회 회원들은 웃시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흔들리지 않게”(교리와 성약 85:8; 또한 사무엘하 6:6~7 참조) 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으며,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일을”(교리와 성약 132:32) 하라는 명을 받았다.

다시 읽는다



우리는 경전을 읽을 때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다. 실제로 경전을 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공부가 필요하다. 종종 두세 번 읽은 후에야 표현 양식을 알게 되고, 더 잘 마음에 떠 올릴 수 있게 되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다시 읽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보거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 이야기나 또는 한두 구절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다시 써 보는 것도 읽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글로 써본다



어떤 사람들은 일지에 그들이 읽은 것에 대한 주요 개념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또는 읽은 것을 자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생각한 것을 계속 기록한다. 만일 여러분이 본 교재로 가정 학습 세미나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학점을 얻기 위해 노트에 기록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이

노트는 경전 일지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읽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다.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를 해 두는 것과,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을 토론하는 것은 읽은 것을 보다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용한다



여러분이 경전에서 얻은 지식의 진정한 가치는 배운 대로 생활할 때 온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는 것은 복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배운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은 것을 받을 것이며,

그 반면에 배운 대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1:33 참조)

“경전을 연구하는 일 ... 에 너희의 시간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나면 또 너희가 해야 할 바가 알려지리라.”
(교리와 성약 26:1)

교리와 성약이란?



교리와 성약은 성경, 물몬경, 값진 진주와 더불어 교회의 네가지 표준 경전 중 하나이다. 이것은 교회 회원들이 네 가지 경전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성약한 성스런 영감을 받은 표준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교리와 성약이 다른 경전과 다른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성경은 고대 백성에게 주어진 교리와 계명이 담긴 역사입니다. 물몬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몬경은 고대 미 대륙에 살고 있었던 백성의 교리요, 역사요,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와 성약에는 지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입니다. 이 책은 후기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책입니다. 선지자(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이 책을 온 세상의 부귀보다 더 귀하고 황금보다도 더 귀한 보물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책을 그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책을 이해하고,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이 책의 가치를 부귀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부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7권의 교리, 3:172)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고든 비링클리 회장은 이렇게 적었다. “교리와 성약은 우리의 경전 중에서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의 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각종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기록과 말씀이 실려 있는 데,

이 경전은 본래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의 책입니다.”

“이들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후일의 사업의 회복에 대한 그분의 원대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레 소리처럼 힘있게 선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 곳에 거하며 그 눈이 모든 사람을 굽어보는 이의 음성이 이르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들으라.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너희여, 함께 귀를 기울이라.”

“이는 진실로 주의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 피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꿇들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으니라.” (교리와 성약 1:1~2)

“이처럼 장엄한 시작으로 영원한 진리의 샘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교리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직접적인

계시도 있으며, 성신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거나 말씀하신 조셉 스미스의 글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 및 의식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이 책에서 그토록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관한 원리 및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고도 주목할 만한 건강의 법칙이 육신과 영의 건강을 약속해 주는 말씀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영원한 신권의 성약이 다른 어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세 등급에 속하는 특권과 축복이, 그 제한 범위와 기회와 함께 선포되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에 대한 바울의 간략한 언급을 좀더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명백하고도 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올바른 침례 방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히던 신화의 본 모습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었습니다. 재정에 관한 주님의 율법으로서, 교회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지시도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 계시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을 읽어 보면,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거의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뜻”, 성도의 빛, 1989년 8월호, 2~3쪽)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교리와 성약은 물몬경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 및 그의 계승자들을 통해 계속되는 회복 사업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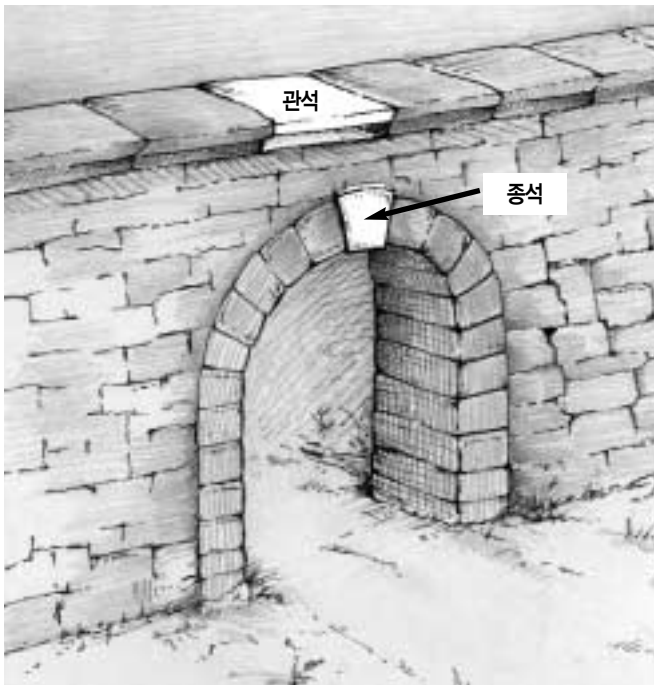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을 통해 우리는 성전 사업, 영원한 가족, 영광의 등급, 교회 조직 및 많은 다른 회복의 위대한 진리들을 배웁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그것들이 참되고 신실하며, 그 안에 있는 예언들과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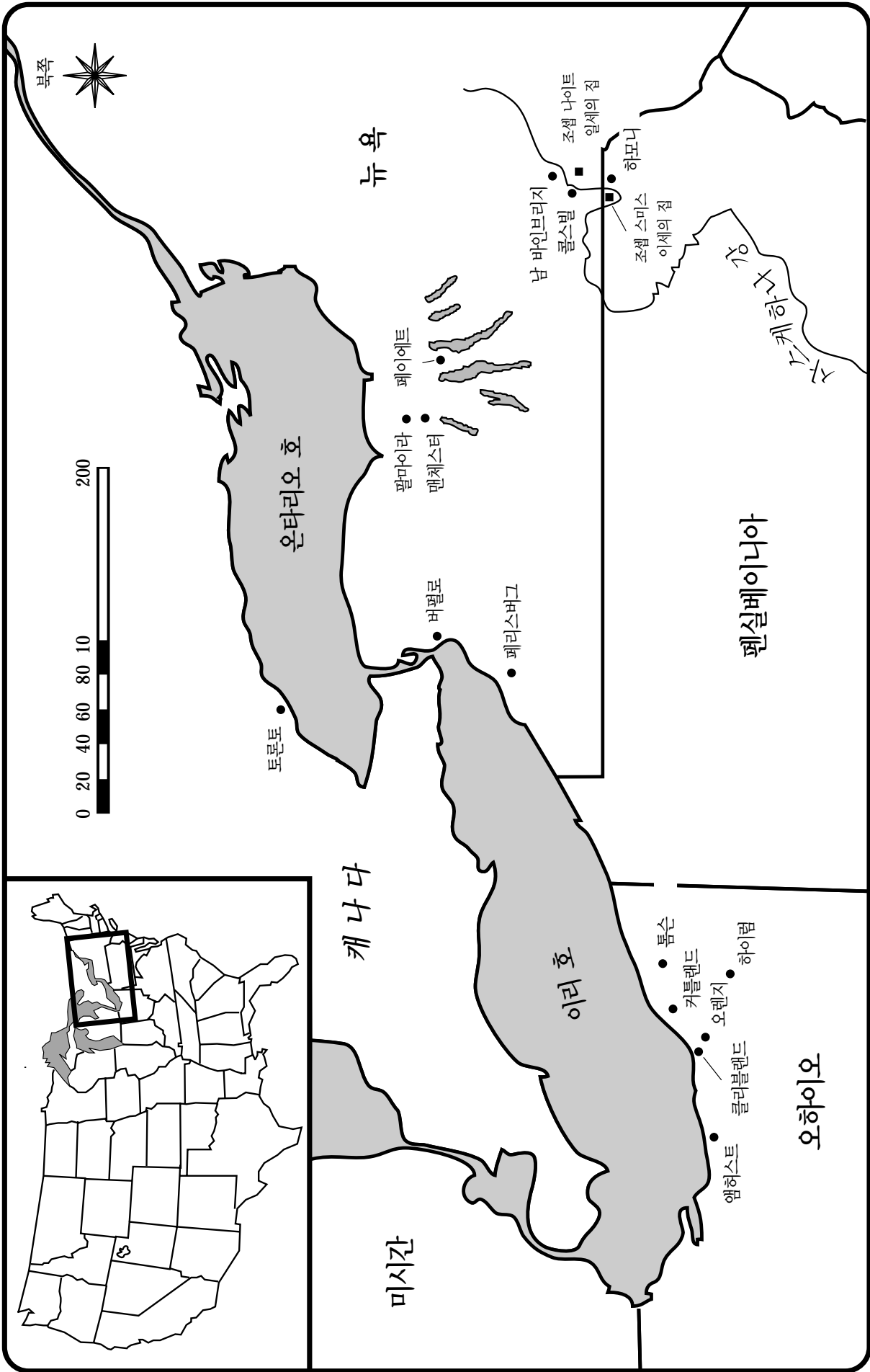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7~38)

“물몬경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교리와 성약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왕국, 즉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30절)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나아오게 해 줍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뭇문경은 우리 종교의 ‘중석’이며 교리와 성약은 계속되는 후일의 계시로 된 ‘관석’입니다. 주님께서는 중석과 관석 모두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94쪽)

금년에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을 읽어 나가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교리와 성약 128:21)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셨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현대의 계시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커짐에 따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감사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사에 있는 주요한 사건들을 공부해 나갈 때, 주님을 알고 있었고, 또 이곳 지상에서 그분의 왕국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발전을 도왔던 사람들이 보여 준 영감에 찬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읽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부단히 연구하고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은 강화될 것이며, 그에 비례하여 그분의 왕국 건설에 봉사하겠다는 여러분의 소망도 커질 것이다.



뉴욕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교회



“19세기 초엽의 뉴욕 주 서부는 완전히 개척지와 미개지의 경계 지방으로, 처녀지를 개척하고 정리하는 험난한 일을 아무 두려움 없이 해내던 사람들에게 행운이 약속된 활동 무대가 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조셉과 루시 맥 스미스와 여덟 자녀의 가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1819년 로체스터에서 멀지 않은 팔마이라 부근으로 옮겨 왔던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 회복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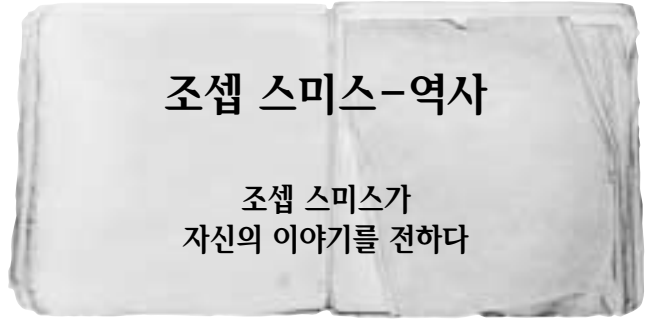
진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사, 1쪽)

그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였던 조셉 스미스 이세가 진리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던 사건은 이 지방을 무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암흑과 배도의 시절이 지나가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한 중요한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교리와 성약 135:3)에 의한 금판으로부터의 물문경의 번역, 신권, 복음 의식 및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상에서의 회복이 뒤따랐다. 교회가 회복된 후에, 교회 안팎의 핍박을 무릅쓰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조셉 스미스-역사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다



조셉 스미스-역사는 “조셉 스미스의 공식적인 증언과 역사의 발췌문[으로써] 그는 이것을 1838년에 준비하여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타임즈 앤드 시즌즈 지에 1842년 3월 15일부터 연재하였다.” (값진 진주 소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존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교리와 성약 135:3) 조셉 스미스-역사에 실려있는 간략한

역사는 선지자 자신의 표현에 의해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선지자 조셉의 생애와, 그를 통해 계시된 복음 원리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간증을 연구한다면 생애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 간증과 역사를 읽어 나가면서, 조셉 스미스가 어떤 청소년이었던지를 알아본다. 어린 조셉이 회복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경전을 이해함

조셉 스미스-역사

[Militate against] 저해하려 (1절) — 적극적으로 반대한	[Ensued] 뒤따랐으며 (6절) — 뒤따랐다
[Induced] 이르렀다 (1절) — 납득시키다.	[Proselyted] 가입하였다 (7절) — 가입하라고 권유 받았다
[Disabuse the public mind] 세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1절) — 주위에 떠돌아 다니는 소문과 거짓말을 바로 잡다	[Poignant] 강렬하기까지 (8절) — 예민한, 격심한, 고통받는
[Commenced] 시작되었으나 (5절) — 시작되었다	[Aloof] 떨어져 (8절) — 떨어져, 멀리서
[Sects] 교파 (5~6절) — 종교 집단	[Incessant] 그칠 새가 없었다 (9절) — 계속 되는, 그치지 않는
[Zeal manifested by the respective clergy] 여러 교회의 목사들이 ...	[Sophistry] 꾀변 (9절) — 그릇된 추론, 현혹
나타냈던 큰 열의 (6절) — 다른 종파의 성직자들은 열의를 보였다	[Tenets] 교리 (9절) — 신조
	[Upbraideth, upbraid] 꾸짖지 (11, 13절) — 혼내다, 징계하다

[Personages] 분이, 분께 (17~18절) — 각각 다른 인격체들
 [Contempt] 경멸 (21절) — 무례, 멸시
 [Reviling] 비방 (23절) — 무례하고 욕설에 찬 언어
 [Sectarian world] 세상의 교파 (26절) — 다양한 교회 또는 종교
 [Vocations] 생업 (27절) — 직업, 일
 [Deluded] 미혹되었다고 (28절) — 속임을 당하다
 [Foibles] 약점 (28절) — 작은 약점들
 [Malignant] 사악한 (28절) — 해로운
 [Levity] 경망한 언행 (28절) — 경박한 마음, 신중하지 못함
 [Jovial] 명량한 (28절) — 유쾌한, 즐거운
 [Manifestation] 나타내심 (29절) — 의사 소통
 [Exquisite] 지극히 (31절) — 심한
 [Former inhabitants] 옛 주민 (34절) — 앞서 살았던 주민들
 [Constituted] 되었으며 (35절) — 구성된, 형성된
 [Stubble] 지푸라기 (37절) — 곡식을 추수하고 난 후에 남아 있는 마른 줄기
 [Conduit] 통로 (43) — 통로, 경로
 [Musing on the singularity] 특이한 광경을 마음에 두고 (44절) — 그 특이한 일을 깊이 생각하고
 [Desolations] 황폐 (45절) — 멸망
 [Pestilence] 역병 (45절) — 질병, 전염병
 [Indigent circumstances] 궁핍한 형편 (46절) —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

[Owing to the distinctness] 뚜렷했던지라 (50절) — 그 분명함 때문에
 [Conducted] 인도되어야 (54절) — 인도되는
 [Prevalent] 세상에 널리 퍼진 (56절) — 여기저기서 이야기되는
 [Was put to board]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57절) — 방을 얻어 기숙하고 있었는데
 [Endeavors] 온 힘을 다하여 (59절) — 노력을 다하여
 [Strenuous exertions] 격렬한 수단 (60절) — 강력한 시도
 [Stratagem] 술책 (60절) — 계획, 음모
 [Intolerable] 견딜 수 없게 (61절) — 참을 수 없게
 [Literary attainments] 문학에 조예가 깊기로 (64절) — 고대 언어에 관한 지식
 [Sanctioned] 인정하였다 (65절) — 찬성하다, 동의하다
 [Sent to the school]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66절) — 그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Ensuing] 다음 (68절) — 다음
 [Ordained] 성임하여, 성임하였다 (68, 71절) — 안수에 의해 임명되었다
 [Confer, conferred] 부여하노라, 부여되리라, 부여한, 부여될 (69~70, 72절) — 주다, 주었다
 [Attain to] 얻을 수 (74절) — 이루다, 달성하다
 [Owing to] 인하여 (74절) — 때문에
 [Counteracted] 저지되었으니 (75절) — 못하게 하다

조셉 스미스-역사 1:17 — 첫번째 시현의 중요성



당시 심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예전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을 이렇게 열거했다.

“첫번째 시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체를 지니신 분으로 존재하시며 그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증거함”
- “2. 예수님은 개체이시며 아버지와 분리된 분이심”
- “3.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 의해 그의 아들로 선포됨”
- “4. 예수는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계시의 근원이심”
- “5.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야고보의 약속이 성취됨”
- “6. 조셉 스미스를 파괴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의 실제의 존재가 있었음”
- “7.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부터의 배도가 있었으나 조셉은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의 어느 종파에도 가담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음”
- “8.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었음” (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101~102쪽)

조셉 스미스-역사 1:19 — “그 신자들은 모두 부패하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겪은 체험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의 성직자 (목사와 교사)들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조셉 스미스-역사 1:5~6, 8~10, 12, 21~23 참조) 제일회화장단 보좌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백 만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 여러 세기에 걸쳐 자신들의 표준에 따라 정직하고, 참되며, 의롭게 생활하였던 수백, 수천 만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

“그러나 주님께서 조셉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제도가 오류에 기초하여 수립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n the Way to Immortality and Eternal Life [1949], 442~443)

조셉 스미스-역사 1:66 —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었기에”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지역 학교의 교사가 수업료를 받는 대신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머무르는 것이 관례였다.

조셉 스미스-역사 1:68~72 —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침례를 받은 후 왜 서로를 성임했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침례 요한은 “신권을 부여한 후 조셉과 올리버에게 물 속으로 내려가서 서로를 침례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서로 침례를 베푼 후 서로 안수를 하고 요한이 그들에게 부여했던 신권을 다시 부여해야 했다. 그들이 이렇게 하라는 명을 받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침례 전에 신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된 교회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되므로 그들은 침례를 받은 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로에게 신권을 부여하라는 명을 받았다. 둘째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천사가 그들을

대신해 주었다. 산 자 가운데 신권의 열쇠를 지닌 사람이 없었기에 절정의 경륜의 시대에 아론 신권의 열쇠를 가진 사자가 파송되어 이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필멸의 인간이 행할 수 없다고 해서 장막 저 편에 있는 자들이 지상의 산 자를 위해 의식을 집행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늘의 질서에 위배됨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산 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한은 현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먼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침례한 다음 그들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을 것이다" (Essentials in Church History, 27th ed. [1950], 57~58)



사스캐하나 강

경전을 공부함

조셉 스미스-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사 중 네 가지를 한다.

가 짧은 조셉 스미스 이세 알아 보기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20절을 찾아서 노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조셉 스미스의 부모,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2. 조셉이 어느 교회가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이유를 설명한다.
3. 기도를 하여 주님을 찾도록 조셉에게 영감을 주었던 성구를 찾은 다음, 여러분 경전의 성구에 표시를 하고 여러분 자신의 표현으로 그 의미를 설명한다.
4. 우리가 첫번째 시현에서 배운 내용중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사실을 열거하고, 그 사실들에서 여러분이 감명을 받은 이유를 설명한다. (필요한 경우 "경전을 이해함" 편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나 성구 익히기 — 조셉 스미스-역사 1:15~20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4~20절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기사를 상고한 다음, 조셉 스미스가 1820년 봄날에 기도로 인도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을 기회와 축복과 기쁨은 어떤 것인지 부모 또는 교회 지도자와 함께 토론한다. 여러분이 토론한 내용을 한 단락으로 적어 본다.



© 1989 Al Rounds

다 사실 찾기

조셉 스미스-역사 1장 27~54절을 찾아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27절에 따르면, 첫번째 시현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는가?
2. 1823년 9월 21일에 조셉 스미스가 기도로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 조셉 스미스의 신앙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3. 그 날 밤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4. 그 천사는 조셉 스미스의 이름에 관해 어떤 예언을 했는가? 그것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5. 조셉 스미스는 금판이 묻혀 있는 장소를 어떻게 알았는가?
6. 천사는 그 날 밤과 그 다음 날 조셉에게 몇 번이나 나타났는가? 그 천사가 왜 그렇게 여러 번 나타났다고 생각하는가?

라 퀴즈 만들기

조셉 스미스-역사 1장 66~75절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조셉 스미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한 각주(조셉 스미스-역사 1장 끝에 있음)를 복습한 다음, 66~75절을 이용하여 답변할 수 있는 다섯 개의 퀴즈 문제를 만들고, 각 퀴즈 뒤에 답변을 적도록 한다.

마 간증 적기

조셉 스미스-역사를 읽은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에 관한 소감을 한두 단락으로 적어 본다.

바 일지 적기

조셉 스미스-역사 1장 27~54절의 모로나이의 방문을 읽은 후, 모로나이서 1장 1~4절과 10장 1~6절을 읽는다. 여러분이 만일 판들이 번역되기를 1,400년 이상이나 기다리던 끝에 조셉 스미스를 방문한 모로나이였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인지를 일지에 적는다.

사 사건 그리기

조셉 스미스-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감명을 받은 사건 하나를 그림 한 장으로 그려본다. 여러분은 그 사건에 대해 어떤 감명을 받았는지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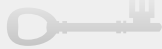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소개 페이지

책에 대해 알아보기

교리와 성약의 첫 페이지에는 소개 및 배경 정보가 실려 있다. 표제지는 책의 이름, 내용에 관한 간략한 해설, 출판 정보를 담고 있다. 소개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떻게 입수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소개에는 또한 우리 시대의 최초 사도들이 이 계시가 참되다고 증거한 간증이 실려 있다. 사건 연대표는 계시를 받은 시기 및 장소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소개 페이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교리와 성약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책을 공부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를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표제지

[His successors] 계승자들 — 그의 다음에 오거나 그의 뒤를 이은 사람들

해설

[Temporal] 현세적 (1단락) — 육체적인, 세속적인

[Compilation] 편집된 책 (2, 9단락) — 모음집

[Initiated] 시작된 (3단락) — 시작되었다.

[Preparatory to] 준비로서 (3단락) — ~에 대비하여

[Concert] 합치되는 (3단락) — 일치

[Divine manifestations] 신성한 여러 나타내심 (4단락) — 하늘의 방문자가 나타남

... 십이사도의 간증

[Grace] 은혜 (13단락) — 은사와 권세 : [Theological] 신학 (16단락) —
[Successive] 이후의 (15단락) — 후에, :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관한 진리
나중에 : [Evident] 명백한데 (18단락) —
[Competent assemblies] 합법적인 : 명확한, 분명한
성회 (15단락) — 적절하거나 승인 : [Perpetuated] 존속되어 (18단락) —
받은 집회 : 계속되는

소개 — 정경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교리와 성약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교회의 승인된 경전 (중중 “표준 경전” 또는 “정경”이라 불리움)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으며, 계시는 중단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제일회장단 보좌였던 휴 비 브라운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을] 보았던 숲에서 나왔을 때, 그는 적어도 네 가지 기초적인 진리를 배웠으며, 그것들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이며, 둘째는 정경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셋째는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며, 넷째는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의사 소통의 통로가 열려서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in Conference Report, 1967년 9월~10월, 120)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계시의 부재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미친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이 정경은 완결되었다고 믿는다면, 과거 선지자의 말씀만으로 자신의 영을 키우고자 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줄 선지자와 사도들이 없어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계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계시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거의 예언은 오직 높은 곳에서 권세를 부여받고 또 고대의 말씀을 전해 주신 동일한 성령에 의해 이해의 눈이 열리게 된 살아 계신 선지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다만 그들에게 열려져 있는 진로만을 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해석자, 서기관, 성직자, 신학자에게 의지하여, 고대의 말씀의 의미를 영성보다는 지성에 의해 해석하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려 할 것입니다.” (The Mortal Messiah: From Bethlehem to Calvary, 4 vols. [1979~1981])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소개 페이지를 읽으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해답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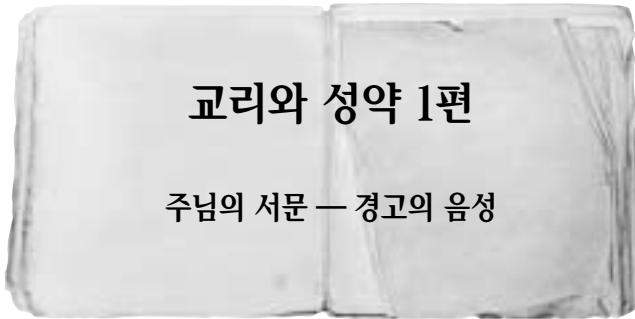
소개와 내용의 연대순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이 계시들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2. 어느 기간 동안에 70개 이상의 계시를 받았는가? 그렇게 많은 계시가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한 번에 그 모든 계시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 만일 ~하면 어떠했을 것인가?

소개 페이지와 “경전을 이해함” 편에서 읽은 내용을 기초로, 현대의 계시를 받을 살아 계신 선지자가 없다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한다.



책의 서문에는 저자의 저술 목적이 나타난다. 교리와 성약 1편은 후일에 주어진 주님의 계시의 책에 대한 그분의 서문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받는 현대의 선지자를 부르셨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는 살아 계신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것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교회 회원들도 있다. 1편을 읽어 나가면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경고를 주셨는지를 주목한다. 그러한 내용은 이 책에서 내내 반복되고 있는 주요 주제들이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편

- [Compilation] 편집 (머리글) — 수집
- [Hearken] 들으라 (1절) — 듣고 순종하라
- [Penetrated] 꿰뚫리다 (2절) — 관통하다, 영향을 받다
- [Iniquities] 죄악 (3절) — 죄, 간악함
- [Stay] 막지 (5절) — 멈추게 하다
- [Inhabitants of the earth] 땅의 주민 (8, 13절) — 지상에 사는 사람들
- [Seal] 인 칠 (8~9절) — 배정하다, 지명하다, 또는 따로 떼어 놓다
- [Recompense] 보응하며 (10절) — 갚다
- [Measure] 헤아리는 (10절) — 주다 또는 나눠 주다
- [Kindled] 불붙고 (13절) — 깨우다, 일으키다
- [Babylon] 바벨론 (16절) — 세상의 간악함에 대한 상징
- [Calamity] 재앙 (17절) — 재난, 고생, 대재해
- [Obscurity] 희미한 (30절) — 알려지지 않은 상태
- [Dominion] 영토 (35절) —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교리와 성약 1:6 — “나의 계명의 책에 붙이는 나의 서문이니라”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교리와 성약 1편이 가장 먼저 받은 계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계시를 그분의 계명의 책의 서문으로 주셨기 때문에 1편에 넣었다. 교리와 성약은 주님께서 친히 서문을 주신 영광을 누린 유일한 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책과 구별되고 이 책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분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책이므로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이 책은 조셉 스미스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술하신 책으로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께서 교회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으며, 그 목적은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 번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편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계시는 1831년 11월 1일과 11월 2일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열린 훌륭한 대회에서 주어진 것이었으며, 이 때 계명의 책의 출판을 고려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출판을 승인하셨는데, 이는 자신의 뜻이 알려져야 한다는 그분의 바람 때문이었다.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다시 한 번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교회의 장로들이 파송되었다. 이 서문을 통하여 계시들에 대한 주님의 승인을 확인받게 되었으며, 계시들은 이 승인을 계기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전해지게 되었으며, 이 계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 특히 교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계시에 담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을 그들이 통감하게 하였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2 vols. [1953], 1:251~252)

교리와 성약 및 계명의 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본 교재의 “교리와 성약의 역사”(233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라와 나머지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성구 요약 익히기

교리와 성약 1편 1절의 앞에 나와 있는 성구 요약을 주의 깊게 읽는다. 요약 가운데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두 가지 주제를 노트에 열거한다. 교리와 성약 1편을 읽은 후에 두 주제의 각각에 대해 배운 내용을 요약한다.

나 파악하기 — 누가, 무엇을, 언제, 왜

1. 노트에 네 개의 난으로 된 도표를 그리고 각 난에 다음의 제목을 붙인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은 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 교리와 성약 1편 1~16절에서 읽은 내용을 이용하여 상기 질문에 대해 찾은 답을 도표에 채워 넣는다.
3. 여러분이 가정의 밤 공과에서 이 성구를 다루고자 할 경우, 가족들이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다 재앙에서 살아 남는 방법

주님은 교리와 성약 1편 1~16절에서 악인에게 딱칠 재앙에 대해 경고하셨다. 17~30절에서는 그러한 재앙에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께서 하실 일을 설명했다. 31~39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는가? (17~18절 참조)
2.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9~23절 참조)
3. 그들이 부름을 통하여 명 받은 일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24~30절 참조)
4. 주님의 종들은 그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가?
5.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한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31~39절 참조)
6. 여러분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라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1:37~38

세미나리에서 교리와 성약을 읽어야 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그 책에는 물몬경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어. 왜 그 모든 계시들을 다 읽어야 하지?” 교리와 성약 1편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그 친구에게 답장을 적는다.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37~3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를 몇 가지 든다.

교리와 성약 2편

모로나이의 방문



1823년 9월 21일, 조셉 스미스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관해 하나님의 계시를 구했다. (조셉 스미스-역사 1:29 참조)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 모로나이가 그의 가족이 사는 통나무 집 이층의 침실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로나이는 밤새도록 어린 선지자를 가르쳤다. 교리와 성약 2편은 모로나이가 가르친 내용의 일부만을 소개하고 있다. (조셉 스미스-역사 1:30~54 참조; 모로나이의 예언 성취에 대한 기록은 교리와 성약 110편에 나와 있으며, 이에 대한 공부는 거기서 하도록 한다.) 2편을 읽어 나가면서 이 계시가 왜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스미스-역사 1:30~54 참조; 모로나이의 예언 성취에 대한 기록은 교리와 성약 110편에 나와 있으며, 이에 대한 공부는 거기서 하도록 한다.) 2편을 읽어 나가면서 이 계시가 왜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2편

[Reveal] 드러내리라 (1절) — 알려지게 : [Utterly wasted] 완전히 황폐하게 하다 : (3절) — 완전히 멸망되어 황량하게
 [Day of the Lord] 주의 ... 날 (1절) :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

교리와 성약 2:1 — “나는 ...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1829년 초에 조셉과 올리버는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어 사도로서의 권세와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신권을 나타낼 것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엘리야는 이 경륜의 시대에 그 당시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던 신권의 열쇠와 인봉의 권세를 전하기 위해 1836년에

[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파송되었다. 엘리야는 일라이어스에 의해 전해진 권세를 통해 [멜기세덱 신권의] 족장의 반차에 따라 조직된 가족을 영원히 결봉하고 인봉할 수 있는 열쇠를 회복했다” (Joseph Fielding McConkie and Robert L. Millet, *Joseph Smith: The Choice Seer* [1996], 187)

교리와 성약 2:1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인가?

모로나이가 재언급한 말라기의 예언에 관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예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의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불경한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회개하지 않고 죄가 많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화평과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의 권능이 회복되어 이루어질 위대한 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의 힘은 참으로 강하여 지구를 멸망에서 구하고 저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 2:100)

교리와 성약 2:2 —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은 무엇인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 표현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승영과 관련된 신권의 인봉 의식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돌아가신 이들에게 하신 어떤 약속을 일컫는 것이다. 이 약속에 따르면, 후일에 자녀들은 돌아가신 이들을 대신하여 그러한 모든 의식을 집행해야 한다.” (“The Promises Made to the Fathers”, *Improvement Era*, 1922년 7월호, 829쪽)

교리와 성약 2:3 — 엘리야가 오지 않는다면 왜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왜 땅이 황폐케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를 이어 주는 결봉의 사슬, 곧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버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서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128:15~18 참조] 그러나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 2: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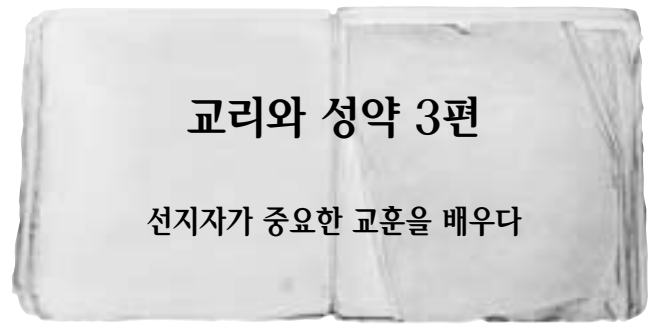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2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기사를 비교한다

교리와 성약 2편은 말라기 4장 5~6절을 천사 모로나이가 재언급한 것이다. 이 두 기록을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경전을 이해함” 편 참조)

1. 말라기 4장 5절을 교리와 성약 2편 1절과 비교한다. 모로나이는 말라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일을 엘리야가 할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말라기 4장 6절을 교리와 성약 2편 2절과 비교한다. 아버지(조상)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3. 말라기 4장 6절을 교리와 성약 2편 3절과 비교한다. “저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 엘리야가 오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생활에 일어났거나 일어나게 될 변화를 설명하는 두세 개의 문장을 적어 본다.



교리와 성약 3편

선지자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다

마틴 해리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금판에서 번역한 처음 116쪽의 원고를 잃어버렸다. 교리와 성약 10편과 함께 교리와 성약 3편은 일부 원고의 분실 때문에 선지자 조셉이 받은 계시이다. 3편에서 주님은 조셉 스미스가 잘못을 저지른 일과, 선지자로서의 그의 부름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들에 대해 그에게 가르쳤다.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선지자의 느낌을 상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3편

[Custody] 맡았던 (머리글) — 보호 및 소유	· [Dictates] 지시 (4절) — 일러줌
[Scribe] 서기 (머리글) —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적는 사람	· [Carnal] 속된 (4절) — 육적인, 현실적인
[Naught] 허사, 무시 (1, 4, 7, 13절) — 아무 것도 아님	

교리와 성약 3:12 — 주님께서 왜 마틴 해리스를 “사악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는가?



마틴 해리스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물문경 번역을 받아 적고 있는 동안, 마틴은 분명히 속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내와 다른 사람들에게 번역된 부분을 가져 가서 보여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주님께 간구해 보도록 조셉에게 간청했다. 선지자 조셉은 그 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여쭙어 보았으며, 대답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여쭙어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으며 대답은 그 전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래도 그는 이에 만족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여쭙어 볼 것을 고집했다. 그의 간청에 못이겨 내가 다시 주님께 여쭙자,

조건부로 그 기록들을 오직 그의 형인 프리저브드 해리스, 아내, 부친과 모친, 그리고 처제인 코브 부인에게만 보여 주어야 한다는 주님의 허락이 마틴 해리스에게 떨어졌다. 이러한 마지막 응답에 따라서, 나는 지시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성약을 가장 성스러운 방법으로 나와 굳게 맺을 것을 그에게 요구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요구한 대로 나와 굳게 성약을 맺고 그 기록을 가지고 갔다. 하지만 엄격한 제약과 나와 굳게 맺은 신성한 성약의 엄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록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제약을 써서 그 기록들을 훔쳐갔고, 오늘날까지도 그 기록들은 회수되지 않고 있다” (History of the Church, 1:21)

마틴 해리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 (231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교리와 성약 3:14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한 동안 어떤 “특권”을 잃었는가?

116쪽의 원고를 분실한 이후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서 판과 우림과 둠뎀을 회수해 갔으나, 만일 조셉이 주님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일을 회개한다면 번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48~49쪽 참조)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3편을 공부하면서 다음의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교훈을 찾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16쪽의 원고를 분실하여 매우 당황했다. 교리와 성약 3편 1~8절을 복습하고 주님께서 선지자가 그 경험에서 배우기를 바라셨던 것을 적는다. 그 성구에 나와 있는 단어와 구절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답변을 정리한다.

나 선택과 결과

마틴 해리스는 젊은 선지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므로, 조셉 스미스가 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것은 당연하였다. 노트의 한 페이지를 세 개의 난으로 나누어 다음, 교리와 성약 3편 1~15절을 읽은 것을 기초로 다음의 목록을 만든다.

1. 첫번째 난에 마틴 해리스를 기쁘게 하려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잘못을 범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러한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열거한다.
2. 두 번째 난에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이 했었어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말씀한 내용과, 그가 순종했다면 받았거나 받게 되었을 축복을 열거한다.
3. 세 번째 난에 조셉 스미스가 범했던 실수와 유사하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택하는 그릇된 선택 몇 가지를 열거해 보고(특히 4, 6~7절 참조), 오늘날 그러한 선택에 대해 따르는 결과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우리가 8절에 있는 주님의 권고를 따른다면, 생활이 어떻게 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다 주님의 목적을 알아본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3편 19~20절에서 물문경 판이 보존된 목적(이유)을 설명했다. 여러분이 이 성구에서 찾은 목적(이유)들을 열거하고 또 1828년에 이 계시가 주어진 이후로 그러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4편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함



성공적인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모든 전임 선교사는 교리와 성약 4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4편은 불과 일곱 개의 성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4편에는 평생동안 공부해야 할 만큼 충분한 권고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4편의 내용을 완전하게 익히고 실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편의 내용은 조셉 스미스에게 개인적인 계시로 주어졌다고 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고 싶은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35)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과연 여러분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마틴 해리스



주님은 선교 사업의 수행을 곡식을 추수하는 일에 비유하셨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4편

- [Marvelous] 기이한 (1절) — 놀라운, 신성한
- [Embark] 나서 (2절) — 시작하다, 출발하다
- [Sickle] 낫 (4절) — 곡식을 추수하기 위한 휘어진 칼
- [Temperance] 절제 (6절) — 중용, 자제



교리와 성약 4편 — 조셉 스미스의 아버지

조셉 스미스 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231쪽)를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4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행한다.

가 해답 찾기

교리와 성약 4편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에 적는다.

1. 주님을 섬기고자 부름 받은 사람들의 요건은 무엇인가? (2절 참조)
2. 이러한 방법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는가? (2, 4절 참조)
3. 기이한 일을 추수에 어떻게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1, 4절 참조)
4.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절 참조)
5. 봉사하도록 부름 받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5절 참조)
6. 열거된 네 가지 덕목과 더불어 주님의 종이 명심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5절)
7. 여러분은 봉사를 하고 싶으나 이러한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7절 참조)

나 약속을 시험한다

1. 교리와 성약 4편에 언급된 특성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보다 완전하게 기르고 싶은 특성을 하나 선택한다. 그것을 카드에 적어서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놓는다. 교리와 성약 4편 7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러한 특성을 키우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 적어도 한 주일 동안 매일 그러한 특성을 키우는 일에서 거둔 진전 상태를 여러분의 개인 일지에 한 단락으로 요약하여 적는다.
2. 주말에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요약하여 노트에 적는다.

교리와 성약 5편

물몬경의 견증자가 약속되다

마틴 해리스는 물몬경 번역 원고 116쪽을 분실하게 된 원인인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으나 (교리와 성약 3편 참조),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실제로 금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를 여전히 원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반대로, 주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종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주신다. 그러한 증거는 종종 특별히 부름 받은 증인들이 제공한다. 주님께서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고 약속하셨다. 물몬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니파이후서 27:12) 세 명의 증인에게 금판이 보여질 것이라는 예언이 실려 있다. 교리와 성약 5편에서는 마틴 해리스가 어떤 조건을 이행한다면 그의 소망이 허락되어서 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17편은 이 특별한 증인이 된 세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시이다. 이 편들을 읽어 나가면서,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찾아본다.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

올리버 카우드리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5편

[Ordained] 성임을 받고, 성임 받지 (6, 17절) — 권능을 받다, 지명을 받다	[: [Desolation scourge] 황폐하게 하는 채찍 (19절) — 파멸적인 재앙
[Reserved] 보존하여 (9절) — 은밀히 지켜지다	[: [Verified] 입증되어 (20절) — 참됨이 밝혀지다
[Entrusted unto you] 맡겼던 (9절) — 보호하도록 맡겨지다	[: [Acknowledge] 시인하지 (28절) — 인정하다, 고백하다
	[: [Prolonged] 길어질 (33절) — 확장된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5편을 공부하면서 다음의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친구에게 설명한다

비회원 친구와 물몬경에 관해 토론하다가 금판이 박물관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한다. 교리와 성약 5편 1~9절을 사용하여 조셉 스미스가 번역을 끝낸 후에 천사 모로나이가 판을 다시 가져간 이유를 설명한다.

나 정의를 적는다

교리와 성약 5편 10~16절은 물몬경의 참됨을 증거하게 될 세 증인을 소개하고 있다.

1. 이 성구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유를 초등회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증인이라는 낱말의 정의를 간단하게 적는다.
2. 교리와 성약 5편 25절과 물몬경의 앞 부분에 있는 “세 증인의 증언”을 복습한다. 이 사람들이 금판을 보고 물몬경의 참됨에 관해 증거하였음을 아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다 상황 가정 하기

교리와 성약 5편 16~24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경우 일일날 일들에 관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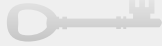
1. 그분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16절 참조)

2. 사람들이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가? (18~20절 참조)
3.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하셨는가? 그가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1~22절 참조)
4. 주님께서 마틴 해리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하셨는가? 그가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교리와 성약 6편에서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올리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경우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올리버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해 기도했을 때 느꼈던 그런 평안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6편

[Asunder] 번역 안되어 있음 (2절) — 여러 조각으로	[Enlighten, enlightened] 밝혀 깨닫게, 깨닫게 (15절) — 전하다, 가르침을 받다
[Sickle] 낫 (3~4절) — 곡식을 추수하기 위한 휘어진 칼	[Admonish] 훈계하고 (19절) — 바로 잡다, 단련시키다
[Generation] 세대 (8~9절) — 이 시대 또는 시기의 사람들	[Touching one thing] 한 가지 일로 (32절) — 동의하여, 하나가 되다
[Trifle not with] 소홀히 다루지 (12절) — 가벼이 또는 부주의하게 대하지 않다	

교리와 성약 6편 — 올리버 카우드리는 누구인가?

올리버 카우드리에 관한 내용을 알기 위해,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231~232쪽)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6:2 — 말씀의 권세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권세를 묘사하기 위해 어떤 인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셨다. 하늘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개념은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Quick라는 낱말은 여기서 “신” 또는 “살아 있는”을 의미한다. “양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함께 쪼개기까지 하나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관통할 수 있는지를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다. (니파이전서 16:1~2 참조)

교리와 성약 6:6 — “시온의 대업”

시온이라는 낱말은 교리와 성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 (233쪽 참조)]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시온은 의로움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는 주님의 노력을 나타낸다.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기를 구하라”는 것은 복음의 전파를 촉진하고 또 성도들의 의로움을 증대시키라는 뜻이다.

교리와 성약 6:10~11 — 올리버 카우드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은사는 계시의 영이었다. (교리와 성약 8:3~4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그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그를 위한 보호책이 될 것이며, 그를 적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고, 파괴자에게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가르쳤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52)

교리와 성약 6:14~24 — 올리버 카우드리는 어떤 증거를 받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가 이 계시를 받은 후, 올리버 카우드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숙하기 위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우리 가족으로부터 내가 금편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후,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일들이 사실임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완전히 비밀에 붙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계시를 받고 나서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제외하고 산아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도 계시로 언급된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1:35)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6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비교한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6편에서 형상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다음의 표현을 노트에 옮겨 적고 나서 1~5절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하여 옮겨 적은 표현들을 완성한다.

1. ... 이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는 검에 비유할 수 있다.
2. ... 이기 때문에 선교부는 농장에 비유할 수 있다.
3. ... 이기 때문에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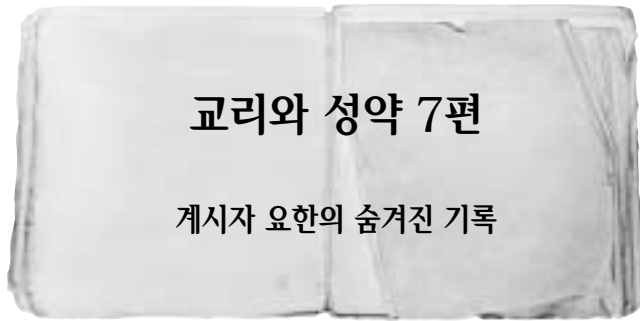
나 부유하고 행복해지는 방법

1. 교리와 성약 6편 7, 13절을 니파이전서 11장 21~23절에서 니파이가 배운 것과 비교한다.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에 관해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설명한다.

- 이상의 성구에서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에 관해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를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가?
- 세상적인 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구원과 영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한다.

다 계시가 전해지는 방법을 이해함

- 교리와 성약 6편 14~24절을 읽고, 조셉 스미스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음을 올리버 카우드리가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필요하다면, “경전을 이해함” 편도 참조한다)
-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 6편 14~24절에서 감명을 받은 두 구절을 택하여 여러분 자신의 생활에서 계시를 받기 위해 이 성구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1829년 4월 내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의 서기 일을 맡고 있던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물문경 판의 번역을 계속했다. 선지자는 이 계시를 받게 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신약 성서에 언급된 사도 요한의



기사요한복음 21:20~23 참조와 관련하여 요한이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였는데, 우리는 우림과 둠뎀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History of the Church, 1:35~36)

교리와 성약 7편을 읽어 나가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요한은

그가 전에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구주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7편

- [Parchment] 양피지 (머리글) — : [Minister for] 성역을 베푸는, 성역을 기록을 위해 준비된 양 또는 염소의 가죽
- [Tarry] 머물러, 머물게 (3~4절) — : 배풀리라 (6~7절) — 섬기다, 돕다
- 남다, 뒤에 남다 : [Keys] 열쇠 (7절) — 권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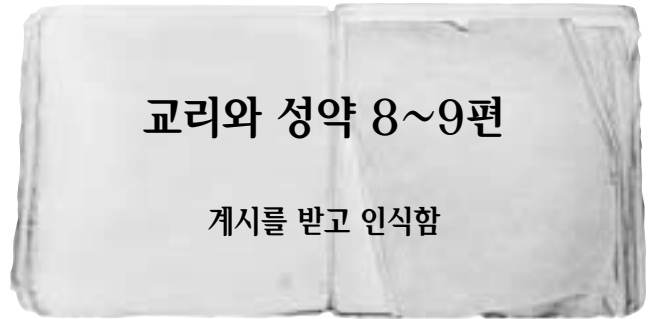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7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한 문장으로 대답한다

교리와 성약 7편의 머리글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주님께 여쭙었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과의 교리와 성약 7편 소개 편 참조) 7편에서 읽은 내용을 이용하여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문장으로 적는다.

- 요한의 소망과 베드로의 소망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여러분은 7편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 여러분이 의로운 소망에 관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



충실한 자는 성신을 통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리와 성약 6편에서 계시의 은사, 특히 고대의 기록을 번역할 수 있는 권세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올리버가 나중에 깨달았듯이, 계시를 받는 일은 그저 간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칠십인이었던 에스 딜워스 영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 중에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영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흥미 있고, 감격적인 체험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영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기쁨을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받는 시점을 아는 것을 배워야 하며, 경우에 따라 그것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배워야 합니다.” (in Conference Report, 1959년 4월, 59) 번역하는 권세를 갖기 위해 올리버 카우드리가 이행해야 했던 의무와, 번역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들은 얘기를 유의해서 교리와 성약 8~9편을 읽어 본다. 또한 이 계시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관해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유의하여 읽도록 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8편

- [At the Prophet's dictation] 선지자의 : [Assuredly] 확실히 (1절) — 확실히 구술 (머리글) — 선지자가 말하는 동안
- [Supplication] 간구 (머리글) — 기도 : [Trifle not] 소홀히 다루지 말라
- : (10절) — 가변이 취하지 말라



모세가 계시의 영으로 홍해를 가르다

교리와 성약 9편

[Admonished] 훈계 받았고 (머리글) — : [Expedient] 필요하지 (3, 10~11절)
 조인 받다 — 적절한, 바람직한
 [Commence] 시작하였으므로 (1절) — : [Stupor] 둔하여져 (9절) — 혼동, 의심
 시작하다

교리와 성약 8:6~8 — “아론의 은사”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된 또 다른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론의 은사였다. 대변인 자격으로 지팡이를 손에 쥐고 모세 앞에서 나아가던 아론처럼, 올리버 카우드리 역시 조셉 스미스 앞에서 나아가야 했다. 만일 신앙과 지혜로 구하기만 한다면 그가 주께 이 은사의 권세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질 터이었다. 올리버는 조셉 스미스와 함께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지니는 축복을 받았으며, 또 아론처럼 여러 번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이 경륜의 시대에서 최초로 대중 설교를 한 사람은 바로 올리버였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52)

교리와 성약 9:7~9 — 영은 항상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 한 주님의 계시도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후에야 확증을 받게 됩니다.”

“1829년 4월에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받은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올리버가 물문경을 번역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는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9:7~8)

“이것은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못 받아들여지는 가르침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영의 가르침은 흔히 느낌으로 옵니다. 이 사실은 지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뜨거운’ 것을 느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신으로부터 오는 증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가슴이 뜨겁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연소로 인한 발화와 같은 열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미라면 나는 한번도 가슴이 뜨겁다는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전에 나오는 ‘뜨겁다’라는 말은 위안과 평온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란 문자 그대로 ‘고요하고 작은’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99년 5월호, 22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8~9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 또는 다를 한다.

가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8:2~3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나는 사도로서 똑같은 근원으로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어린 소년이었을 때 들었던 것과 똑같은 영감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그 신호는 훨씬 더 분명합니다.”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33쪽)

1. 교리와 성약 8편 1~3절을 공부하고 성신이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한다. (이노스서 1:10 참조)
2. 성신이 마음에 이야기할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니파이전서 17:45 참조)
3. 패커 장로가 영감의 음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고 있다고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교리와 성약 8편 1절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나 교리의 요약

1. 교리와 성약 6편 23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 주님은 교리와 성약 8편 2~3절을 통해 계시가 전해지는 방법에 대해 어떤 점을 그에게 추가로 가르치셨는가?
3. 올리버 카우드리가 교리와 성약 9편 7~9절을 통해 번역하는 동안 답을 얻는 것에 관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
4. 계시를 받는 과정에 관해 배운 이 구절들을 통해 내용을 요약해 한 단락으로 적는다. (“경전을 이해함” 편 참조)

다 배운 교훈을 적는다

1.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8편에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교리와 성약 9편에서 그에게 번역을 계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를 읽고 요약한다.

- 우리가 이 계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적는다.
- 여러분이 요약한 내용이 주님께 영감을 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3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판에서 번역해 놓았던 116쪽의 원고를 마틴 해리스가 분실하게 된 경위를 읽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편에서, 116쪽의 원고에 생긴 일과 사탄이 원고를 이용하려는 계락을 계시로 알려 주셨다. 더욱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분실된 부분의 약용을 막기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10편을 공부하면서, 그분의 사업을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흥계를 비롯하여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과정을 사전에 통제하실 수 있는 그분의 권세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찾아본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간구하고 원고를 주의해서 간수하겠다는 약속을 어김으로써, 비록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말았다.

교리와 성약 10:30~45 — 주님께서서는 처음부터 그 결말을 알고 계셨다



주님은 116쪽의 원고 분실로 말미암아 사탄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을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2000여 년 전에 한 방편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선지자 니파이에게 그 잃어버리게 될 원고와 같은 시기의 내용을 포함하는, 또 하나의 판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이 두 판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그 잃어버린 부분은 역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반면에, 다른 판은 예언적이고 신성한 기록을 많이 담고 있다는 점이다. (니파이전서 9:3~6, 몰몬서 1:1~7 참조)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0편

[Alterations] 변경 (머리글) — 변화	· [Contradicted yourself] 스스로 모순에
[Discredit] 불신하게 (머리글) — 사람들을 설득하여 불신하게 만들다	· 빠졌다 (31절) — 전에 번역한 내용이 나중에 번역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Discrepancies] 일치하지 않은 것 (머리글) — 상이점	· [Generation] 세대 (33, 53절) — 시대 또는 시기의 사람들
[Abridgment] 요약 (머리글) — 축약판	· [Confound] 좌절시키리라 (42절) — 창피하게 하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다
[Alter, altered] 변경하게, 변경시킨 (10~11, 17절) — 바꾸게	· [Dissensions] 이반 (48절) — 불일치, 반역
[Contrary] 상반되게 (11절) — 다르게	· [Comprehended] 깨닫지 (58절) — 이해하다
[Iniquity] 죄악 (20, 29절) — 죄	· [Wrest] 곡해하며 (63절) — 의미를 왜곡시키다
[Condemnation] 정죄 (23절) — 유죄 선고를 받음	

교리와 성약 10:6 — 마틴 해리스는 어떤 방법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파멸시키려 하였는가?

마틴 해리스는 선지자를 파멸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몰몬경 원고 116쪽을 분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 (교리와 성약 3:13; 교리와 성약 3:12에 대한 “경전을 이해함” 편 (17쪽) 참조)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초래하고 말았다. 주님께서 마틴 해리스가 저지르게 될 행동을 미리 아시고 대비하지 않으셨더라면, 사탄과 그의 종들은 거짓말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파멸시키는 데 성공했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10:10~33 참조) 마틴은 주님의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0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머지 활동 나~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10:5

사탄이라는 낱말은 “원수” 또는 “반대자”를 의미하며, 의로움을 대적하는 적인 악마의 역할을 나타낸다. 사탄과 그의 종들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참혹함과 불행에 빠지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큰 권세를 지니고 계신다.

- 앨마서 34장 17~27절과 제3니파이 20장 1절을 읽는다.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교리와 성약 10:5)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 교리와 성약 10편 5절과 니파이후서 32장 8~9절을 전후 참조한다. 누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가?

나 사탄의 “간교한 계획”과 주님의 지혜를 비교함

- 노트 한 면을 두 개의 난으로 나는 다음 첫 번째 난에 “사탄의 간교한 계획”, 그리고 두 번째 난에 “주님의 지혜”라고 제목을 적는다.
- 교리와 성약 10편 6~29절을 읽고, 사탄이 마틴 해리스에게서 훔쳐간 116쪽의 원고를 약용하려는 계락을 꾸짖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첫번 째 난에 적는다.

- 30~45절을 읽고, 사탄이 성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두 번째 난에 적는다.
- 니파이전서 9장 3~6절과 물문서 1장 1~7절을 읽는다. 주님은 116쪽의 원고 분실로 인해 야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마 동안이나 대비하셨는지를 설명한다.

다 사탄의 방법을 안다

교리와 성약 10편 20~29절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 20~24절을 복습하고, 사탄이 사람들에게 진리와 대적하여 싸우게 하는 방법과,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25~29절을 공부하고, 사탄이 조셉 스미스의 적들에게 선지자와 물문경을 파멸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내용을 설명한다.
- 오늘날 단체 또는 개인이 어떻게 이와 동일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가?

라 초등회 공과를 준비한다

- 7세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초등회 안에서 교리와 성약 3편과 10편에 기록된 116쪽의 원고 분실에 대한 기사에 관해 가르칠 내용을 적는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에 관해 말하고,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그 교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11편

“만일 내가 원하면”

하이럼 스미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형이었다. (조셉 스미스-역사 4절 참조) 1829년 5월 그는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까지



여행하여 물문경의 번역 작업을 하고 있던 조셉과 그의 아내 에머, 그리고 올리버 카우드리를 방문했다. 하이럼은 그의 동생인 선지자에게 “간절한 요청”을 했다. 교리와 성약 11편에 있는 계시는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History of the Church, 1:45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영적으로 의미 심장한 일들이 전개될 때에는 언제나 의로운 욕망이 그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21쪽) 교리와 성약 11편을 공부하면서, 소망하다라는 낱말과, 주님이 소망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본다. 또한 계시에 담긴 많은 권고의 말씀은 여러분을 비롯하여 “좋은 소망을 품”(27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1편

[Supplication and inquiry] (머리글) 간구와 질문 — 기도와 겸손한 질문	• [Pertaining unto] 속한 것으로 (14절) — 관련되는
[Asunder] (번역 안되어 있음) (2절) — 여러 조각으로	• [Appeal unto] 호소하라 (18절) — 권고를 구하다
[Sickle] 낫 (3~4, 27절) — 곡식을 추수하기 위한 휘어진 칼	• [Cleave unto] 합하라 (19절) — 단단히 잡다
[Impart] 나누어 주리니 (13절) — 말하다, 알게 하다	• [Hold your peace] 잠잠하라 (22절) — 아직 전도를 시작하지 말라

교리와 성약 11편 — 하이럼 스미스

하이럼 스미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231쪽)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1:6 —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기를 구하라”

이 구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리와 성약 6편 6절의 “경전을 이해함” 편 (20쪽)과,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233쪽)에 있는 시온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1:9 — “이 세대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께서 그의 종들을 불러서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침례를 외쳐서는 안 된다거나 사람들에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종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영을 동반하여 말하고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57)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1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약속된 축복을 받음

1. 노트 한 면을 두 개의 난으로 나눈다. 한 난에 “약속된 축복”, 그리고 다른 난에 “축복을 얻기 위한 요건”이라고 제목을 적는다.
2. 교리와 성약 11편을 읽고 나서 주님께서 하이럼 스미스와 (“좋은 소망을” 품는 모든 이)에게 주시겠다고 한 축복들을 첫 번째 난에 열거한다. 각 축복과 함께, 여러분이 그 축복과 관련하여 찾은 성구를 기록한다.
3. 두 번째 난에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이럼 스미스 (또는 여러분)가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는다. 필요하다면 찾은 성구의 전후 구절도 살펴 보아야 한다.
4. 선교사 또는 부모님이 특히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축복과 요건 두 가지를 선택한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나 소망의 중요성

1. 교리와 성약 11편에서 원하다 또는 소망이라는 낱말이 들어 있는 성구들을 찾아 열거한다. (여러분은 이 낱말을 경전에 표시할 수 있다.)
2. 또한 니파이전서 11장 1절, 앨마서 29장 4절, 41장 3~6절 및 아브라함서 1장 2절을 읽고 복음 계획에서 우리의 소망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한 단락으로 적는다.
3. 당연히 행해야 하는 선행(매일 경전을 읽거나 자주 기도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영에 관해 배움

1.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11편 12~14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관해 무엇을 배우는가?
2. 이 구절에 묘사되어 있는 방법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영을 느꼈던 때를 적는다.

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주님이 교리와 성약 11편 21절에서 하이럼 스미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연스러운 말로 설명한다.
2. 말을 얻기 위해서 하이럼 스미스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나열하고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12편

“이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미처 조직되기 전에, 조셉 나이트 일세는 주님의 사업을 돕기를 원했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232쪽)에서 조셉 나이트 일세에 관한 내용 참조] 그는 교회가 조직된 직후에 교회에 입교하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그를 칭송했다. “시온의 아들들은 단 한 사람이 남아 있어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를 칭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History of the Church, 5:124~125) 교리와 성약 12편을 읽으면서 그가 이 사업을 보다 완전하게 도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유의한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나이트 형제처럼 “일하는 모든 자에게”(7절) 말씀하신다고 하신 점에 유의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2편 1~6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리와 성약 6편 1~6절과, 11편 1~6절의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 이 부분들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교리와 성약 12편

[Being temperate] 삼가 조심함 (8절) — 자제함

교리와 성약 12:8 — “사랑이 가득하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주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찬 사람은 그의 가족만을 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인류를 축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온 세상으로 그 축복의 경계를 넓힙니다.” (History of the Church, 4:227)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2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예를 들기

경전에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 지도자 중에서,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2편 8절에서 말씀하신 특성들 가운데 하나를 모범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에 관해 적는다. 그 사람이 그 특성을 어떻게 모범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특성은 그 사람이 주님의 사업을 더욱 훌륭히 행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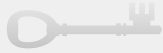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3편

아론 신권의 회복



아론 신권의 회복에 관해 조셉 스미스-역사 68~74절을 읽는다. 교리와 성약 13편은 조셉 스미스-역사 1장 69절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번엔 침례 요한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리상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3편

[Messiah] 메시아 (1절) — 예수 그리스도	...	[Immersion] 침수 (1절) — 물로써 완전히 덮이는 것
[Confer] 부여하노라 (1절) — 주다	...	[Remission] 죄 사함 (1절) — 용서
[Ministering of] ... 의 성역 (1절) — ... 에 의해 수행되는 봉사	...	

교리와 성약 13:1 — 신권의 열쇠

아론 신권이 어떤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론 신권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아론 신권의 열쇠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 (머리글) 라고 말한 것처럼, 아론 신권은 대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의 다스림을 받는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권과 그 열쇠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러한 열쇠는 제일회장단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지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주님의 일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힘이며 권위입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신권을 소유하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통할하고 조절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지시와 위임의 한도 내에서만 그 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권(멜기세덱과 열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그 외의 고대 선지자들에 의하여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신권과 열쇠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인수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일회장단의 권리로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선임 사도이신 교회의 회장만이 완전히 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73년 3월호, 18쪽)

교리와 성약 13:1 — 레위의 아들들

비록 모세가 멜기세덱 신권을 지니고는 있었으나, 모세의 율법은 아론 신권에 의해 집행되었다. (교리와 성약 84:23~27 참조) 오직 레위 지파 출신의 남자들만이 (레위인이라 불림) 아론 신권을 부여받았다. “레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모든 신권 소유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 구약 성서 시대에 모세의 율법의 희생 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레위인들의 의무였다. 오늘날 “레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충실하게 신권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교리와 성약 84:33~34 참조)이 되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된다.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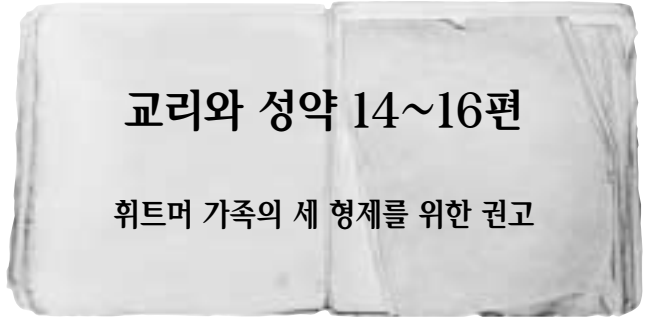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3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실천하는 신권

감독 또는 아론 신권 소유자가 아론 신권의 열쇠와 권세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방법을 이야기한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노트에 적는다.

교리와 성약 14~16편

휘트머 가족의 세 형제를 위한 권고



올리버 카우드리는 물문경을 번역하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도우며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 있는 동안 한 통의 편지를 뉴욕 주 페이엠티에 있는 그의 친구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적어 보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이 사업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관심을 보이며 답장을 보내어서 언제든지 돕겠다고 했다.

1829년 5월 하순에 펄박으로 물문경의 번역이 방해받고 있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편지를 적어 번역을 끝내기 위해 그의 가족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의 아버지 피터 휘트머 일세는 동의했으며, 200 킬로미터가 넘는 하모니까지 마차를 타고 와서, 조셉 스미스와 그의 아내 에머 그리고 올리버 카우드리를 태우고 페이엠티로 돌아왔다. 그 직후에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14~16편에 있는 계시를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자 했던 피터 휘트머 이세, 존 피트머, 그리고 데이비드 휘트머의 요청에 따라 조셉 스미스가 주님께 간구하여 받은 계시이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에서 휘트머 가족에 관한 내용,” (232쪽) 참조]

주님께서 여러분이 행하기를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이 세 편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주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주신 권고 가운데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데이비드 휘트머



존 휘트머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4편 1~7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리와 성약 11편 1~7절과 12편 1~6절에 대한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4편

[Utterance] 말하게 하는 (8절) — 발언 : [Temporally] 현재적으로 (11절) —
: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교리와 성약 15편 및 16편

[Sharpness] 날카로움 (2절) —
정확함, 명확함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4~16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가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14:7

1. 노트 크기 만한 종이에 교리와 성약 14편 7절에 있는 개념을 나타내는 포스터를 만든다.
2. 경전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거의 대부분 승영을 말한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교리와 성약 14편 7절을 니파이후서 31장 20절과 비교한다. 니파이후서 31장 20절은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4편 7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 네게 가장 값 있는 일



1. 존 휘트머와 피터 휘트머에게 가장 값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교리와 성약 15:6; 16:6 참조)
2. 다른 무슨 일보다도 이 일이 가장 값 있는 일이 되는 이유를 적어도 두 가지 열거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History of the Church, 2:478)

교리와 성약 17편

세 사람의 특별한 견증자를 위한 계시

교리와 성약 17편의 머리글은 물문경이 후일에 출현하게 될 때 세 사람이

특별한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물문경에 세 번 언급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17편은 그러한 증인이 되기를 원했던 세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이다. 그들은 이 계시를 통해 스스로 준비하여 그러한 증인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명을 받았다. 여러분은 17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물문경과 기타 영적 진리들의 참됨에 관해 간증을 얻거나 강화시키고자 할 때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 그리고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고를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7편

[Prior to] 앞서 (머리글) — 전에 : [Prevail] 이기지 (8절) — 승리하다
[Designated] 지정되리라는 (머리글) — [Grace] 은혜 (8절) — 하나님에게서 선택되는 : 오는 힘과 권세
[The miraculous directions] 신기한 : [Sufficient] 족함이요 (8절) — 필요한 지시기 (1절) — 리아호나 (니파이전서 16:10, 28~29; 엘마서 37:38~42 참조) : 만큼 넉넉한

교리와 성약 17편 — 이 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약속된 증거를 받았는가?



이 세 사람이 언고자 했던 증거는 17편의 계시가 주어진 직후에 받게 되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데이비드 휘트머, 올리버 카우드리, 그리고 마틴 해리스는 휘트머의 집에서 가까운 숲으로 갔다. 그곳에서 네 사람은 열렬한 기도를 통해 약속된 증거를 간구했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결국 마틴 해리스는 자신이 함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먼저 자리를 떴다. 그가 혼자

떨어져서 용서를 구하는 동안 나머지 세 사람은 놀라운 시현을 받고 또 그들이 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를 찾으러 갔다. 선지자가 합류하여 그와 함께 기도했으며, 얼마 후에 마틴 해리스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았던 것과 같은 시현을 받았다. 물문경의 앞 부분에 있는 “세 증인의 증언”은 그 경험을 묘사한 글이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세 목격자가 그 책 자체에 있는 간증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듯, (니파이후서 33:11~15; 이터서 12:38~39 참조) 이 증인들의 간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선지자 조셉은 성스런 경험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 물문경의 판을 다른 여덟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들은 비록 시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판들을 만져볼 수 있었다. 그들의 간증 또한 물문경의 앞 부분에서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7:1 — “가슴판”은 어떤 것인가?

선지자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는 조셉이 판들과 함께 받았던 가슴판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35절 참조)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들의 전기에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였다.

“그것은 두꺼운 모슬린 손수건에 싸여 있었는데, 너무도 얇아서 쉽게 그 크기를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은 한 쪽이 오목하고 다른 한 쪽은 볼록하였으며, 길이는 키가 큰 남자의 목 부분에서 아래 쪽으로 내려가 매우 복부 한가운데까지 미칠 수 있는 정도였다. 같은 재질로 된 네 개의 끈이 달려 있었는데, 이는 그것을 가슴에 단단히 붙들어 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두 개는 어깨 뒤로 돌리게 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두 개는 허리에 매게 되어 있었다. 그 끈들은 실제로 재어 보니 내 손가락 두 개 정도의 너비였으며, 각각의 끝에는 용이하게 맬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었다.” (History of Joseph Smith, ed. Preston Nibley [1958], 111)

교리와 성약 17:6 — 물문경에 대한 주님의 간증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몽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한 맹세의 하나는 조셉 스미스와 물문경에 관한 주님의 다음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를 의미함]가 그 책 곧 내가 그에게 명한 그 부분을 번역하였으니, 너희 주요 너희 하나님께서 사심 같이 그것은 참되다.’ (교리와 성약 17:6)

“이것은 물문경에 관한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진실성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 책이 참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그만 두시든지 해야 합니다. 인간이나 하나님에게 알려진 언어로서 이것보다 더 공식적이며 강력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53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7편을 읽으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그들의 증거와 여러분의 증거

1. 노트에 다음과 같은 표를 그린다.

세 증인	나
그들은 원했던 증거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필요 했는가? (교리와 성약 17:1~2 참조)	물문경과 기타 영적 진리에 대한 증거 또는 간증을 강화시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들이 그 특별한 증거를 얻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가? (3, 5~6 절 참조)	증거를 받은 후에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가?
그들에게 그런 증거를 주신 이유에 대해 주님께서는 무어라고 말씀 하셨는가? (4, 8~9절 참조)	주님께서는 왜 내가 그분의 복음과 교회에 관하여 간증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이 받은 증거의 중요성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7~9절 참조)	세 증인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복음에 관한 나의 간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2.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 17편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세 증인에 관한 질문에 답한다.
3. 17편의 성구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여 기타의 질문에 답한다.



교리와 성약 18편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할 시기를 목전에 두고



주어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 사도가 사도와 그분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 또한 성역의 열쇠를 지니도록 성임됐다는 점은 적절한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비록 최초의 십이사도 정원회가 그 이후 6년이 지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으나, 주님께서는 18편을 통해 이 정론의 시대의 사도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 관해 권고의 말씀을 주셨다. 이 계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읽은 각 교리와 원리가 사도의 역할과 멜기세렉 신권에 관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8편

- | | |
|--------------------------------------|--|
| [Bestowal] 부여 (머리글) — 주는 것 | · [Contend] 다투지 (20절) — 논쟁하다, |
| [Prevail against] 이기지 (5절) — 승리를 거두다 | · 싸우다, 반대하다 |
| [Expedient] 필요한 (18절) — 적절한, 바람직한 | · [Soberness] 진지하게 (21절) — 신중함 |
| | · [Accountability] 책임질 (42절) — 그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있는 |

교리와 성약 18:20 — “악마의 교회”

“악마의 교회”는 특정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대적하는 어떤 개인, 단체, 조직체, 또는 철학을 일컫는 말이다. 진리와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밖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회복된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는 충만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교리와 성약 18편 20절에 관해 말씀한 바와 같이, “의와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악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83)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8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그리고 활동 나 또는 다를 한다.

가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18:10, 15~16

사업 세계에서, 물건의 가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값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한 특정한 물건의 가치가 일정한 금액의 화폐의 가치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의 돈을 치르려 할 때에만 성립이 된다.

1. 교리와 성약 18편 10~13절을 공부하고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되며, 또 누가 그 값을 치루었는지를 설명한다.



2. 주님은 자신이 회개한 사람들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어떤 표현을 쓰셨는가?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3. 교리와 성약 18편 14절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라”는 명을 받았다. 10~13절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4. 엘마서 34장 14~17절을 읽는다.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5. 엘마서 37장 9절을 읽는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나 핵심 단어를 찾는다

교리와 성약 18편 9절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계명으로서” 말씀하셨다.

1. 9~21절을 공부하고 그들이 무엇을 행하라고 명 받았는지를 노트에 열거한다. 각 명령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의 핵심 낱말들을 찾는다. 만민(만인), 기억하다, 외치다, 구하다, 다투다, 받들다, 이야기하다
2. 그 명령 가운데서 세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 보았는가?

경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다. (엘마서 5:38~39; 교리와 성약 1:14 참조)

1. 교리와 성약 18편 34~36절을 공부하고 매일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2. 24~2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후일에 여러분이 불리울 이름을 아는 데 도움이 될까?

교리와 성약 19편

마틴 해리스를 위한 계명



팔마이라의 인쇄업자 에그버트 비 그랜딘에게 물문경 5,000부를 인쇄하겠다는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마틴 해리스는 인쇄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보증을 썼다. 그가 보증을 설 수 있었던 것은 인쇄 비용인 3,000 달러를 지불하고도 남은 정도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쇄가 완료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서 인쇄 후 책이 나오더라도 그 책을 사지 말자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불안감으로 그랜딘의 신경이 점차 예민해지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팔마이라로 돌아가서 그에게 인쇄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재다짐을 했다. 마틴 해리스는 물문경이 팔리지 않을 경우 자신의 농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겁을 집어먹고 선지자를 찾아가 인도를 구했다. 마틴은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탐하지’ 말고 물문경의 인쇄 비용 충당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 놓으라’는 명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19:26 참조) 면적이 151에이커나 되는 마틴 해리스의 농장은 그랜딘에게 인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1831년 4월에 공매 처분되었다. 이러한 희생으로 인해 물문경을 인쇄할 수 있게 되었다.” (Church History in the Fulness of Times, 65)



교리와 성약 19편을 읽으면서, 이 계시가 마틴 해리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또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얘기를 바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희생은 어떤 것인가? 그 점을 명심하며 이 계시를 읽고, 주님께서 마틴 해리스에게 가르친 원리가 현재 또는 미래에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요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9편

- | | |
|---|--|
| [Alpha and Omega] 알파와 오메가 (1절) — 그리스 철자의 첫째와 마지막 문자 (모든 것을 품으시는 그분의 본질을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칭호) | [Impart] 내어 놓을지니, 나누어 주라 (26, 34절) — 주다 |
| [Subdue] 복종하게 (2절) — 다스리는 권세를 얻다. | [Remnant] 남은 자 (27절) — 남아 있는 사람들 |
| [Retaining] 지녔으니 (3절) — 가지고 있음 또는 소유하고 있음 | [Tidings] 소식 (29절) — 소식, 메시지 |
| [Deeds] 행위 (3절) — 행동 | [Reviling not against revilers]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고 (30절) — 모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관해 모욕적으로 말하지 않음 |
| [Revoke] 취소하지 (5절) — 취소 시키다, 거두어 들이다. | [Tenets] 교의 (31절) — 다양한 종교적 믿음 |
| [Express] 명확하게 표현되어 (7절) — 명백한, 명확한 | [Suffice] 충분할 (32절) — 넉넉할 |
| [Meet] 합당함 (8절) — 적당한, 적절한 | [Slight] 가벼이 여길진대 (33절) — 가벼이 대하다. |
| [Smite] 쳐서 (15절) — 벌하다 | [Exhort] 권명하며 (37절) — 가르치다, 권장하다 |
| [Exquisite] 격렬한지 (15절) — 심한 | [Corruptibility to the extent thereof] 썩어 없어질 것을 (38절) — 보화와 더불어 썩어질 모든 것으로 |
| [Naught] 아무 것도 (21절) — 아무 것도 아님 | |
| [Covet] 탐내지, 탐하지 (25~26절) —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다 | |

교리와 성약 19:4, 16~17 — 회개인가 고통인가?

십이사도 정년회의 일원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엘머서 42장 16절과 교리와 성약 19편 16~17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것은 또 회개한 사람은 구주께서 형벌을 완전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전혀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는 구주의 다른 가르침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회개하는 사람은 구주께서 그 죄로 인해 고통 받으신 것처럼 고통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얼마간의 고통만 받을 뿐 자신의 회개와 속죄로 인해 구주께서 겪으셨던 것만큼 ‘격심한’ 정도의 영원한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94년 4월호, 30쪽)

교리와 성약 19:6~12 —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

주님께서서는 “무한한 형벌”과 “영원한 형벌”이라는 용어가 형벌의 기간을 의미하기 보다는 형벌의 종류를 나타낸다고 계시를 통하여 밝혀 주셨다. 무한한 형벌과 영원한 형벌은 곧 “하나님의 형벌” (교리와 성약 19:11~12)을 말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이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구원 없이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악과 대항하여 승리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까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40~341쪽) 따라서 영원히 그리스도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멸망의 자식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형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76:33~34 참조)

하지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가 가르친 것처럼 “지옥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하늘로 영접되는 것은 아니다.” (The Vitality of Mormonism [1919], 256) 형벌을 받는 당사자에게서 무한한 형벌 또는 영원한 형벌, 곧 하나님의 형벌이 그치게 되면, 그들은 영광의 왕국에서 그들이 거할 곳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 76편을 공부하면 이러한 심판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교리와 성약 19:15~19 —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구주께서 교리와 성약 19편 15~19절에서 온 인류를 위해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하신 간증의 말씀은 우리가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주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구주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참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참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겪으실 수 없는 최대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상황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저로서는 제 자신의 죄도 짊어지기에 벅찬데 말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 지셔야 했습니다.” (in Conference Report, 1947년 10월, 147~148)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9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내게서 배우고”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우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라고 권유하셨다. (교리와 성약 19:23; 또한 마태복음 11:29 참조)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 19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운 내용을 노트에 열거한다. 그분을 묘사하는 낱말과 어구를 찾아 보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그 말씀과 행동의 이유를 유의해서 본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는 방법에 관해 배운 것을 생각해 본다.

나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19:16~19

1. 교리와 성약 19편 16~19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낱말을 선정하고, 각 낱말을 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2. 교리와 성약 19편 16~19절에서뿐만이 아니라, 니파이전서 19장 9절, 니파이후서 9장 21~22절, 모사이아서 3장 7~9절, 그리고 제3니파이

27장 14~15절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예수께서 겪으신 고통과 고통을 겪으신 이유를 설명한다.

3. 교리와 성약 19편 16~19절과, 이 활동에서 제시한 다른 성구를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과 느낌 중 몇 가지를 노트에 기록한다.

다 계명과 위안을 찾음

마틴 해리스는 인도를 구하기 위해 조셉 스미스를 찾아갔으며, 선지자는 그를 위해 이 계시를 받았다. (본 지도서의 교리와 성약 19편에 대한 소개편 참조)

1. 노트에 두 개의 난을 만든다. 한 칼럼에 “계명”, 그리고 나머지 난에 “위안”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2. 교리와 성약 19편을 복습하고 계명과 위안의 말씀을 찾는다. 찾은 것을 해당 난에 열거한다.
3. 감명 깊었던 계명과 위안의 말씀을 하나씩 선정하고, 감명을 받은 이유를 말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20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떠한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또 “충만한 복음이 가까운 장래에 [그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History of the Church, 4:536) 그가 후일에 물문경을 받아 번역을 하고, 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 및 열쇠를 받으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기타의 지시를 받으면서 충만한 복음이 그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교리와 성약 20편은 본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조와 성약”이라고 불리웠으며,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했다. 20편의 전체 내용은 종종 교회 모임에서 22편과 함께 낭독되었으며, 때때로 “교회의 헌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20편

- [Manifested] 나타내신 (5절) — 알려지다
- [Remission] 죄 사함 (5, 37절) — 용서
- [Vanities] 헛된 것 (5절) — 어리석음
- [Countenance] 얼굴 (6절) — 모습
- [Confirmed] 확인된 (10절) — 확인하다
- [Sensual] 육욕적이며 (20절) — 육체적 감각과 쾌락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다
- [Meridian] 절정 (26절) — 고지점
- [Justification] 의롭게 됨 (30절) — 죄 없다고 선포되다
- [Grace] 은혜 (30~32절) — 하나님의 권세
- [Sanctification] 성결하게 됨 (31절) —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
- [Broken hearts] 상한 마음 (37절) — 과거의 죄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찬 겸손한 마음 (누가 죄를 범했던 간에 관계없이)
- [Contrite spirits] 통회하는 심령 (37절) —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성
- [Emblems] 상징물 (40절) — 상징, 다른 것을 대표해 나타내는 물건
- [Expound] 해설하며 (42, 46, 50, 59, 68절) — 자세히 설명하며
- [Exhort] 권면하며 (42, 46, 50, 59) — 격려하다, 설득하려 애쓰다
- [Iniquity] 악행 (54절) — 죄, 간악함
- [Composing] 구성하는 (61, 81절) — 구성되는 사람
- [Commissioned] 위임을 받아 (73절) — 지명되어 권능을 받다
- [Sanctify] 성결하게 (77, 79절) — 거룩하게 되다

교리와 성약 20:1 — 왜 4월 6일인가?



주님께서는 1830년 4월 6일을 원래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는 날로 정해 주셨다. 해롤드 비리 회장은 이 날짜의 중요성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1973년 4월 6일은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성도의 빛, 1973년 10월호, 33쪽)

교리와 성약 20:9 — 몰몬경에는 “복음의 충만함”이 담겨 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몰몬경에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가르쳤다. “그 곳에 이제까지 계시된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몰몬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충만한 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도 구원과 승영의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쪽)



세상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전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리고 경전의 참됨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20:8~15 참조)

교리와 성약 20:27~28 —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은 세 분의 독립된 인격체이다. 경전에서 그분들이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칠 때는 신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가 되었음을 일컫는 것이다. 그분들은 목적과 교리에 있어서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서로를 대변하여 말씀하시며, 또 서로에 대해 증거하신다.

교리와 성약 20:38~60 — 이 곳에서 언급되지 않은 교회 직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20편에서 오직 “교회가 조직되던 당시 교회의 행정”에 필요한 것만을 계시해 주셨다고 가르쳤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95) 그 후의 계시에서는 이 계시에서 언급된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로 주어진 다른 직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 수가 늘어감에 따르는 필요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교회에서의 의무와 직분을 계속적으로 추가하셨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신앙개조 제9조 참조)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20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바 중 세 가지를 한다.

가 몰몬경의 중요성

몰몬경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가 “교회의 헌법”인 교리와 성약 20편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몰몬경과 계시를 없애 버린다면 우리의 종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67쪽)

1.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 20편 8~16절에서 물몬경에 관해 배운 내용을 열거한다.
2. 17~36절을 토대로, 물몬경 때문에 “우리가 ... 아”는 교리를 열거한다. 그러한 교리 가운데서 하나를 선정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나 참된 교리의 중요성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참된 교리란 이해되지만 한다면,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21쪽) 교리와 성약 20편 17~36절은 회복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리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한 교리 가운데서 두 가지를 택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만 한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각 교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다 침례 전의 접견

1. 교리와 성약 20편 37절에 기초하여, 침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기할 수도 있는 질문들을 열거한다. 새로운 개종자는 대체로 교회 또는 경전을 접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여러분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적는다.
2. 모사이야서 18장 8~10절과 모로나이서 6장 1~6절을 읽고, 적절한 기타의 질문을 추가한다.

라 도표를 만든다

1. 교리와 성약 20편 38~60절은 교회의 여러 직분들과 부름들의 의무를 간략하게 열거하고 있다. 여러분의 노트에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고, 이 구절들에서 얻는 내용을 이용하여 표를 메운다.

직분 또는 부름	의무와 책임

2. 여러분이 표에 열거한 내용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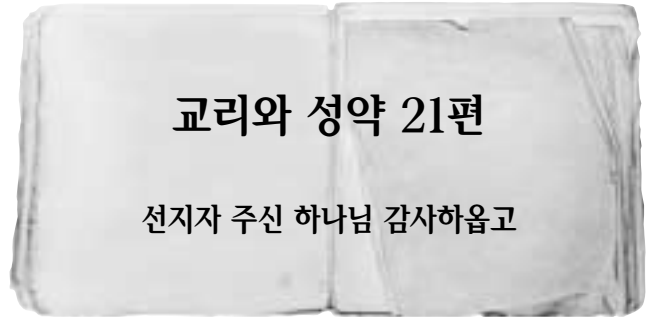
마 퀴즈에 답한다

교리와 성약 20편 61~84절은 교회 회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다.

1. 이 성구들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원리에 관한 퀴즈를 7~10개 적는다. 각 퀴즈 뒤에 해답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성구를 적는다.
2. (선택 사항) 해답 없는 퀴즈를 복사하여 가족의 일원 또는 다른 반원에게 나눠 준다. 그들이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어린이에게 가르친다

여러분의 와드 또는 지부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성찬에 관해 짧은 공과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가정한다. 어린이들이 교리와 성약 20편 77절과 79절에 있는 성찬 기도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적는다. 또한 어린이들이 성찬을 보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적는다. 공과를 위해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성찬과 관련된 의미 있는 여러분의 경험을 어린이들에게 주는 간증으로 전한다. 여러분의 공과를 여러분의 부모님과 교사에게 보여 주고 그들의 조언을 얻은 후에, 자원하여 초등학교에서 그 공과를 가르칠 수 있다.



교회가 조직되어야 하는 날짜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 순종하여 (교리와 성약 20편 머리글과 1절 참조),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1830년 4월 6일에 휘트머의 집에 모였다. 그 당시 뉴욕 주 법에 의하면, 새로운 종교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9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었다. 규정된 참여 인원 외에 기타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지만, 법의 규정에 따라 교회 조직을 위해 6명이 참여했으며, 그 참여자는 조셉 스미스 이세,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럼 스미스, 새뮤얼 스미스, 피터 휘트머 이세, 그리고 데이비드 휘트머였다.



이 교회 조직을 위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개요가 교리와 성약 21편의 머리글에 나와 있다. 모임을 진행하는 동안, 선지자는 교리와 성약 21편의 계시를 받았다.

교회의 잘 알려진 찬송가 가운데 “후일에 선지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이라는 노래가 있다. 우리는 왜 감사를 드리는가? 21편은 몇 가지 중요한 권고와 함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전해 주고 있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21편

- [Unanimous] 만장 일치 (머리글) — 모두가 동의함, 어떤 반대도 없음
- [Seer] 선지자 (1절)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에 관해 알 수 있는 사람 (모사이야서 8:13~17; 모세서 6:35~36 참조)
- [Disperse] 흩어버리고 (6절) — 분산시키다
- [Behooveth me] 내게 필요하다 (10절) — 나의 바람이나라

교리와 성약 21:5~6 — 선지자를 따를 때 오는 축복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게 될 마지막 경륜의 시대인 이 경륜의 시대에 이 교회와 세상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 인간이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더욱 커져 어디서나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됩니다. ...”

“이제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지닌 유일한 안전은 교회가 조직된 날에 주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 주시는 말씀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권능을 통해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회적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 생활의 일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 여러분과 우리의 안전은 주님이 그분의 교회를 관장하도록 세우신 분들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가 이 교회를 관리해야 할지를 알고 계시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교회 회장을 계속해서 따르도록 합시다” (in Conference Report, 1970년 10월, 152~153)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21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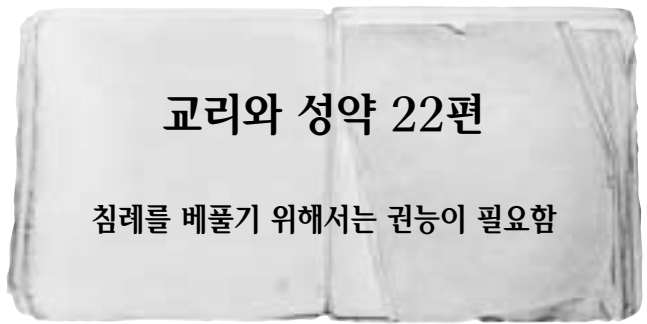
가 선지자의 역할 설명하기

여러분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신문 기사를 모으고 있다고 가정한다. 편집자가 교회에서 조셉 스미스가 지닌 역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21편 1절에서 언급하신 다섯 가지 호칭을 기사 머릿글로 사용하여, 각 호칭이 의미하는 바와, 선지자 조셉이 그 역할을 수행한 방법을 설명한다. 이와 동일한 호칭은 오늘날 살아 계신 선지자에게도 적용된다.

나 왜 선지자를 따르는가?

교리와 성약 21편 4~9절을 통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고를 토대로, 다음 질문에 대답한다.

1. 우리는 선지자의 어떤 말을 받으라고 명 받았는가? (4~5절 참조)
2.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최소한 세 가지 열거한다.
3. 선지자를 따르기 위해 때때로 “인내와 신앙” (5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책에서 읽은 사람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인해 6절에 언급된 축복 가운데 하나를 받았던 예를 들어 본다.



교리와 성약 22편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함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침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만 침례 의식을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침례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교리와 성약 20:73)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셨다. 교리와 성약 22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신권의 권능을 부여하신 사람에게 의해 집행된 침례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신 이유를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22편

[In consequence] 따른 (머리글) — 그 결과로
 [Availeth him nothing] 아무런 효력이 없나니 (2절) — 그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
 [Strait] 좁은 (2절) — 좁은, 한정된

교리와 성약 22:2 — “모세의 율법”과 “죽은 행실”

모세의 율법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시로 전해진 의식과 의례 체계를 말한다. 이 “옛 성약”(교리와 성약 22:1)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성취되었다.(제3니파이 15:3~9 참조)

합당한 침례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교리와 성약 22:1; 또한 교리와 성약 20:37 참조)을 성립시킨다. 권능이 없이 집행된 침례는 어떠한 성약도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다.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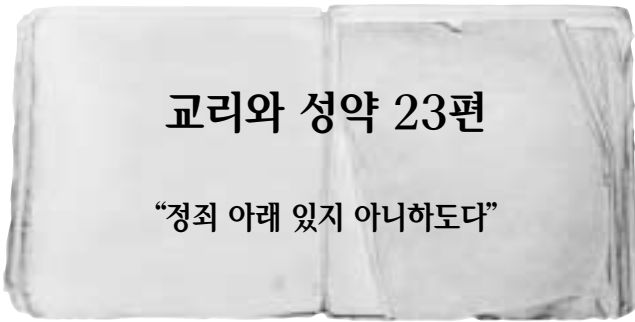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22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교리를 설명한다

교회 회원이 되는 데 관심이 있으나 자신이 이미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침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한다. 교리와 성약 22편(교리와 성약 20:37, 72~74 또한 참조)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회복된 신권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 의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이유를 그 친구에게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적는다.

교리와 성약 23편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럼 스미스



새뮤얼 스미스



조셉 스미스 일세



조셉 나이트 일세

교회 역사의 초창기에 다섯 명의 형제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찾아가 그들이 해야 할 바에 대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자 하였다. 비록 각 사람에게 주어린 권고들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유의하기 바란다.

떠난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왕국은 여전히 발전하여 모든 적대자를 물리쳤으며, 왕국에 충실했던 모든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5~6쪽)

교회를 떠나고 나서 십 년이 지난 다음 올리버 카우드리는 돌아와서 재침례를 받았으나, 충실함을 지켰었다면 그가 받았을 축복들은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 (231~232쪽)]

교리와 성약 23:6 — “네 십자가를 저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모든 세상 정욕을 부인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6:26)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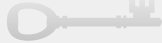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23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비교한다

교리와 성약 23편을 복습하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누가 교만에 대해 경고를 받았는가? 권고가 필요했음을 설명해 주는 “경전을 이해함” 편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2. 올리버 카우드리의 마음 상태와 하이럼 스미스의 마음 상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3. 이 계시를 받은 다섯 사람 가운데서, 오직 조셉 나이트 일세만이 그 때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은 어떤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서는 조셉 나이트에게 얘기하지 않은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셨는가?
4. “일꾼의 삯”(7절)이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4:2~4 참조)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23편

[Condemnation] 정죄 (1, 3~5절) — : [Exhortation] 권면 (3절) — 전파, 유죄 선언 : 격려
[Henceforth] 이제로부터 (2절) — : [Manifest] 나타내어 (6절) — 나타내다
지금부터 :

교리와 성약 23:1 — “올리버에게 … 교만을 조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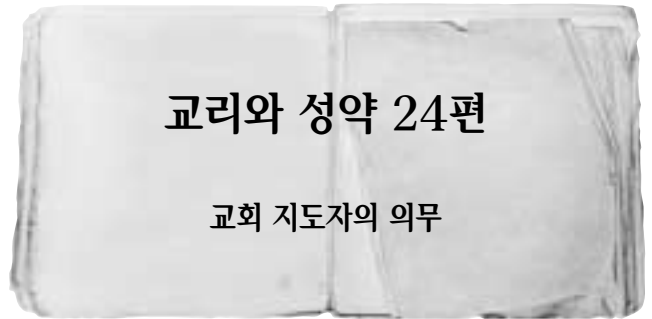
제일회장단의 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교리와 성약 23편 1절에 있는 올리버 카우드리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읽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올리버는 명석했으며,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주님의 경고를 잊고 교만이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브리검 영은 이 교만에 대해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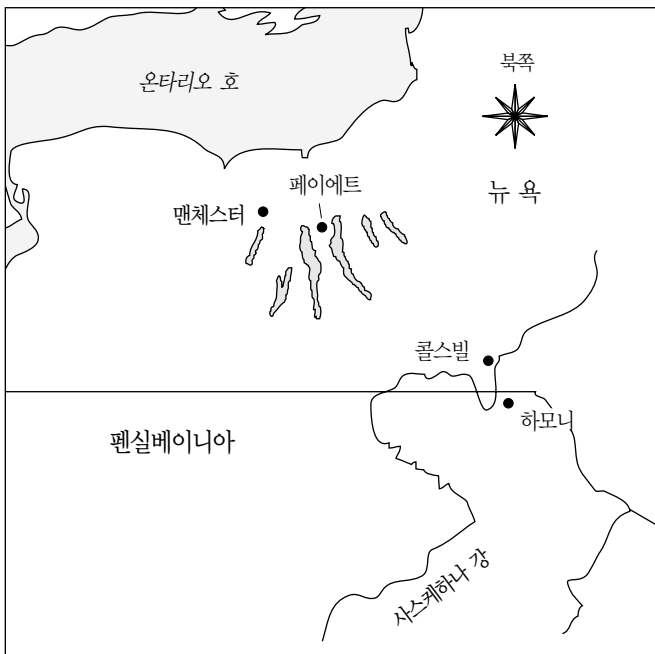
“저는 이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왕국이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자만심이 강하고 보편적인 능력을 가졌던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는 선지자 조셉에게 몇 차례 자신이 이 왕국을

교리와 성약 24편

교회 지도자의 의무



1830년 7월에 교회의 지부는 맨체스터, 페이엣 및 콜스빌 이 세 군데 밖에 없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콜스빌에서 그의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그의 무죄가 밝혀졌으나 박해가 계속되어 교회 지도자들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24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교회 회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내용과, 교회 회원들이 지도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본다.



권능을 부여받은 그의 종들에게 지시하여 합당한 권능으로 진리를 전파할 때 고의로 악의를 갖고 이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증거를 보이도록 하셨다. (교리와 성약 24:15; 60:15; 75:20, 84:92, 99:4 참조) 이와 같은 비난의 상징으로 주님 앞에서 증거하는 책임은 막중하므로 주님의 영의 지시에 따라 매우 특별한 극단적인 상태에서만 이러한 방법이 사용된다.” (예수 그리스도, 350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24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선지자의 의무

1. 노트에 두 개의 난을 만든다. 한 난에 “선지자”, 나머지 난에 “회원들”이라고 제목을 적는다. 해당되는 제목 아래 교리와 성약 24편 5~9절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선지자 및 회원들의 의무를 열거한다.
2. “선지자” 난의 목록 끝마다 오늘날 선지자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는지를 설명한다. “회원들” 난의 목록 끝마다, 여러분의 의무를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나 주님의 권고를 요약함

교리와 성약 24편에 있는 주님의 권고를 요약한다.

1. 조셉 스미스에게 (1~9절 참조)
2.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10~12절 참조)
3. 기적에 관해 (13~14절 참조)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24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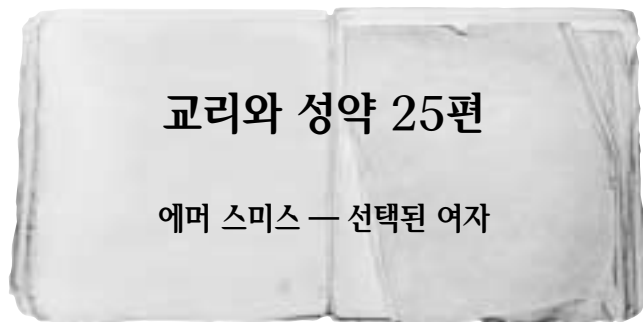
[Partial seclusion] 잠시 은거하여 (머리글) — 박해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머무름	[Voice of a trump] 나팔소리 (12절) — 담대하게, 명확하게
[Sowed] 씨를 뿌리고 (3절) — 씨를 심다	[Smitten, smite] 치심을 당할 (16절) — 벌하다
[Temporarily] 현세적으로도 (3절) —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Go to law with thee] 법에 고소하는 (17절) — 너희에게 그릇된 죄목을 씌우다
[Expounding] 해설하는 (5절) — 설명해 주는	[Scrip] 전대 (18절) — 여행 가방
[Confirming] 확인하는 (9절) — 강화시키는	

교리와 성약 24:3, 9 — “네 직분을 영화롭게 하라”

제일회장단 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부름에 품위와 중요성을 쌓고, 모든 인간이 보기에 명예롭고 칭찬할 만한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며, 신권을 통하여 다른 인간이 보도록 하늘의 빛이 비추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까? 단지 그 부름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장로로 성임된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은 장로나, 집사나, 교사나, 제사나, 감독이나 신권의 직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습니다.”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41쪽)

교리와 성약 24:15 —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유대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증거로서 격식을 차려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는 것을 절교와,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본문에 인용된 바와 같이 사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에 따른 비난과 증거의 의식이 되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이와 비슷하게



리드 해먼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25편에 있는 계시를 받았을 당시 에머와 결혼 생활을 3년째 해 오고 있었다. 1827에서 ~1830년까지 삼 년간의 세월은 긴장되고 힘든 많은 시련의 시간들로 채워졌었다. 하지만 에머 스미스는 남편 곁을 지키며 충실하게 그를 내조했다. 이 계시의 일부는 12년 뒤인 1842년 3월 17일에 그녀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성취되었다. (History of the Church, 4:552~5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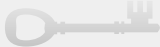
여성 대회에서 말씀하며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알기로 이것은 특별히 여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시인데, 주님은 끝부분에서 ‘이것은 모두에게 주는 나의 음성이니라.’ (교리와 성약 25: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주님께 의해 주어진 권고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92쪽)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3개월 후에 주님께서는 에머 스미스에게 부름을 주시고 “나를 기쁘게”하는 “기록한 찬송가를 선정하는 일”(교리와 성약 25:11)을 하게 하셨다. 그녀가 편집한 찬송가책은 1835년에 출판되었다. 그 이후로 후기 성도 찬송가책에는 후기 성도가 지은 몇 곡의 찬송가와 다른 교회에서 사용되는 일부 찬송가들이 들어 있었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25편

[Elect] 택함을 받은 (3절) — 택함을 받은	:	[Exhort] 권면할지니라 (7절) — 격려하다
[Consoling] 위안 (5절) — 위로하는	:	[Cleave unto] 충실하라 (13절) — 단단히 잡다
[Expound] 해설하며 (7절) — 설명하다	:	

교리와 성약 25:7 — 에머가 “성임”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 초창기에 ‘성임 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임과 성별 두 가지를 모두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또한 이것은 이 단어의 의미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신권을 소유한 남자는 지부를 관리하고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임’되었다고 하였다. 자매 역시 특별한 의무나 책임에 부름 받았을 때 ‘성임’을 받았다고 하였다. … 후일에 우리는 성임과 성별을 구별하게 되었다. 남자는 신권의 직분에 성임 되며, 스테이크, 와드, 지부, 선교부 및 기타 보조 조직을 관리하도록 성별된다. 자매는 보조 조직 회장이나 선교사 등 직책에 성별되며, 성임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에머 스미스가 경전 말씀을 풀이하도록 ‘성임’ 되었다는 말은 그녀에게 신권을 부여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부름에 성별 되었다는 뜻이다. 이 부름에 대한 성별은 교회의 상호부조회에서 이루어졌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126)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25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가 계명과 약속

1. 노트에 두 개의 난을 만든다. 한 난에 “계명 또는 부름”, 나머지 난에 “축복 또는 약속”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25편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 해당 난에 열거한다.

2.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계명 하나와 축복 하나를 택하고,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으며, 그러한 축복을 바라는 이유를 설명한다.

나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25:12

교리와 성약 25편 12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주님께서 “마음의 노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되는가?
2. 의인의 노래는 어째서 기도와 같은가?
3. 어떤 종류의 음악이 주님을 “기쁘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4. 다음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주변에 합당한 음악이 있게 하기 위해 개인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적는다.

“음악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가르치고 교회하고 영감을 주며 단합심을 기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그 속도, 박자, 강도 및 가사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음악은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듣는 음악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듣는 음악을 기꺼이 통제하고 영적으로 해로운 음악을 피해야 합니다. 복음의 원리와 상충되는 가사가 담긴 음악을 듣지 마십시오. 사탄이나 기타 악한 행위를 두둔하고 부도덕을 권장하며 추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영을 물러가게 하는 음악을 듣지 마십시오. 주의 깊은 분별력과 성숙한 자세로 여러분이 들을 음악과 그 음량을 선택하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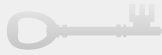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26편

만장일치의 법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서 부름을 받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손을 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투표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 거기에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26편

[Confirming] 확인하는 (1절) — : [Labors on the land] 그 땅에서
 강화시키는 : 너희의 노동을 수행하는 일 (1절) —
 : 농사 짓는 일

교리와 성약 26:2 — “만장 일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기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다. “정식으로 조직된 교회의 지부가 있는 곳에서는 그 교회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이 교회 안의 어떠한 직분에도 성임될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20:65) 모든 성임과 부름에 교회 회원들의 지지를 요구하는 원리는 만장 일치의 법으로 알려져 있다. (교리와 성약 26:2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만장 일치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말씀은 모든 예찬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지도자를 배격하고, 교회에는 그 머리에 하나의 분명한 지시자가 있을 뿐이며, 그는 계시에 의해 선택되어 교회의 일반 총회에서 회원의 지지를 받은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라는 사실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빛, 1974년 11월호, 36~37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거수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말씀했다. “저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분들을 지지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 사업에 대한 열쇠와 책임을 지고 있는 왕국의 관리 직원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부름을 탐한

사람이나 자신이 그 부름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프리 알 홀런드의 이름이 이제 막 성임된 자로서 마지막으로 호명되었을 때에도 손을 들어 지지를 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홀런드 형제가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우리에게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본 적도 없고,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 곳 오마하와 온테리오와 오사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지하십시오. 당신은 총관리 직원들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방인이 아니요, 한 하나님에게 속한 한 시민입니다. 우리 가족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늘 당신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당신의 힘이 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당신의 신앙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곧 우리의 일이니까요.’ 하고 말씀하십니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32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26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축복과 책임

교리와 성약 26편에서 읽은 내용과 “경전을 이해함” 편을 토대로, 만장 일치의 법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여러분이 거수 지지하면서 손을 들 때 어떤 책임이 부여되는지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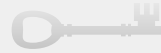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27편

후일의 성찬



현재 고대 및 회복된 교회의 초기에 성찬에서 사용했던 포도즙 대신에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시에 특별한 성찬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 곳에 누가 참석할 것인가? 교리와 성약 27편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27편

[Procure] 구하러 (머리글) — 언다
 [Quick] 살아 있고 (1절) — 살아 있다
 [Strong drink] 독한 음료 (3절) —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
 [Gird up your loins] 너의 허리를 동이고 (15절) — 이것은 문자 그대로 달리기를 위해 다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의복을 허리띠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준비된 상태를 상징한다.



교리와 성약 27:5 — 모로나이가 그 열쇠를 지니고 있던 “에브라임의 막대기의 기록”은 어떤 것인가?



주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두 개의 책에 관해 말했다.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록으로 그분께서는 그것을 “유다의 막대기”(에스겔 37:16, 19)라 부르셨다. 다른 책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16절)을 위한 기록이었다. 유대인은 유다 및 유다 왕국의 다른 지파들의 후손이며, 그들의 기록은 성경에 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후손이었으며, 그의 후손들과 그 가족과 같이 갔던 사람들의 기록은 물론경이다. 모로나이는 물론경 백성들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마지막 기록 보관자로 그 판들을 쿠모라 산에 묻었다. (조셉 스미스-역사 1:33~34 참조)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27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무엇이 중요한가?

1. 교리와 성약 27편 1~4절을 공부한 다음, 성찬을 취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열거한다.
2. 매주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나 목록을 만든다

교리와 성약 27편 5~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거대한 성찬식을 묘사하고 있다.

1. 교리와 성약 27편 5~14절에서 참석하게 될 모든 이들을 찾아 열거한다. 11절에 따르면 미가엘은 누구인가?
2. 여러분이 충실할 경우, 여러분을 비롯하여 기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몇 절에서 말해 주고 있는가?



아담-온다이-아만 골짜기

3. 또한 교리와 성약 116편 1절을 읽고 이 모임이 어디서 있게 될 것인지를 적는다.
4. 다음 성구를 읽고 그것들을 교리와 성약 27편 5~14절의 전후 참조 성구로 적는다: 다니엘 7:9~14, 마태복음 26:29, 교리와 성약 107:53~57, 116:1.

다 갑옷을 점검한다

교리와 성약 27편 15~18절을 복습한 다음 다음의 지시대로 한다.

1. 여러분의 노트에 (지혜의 말씀 또는 기도와 같이) 구체적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갑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한 예를 두 가지 적는다.
2. 위에서 예로 든 성구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갑옷을 입은 것은 5~14절에 묘사된 거대한 성찬식에 참석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데 어째서 도움이 되는가?
3. 15~18절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린다. 이 그림을 방에 걸어 놓을 수도 있다. 반드시 갑옷의 모든 부분에 그 이름을 적도록 한다.



교리와 성약 28편

오직 선지자만이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음

교회의 초창기 시절에 회원들은 주님께서 전체 교회를 인도할 계시를 받기 위해 오직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구체적인 책임을 위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오직 선지자와 교회 회장만이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말씀하신다.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럼 페이지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동서이면서 휘트머 가족의 매부가 되었다. 그는 피터 휘트머 이세, 크리스찬 휘트머, 존 휘트머, 제이콥 휘트머, 그리고 데이비드 휘트머의 누이인 캐서린 휘트머와 결혼했다.

올리버 카우드리 또한 그들의 누이들 가운데 한 명인 엘리자베스 앤 휘트머와 결혼했다. 하이럼

페이지는 또한 물문경의 여덟 목격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돌을 하나 얻었는데, 그 돌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다. 교리와 성약 28편을 읽으면서, 누구에게서 이 계시를 받고 왜 그 계시를 받았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부름과 올리버 카우드리의 부름

사이의 차이에 유의한다.

교리와 성약 28편에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인디언 원주민에게 선교사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또 시온이 “레이맨인과 가까운 변경”(9절)에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28편

[Professed] 공언하였다 (머리글) — 주장하다	⋮	[Common consent] 만장일치 (13절) — 만장일치 [교리와 성약 26:2에 대한 “경전을 이해함” 편 (38쪽) 참조]
[Borders by the Lamanites] 레이맨인과 가까운 변경 (9절) — 미합중국과 인디언 지역 사이의 경계	⋮	

교리와 성약 28:1~3 —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1913년에 발표된 “경고의 음성”이라는 공식 선언에서 제일회장단의 조셉 에프 스미스, 앤톤 에이치 런던 및 찰스 더블류 펜로즈는 이렇게 설명했다.

“하이럼 페이지 시절부터 (교리와 성약 28편) 여러 시기에 걸쳐 거짓 영이 교회 회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거짓 영들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법범으로 인해 손쉽게 사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의 규칙과 여러 의식 및 의례를 엄격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거짓 영에 의해 실족되었는데, 거짓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모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인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외관상 ‘빛의 천사’로 보이도록 자기 자신을 변형시켰습니다.”

“시현, 꿈, 방언, 예언, 느낌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 혹은 영감이 이미 인정된 교회의 계시와 모순되거나 교회가 수립한 권위 체계와 어긋나는 어떤 것을 전달할 때, 후기 성도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지시는 교회의 회장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충실한 회원은 그들 자신이나 가족 및 그들이 지명을 받거나 성임을 받아 관리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성신의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것과 모순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관능이 있거나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Improvement Era, Sept. 1913, 1148)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28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교회를 위해 누가 계시를 받는가?

교리와 성약 28편의 머리글과 1~7, 11~13절을 읽고 난 다음,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간절히 여쭙어” 보았던 문제는 무엇이었는데?
2.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는가? (1~7절 참조)
3. 오늘날 교회를 위한 계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11~13절 참조; 교리와 성약 26:2 또한 참조)

4. 오늘날 누가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는가?



교리와 성약 29편

후일에 “선택된 자”에게 주는 약속

후일에 관한 예언보다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주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후일에 살고 있다. (교리와 성약 1:4 참조)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관해 계시하여 주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리와 성약 29편을 읽으면서, 재림 이전, 재림 시, 그리고 재림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러한 사건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29편

[Atoned] 속죄하였느니라 (1절) — 그 값을 치루다	⋮	[Mote] 티끌 (25절) — 흙
[Perils] 위험 (3절) — 위험	⋮	[Temporal] 현세적인 것 (31~32, 34~35절) — 물질적인 또는 현세적인
[Advocate] 변호자 (5절) — 다른 사람의 주장을 변호하는 사람	⋮	[Carnal ... sensual] 육신에 속하거나 육욕적인 (35절) — 세상적인
[Decree] 법령 (8, 12절) — 명령, 명, 율법	⋮	[Spiritually dead] 영적인 사망 (41절) — 하나님의 면전 밖으로 단절된
[Tribulation and desolation] 환난과 황폐 (8절) — 환난과 파멸	⋮	[Redemption, redeemed] 구속, 구속받을,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42, 44, 46절) — 속박에서 자유롭게 됨
[Hosts] 무리, 천군 (15, 36절) — 군중	⋮	[Probation] 시험 (43절) — 시험, 실험
[Take vengeance] 원수를 갚으리니 (17절) — 그에 따른 형벌을 보내리니	⋮	
[Indignation] 분노 (17절) — 격노, 화	⋮	
[Abominations shall not reign] 가장한 것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니라 (21절) — 간악함이 다스리지 아니하다	⋮	

교리와 성약 29:7 — 누가 선택된 자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택받은 사람이란 어떤 일을 위해 선택된 [택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쳤다. (History of the Church, 4:552)

“일반적인 의미로, 선택된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영의 지시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온전한 목적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말한다.”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조지 큐 캐넌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온 인류는 구원을 받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의 행위로 인해 가라지가 되지 않는다면 가라지가 아닙니다.’ ([Gospel Truth], 1:140) 교회 밖에 있는 선택된 자는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엔 순종하며, 교회로 영접되는

‘양들’입니다. (모사이야서 26:21~28) 이 사람들이야말로 선교사들이 모으도록 권고를 받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교리와 성약 29:7) (Hoyt W. Brewster Jr., *Doctrine and Covenants Encyclopedia* [1988], 148쪽)



교리와 성약 29:35~39 — 선택의지란 무엇인가? 선택의지가 그토록 신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선택의지는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말하며, 교리와 성약 29편 35~39절은 그 자유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중요하고 신성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녀의 삼분의 일의 선택의지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이 악마에 의해 인도되어 모반을 일으키도록 내버려두셨다. 지상에서의 나날은 선택의지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선택의지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선택의지가 존재하려면, 네 가지의 위대한 원리가 존재해야 한다. 1. 율법, 즉 진능한 권세로 제정된 율법으로서,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율법이 존재해야만 한다. 2. 상대되는 것, 즉 선과 악, 유덕과 부덕, 옳고 그름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상대되는 것이 존재하여 한 힘은 이 쪽으로 잡아 당기고, 다른 힘은 다른 쪽으로 잡아 당겨야 하는 것이다. 3. 선택의지를 누릴 사람들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즉, 그들은 상대되는 것들의 차이를 알아야만 한다. 4. 자유로이 선택하는 권세가 제한없이 주어져야 한다.” (*Mormon Doctrine*, 2nd ed. [1966], 26)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29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교리를 요약한다

다음 질문 가운데서 네 가지를 선정하여 교리와 성약 29편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답한다.

1. 주님께서는 누구를 모을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모일 것인가? (1~8절 참조)
2.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9~13절 참조)
3. 재림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4~21절 참조)



4. 복천년이 끝날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2~30절 참조)
5. 이 성구들을 통하여 은 사탄과 선택의지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5~40절 참조)

교리와 성약 30편

데이비드, 피터, 존 휘트머 — “두려워 말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경험을 이미 했으리라고 본다. 여러분은 그 때 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는가? 교리와 성약 30편에서 휘트머 형제들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주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두려움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30편

[Expedient] 필요한 (5절) — 적절한, : [Be you afflicted in all his
바람직한 : afflictions] 그의 모든 고난 중에 너도
: 고난을 겪으며 (6절)
: [Proclaim] 선포하기 (9절) — 선포하기

교리와 성약 30:1~2 — “내가 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설득당하여 왔도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그의 다른 식구들과 함께 하이럼 페이지가 받은 그릇된 계시에 속은 적이 있었다. (교리와 성약 28편 참조)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30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30편에는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데이비드 휘트머 (25세), 피터 휘트머 이세 (21세), 그리고 존 휘트머 (28세)에게 주시는 권고가 실려 있다. 30편을 복습하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주님은 두려움에 관해 휘트머 형제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 마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듯 1~2절을 읽는다.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교리와 성약 31편

토마스 비 마쉬 — 약속과 경고

교리와 성약 31편은 30편과 같은 시기에 받았다. (교리와 성약 30편의 소개편 참조) 주님께서 토마스 비 마쉬에게 주시는 권고는 그분이 자신의 자녀들에 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여러분은 토마스 마쉬에게 주는 약속과 경고를 읽으면서, 십이사도 정원회가 조직될 때 그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훗날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지원하고 지지하지 않았으며, 결국 자신의 아내를 잘 타이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 때문에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났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31편

- [Sickle] 낫 (5절) — 곡식을 추수하기 위한 휘어진 칼
- [Laden with sheaves] 곡식 단을 지게 되리라 (5절) — 곡식 다발로 채워지다 (선교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는)
- [Hire] 샅 (5절) — 지불하다
- [Revile] 욕하지 (9절) — 경멸하며 꾸짖다

교리와 성약 31:4~5 — “이미 희어져 불사르게 된 밭”



마셜리 비 켈렌

주님께서는 선교 사업에 관해 말씀하실 때 추수를 상징으로 자주 사용하셨다. (요한복음 4:35~36; 교리와 성약 4:4 참조) 밀 등의 곡식이 무르익을 때면 그 이삭이 하얗게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 준다. 그 당시에는 곡식 줄기를 낫으로 잘라서 단이라 불리우는 다발로 묶었다. 곡식을 베어내면, 그루터기, 즉 남아 있는 줄기를

없애기 위해 종종 밭을 불살랐다.

이 모든 것은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선교사들은 구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을 깨끗하게 불태우시는 것을 대비하여 복음을 기꺼이 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거둬들이게 된다.

교리와 성약 31:9~13 —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치르는 대가,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 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

토마스 비 마쉬는 회복의 초기에 가장 유능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번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가 1835년 처음으로 조직되었을

때 사도로 부름을 받아 초대 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때 가족 문제가 발생하여 받게 된 “인내하라”, “욕하지 말라”, “온유함으로 네 집을 다스리라”, “항상 기도하라”, “끝까지 충실하라”(9, 12~13절)는 주님의 권고를 따르지 못하여 배도를 하게 되었다. 1839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 받았던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는 마쉬 회장이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살았을 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 당시 십이사도 회장인 토마스 비 마쉬의 아내와 해리스 자매[조지 해리스의 아내]는 평소에 만들었던 치즈보다 좀더 커다란 치즈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교환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리핑[우유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부분을 따로 떼어 놓지 말고 우유와 스트리핑을 함께 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두 여인이 치즈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교환하기로 했다는 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부인은 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 듯 합니다. 그녀는 우유와 스트리핑을 마쉬 부인에게로 가져 갔으나, 마쉬 부인은 별도로 얼마간의 좋은 치즈를 만들고 싶었던 욕심에서 각 소에서 얻은 한 파인트(약 0.5리터) 분량의 스트리핑을 따로 떼어 놓고서 우유만을 해리스 부인에게 보내었습니다.”

“결국 마쉬 부인이 스트리핑을 따로 떼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새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교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마쉬 부인이 스트리핑을 따로 빼내었고, 결과적으로 그 양만큼 해리스 부인에게 해가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항의가 교사에게서 감독으로 넘어가 정식 교회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쉬 회장은 감독이 자신과 아내를 공정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는 배심원들이 판정하기를 스트리핑은 부당하게 빼내어졌으며 마쉬의 아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쉬는 즉시 고등 평의회에 항소하였으며, 평의회는 커다란 인내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조사했던 바, 저는 고등 평의회가 진지하고 책임감이 있는 조직이었다고 확언 드립니다. 아내의 인격을 몹시도 지켜 주고 싶었던 마쉬는 십이사도 회장이자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라는 체면 때문에 필사적인 변호를 펼쳤으나 고등평의회는 결국 감독의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마쉬는 교회 제일회장단에게 상고를 했고, 조셉과 그의 보좌들은 그 사건을 심리한 다음 고등 평의회에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셨듯이, 이 작은 사건이 커다란 시비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비 마쉬는 자신이 이 문제로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아내의 인격을 지켜 주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십이사도 회장이로서 제일 먼저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또 자신의 가족의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보상을 해야 했던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치안 판사를 찾아가서 ‘물론물’은 미주리 주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진술로 인해 미주리 주 정부는 근절령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과 거주지에서 쫓겨났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따르기 마련인 시련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Journal of Discourses, 3:283~384)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러한 사소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그분이 오히려 그것을 부채질해서 교회의 역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문자 그대로 수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지위를 잃었고,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19년 동안 가난과 암흑과 고통과 투병과 외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보다 더 늙었습니다. 결국 구주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11~32 참조) 돌아온 탕자처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고통스럽게 이 계곡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브리검 영 회장에게 그를 용서해 줄 것과 교회에서 다시 침례 받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십이사도 평의회와 초대 회장이었으며, 커틀랜드 시대와 초기 파웨스트 시대에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제 그는 오로지 집사에 성임되고 주님의 집에 문지기가 될 것을 간청했습니다.” (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123쪽)

마쉬 형제는 교회로 돌아온 후에 자신의 배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어쩌다가 배도를 하게 되었는지를 참으로 알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제 마음 속에서 주님의 영을 잃어 버렸던 게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영을 잃어버렸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지자를 시기하였으며, 저의 마음이 표리 부동하고, 옳은 일을 모두 보지 못하면서, 악을 찾으며 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마가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 육욕적인 마음이 쉬어 일어났는데, 그것은 노여움이며, 질투심이며 분노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온통 분노로 가득했으며, 주님의 영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대로, 제 눈이 멀었으며, 제가 조셉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티끌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들보는 바로 제 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Journal of Discourses, 5:206~507)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31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말씀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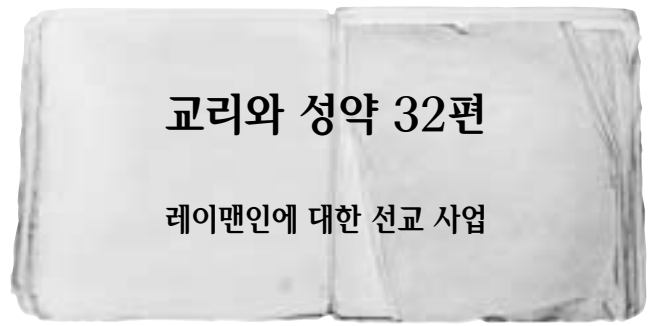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 31편에서 배운 내용과 “경전을 이해함” 편을 토대로, 주님이 주신 권고를 따르는 것에 관해 성찬식에서 발표할 말씀의 개요를 적는다.

나 가정의 밤 공과를 가르친다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 31편과 “경전을 이해함” 편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31편과 토마스 비 마쉬의 생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관해 가정의 밤 공과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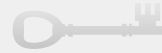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32편

레이맨인에 대한 선교 사업



교리와 성약에서 레이맨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관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레이맨에 대한 선교 사업을 위한 부름을 주실 때였다. (교리와 성약 28:8 참조) 같은 달인 1830년 9월, 피터 휘트머 이세가 올리버와 함께 가도록 부름 받았다. (교리와 성약 30:5 참조) 다음 달 팔리 피 프랫과 지바 피터슨이 그들과 합류하도록 부름 받았다. 교리와 성약 32편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찾아본다. 여러분은 “경전을 이해함” 편을 공부하면서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32편

[Supplication] 간구 (머리글) — 겸손함 : [Trifle not] 소홀히 다루지 말지나라
 기도 : (5절) — 그것들을 가버이 다루지 말라
 [Advocate] 변호사 (3절) — 주장을
 변론하는 사람

교리와 성약 32:1 — 팔리 피 프랫은 누구인가?

팔리 피 프랫은 이 계시를 받기 한 달 전 1830년에 뉴욕에서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는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위한 임무 지명을 수행했으며 (교리와 성약 32편 머리글, 1~2절; 49:1~3; 50:37; 52:26; 97:3~5; 103편 머리글, 30, 37절; 124:127~129 참조) 1835년에 조직된 최초의 십이사도 정의회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에서 출판한 많은 설교와 찬송가를 지었으며,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최초의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아칸소 주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중 1857년에 암살자에 의해 살해되었다.



교리와 성약 32:2~3 — 레이맨인에 대한 선교 사업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작은 무리의 선교사들은 1830~1831년 사이의 겨울에 거의 2,400킬로미터를 여행하였는데, 상당 부분은 도보로 여행하였다. 그들은 뉴욕, 오하이오, 미주리를 거쳐 인디언 구역으로 들어가서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소개하였다. 당시 미주리는 미합중국의 서쪽 국경에 있었으며, 미주리 서쪽 너머는 인디언 구역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최대의 성공을 거둔 지역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주변 지역에서였다. 그 곳에서 그들은 신약 성서 시대의 기독교 사회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일단의 사람들을 만났다. 단 3주 만에 선교사들은 127명에게

침례를 주어 교회 회원 수는 거의 두 배가 되었다. (Church History in the Fulness of Times, 79~88쪽 참조)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32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내게서 배우”는 방법

“온유하고 겸손”(교리와 성약 32:1)한 것과 영적인 것을 배우는 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설명해 본다. (교리와 성약 136:32~33 참조)

나 “나도 몸소 저들과 함께 가며 그 가운데 있으려니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 교리와 성약 32편 3절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하셨던 시기를 적는다.

교리와 성약 33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함

복음을 회복한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도와 세상적인 것에서 이끌어 내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 준비시키는 데 있다. (교리와 성약 1:12~17 참조) 교리와 성약 33편에서 주님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다.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본다. 또한 세상에 경고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33편

[Affirmed] 확인하였다 (머리글) — 증거하다, 참되다고 선언하다	[Priestcrafts] 사제술 (4절) — 칭송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전파하는 것 (니파이후서 26:29 참조)
[Dividing asunder] 쪼개기까지 하며 (1절) — 돌로 나누다	[Laden with sheaves] 곡식 단을 지게 되리니 (9절) — 곡식 다발로 채우다 (선교 사업의 성공)
[Discerner] 감찰자 (1절) — 알고 있는 사람	
[Perverse] 패역한 (2절) — 완고하고 악한	



레이먼인들에게 간 선교사들의 여행

교리와 성약 33:17 — “너희 등잔을 손질하여 타고 있게 하며 너희에게 기름이 있게 하여”



교리와 성약 33편 17절에서 언급된 등불, 기름 및 신량은 구주의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지칭하고 있다. (마태복음 25:1~13 참조) 주님은 비유에서 구주(신랑)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들의 등이 꺼졌던) 사람들은 그들의 면전에서 내쳐질 것이라고 가르쳤다.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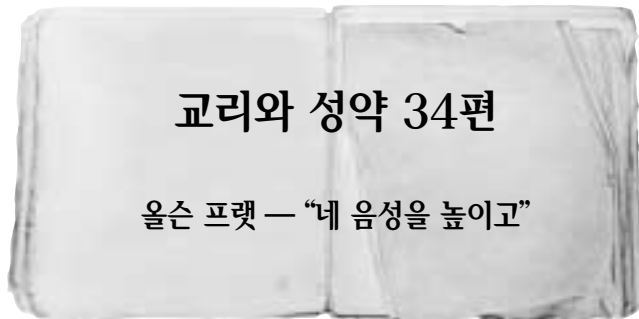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33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성구를 설명한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이미지와 관련된 많은 낱말들을 사용하셨다. 교리와 성약 33편 3, 6~9, 13, 17절에서 그런 이미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려 본다. 그 성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그리지 말고 그 속 의미를 그려 본다. 그림과 더불어 그림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해설을 곁들인다.

나 계시를 적용한다

1.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33편 3절에서 설명하신 세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가를 설명한다.
2. 이 설명은 주님께서 2절과 4절에서 세상을 묘사하신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울슨 프랫은 후일의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교리와 성약 34편에서 그가 주님과 그 자신에 관해 들은 내용에 유의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34편

[Comprehendeth] 깨닫지 (2절) — 이해하다
 [Spare not] 아끼지 말라 (10절) — 삼가지 말라
 Crooked and perverse] 뺨뺨거리고
 패역한 (6절) — 타락한



Shofar라 불리는 고대의 히브리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들었다.

교리와 성약 34:1 — 울슨 프랫

울슨 프랫은 그의 형 팔리 피 프랫에게서 복음 메시지를 들은 후에 자신의 19번째 생일인 1830년 9월 19일에 침례를 받았다. 1835년 십이사도 정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두 사람은 모두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의 형과 마찬가지로, 울슨 프랫은 교회를 위해 많은 선교 사업을 행했다. (교리와 성약 34편 머리글, 1~10; 52:26; 75:14; 103:40; 124:127~129; 136:13 참조) 그는 또한 종교 및 과학에 관한 주제로 많은 책을 썼으며,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최초의 개척자였다. 그는 1881년 사망할 때까지 45년 이상을 사도로 봉사했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34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두 성구를 비교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교리와 성약 34편 3절을 읽고 비교한다. 이 두 구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 배운 내용을 묘사하는 글을 한 단락으로 적는다.

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무엇을 배우는가?



1. 마가복음 13장 32~37절을 읽고 재림이 언제, 어떻게 있을 것인지에 관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는다.
2. 교리와 성약 34편 6~12절을 공부하고 이 성구를 통해 재림에 관해 추가로 이해한 내용을 적는다. 가까이 이름이니라, 전에, 속하라는 낱말들에 필히 유의하고 설명해 본다.

교리와 성약 35편

시드니 리그돈 — 앞서 가는 사람

교리와 성약 35편은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어진 계시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심을 보여 주고 있다. 주님께서 시드니 리그돈에게 그의 과거와 미래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에 유의한다.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시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35편

[Folly and ... abominations] 어리석음과 ... 가증함 (7절) — 어리석음과 간악함	⋮ [Gird up their loins] 그들의 허리를 동여 주리니 (14절) — 그들의 준비를 도와주다
[Buckler] 작은 방패 (14절) — 방어물 (buckler는 조그마한 둥근 방패로 대체로 팔에 끼는 것이다)	⋮ [Confounded] 욕을 받지 (25절) — 그들의 정체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섞이게 되다

교리와 성약 35:2 —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자녀들이다. (사도행전 17:29; 히브리서 12:9 참조) 하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모사이야서 5:7~8 참조)

교리와 성약 35:3 — “나의 종 시드니”



시드니 리그돈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목사로 지냈다.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론경을 읽은 후, 1830년에 입교하였다.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비서로, 그리고 1833년에서 1844년까지 제일회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했다. (교리와 성약 35편 머리글, 3~6절; 58:50, 57~58절; 71:1; 76편 머리글, 11~15절; 90:6, 21절; 93:44, 51절; 102:3; 124:126 참조) 조셉 스미스의 사망 이후에, 시드니 리그돈은 십이사도 정원회로부터 관리 권한을 가져가려 시도하였으며, 1844년 9월에 교회에서 파문되었다.

교리와 성약 35:11 — “바벨론에 임할 황폐”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서 죄와 불행을 야기시킨 세상의 간악함을 나타내는 한 상징이다. 그런 모든 간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전히 정화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35:13 — “나라를 타작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 타작 한다는 것은 곡식의 낱알을 껍질에서 분리해 내는 것을 의미했다. 구약 성서 시대에는 곡식의 낱알을 단단한 표면에 흩어 놓고는 황소가 밟게 하거나 (신명기 25:4 참조) 막대기로 때렸다. (룻기 2:17 참조) 주님께서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막대”를 (니파이전서 11:25 참조) 사용하여 사악한 자들에게서 의인들을 어떻게 분리시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교리와 성약 35편 13절에서 곡식의 낱알을 분리하는 비유를 사용하였다.



교리와 성약 35:20~21 —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성경의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잃어버려졌거나 변경되었으므로 (니파이전서 13:24~29 참조),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많은 것을 바로잡으라고 명하였다. (교리와 성약 35:20; 41:7; 45:60~61; 73:3~4; 93:53 참조) 주님은 교리와 성약 35편에서 시드니 리그돈에게 선지자가 변경시킨 것을 구술하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명하였다. (20절 참조) 이 번역본은 조셉 스미스 역으로 알려져 있다. 변경된 내용의 일부는 지도 앞쪽의 경전 안내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셉 스미스가 성경 번역 작업을 착수하자, 주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계시를 그에게 주셨다. (교리와 성약 76:77; 86편; 91편; 93편; 113편; 132편 참조; 모세서; 조셉 스미스-마태; 본 학습 지도서의 “조셉 스미스 역 성경”, 33쪽 참조)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35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한 가지를 한다.

가 교리를 설명한다

1. 교리와 성약 35편 2절에서 **하나라**는 낱말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한다.
2. 그 구절에서 **하나**의 의미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해 가르치는 바를 설명한다. (요한복음 17장 참조)

나 “더욱 큰 일”을 알아본다

교리와 성약 35편 3~6절에서 주님이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 권고를 복습한다. 시드니 리그돈이 부름 받은 일이 어째서 그 전에 그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35:3의 “경전을 이해함” 편 참조)

다 경전이 역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35편 20절에서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경전이 주어졌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21절에서 경전이 우리의 구원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의 전후 참조와 여러분의 생각을 활용하여, 경전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를 설명한다.

1. 주님의 음성을 들음 (교리와 성약 18:34~36 참조)
2. 그분을 뵈 (마태복음 5:8 참조)
3. 재림을 기다림 (조셉 스미스-마태 1:37 참조하기 바람)
4. 순결하게 됨 (모로나이서 7:48도 참조)

교리와 성약 36편

**에드워드 파트리지 —
“주의 위대한 사람 중의 하나”**

주님은 실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가?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이 계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를 말해 주는 또 다른 예이다. 교리와 성약 36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에드워드 파트리지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본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36편

[A pattern of piety] 경전의 모범 : [Untoward generation] 패역한 (머리글) —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모범 : 세대에서 (6절) — 완고하거나 쉽사리 인도되지 않는 사람들

교리와 성약 36:1 — 에드워드 파트리지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레이맨인들에게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미주리 주로 가던 도중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들렀을 때인 1830년 10월에 처음으로 회복된 복음을 들었다. (교리와 성약 28:8; 32:2~3 참조) 하지만 그는 몇 달이 지난 뒤에야 교회에 입교하였다. 선지자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는 침례를 받겠다는 에드워드 파트리지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같은 해(1830년) 12월에 조셉은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계획했다. 그가 설교하는 동안, 시드니 리그돈과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들어와서 회중 가운데 앉았다. 조셉은 설교를 끝내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그 즉시 파트리지가 일어나서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던 교리에 관해 보다



자세한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맨체스터에 갔다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곳에서 우리를 찾지는 못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품에 관해 물어 보았는데, 그들은 조셉 가족이 물문경과 관련하여 [그들을] 속이기 전까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해 주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농장을 지나오면서 농장이 잘 정돈되고 상태가 좋은 것을 보았으며,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위해 희생한 것을 보고,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 종교 이외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진실됨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의 간증을 믿었으며,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조셉 형제에게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History of Joseph Smith, 191~192) 그는 1830년 12월 11일에 조셉 스미스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나중에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으며 (교리와 성약 35편 머리글; 36편 머리글, 1~7절; 41:9~11; 42:10; 50:39; 51:1~4, 18절; 52:24; 57:7; 58:14~16, 24~25, 61~62절; 60:10; 64:17; 124:19 참조), 미주리 주에서 많은 박해를 겪었다. 그는 47세의 나이로 1840년에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 사망했다.

교리와 성약 36:2 — “네게 내 손을 얹으리니”

교리와 성약 36편 2절에 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해롤드 비 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께서는 이 성구를 통해 그분의 권능을 받은 한 종이 권능으로 축복받을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을 경우,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친히 종들과 함께 그분의 손을 얹어 의식을 집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께서 권능의 열쇠를 위임하신 종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세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Be Secure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1 Feb, 1958], 6)

교리와 성약 36:6 —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며 불에서 나오라”

구약 성서 시대에는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님께서는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명하셨는데, 거기에는 오염된 모든 옷을 태우는 것이 포함되었다. (레위기 13:47~59 참조) 교리와 성약 36편 6절에서 주님은 병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과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비교하셨다. (유다서 1:23; 열마서 5:57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펜서 더블류 김블 장로는 죄에 이르게 했던 상황을 바꿀 필요성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죄를 버리려고 할 경우에 좋은 상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자신이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얼룩진 옷이나 죄를 미워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는 죄를 버렸음은 물론 죄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도 완전히 멀리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그는 죄가 발생했던 장소나 상황이나 환경도 멀리해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것들이 또 다시 죄의 온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는 죄와 관련된 사람들도 멀리 해야 한다. 그는 관련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들을 피해야 하며,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해야 한다.” (용서가 낳는 기적, 158쪽)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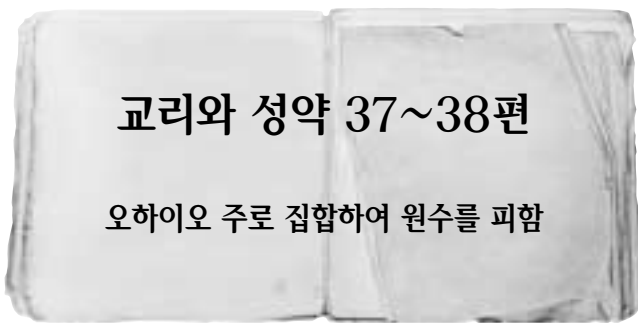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36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일지를 적는다

여러분이 에드워드 파트리지라고 가정하고,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36편에서 행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인지를 일지를 쓰듯이 노트에 적어 본다.

나 배운 것을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36편 2절과 이 성구에 대한 “경전을 이해함” 편을 읽은 후에, 신권을 받는 것에 관해 배운 내용을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37~38편

오하이오 주로 집합하여 원수를 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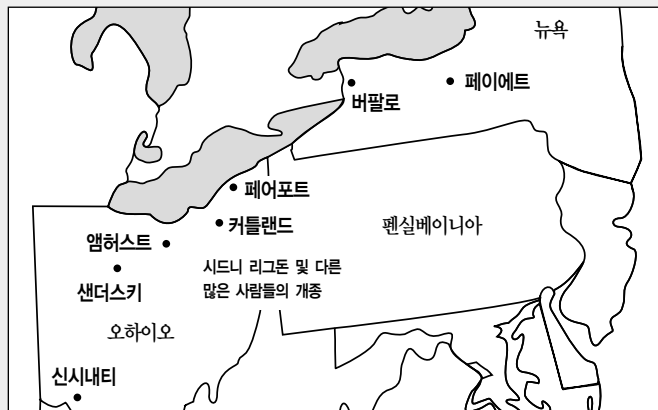
레이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교리와 성약 32:1~3 참조) 미주리 주로 가던 길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머물렀던 선교사들이 거둔 성공은 교회의 회원수를 극적으로 늘려 놓았다. 그들은 불과 3주 사이에 127명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당시 8개월 된 교회의 회원 수를 거의 두 배로 늘려 놓았다. 커틀랜드에서의 분위기는 우호적인 반면에, 뉴욕 주에서의 박해는 계속하여 더욱 심해졌다. 교리와 성약 37~38편을 읽으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계명과 가르침을 살펴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37편

[Expedient] 필요하지 (1, 3절) — 적절하다, 바람직하다



교리와 성약 38편

[Seraphic] 스랍 (1절) — 천사의
 [Rent] 찢어질 (8절) — 찢기다
 [Reign] 지배하게 (12절) — 다스리다
 [Deign] [하사]하려 (18절) — 적당하다고 생각하다

.....
 [Is no respecter of them]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26절) —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다

교리와 성약 38:12 — “땅을 추수하여 가라지를 불사르게 모으라”



이 구절은 구주의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언급하고 있다.(마태복음 13:24~30, 36~43, 또한 교리와 성약 86:1~7 참조)

교리와 성약 38:30 —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은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하고 배워서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유아기로부터 모든 성장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보조조직에서,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서, 가정의 밤에서, 성찬 모임에서, 그 외 다른 곳에서 배운 교훈들이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없애는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청소년에게 주는 충언: 지금은 준비할 시기입니다, 성도의 빛, 1974년 1월호, 9쪽)

교리와 성약 38:32 — “나의 율법을 줄 것이요”

이 약속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교리와 성약 42편에 나오는 계시를 받을 때 성취되었다.

교리와 성약 38:32 —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쿱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경륜의 시대에 장로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은 후 1831년 1월에 이르러 주님은 그들에게 충실한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었던 엔다우먼트 (교리와 성약 [38:32], 43:16), 즉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알려지지 아니한 그러한 축복’을 계시하기 시작했다. (교리와 성약 39:15) 1833년 6월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집 한 채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 집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니라.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임이라. 그러므로 나는 예루살렘에 있던 나의 사도들과 같이 머물기를 너희에게 명하노라.’ (교리와 성약 95:8~9, 105:11, 18, 33.)”(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6~1973], 1:859)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37~38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이 계시들을 자신의 생활과 비교한다

1. 뉴욕 지역에 있던 적들로 인해 주님은 교회에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2. 오늘날 교회 회원들은 다른 종류의 적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것들을 피할 방법에 대해 권고해 주신다.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권고를 몇 가지만 열거한다.

나 친구에게 권고한다

몇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려 고난과 슬픔을 겪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한다. 교리와 성약 38편 1~12절에서 읽은 내용을 이용하여,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그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는 대로 모두 찾아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다 시온의 특성과 자격 요건

교리와 성약 38편 18~42절에서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성도들이 충실할 경우 그들이 세울 수 있는 시온, 또는 “약속의 땅”에 대해 가르쳤다.

1. 노트에 세로로 줄을 그어 두 개의 난을 만든다. 첫째 난에는, 이 구절들이 그 땅이 어떠한 것이라고 가르치는지를 열거한다. 둘째 난에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약속의 땅을 받기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열거한다.
2.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산다면 무엇을 가장 좋아할지를 설명하는 글을 한 단락으로 적는다.

교리와 성약 39~40편

제임스 코빌 — 주어진 약속과 잃어버린 약속

익숙해진 버릇이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습관을 상기시키는 것은 변화를 보다 수월하게 하는가, 아니면 어렵게 하는가? 제임스 코빌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를 받고자 찾아 갔을 당시 그는 40년간 침례교 목사로 봉사했었다. 교리와 성약 39편에서 주님이 그에게 준 약속들과 경고들을 주의해 본다. 그런 후에 교리와 성약 40편에서 그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알아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39편

[Meridian] 절정의 (3절) — 중앙 혹은 높은 점	⋮ [Pruned] 가지를 치게 (17절) — 손질하고 준비하다
[Bestowed] 내려 주었느니라 (8절) — 보내다, 주다	⋮ [Sanctified] 성결하게 되는 (18절) — 기록한
[Stay my hand in judgment] 심판의 손길을 멈추리라 (16, 18절) — 심판을 저지하다	⋮ [Hosanna] 호산나 (19절) — 히브리어 의미로 “간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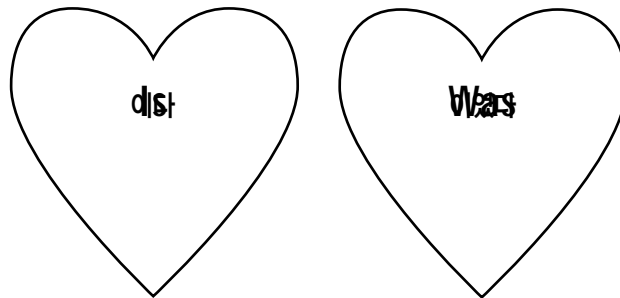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40편

[Straightway] 즉시 (2절) — 곧, 즉시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39~40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활동 나 또는 다를 한다.

가 비극적인 마음의 변화



노트에 하트 모양 두 개를 그리고 한 하트에는 “이다” 그리고 다른 하트에는 “이었다”라고 명시한다.

1. 교리와 성약의 39편 머리글과 7~13절을 읽는다. 첫번째 하트에 주님께서 제임스 코빌의 마음에 관해 말한 것과 그로 인해 행하도록 부름 받은 것을 적는다.
2. 교리와 성약 40편의 머리글과 1~3절을 읽는다. 두번째 하트에 제임스의 마음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를 적는다. 주님께서 그 변화로 인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설명한다.
3. 제임스 코빌에게 일어난 일을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 14~20절에서 주신 비유에 비교해 본다. 그 성구에서 묘사된 땅 가운데 제임스 코빌의 마음과 가장 비슷한 것은 어떤 것인가?

나 광고문을 작성한다

교리와 성약 39편 10~24절에는 선교사들의 일부 중요한 책임들이 설명되어 있다. 신문에서 “구인” 광고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생각해 본다. 이러한 구절에 나오는 정보를 사용하여,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및 행동 요건이 무엇인지 적는다. 광고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구인: 전임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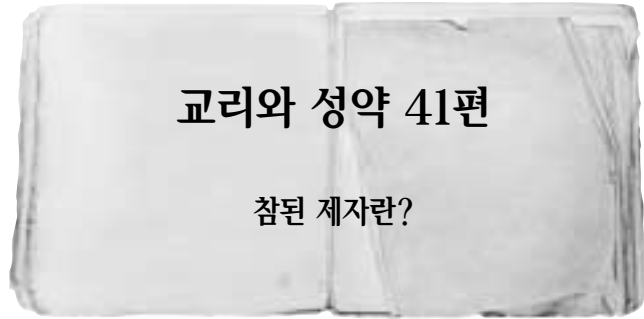
다 이야기를 적는다

어떤 이유로 제임스 코빌이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에 관해 말해 주는 교리와 성약 40편 1~3절을 읽는다. 그런 후에 제임스 코빌과 같은 약점들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한 여러 약점을 극복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선교사로 나간 현대의 인물에 대한 짧은 가상적인 이야기를 적는다.

오하이오 주와 미주리 주에서의 교회

“교회의 활동이 오하이오 주와 미주리 주에 집중되었던 시대는 교회의 이동 역사상 가장 중요했으며, 비극적인 때였다. 이 동안 교회의 조직이 확립되었고, 많은 기본적이고 광복할 만한 교리가 조셉 스미스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사업이 처음으로 해외로 퍼져나갔다. 교회는 많은 사람의 생명까지 잃는 혹심한 박해를 받았고, 모든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이 두곳에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의 역원이 필요할 때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였지만 이 두 그룹 사이의 연락은 교통의 불편으로 지극히 제한을 받았다.”(헝클리, 회복된 진리)



교리와 성약 41편

참된 제자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은 1831년 1월과 2월 중에 오하이오 주로 이주했다. 그들이 그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교회 회원은 약 300여명 가량으로 늘어나 있었다. 새로운 개종자들의 대다수는 “제자들”로 알려진 종교 단체에서 왔다. 그들은 이제 막 복음에 속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상한 생각과 거짓 영”이라고 일컫은 것들을 갖고 들어왔다.(41편 머리글) 심지어 교회에 속한 후에도 여러 달 동안 이 개종자들은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 비축”이라 불리는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그 체제를 운영하느냐에 대해 불화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존 휘트머는 이렇게 기록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세속적인 소유물로 인해 매우 빠르게 파멸로 치달고 있었다. 그들은 경전에서 읽은 것을 한 형제에게 속한 것이 모든 형제에게 속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서로의 옷과 다른 사유물을 취하며 허락 없이 사용하곤 했다. 이로 인해 혼란과 실망이 일어났다. 그들은 경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cited in “Church History,” Journal of History, 1908년 1월, 50)

초기 개종자들 가운데 일부는 영이 충실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해 혼동했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몇몇 젊은이들의 괴상한 행동은 오하이오의 초기 개종자인 존 코릴을 혼란시켰다. “그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행동했으며, 때로는 인디언 흉내를 내거나 들판으로 뛰어다니기도 했고, 나무 등걸 위로 올라가 외치기도 하고, 마치 회중에게 둘러 쌓여 있듯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환상에 휩싸여 있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해 그들 모두는 인사불성인 것 같았습니다.”(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92)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실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41편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누가 그분의 제자이며 누가 아닌지에 관해 말씀하신 것에 유의한다. 주님께서 에드워드 파트리지에 관해 말씀하신 것에서, 여러분은 그가 참된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떠한가?



에드워드 파트리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41편

[Professed] 말하고서도 (1절) —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	[Meet] 마땅하지 (6~7절) — 올바른, 적합한
[Disciple] 제자 (5절) — 유순하고 충실한 추종자	...	[His merchandise] 자기의 상업 (9절) — 모자 제작자로써 그의 사업
	...	[Guile] 간사함 (11절) — 부정직, 남을 속임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41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활동 나를 한다.

가 여러분은 왜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처럼, 오늘날의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견해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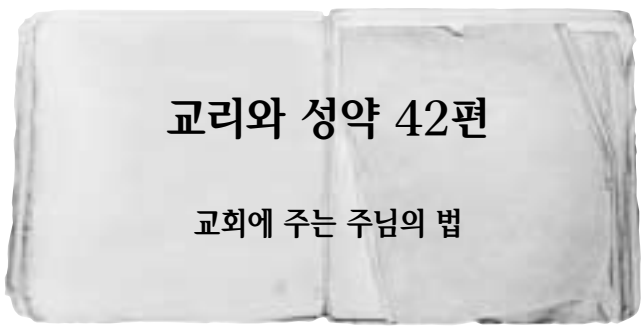
1. 교리와 성약 41편 1~6절을 읽고, 예수께서 제자를 무엇이라고 하셨는가를 요약한다.(교리와 성약 6:32, 41:5, 52:40 참조)
2. 이 구절에서 배운 바를 통해, 왜 여러분은 제자로 불리기를 원하는가?

나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작용되는가?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교회의 첫번째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 (교리와 성약 41:9~12 참조) 그 이후로, 충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독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 왔다. 현재 감독이나 예전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다음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본다. “불렀고”, “교회의 지지”, “감독으로 성임되어야”, “그의 마음이 내 앞에서 순결함으로”. 그들의 대답을 노트에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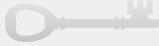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42편

교회에 주는 주님의 법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오하이오 주로 이주하라고 명하시며 그 곳에서 그들에게 그분의 법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38:32 참조) 교리와 성약 42편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어졌다. 이 계시의 일부는 헌납의 법을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가? 이 편을 연구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주어진 계명대로 생활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며 더욱 부지런히 순종해야 할 계명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42편

- | | |
|--|---|
| [Embracing] 담고 있는 (머리글) — 포함한, 다루다 | [Secret combinations] 비밀 결사 (64절) — 악을 행하기로 은밀하게 합의한 악한 사람들 |
| [Transgress] 범법하면 (10절) — 계명에 불순종하다 | [Upbraid] 꾸짖지 (68절) — 꾸짖다, 잘못을 찾다 |
| [Articles] 신조 (13절) — 지시, 명령 | [Remuneration] 보수 (72절) — 지급 |
| [Cleave] 결합하고 (22절) — 충실하다, 성실하다 | [Fornication] 음행 (74절) — 성적인 죄 |
| [Impart] 나누어 (30~31절) — 주다 | [Reconciled] 화해할지니라 (88절) — 다시 친구가 되다, 재결합하다 |
| [Steward] 청지기 (32절) — 주인의 재물에 대해 책임이 주어진 신뢰 받는 중 | [Chastened] 징계 받을지니라 (90절) — 고치다 |
| [Residue] 잉여물 (33절) — 잉여금 | [Rebuked] 꾸짖음을 받아 (91~92절) — 꾸짖다 |

교리와 성약 42:12 — “복음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주님께서 물몬경이 복음의 충만함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부 사람들은 물몬경에 영원한 결혼과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해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의아하게 생각해 왔다.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주님께서 이것에는 충만한 모든 원리들이 담겨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의 기초를 놓는 데 필요한 충만함만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다. ...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단지 침례의 원리를 죽은 자를 위해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원한 성약에 관한,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경전에서 가르쳐졌다. 물몬경에는 교회를

조각하고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기본 원리들이 간결하게 나온다. 게다가, 이러한 경전에서 사용된 “충만함”이란 단어의 의미는 “풍부함” 또는 “의도한 목적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사람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승영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열쇠와 권능과 원리들이 계시되어 있는 반면, 신앙과 순종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계시가 보류되고 있는 진리의 원리들도 아직은 많이 있다. (제3니파이 26:8~9 참조)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76~77)

조각하고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기본 원리들이 간결하게 나온다. 게다가, 이러한 경전에서 사용된 “충만함”이란 단어의 의미는 “풍부함” 또는 “의도한 목적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사람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승영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열쇠와 권능과 원리들이 계시되어 있는 반면, 신앙과 순종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계시가 보류되고 있는 진리의 원리들도 아직은 많이 있다. (제3니파이 26:8~9 참조)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76~77)

교리와 성약 42:18 — 살인, 용서 받지 못할 죄

“두 번째로 가장 심각한 죄는 살인, 곧 의도적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 죄에 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받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42:18) 따라서 이 죄는 용서 받지 못할 죄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율법을 어긴 것은 보상할 수 (또는 “대속하다” 또는 “용서하다”)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죄는 사면 받을 수 있는 죄로서, 다시 말해, 죄인이 스스로 충분한 값을 치른 후에야 그는 궁극적으로 사면 상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죄가 용서 받지 못할 명백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용서는 회개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살인자는 그가 취한 생명을 회복시킬 수 없어 자신의 죄를 완전히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Daniel H. Ludlow, A Companion to Your Study of the Book of Mormon [1976], 222)

교리와 성약 42:30~39 — 헌납의 법

뭔가를 “헌납한다”는 것은 그것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납의 법은,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교회 초기에 이 법에 따라 살기로 했던 회원들은 그들의 돈과 재산을 감독에게 주고, 또는 헌납하고, 그 대신 청지기 직분 (돈과 재물과 기타 책임)을 받았다. 감독에게 받은 것이 그들 자신의 소유가 되고, 회원들은 자신들의 필요 사항들을 돌보기 위해 받은 것들을 사용했다.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된 모든 것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감독에게 되돌려졌다. (교리와 성약 42:30~39, 51:2~9 참조) 헌납의 법은 회원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해의 왕국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또한 모세서 7:16~19 참조)

한 동안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협동교단”이라 불리는 단체에서 헌납의 법에 따라 살고자 했으나, 완전하게 이 법에 따라 살지는 못했다. (교리와 성약 105:1~5, 9~13 참조) 오늘날, 십일조, 금식 헌금, 교회 복지 프로그램, 교회 부름, 가정 및 방문 교육 등은 우리가 헌납의 법에 따라 살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리와 성약 119편 머리글 참조)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헌납이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원들은 복지 봉사에 참여하여 생산 프로그램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데저렛 산업에 물품을 기부하고,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고, 후한 금식 헌금을 내며, 와드 및 정원회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헌납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음 또는 방문 교육을 통해 시간을 헌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헌납입니다.”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교리와 성약 42:46 — 어떻게 죽음이 “단” 것이 될 수 있는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저 세상에서 위대한 가족의 재결합과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작별과 이별은 저 세상에서의 재결합과 귀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죽는 자들을 잃음을 슬퍼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교리와 성약 42편 45절 참조)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그들에게 달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42:46)고 하신 것을 보혜사를 통해 알고 큰 위안을 얻는다.”(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33)



죽음은 슬프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



우리는 금식 헌금을 후하게 바침으로써 궁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



교회의 장로들은 병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부름을 받았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42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나와 다, 그리고 활동 가 또는 라 중의 하나를 한다.

가 계시를 받는 형태

교리와 성약 42편 1~3절에서 주님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일들을 한다면 그들이 구하는 계시를 (42편)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1~3절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이 이 계시를 받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요건들을 열거한다.
- 이러한 요건은 여러분이 가족 내에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나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선택한다

교리와 성약 42편에는 성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들어 있다. 아래에 나오는 여섯 세트의 구절을 각각 검토한다. 한 가지 가르침을 택하여 그것이 오늘날 회원들에게 왜 중요인지 설명한다.

1. 11~17절
2. 18~29절
3. 30~39절
4. 40~52절

5. 61~69절

6. 74~93절

다 시온은 무엇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42편 9절, 16~55절에서 주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설명했다. 이 구절들과 “경전을 이해함” 편을 읽고, 다음 활동 중 하나를 행한다.

1. 만일 여러분이 그와 비슷한 사회에서 산다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 적어도 일곱 가지 예를 들고 각 보기에 해당하는 경전 구절을 기재한다.
2. 일지와 같은 곳에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가상하고 그 곳에서의 하루를 기술하는 이야기를 적는다. 이야기 속에 가정과 지역 사회와 학교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기술하고 각 보기에 해당하는 구절을 적는다.

라 도표를 완성한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42편 61~68절에서 구하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하셨다. 노트에 아래와 같은 도표를 그리고 도표를 완성하기 위해 그 구절들을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42편	무엇을 구하는가?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61절		
62절		
68절		

교리와 성약 4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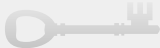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 43편에 나오는 계시를 받았을 당시 교회는 설립된 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계시를 받는 절차와 순서를 이해하지 못했다. 주님은 그 전에 계시에 관해 가르치셨지만 (교리와 성약 21:28, 42), 그러한 계시들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고,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그 결과, 때로 혼란과, 심지어 속임수조차 야기되는 실수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이 계시가 주어지기 직전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살던 한 여인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며,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과 예언에 따르게 하려고 노력했다.

교리와 성약 43편을 읽으면서, 계시가 어떻게 교회에 주어지는지, 그리고 각 회원의 의무에 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것 외에도 세상에 말씀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시는 이유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유념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43편

[Polity] 방침 (머리글) — 통치 조직	[Sleeping nations] 잠자는 민족들 (18절) — 죽은 수많은 사람들
[Stead] 대신 (4절) — 위치	[Gird up thy loins] 너희 허리를 동이라 (19절) — 준비하다
[Come in at the gate] 문으로 들어와 (7절) — 침례 받고 주님의 다른 계명들을 따른다	[Both bond and free] 메인 자나 자유로운 자 (20절) — 종이나 자유민 모두
[Edify] 덕을 세울지니라 (8절) — 강화하다	[Tempests] 폭풍우 (25절) — 파괴적인 폭풍우
[Sanctified, sanctify] 성결하게 (9, 11, 16절) —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다	[Pestilence] 역병 (25절) — 악성 전염병
[Bind yourselves] 스스로를 맹지니 (9절) — 성약하다	[The wrath of mine indignation] 나의 분함의 진노 (26절) — 나의 분노
[Purge] 제거하라 (11절) — 깨끗이 하다, 정화하다	[Millennium] 복천년 (30절) —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천년 기간
[Raiment] 의복 (13절) — 의복	[Be changed] 변화될 (32절) — 죽어 부활하다
[Endowed] 부여 받으리라 (16절) — 축복받은, 은사로 주어진	[Solemnities] 엄숙함 (34절) — 신성한 것들
[Utter] 발하실 (18, 21~23절) — 말씀하시다	

교리와 성약 43:2~5 — 교회의 회장만이 교회 전체에 대한 계시를 받는다.

교회 안에서의 계시의 원리와 관련하여, 제일회장단 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를 위해 계속되는 계시와 지도력은 교회의 회장을 통해 오며, 그들은 결코 성도들을 그릇되게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 교회의 각 회원은 자신의 부름과 책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높은 관능을 가진 자들을 위한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제정된 질서나 신권 계통 외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릇 인도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도의 빛, 1996, 7월호, 7쪽)



교회에 주어지는 계시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이끌도록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

교리와 성약 43:31 — 사탄은 복천년 동안 묵일 것이다.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조지 큐 캐넌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사탄이 묵일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로 묵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에게 지배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의에 의해 묵일 것이다.” (Gospel Truth: Discourses and Writings of President George Q. Cannon, sel. Jerreld L. Newquist, 2 vols. [1957~1974], 1:86)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43편을 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참되다고 믿는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한다. 그는 또한 자신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으며, 교회 전체가 알아야 할 중요한 계시들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리와 성약 43편 1~7절에서 그 같은 상황에서 속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주는 원리를 적어도 세 가지를 찾아 노트에 기록한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나 효과적인 교회 모임을 갖는 방법

1. 교리와 성약 43편 8~10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교회의 모임이나 반에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르치셨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열거한다.
2. 성찬식의 목적과 관련하여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한다면, 여러분은 비록 연사가 신통치 않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유익한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개인적인 기여를 통해 모임을 가지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514~515) 김볼 회장의 권고와 관련하여,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43편 8~10절에서 말씀하신 일들이 여러분이 참석하는 교회 모임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더욱 자주 해야 할 세 가지 일들을 말한다.

다 다양한 말씀 방법

1. 교리와 성약 43편 17~25절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지상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한다. 발하다, 외치다, 음성 등의 단어는 이러한 다른 방법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주님은 왜 여러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비취볼 때, 목록에 더 추가할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가?

라 몇 가지 보물을 열거한다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교리와 성약 43:34)는 주님의 권고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교리와 성약 43편에서 기억하고 싶은 세 가지 가르침을 열거한다. 왜 그러한 가르침을 선택했는지 설명한다. 가족 일원이나 친구와 함께 그것들을 나눈다.

교리와 성약 44편

대회의 목적



교회에 앉아 있는데 스테이크 대회가 2주 후에 열릴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가정한다. 친구가 몸을 기울여 이렇게 속삭인다. “난 스테이크 대회 때문에 정구 교회 모임을 못 갖는 것이 정말 싫어. 대관절 스테이크 대회는 왜 갖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설명을 하겠는가? 교리와 성약 44편에서 주님은 대회를 위해 함께 모이라고 교회에 명하셨다. 대회를 위한 이유와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은 오늘날에도 우리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 지방부, 선교부, 연차 대회 등에 여전히 참되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44편

[Compliance with] 순응하기 (머리글) : [Bond] 결박 (5절) — 계획이나 음모 — 에 순종하여

교리와 성약 44:2~5 — 대회의 축복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대회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충실한 자는 축복받게 된다는 지식과 간증이 커지고 굳어지는 영적 부흥의 시기입니다. 또한 그분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는 결의를 지닌 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이 깊이 자리잡는 시기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영감적인 지시를 주는 시기이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기이며, 보다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며, 보다 순종하는 아들과 딸이 되며, 보다 나은 친구와 이웃이 되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1982년 4월호 성도의 벗, 17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44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대회의 힘

1. 교리와 성약 44편 1~5절에 따르면, 장로들이 함께 대회에 모이라는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 오늘날 우리가 갖는 대회에서 그 약속들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2. 와드나 스테이크 혹은 연차 대회에서 들은 말씀이나 있었던 일을 통해 영적으로 발전하는 축복을 받거나 경험한 것에 대해 적는다. 또는 최근 와드나 스테이크 혹은 연차 대회에서 주어진 일부 중요한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기사를 적는다.

교리와 성약 45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소망하고 그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때에는 평화가 지상에 임하고 사람들에게 의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구원의 교리, 3권 12)

교리와 성약 45편은 재림에 관해 많은 것들을 계시하고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에 대한 터무니 없는 거짓이 이야기되고 쓰여졌으며, 그로 인해 회원들이 박해 받는 시기에 이 계시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이 계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 메시지가 박해의 시기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었는지 상고해 본다.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종교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릴 때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45편

- [Circulated] 유포되었다 (머리글) — 널리 퍼지다
- [Embracing] 품는 (머리글) — 받아들이다
- [All the hosts thereof] 그곳의 모든 무리 (1절) —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 [Advocate] 변호자 (3절) — 옹호자, 여러분의 입장을 변론하는 사람
- [Standard] 기 (9절) — 깃발 또는 기치
- [Redemption] 구속 (17, 46절) — 구출
- [Restoration] 회복 (17절) —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 집합
- [Desolation, desolating] 황폐 (19, 21, 31, 33절) — 파멸, 파괴적인
- [Remnant] 남은 자 (24, 43절) — 작은 부분이나 조각
- [Iniquity shall abound] 죄악이 성하게 되리라 (27절) — 수많은 죄악이 있을 것이다
- [Precept] 교훈 (29절) — 명령, 규칙
- [Generation] 세대 (30~31절) — 기간
- [Pass] 죽지 (31절) — 죽다
- [Scourge] 재앙 (31절) — 큰 파괴나 재난
- [Divers] 곳곳에 (33절) — 다양한
- [Shoot forth] 썩이 나기 시작하며 (37절) — 잎들이 자라나다
- [This place] 이 곳 (43절) — 예루살렘 (예수님이 첫번째 강론을 하셨을 때 계셨던 곳)
- [This mount] 이 산 (48절) —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 산
- [Cleave in twain] 둘로 갈라질 (48절) — 둘로 쪼개지다
- [Folly] 어리석음 (49절) — 어리석음
- [Calamity] 재앙 (50절) — 재난
- [Scorner] 조롱하는 자 (50절) — 신성한 것들을 경시하는 사람
- [Lament] 애곡하리라 (53절) — 한탄하다, 깊은 슬픔을 느끼다
- [Heathen nations] 이방 나라들 (54절) —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 [Refuge] 피난 (66절) — 피난처, 안전
- [Terrible] 두려운 즉 (70절) — 강력한, 정복할 수 없는

교리와 성약 45:22~23 — “세상 끝”

조셉 스미스-마태 1장 4절에 따르면 “세상 끝”은 악인의 멸망을 일컫는 말이다.

교리와 성약 45:23~26 — 이 예언에서는 역사상 어떤 시대들이 논의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리와 성약 45편 16~59절에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고대 제자들이 물었던 두 가지 질문에 주의를 기울일 때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될 시기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둘째, 악인들이 멸망되고 그리스도가 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시기인 예수의 재림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마태복음 24:3, 조셉 스미스-마태 1:4 참조) 제자들은 그 두 가지 사건이 같은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다른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다. 교리와 성약 45편 18~21절에서 구주는 성전의 파괴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르쳤다. 22~34절에서 그분은 이들 두 가지 질문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25절에서 53절까지는 후일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다루고 있으며, 54~59절은 복천년, 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을 통치하실 천 년 기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교리와 성약 45:25~31 — “이방인의 때”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방인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국가란 이른바 기독교 국가로 북남미와 유럽 제국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세상에 복음이 회복된 때(1830)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이 그것을 거절한 후,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질 때까지의 시기를 일컫습니다. 주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이를 때, 한 빛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리니, 이는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며 사람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내게서 돌이킴이라.”

“그리고 그 세대에 이방인의 때가 차리라.”(교리와 성약 45:28~30)

“이방인의 때가 다가오면 이러한 표적들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요, 온 땅이 동요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끝이 이르기까지 그의 오심을 늦추신다 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차차 식어질 것이요, 죄악이 성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45:26~27)

“그리고 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 곧 악인의 멸망이 오리라.”(조셉 스미스-마태 1:31)

“오늘날 이러한 표적들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 오도록 허락하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번창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적인 사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격노와 자신의 때가 짧다는 염려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Prepare Yourself for the Great Day of the Lord,” *New Era*, 1982년 5월, 47)

교리와 성약 45:32 — “거룩한 곳”



구주는 제자들에게 거룩한 곳에 선다면 후일에 있을 모든 무서운 심판들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거룩한 곳은 무엇인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거룩한 남자와

여자는 거룩한 곳에 서며, 거룩한 곳은 성전, 예배당, 가정, 시온의 스테이크로 이루어져 있다.”(Come unto Christ [1983], 115)

주님은 성도들의 집합과 시온의 건립에 대해 가르친 교리와 성약 45편 64~71절에서 이러한 거룩한 장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다.

교리와 성약 45:60~61 — 조셉 스미스가 신약전서를 번역했는가?

교리와 성약 45편 60~61절은 흥정역 성경의 조셉 스미스 역을 가리키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리와 성약 35편 20~21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46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45:68 — 시온이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233쪽)에서 시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본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45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마 중 세 가지를 한다.

가 왜 들어야만 하는가?

1. 교리와 성약 45편 1~15절에서 주님께서 “들으라”고 권유하는 단어나 구절들을 찾아 표시한다. (또한, 들도록 권유하는 “귀를 기울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나 구를 찾아본다.) 여러분은 들으라는 권유를 그분에게서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2.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좋은 이유들을 찾아 열거한다.
3. 열거된 이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설명한다.
4.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인가? 작성한 목록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 잘 귀를 기울이는 데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나 내용을 정리하고 적용한다

1. 노트에 난을 만들고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45편 16~59절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시기를 각 난에다 그린다. 노트 각 난에 주님께서 그 시대에 일어난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적는다.

교리와 성약 45편에 예언된 사건들			
예수의 사도들의 시대	이방인의 때	재림의 때	복천년의 때

2. 왜 주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알려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3. 이 계시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도 두 가지 적는다.

다 메시지를 분석한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제자들이 근심하였다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45:34 참조)

1. 교리와 성약 45편 26~34절을 살펴보고, 제자들이 근심한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열거한다.
2. 35~44절을 살펴본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좋을 이유로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라 “큰 일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이니라.”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도록 부탁했다고 가정한다.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지만, 그는 여러분은 의인이 기대할 만한 긍정적인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조하기를 원한다. 교리와 성약 45편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포함시키고 싶은 개념들을 찾아 열거한다. 각 개념들을 찾아낸 구절을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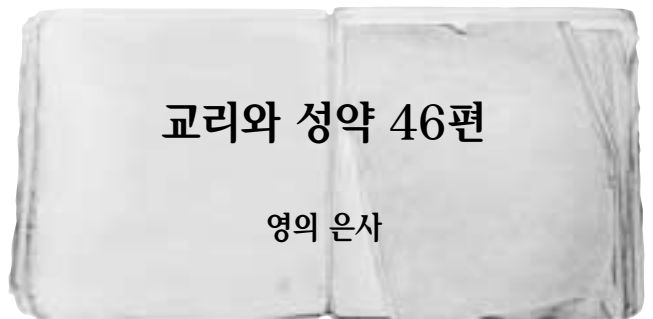


마 약 가운데서의 보호

1. 교리와 성약 45편 32절에 따르면, 주님의 제자들은 후일에 세상의 사악함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2. 주님은 62~71절에서 추가로 어떤 내용을 주셨는가?
3. 여러분은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15편 5~6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무엇을 덧붙일 수 있는가?
4. 여러분에게 교회가 “평화”나 “안전” 혹은 “피난”의 장소였던 점에 대해 적는다.

교리와 성약 46편

영의 은사



여러분이 이미 배웠듯이, 회복된 교회 초기에는 헌신적이긴 하나 마음이 들떠 있고, 또한 주님의 방법에 대해 미숙한 회원들로 가득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교회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바라시는지에 관한 안내가 필요했다. 교리와 성약 46편은 어떻게 모임을 진행하며,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성신의 여러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들과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 계시에는 이러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방식, 다양한 은사들의 예, 그리고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한 가르침 등이 나온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46편

[Trespassed] 범법하였거든 (4절) — 죄를 짓다	∴ [Consume it upon their lusts] 자신의 욕망에 써버리려고 (9절) — 이기적인 이유를 위해 그것을 행하다
[Makes reconciliation] 화해를 이루기 (4절) — 회개하다	∴ [Suiting] 적합하게 (15절) — 적당한, 조화되는
[Earnestly] 간절히 (5~6, 8절) — 진심으로,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 [Discerning, discern] 분별함이 (23, 27절) — 차이를 알고 이해하다,
[Liberally] 후히 (7절) — 관대하게	∴ 판단하다
[Seduced] 미혹되지 (7절) — 그릇된 길로 이끌리다	

교리와 성약 46:11 —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진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비극 중의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를 재능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혐오감을 느끼고 낙담을 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좌절감에 빠지게 되면, 이는 우리에게도 불행한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질, 지능, 학교 성적, 재물, 권력, 지위 또는 외모로 자신을 판단하여 아무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공정치 못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 이상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아 키워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기억해야 하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22쪽)

교리와 성약 46:11~29 — 영적인 은사가 모두 열거된 것인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푼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적인 은사는 그 수와 다양함에 있어서 무한하다. 계시된 말씀에 열거된 것들은 단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무한히 부어 주시는 신성한 은혜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한 것이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371) 교리와 성약 46편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과 모로나이사 10장에 영적인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흔히 언급되지 않는 몇 가지 은사의 예를 들었다.

“질문하는 은사, 귀 기울이는 은사, 작고 조용한 음성을 듣고 활용하는 은사, 울 수 있는 은사, 다툼을 피하는 은사, 동의하는 은사, 중언부언을 피하는 은사, 의로운 것을 구하는 은사, 비판하지 않는 은사,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 제자가 되는 은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은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사, 기도드리는 은사, 강한 간증을 하는 은사, 성신을 받는 은사”(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22쪽)

교리와 성약 46:15 — “여러 가지 다른 직분”

“여러 가지 다른 직분”은 교회 내에서 신권 지도자들의 책임을 일컫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46:16 — “역사하심의 다양함”

“역사하심의 다양함”을 아는 것은 영적인 나타내심이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아는 것을 말한다.(조셉 스미스-마태 1:22 참조)

교리와 성약 46:24~25 — 방언의 은사와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이 은사들은 교회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선교사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구도자들이 가르쳐진 복음을 이해하고 간증을 얻을 수 있는 선교 사업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방언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과 같은 것이며, 특별히 교회에서 방언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신을 받은 사람이면, 타국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표적을 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38~139)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46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주님의 응답을 찾아낸다

1. 교리와 성약 46편의 머리글을 읽는다.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해 무엇에 관해 권고하셨는가?
2. 1~8절에 따르면, 이 문제에 관해 주님은 어떤 권고를 하셨는가?
3. 주님이 제3니파이 18장 28~32절에서 가르치신 것에서 우리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나. 새로운 회원들이 이해하도록 도움

교리와 성약 46편에 설명되어 있는 영의 은사에 관해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세 가지 견해를 열거한다. 각 견해를 찾아낸 구절들을 적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다. 은사를 구함

1. 교리와 성약 46편 8~12절에서, 주님께서 영의 은사에 관해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을 열거한다.

2. 13~27절과 11~29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에서 에쉬튼 장로가 말한 영의 은사들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두 가지 은사를 적는다. 주님이 8~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 속에 새기면서 그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교회가 조직되던 날부터, 주님은 여러 기록과 역사가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21:1 참조) 경전은 우리가 기록된 책들과 기록에 의해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요한계시록 20:12, 교리와 성약 128:7 참조) 정확한 역사는 아담의 때로부터 복음을 가르치고 간증을 키우는 중요한 근원이 되어 왔다. (모세서 6:5~6, 45~46, 니파이전서 3:19~20, 모사이야서 1:2~5 참조) 교리와 성약 47편에서 존 휘트머가 교회 역사가로 부름 받은 것에 대해 읽으면서, 자신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47편

[Capacity] 직책 (머리글) — 부름 또는 지위 : [Regular] 정규 (1절) — 일관되게 유지되는, 정확한
 [Expedient] 필요하다 (1~2절) — 적절하다, 바람직하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47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기록할 내용을 안다

1. 교리와 성약 47편에 따르면, 존 휘트머는 역사에 기록할 내용을 어떻게 알았나?
2. 누군가가 작성한 역사 기록으로 인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3. 여러분이 적는 기록이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영원히 보존될 노트나 ... 일지를 기록하십시오. 천사가 영원히 그 책에서 인용할지 모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사와 뜻깊었던 생각, 업적, 실패, 사명과 승리, 인상과 간증을 일지에 적으십시오.”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25쪽)



교회 회원들은 1830년 12월에 주어진 계시에 응하여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지역으로 계속해서 모여들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커틀랜드가 시온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곳이 시온이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회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커틀랜드에 머물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시온으로 이주하기 전에 그 곳에 잠시 있게 되는 것인가? 교리와 성약 48편은 이 문제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 계시는 주님께서 세속적인 일에 관해 권고해 주시고, 세속적인 일은 종종 영적인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실례 가운데 하나이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48편

[Mode of procedure] 절차 방식 (머리글) — 계획된 방법 : [Impart] 나누어 줄지니라 (2절) — 주다, 나누다
 [Procuring] 획득 (머리글) — 얻는, 사는 : [Eastern brethren] 동부의 형제들 (2절) — 뉴욕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오하이오 주로 온 교회 회원들
 [Your places of abode] 거주하는 곳 (1절) — 집 : [Commencement] 시작 (6절) — 시작
 [Suitable to your circumstances] 너희 사정에 적합한 (1절) — 너희 필요에 가장 좋은

교리와 성약 48:6 — 집합은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

우리는 후일에 있을 성도들의 집합이나 시온 건설과 관련하여 속을 필요가 없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은 집합의 사업을 인도하는 책임을 교회 지도자들 손에 분명하게 맡기셨으며, 장차 그들에게 그러한 집합이 이루어질 때와 장소에 대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실 것이다. ... [교회 회원들은]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권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시가 계시로 주어질 때까지 마음에 동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Ye Are the Light of the World [1974], 167)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48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답을 찾는다

교리와 성약 48편 머리글과 1~6절을 또한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성도들을 위한 최후의 집합 장소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나?
3. 그들은 무엇을 위해 돈을 사용하려 했는가?
4.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스스로, 또는 “너희 보기에 좋을 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 (교리와 성약 58:26~29, 62:4~5 참조)

교리와 성약 49편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도들의 합동 교단 (셰이커 교도)을 위한 메시지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믿음이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그러한 믿음이 바뀐다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교리와 성약 49편의 머리글에서 읽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도들의 합동 교단(셰이커 교도)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부근에 많은 회원을 두고 있던 종교 단체였다. 머리글은 또한 그들의 일부 믿음이 회복된 복음의 교리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다. 주님이 교리와 성약 49편에서 강조하신 각각의 교리를 읽으면서,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초기 셰이커 교도의 모임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49편

[Celibate] 독신 생활 (머리글) — 결혼을 하지 않거나 성관계를 갖지 않음	[Measure] 수 (17절) — 최대한의 수나 수량
[Refuted] 반박하고 (머리글) — 반증하다	[Abstain from] 금하며 (18절) — 먹는 것을 피하다
[Reason with them] 그들과 이치를 논하되 (4절) —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설명하다	[Raiment] 의복 (19절) — 의복
[Listed] 원하는 대로 (6절) — 바라거나 선택하다	[Flourish] 번성하며 (24~25절) — 축복되다, 번영하다
[Exalted] 높아진 (10, 23절) — 높은 지위에 올린	[Rearward] 후군 (27절) — 뒤에서의 보호
[Answer the end of its creation] 창조 목적에 부응하게 (16절) —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다	[Confounded] 패배당하지 (27절) — 부끄러움을 당하다, 어리둥절하다

교리와 성약 49:8 —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교리와 성약 49편 8절에 언급된 “거룩한 사람들”이 “제시자 요한과 세 명의 니파이인처럼 변형된 사람으로, 이 세대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상에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특별한 성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다.(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209)

교리와 성약 49:24~25 —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

셰이커 교도들은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었다. 교리와 성약 49편 24~25절은 재림이 있기 전에 성취될 두 가지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계시가 주어졌을 때, 어느 예언에 대해서도 성취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시온이 미국 서부의 산과 언덕 위에서 번성하며, 수백만 명의 레이맨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있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49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그릇된 교리를 바로 잡는다

1. 노트의 한 페이지를 둘로 나눠 두 개의 난을 만든다. 한 난에는 교리와 성약 49편 머리글에서 설명된 셰이커 교도들의 믿음을 열거한다. 둘째 난에는 교리와 성약 49편이 첫째 난에 열거된 셰이커 교도들의 믿음을 바로 잡기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열거한다.
2. 셰이커 교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를 택해, 그 그릇된 교리를 바로잡는 경전 구절을 성경에서 찾는다. 찾은 것을 둘째 난에 적힌 설명 옆에 전후 참조로 적는다.
3. 이 기사에 설명되어 있는 올바른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의 답에,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49편에서 설명한 교리 중 한 가지 예를 들어 그 교리가 여러분이 현세에서와 영원토록 살아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교회가 회복된 시기에, 사람이 영의 은사를 받게 되면 신체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믿음이 일부 기독교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집회에서 영으로 충만해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언어로 크게 소리지르거나, 땅바닥에서 뒹굴거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졸도하는 동안 어떤 “시현”을 경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비록 새로운 교회 회원들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증거를 얻었지만, 그들의 오랜 습관이나 전통을 바로 떠나지는 못했다. 그 결과, 이러한 이상한 행위들이 때로 회복된 교회의 모임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된 팔리 피 프랫은 이러한 기괴한 행위에 당황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선지자에게 교리와 성약 50편에 나오는 계시를 주셨다.

사탄은 교묘하게 영을 모방하여 미숙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눈멀게 하려 한다. 교리와 성약 50편을 읽으면서, 속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고를 찾아본다. 또한 영이 역사하는 방법에 대한 진리를 찾아 보고, 그 영향과 축복을 더욱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50편

[Phenomena] 현상 (머리글) — 보기 드문 사건들	∴ [Railing accusation] 욕하는 비난 (33절) — 모욕적이고 교만한 비난
[Abominations] 가증함 (4절) — 불쾌하고 악한 행위	∴ [Seized therewith] 사로 잡히지 (33절) — 거짓 영에 정복당하다
[Hypocrites] 위선자 (6~8절) — 의로운 척 하나 의롭지 않은 사람	∴ [Exhortation] 권면 (37절) — 격려와 교훈
[Adversary] 원수 (7절) — 사탄	∴ [Hinder] 방해하지 (38절) — 방해하다, 끼어 들다
[Edified] 교화되며 (22절) — 세우다, 강화하다	∴

교리와 성약 50:24 — 완전을 향해 빛 가운데 자라남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계발할 수 있는 지성과, 하늘로부터 지혜로운 자에게 내리는 진리의 빛에 대해 기울이는 조심성과, 근면성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수록, 시야가 더욱 맑아지고, 기쁨이 더욱 커져, 인생의 모든 악을 극복하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잃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고대인들과 같이, 창조자의 권세와 영광이 쌓이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단숨에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48)

교리와 성약 50:30~34 — 분별하는 영

주님은 이 계시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걸보기에 영적인 사건, 활동, 가르침 또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권고하셨다. 그 사람이 정직하고 진지하다면, 응답은 성신의 권세에 의해 알려질 것이다. 교리와 성약 6편 22~24절, 8편 2~3절, 9편 7~9절의 말씀은 성신의 확증하는 영향력을 깨달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게다가, 교리와 성약 46편은 분별하는 영적인 은사가 감독과 신권의 열쇠를 가진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그들의 권고는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 준다.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조지 큐 캐넌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성약을 맺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은사 가운데 하나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으며 거의 간구하지 않는 은사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뛰어난 가치를 지닌 은사이며, 모든 후기 성도들이 지녀야 할 은사이다. ... 어떠한 후기 성도에게도 이 은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영들이 사람을 속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Gospel Truth, 1:198)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50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나와 다른 활동 가, 다, 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결과를 밝여냄

교리와 성약 50편 1~9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지도자 평의회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2. 신앙 가운데 견디는 축복은 무엇인가?
3. 위선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나 교사와 학생들의 역할

교리와 성약 50편 10~22절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나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지게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 이 구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을 열거한다.
2.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책임을 열거한다.
3.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책임을 완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4. 이 구절들에 나오는 설명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거나 주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속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5. 주님의 이 권고를 현재 교회의 공과반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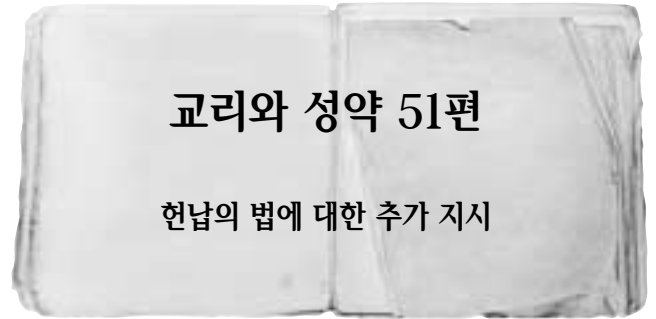


다 상징을 설명한다

1. 주님은 교리와 성약 50편 23~25절에서 영적인 지식을 무엇에 비교했는가?
2. 이것이 그토록 훌륭한 상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이 상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고, 영적인 생활에서는 어떤지 비교한다.

라 주님께 관해 좀 더 배운다

1. 교리와 성약 50편 40~46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께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이 계시의 목적을 염두에 둔다.)
2. 이 구절들에서 특히 여러분에게 감명을 주는 글귀나 구절을 선택한다. 감동을 주는 이유에 대해 적는다.



교리와 성약 48편 2절에서, 주님은 오하이오 주에 있던 교회 회원들에게 미국 동부에서 모여드는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땅을 나누라고 명하였다. 뉴욕 주 콜스빌에서 한 그룹이 교리와 성약 51편의 계시가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도착했다. 그들은 오하이오 주 톰슨 (커틀랜드 근처)에 정착했으며, 리먼 코플리는 (교리와 성약 49편에서 소개된 사람) 700 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여드는 성도들을 위해 그 땅을 희사했다. 앞의 계시에서 (교리와 성약 41~42) 감독은 교회 회원들의 지속적인 문제를 돕는 책임을 지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톰슨에 정착한 콜스빌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도를 간구했다. 선지자는 파트리지 감독의 질문을 주님께 가져갔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51편은 헌납의 법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추가 지시이다. (이 법은 교리와 성약 42편 30~55절에 계시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 51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본다. 이 계시에 있는 원리들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잘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51편

[Migrating] 이주하는 (버리글) — : [Deeded unto him] 양도된 (5절) —
 옮기는 : 그의 재산으로 법적 문서에 기록된
 [Portions] 몫 (3~5절) — 땅이나 물품 : [Steward] 청지기 (19절) — 뭔가를
 등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 관리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

교리와 성약 51:5 — “그는 그 예물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요”

교리와 성약 51편 3~5절은 사람들이 헌납의 법 아래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치거나 헌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독은 그들에게 “형편과 부족과 필요에 따라”(3절)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다. 더 나아가 감독은 그들에게 그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준다 — 다시 말해, 그들이 감독에게서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 헌납된 것이 다시 돌려주게 될 필요량보다 많을 경우, 그 잉여분은 감독의 창고에 비축되어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이 5절에서 말한 “예물”이다. 이 계시는 만일 한 개인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에게 법적 권리가 양도된 재산은 그대로 소유하지만, 감독의 창고에 들여놓은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해 준다.



우리가 바치는 시간과 노동과 돈의 은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감독의 창고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

교리와 성약 51:10~11 — 성별된 돈을 “다른 교회의 백성”에게 주지 않음

“다른 교회의 백성”이란 교회의 또 다른 지부를 지칭한다. 여기서 주어진 권고는 “콜스빌 지부에서 소유한 재산을 다른 지부에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Hyrum M. Smith and Janne M. Sjodahl,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rev. ed. [1972], 299) 감독들은 자신들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궁핍한 사람들을 돕도록 격려받고 있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51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활동 나를 한다.

가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교리와 성약 51편 3절에 따르면, 헌납의 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균등한” 몫을 배정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1. 교회 지도자에게 오늘날 교회에서 감독이 궁핍한 자를 어떻게 돌보는지 물어본다. 노트에 배운 것을 적는다.
2. 교리와 성약 51편에 주어진 방법과 유사하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 “창고”는 무엇이며, 그 곳에 무엇을 낼 수 있는지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52편

새 예루살렘인 시온이 계시됨

예비 선교사나 그 가족과 친구에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1831년 6월 3~6일에 열린 교회의 한 대회가 있을 후,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포함한 3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미주리 주로 여행하도록 지명하셨다. 그들은 가는 길에 전도를 하기 위해 각자 다른 길로 여행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미주리 주에 도착하면 “상속의 땅”(교리와 성약 52:5)을 계시해 주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하셨다. 그들은 그 장소가 후일의 시온의 도시, 혹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그와 같은 선교사 부름을 받는 설렘을 상상할 수 있는가?



오늘날의 선교사들처럼, 교리와 성약 52편에서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은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가르침과 권고가 필요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의의 전도자가 되는 “규범”(14절)을 주셨다. 주님의 권고는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하게 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또한 진정으로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52편

[Consecrate] 성별해 (2절) — 바치다, 헌납하다	[Contrite] 통회한 (15~16절) — 회개하고 겸손한
[A remnant of Jacob] 야곱의 남은 자 (2절) —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	[Edifieth] 교화하는 (16절) — 세우다, 강화하다
[Heirs] 상속자 (2절) — 그 땅을 상속 받을 법적 권리를 가진 백성들	[Several courses] 다른 길 (33절) — 다른 길
[Sift him as chaff] 그를 거같이 체로 치기 (12절) — 알곡에서 겨를 분리하는 것과 관계된 구절, 이 경우에는 “그를 버리기”나 “그를 지배하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Residue] 나머지 (39절) — 나머지
	[Idolatry] 우상 숭배 (39절) — 믿음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
	[Hasten] 속히 세우고 (43절) — 서두르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52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나 활동 나를 한다.

가 모범

주님은 교리와 성약 52편 14~19절에서 속임을 피하는 “규범”을 마련해 주셨다.

1. 그 구절들을 검토하고 “그분에게 받아들여” 지거나 혹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특성들을 열거한다.
2. 이러한 특성을 갖춘 사람에게 오는 축복들을 열거한다.

나 선교사들을 위한 조언

교리와 성약 52편에 있는 계시는 특히 주님께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현대의 선교사들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에 관해 적는다.

교리와 성약 53편

시드니 길버트의 부름

하나님 아버지의 각 자녀에게는 독특한 은사와 재능이 주어졌다. 사람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유익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인간 몸의 여러 지체에 비유했다. (고린도전서 12장 참조)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머리라면 누가 손의 일을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손이라면 누가 생각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인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53편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하도록 하시는 예를 보여 준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53편

[Election] 택하심 (1절) — 선택됨	[The residue] 그 나머지 (6절) — 그 나머지
---------------------------	----------------------------------

교리와 성약 53:4 — “교회의 대리인”

시드니 길버트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뉴얼 케이 휘트니와 함께 상점을 운영하는 일을 했다. 교리와 성약 53편에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교회에서 대리인이 되거나, 또는 교회를 위해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시드니 길버트는 유능한 사업가였다. ... 주님은 성도들을 미주리 주와 같은 새로운 지역에 모으려 했으며,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사업을 할 시드니 길버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사업 재능은 인류의 봉사를 위해 사용될 때 이른바 영적인 은사와 같이 훌륭하며, 필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기심과 탐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때에는 덧과 저주가 된다. 주님께 봉사할 때 그러한 재능은 축복이다. 그는 대리인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Smith and Sjodahl,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313)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53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여러분의 재능을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한다

1. 주님은 시드니 길버트를 교회를 위한 사업자가 되도록 부르셨다, 그가 이 부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 그 권고를 따르는 것은 그가 사업을 하는 방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 여러분이 지닌 재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주님의 왕국을 축복하기 위해 어떻게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54편

성약과 결과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순종과 사악함이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면 실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로 교회 공과반에 참석하고, 성신을 알고 느끼고자 하지만, 반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이 바라는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54편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방해를 받은 상황을 다루고 있다.



교리와 성약 51편에 대한 학습 지도서의 소개 부분에서 여러분은 오하이오 주 톨슨 군의 리만 코플리 농장에 정착한, 뉴욕 주 콜스빌에서 온 일단의 성도들에 관해 읽었다. 코플리 형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자 합동 교단 (셰이커 교도: 교리와 성약 49편 참조)에게 선교 사업을 하러 갔다 온 후에, 땅을 헌납하겠다고 한 예전의 성약을 어기고 콜스빌 성도들이 “그의” 소유지 안에 정착하는 것을 거절했다.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특히 지부 회장이던 뉴얼 나이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인도를 구했다. 교리와 성약 54편과 56편에 나타난 계시는

그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다.

가 진상을 바르게 말함

교리와 성약 54편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한다. (본 학습 지도서의 머리글과 소개 편을 참조한다.) 주님께서는 1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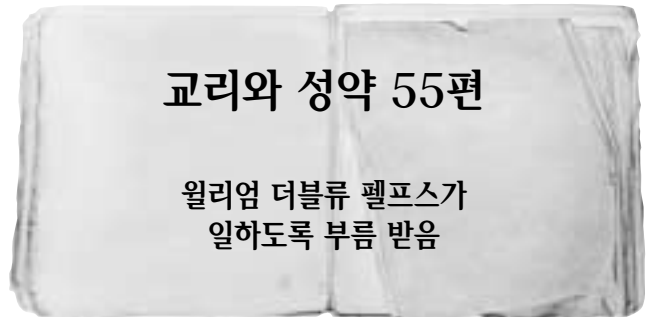
1.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리만 코플리와 콜스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셨다고 생각하는가?
2.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나 성약의 중요성

교리와 성약 54편은 성약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을 쓸 때 계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교리와 성약 55편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가 일하도록 부름 받음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으로부터 창출해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쁨을 깊게 하시고, 시야를 넓혀 주시고, 이해력을 키우시며, 근육을 강하게 하고, 영을 고취하고, 그들의 축복을 늘려 주시고 기회를 더 갖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친구들을 주시며, 평화를 부여 주실 것입니다.”(“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와 기대”, 성도의 벗, 1987년, 12월호, 4쪽)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때 그것은 더욱 향상된다.

교리와 성약 55편에 있는 계시는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계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유했으며 펠프스 형제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목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54편

- | | |
|--|---------------------------------------|
| [Stand Fast] 굳게 지킬지니라 (2절) — 충실하다, 계속 봉사하다 | ∴ [Void] 무효 (4절) — 더 이상 타당하거나 구속력이 없는 |
| [Contrite] 통회할지이다 (3절) — 죄를 후회하며 기꺼이 순종함 | ∴ [Tribulation] 환난 (10절) — 어려움, 역경 |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54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나 활동 나를 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55편

- | | |
|---|----------------------------|
| [Remission] 죄 사함 (1~2절) — 용서 | ∴ [Residue] 나머지 (6절) — 나머지 |
| [Contrite] 통회하면 (3절) — 죄를 뉘우치며 기꺼이 회개하려고 하는 | ∴ |

교리와 성약 55:1 —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는 누구인가?

윌리엄 와인즈 펠프스는 뉴욕 주에서 성공한 인쇄업자이자 교육자, 정치가였다. 그는 “몰몬경을 구입하면서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 그는 ‘밤을 지새며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몰몬경을 읽었다.' 다음날 아침 윌리엄은 '나는 이 교회에 가입할 것이다. 나는 그 교회가 참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외쳤다." (Susan Easton Black, *Who's Who in the Doctrine and Covenants* [1997], 223)

펠프스 형제는 후에 몰몬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그것은 훌륭한 책이며,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책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습니다. ...

"몰몬경을 상고하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올 영광을 예견할 때면, 제 마음에는

희망과 빛과 기쁨과 만족이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참으로 영화로운 보배입니다!" ("Letter No. 10," *Messenger and Advocate*, 1835년 9월, 177)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는 "교회를 위한 인쇄인"(교리와 성약 57:11)으로 봉사했다. 1833년에 미주리 주에서 계명의 책을 인쇄하던 중에, 폭도들이 그의 인쇄소를 습격하여 파괴했다. 그는 후에 교리와 성약 1835년 판의 출판을 도왔다. 그는 교회를 위해 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다. 그러한 찬송가 중 하나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찬송가는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 때 불리었다. 그는 1839년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심한 적의를 가진 적이 되었다. 1840년에 회개하여 다시 교회에 들어왔다. 1872년에 80세의 나이로 유타 주에서 사망했다.

교리와 성약 55:4 — 젊은이들을 위한 가르침은 주님께 기쁨이 될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다 받으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정신과 손을 사용하는 여러 기술들을 개발하십시오. 교육은 기회의 열쇠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배울 의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또한 습득하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한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이 비록 큰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사업에 영예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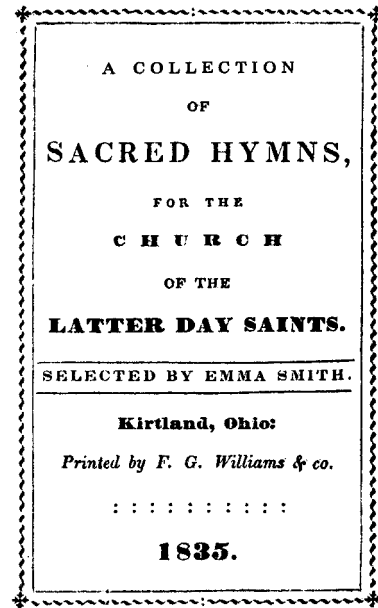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55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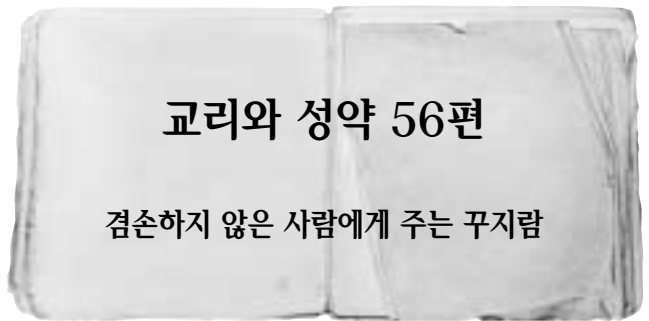
1. 교리와 성약 55편에 대한 본 학습 지도서의 소개 부분에서 에즈라 티프트 벤슨 회장의 인용문을 검토한다. 교리와 성약 55편 1절에 있는 어떤 구절이, 벤슨 회장이 약속한 종류의 축복들을 받기 위해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여러분은 펠프스 형제가 이 계시에 있는 권고를 따랐을까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교회 찬송가에서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 의해 쓰여진 많은 찬송가 제목을 찾아본다.(그러한 찬송가로는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이스라엘의 구주", "찬양에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불러라 고요히 성가", "하늘 중에 사시는 하나님" 등이 있다.) 비록 그가 잠시 교회에서 떠나가기는 했지만, 찬송가를 작사한 것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사용한 한

예이다. 그가 지은 찬송가를 읽으면서 그 찬송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명을 주는지, 혹은 과거에 어떤 감명을 주었는지를 적는다.



교리와 성약 56편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꾸지람



교리와 성약 56편에는 오하이오 주 톨슨 군에서의 논쟁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주는 권고가 계속된다.(교리와 성약 51편과 54편의 머리글은 물론 본 학습 지도서에 있는 소개 부분을 참조한다.) 이 계시에 있는 주님의 권고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행동 양식을 살펴보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죄악을 막거나 회개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56편

- | | |
|---------------------------------------|---------------------------------------|
| [Kindled] 불붙음이니 (1절) —
분개하니, 진노하니 | [Canker] 썩게 할 (16절) —
오염시키다, 더럽히다 |
| [Indignation] 분노 (1, 16절) —
의로운 분노 | [Lamentation] 애통 (16절) — 슬픔의
통곡 |
| [Revoke] 취소하나니 (4~6절) —
취소하다 | [Recompense] 보상 (19절) — 공평한
보수, 보상 |

교리와 성약 56:2 — 어떻게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가?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모든 세상 정욕을 부인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56:8 — 교만을 회개함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 즉 온유함과 순종입니다. ... 그것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7) 벤슨 회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스스로를 겸손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했다.

-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존중함”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김)
-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름
-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함
- 헌신적으로 봉사함
- 선교 사업을 수행하고 복음을 나눔
- 성전에 자주 참석함
-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남
- 우리 생활에서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음

교리와 성약 56:8 — 에즈라 테이어에게 준 이전의 계명은 무엇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전에 에즈라 테이어에게 그가 헌납한 재산에 관해 권고를 해 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땅 일부를 주는 것에 대해 재고했던 것이 틀림없다. 이기심 때문에 선교사로 봉사하지 못했으며, 시온의 땅을 헌납하는 일을 도울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56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나 활동 나를 한다.

가 모반, 그 결과와 치유

1. 주님은 교리와 성약 56편에서, 일부 교회 회원들의 교만하고 모반적인 행위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또한 교만하거나 모반하는 사람들에게 생길 일들에 대해 권고하셨다. 그는 또한 교만과 모반을 막거나 회개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도 권고하셨다. 노트에 다음과 비슷한 도표를 그린다. 주님께서 1~15절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빈칸을 채운다. 여러분이 열거한 각 항목을 찾아낸 구절을 적는다.

교만과 모반의 예	교만과 모반의 결과	교만과 모반을 예방하거나 회개하기 위한 해결책

2. 이 활동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이 할 일에 관해 적는다. 왜 그것을 하려는지 설명한다.

나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1. 교리와 성약 56편 16절에 따르면, 주님은 부자들의 어떠한 특성을 책망하시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2. 17절에 따르면,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어떠한 특성을 책망하시는가? 주님은 18~20절에서 겸손하고 충실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3. 여러분이 이 구절들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을 완성한다.

가. “만일 ... 하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

나. “만일 ... 하다면, 가난한 것에 마음 쓰지 않는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온 건설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선지자, 제사장 및 왕들이 특별한 기대를 안고 주목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다리면서 이 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하였으나 결국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17)

물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대륙이 후일의 새 예루살렘 또는 시온의 도시가 될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더서 13:5~8 참조) 물몬경은 후일에 시온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사업을 도울 방법을 알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간 사람들은 시온의 대업을 건설하기 위해 힘쓰라는 말씀을 들었다.(교리와 성약 6:6, 11:6, 12:6, 14:6 참조)

교회가 조직된 후에도 시온은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었다. 하이럼 페이지는 시온의 위치에 관한 계시(교리와 성약 28편)를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교회 회원들 사이에 논쟁과 혼란을 야기시켰다. 하지만, 주님은 페이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온의 도시는 “데이먼과 가까운 변경”(교리와 성약 28:9)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경의 영감적 작업을 계속하면서 시온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주님은 그에게 홍수 이전에 시온의 도시를 건설했던 선지자 에녹에 관해 창세기에서 없어진 기록 모두를 계시하셨다. (모세서 6~7장 참조) 얼마 후에, 주님은 선지자에게 “계명”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교회가 따라야 할 영적이고 현세적인 율법과 관련된 계시였다. 그 계시에서 주님은 선지자에게 시온의 장소에 관한 정확한 위치를 계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1831년 6월에 주님은 여러 선교사들을 불러 미국과 인디언 (또는 레이맨) 영토의 경계인 미주리 주로 여행하게 하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 곳에 도착하고 나면 시온의 위치를 계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약 52편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여행했던 일부가 1831년 7월 17일에 그 곳에 당도했다. 다른 선교사들도 그 후 얼마 안 있어 도착했다. 선지자는 그 땅과 위치를 살펴보고, 주님께 질문하고 간구한 결과 교리와 성약 57편에 나오는 계시가 주어졌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57편

[Compliance] 순응 (머리글) — 순종	: [Subsequently] 이어서 (머리글) — 그 후에
[Varied] 여러 가지 (머리글) — 다양한 종류	: [Consecrated] 성별한 (1절) — 헌납된, 거룩한 것으로 지정된
[Contemplating] 깊이 생각하면서 (머리글) — ~에 관해 생각하며	: [Tract] 토지 (4~5절) — 땅
	: [Fraud] 속이는 일 (8절) — 부정적

교리와 성약 57:3~4 — 중심지를 구입함



“인디펜던스 시는 미주리 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 그 곳은 오래된 도시이다. 1827년에 건립되었으며, 1831년에는 그저 조그만 촌락에 불과했다. 현재는 캔사스 시의 한 외곽 도시이다.” (Smith and Sjodahl,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331)

교리와 성약 57:4 —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똑바로 가로지르는 경계선”

57편의 계시가 주어질 당시 미주리 주 서부 경계는 조직된 미국의 경계선의 일부였다. 미주리 주 서쪽은 인디언 영토였다. 인디언(또는 레이맨)은 이스라엘 족속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불리웠다. “이방인”이란 용어는 미주리 주의 백인 정착민들을 가리킨다. (교리와 성약 19:27 참조) 물문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미국은 하나의 이방 국가로 간주된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57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나 활동 나를 한다.

가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1. 교리와 성약 57편 머리글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님께 여쭙었던 세 가지 질문을 열거한다.
2. 1~5절을 검토하고 선지자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는지 설명하고 그 답을 적는다.
3. 이것을 통해 우리 시대에 시온을 건설하고 세우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나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현세적 (세속적 또는 물질적)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교리와 성약 57편의 대부분은 시온의 기초를 놓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다양한 현세적인 임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주어진 권고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주님이 시드니 길버트(6, 8~10절),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7절),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11~12절), 올리버 카우드리(13절)에게 주신 권고를 읽는다. 이 권고로부터 사업을 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들 가운데 최소한 네 가지를 노트에 적고 오늘날 이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58편

시온에 관한 주님의 뜻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서 미주리 주가 후일의 시온 및 새 예루살렘이 건립될 장소라고 계시하셨을 당시의 교회 회원이라면, 주님께 무엇을 더 알고 싶어

© 1988 Glen S. Hopkinson



했을까? 당시의 교회 회원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간절히 권고를 구했으며, 주님께서는 새롭게 계시된 시온의 땅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고가 실려 있는 교리와 성약 57편과 58편에 나오는 계시들을 주셨다. 여러분은 “시온의 대업”(교리와 성약 6:6, 11:6, 12:6)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교리와 성약 58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권고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58편

- [Tribulation] 환난 (2~4절) — 시련과 역경
- [Nigh] 가까이 (4절) — 가까운
- [The city of the heritage of God] 하나님의 유업의 도시 (13절) —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장소
- [Hither] 이리로 (14절) — 여기에
- [Take heed] 조심할지어다 (15절) — 주의를 기울이다, 조심하다
- [Lands of the heritage of God] 하나님의 유업의 땅 (17절) — 하나님의 선택된 땅
- [Meet] 적절하지 (26절) — 적합한, 적절한
- [Compelled] 강요당하는 (26절) — 강요당하다
- [Slothful] 게으르고 (26절) — 게으른, 태만한
- [Are agents unto themselves] 그들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28절) — 선택하고 행동할 도덕적 선택 의지를 갖고 있다
- [Revoke] 취소하며 (32절) — 계명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다
- [Lurketh] 숨어 기다리며 (33절) — 감춰져 생각지도 않은 곳에 놓여 있다
- [Excel] 뛰어나기를 (41절) — 교만한 방법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놓다
- [Forsake] 버리리라 (43절) — 행하기를 그만두다, 버리다
- [Residue] 나머지 (44, 58, 61절) — 나머지
- [Agent] 대리인 (49, 51, 55절) — 다른 사람들을 대행하도록 승인된 사람
- [Epistle] 서신 (51절) — 편지
- [Subscription] 신청서 (51절) — 돈을 요청하는 서명한 문서
- [Bestowed] 수여되었던 (60절) — 주어짐

교리와 성약 58:8~11 —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의 잔치라.”

교리와 성약 58편 8~11절에서 언급된 잔치의 형상들은 가장 훌륭한 음식과 음료를 상징한다. 고대 선지자들은 복음이 충만하지 않은 시기를 가뭄의 시기

비유했다.(아모스 8:11) 복음의 회복은 모든 영적인 굶주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잔치를 베풀어 준다. 더구나, 회복의 위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어린 양의 혼례”에 있을 “주의 만찬”(교리와 성약 58:11),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백성들의 준비이다.

교리와 성약 58:26~29 — “내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을 때 이렇게 가르쳤다. “때때로 주님은 기대를 갖고 자녀들이 스스로 행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보다 큰 상을 잃게 되며, 주님은 일 전체를 취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겪게 하거나, 아니면, 보다 상세하게 지시하실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할수록, 상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Conference Report, 1965년 4월, 122)

교리와 성약 58편 26~29절에 있는 이 권고를 따르는 긍정적인 예를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인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의 경험에서 볼 수 있다.



“제가 열 살이나 열한 살쯤 되었을 때, 많은 친척들이 방문했습니다. 35명에서 40명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들 모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후 모든 사람이 다른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저기 설거지 해야 할 접시며 식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음식은 그대로 널려 있었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더럽혀진 냄비며 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고 나면, 어머니가 뒷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자동 세척기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깨끗하신 분이셨으며, 우리들에게 설거지를 제대로 하고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산더미 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저는 마지막 접시의 물기를 말끔히 닦아 냈습니다. 모든 음식을 제 자리에 놓고, 조리대를 깨끗이 닦아 낸 후 바닥을 닦았습니다. 부엌이 말끔해졌습니다.”

“그 날 밤 손님이 다 가고 난 후에 부엌을 치우러 들어 오신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가슴에서 무릎까지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기울인 모든 노력은 그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감동과 안도와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러한 표정을 계속해서 다시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We Love Those We Serve,” *New Era*, 1988년 3월, 19)

교리와 성약 58:43 —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림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을 때 이렇게 가르쳤다.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범법에 대해 용서 받지 못합니다. 영혼을 드러내고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도 없이 자신의 의도와 약점을 인정하기 전에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범법을 조금도 줄이거나, 그 심각성을 합리화하거나, 그 중대성을 희석시키지 않고 실제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비로소 회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Love versus Lust*,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965년 1월 5일], 10)

게다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순결의 법을 어기거나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를 하거나 회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죄들은 반드시 합당한 권능을 가진 교회 지도자에게 고백해야 한다. 감독이나 지부 회장은 그 사람의 교회에서의 입지를 결정하고 회개의 과정을 밟도록 도울 수 있다. 교회 지도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그 문제를 상의한다.

교리와 성약 58:57 — 성전을 위해 땅과 부지를 헌납함



시드니 리그돈은 미주리 주에 위치한 성전 부지를 헌납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1년 8월 3일에 성전이 들어설 정확한 지점을 성전 부지로 헌납했다. 시드니 리그돈, 에드워드 파트리지,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조셉 코 등이 참석했다. 선지자는 “그 장면은 엄숙하고 감동적이었다”고 적었다. (History of the Church, 1:199)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58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나와 활동 가 또는 활동 다를 한다.

가 보다 자세이 본다

주님께서 미주리 주가 시온의 도시와 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될 것이라고 계시했을 때에 그 곳 미주리주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크게 마음 설레는 일이었을 것이다. 성도들이 해야 할 다음 일은 시온을 건설하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목표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시대에 시온이 완전히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교리와 성약 58편에서 읽은 것을 활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시온은 언제 영광의 관을 쓰게 되는가? (1~5, 44~46, 56절 참조).
2. 주님은 왜 첫번째 그룹을 시온으로 보내셨는가? (6~13, 44~46절 참조).
3. 시온은 어떻게 건설될 것인가? (8~13, 44~46, 50~56절 참조).
4. 이 계시는 교리와 성약 57편 머리글에서 선지자 조셉이 기도로 간구한 처음 두 질문에 대해 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나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58:26~27

교리와 성약 58편 26~27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에 나오는 예를 읽은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그 권고를 성취하는지 실제로 경험한 예를 적는다. 다른 예를 생각할 수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 권고대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적는다.

다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58:42~43

교리와 성약 58편 42~43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친 중요한 회개의 원리 두 가지를 열거한다.

교리와 성약 59편

시온과 시온의 스테이크를 위한 계명

왜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축복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만일 한 지역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은 그러한 곳에 살고 싶은가? 그 사회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교리와 성약 59편을 읽으면서, 이 계시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본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일정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이 안식처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겠습니까?”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52쪽)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59편

- | | |
|--|---|
| [Consecrated] 성별되었고 (머리글) — 성별된 | [Vows] 서약 (11절) — 성스러운 약속 |
| [Especially applicable to] 특별히 적용되게 (머리글) — 특히 ~을 위해 주어진 | [Oblations] 헌물 (12절) — 주님께 드리는 헌물 |
| [Contrite] 통회하는 (8절) — 회개하고 가르치기 쉬운 | [Countenances] 얼굴 (15절) — 태도와 모습 |
| [Sacraments] 성찬 (9절) — 주님께로의 전심을 나타내 보이는 종교적 활동들 | [Raiment] 의복 (17, 19절) — 의복 |
| [Pay thy devotions] 헌심을 바치도록 (10절) — 사랑과 전심을 나타내 보이다 | [Enliven] 활기있게 (19절) — 기운나게 하다, 격려하다 |
| | [Excess] 지나치거나 (20절) — 과용하다 |
| | [Extortion] 억지로 하지 (20절) — 폭력이나 권력에 의한 오용 |
| | [His wrath kindled] 그의 진노가 불붙지 (21절) — 화를 돋구다 |

교리와 성약 59:1~2 — 폴리 나이트의 죽음

교리와 성약 59편은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 주에 온 후 두 번째 일요일에 주어졌다. 이 계시를 받기 전에 선지자는 폴리 나이트의 장례에 참석했으며 1~2절은 그 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인 듯 하다.

“폴리 나이트의 건강은 그의 아들 뉴얼의 진술에 따르면 한동안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커틀랜드에서 미주리로 가는 여행 동안 심하게 앓았다. 그녀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행을 멈추는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하고 가장 큰 소망은 시온의 땅을 발로 딛고 그 땅에 몸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강가에 가서 어머니가 목격지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실 경우에 대비하여 관을 만들 목재를 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머니에게 마음의 소망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온의 땅 위에 서실 때까지 살아 남으셨습니다.” (in *History of the Church*, 1:199, footnote)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7일에 나는 조셉 나이트 일세의 부인인 폴리 나이트 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 죽음은 이 땅에서의 교회 회원의 첫번째 죽음이다. 합당한 회원은 부활 때까지 예수 안에서 잔다고 말할 수 있다.” (*History of the Church*, 1:199)

교리와 성약 59:6 —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

각기 다른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이 구절을 도둑질, 간음, 낙태, 살인 등을 언급하는 데 사용해 왔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모든 형태의 부정직은 도둑질과 같다고 가르쳤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6쪽 참조)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패팅, 사통, 동성애, 기타 여러 형태의 부도덕함”이 간음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다. (*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8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근친상간이나 강간과 같은 사악한 범죄에 관련된 경우, 혹은 합법적인 의뢰인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결함이 있어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다.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97)

교리와 성약 59:8 —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르스 알 맥몽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것은 죄로 인한 깊은 슬픔에 잠기고, 겸손하고 철저히 누우치며, 진지하고 의미 있는 회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Mormon Doctrine*, 161)

교리와 성약 59:15 — “크게 웃으면서 하지 말지니”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있을 당시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저는 성도들이 오락을 즐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합당한 종류의 오락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근엄한 얼굴을 하고 독실한 척 하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바라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가 행복하고 유쾌한 모습을 하기 바라시지만, 시끄럽고 보기 흉한 행위에 빠져들고 세상 사람들을 흥겹게 하고 즐겁게 하는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구하는 일을 바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Conference Report*, 1916년 10월호, 70)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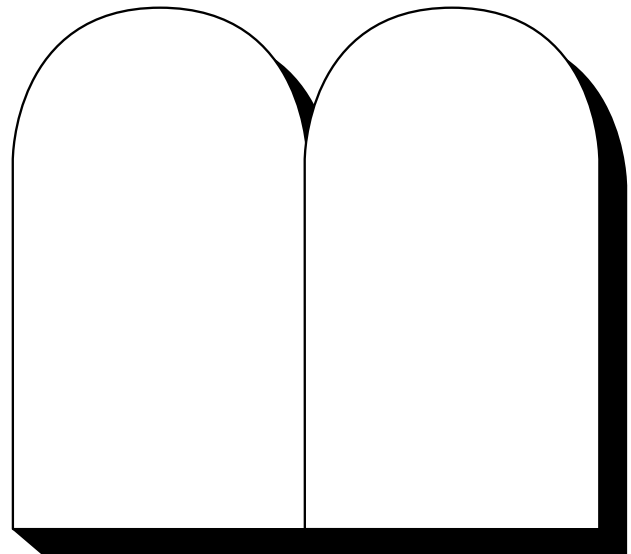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59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축복들을 열거하고 설명한다

1. 교리와 성약 59편 1~4절, 23절에서,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열거한다.
2. “그들의 업적이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2절)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앨마서 41장 3~6절, 10절, 13~15절을 읽고 어떻게 그것이 좋은 소식, 혹은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3. “적지 아니한 계명”(4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나) 우리 시대를 위한 돌판을 만든다

노트에 다음과 비슷한 돌판을 그린다. 교리와 성약 59편 5~13절에서 “지어다”와 “말라”라는 구절을 찾아 돌판에 그것들을 계명으로 기록한다. 18~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돌판에 덧붙인다. 이 “돌판”을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둔다.



다)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59:9~10

교리와 성약 58편 26~27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매사에 명령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리와 원리를 가르쳐 주면, 우리가 “힘써” 그러한 원리에 참되게 되려고 노력하기를 그분은 바라신다. 교리와 성약 59편 9~10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리와 원리를 요약해 주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관해서는 일일이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1. 교리와 성약 59편 9~10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중요한 교리와 원리들을 열거한다.
2. 11~16절에서 가르쳐진 것을 목록에 추가한다.
3. 안식일을 보다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일 한 가지와 더 줄여야 할 (또는 완전히 중단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적는다.

교리와 성약 60편

“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며”



1831년 6월에 주님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미주리 주로 “여행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많은 선교사들을 부르셨으며, 그 곳에서 그 다음 교회 대회를 열었다.(1~2절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1831년 8월 8일에, ... 장로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다. ... 그들 가운데 일부는 질책을 받았다. 이는 그들이 오하이오 주를 떠나 여행하는 동안에 앞서 주어진 권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들은 여행하는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하라는 계명을 받았지만, 일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계명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타고난 선교사는 아니었다. 목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책임에서 움츠러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이다. 초기의 장로들은 이미 발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인 연고로 그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는 계명을 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해질 형벌은 마지막 날에 흠 없이 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이 파멸되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구원을 가져오는 방편이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들의 수고를 도와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220)

교리와 성약 60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르침은 교회의 초기 장로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의 선교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재능을 축복받았다. 우리가 시간과 재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은 시험의 일부가 된다.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또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60편

- | | | |
|--|-----|--|
| [From whence] (1절) — 어떤 장소로부터 | ... | [Wrath] 노하거나 (7절) — 화내다 |
| [Kindled] 불붙음이니라 (2절) — 분노하다, 분개하다 | ... | [Residue] 나머지 (8절) — 남은 사람 |
| [Bespeaketh] 말해 주는 (4절) — 증거를 대거나 증언하다 | ... | [Strife] 다투지 (14절) — 논쟁 |
| [Craft] 배 (5절) — 보트나 다른 수상 운송 수단 | ... | [Provoke them] 그들을 노하게 할가 (15절) — 그들을 화나게 하다 |

교리와 성약 60:8, 13~14 — “악인의 회중”

“악인의 회중”(교리와 성약 61:30, 32~33, 62:5, 68:1 참조)은 악한 의도보다는 주님의 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교리와 성약 123:12 참조)

교리와 성약 60:15 — “밭의 먼지를 털어버리되”

교리와 성약 24편 15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36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60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한 가지를 한다.

가 상징을 만들어 내다

그림은 때로 교통 표시처럼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교리와 성약 60편 2~4절에서 다음 개념들을 숙고해 보고 각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상징을 그린다. 각 상징 옆에다 그 상징이 어떻게 주님께서 이 구절들에서 가르친 개념을 나타내는지 설명한다.

1. 입을 연다 (2절)
2. 재능을 숨기지 않는다 (2절)
3. 사람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2절)
4. “나의 분노가 ... 불붙음이니라” (2절)
5. 더욱 충실하라 (3절)
6. “보석을 모으는 날에 ... 알게 되리라” (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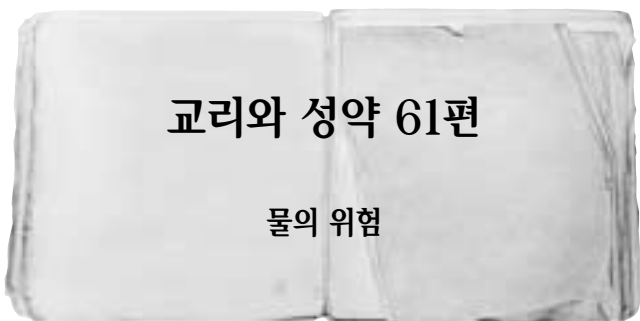
나 교리를 깊이 묵상한다

교리와 성약 60편 1~4절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 하여 복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나타내셨다. 주님은 3~4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데 더욱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 그분과 마지막 날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한 로마서 1장 16~18절을 숙고한다)

다 예를 든다

교리와 성약 60편 12~17절에서, 주님은 미주리 주 잭슨 군에 세워질 시온에 집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구절들을 읽고, 주님의 권고와 어떻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다음 문장을 완성한다.

1. ... 할 때, 성냄과 다툼을 피하게 된다.
2. ... 할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3. ... 할 때, 우리는 재능을 숨겨 두는 것이다.



© 1997 All Rights Reserved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적었다. “[1831년 8월 9일에], 나는 장로 10명과 함께 커틀랜드를 향해 인디펜던스 선착장을 떠났다. 우리는 카누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 첫날에는 포트 오사지에 도착했다. 그 곳에서 우리는 맛있는 야생 칠면조 고기를 저녁으로 먹었다. 별다른 일 없이 셋째 날이 되었다. 서부 강가에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이 드러났다. 미주리 강변의 맥일웨이인 밴드에서 야영할 때, 펠프스 형제가 한 낮의 시현으로 물 표면을 타고 오는,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파괴자를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시현은 보지 못했다.” (History of the Church, 1:202~203)

그 다음날인 8월 12일 아침에 선지자는 교리와 성약 61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모든 무리가 “물 위로 급히 가기를”(3절) 원하지 않으신 이유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찾아본다. 이 계시가 오늘날 선교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61편

[Alpha and Omega] 알파와 오메가 (1절) —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 (모든 것에 미치는 주님의 힘에 상징함)	...	[Behooveth] 마땅하니라 (9절) — 할 필요가 있다
[Suffered] 허락하였나니 (4절) — 허락하다, 용인하다	...	[Fatness] 기름진 것 (17절) — 풍요, 잉여
[Decreed] 정하였음이라 (5절) — 선포하다	...	[Canal] 운하 (23~24절) — 인조 수로 (오하이오 운하)

교리와 성약 61:20~22 — “나 주는 어제 너희에게 노하였으나”



“강 위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형제들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와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 해명과 화해를 할 필요가 있었다. 카누를 타고 강을 따라 여행하는 것이 더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쇄기를 구입하도록 지명 받은 시드니 길버트,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 선지자, 시드니 리그돈, 올리버 카우드리 등은 커틀랜드로 속히 돌아가라는 명을 받아 카누가 아닌 보다 신속한 여행 수단을 찾아야 했다. 맥일웨이 밴드 야영지에서 지낸 밤의 대부분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사용되었다. 형제들은 서로 화해했다. 특히 일을 서둘러야 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육로로 세인트 루이스로 향했으며, 나머지는 계속 강을 따라 여행했다.”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1:262~263)

교리와 성약 61:30~31 — 주님은 왜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주민들에게 노하셨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 계시를 받을 당시 신시내티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인디펜던스와 같은 서부 마을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겼고 큰 도시에서 달아나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당시의 모든 국경 마을에는 심각한 정도로 악이 만연해 있었다. 이 두 형제는 신시내티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커틀랜드로 돌아오고 있었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225)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61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나 활동 나를 한다.

가 하나님의 힘을 이해함

1. 교리와 성약 61편 1~5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 가. 선교사들이 물 위로 여행함으로써 어떤 기회를 놓쳤는가?
 - 나. 주님은 왜 선교사들이 물로 여행하도록 허락했는가?
2. 6~16절을 탐독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물 위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설명한다. 여러분은 여기서 사탄의 권세와 비교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나 “음없게” 되는 방법

교리와 성약 61편 33~39절을 검토하고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열거한다. 감동을 주는 이유를 선택하고 그것이 왜 주님을 섬기는 좋은 이유가 되는지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62편

여러분의 간증이 하늘에 기록됨

맥일웨인 벤드의 야영지에서 받은 계시인 교리와 성약 61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올리버 카우드리는 “신속하게 육로로 해서 커틀랜드로 가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카누를 타고 가도록 지시 받았다.”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인 8월 13일에 조셉은 인디펜던스로 가고 있던 여러 장로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임을 가졌으며, 모임에는 기쁨이 넘쳤고 [62편의 계시가 주어졌다.] 이 모임을 갖고 난 후, 선지자는 두 동반자와 함께 여행을 계속했으며, 다른 장로들은 시온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

“1831년 8월 27일에 선지자와 시드니와 올리버는 커틀랜드에 도착했다. 이 부재 기간 동안 그들은 영감의 영을 크게 누렸으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들의 신앙은 강화되고, 이해력이 밝아져 전능자의 목적들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들은 또한 인류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탄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George Q. Cannon, Life of Joseph Smith the Prophet [1958], 123~124)



교리와 성약 62편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과 간증을 나누는 것이 왜 그토록 위대한 일인지 살펴본다. 누가 그러한 간증에 귀를 기울이며, 간증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62편

[Salutations] 인사 (머리글) — 인사	...	[Succor] 도울지를 (1절) — 돕다,
[Advocate] 변호자 (1절) — 옹호자,	...	지지하다
입장을 변호하는 사람	...	[Tidings] 소식 (5절) — 소식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62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나 나를 한다.

가 여러분의 의견을 말한다

교리와 성약 62편 3절에서 주님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노트에 이 구절을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 적은 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할 때 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나 “내게는 상관이 없다”

앞에 있었던 교리와 성약의 여러 편에서 주님은 “내게는 상관이 없느니라”라는 구절을 사용하셨다. (교리와 성약 60:6, 61:22, 62:5 참조) 교리와 성약 62편 5~8절을 읽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무엇을 의미하셨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63편

시온을 위해 준비함

교리와 성약 63편의 머리글은 성도들이 시온 건설에 관해 가졌던 큰 관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시온이 어떻게 건립되며, 누가 그 곳에 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게 되는지에 관해 많은 것을 설명하셨다. 이 편을 공부하면서, 시온에 살 경우 어떤 점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일부 초기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기에 주님께서 책망하셨는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63편

- [Preserve] 보존할 (3절) — 구하다, 보호하다
- [Snare] 올무 (15절) — 올가미, 덫
- [Whoremonger] 행음하는 자 (17절) — 부도덕한 악행에 참여하는 사람
- [Pestilence] 역병 (24절) — 재난, 파괴
- [Unquenchable] 꺼지지 않는 (34절) — 끝 없는
- [Discern] 분별할 (41절) — 알다
- [Impart] 나누어 줄 (43절) — 주다
- [Constraint] 권하는 대로 (64절) — 속삭임, 지시

교리와 성약 63:20~21 — “변형의 날”



예수님이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형의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17:1~3 참조),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았다. 교리와 성약 63편 21절은 우리가 아직 그들이 본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기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쿱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주님의 면전에서 오게 될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해 말했다. (사도행전 3:19~21) 베드로의 이 진술은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한 신약개조 10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일어나게 될’ ‘혁신’과 같은 것이다.(마태복음 19:28) 이 날은 또한 ‘변형의 날 ... 지구가 변형될 때’이다.(교리와 성약 63:20~21)”

“이 지구는 새로운 상태 또는 낙원의 상태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 지구는 현재의 별의 왕국의 상태로 추락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지구는 소생되고, 재생되고, 새로워지고, 변형되어, 다시 새로운 지구, 곧 낙원의 지구가 될 것이다. 지구의 복원된 상태는 타락 이전에 존재했던 상태, 즉 아름다움과 영광의 초기 상태일 것이다.”(Mormon Doctrine, 795~796)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면, 이 지구는 다시 원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바다는 북쪽으로 물러가고, 섬들은 본래의 땅과 결합되며, 땅들은 지구가 나눠지기 전의 상태, 즉 하나로 결합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3:22~24)”(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231)

이 “변형의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날” 때와 다른 때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복원된 후에 “이 지구의 사망과 부활이 있겠고, 지구는 의인 곧 해의 왕국에 속하는 자들이 살 곳으로 영화롭게 바뀔 것입니다. 그들만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구원의 교리, 3:246)라고 설명했다.

교리와 성약 63:25~27 — “나 주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느니라.”

누가복음 20장 19~26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해 묻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은 만일 그가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정복한 로마인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그를 배척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일 예수가 아니라 대답한다면, 그를 로마인에게 고해 바쳐 로마 섭정에 대한 반역죄로 체포하게 할 수 있었다. 예수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그들에게 보이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25절)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사용하시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의 성도들에게 비록 전 세계가 주님의 것이라도 주님께서 미주리 주에 시온의 도시를 건설하라고 명하신 그 땅을 구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교리와 성약 63:34 — “성도들도 또한 피하기 힘들 것이나”

구주의 재림에 관해 말하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성도들이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모든 육신이 고통을 받아야 하며, ‘의인들도 피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의인은 신앙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심판을 모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과 역병의 희생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 받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병이나 죽음의 희생자가 되었다 하여 그것이 범법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원리이다. 왜냐하면 모든 육신은 죽음을 겪게 되며, 구주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History of the Church, 4:11)

교리와 성약 63:50 — “사람의 나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에서 현재 필멸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수명은 72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제3니파이 28:1~3 참조) 하지만 이 수명은 복원된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했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이사야 65:20)

“이러한 상태에 대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상의 인간은 여전히 필멸의 상태에 있지만, 그들은 변화를 겪어 병과 죽음을 극복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죽음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인간은 나무의 수명이 될 때까지 살거나 백 살이 될 때까지 살며(교리와 성약 63:50~51 참조) 인간의 수명을 다한 후에는 죽게 된다. 그러나 그 죽음은 눈 깜박할 사이에 일어나며 필멸의 육신이 홀연히 불멸의 육신이 될 것이다. 무덤은 없을 것이며, 의인은 영광스런 부활로 들리워 올려질 것이다.’(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461; italics added)”(Brewster, Doctrine and Covenants Encyclopedia, 10)

교리와 성약 63:61~64 — “모든 사람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입술에 담을지 조심할지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 그 의도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그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거나, 무의미하게 사용하거나, 아무런 효과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저속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맺은 맹세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3. 권능 없이 그 이름으로 말한다면 신성을 모독하는 의미에서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4.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에 위배되는 어떠한 일을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입니다.” (in Conference Report, 1931년 10월, 50, 53)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63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바 중 세 가지를 한다.

가 경고 표시와 잠언

주님은 믿기 전에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몇 가지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1. 교리와 성약 63편 1~12절을 공부하고 악인들이 받게 될 “표적”의 유형을 설명한다.
2. 5~12절에서 배운 것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몇 가지 표적에 관해 적고 싶은 것을 열거한다.
3.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나타내는 잠언, 또는 쉽게 기억될 금언을 적는다.

나 결과를 알아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죄악은 물론 선행에도 결과가 따른다.

1. 노트에 네 개의 단을 만든다. 각각의 단에 “죄악”, “죄의 결과”, “죄의 대안”, “대안의 결과” 라는 제목을 붙인다.
2. 교리와 성약 63편 13~19절을 읽고, 첫째 단에 그 곳에 언급된 죄악을 열거하고 둘째 단에 각 죄악의 결과를 열거한다.
3. 20~21절을 읽고 적합한 단에 죄악의 대안과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채워 넣는다.
4. 일부 사람들은 왜 순종하기보다는 죄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가? 순종은 왜 더 나은 선택인가?

다 지식의 열쇠

교리와 성약 63편 22~23절과 앨마서 12장 9~11절을 읽는다. 이 구절은 왕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말해 주고 있는지 요약한다. 주님은 왜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

라 여러분은 근심하는가, 아니면 편안한가?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63편 32~37절에서 마지막 날에 관해 가르치신 것을 공부한다.

1. 일부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 염려한다. 그들이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한 가지 예언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2. 일부 사람에게 위안을 가져올 또 다른 예언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3. 후일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숙고해 보고 두려움보다는 신앙을 갖고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적는다. (한 문단 정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

마 복천년은 무엇과 같은가?

교리와 성약 63편 47~54절을 공부하고 복천년 동안 시온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글을 적는다. 다음의 주요 개념에 대한 여러분의 설명을 포함한다. 유산, 죽음, 인간의 수명,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변화됨, 분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



복천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죽음은 없을 것이다.

바 현대의 예를 듣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대체로 신성모독을 생각하게 된다. 교리와 성약 63편 60~64절은 그 죄를 범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구절들과 교리와 성약 63편 61~64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을 공부하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현대의 예를 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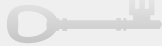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64편

남을 용서함

교리와 성약 64편이 주어졌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은 커틀랜드에서 남동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진 오하이오 주 하이럼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근 개종자인 존과 앨리스 존슨 부부에게서 자기들의 집에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로 인해 선지자는 성경 번역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갖게 되었다.

이 계시의 첫 부분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신 놀라운 진리를 주목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64편

[Compassion] 측은히 (2절) — 동정, 자비	[:Errand] 심부름 (29절) — 부름, 사임
[Sought occasion against] 대적할 기회를 찾는 (6, 8절) — 흠을 잡고자 기회를 노리다	[:Plucked out] 뽑히우리라 (36절) — 제거되다
[Babylon] 바벨론 (24절) — 세상 혹은 세속성을 나타내는 상징	[:Ensign] 기 (42절) — 기, 사람들이 모여드는 물체, 사람 또는 사상

교리와 성약 64 — 오하이오 주 하이럼으로 이주

존 존슨 (교회에서 “존슨 아버지”로 알려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에게 함께 살자고 한 제안은 조셉과 시드니에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하려는 주님의 계명에 대한 응답이었다. (교리와 성약 63:65) 존슨 가족은 선지자 조셉과 가졌던 놀라운 경험의 결과로 교회에 들어왔다.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 있는 존 존슨의 집

“선지자가 오하이오 주에 도착한 직후에, 53세 된 아버지 존슨과, 그의 아내 엘사, 그리고 감리교 목사인 에즈라 부스가 물문어증을 상세히 알아 보고자 커틀랜드로 여행했다. 새로운 신앙의 신조를 토론하던 중에 엘사 [엘리스가] 만성 류마티즘의 치유를 받았다. 이 기적적인 병고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역사 기록에 나온다. ‘면담하던 자리에서 대화의 주제가 사도 시대에 주어졌던 초자연적인 은사에 이르렀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 존슨 부인의 팔이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잠시 후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자, 스미스는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존슨 부인의 팔을 잡고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하노니 온전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곧바로 방을 나갔습니다.’ 엘사는 곧바로 치유되었고, 그 다음날 그녀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 씻을 수 있었다. [History of the Church, 1:215~216, footnote 참조] 그 치유는 곧바로 존슨 부부의 개종과 선지자에 의한 침례로 이어졌다.” (Black, Who’s Who in the Doctrine and Covenants, 152)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교리와 성약 64:10)

교리와 성약 64:7 — “죽음에 이르는” 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쿱기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복음의 빛과 진리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을 사탄에게 내 주고, 그의 목적을 지원하거나 지지함으로써 그의 일에 참여하며, 그로 인해 그의 자녀가 되고, 그와 같은 길로 감으로 해서 죄가 사망에 이른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회개, 용서, 또는 어떠한 종류의 구원의 희망도 없다. 사탄의 자녀로서,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다.” (Mormon Doctrine, 737)

교리와 성약 64:21 —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는 1830년 10월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침례 받은 후 곧 충실하게 선교 사업을 했다. 1832년에 주님은 윌리엄스 형제를 제일회장단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보좌로 불렀다. 선지자는 그를 신뢰했으며, 그는 교회의 충실한 지도자였다. 1837년에 진리에 대한 그의 헌신이 흔들렸다. 그는 부름에서 해임되었으며, 교회에서 회원 자격을 잃었다. 그는 1838년에 재침례를 받고 1842년에 그가 사망할 때까지 충실했다. (Black, Who’s Who in the Doctrine and Covenants, 346~348쪽 참조)



교리와 성약 64:23 — 이 구절에서 “십일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십일조의 법은 교리와 성약 64편의 계시가 주어진 후 7년 뒤에 주어졌다.(교리와 성약 119편 참조) 23절에서 사용된 “십일조”란 말은 “십분의 일만을 뜻하지 않았고 교회 기금에 바치는 모든 자발적인 헌물, 또는 기부를 의미했다.” (교리와 성약 119편 머리글)

교리와 성약 64:21 — 주님은 왜 “오 년간 커틀랜드 땅에 견고한 거점을 보유[기를]” 바라셨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 곳이 바로 이 경륜의 시대에 첫번째 성전이 세워질 땅이었다. 그 성전에서 회복의 필수적인 열쇠들이 계시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미주리 주의 시온으로 이주했다면, 성전 건축은 원수들의 방해로 좌절되었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 고대 선지자들이 지녔던 신권 열쇠의 회복은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주님은 그가 몸소 방문하고 이러한 권능의 열쇠를

가진 자자들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서 그의 이름에 바쳐질 집이 커틀랜드에 세워져야 한다고 선포하셨다. 그러한 성전 건축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다. ...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커틀랜드에 강한 거점을 확보하라고 요구하신 계시는 1831년 9월 11일에 주어졌다. 1836년 3월에 주님의 집이 헌납되고, 그 다음 달인 4월에 이러한 거룩한 열쇠들이 주어졌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237)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64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64:9~11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으며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 교리와 성약 64편 7~11절에서, 주님은 누구를 용서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주셨다.

1. 노트에 “나 주는 ...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나니” 하는 구절을 적는다. 7~11절에서 **고백하다**, **구하다**, **죽음**, **용서**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주님께서 용서 받을 사람들을 위해 주신 네 가지 조건을 열거한다.
2. 어떤 사람은 네 번째 조건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이 그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3.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용서는 좋은 효능이 있는 영적인 약입니다. 여러분을 노엽게 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영향을 베풀어 주는 것이 고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20) 팩커 장로의 말씀을 사용하여 왜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인지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64:9)

나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64:23

교리와 성약 64편 23절에서, 주님은 정직하게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은 그분의 재림 때에 정화하는 불에 타지 않고 보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 23절을 24절과 비교하고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어떻게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한 사람을 지켜 주는지 설명한다.

2. 왜 온전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이 다른 계명들 또한 지키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3. 부모님이나 신권 지도자에게 온전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것은 온전한 십일조를 내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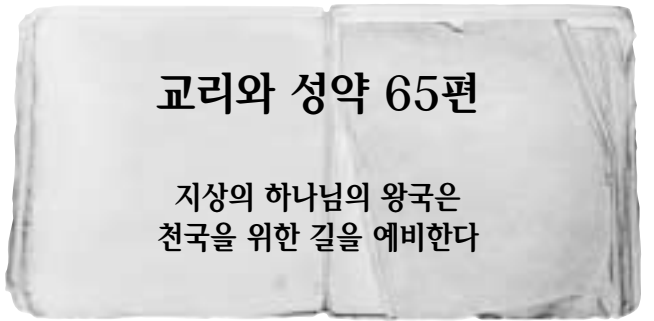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그가 오는 때에 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64:23)

다 격려의 편지를 쓴다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보아 성공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한다.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64편 29~33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사용하여, 친구에게 격려의 편지를 쓴다. 주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줄 만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한다. 그 구절들에 따라, “성공”은 무엇이며, 그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라 문장에서 핵심 단어를 사용한다

교리와 성약 64편에서 주님은 시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주셨다. 37~43절을 검토하고 **심판**, **영광**, **기**, **떨다**와 같은 단어를 찾는다. 문장에 있는 각 단어를 사용하여 그 말이 시온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설명한다.



신약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마태복음 6:10 참조)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과 같은 것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한 교리와 성약 65편은 계시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기도로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졌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65편

- [Keys of the kingdom of God] : [Committed] 위임되었나니 (2절) —
- 하나님 왕국의 열쇠 (2절) — 교회를 주어지다, 부여되다
- 감리하는 신권 관능 : [Subdued] 정복당하게 (6절) —
- 정복하다, 극복하다

교리와 성약 65:2 —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란 무엇인가?

굴러 퍼져서 온 세상을 메울 돌이라는 표현은 후일에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될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서 나왔다. (다니엘서 2:28~45 참조) 그 회복에 대해 고든 비헝클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는 왕국, 곧 지상에 세워진 가장 위대한 왕국의 시민입니다. 이 왕국은 실재합니다. 그 운명은 분명합니다. 이 왕국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왕국, 곧 손 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여 굴러 퍼져 온 세상을 가득 메울 돌입니다. (다니엘 2:34~35 참조)

“어떠한 필멸의 인간도 이 왕국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은 신성한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계시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19세기에 시작된 이후로 눈덩이가 구르듯 나아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Pillars of Truth,” *Ensign*, 1984년, 1월호, 4)



“땅 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아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리라”(교리와 성약 65:2)

교리와 성약 65:5~6 — 하나님 왕국과 천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표현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 ‘천국’을 분명하게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1832년에 그분은 친히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한 말로 그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교리와 성약 65:1~6 참조]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닌, 단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천국이 올 것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 퍼져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성을 위해 규정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오기를 간구하며, 그것이 임할 것에 대비하여 지구를 준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은 ... 기존의

어떠한 정부 체제도 전복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왕을 수반으로 한 천국이 임하여 지상에 수립되기 전까지,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참된 정부의 원리에 따라 살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외에 지상의 정부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행사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권리이시기 때문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16년 4월호, 128~129)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65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나 나를 한다.

가 그 문구를 구절에 맞춘다

교리와 성약 65편에 나오는 문구를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과 맞춘다.

1. “그의 길을 곧게 하라” (1절)	가. 신권의 관능
2.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 (2절)	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충실한 자들의 집합
3. “산에서 뜨인 돌” (2절)	다. 큰 빛과 관능을 나타내 보임
4. “어린 양의 만찬” (3절)	라. 후일에 회복된 교회
5. “영광의 광채를 입고” (5절)	마. 길을 예비함; 사전 준비함

나 기도 요약한다

교리와 성약 65편 4~6절에서 조셉 스미스가 한 기도가 무엇인지 요약하고, 그러한 일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66편

윌리엄 이 매클렐른 —
“너는 깨끗하도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

윌리엄 이 매클렐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그가 더욱 복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을 주는 계시를 부탁했다. 교리와 성약 66편을 공부하면서, 매클렐른 형제가 이 계시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해 본다. 어떤 부분이 위안과 격려를 주었을까? 어떤 부분이 근심하게 했을까?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66편

[Iniquities] 죄악 (1절) — 죄	:[Tarry] 머물지 (6절) — 머물다,
[Proclaim] 선포하는 (5절) —	연기하다
선언하다, 가르치다	:[Cumbered] 부담이 될 (10절) —
	부담을 지다, 짓눌리다

교리와 성약 66편 — 윌리엄 이 매클렐른

하비 휘트락과 데이비드 휘트머에게서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당시 윌리엄 매클렐른은 일리노이 주 파리에 살고 있었다. 그는 30~40명의 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폐교하고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로 떠났다. 그는 1831년 8월 20일에 하이럼 스미스에 의해 침례받았다. 그는 1838년에 배도로 인해 교회에서 파문당했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66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예를 찾는다

교리와 성약 66편에는 징계와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윌리엄 이 매클렐른에게 주는 격려의 약속이 담겨 있다.

1. 노트에 이 계시에서 나오는 약속의 예와 징계의 예를 적는다. 그것들이 있는 구절을 적는다.
2. 이 계시는 우리가 받는 축복사의 축복과 어떻게 비슷한가?
3. 교리와 성약 66편 3절과 함께 야곱서 4장 7절과 이더서 12장 27절을 읽는다. 이 구절들에서 주님은 매클렐른 형제에게 그가 주님께 권고를 구하러 갔을 때 왜 그의 생활에서 “보기에 기쁘지 아니한”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는가? (교리와 성약 66편 3절의 여백에 전후 참조 구절로 야곱서 4장 7절과 이더서 12장 27절을 적어 넣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온다면,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 주실 것이다. (교리와 성약 66:3 참조)

교리와 성약 67편

경전의 시험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특별 대회를 갖는 동안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가 주님에게 받은 계시들을 책으로 출판할 것을 제안했다. 대회 중에 주님은 “나의 계명의 책에 붙이는 서문”(교리와 성약 1:6)이라고 명한, 현재 교리와 성약 1편으로 알려진 계시를 주심으로써 출판을 승인했다. 이것은 계시들에 대한 그분의 서문이며, 간증이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대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1편에 나오는 계시를 읽었다. 그러자 여러 형제들이 일어나 계시의 진실성을 증거하며, 책을 출판하려는 제안을 지지했다. 일부 사람들이 계시의 언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조셉은 현재 교리와 성약 67편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았다.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해 계시에 흠을 잡는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받은 계시 가운데 가장 작다고 여기는 것을 택하여 그것과 대등한 것을 만들어보라고 요구하셨다. (교리와 성약 67:6~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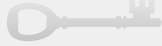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적었다. “앞서 말한 계시[교리와 성약 67편]가 주어진 후에, 윌리엄 이 매클렐른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많은 학식을 갖춘 가장 현명한 자로서, 주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것과 같은 계명을 짓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주님의 이름으로 쓴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모방하려는 한 사람의 이 헛된 시도를 목격한 장로들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충만함과,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하여 교회에 주어진 계명과 계시의 진실성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였다. 장로들은 온 세상에 그것들이 진실하므로 기꺼이 증거하겠다는 열의를 표명했다.” (History of the Church, 1:226)

학교 교사였던 윌리엄 이 매클렐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보다 자신이 계시를 쓰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을 때, 스스로 인정하 바와 같이,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후에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안다고 간증했다.

이해력이 한정된 까닭에 우리는 때로 지도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한다. 교리와 성약 67편을 공부하며 주님께서 택한 지도자들에게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친 바에 특히 유의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67편

[Endeavored] 노력하였도다 (3절) — : [Strip yourselves from] 떨쳐버리고 해보다, 시도하다 (10절) — 제거하다, 없애다
 [Express beyond his language] 그의 언어보다 뛰어나게 표현하려고 (5절) — : [Carnal] 육에 속한 (10, 12절) — 세상적인, 필멸의
 계시의 내용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말을 사용하여 계시를 적다

교리와 성약 67:10~12 — 하나님을 보는 특권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1서 4장 12절에 나오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며”라는 한 마디가 혼란을 일으켜 왔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3:11, 이사야서 6:5, 조셉 스미스-역사 1:17) 교리와 성약 67편 11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 위해서는 필멸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영광을 견뎌낼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밝히셨다. 모세는 그것을 “변형” (모세서 1:11 참조)이라고 설명했다. (조성, 요한복음 1:19, 조성, 요한복음 4:12 참조)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67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나 나를 한다.

가 이 계시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리와 성약 1편은 67편이 주어지기 얼마 전에 주어졌다. 이 계시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님에게 받은 계시들을 책의 형태로 출판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교리와 성약 67편에 대한 학습 지도서를 참조한다)

1. 교리와 성약 1편 17~24절과 67편 4~9절을 검토하고,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 관해 하신 말씀을 요약한다.
2. 이 말씀들은 계시가 쓰여진 표현 양식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3. 올해 지금까지 학습한 계시들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해 짧게 적는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시킨 한두 구절에 대해 말한다.

나 과정을 요약한다

때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67편 1~3절, 10~14절에서 하신 말씀을 읽고, 그분의 약속된 축복들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요약한다.

교리와 성약 68편

경전과 하나님의 권세와 부모님



“경전”의 정의는 무엇인가? 선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선교사들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감독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아론의 직계 후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부모의 주된 책임은 무엇인가? 주님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나? 교리와 성약 68편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쳐야 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68편

[Supplication] 간구 (머리글) — 간구 : [Ascertain] 확인할 (21절) — 결정하다, 탐지하다
 [Expounding] 해석하도록 (1절) — 가르치다, 설명하다 : [Impeached] 이의를 제기할 (23절) — 의 정당성을 의심하다, 의심하다
 [Ensample] 본 (2~3절) — 모범, 본보기, 귀감 : [Idler] 게으른 자 (30절) — 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Literal descendants] 실제 후손 (15~16, 18~20절) — 직계 후손

교리와 성약 68:1 — 올슨 하이드에게 주는 예언

“이 구절에 나오는 계시는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올슨 하이드는 백성에게서 백성에게로, 나라에서 나라로 복음을 전파했다. 1932년에 그는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와 함께 뉴욕 주, 메사추세츠 주, 메인 주, 로드 아일랜드 등지를 3,200킬로미터나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1835년에 그는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1837년에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1840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파송되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독일을 여행했으며, 콘스탄티노플,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등지를 경유한 후 마침내 거룩한 도시에 도착했다. 1841년 10월 24일에 그는 감람 산에 올라가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팔레스타인을 헌납하는 기도를 드렸다.” (Smith and Sjodahl,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409)

교리와 성약 68:4 — 무엇이 경전인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총관리 역원이 이 자리에서 회중 앞에 서서 주님의 영을 입어 말할 때 그것은 주님의 지시를 받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준 경전이라고 부르는 기록 중의 어떠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 형제들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계시를 줄 수 있는 자는 한 시대에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교회 회장이라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와 성약 68편에서 명시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에 속한 다른 어떤 회원도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 속에 실려 있는 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주어지는 계시는 교회의 관리 역원을 통해서 올 것입니다. 연차 대회나 스테이크 교회나 다른 어느 모임에서나 다른 종들의 입을 통하여 말해진 주님의 말씀은, 다른 시대에 다른 선지자에 의해서 말해진 말씀이나 기록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구원의 교리, 1권, 176~177쪽)



교회 지도자들이 성신에 의해 영감 받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될 때에만 연사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씀할

“성신으로 감동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경전이 되며”(교리와 성약 68:4)

때 판단해야 하는 책임을 그들에게서 우리에게로 완전히 옮겨 놓습니다.” (When Are the Writings or Sermons of Church Leaders Entitled to the Claim of Scripture? [address to religious educators, 1954년 7월 7일], 7)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68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나 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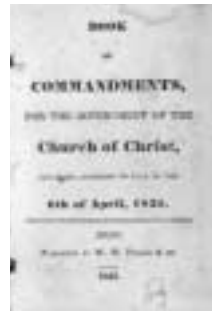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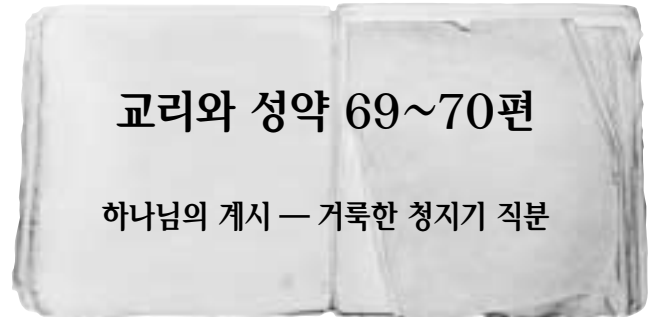
가 어린이에게 설명한다

초등학교 반에서 가르친다고 가정하고, 10살 난 어린이들이 교리와 성약 68편 4절에 나오는 경전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어린이들이 이

중요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적는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전을 이해함” 편에 나오는 내용을 사용하되, 자신의 말로 설명한다.)

나 목록을 작성한다

1. 신앙개조 4조를 읽는다. 그런 후 노트에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이라 쓰고 교리와 성약 68편 25~28절에서 주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들을 열거한다.
2. 교리와 성약 68편 29~33절에는 교회 회원들을 위한 추가 원리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곳에서 보게 되는 원리들을 열거하고 31절에 설명된 “사약함”이 주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들의 청지기 직분으로 계시와 기타 교회 자료들을 출판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1831년 11월 1~2일에 열린 교회 대회에서, 그 동안 모든 계시들을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가 설립한 인쇄소에서 계명의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미주리 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교리와 성약 69편에 나오는 계시는 어떻게 이러한 계시들과 헌납된 교회 기금을 미주리 주로 운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어졌다. 이 계시를 읽으면서 왜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혼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가에 유의한다. 또한 존 휘트머가 주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것에 관해 추가로 받은 통찰에 주목한다.

헌납의 법의 원리 아래서 회원들이 생계비를 벌고 공동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청지기 직분이 주어졌다. 예를 들면, 그들의 청지기 직분은, 농부를 위한 농지, 사업가를 위한 상점, 인쇄업자를 위한 인쇄소 등이 포함된다. 교리와 성약 70편은 교회의 일부 형제들에게 지명된 특별한 청지기 직분에 대한 계시이다.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69편

[Compilation] 편집 (머리글) — 편집 : [Seat] 자리 (6절) — 중심 장소, 본부
 [Abroad] 널리 (5절) — 시온 이외의 :
 다른 지역 :

교리와 성약 70편

[Exempt] 제외되다 (10절) — : [Grudgingly] 마지못해 (14절) — 마지
 면제되는, 면한 : 못해 화를 내며
 [Temporal] 현세적인 (11~12절) — : [Raiment] 의복 (16절) — 옷
 물질적인, 세상의 :

교리와 성약 70:5~8 — “그들은 이러한 것을 교회 회원에게나 세상에게 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형제들에게 “계시들과 계명들을 맡을 청지기”(교리와 성약 70:3)가 되도록 임명하는 것은 그러한 교회 책들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들은 “그것에서 얻는 이익”(5절)을 농부나 상업 경영자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교회 자료들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입은 곧바로 교회에 주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을 집행하도록 임명된 자도 ... 자기의 샅을 받음이 마땅하”기 때문이었다. (12절) 감독과의 결산에서 그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 남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주님의 창고에 들여놓았다.(7절 참조)

교리와 성약 70:14 — 물질적인 일에 있어서 평등하게 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이 계시[교리와 성약 70편]와 다른 계시에서 시온으로 갔거나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온 건설의 기초가 되는 헌납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또한 물질적인 것에서 평등해야 하며 마지 못해 성약을 맺지 말라고 명하였다.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음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각 사람은 그가 한 일의 성질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수에 비례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268~269)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69~70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경전의 가치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들을 출판하도록 결정이 내려진 교회 대회에서,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계시들이 교회에는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온 세상에는 부가 될 것으로 여기는 일에 찬성했다.”(*History of the Church*, 1:235)

1. 교리와 성약 69~70편에서 가르쳐진 진리들 가운데 특히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노트에 적는다.
2. 교리와 성약에서 배운 진리 가운데 특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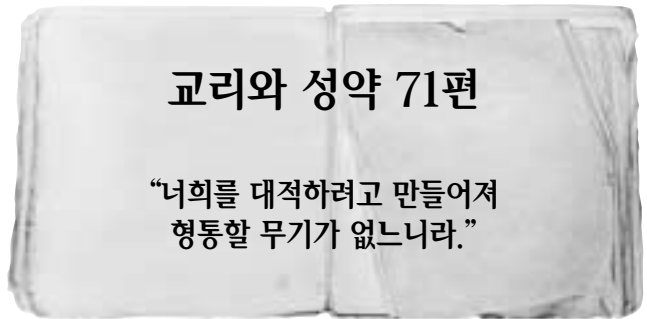
나 어떻게 작용하는가?

교리와 성약 70편에는 헌납의 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 주는 예가 있다.

1. 이 계시에서 언급된 여섯 사람을 열거하고 그들의 청지기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한다.(1~5절과 교리와 성약 70:5~8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
2. 주님은 그들에게 청지기 직분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6~12절 참조)

다 평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70편 14~18절을 읽은 후 다음과 같이 말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똑같이 소유하는 시온에서 살고 싶을지 잘 모르겠어.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교리와 성약 51편 3절과 70편 14~16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에서 배운 것을 사용하여, 그 친구에게 응답하는 글을 쓴다. 물질적인 것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시온에서 사는 것의 장점을 설명하는 글을 포함하도록 한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과 거짓말을 퍼뜨리는 때에, 교회의 진리를 위한 가장 훌륭한 광고는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회원들의 목소리이다. 교리와 성약 71편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당시 신문을 통해 유포된 그릇된 생각들에 관해 어떻게 하도록 하셨는지 주목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71편

[Alloy] 누그러뜨리기 (머리글) — 덜다, : [Expounding] 해석함 (1 절) —
 감소시키다 : 설명하다
 [Expedient] 필요하고도 (1 절) — : [Confound] 설복하라 (7절) —
 적절하다, 바람직하다 : 잠잠하게 하다, 타파하다, 혼동을 : 일깨우다

교리와 성약 71:1~8 — 우리는 언제 “[우리] 원수를 설복”해야 하는가?

병고침을 목격하고 교회에 들어온 전임 감리교 목사였던 에드워드 부스는 후에 배도하여 교회에 대적하는 아홉 통의 편지를 썼다. 오하이오 주 라베나의 오하이오 스타지에 발표된 편지들은 극도로 비판적이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것들이 “착색과 허위와 주님의 사업을 전복하려는 헛된 계획에 의해, [부스]의 약점과 간악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냈으며, 세상이 기이하게 여길,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기념비를 남겼다”(History of the Church, 1:217)라고 적고 있다. 부스는 배도한 첫번째 사람은 아니었지만, 반물문 자료를 쓰고 발간한 최초의 교회 회원이었다.

에드워드 부스에 의해 야기된 동요가 매우 심각해졌으며, 1831년 12월 1일에 주님은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번역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권세와 증거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무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두려움 없이 능력을 갖고 그들과 맞설 필요가 있다.” (Smith and Sjodahl,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423)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71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상세히 살펴 보기

1. 교리와 성약 71편에서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무엇을 하도록 명받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8절, 머리글,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
2. 그들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알게 되는가? (1절 참조)
3. 조셉 스미스의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교회 역사에서 주님께서 9~11절에 약속한 것들이 사실임을 말해 주는 어떤 것들을 보아왔는가?

교리와 성약 72편

청지기 직분과 감독의 의무에 관한 추가 지식

주님은 1831년 2월에 에드워드 파트리지를 교회의 첫번째 감독으로 부르셨다. 파트리지 감독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동행하여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로 가서, 그 곳에서 시온의 감독으로 봉사했다. 주님은 그 후 뉴얼 케이 휘트니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셨다. (교리와 성약 72:7~8 참조) 그 해가 끝날 무렵, 파트리지 감독의 아내인 리디아가 오하이오 주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이 있는 인디펜던스로 왔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에 대해 갖고 있는 책임은 헌납의 법 아래에서 주어질 의무와 동일한 의미에서의 청지기 직분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청지기 직분에 대해 주신 권고에서 충실한 봉사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교리와 성약 72편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충실한 종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살펴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72편

[Render] 제출할지니라 (5절) — 주다	· [Rendereth every man acceptable]
[Consecrated] 성별되게 (12절) — 헌납하다	· 모든 사람은 합당한 회원으로 인정되고 (17절) — 그들의 합당성의 증거가 되다
[Wherewith] 방도 (13절) — 돈이나 능력	· [Render himself and his accounts]
[Certificate] 증명서 (17절) — 서면 추천서	· 자기의 보고서가 승인받게 (19절) — 자신의 행위와 그가 책임진 일에 대한 보고
	· [Literary concerns] 교회에 관한 기록 (20절) — 교회 출판 책임

교리와 성약 72:1~8 — 초기 교회에서의 감독의 의무



뉴얼 케이 휘트니, 교회의 두 번째 감독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은 교회의 첫번째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 후에, 다른 사람들이 부름 받았으며, 그는 오늘날 감리 감독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뉴얼 케이 휘트니는 실제로 파트리지 감독의 관리 하에 있게 되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커틀랜드의 감독은 청지기 직분의 기록, 계속해서 기록되어야 하는 영구적인 기록들을 시온의 감독에게 넘겼다. 이 책임을 위해 뉴얼 케이 휘트니는 감독으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는 장로들의 필요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커틀랜드에서 주님의 창고를 관리하며, 그 포도원의 일부에서 기금을 받으며, 그가 명받은 대로 장로들의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받은 것을 갚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받아들여진 이러한 기금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선한 목적을 위해 헌납되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온의 감독에게 제출하고, [그가] 주께서 그 손에 맡기신 것을 가지고 저의 빛을 갚아 주어야’ 했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270)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72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나 나를 한다.

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한다

청지기라는 말은 헌납의 법 아래서 받은 의무에만 적용되지만, 책임의 원리는 우리의 현재의 교회 책임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교회 의무에 관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자신의 의무를 어떻게 완수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보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72: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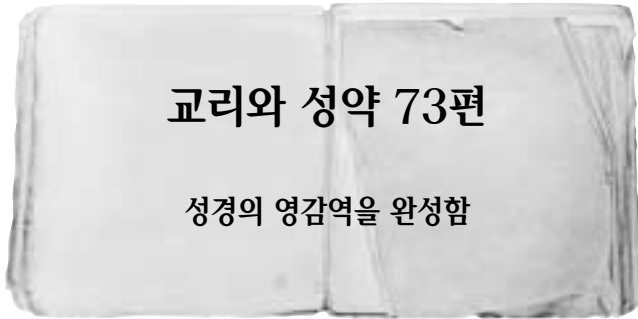
1. 장미반 회장
2. 아론 신권 교사
3. 가정복음 교사
4. 십일조 현금자

나 감독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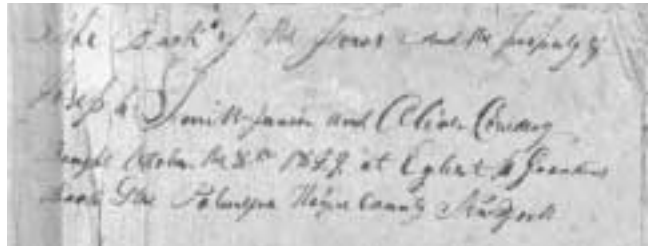


현재 우리는 헌납의 법에 따라 살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 감독의 책임 가운데 많은 것이 교리와 성약 72편 5~13절에서 설명된 것과 비슷하다.

1. 감독이나 지부 회장 또는 보좌 가운데 한 사람과 이 구절을 토론하고 오늘날 감독이 가진 책임 중에 위에서 언급된 것과 비슷한 것들을 노트에 열거한다. 감독이 그러한 의무들을 행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한다.
2. 감독의 일이 수월해지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831년 12월 중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대부분의 시간을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지역에서 배도자들이 퍼뜨린 그릇된 소문에 의해 생긴 손상을 복구시키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 (교리와 성약 71편 머리글 참조) 그 부름으로 인해 그들은 성경 영감역 작업을 중단해야 했다. 교리와 성약 73편에서 주님은 다시 한 번 조셉 스미스에게 시드니 리그돈을 서기로 하여 번역 작업에 정진하도록 지시하셨다.



홍정역의 조셉 스미스 역 면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경 영감역을 마치도록 명 받았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73편

[Exhortation] 권면하기 (1절) — : [Gird up your loins] 허리를 동이고 가르침과 격려 : (6절) — 준비되다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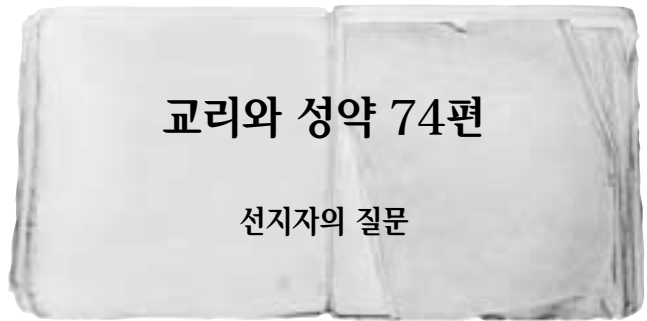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73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중요성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셨던 첫번째 임무 가운데 하나가 물문경을 번역하는 것이었다. 번역을 하던 중에 선지자는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주님께서 그에 대해 답하셨다. 그러한 계시의 다수가 교리와 성약 여러 편에 나온다. (예, 교리와 성약 3, 5~6, 8~10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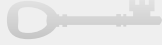
1. 교리와 성약 73편 3절에서 주님은 선지자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무엇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가?
2. 교리와 성약 76~77편, 86편, 91편에 나오는 머리글을 읽는다. 이러한 계시가 조셉 스미스 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한다.



교리와 성약 74편은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이 충분한 복음의 회복과, 중요한 복음 원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한 예가 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던 중에 질문들이 떠오르곤 했다. 그와 서기였던 시드니 리그돈은 그러한 질문을 주님께 여쭙었으며,

그것이 계시를 가져오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고대 경전들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현대 계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상고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74편

[Recommended] 다시 시작하였고 (머리글) — 다시 시작하다	∴ [Law of circumcision] 할례의 법 (2절) — 모세의 율법에 의해 요구되는 종교적 관례
[Sanctified] 성결하게 되며 (1절) —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다, 죄에서 자유로워지다	∴ [Contention] 다툼 (3절) — 언쟁하다, 강한 말다툼
	∴ [Subject] 쫓기 (3절) — 순종할 의무를 지다

교리와 성약 74:1 — 믿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에 있던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개종하면 개종하지 않은 배우자를 더럽고 불순한 것으로 여겨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 틀림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의 개종이 본질적으로 가족을 성결케 하는 힘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7:12~14 참조]” (Smith and Sjodahl,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432)

교리와 성약 74:1~7 — “모세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교회 회원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해야 하며, 남편과 아내가 같은 믿음을 나누지 않을 때 오는 문제들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중심 사상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교리와 성약 74:1, 7)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어린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성별되어 거룩하니라.

“이 제안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 이 계시에서 완전하게 설명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 가르친 것과 같이, 어린 아이들은 성결케 되기 위해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이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어린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결케 되어 거룩하다는 것이다.” (Smith and Sjodahl,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432)

교리와 성약 74:5 —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의 중요성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계시 당시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분명히 말해서 합당한 결혼은 합당한 데이트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대개의 경우 자기와 친하게 사귀거나 같이 학교에 다니거나, 교회에 나가거나, 알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명기 7:3~4, 고린도후서 6:14 참조] 비회원이거나 신앙심이 없고 교양이 없는 회원과는

데이트를 하지 말아라. 이 말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요.”라고 말하는 소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과 사랑에 빠질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 교회 회원과 결혼한 사람 중에는 끝내는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한쪽이 회원인 경우에 그 배우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실하고도 활동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있다. 그들은 축복받은 소수이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친절하고 협조적이며, 교회의 표준에 따라 주님을 경배하고 봉사하도록 내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의 생활에서 불화와 좌절감과 이혼 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용서가 낳는 기적, 220쪽)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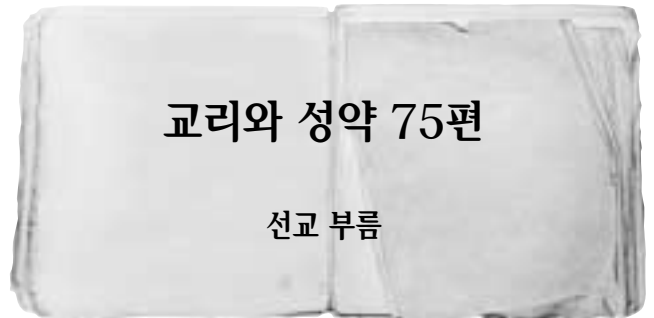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74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주요 요점을 요약한다

교리와 성약 74편은 고린도전서 7장 12~14절을 설명하고, 세 가지 주된 질문에 답한다. 노트에 각각 다음 질문을 적고 이 계시가 그 질문에 대해 주는 답을 요약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

1. 만일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이 복음을 따라 개종한다면, 그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우리가 결혼할 사람에 대해 주님은 어떤 권고를 주셨는가?
3. 주님은 어린 자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가?



교리와 성약 75편은 커틀랜드에서 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오하이오 주, 앰허스트에서 열린 대회에서 주어졌다. 이 대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조셉 스미스를 대신권 회장으로 지지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제일회장단 조직으로 가는 첫째 단계 중의 하나였다. 이 계시에는 또한 장로들에게 “그들 각자의 사명이 대회의 지지로서”(교리와 성약 73:2)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 2주 전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에 결혼한 남자들이 선교사 부름을 받고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아내와 가족들은 집에 남았다. 이 계시는 그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충고를 주었나? 아버지이자 남편인 교회 형제가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갔을 때 그 가족에 대한 나머지 교회 회원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75편

[Laden with many sheaves] 많은 곡식 단을 지게 될 것이요 (5절) — [Revoke the commission] 임무를 취소하고 (6절) — 부름을 취소하다
 훌륭한 선교 성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 : [Tolerable] 견디기가 쉬우니라 (22절) : — 견딜 수 있는



© 1994 Janath R. Cannon, photographer, and E. Dale LeBaron

주님은 선교 사업을 추수 때에 곡식 단을 모으는 것에 비유하셨다.

교리와 성약 75:18~20 — “너희 밭의 먼지를 떨어버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리와 성약 24편 15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36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75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약속들을 상고한다

1. 교리와 성약 75편 1~11, 13, 16절을 검토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과 그분이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열거한다.
2. 약속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약속이 왜 여러분에게 감명을 주는지 설명하는 두세 문장의 짧은 글을 쓴다.
3.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 사업이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것을 대신할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선교 사업은 십일조나, 성찬식, 지혜의 말씀 등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듯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선택의지를 갖고 있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좋을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갈 수도 있고, 집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상적인 젊은이들은 십일조를 내고, 모임에 참석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생활을 흠없고 깨끗이 해야 하듯이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Circles of Exaltation [address to religious educators, 1968년 6월 28일], 3)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젊은 여성들은 젊은 남성처럼 선교사로 봉사해야 할 동일한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가르쳤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모두 한결같이 청년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야 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과 같은 정도로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 사업을 매우 하고 싶은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정 그렇다면 부모님 및 감독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생각이 일관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감독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선교 사업은 근본적으로 신권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젊은 남성들은 그 큰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52)

젊은이들이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준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젊은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이 봉사할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76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영감역 성경 번역을 하는 동안 받은 것이다. 이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필로 디블 형제는 이렇게 기록했다.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시현은 오하이오 주 [하이립]에 있는 ‘존슨 아버지’의 집에서 주어졌다. 당시에 조셉과 시드니는 영에 감화되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 방에는 12명 가량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도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그 곳에 있었다. 약 40분 정도 경과되었던 것 같다. 나는 영광을 보고 권세를 느꼈지만, 시현을 보지는 못했다. ...”

“조셉은 간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마치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말하는 사람처럼 ‘내가 보는 것은’ 하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본 것이나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곤 했다. 그러자 시드니가 ‘저도 같은 것을 봅니다.’ 하고 말을 했다. 곧 이어 시드니는 ‘내가 보는 것은’ 하고 말하며 자신이 보았거나 보고 있는 것을 말했으며, 조셉이 ‘저도 같은 것을 봅니다.’ 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방식의 대화는 시현이 끝날 때까지 약간의 간격을 두고 되풀이 되었으며, 시현이 끝날 때까지 그들 외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조셉과 시드니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그 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시현이 끝날 때까지 한 시간 가량 그렇게 있었다.”

“조셉은 장엄한 영광이 계속되는 동안 굳건하고 평온하게 앉아 있었지만, 시드니는 누더기 옷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축 늘어진 채 창백하게 앉아 있었다. 조셉은 그런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시드니는 나처럼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군요.’ 라고 말했다.”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The Juvenile Instructor, 1892년 5월 15일, 303~304)

교리와 성약 76편을 공부하면서, 조셉과 시드니가 무엇을 읽다가 시험을 보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그 시험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들은 어떤 순서로 영광의 왕국들을 보았는가? 시험이 주어지는 동안 그 방 안에 있으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위대한 사건에 참여한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상상해 본다.



- 충실한 자에게 주어질 약속 (1~10절)
- 이 계시로 이끈 상황 (11~18절)
- 하나님 아들의 영광 (19~24절 참조)
- 루시퍼의 타락 (25~29절 참조)
- 멸망의 자식들의 고통 (30~38, 43~49 참조)
- 해의 영광을 상속 받는 사람들 (50~70, 92~96절 참조)
- 달의 영광을 상속 받는 사람들 (71~80, 87, 91, 97절 참조)
- 별의 영광을 상속 받는 사람들 (81~90, 98~112절 참조)
- 이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114~119절 참조)

교리와 성약 76:22~24 — 증인의 중요성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드니 리그돈은 전 계시를 모두 목격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방에 있었으며, 그들은 비록 계시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권세를 느꼈다고 증거했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새로운 교리를 계시할 때마다, 그분은 증인을 한 명 이상 보낸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것이 “거룩한 증인의 법”으로 알려진 원리라고 설명했다.

경전에는 증언과 증인의 임명에 관해서 명백하게 언급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주께서 항상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허락하실 때 주어졌던 절차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율법은 변함없고 명백한 율법으로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대의 완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한 경륜의 시대를 세우실 때마다 그를 위하여 증언할 증인 한 사람 이상을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고린도후서 13:1]’ (구원의 교리, 192쪽)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76편

[Sundry] 여러 (머리글) — 여러	• [Vessels of wrath] 진노의 그릇 (33절) — 격노나 화로 가득한
[Extent] 한계 (2절) — 범위, 규모, 크기	• [Redeemed] 구속받지 (38절) — 구조된, 석방된, 구출된
[Naught] 없애지라 (9절) — 아무 것도 아니다	• [Just men] 의로운 자들 (69절) — 회개하여 죄를 용서 받은 사람들
[Meditated] 깊이 생각하고 (19절) — 상고하다, 생각하다	• [Firmament] 궁창 (70~71, 81, 109절) — 하늘
[Inhabitants thereof] 그 곳의 주민 (24절) — 그 곳에 사는 사람들	• [Valiant] 용감하지 (79절) — 충실하고 용감한
[Perdition] 멸망 (26절) — 사탄의 한 이름; 파멸, 멸망	• [Through the ministrations] 성역을 통하여 (86~87절) — 지시와 관리를 통해
[Encompasseth] 에워싸는도다 (29절) — 그들을 둘러싸다, 그들 주위에 에워싸다	• [Dominion] 주권 (91, 95, 111, 114, 119절) — 권능, 지배
[Sons of perdition] 멸망의 자식들 (32절) — 영원토록 그와 함께 고통 받을 사탄의 추종자들	• [Whoremongers] 음행하는 자 (103절) — 부도덕한 사람들

교리와 성약 76편 — 계시의 구조

교리와 성약 76편은 인류가 질문해 온 가장 중요한 문제 중 일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성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76:29 — 인류의 영혼을 위한 전쟁

이 생애에서 우리가 참가하는 전쟁은 암흑에 맞선 빛, 악에 맞선 선의 전쟁으로서, 그것은 이 지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지구가 우리를 위해 창조되기 전, “하늘에 전쟁”(요한 계시록 12:7)이 있었다. 사탄은 패배하여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9절) 그러나, 그 전쟁은 그 곳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탄은 이 지상에서 특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17절) 자들을 파멸시킬 기회를 노린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 회원들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전쟁에서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진리의 검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위험이 따르지 않는 전쟁은 없습니다. 후일의 예언을 통해 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인간 영혼을 위한 전쟁이 더욱 격심해지며 더욱 커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가올 도전에 대해 자신과 가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체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를 적대하고 위협하는 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선을 행하라. 땅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대,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6:34)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44)

교리와 성약 76:31~35 — “멸망의 자식”들은 누구인가?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지어 멸망의 자식이 된 사람들에게 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신을 거스른 죄 이외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께서는 멸망의 자식 이외에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는 성령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림을 받고 하나님을 안 다음 그에 대해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성신을 거스른 죄를 지은 다음에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태양을 보면서도 이것이 비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며, 하늘의 문이 열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하며, 눈을 떠 진리를 볼 수 있으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그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41)

교리와 성약 76:37~38 —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조셉 필드 스미스 회장은 용서 받지 못할 죄, 성신을 거스르는 죄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의미하며, 그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추방, 즉 둘째 사망을 가져 오기 때문인데, 그것에 관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영원토록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구원의 교리, 46쪽)라고 가르쳤다.

교리와 성약 76:54 — 장자의 교회란 무엇인가?

조셉 필드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각자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는 성약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는 침례가 ‘새롭고 영원한 성약’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22:1) 자신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에 충실한 후에, 합당한 생활로써 자신을 증명하면, 다른 성약을 받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다른 의무들을 지게 될 특권을 갖게 되며, ‘장자의 교회’ 회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에 만물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충만함과 그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in Conference Report, 1969년 4월호, 122~123)

교리와 성약 76:84 — “이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니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지옥과 별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언젠가 일어날 자신들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영의 세계의 한 부분을 지옥이라 부른다. 이러한 악한 자들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들의 영혼은 바깥 어둠으로, 스올의 우울한 깊음으로, 악한 영혼을 기다리는 하데스로, 지옥으로 내쳐지게 된다. 그 곳에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받게 된다. 영원한 화염불의 보복 속에서 뒹군다. 그 곳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이를 간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불길 같은 분노가 악한 자들에게 쏟아진다. (앨마서 40:11~14, 교리와 성약 76:103~106) ...”

“부활 후에는 지옥에서 고통 받은 대부분이 별의 왕국으로 갈 것이며,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에 참여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

“누가 지옥에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전에 충분히 나와 있다. 별의 왕국에 가는 사람들은 별의 왕국의 율법에 순종한 결과에 따라 지옥의 나락을 거쳐 그 곳에 가기 때문에, 별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Mormon Doctrine, 349~350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76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다른 활동 나~사에서 세 가지를 한다.

가 평전을 이해함

1. 교리와 성약 76편에 대한 “경전을 이해함” 편을 사용하여, 그곳에 열거되어 있는 각 범주를 다루는 구절들을 여러분의 경전에 표시한다. 자신이 선호하는 경전 표시 방법을 선택한다.
2. 노트에 세 단을 그려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이라고 적는다. 교리와 성약 76편 30~112절을 검토하고 각각 그 영광의 왕국에 거하게 될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한다.



나 시현을 그린다

노트에 교리와 성약 76편에서 감명을 주는 부분 두 곳을 택해 그림을 그린다. 각 그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고 그 계시의 각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감명 깊은 것을 말한다.

다 편지를 쓴다

1. 교리와 성약 76편 1~10절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5절)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열거한다.

- 친구나 가족 중에 의롭게 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거나 그럴 만한 노력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 목록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편지를 쓴다. 어떤 약속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라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76:22~24**

- 76편 20~24절에 기록된 간증을 검토한다. 이러한 구절들이 구주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열거한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구주의 이 시현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상고해 본다. 개인 일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과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을 적는다.

마 **시험 문제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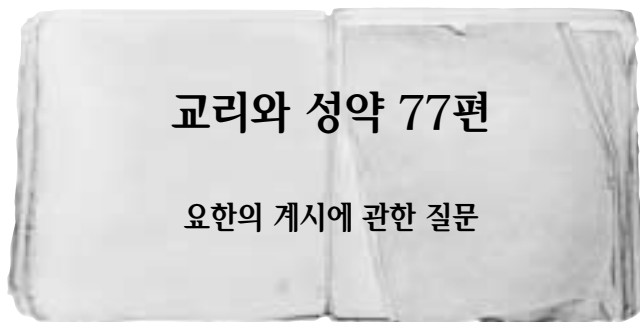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76편에 대한 “경전을 이해함” 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각 범주에 대한 의미 있는 시험 문제를 적어도 하나를 낸다. (“계시의 구조”) 각 질문 뒤에 답을 적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바 **경전을 활용함**

- 성서 사전에서 루시퍼란 단어를 찾아서 그것의 의미를 설명한다.
- 교리와 성약 76편 25~29절에 나오는 정의와 내용을 이용하여, 전세에서의 루시퍼와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는 바를 적는다.
- 왜 그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29절,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한 교리와 성약 76편 29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끼리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 **해의 왕국의 자격 요건과 보상**

- 교리와 성약 76편 50~53절에서 해의 왕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열거한다.
- 왜 우리가 “신앙으로써 승리”(53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노고, 결심, 의지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76:69, 니파이후서 31:19~21, 모로나이서 6:4 참조)
- 교리와 성약 76편 50~70절, 92~96절에서 해의 왕국에 가는 사람들에 관해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축복을 적어도 두 가지 열거하고, 왜 그러한 축복들을 원하는지 설명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사도 요한은 일곱 인으로 인봉된 한 책을 보았다.

하신 가장 명백한 책 중의 하나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90) 교회의 많은 회원들은 사도 요한의 책이 약간 어려우며, 기독교 세계가 수세기 동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놓고 논쟁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77편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열고 조셉 스미스가 이해했던 것처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시로서,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열쇠를 제공한다. 77편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요한계시록도 보도록 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77편

[Figurative] 상징적 (2절) — 상징적	: [Felicity] 행복 (3절) — 행복
[Temporal] 현세적인 (2, 6절) —	: [Economy] 섭리 (6절) — 효율적인
물질적인 세계와 지구 생명체에	: 관리
해당하는	: [Elias] 일라이아스 (9절) — 하나님의
	사자를 위한 직함

교리와 성약 77:2~3 — 우리는 요한이 본 짐승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요한은 바로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화롭게 된 생명체들을 보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러한 창조물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요한은 수천 종류의 짐승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수없이 많은 땅으로부터 구함을 받은 존재들이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상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비밀은 요한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75) 또 다른 경우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네 짐승은 그들의 창조의 한도를 채운 가장 고상한 짐승의 종류로서 그들은 다른 세계로부터 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이 완전하였기 때문이며, 그들 종족간에 천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듣지 못하였으며, 나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요한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5:343~344) 분명 이 계시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활한 우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준다.

교리와 성약 77:15 — 우리는 “두 증인”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קיнг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두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로운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데 도구가 된 겸손한 사람, 즉 조셉 스미스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거나 제일회장단일 것임에 틀림없다.”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509)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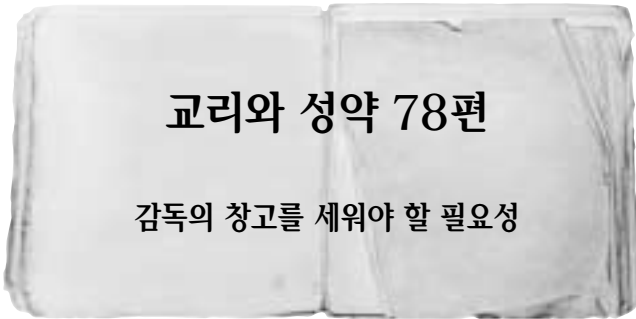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77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

1. 교리와 성약 77편 6~7절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본 “일곱 인으로 봉한” 책과 인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

나 용어 설명

1. 교리와 성약 77편 9~11절에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충실한 자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 담겨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14장 1절을 읽고, 이 백성들에 관해 계시된 이 “인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2. 이 일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훨씬 많은 것들을 갖도록 의도하셨다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78편에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계획을 설명하셨다. 주님께서 그분이 의도한 대로 지상에서의 축복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살펴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78편

[Espoused] 받아들인 (4절) — 받아 : [Son Ahman] 아들 아만 (20절) — 들인, 하기로 결의한 : 하나님의 아들 (아만은 아담의 언어로 “하나님”을 의미한다)

교리와 성약 78:3 — “나의 백성의 가난한 자를 위한 창고”

1831년 2월에 주님께서 교회에 자신의 율법을 주셨을 때, 회원들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네 소유 중에서 헌납하”(교리와 성약 42:30)라고 명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들은 “교회의 감독과 그의 보좌들 ... 앞에 돌지니라”고 하였다. 감독이 당면한 필요 사항을 돌보고 난 후에 남은 것은 “내 창고에 간직해 돌지니, ...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 1832년 3월에 약속된 창고를 설립할 때가 왔다.

교리와 성약 78:5 — 평등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평등하다는 것에 관해 모든 사람이 수행한 노동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평등이 유지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셨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기심이 없는 곳에서는 이 바람직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질투심과 이기심을 없애지 못한 곳에서는 실패한다. 우리가 해의 왕국의 평등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307)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계시가 평등을 말하기 때문에 협동 교단이 이론과 실제에 있어 공동 사회적이고 공산주의적이라고 그릇되게 결론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동 교단에서의 평등은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경제 및 사회적 수준에서의 평등이 아닙니다. 평등은 주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백성의 가족 수와 형편과 부족량과 필요량에 따른’, 각 사람의 [가족에] (교리와 성약 51:3) 따른 평등입니다. (“A Vision and a Hope for the Youth of Zion,” in *1977 Devotional Speeches of the Year* [1978], 74)

교리와 성약 78:11~12 —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쿱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사탄에게 넘겨준 바 되어 매를 맞는다는 것은 그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권과 의로움과 신성함의 모든 보호하는 힘이 제거된 후 넘겨져, 사탄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그러한 사람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학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빗장이 열리면, 사탄의 속박과 저주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불 붙는 유향 못으로 상징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비통을 가져온다. 지옥에 떨어진 저주받은 자들은 그렇게 고통 받을 것이다.” (*Mormon Doctrine*, 108)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78편을 공부하며 다음 활동 가~마 중 세 가지를 한다.

가 인터뷰를 한다

1. 교리와 성약 42편 30~34절과 78편 1~4절을 검토한다. 헌납의 법 아래에서 창고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한다.
2.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신권 지도자에게 오늘날 감독의 창고가 십일조의 법 아래에서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는지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요약하여 적는다.

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

1. 교리와 성약 78편을 읽고, 우리에게 “땅의 일에 있어서 평등”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6절, 또한 교리와 성약 78:5~7에서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
2.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평등”하다면 여러분의 이웃이나 학교, 지역 사회가 어떻게 좋아지겠는가?

다 이유를 말한다

교리와 성약 78편 14절에서 주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 주님은 이 계시에서 그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회에 어떤 지시를 주셨는가?
2. 그 외에도 우리가 더욱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행하고 가르친다고 보는가?

라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몇몇 정원회 회원에게 정원회 활동에 흥미를 갖게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담에 빠져 있다고 가정한다. 정원회 회원들은 교회에 오긴 하지만 주중의 청남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교리와 성약 78편 17~18절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리와 성약 79~80편

선교사 부름

선지자가 서명한 선교사 부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 교리와 성약 79~80편에서 선교사로 부름 받은 형제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상상해 본다.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직면하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79편

[Eastern countries] 동쪽 나라 (1절) : [Crown him again with sheaves]
— 미국 동부 : 또다시 곡식 단으로 면류관을 (3절) —
[Comforter] 보혜사 (2절) — 성신 : 그를 개종자들로 축복한다

교리와 성약 80편

[Amiss] 그릇 같 (3절) — 잘못된,
옳은 길에서 벗어난

교리와 성약 80:4 —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올슨 프랫 장로는 선교 사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다. “저는 여러 선교사 무리와 함께 해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저는 그들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았으며,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보낸 그 시간에 영생의 원리들을 연구했더라면, 경전을 공부했더라면, 교회의 교리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익혔더라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늘에서 계시된 원리들을 알았더라면, 세상의 주민 앞에 서서 우리의 원리로 그들을 교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Journal of Discourses*, 7:76)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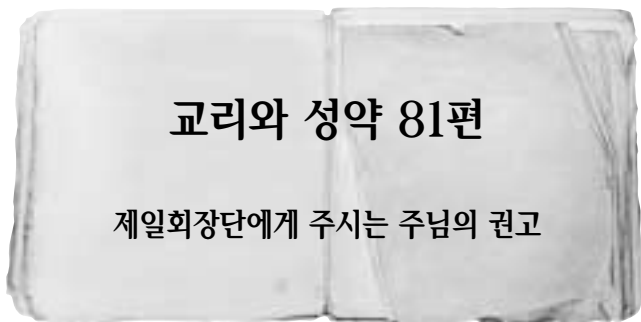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79~80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나 나를 한다.

가 선교 사업의 축복

1. 교리와 성약 79편 1절에서 주님은 제이레드 카터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셨나?
2. 복음에 대해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주님은 카터 형제에게 충실하게 봉사한다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 여러분은 이러한 약속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나 선교사 준비

1. 교리와 성약 80편에서 스티븐 버네트와 이든 스미스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무엇을 가르치도록 명받았는가?
2. 모든 선교사들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방법대로 이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81편

제일회장단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고

주님은 선지자에게 교회의 완전한 조직을 한꺼번에 모두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 조직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확대되었다. 교리와 성약 81편에서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후에 제일회장단이 된 “대신권의 회장단”에 관한 권고 사항을 추가로 주셨다. 조셉 스미스가 교회를 이끌도록 돕기 위해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찾아본다.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주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상상해 본다. 이 계시는 원래 제시 가우스에게 주어질 예정이었지만, 그가 충실하게 남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한다. (81편 머리글 참조)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열쇠[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열쇠는 제일회장단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지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주님의 일을 통괄하고 지휘하는 권세이며 권위입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신권을 소유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통괄하고 조절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지시와 위임의 한도 내에서만 그 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권과 열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그 외의 고대 선지자들에게 의하여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신권과 열쇠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안수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일회장단의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하나님이 선임하신 사도인 교회의 회장만이 완전히 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성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권과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만 존재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계시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열쇠는 ‘대신권의 회장단에게 항상 속하여 있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1:2) ...

형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아주 명확히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회장이나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는 성도를 열길로 인도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지시를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개인은 아마도 결길로 빠지기 쉽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은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성도와 세상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제일회장단을 주시하고 그들의 지시와 의견을 따른다면 이 지상에는 교회로나, 개인으로나, 어떠한 힘도 우리의 진로를 변경시킬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생에서 평화를 얻으며 다가올 세계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 받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열쇠와 권리”, 성도의 빛, 1973년 3월호, 18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81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점검표 만들기

교리와 성약 81편을 검토하고 주님께서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열거해 본다. 제일회장단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옆에 체크 표시를 하고 교회 회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81편

[Succor] 도우다 (5절) — 돕다,	· 글자와 끝 글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하다	· 칭호이다. 이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Alpha and Omega] 알파와	·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임을
오메가(7절) — 그리스 알파벳의 첫	·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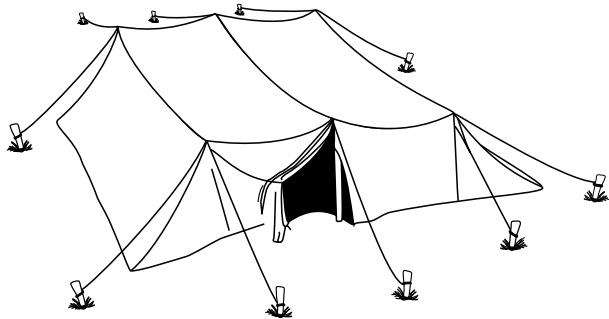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81:2 — “왕국의 열쇠”는 언제나 제일회장단이 지니고 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한 연차대회의 신권 대회에서 왕국의 열쇠는 항상 제일회장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교리와 성약 82편

시온 건설에 관한 유의 사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시온이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초기의 교회 지도자에게 주신 주님의 권고는 그들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시온 건설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장막과 장막의 말뚝(스테이크)의 비유를 사용하여 교회의 외곽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시온을 지원하고 시온이 성장하도록 돕는가를 설명하셨다.

선지자, 제사장 및 왕들이 특별히 기대를 안고 주목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이 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하였으나 결국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일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택하신 은총을 입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만 후일의 영광이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참여하며 보면 되는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17)

교리와 성약 82:22 —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성도들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하신 주님의 계명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경우 어려운 말씀인 듯 하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형제들이 그들의 죄에 참여하고, 그들과 절친한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다. 원수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올바르게 정숙한 원리들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되, 그들과 함께 욕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흥청거려서는 결코 안 된다. 편견을 없애고 끼꺼이 함께 거래할 의도를 보이며 친절한 영을 나타내 보인다면, 그들로 하여금 반감에서 돌아서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323)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82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82:3

1. 교리와 성약 82편 3절과 함께 니파이전서 3장 7절을 읽고 순종에 대해 이 구절들이 가르치는 바를 설명한다. 이 성구들에 있는 개념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이 두 성구의 주된 개념을 담고 있는 슬로건을 적거나 포스터를 그린다.

나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82:10

1. 이터서 3장 12절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그분이 맺은 약속들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한다.
2. 교리와 성약 82편 10절을 검토하고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설명한다. “만약, 그렇다면” 형식의 문장으로 적는다.
3. 교리와 성약 59편 12~20절에서 공부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만약, 그렇다면” 형식의 문장으로 적는다.
4. 여러분이 선택한 또 다른 계명을 “만약, 그렇다면” 형식의 문장으로 적는다.

다 원인과 결과 찾기

교리와 성약 82편에서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시온을 건설하는 것에 관해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1. 노트에 아래의 그림을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대로 분류한다.

경전을 이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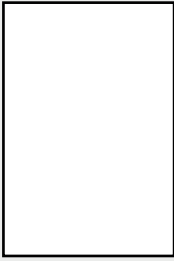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82편

[Trespases] 허물 (1절) — 법이나 계명을 어김	[Your successors] 너희 계승자 (20절) —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들
[Transgressors] 범법자 (4절) — 범법자, 죄인	[Buffetings of Satan] 사탄의 매질 (21절) — 고통 (교리와 성약 78:11~12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부분을 또한 참조한다)
[Kindleth] 불붙이시고 (6절) — 성나다, 일어나다	
[Bind] 결속하라 (15절) — 맡겨지다,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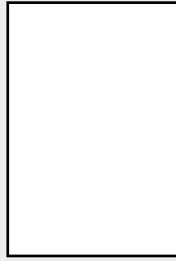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82:14 — “시온은 반드시 일어나”

시온이란 단어는 성경과 물문경을 합하여 200번이 넘게 나타나고, 교리와 성약에서도 거의 그 정도로 나타난다. 그것은 후일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으며, 그 땅을 시온의 땅으로 헌납했다. 그는 시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시온 건설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바라는 결과



이러한 계명들



그러므로

2. “바라는 결과” 난에는 주님께서 시온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신 것들을 열거한다. (교리와 성약 82:14 참조)
3. 15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찾아 표시한다.
4. 15~19절을 검토하고 “이러한 계명들” 난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주신 계명들을 열거한다.
5. 왜 주님께서 일어나기를 바라신 일들이 계명에 대한 순종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83편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책임



어머니가 자녀들을 혼자서 키우는 것은 힘들다. 교리와 성약 83편에서 주님은 헌납의 법 아래에서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하셨다.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거의 동일하게 작용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83편

[Maintenance] 생계 유지 (2, 4절) — 부양, 생계

교리와 성약 83:6 — “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받아야 하며”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과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보살핌을 받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나 고아들이나 경우 교회 기금으로 부양되어, 부모가 돌보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여의었다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 그 아이를 돌보며,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돌봐 주는 것이 교회에 부과된 책임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책임입니다.” (in Conference Report, 1899년 10월호, 39)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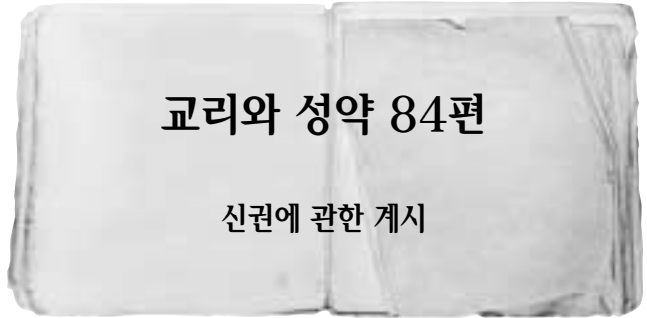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83편을 공부하며 활동 가를 한다.

가 새로운 기사를 쓴다

자신이 어느 작은 지방 신문사의 기자라고 가정하고,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가족에 대해 기사를 써야 할 임무를 맡았다고 상상한다. 미망인과의 인터뷰에서, 수입도 없고 또한 남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후기 성도라고 대답했다.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 83편에서 읽은 것을 토대로, 그녀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말할 것인지 그에 대한 기사를 쓴다. (필요할 경우,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한다.)

교리와 성약 84편

신권에 관한 계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신권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신권의 맹세와 성약은 무엇이며, 그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리와 성약 84편은 신권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하며, 그것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의 생활을 축복하며, 나아가 온 세상을 축복하는지에 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84편

[Reared] 건설되어야 (4절) — 건설되다 : [Lesser priesthood] 소신권 (26절) —
 [Conspiracy] 음모 (16절) — 해하거나 : 아론 신권
 이용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 [Carnal] 육신에 속한 (27절) —
 참여하는 악한 모의나 계획 : 현세의, 실제적인 것과 관련된 (이 : 생애와 관련이 있는)
 [Abideth] 머물러 (18절) — 지속하다, : [Make straight] 곧게 하며 (28절) —
 견디다 : 준비하다
 [Greater priesthood] 대신권 (19절) : [Appendages] 속한 (29~30절) —
 — 벨기세택 신권 : 부속, 추가
 [Manifest] 나타나느니라 (20~21절) : [Oath] 맹세 (39절) — 공식적인 : 선언이나 약속
 — 알려지다

[Confirm, confirmed] 확인하거나 (42, 48절) —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선언하다

[Vanity] 허영 (55절) — 자신에게 초점을 뒀, 교만

[Scourge] 징계 (58, 96절) — 형벌, 고뇌

[Steadfast] 굳건히 (61절) — 충실한, 확고하게, 결연한

[Solemnity] 엄숙함 (61절) — 성스러운 태도와 감정들과 함께

[Upbraided] 책망을 받아야 (76절) — 꾸짖음을 듣다

[Scrip] 전대 (78, 86절) — 여행 가방

[Arrayed] 입을 (82절) — 옷을 입은

[Meted] 할당되는 (85절) — 정확히 쟀

[Reprove, reproving] 꾸짖기 (87, 117절) — 회개를 부르짖다, 지적하다

[Spare not] 아끼지 말라 (94절) —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

[Travailed and brought forth her strength] 땅은 산고를 겪고 그 세력을 낳았나니 (101절) — 이 구절은 산고를 겪고 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뒤이은 복천년의 “발현”에 앞서 지상에서 일어날 역경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다.

[Edified] 교화되며 (106, 110절) — 고양하다, 계몽하다, 영적으로 세우다

[Secular business] 세속 업무 (113절) —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업 업무

[Desolation, desolate] 황폐 (114~115, 117절) — 파괴와 심판에 따른 공허함; “멸망의 가증한 것”이란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행하거나 매우 불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는 파괴를 일컫는다.

[Rend] 찢을 (118절) — 찢어 놓다, 파괴하다

군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한 성전이 “이 세대”에 세워질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성전을 위한 장소를 헌납했지만(교리와 성약 57편과 교리와 성약 58편 57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 참조), 성도들은 당시 성전을 건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84편은 성전이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세대”란 (교리와 성약 84:4~5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선 마지막 경륜의

시대인, 이 경륜의 시대를 말한다.

교리와 성약 84:6 — 중단된 내용

교리와 성약 84편 6절에서 주님은 새 예루살렘에 건립될 성전과 관련하여 모세의 아들들에 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모세의 아들들”이란 구절로 말씀을 시작하시다 돌연 모세와 이스라엘 자녀들이 지녔던 신권에 대해 말씀하셨다. 모세와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해 6절에서 시작했던 말씀은 31절에서 계속 이어진다.

교리와 성약 84:33 —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신권 내에서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존엄과 탁월함으로 그것을 세우고, 강화하며,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보여 주는 덕과 의로 인해 그 직분을 공경하고 존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53)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과 회원들과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신권 봉사의 확대된 가능성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Ensign, 1993년 9월호, 66)

교리와 성약 84:54~58 — 물문경과 정치



1986년 4월 연차 대회의 개회사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간증했다.

“우리가 물문경을 읽지 않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온 교회가 정죄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84편 56~57절을 인용하심]

“이제 우리는 물문경에 관해 좀더 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더욱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4편 58절을 인용하심] 우리는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물문경은 우리 개인 학습이나, 가정에서의 가르침이나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선교 사업의 중심이 되지 못했으며, 지금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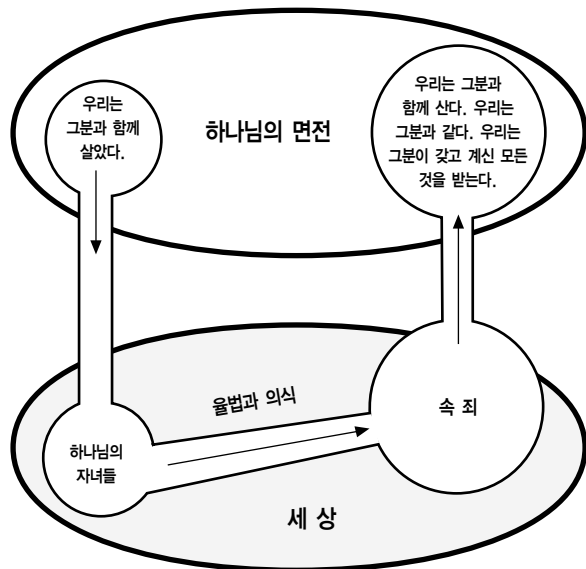
같은 연차 대회의 나중 모임에서 벤슨 회장은 우리가 물문경을 사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주님께서 그의 종 로렌조 스노우 회장에게 영감을 주셔서 십일조의 원리를 재강조하심으로써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

교리와 성약 84:2 —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목적으로”

교리와 성약 84편 2절에 나오는 회복이란 단어는 후일에 지상에 충만한 복음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상에 있는 그분의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이끌어 온 후, 다시 영생을 누리도록 그분의 면전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영생으로 향한 이 회복은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논의된 신권의 의식과 권세로 명백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세를 통해 가능하다.

그분의 자녀들을 회복함



교리와 성약 84:4~5 — 어떤 성전? 어떤 세대?

교리와 성약 84편 4~5절에서 주님은 특별한 성전이 새 예루살렘(미주리 주, 잭슨

“오늘날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물론경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교회와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저주, 즉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십니다.(교리와 성약 84:54~58 참조) 이 메시지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회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 저는 여러분이 물론경을 더욱 잘 이해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매일 물론경을 읽고 그 교훈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온의 자녀와 교회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축복을 부여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저주,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6)

교리와 성약 84:77~90 — 선교사에게 주는 지시와 약속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갑이나 전대 없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선교사 봉사를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사업이나 세상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에 관해 어떠한 걱정을 해도 안 된다. 그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따르는 무거운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관심과 힘과 재능은 성역의 사업을 행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 사항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음을 알고 있다.”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243)

교리와 성약 84:92 — “발을 씻어”

교리와 성약 24편 15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36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84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다와 다른 활동 가~나, 라~마 중 세 가지를 한다.

가 **멜기세덱 신권에 대해 배움**

노트에 아래와 같은 도표를 그린다. 첫번째 난에 교리와 성약 84편 14~25절에서 멜기세덱 신권에 관해 배운 것을 열거한다. 두 번째 난에는 이 구절에서 배운 것을 숙고할 때 갖게 되는 질문을 적는다. 부모님, 세미나리 교사, 혹은 교회 지도자와 함께 질문을 토론하고 배운 것에서 교리와 성약 84편 14~25절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적는다.

멜기세덱 신권		
교리와 성약 84편 14~25절에서 무엇을 배웠나	나의 질문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내가 배운 것

나 **아론 신권에 관한 중요한 개념**

교리와 성약 84편 26~30절을 주의 깊게 읽으며 아론 신권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핀다. 이 구절에서 아론 신권의 역할, 기능 또는 목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개념 네 가지를 선택한다. 이러한 단어와 개념을 노트에 적고, 그 중요성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더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개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재 아론 신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다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84:33~39**

교리와 성약 84편 33~48절은 흔히 “신권의 맹세와 성약”이라 불린다. 맹세란 한 사람의 말에 대해 보증을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약속이다. 성약이란 두 당사자 사이에 맺는 성스러운 합의이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은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주실 약속된 축복들의 보증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합의 사항에서 우리가 자신의 몫을 다한다면 그에 따르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맹세와 성약을 하신 것이다. 이 경우 축복을 받는 조건은 신권과 그 의식에 달려 있다.

1. 교리와 성약 84편 33~44절에서 읽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들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의 나타내는 작은 도표나 그림을 그린다.
2. 교리와 성약 84편 33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에서 벤슨 회장과 맥스웰 장로가 하신 말씀을 읽는다. 그런 후에, 다음 성구들을 읽고, 그것들이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마태복음 20:26, 야곱서 1:19, 힐라맨서 10:4, 모로나이어 9:6, 교리와 성약 42:12~14, 58:27~28, 107:99~100. (자신의 경전에서 교리와 성약 84편 33절의 여백에 참조 성구 몇 가지를 적어 둘 수 있다.)
3. 주님께서 요구하고 약속하신 것에 관해 교리와 성약 84편 35~38절에 나오는 개념들을 나타내는 또 다른 도표나 그림을 그린다.

라 **빛과 어두움**

빛이 전혀 없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한다. 또한 빛이 거의 없을 때 색깔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본다. 이 생애 동안 훌륭한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에는 영적인 밝은 빛이 필요하다.

1. 교리와 성약 84편 43~47절은 영적인 빛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2. 교리와 성약 50편 24절과 93편 20절에서 우리는 생활에서 그 빛의 밝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3. 교리와 성약 84편 49~57절에 따르면, 우리를 더 심한 어두움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앨마서 12:9~11 참조)
4. 교리와 성약 84편 43~57절에 나오는 원리와 개념들을 가르치도록 부탁 받았다고 가정한다. 그러한 개념들을 실증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어떤 예를 찾을 수 있는가?

마 선교사들을 위한 격려

교리와 성약 84편 60~102절에서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네 구절을 선택한다. 여러분이 각 구절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 구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바 훈련을 한다

교리와 성약 84편 107~111절에서 배운 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교사 정원회의 회원을 훈련할 때 가르칠 것을 적는다.

교리와 성약 85편

우리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함

교회에서 임무 지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임무를 완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교리와 성약 58:26~29 참조) 그러나 때때로 임무 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을 받기도 한다. 지시를 따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이 주님께서 권고하신 방법으로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속(재산 및 생활에 필요한 기타 자원)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파트리지 감독만이 아니었다. 일부 성도들은 미주리 주에 집합하고 있었으나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헌납의 법은 당시 주님께서 시온에 집합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85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 주에 있는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편지의 일부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용뿐만 아니라 어조도 살펴보아야 한다. 어조를 살펴보면,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미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권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85

[Extract] 발취한(머리글) — 일부 내용을 빼내다

[Inheritances] 기업(머리글, 1~3, 7, 11 절) — 헌납의 법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한 재산

· [Transpire] 일어나는(1 절) — 일어나다, 발생하다

· [Apostates] 배도자(2절) — 교회를 이탈하여 복음에 대한 간증을 부인하고 형제들에게 대적하는 자

[Is contrary to] 어긋나는(3절) — 거스르다, 반대되는

[Enrolled] 등록하게 함(3, 7절) — 열거하다, 기록하다

[Pierceth] 꿰뚫고(6절) — 침투하다, 깊은 영향을 미치다

· [Scepter] 홀(7절) —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 또는 지휘봉(이 경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 [Asunder] 쪼개어질(9절) — 작은 조각으로 깨어지다

교리와 성약 85:5, 7, 11 — “힘 있고 강한 자 한 사람”

교리와 성약 85편 7절은 파트리지 감독이 회개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파트리지 감독이 주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힘 있고 강한 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 파트리지 감독은 회개하였으며, 따라서 그를 대신할 “힘 있고 강한 자 한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85:7 — “하나님의 율법 책”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하나님의 율법의 책은 곧 “십일조의 법을 뜻한다”고 말씀했다. ...



“자기 이름이 명단에 기록되던 되지 않은 별로 개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일입니다.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 주님의 집에서 행하는 의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조셉 에프 스미스, 102쪽) 십일조 결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십일조 기록에 등록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교리와 성약 85:8 — “법계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법계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구절에 나오는 법계는 성약의 법계를 말하며, 이 법계는 이스라엘의 성막 또는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된다. 법계가 지성소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무엘하 6장 6~7절(또한 역대상 13:9~12 참조)을 보면 성약의 법계를 실은 수레 곁을 걸어가던 옷사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있다. 수레가 뒤편에 걸려 덜컹거리자 법계가 한 쪽으로 기울었다. 옷사는 법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을 뻗자 죽고 말았다. “법계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는 구절은 주님과 그의 종들을 믿는 신앙이 결합되어 자기 지혜를 믿고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85:9 — 기억의 책이란 무엇인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브르스 알 맥쿱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아담은 충실한 자손들에 대한 기사를 글로 기록하였는데, 그는 이 기사에 자손들의 신앙과 업적, 의로움과 헌신, 계시와 시현, 그리고 계시로 알려진 구원의 계획을 굳게 지켰던 사실을 기록했다. 아담은 합당한 우리 조상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계시된 위대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가 기록한 것을 기억의 책이라고 불렀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주신 본을 따라 기록되었다.” (모세서 6:4~6, 46)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은 비슷한 기록을 남겼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은 아담이 기억의 책을 기록한 방법에 따라 선지자들이 처음으로 그것들을 기록한 덕택이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비슷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으며(교리와 성약 85편), 회원들에게 개인 및 가족의 기억의 책을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Mormon Doctrine, 100)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85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그것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1. 교리와 성약 85편에서 교회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점은 무엇인가? (또한 교리와 성약 85편 7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과 12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참조 성구를 참조한다)
2. 이 계시를 통해 배우는 내용은 교회 서기의 부름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나 예를 든다

1. 교리와 성약 85편과 교리와 성약 85편 8절의 “경전을 이해함” 편을 읽고 나서, 여러분 또래의 사람이 우리의 시대에 “법궤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 예를 간단하게 적는다.
2. 법궤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는 개념에 관해 교리와 성약 85편과 구약성경을 읽고 나서 배운 점을 근거로 하여 “법궤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싶은가?



교리와 성약 86편

밀과 가라지의 비유



주님께서 선과 악이 함께 자라나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세상의 악을 모두 없애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은 교리와 성약 86편을 통해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의미를 알려 주셨으며(마태복음 13:24~30, 36~43 참조) 질문에 대한 해답의 통찰력을 주시었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86편

- | | | |
|--|-------|---|
| [Parable] 비유(1절) — 교훈이나 도덕을 가르치는 짧은 이야기 | | [Reap down] 추수하도록(5절) — 베어 거둬들이다 |
| [Sowers, soweth] 씨를 뿌리는 자(2~3절) — 씨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다 | | [Heir] 상속자(9절) — 권리에 의해 은사나 축복을 받는 자, 상속자 |
| [Tares] 가라지(3절, 6~7절) — 잡초 | | |

교리와 성약 86:5 — 거둬들이 준비가 된 천사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1894년 성전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여려 해 동안 멸망의 천사를 붙들어 두셔서 그들이 가라지와 함께 밀을 거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그 천사들이 하늘 문을 떠나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임하여, 지상에 심판이 내려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들은 이 지상에 내려질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재난과 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곧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무를 다하고, 제가 저의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며, 환난을 화평과 안전 가운데서 헤쳐 나갈 것입니다.” (Susa Young Gates, “The Temple Workers’ Excursion,” *The Young Woman’s Journal*, 1894년 8월, 512~513에서 인용)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86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 중 한 가지를 한다.

가 비유를 해석함

1. 마태복음 13장 24~30, 36~43절을 읽는다. 교리와 성약 86편을 통하여 밀과 가라지에 대해 추가로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가?
2. 이 비유는 신약 시대보다 우리 시대에 더 잘 적용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 메시지를 적용함

1.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의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겪었거나 다른 청소년이 겪었을 수도 있는 경험을 적는다.
2. 교리와 성약 86편 8~11절의 메시지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리와 성약 87편

전쟁의 예언

교리와 성약 87편에는 1860년에 시작된 미국 남북 전쟁에 관한 예언이 실려 있다. 전쟁이 일어나기 약 30년 전에 예언이 기록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예언의 내용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예언은 남북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언은 후일의 백성에게 주는, 혼란스럽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87편

[Terminate] 끝나게(1절) — 끝내다, 마치다	...	[Consumption decreed] 선포하신 소멸(6절) —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심판의 최고 분량
[Marshaled, marshal] 대열을 지어(4~5절) — 조직하다	...	[Lord of Sabaoth] 사바오스의 주님(7절) — 만군의 주님; 사바오스는 히브리어로 “만군” 또는 모든 백성을 의미하며, 때로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가리킨다. (또한 교리와 성약 95편 7절 참조)
[Remnants] 남은 자들(5절) — 나머지 사람들, 남은 부분	...	[To be avenged] 원수에게 복수해 주심(7절) — 잘못된 것을 바로 잡다
[Vex] 괴롭게 하리라(5절) — 불안하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	
[Indignation] 진노(6절) — 노여움, 불쾌함	...	
[Chastening] 징계(6절) —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	...	

교리와 성약 87:1 — 남 캐롤라이나의 반란

1832년에 미국의 남 캐롤라이나 주는 유럽에서 들어온 상품에 대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였다. 미국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대응조치로 연방군을 동원하여 남 캐롤라이나의 반란을 종식시키려 했다. 남 캐롤라이나 주가 한 발 물러서자 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예언을 고수하였다. (교리와 성약 130:12~13 참조)

조셉 스미스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28년이 지난 후, 남 캐롤라이나는 다시 미국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 나중에 미국 남부의 여러 주들이 이에 합세하였으며, 그 결과 일어난 전쟁이 바로, 예언한 바와 같이, 남북 전쟁이었다.

교리와 성약 87:3 — 남부 제주, 대영 제국 및 세계 전쟁

교리와 성약 87편 3절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상의 것을 언급하고 있다. 남부 제주는 대영 제국과 기타 여러 나라들에 요청하여 남북전쟁에서 그들을 돕게 하였다. 3절에서 예언된 바와 같이, 대영 제국과 기타 여러 나라들은 그 밖의

다른 나라에게, 그들이 적과 벌이고 있는 전쟁에서 그들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은 1, 2차 세계 대전이 되었다.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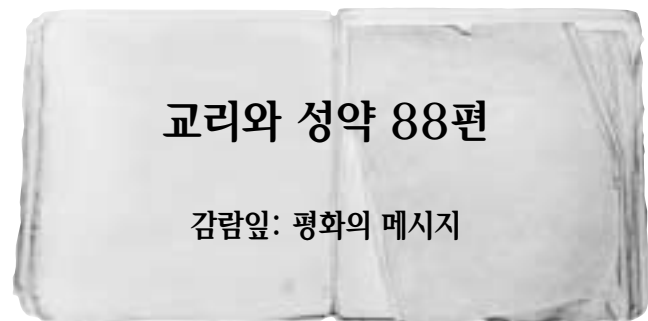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87편을 읽으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가 예를 든다

교리와 성약 87편에서 예언이 성취된 예를 최소한 두 가지 노트에 적는다.

나 여러분의 생각을 말한다

교리와 성약에서 오늘날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88편

감람잎: 평화의 메시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에 부딪히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로 삶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도록 권유하신다. 교리와 성약 88편에 있는 계시는 이러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평범한 차원을 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핵심이 되는 영광스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계시에는 여러분이 깊이있게 생각해 보도록 권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계시의 연구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영원한 맥락에서 조명해 보는 기회로 삼는다. 교리와 성약 87편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다음에 소개되는 이 메시지는 초기의 성도들에게 반가운 위안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88편

[Alms] 구제(2절) — 헌물, 간청	...	[Bosom] 품(13, 17절) — 가슴, 중심
[Quickeneth, quickened] 살게 하는(11, 17, 26, 28~32, 49절) — 소생시키다, 살게 하다	...	[It] 땅(18~20, 26절) — 땅
[Proceedeth] 나아와(12절) — 가다	...	[The measure of its creation] 창조된 목적(19, 25절) — 땅이 창조된 목적
[Immensity] 광활한(12절) — 넓음, 무한히 넓음	...	[Intent] 목적(20절) — 목적
	...	[Abide] 감당할(22~26, 35, 86절) — 거주하다, 남아 있다.

[Meet] 합당하지(24절) — 자격이 있는, 적합한
 [Bestowed] 주어진(33절) — 받다
 [Preserved] 보전되고(34절) — 구원받다, 보호받다, 방어하다
 [Bounds] 범위(38, 90절) — 한계, 제약
 [Justified] 의롭다 함을 얻지(39절) — 의롭다고 인정 받거나 나무랄 데 없다고 인정 받다
 [Cleaveth] 결합하며(40절) — 결합하다, 다가붙다
 [Execute] 집행하시(40절) —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다, 움직이게 하다.
 [Courses] 진로(43절) — 길, 움직임, 궤도
 [Abound] 번성할(50, 66절) — 양이 많다
 [Countenance] 얼굴(52~53, 56, 58절) — 용모
 [Expedient] 필요한(64~65절, 78, 127절) — 적절한, 바람직한
 [Hasten] 서둘러(73절) — 빨리 앞으로 나아가다
 [Perplexities] 혼란(79절) — 어려운 문제
 [Bind up the law and seal up the testimony] 율법을 싸매며, 증언을 인봉하고(84절) —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

[Desolation of abomination] 가증함의 황폐(85절) —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멸망
 [Indignation] 진노(88절) — 과오에 대해 내려지는 심판 또는 결과
 [Commotion] 동요(91절) — 혼란
 [Abominations] 가증함(94절) — 죄;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고 및 행동
 [Tares] 가라지(94절) — 잡초(교리와 성약 86편 참조)
 [Intent] 의도(109절) — 소망, 목적
 [Solemn] 성(회)(117절) — 진지한, 침울한
 [Salutations] 인사(120, 134, 136절) — 인사
 [Light speeches] 경박한 말(121절) — 가치가 없거나 성스러운 것과 무관한 이야기
 [Impart] 나누어(123절) — 주다, 나누다
 [Invigorated] 활력있게(124절) — 활기를 돋우다, 새롭게 하다
 [Mantle] 외투(125절) — 망토
 [Bond] 띠(125절) — 성약, 약속
 [Distinctly] 명확하게(129절) — 분명하게
 [Give utterance] 말하게 하시(137절) —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영감을 주다
 [Sanctuary] 성막(137절) — 성스러운 곳
 [Commenced] 시작되어(141절) — 시작하다

교리와 성약 88:3 — 다른 보혜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생활하게 되면 주님은 곧 그에게 아들이 네가 높이 들리우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철저히 연단하시며, 그가 만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보혜사가 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에 강림한 성신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앙, 회개,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 성신을 받습니다. ...”

“...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성신(안수례에 의한) 곧 첫번째 보혜사를 받은 후,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향한 충성이 불변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자기의 부름과 택함을 확인하게 되면, 이 때 비로소 그는 두번째 보혜사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자, 이 다른 보혜사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분은 모든 사물의 총체요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 번째 보혜사를 얻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고, 예수께서 때때로 그에게 나타나시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39~140)

교리와 성약 88:6~13 — 그리스도의 빛

모로나이서 7:16, 18~19 참조.

교리와 성약 88:74~86 — 교회의 장로들은 깨끗해야 함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88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위해 부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음의 교리는 물론 여러 나라와 문화를 연구하여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77~80절 참조), 아울러 “너희 손과 너희 발을 깨끗이” (74절)

해야 하고 죄에 “얽매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86절 참조)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권고하였다. “만일 장로님들이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편이 좋습니다. 미주리 강, 미시시피 강, 오하이오 혹은 대서양에 도착한 후에 자신을 청결히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청결히 하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고, 그러한 태도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십시오. 이같이 하여 깨끗한 백지장처럼 다시 청결한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선교사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같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245쪽)

칠십인 정원회의 엘 알든 포터 장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신권 지도자 여러분, 젊은 선교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를 지닌 채로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투구나 칼이나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의 불길에 저항하는 힘을 키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참회자의 마음에 찾아 드는 달콤한 위안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선교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줍시다.”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46쪽)

교리와 성약 88:127 — 선지자 학교

선지자 학교는 교리와 성약에 제시된 권고에 따라 1833년 초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의 목적은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업무를 집행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 후에, 커틀랜드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선지자 학교는 성전 내에서 열리게 되었다. 선지자 학교는 초기 개척자 시절 유타 준주 내에서 불규칙하게 지속되었다. 이 초기의 학교는 영적이고 세속적인 교육의 전통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학원, 대학교,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리와 성약 88:138~141 — “발 씻김의 의식”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유대의 율법에 의한 관습에 따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를 하나의 의식으로 제정하셨다.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3:10 참조) 교리와 성약 88편 138~141절은 선지자 학교에 참여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이 발씻김 의식을 회복했음을 말해 준다. 성도들이 커튼랜드 성전을 짓고 있는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발 씻김 의식이 성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History of the Church, 2:307~310 참조) 발 씻김 의식은 성전에서 받게 될 위대한 일련의 의식 중 하나이며, 이 의식을 통해 이 생애에서 부름 받게 될 일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권능을 부여 받게 된다. 말하자면 최초로 집행한 이 발 씻김 의식이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사업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과 같은 것이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88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아 중 다섯 가지를 한다.

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교리와 성약 88편 6~1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하게 하며, 그가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이 구절을 읽고 구주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알게, 또는 일반적으로 모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나는 점 몇 가지를 적는다. 이 구절이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나는 것들을 포함시킨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가르치는 것을 알고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인가?

나 교리를 설명함

교리와 성약 88편 17~39절에서 배운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해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능력껏 완전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한다.

다 행동과 결과

1. 교리와 성약 88편 62~69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여덟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권고하시는 바를 실천할 경우, 여덟 가지 사항에는 각기 약속된 축복이 따른다. 여러분의 노트에 두 개의 난을 만든 다음 각 난의 제목을 “만일”과 “그렇다면”이라고 붙인다. 제목이 “만일”이라고 된 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권고하신 것을 열거하고, “그렇다면”이라고 된 난에는 각 행동의 결과를 적는다.

2.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권고하신 것 중 두 가지를 고르고, 그분의 권고에 순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는다.

라 선교 사업 준비 계획

1. 교리와 성약 88편 70~86절을 복습하고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상에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적는다.
2. 청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3. 81~86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데 어떤 이유들이 되는가? (에스겔 33:1~9 참조)

마 학교를 구상함

여러분이 젊은 후기 성도들의 인생을 준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시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킬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려는 부탁을 받았다고 가정한다. 교리와 성약 88편 77~80절에서 읽은 것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은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기를 바라는가?

바 사건을 열거한다

교리와 성약 88편 87~116절에서 언급된 것으로 장차 일어날 사건을 열거한다. 사건의 시기를 셋으로 구분하여, 즉 구주의 재림 전, 구주의 재림 시, 그리고 복천년이 끝날 때로 나누어 각 사건을 해당 시기에 적어 넣는다.

사 성구를 적용함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은 성전을 의미하지만, 이 구절은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할 우리 가정의 모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만일 가정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그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어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을 강화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영향력을 끼쳐 주기를 바랄 때,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한다.

아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88:123~124

1. 교리와 성약 88편 123~124절에서 주님께서 권고하신 것을 두 개의 리스트로 분류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당 리스트에 열거한다.
2. 정리한 리스트에서 두 개의 계명을 택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각 사항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를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89편

지혜의 말씀



1833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뉴얼 케이 휘트니 상점에서 살고 있었다. 선지자는 휘트니 상점 이층에 있는 여러 개의 방 중 하나에다 최초의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 (교리와 성약 88편의 계명에 따른 것임) 브리검 영 회장은 당시 선지자 학교의 수강생은 아니었지만,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교리와 성약 89편에 있는 계시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아침을 먹고 이 방에 모이면, 우선 담배 파이프에 불부터 붙였다. 담배를 피우면서, 왕국의 위대한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며 방 여기 저기에 침을 뱉었다. 파이프 담배를 다 피우고 나면 곧바로 씹는 담배를 한 입 물었다. 종종 선지자는 강의를 위해 방에 들어올 때,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선지자의 아내는 더러워진 방을 청소해야 되는 일에 대해 불평했다. 선지자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흡연을 하는 장로들의 행위에 대해 주님께 여쭙었다.” (in Journal of Discourses, 12:158)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이 계시는 선지자가 주님께 여쭙은 결과로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89편 3절에서, 이 계시는 “약속이 따르는 원리”라고 하신 말씀에 유의한다. 89편을 읽을 때,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특별히 주의한다. 오늘날에는 지혜의 말씀에서 주신 권고를 증명하는 의학적 증거가 상당히 많지만, 이 계시를 받던 당시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약속된 영적인 축복에 특히 유의한다. 과학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은 사실이라는 점을 간증할 수 있다. 이 계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89편

- | | | |
|--|-----|---|
| [Constraint] 강제(2절) — 강압 | ... | [Herb] 약초(8, 10~11 절) — 식물 |
| [Conspiring men] 음모를 꾸미는 자들(4절) — 옳지 않거나 불법적인 일을 피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자 | ... | [Hot drink] 뜨거운 음료(9절) — 커피와 차(교리와 성약 89:9의 “경전을 이해함” 편 참조) |
| [Strong drink] 독한 음료(5, 7절) — 알코올성 음료 | ... | |

- | | | |
|------------------------------------|-----|--|
| [Prudence] 신중하게(11절) — 자제, 지나치지 않음 | ... | [Navel] 배꼽(18절) — 체내 장기의 지나치지 않음 |
| [Sparingly] 조금씩(12절) — 이따금, 소량으로 | ... | [Marrow] 골수(18절) — 영양분을 함유한 뼈 속의 내용물(활력과 힘은 상징함) |

교리와 성약 89:2 — “계명이나 강제로 함이 아니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혜의 말씀을 계명이나 강제로 지키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 만일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었더라면, 유해한 물질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죄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사람들을 울퉁 아래 두기 전에 그들에게 극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후에, 브리검 영 회장은 지혜의 말씀은 주님의 계시이며, 계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in Conference Report, 1913년 10월, 14)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교리와 성약 89:9 — “뜨거운 음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형이며, 교회의 축복사이며, 회장 보조인 하이럼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뜨거운 음료는 몸이나 내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음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차나 커피를 일컫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뜨거운 음료란 차와 커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The Word of Wisdom,”

Times and Seasons, 1842년, 6월 1일, 800)

교리와 성약 89:19 — 지혜와 지식의 감추인 보화까지 찾음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의 육체는 마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영과 육이 가장 가까이 되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시에 의해 금지된 차, 커피, 술, 담배와 같은 습관성 물질들은, 다른 습관성의약품이 그러한 것처럼 영적인 교통의 미묘한 느낌을 방해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된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 [교리와 성약 89:19]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건강은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61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89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세 가지를 한다.

가 개념을 설명함

주님은 교리와 성약 89편 3절에서 지혜의 말씀은 “약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능력으로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육체, 정신, 정서, 사회 및 영적인 모든 삶의 분야에서 강건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까닭을 설명한다.

나 증거를 제시함

1. 주님은 교리와 성약 89편 4절에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셨다. 이 성구의 의미를 적는다.
2. 지혜의 말씀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다. 예를 들면, 게시판에 붙어 있는 광고, 잡지, 신문, 또는 텔레비전 광고를 주목한다. 노트에 이러한 광고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광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광고가 말해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광고들은 어떤 방법으로 4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가?
3. 다음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한다.
 - a. 왜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금하고 있는 물질들을 취하도록 권하는가?
 - b. 왜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다 목록을 만든다



1. 주님은 교리와 성약 89편 5~17절에서 몇 가지 유해한 물질과 몇 가지 유익한 음식을 알려 주셨다. 노트에 두 개의 난을 만들고, 하나에는 “유해한 물질”이라는 제목을 쓰고, 다른 것에는 “유익한 물질”이라고 쓴다. 목록을 작성한 후, 주님께서 물질의 용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적는다.
2.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과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모두 열거하시지는 않았다. 우리는 상식과, 교회의 지역 지도자 및 총관리 역원의 권고와, 영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회원들이 편지를 보내 이것 또는 저것이 지혜의 말씀에 위배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차, 커피, 술, 담배가 지혜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약속된 축복이 따르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계시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이 마시거나 씹거나 들이쉬거나 체내로 주입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습관성 물질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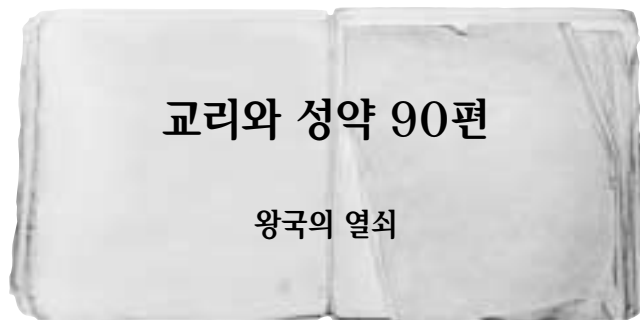
“해로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소는 분명 해로운 것이지만 습관성 물질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명을 받아야 하는 자는 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중 (교리와 성약 58:26)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17~18쪽)

지혜의 말씀에 대한 팩커 회장의 말씀과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목록에 추가시킨다.

라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89:18~21

1. 교리와 성약 89편 12~21절에 명시된 축복으로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열거한다.
2. 청소년들에게 지혜의 말씀에 대해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한 축복에 대해 어떤 예를 들 것인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하나님 왕국의 열쇠는 “제일회장단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지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주님의 일을 통할하고 지휘하는 권세이며 권위입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신권을 소유하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통할하고 조절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성도의 빛, 1973년 3월호, 18쪽)라고 가르쳤다. 교리와 성약 90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신권의 열쇠에 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말씀한 것에 유의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90편

[Petition] 간구(1절) — 요청, 부탁
 [Oracles] 말씀(4~5절) —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Accounted as a light thing] 가벼운 것으로 여김(5절) — 하찮은 것으로 여기다
 [Heathen] 이방(10절) — 복음이나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
 [Confounded] 수치스러워(17절) — 침묵시키다, 모욕을 당하다
 [High-mindedness] 거만함(17절) —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함

[Snare] 올무(17절) — 숨겨진 덫
 [Slothfulness] 게으름(18절) — 태만
 [Discharge] 변제(23절) — 갚다
 [Disrepute] 악평(23절) — 좋지 않은 평판
 [Hindered] 방해(27절) — 저지를 받다
 [Contend] 다투며(36절) — 논외하다, 논쟁하다
 [Chasten] 징계하리라(36절) — 처벌하다, 징계하다

교리와 성약 90:3 — 왕국의 열쇠는 선지자 조셉에게서 결코 빼앗아가지 않음

주님께서서는 교리와 성약 90편 3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가 죽은 후에도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조지 큐 케는 회장은 브리검 영 회장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말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에서 가장 선두의 자리에 서 있으며, 조셉이 열쇠를 갖고 있고, 비록 조셉 스미스는 장막 지편으로 갔지만, 브리검 영 자신은 조셉 스미스에게 종속된 열쇠를 지녔다.” 존 테일러 회장도 “같은 교리를 가르쳤으며 여러분은 성신권의 반차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사도나 종으로부터 다른 교리를 결코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케는 회장은 이어서 말했다. (*Gospel Truth*, 1:255)

교리와 성약 90:6 — 제일회장단의 보좌들은 “동등하게 헤아림을 받으며”

제일회장단은 교회의 최고의 정원회이며, 교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일회장단의 보좌들은 회장이 친히 일을 처리하듯 회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봉사하며 그의 지시와 동의가 있어야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간증했다. “십이사도는 제일회장단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며, ... 내가 [교회의 회장] 없는 곳에서 십이사도를 관장할 제일회장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98~99쪽) 다시 말하자면 회장이 사망할 경우, 제일회장단의 보좌들은 교회를 더 이상 감리할 수 없게 된다.

교리와 성약 90:13 — “글 번역하기”

교리와 성약 90편 13절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번역을 하고 있던 킹 제임스 판 성경의 영감역(조셉 스미스 역)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교리와 성약 90:28~31 — 비에나 잭스

주님께서서는 비에나 잭스 자매에게 시온 땅에 올라가 상속을 받으라고 권유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녀가 이주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침례를 받은 후에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였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 이 계시에 따라, 그녀는 미주리 주 잭슨 군으로 가서 토지를 받았으나 박해로 인하여 부득이 그 곳을 떠나 북부 미주리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남모르게 많은 봉사를 한 참되고 충실한 회원이었다. 60살의 나이로, 마차를 몰고 대평원을 횡단하여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갔으며, 96세에 사망했다. 그녀에 대한 사망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성약에 참되었으며, 복음의 회복을 값진 보배라고 칭송하였다.” (*In Memoriam: Vienna Jaques*, *Woman's Exponent*, 1884년 3월 1일, 152)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90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왕국의 열쇠

1. 교리와 성약 90편 1~6절 의하면, 어떤 열쇠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졌는가?
2. 그 밖에 누가 이 권능을 받았는가?
3. 오늘날 이러한 열쇠를 지닌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4. 5절에서 가르친 중요한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나 자연스러운 말로



1. 교리와 성약 90편 4~5절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를 적는다.
2.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볍게 여기지 않음으로 해서, 어쩌면 어려울 수 있었던 시기에 오히려 강해질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해 적는다. 자신에게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가족이나 교회 지도자 혹은 친구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그것을 여러분의 노트에 요약한다.

다 의무와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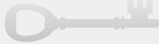
1. 교리와 성약 90편 13~18절에 의하면, 제일회장단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2. 제일회장단의 의무와 책임 중 어떤 것이 청년반 회장이나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91편

외경

일부 성경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말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책들이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경전으로서의 참됨과 정확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경을 번역하다가, 외경을 번역하여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교리와 성약 91편은 그의 간구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여러분이 외경을 읽는다면,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권고의 말씀 또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타 양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91편

[Interpolations] 가필(2절) — 원서에 : [Manifesteth] 나타내 줌이나라(4절) —
없는 추가 사항 : 알려지게 하다

교리와 성약 91편 — 외경

외경은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 기록을 모은 것이다. 외경은 당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경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구주께서 성역을 베풀던 때에는 희랍어로 된 경전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의 저자가 누구이며, 그것들이 영감 받은 기록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많았다. 외경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기간 사이에 유대 백성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91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친구의 질문에 답변한다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친구에게 성경을 보여 준다고 가정한다. 여러분의 친구는 성경에 뭔가 빠져있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다.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91편에서 배운 것을 이용하여 친구의 질문에 답변한다.

나 비교한다

1.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91편을 통해, 외경에서 진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 이 권고의 말씀은 경전에 관련된 성서 이외의 책, 이를테면 교과서와 같은 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92편

가입함

교리와 성약에 있는 일부 계시는 교회 역사의 특정 시기에 해당되는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사항인 듯 하다. 그러한 계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계시에서는 일반적인 원리들이 가르쳐지고 있으며, 여러 다른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매우 짧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된 계시인 교리와 성약 92편을 읽으면서, 이를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92편

[Lively] 활동적인(2절) —
적극적인,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교리와 성약 92:1 — 협동 교단

교리와 성약 92편 1절에 있는 “협동 교단”이라는 용어는 주님께서 교회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하도록 부르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말한다. (교리와 성약 82:11~19 참조) 이 사람들은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며, 교회가 채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을 성약하였다. 이 단체는 그들의 회의 기록 일부에서 “협동 교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들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 교단(교리와 성약 여러 편에서 교단의 얘기가 나옴)에 주신 지시는 헌납의 법과 이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92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보좌로 최근에 부름 받은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교리와 성약 90:6 참조)를 교단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명하셨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92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실례를 든다



다음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몇 가지 기회를 예로 든 것이다. 아래에 예로 든, 각기 봉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92편 2절에서 권고하신 바와 같이 교단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실례를 든다.

1. 7세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
2. 가정 복음 교사의 후임 동반자

3. 꿀벌반 반장
4. 와드 청소년 봉사 위원회 위원
5. 연로하신 부부의 이웃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93편의 계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시를 기록하기 전에, 그 날에 대해 다만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다음 계시를 받았다.” (History of the Church, 1:343) 그러나 19절을 보면 계시의 목적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다. 이 계시를 통해 예배를 하는 방법과 예배하여야 할 대상에 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배란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며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더욱 하나님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인간이 경배하는 대상의 가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냐에 따라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예배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척도이다.” (신앙개조, 354~355쪽) 교리와 성약 93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과 그분들을 닮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93편을 깊이 생각해 본다. 이는 이 계시에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가장

유식하고 영적인 자와도 겨룰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93

[Forsaketh] 버리고(1절) — 회개하다, 포기하고 결코 다시 행하지 않다.
 [Tabernacle] 성막(4, 35절) — 거처 단위
 [Grace] 은혜(11~13, 20절) — 우리가 영생과 승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
 [Begotten through me] 나를 통하여 태어난(22절) —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다
 [Sphere] 영역(30절) — 제한된 공간
 [Element] 원소(33절) — 물질의 기본 단위
 [Rebuke] 꾸짖음을 받아야(47절) — 시정하다, 응징하다
 [Consent] 합심하여(51절) — 의견 일치
 [Confounded] 수치를 당하지(52절) — 굴욕을 당하게 하다

교리와 성약 93:6~18 — 요한의 기록

교리와 성약 93편에서 언급한 요한의 기록은 침례 요한이 기록한 기록을 말한다. 침례 요한의 완전한 기록은 아직 계시로 전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 기록을 신약에 나오는 계시자요 사도인 요한의 기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Neal A. Maxwell, “Not My Will, But Thine” [1988], 44쪽 참조)

교리와 성약 93:11~17 —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음”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께서 구유에 갇난 아기로 누워 계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전에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 그분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며, 자라는 동안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가졌던 영광과 권세를 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01년, 4월, 3쪽)

교리와 성약 93:12~13, 19~20 — “은혜로 은혜를 받으시더라” 그리고 “은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니”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교리와 성약 93편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은혜를” 받으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분은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도움과 영적인 은혜를 받으셨다. 13절은 예수께서 “은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시더라”고 가르친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오르는 데 필요한 도움과, 힘과, 권세를 받으면서 진보하셨으며, 마침내는 충만함을 받으셨다. 우리가 계명에 늘 충실하고 순종할 때, 우리 역시 “은혜로 은혜를 받게 되고”(20절) “또 때가 되면 그의 충만함을 받게”(19절)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93:21~23, 25, 29, 38절 — “태초에”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으며,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다. 교리와 성약 93편에 있는 “태초에” 또는 “태초부터”라는 구절은 필멸의 경험에 관련된 일들이 처음 있게 된 시기를 말하며, 바로 그 시기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 있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발표하셨다.

교리와 성약 93:40~50 —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교리와 성약 93편 36~39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빛과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들이 상실되거나 빼앗기게 되는지를 가르치셨다. 그분은 40절에서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고 명하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으며 후에 제일회장단의 보좌가 된 메리온 지 롬니 장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 자신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전체 문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 실패는 홍수를 불러들인 사악함을 낳았으며, 고대 이스라엘을 몰락케 하고, 물론경 백성들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하였다. (in Conference Report, 1969년 4월, 108~109쪽)



해롤드 비 리 회장은 교회 신권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고 오늘 대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했던, 가장으로서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아내를 소홀히 하셔서 안 됩니다. 자녀를 소홀히 하셔서도 안 됩니다. 자녀를

여러분 주위로 끌어 오십시오.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정의 힘과 결속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를 지킬진대 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그 힘에서나 영향력 면에서나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3년 12월호, 34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권고하였다. “부모 여러분,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빛과 진리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 붓되 지나쳐 망치지는 마십시오. 그들과 간증을 나누십시오.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 더 큰 책임과 축복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리야호나, 1999년 7월호, 105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93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는가?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93편 19절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충만함, 즉 승영(교리와 성약 132:6, 19~20절 참조)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며 너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알게” 하려고 이 말씀[1~18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학습 지도서에서 교리와 성약 93편을 소개할 때 언급한 예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다시 복습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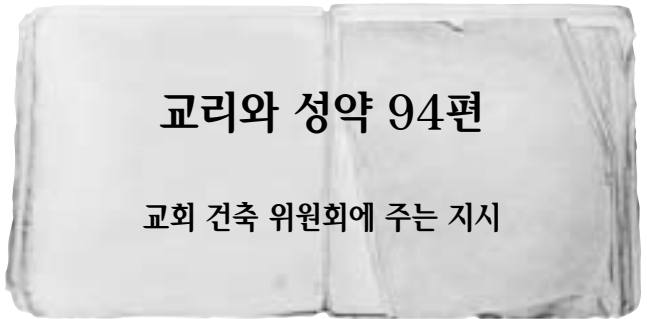
1. 노트에 두 개의 난을 만들고 각 난의 제목을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하는 대상”이라고 적는다. 해당 난 밑에다 교리와 성약 93편 1~18절에서 배운 것을 적는다. 각 진리로부터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의 대상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설명한다.
2. 배운 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나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리일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것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93편 20, 26~28, 36~39절을 공부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중요성에 대해 이 구절들이 가르치는 바를 적는다.

다 “나는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1.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93편 40~50절에서, 제일회장단의 세 사람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감독에게 하신 권고의 말씀을 요약한다.
2. 주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가족에 대해 권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성구를 통해 주신 권고의 말씀에 따라 가족을 부양해야 할 부모라면, 여러분이 행하려고 계획하는 세 가지 일을 적는다. (또한 교리와 성약 93편 40~50절을 위한 “경전을 공부함” 편 참조)



교리와 성약 94편

교회 건축 위원회에 주는 지시

현재 교회는 전 세계에서 와드 및 스테이크, 집회소 및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등 많은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94편의 계시를 받았던 당시에 성도들은 아무런 건물도 짓지 않았었다. 주님께서 건물 한 채, 즉 커틀랜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셨으나 회원들은 이에 착수도 하지 못했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 교회가 두 채의 건물을 더 지어야 한다고 명하셨다. 여러분은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건물 두 채와 성전을 짓도록 명하신 것이 하나님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94편

[Commence] 시작하여(1절) — : [Court] 집(4~5, 11절) — 회의장 착수하다

경전을 공부합



교리와 성약 94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건축과 우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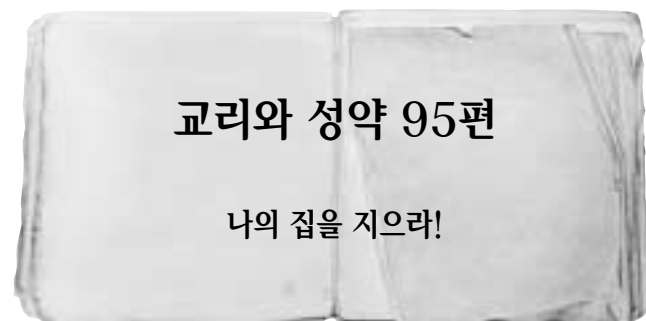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에 짓도록 명하신 최초의 세 건물을 열거하고(교리와 성약 94:1, 3, 10절 참조) 각 건물의 목적을 설명한다.

나 원리를 적용함

모든 교회 건물은 관능을 지닌 사람들이 지명한 신권 지도자의 기도로 헌납된다. 교리와 성약 94편 8~9, 12절을 읽고 주님께서 헌납된 건물에 대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오늘날 이 원리가 우리의 교회 건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초기 커틀랜드 이정표



왜 사람들은 때때로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가?

주님께서 커틀랜드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신 지 거의 6개월이 지났지만 건축일은 착수되지 않았다. 교리와 성약 95편은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지체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편을 통해서 계으름의 결과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이유와 방법도 알게 된다.

우리는 모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이 계시를 받던 당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브리검 영 회장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계시가 없었더라면, 조셉은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명 받은 바를 알 수 없었을 것이며, 계명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동원할 인원도 부족하고, 신앙도 약하며, 재정적으로도 너무 빈약한 상황에서 것처럼 엄청난 사업을 시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이 있었기에, 충분한 우유를 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공기를 마시면서, 부족한 옥수수나 우유에 의지하여 살았으며, 소금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조셉은 손으로 돌을 깨며 채석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당시에 적은 수의 회원은 필요할 때면 어디서나 조셉이 보여 준 순종과 근면의 모범을 좇아 일했으며, 일꾼들은 폭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손에는 검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돌을 놓고 흉손을 움직이며, 우리가 지상에 기록을 남긴 주님의 두 번째의 집인 커틀랜드 성전을 완공하여 헌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iscourses of Brigham Young, 415)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95편

- [Chasten] 징계하니(1~2, 10절) — : [Grievous] 심히 무거운(3, 6, 10절) 징계하다. 별하다 : — 심각한
- [Rebuked] 책망을 받아야(2절) — : [Endow] 부여하려고(8절) — 영적인 시정을 받다 : 은사를 주다, 축복하다

교리와 성약 95:4 — “비상한 일”

“비상한 일”이란 구절은 이사야 28장 21절에서 인용된 것이며,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회개의 필요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메시지는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더군다나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계시와 하늘에 거하는 존재들의 방문과 기타 영적인 일들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교리와 성약 95:14 — 주님은 세 사람에게 건축 계획을 보여 주셨음

제일회장단의 구성원들은 주님께서 커틀랜드 성전의 건축 계획을 보여 주신 바로 그 세 사람이다. 성전 설계자인 트루만 오 앵겔은 이렇게 보고하였다. “스미스 회장의 보좌 중 한 사람인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는 성전을 방문하여 제가 있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목수인 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성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볼 때 건축 계획을 그대로 따른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끝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셉은 두 명의 보좌인 윌리엄스와 리그돈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지어야 할 성전의 건축 계획과 모델을 보여 주시려 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볼 수 있는 거리에 건물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최초로 그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건물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외양을 잘 본 후에 건물은 바로 우리 위에 다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홀의 모습은 제가 세부도에서 본 것과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in Marvin E. Smith, “The Builder,” *Improvement Era*, 1942년 10월, 630)



커틀랜드 성전

교리와 성약 95:16~17 — 커틀랜드 성전의 목적

커틀랜드 성전의 주요 목적은 주님께서 오늘날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권의 열쇠를 회복할 수 있는 장소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성전은 집회소와 학교로 쓰이기도 하였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95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흔히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는 징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종종 불쾌하게 여기거나 화를 내도록 유혹을 받는다. 교리와 성약 95편 1~2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 주님을 거슬리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1. 교리와 성약 95편 3, 6, 10절에서 “심히 무거운 죄”란 말을 찾아본다. 교회 회원이 범한 것으로 주님을 불쾌하게 한 죄 세 가지를 열거한다.
2. 4~8절 및 11~12절에 의하면, 이러한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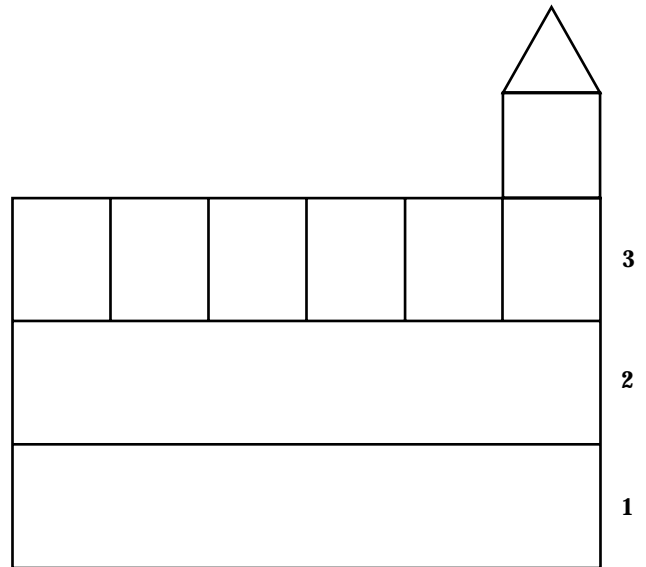
3. 13~14절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태만히 한 것과, 그것과 관련하여 회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무어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그림이나 도표를 그린다

교리와 성약 95편 12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생각한다. (또한 니파이후서 7장 10~11절도 참조한다) 원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나 도표를 그린다.

라) 도면에 이름을 붙인다

아래에 제시한 것처럼 노트에 커틀랜드 성전의 도면을 간단하게 그린다. 교리와 성약 95편 13~17절에서 읽은 것을 이용하여 성전의 각 부분에 이름을 붙이고 각 층 또는 방의 목적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한다.



교리와 성약 96편

커틀랜드의 토지를 분배함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성전을 짓고 주님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교회는 피터 프렌치라는 사람으로부터 103에이커 정도 되는 농장을 매입하였다. (“경전을 이해함” 편의 도표 참조) 매입한 농장에는 여인숙과 호텔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었다. (교리와 성약 96편 9절에 언급된 집을 말함)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토지를 분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었으므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 여쭙었다. 교리와 성약 96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 권고를 주실 때, 그 말씀은 그분의 사업에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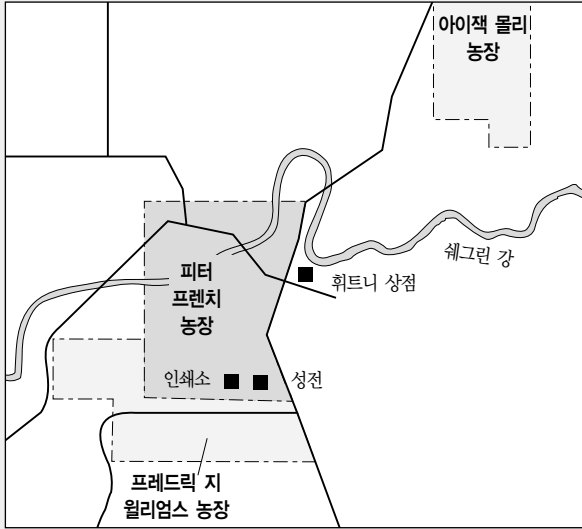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96편

[Expedient] 필요함, 필요한(1, 5~6, 8절) — 적절한, 바람직한
 [Subduing] 제어할(5절) — 겸손하게 함, 부드럽거나 말을 잘 듣게 함
 [Mine order, the order] 나의 교단(4, 8절) — 협동 교단(교리와 성약 92편 1절의 “경전을 이해함” 편 참조, 105쪽)
 [Incumbrances] 저당권(9절) — 빚

교리와 성약 96편 머리글 — 프렌치 농장



교리와 성약 96:2 — 뉴얼 케이 휘트니는 토지에 대한 책임을 짐

뉴얼 케이 휘트니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의 감독이었다. 앞서 계시된 바와 같이(교리와 성약 42:51; 72 참조) 감독은 교회의 세속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성전을 짓게 될 토지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 지침서에는 종종 교회를 관리할 때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실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교리와 성약 96:6~9 — 존 존슨

존 존슨은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 살고 있을 때, 처음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만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선지자 조셉과 그의 가족은 한 동안 존슨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교리와 성약 76편에 있는 계시를 받은 곳은 바로 존슨의 집이었다. 주님께서서는 교리와 성약 96편에서 존슨 형제에게 피터 프렌치 호텔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교회의 인쇄 업무를 시작하라는 임무를 주셨다. 협동 교단이 해체되자 호텔은 존슨 형제에게 넘겨졌으며, “존슨 여관”으로 알려졌다.



존슨 여관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96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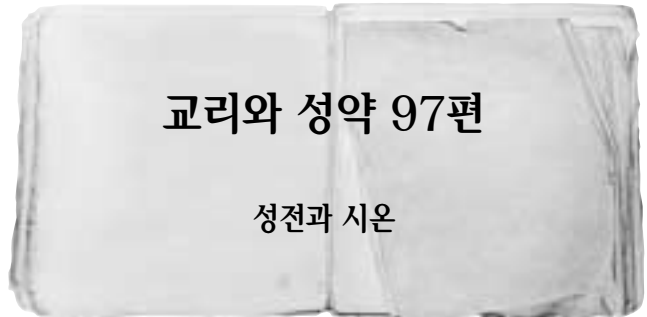
가 무엇과 왜

주님은 교리와 성약 96편 1절에서 커틀랜드에 있는 스테이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1. 교리와 성약 96편에 있는 주님의 권고를 근거로 하여, 어떻게 하면 커틀랜드 스테이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여러분이 열거한 각 제안에 대해, 왜 그것이 스테이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유의한다.

나 경전의 가치

1. 교리와 성약 96편 5절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2. 경전을 이용하여 경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찾아본다. 노트에 경전이 미치는 영향과 참고 성구를 적는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리와 성약 96편 5절 옆에 참고 성구를 적는다.



교리와 성약 97편

성전과 시온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여 배운 바와 같이 후일에 복음을 회복한 한 가지 목적은 시온, 즉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면전에서 살도록 준비된 청결한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97편에서, 시온에 관해, 특히 시온이 “번성하며, 퍼져서 심히 영화롭고”(18절)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해 보다 많은 말씀을 하셨다. 이 계시는 오늘날 우리가 시온 건설을 추구하고 세울 때 우리에게도 적용되므로, 주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 가르치신 바를 신중하게 생각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97편

[Subjected to] 받고(머리글) — 겪게 되다
 [Severe] 심한(머리글) — 매우 어려운 또는 심한
 [Abide in me] 내 안에 거함(3절) — 나에게 계속해서 순종하다
 [Multiplicity] 많은(5, 28절) — 다수의
 [Residue] 나머지(6절) — 나머지, 남아있는 수
 [Yieldeth] 맺게(9절) — 생산하다
 [House] 집(10, 12, 15절) — 성전

[Defiled] 더럽혀지지(15, 17절) —
 청결치 못하게 하다
 [Terrible] 두렵게(18절) — 적에게
 끔찍한, 무서운
 [Vengeance] 앙갚음(22, 26절) —
 사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

[Scourge] 징벌(23절) — 처벌
 [Vex] 괴롭히리니(23절) — 저해하다,
 괴롭히다
 [Stayed] 멈추지(23절) — 억제하다
 [Indignation] 분노(24절) — 불쾌,
 진노

교리와 성약 97:3~6 — 시온에 있는 학교

팔리 피 프렛은 시온에 있는 학교를 감리하였다. 학교의 이름은 장로 학교라 하였고, 학생은 60명 정도가 되었으며, 학생들은 일 주일에 한번 옥외에서 공부를 하였다. 이 학교에서 수많은 위대하고도 기이한 일들이 나타났으며,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97:21 — “시온은 이것이니 — 마음이 청결한 자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의 옷이 깨끗하게 씻겨진, 성결케 된 자들로 구성됩니다. (앨마서 13:11 참조) 이들은 자비로운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116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97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정의 내리기

주님은 교리와 성약 97편 2절에서 온유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다. 온유함의 의미에 대한 실마리는 1절의 끝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기 성도 경전의 학습 보조 자료들을 사용하여 온유함에 대한 성구를 추가로 찾아본다. 그런 다음 온유함의 의미를 적고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은 이유를 최소한 두 가지 정도 열거한다.

나 주님께 용납된 자

친구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본다. “저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방법이 주님께 용납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리와 성약 97편 8~9절을 설명하여 질문에 답한다.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노트에 적는다.

다 질문을 적음

주님은 교리와 성약 97편 10~19절에서 시온(미주리 주)에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셨다. 이 성구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이용하여 성전에 관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최소한 네 가지를 적는다. 이 원리들은 우리의 시대의 성전 건축에도 적용된다.

라 성전 추천서를 발급하는 이유

교리와 성약 97편 15~17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왜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의식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되는가?
2. 왜 우리는 성전에 참여하기 위한 합당성에 관해 정직해야 하는가?

교리와 성약 98편

핍박에 대한 대응



1833년 7월 20일에 몰몬에 대적하는 폭도가 교회 인쇄소로 사용되고 있던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의 집을 습격했다. 폭도들은 인쇄기와 완성 직전에 있던 계명의 책 대부분을 파괴하고 가구를 거리에 내던지며 건물 대부분을 헐어 버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에드워드 파트리치 감독과 찰스 앨런을 감금하고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부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을 떠나든지 할 것을 요구하였다. 두 사람이 이를 거부하자 폭도들은 두 사람의 몸에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붙였다.

3일 후에 폭도들은 다시 돌아와 교회 회원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집과 사업체를 파괴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폭도들이 나머지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두겠다고 약속한다면 생명을 내어 놓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묵살되었다. 대신, 폭도들은 강제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1월까지 미주리 주 잭슨군을 떠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케 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올리버 카우드리를 보냈다. 카우드리 형제가 도착하기 전에 선지자는 교리와 성약 98편의 계시를 받았으며, 이 내용을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다.

교회 성도들의 기분을 상하게 본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지도 모른다. 왜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이런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면 복수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교리와 성약 98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핍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 계시가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한편,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98편

[Inclination] 하고자 하는 마음(머리글) — 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런 감정	[Detestable] 혐오스러운(20절) — 사악한, 주님께 거스리는
[Retaliation] 보복(머리글) — 그릇된 행위에 대해 옳지 못한 행동으로 되 갚음	[Reville] 욕하거나(23, 25절) — 중상하다, 욕설을 하다
[Immutable] 불변하는(3절) — 변경할 수 없음	[Accounted unto you] 헤아려 준(24절) — 간주되다
[Justifiable]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5절) — 용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옹호할 수 있는	[Metered out as a just measure unto you] 공정한 분량으로 너희에게 (24절) — 마땅히 받아야 할 것
[Cleave] 붙들며(11절) — 붙들다, 매달리다	[Ancients] 옛 백성(33절) —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Precept] 교훈(12절) — 계명, 지시	[Vengeance] 보복(28, 48절) — 정당한 벌
[Abide in] 거하려(15절) — 지키다, 순종하다	[Avenged, avenge] 원수를 갚되(37, 45절) — 정당한 벌을 집행하다
[Renounce] 거부하고(16절) — 거절하다	

교리와 성약 98:16 —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선포하며”

제일회장단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교리와 성약 98편 16절을 인용하여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와 같이 교회는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또 마땅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전에는 교회 자체가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쟁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의로운 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은 국가간의 합의와 평화적인 교섭과 조정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은 교회가 통제하지 못하는 주권 국가들의 시민 또는 국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헌법인 그 법을 옹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98편 4~7절을 인용한 것임]

“용어 자체로 보면, 이 얘기는 특히 미국 땅에 관계되는 말씀을 계시로 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전달된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특별히 ‘너(조셉 스미스)와 나의 교회 형제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에 따른 입헌 국가의 법률이 교회 남성에게 충성을 받쳐야 하는 그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도록 요구한다면, 고귀한 시민의 의무에 따라 그들은 마땅히 군복무의 부름에 따라야 합니다.” (in Conference Report, 1942년 4월, 94)

교리와 성약 98:23 — “끈기 있게 참고”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은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98편의 후반부에서 주신 권고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다 감독은 폭도들이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찢던 당시 미주리 주 잭슨 군의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박해를 체험과 온유함으로 참아내자, 폭도들은 이에 놀라 나를 조용히 놓아 준 것 같았다.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내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동정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듯 했다. 나 자신에 관해 말한다면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쳤으며, 나는 박해자와 기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증오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 (in History of the Church, 1:391)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98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쉽지 않음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98편을 통해 미주리 주에서 핍박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은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는 실행하기 쉬운 대응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1. 핍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난 미주리 주의 성도들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교리와 성약 98편 1~3절에 있는 권고의 말씀에서 어떤 것이 어려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혹은 다른 사람이 환난을 겪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말라,” “마음에 위로를 얻으라,” “참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고, 또는 후에 이 환난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던 일을 체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는다.

나) 권고를 한다

교회의 어떤 개종자가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였다 가정한다. 교리와 성약 98편 4~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하여,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어떤 견해를 설명해 줄 것인가? 적어도 세 가지 견해를 적고, 각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을 적는다.

다) 계명과 약속

1. 노트에 두 개의 난을 만들고 “계명”과 “약속”이라는 제목을 붙인다. 해당 난에 교리와 성약 98편 11~18절에서 찾은 계명과 약속을 열거한다.
2. 여러분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 미주리 주에 살고 있었다면, 이들 계명과 약속 중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99편

존 머독에게 주신 선교사 부름



존 머독(1792~1871)과 그의 가족은 1830년 가을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를 지나갔을 때 교회에 입교하였다. 1831년 5월 1일, 그들이 오렌지 마을에 살던 중 아내인 주리아는 쌍둥이를 낳다가 죽었다. 전 날인 4월 30일 커틀랜드로부터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에머 스미스도 쌍둥이를 낳았으나, 둘 다 죽었다. 머독 형제는 엄마가 없는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에머 스미스로 하여금 자신의 쌍둥이인 주리아와 조셉을 양자로 삼게 하였다. 아기 조셉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몸에 타르를 칠하고 깃털이 꽂히던 날 밤에 겪은 추위로 인해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교리와 성약 99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머독 형제에게 요구한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오늘날 선교사들에게는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희생은 주님께서 머독 형제에게 요구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존 머독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평생 동안 기타 여러 가지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교회에 충실하였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99편

교리와 성약 99:4 — “네 발을 깨끗이 하라”

교리와 성약 24편 15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36쪽) 참조

교리와 성약 99:6 —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네 자녀에게 의복과 식량을 마련하여 주어

“1832년에 존 머독은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세 명의 자녀들을 미주리 주에 있는 파트리지 감독에게 보냈다. 조셉 [스미스]가 주리아를 말았으나, 주리아의 쌍둥이 오빠인 (조셉)은 1832년 3월에 하이럼 시에서 당한 펄박으로 사망하였다. 머독 형제는 가진 재산을 팔아 생긴 수익금의 일부를 아이들의 부양을 위해 미주리 주의 파트리지 감독에게 보냈으며, 감독은 그 중 일부를 조셉 형제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복음을 전도하러 나갈 준비가 되었다.” (Andrew Jenson, *Latter-Day Saints Biographical Encyclopedia*, 4 vols. [1901~1936], 2:363)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아버지 조지 티 벤슨이 아내와 일곱 자녀들을 거느린 가장으로 있으면서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거실의 낡은 소파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부친께서 선교사 부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선교사로 나가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기쁘다. 우리가 슬픈 것은 이 선교 사업이 이 년 동안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부친께서는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당시에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이런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큰 신앙의 증거였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60쪽)



교회는 오늘날 남성들에게 아내와 자녀를 두고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부모들이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가족을 남겨둔 채 주님을 위해 봉사할 경우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 회원들은 이전 세대들이 누린 것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99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활동 나와 다를 한다.

가) 점견을 한다

선교사나 귀환 선교사에게 교리와 성약 99편 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대답을 적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2절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나) 확실한 이해를 위해 기타 경전을 사용함

주님은 교리와 성약 99편 3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종을 “어린 아이와같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모사이아서 3장 19절을 읽고 이 성구가 어린 아이 같이 받아 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어떻게 분명하게 해 주는지 설명한다.

다) 머독의 경우를 오늘날에 적용함

1. 주님은 존 머독에게 가족을 떠나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요구하셨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봉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2. 머독 형제가 이런 희생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날 선교사들은 왜 이런 희생을 하고 있는가?

교리와 성약 100편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 선교 사업에 관한 권고

선교사가 가정, 가족 및 친구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의 경우도 다른 선교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0편에서 그들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00

[Effectual] 효과적인(3절) — 생산적인 : [Solemnity] 엄숙한 마음(7절) — 품위
 [Confounded] 부끄러움을 당하지(5절) : 있고 진지한 태도를 지님
 — 수치를 느끼게 하여 침묵을 시키다, : [Expounding] 해석함(11절) —
 굴욕을 느끼게 하다 : 설명함, 가르침

교리와 성약 100:3 — “효과적인 문이 열리리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단기간 선교 활동을 하여 얻은 결과는 “조셉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다님으로써 현재의 선교 사업에 상당한 열의를 갖게 하였다.” (Church History in the Fullness of Times, 117)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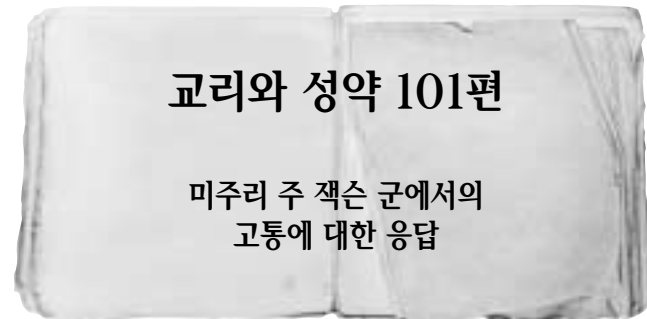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00편을 읽으면서 다음 활동 가 및 나을 한다.

가 편지를 쓴다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집을 몹시 그리워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낼 경우 여러분은 그를 격려하기 위해 어떤 편지를 보내겠는가? 여러분은 편지에다 교리와 성약 100편 1~8, 12~17절에 있는 어떤 가르침을 인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인용한 각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이며, 왜 그것을 인용하려 하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나 차이를 설명한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0편 9~11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의 역할과 책임의 차이점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셨다. 여러분의 노트에 이러한 차이점을 적는다.



제공: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 판권 소유

미주리 주의 성도들은 1833년 여름에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교회 회원들은 1834년 1월까지 잭슨 군을 떠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1833년 10월과 11월에 핍박은 다시 격심해졌다. 폭도들은 모여서 일부 성도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집, 가구, 작물들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죽였으며, 겨울이 닥쳐오는데도 수백 명의 후기 성도들을 집에서 내쫓았다.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미주리 강을 건너 클레이 군으로 가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적었다. “그 장면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으며, 무지막지한 억압자와 편견에 사로잡힌 완고한 고집불통을 제외하, 이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History of the Church, 1:437)

왜 주님께서 성도들이 집에서 쫓겨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미주리 주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난폭하게 군 까닭은 무엇인가? 시온은 어찌 될 것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101편의 계시를 받기 6일 전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깊은 지혜로써 그것을 나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두 가지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큰 재앙이 시온에 닥치게 하시는 것이며, 이 같은 무서운 환란을 일으키게 한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 그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형제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문점은 내게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미결 문제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4)

교리와 성약 101편을 읽으면서 선지자가 알지 못한다고 여겼던 두 가지 사실, 즉 하나님께서 교회 회원들에게 이처럼 큰 재앙을 겪게 하시고, 성도들이 시온을 다시 찾도록 도우려 하신 까닭에 대해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를 유의한다.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가르침이 된다. 더욱이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질문에 대해 주신 응답은 후일에 있어서의 그분의 사업과 그의 재림에 대해 좀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경전을 이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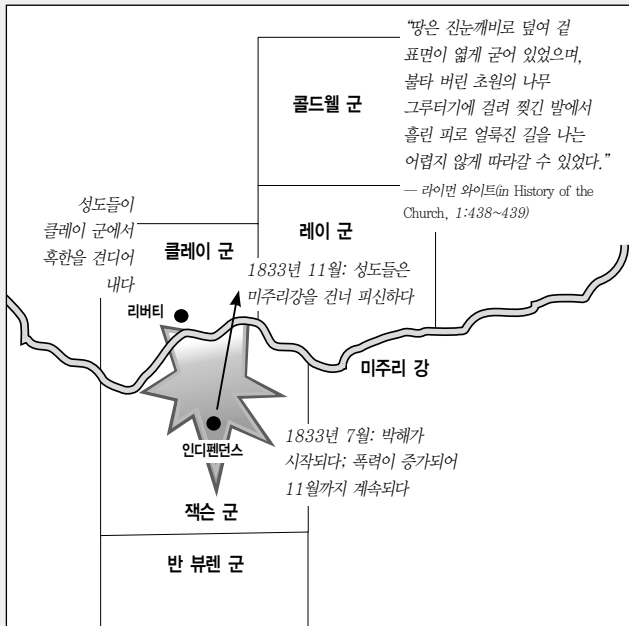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01편

- [Jarrings] 알력(6절) — 분쟁, 불화
- [Envyings] 시기(6절) — 시기
- [Esteemed lightly] 가벼이 여기더니(8절) — 가치가 없다고 여기다
- [Indignation] 분노(10~11절) — 정당하거나 의로운 노여움
- [Tabernacle] 성막(23절) — 주님이 거하시는 곳
- [Corruptible] 썩어질 것들(24절) — 불완전한, 필멸의 것들
- [Fervent] 뜨거운(25절) — 강렬한, 힘센
- [Enmity] 적개심(26절) — 적개심, 증오
- [Accounted] 헤아림을 만나니(39절) — 여김을 받다
- [Trodden] 밟힐(40절) — 밟다, 짓밟다
- [Abased] 낮아지고(42절) — 겸손하게 되다
- [Redemption] 구속(43, 76절) — 회복, 구조
- [Hedge] 울타리(46, 51, 53~54절) — 담장, 보호장벽
- [Exchanger] 돈 바꾸는 자들(49절) — 은행가, 투자를 하는 자
- [At variance] 의견이 다른(50절) — 의견을 달리하는, 불화

[Residue] 나머지(55, 58, 71절) — 남아있는 수
 [Straightway] 곧 바로(56, 60절) — 즉시, 지체 없이
 [Avenge me of] 나의 원수를 갚으라(58, 83절) — 공의로운 형벌을 가하다
 [Secured in the garner] 안전히 보관되어(65절) —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다
 [Tares] 가라지(65~66절) — 곡식 밭에 있는 잡초
 [Importune for redress] 보상 ... 을 청원하되(76절) — 일을 바로잡도록 요구하거나 간절히 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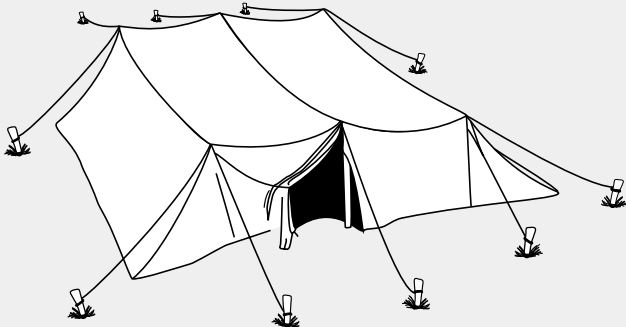
[Constitution] 헌법(77절) — 기본 규칙 또는 규정, 미국 헌법
 [Suffered] 허락하였으며(77절) — 허용하다
 [Futurity] 미래(78절) — 미래
 [Bondage] 속박(79절) — 노예 상태
 [Fury] 분노(89절) — 노여움
 [Vex] 괴롭게(89절) — 괴롭히다, 별하다
 [Stewards] 청지기(90절) — 어떤 일을 담당하여 책임지는 사람
 [Befall] 임할(98절) — 에게 일어나다
 [Hold claim] 권리를 보유함(99절) — 소유권을 가지다

교리와 성약 101 머리글 — 1833년 12월에 성도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교리와 성약 101:21~22 — 시온의 스테이크

지상에 있는 주님의 왕국은 때로 말뚝으로 지지되고 있는 천막에 비유되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4:2; 모로나이서 10:31 참조) 교회는 천막처럼 안전과 피난처를 제공해 주며 말뚝으로 단단하게 받쳐진다. (교리와 성약 45:66~67; 82:14 참조) 즉 성도들은 모여서 서로를 가르치고 지지해 준다. 교회는 널리 퍼져서 온 지상을 뒤덮게 된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1편에서, 미주리 주 잭슨 군에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으므로 교회 회원이 다 그 곳으로 모이지 않도록 말씀하셨다. 그 대신, 회원들은 시온의 스테이크에 집합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이 스테이크들 또한 “거룩한 곳”으로서, 그 곳에 있는 교회 회원들도 시온의 중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 (또한 교리와 성약 115:5~6 참조)

교리와 성약 101:30 — “나무의 나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복천년 동안 인간은 수한이 찰 때까지 죽음이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죽지 않을 것이며, 그 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수명을 100년이라고 말했습니다!”[이사야 65:20~22 참조]라고 가르쳤다. (구원의 교리, 1:81)

교리와 성약 101:39~40 — 소금이 그 맛을 잃음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칼로스 이 애시 장로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학자가 소금은 세월이 지나도 그 맛을 잃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불순물이 섞임으로써 맛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권의 권세도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순물이 섞임으로써 없어집니다.”
 “청년이나 성인 남자가 외설 문학에 생각을 쏟을 때 맛을 잃게 됩니다.”
 “신권 소유자가 거짓말이나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 맛을 잃게 됩니다.”
 “우리 중에 대중을 따라 부도덕한 행위나 약물, 담배, 알코올 및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의 사용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맛을 잃게 됩니다.” (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64쪽)

교리와 성약 101:81~90 — 여인과 불의한 법관의 비유

교회 지도자들은 교리와 성약 101편을 받고 나서 현지 법관들의 도움을 청하였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법관들은 성도들을 집에서 쫓아낸 폭도들이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미주리 주의 주지사인 던클린을 찾아가 일을 올바르게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주지사는 성도들에게, 이미 발생한 일들 중에서 잘못되었다고 믿는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이를 문서화한 다음 다시 주지사를 찾아가다. 주지사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별로 하지 못했다. 5년 후 성도들은 미주리 주에서 추방되었으며, 이 사실을 미국 대통령 마틴 반 뷰렌에게 진정하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직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진정하였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체류하는 동안 마틴 반 뷰렌 대통령과 면담을 하였으나, 그는 나를 심히 무례하게 대했다. 그는 마치 못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으며,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의는 정당하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편을 들면, 저는 미주리 주에서 표를 잃게 됩니다.’” (History of the Church, 4:480)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01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사 중 네 가지를 한다.

가 문장을 완성함

교리와 성약 101편 1~9절에서 배운 것을 이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한다.

1. 주님은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도록 그냥 두셨는데 그 이유는 ... 때문이었다.

2.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 하려 하셨다.
3. 선지자 아브라함처럼 교회 회원들은 ... 하여야 한다.
4. 교회 회원들이 징계를 견딜 수 없다면, 그들은 ... 할 수 없다.
5.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이 ... 한 죄를 지었다.
6.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더디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 하셨다.
7. 생활이 편해지면, 일부 교회 회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면 ...
8.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의 태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서는 ... 하시려 한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께서서는 교리와 성약 101편에서 그래도 시온은 세워질 것이며, 결국은 선이 악을 이겨 승리를 거둘 것이며, 그분은 지상에 돌아오셔서 의로움의 복천년을 시작케 할 것이라고 확인하셨다. 교리와 성약 101편 23~35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복천년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질문 다섯 가지를 적는다. 각 질문 뒤에 답변과 답변을 찾을 수 있는 성구를 적는다.

다 상징을 설명함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1편 39~40절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소금에 비유하셨다. 소금이 달리 사용되는 방법을 생각하고 교회 회원들이 소금을 담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적는다. (또한 교리와 성약 101편 39~40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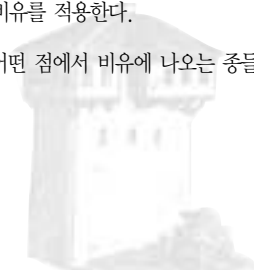
라 현대의 비유를 적용

1. 교리와 성약 101편 43~62절에서 귀족과 감람나무의 비유를 공부한 다음, 동일한 메시지가 담긴 현대의 비유를 적는다. 여러분이 적은 비유에 다음 요소가 담긴 최신의 비유를 포함시킨다.

사람	장소	사건
1. 귀족	1. 포도원	1. 종들은 감람나무 12그루를 심으라는 명을 받았다.
2. 종	2. 감람나무	2. 파수꾼들은 위험을 두루 살피라는 명을 받았다.
3. 파수꾼	3. 망대	3. 종들은 감람나무를 심었다.
4. 원수	4. 울타리	4. 종들은 평화로운 시기에 파수꾼이 필요한 이유를 궁급하게 여겼다.
		5. 종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았다.
		6. 원수가 포도원을 파괴하였다.
		7. 귀족은 종들에게 화를 내었다.
		8. 포도원은 도로 찾게 되었다.
		9. 원수의 요새는 헐어버렸다.

2.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족과 감람나무의 비유를 적용한다.

- ㄱ. 여러분 나이 또래의 교회 회원들은 어떤 점에서 비유에 나오는 종들과 닮았는가?
- ㄴ. 파수꾼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 ㄷ. 망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마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 회원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서는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 없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당해야 했다. 그들은 어찌해야 했을까? 교리와 성약 101편 63~101절은 시온과 집에서 쫓겨난 성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요약한 다음 회원들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 돌린다.

바 미국 헌법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01편 77~80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의거하여 미국 헌법에 관한 세 개의 성명서를 적는다.

사 선지자의 질문에 답변을 주심

이 학습 지도서에 있는 교리와 성약 101편에 대한 소개를 보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이 계시를 받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알고자 하였던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지자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 점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답변을 요약한다.



교리와 성약 102편

고등 평의회와 교회 징계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으로부터 교회 관리에 필요한 신권의 열쇠를 받았지만(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주님은 교회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방법에 대해 점점 많은 것을 계시로 전해 주셨다. 이를테면, 1830년 교회의 총관리 지도부는 교회의 제 1장로와 제 2장로(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1832년에 대신권의 회장단이 조직되었으며(교리와 성약 81편 참조), 대신권 회장단은 1833년에 교회의 제일회장단이 되었다. 교리와 성약 102편을 받았을 때, 교회 회원은 약 3,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하나의 스테이크 규모에 해당하였다. 이 결과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최초의 고등 평의회를 조직하도록 지시하시므로써, 성장해 가는 교회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계시를 추가로 주셨다.

교회의 최초의 고등 평의회는 제일회장단이 관리하였으며, 교회 전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다른 스테이크가 조직되면서 주님은 "감리 고등

평의회"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교리와 성약 107:33 참조), 이는 곧 십이사도 정원회로서 교회 전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반면에 각 스테이크에는 "상임 고등 평의회"(교리와 성약 107:36)를 두어 오직 스테이크에 관련된 문제만 처리케 하였다.



오늘날 각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회장 한 사람과 그의 보좌 두 사람의 감리를 받고, 그들은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를 도와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교리와 성약 102편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른 것이다. 생존해 있는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와 제일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한 스티븐 엘 리처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회 체제의 진수는 평의회를 통한 체제입니다."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6쪽)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02편

[Minutes] 회의록(머리글) —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의 기록	: [Commencing] 시작하여(12절) — 시작하다
[Standing] 상임(3절) — 상임의	: [Impartially] 공평하게(20절) — 공정하게
[Vacancy] 결원(8절) — 공석	: [Manifest it] 밝힐(20절) — 알리다
[Sanctioned, sanction] 재가받아(8, 19절) — 승인받다, 수락받다, 지지받다	: [Altered] 수정되어(21절) — 변경하다
[Convened, convenes] 소집된(8, 13절) — 정식 집회로 모이다	: [A sufficiency] 충분함(23절) — 충분함
[Cast lots by numbers] 제비를 뽑아(12절) — 우연히 순서 번호를 배정받다	: [Foregoing] 전기(24절) — 먼저 기록된 것
[Ascertain] 확정할(12, 34절) — 결정하다, 알아내다	: [Transmit] 전달할(26절) — 보내다, 전하다
	: [Appeal, appealed] 항소하여(27, 31, 33절) — 재심을 청하다

교리와 성약 102:2, 12~33 — "중요한 어려움을 해결"

고등 평의회는 교회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돕는 것 이외에도 교리와 성약 102편에 정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 스테이크 회장단을 도와 교회의 선도 문제를 해결한다. 교회 지침서에 추가 지침 사항이 실려 있다. 교회 선도 평의회는 회원이 복음의 원리를 중하게 위반할 경우 즉 간음, 동성연애, 낙태, 형사 범죄, 배도, 또는 배우자나 어린이가 학대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열린다. 선도 평의회는 와드나 지부 단위로 열리는 반면, 보다 중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스테이크나 지방부 단위로 열린다. 이 교회 선도 평의회는 죄 지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교회의 고결성을 지키면서 회원을 보호한다.

경전을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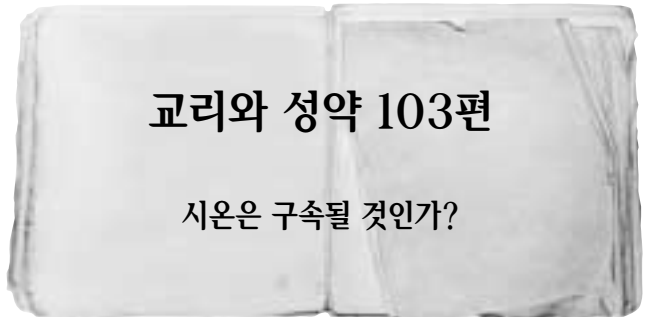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02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와 나를 한다.

가 대비책

교리와 성약 102편 9~11절은 교회 회장에 대한 얘기이며, 스테이크 회장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구절에 의하면 회장이나 스테이크 회장이 평의회에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찌되겠는가?

나 무슨 일이 있었나

교리와 성약 102편 13~29절에 의거하여, 스테이크 선도 평의회에서 하는 일을 요약한다.



미주리 주 잭슨 군에 있는 성도들은 1833년에 많은 박해를 받았다. 미주리 주의 교회 회원들은 1834년에 팔리 피 프랫과 라이먼 화이트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보내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로부터 지침을 받고자 하였다. 교리와 성약 103편은 두 사람이 도착하여 선지자에게 보고한 후 받은 계시이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1편에서 성도들의 원수가 성도들을 시온에서 몰아내게 한 이유 몇 가지를 설명하셨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었다. 특히 그들 중 일부는 교리와 성약 101편 55~60절에 명시한 언젠가 "내 집의 모든 군사 곧 나의 전사들"을 데리고 시온을 구속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교리와 성약 103편의 마지막 부분은 이 의문에 대해 주신 응답으로,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시온의 진영으로 알려진 것을 조직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진영은 11명의 여자와 11명의 아이들을 포함하여 20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지시를 받아 행군하였고 시온을 구속하기 위해서라면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으려 하였다.



교리와 성약 103편을 읽을 때, 계시의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특히 유의해서 보면, 시온은 군대의 힘으로 구속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시온은 방법으로 말미암아 잃게 되었으며, 의로움을 통해서 구속되어야 한다. 이 계시는 초기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시대와 사정에 맞게 권고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만, 계시가 담고 있는 원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우리는 아직도 시온을 회복해야 하며, 현재 살아계신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시온에 관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03편

[Discharge] 이행(1절) — 수행, 성취함	[Tribulation] 환난(12~13) — 시련, 괴로움
[Suffered them] 용인하여(3절) — 이것을 하도록 그냥 두다	[Stretched-out arm] 편 팔(17절) —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 즉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분의 권세(그분의 팔로 상징했음)를 이용해서 개입함
[Precepts] 교훈(4절) — 행동 규칙	[Avenge, avenging] 원수들에게 보복할지니라(25~26절) — 정당한 처벌을 집행하다
[Decreed a decree] 법령을 선포하다(5~6, 11절) — 정식 판결을 내리다	[Companies] 무리(30절) — 집단
[Prevail] 이기기(6~8절) — 승리를 하다	[Peradventure] 혹(32~33, 35절) — 아마도
[Observe] 준행함(7~8절) — 순종하다	
[Cease to prevail] 이기기를 ... 그치지(7절) — 승리를 얻지 못하다	
[Subdued] 정복되고(7절) — 정복되다, 극복하다	

교리와 성약 103:15~16 — 주님은 시온을 구속하기 위해 한 사람을 모세처럼 일으켜 세우심

교리와 성약에서 교회의 회장은 모세 같은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교리와 성약 28:2; 107:91 참조)

교리와 성약 103:20 — 주님은 앞서 올라가 시온을 구속하는 자와 함께 하심
주님께서 오직 합당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리와 성약 100:13 참조) 따라서 이 계시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사이에서 성취될 것이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03편을 읽으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세 가지를 한다.

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3편 1~4절에서 성도들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성도들의 원수의 죄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 기록된 것에 의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성도들의 원수는 무엇을 했는가? 왜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2. 성도들의 원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3.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4.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가?

나 연관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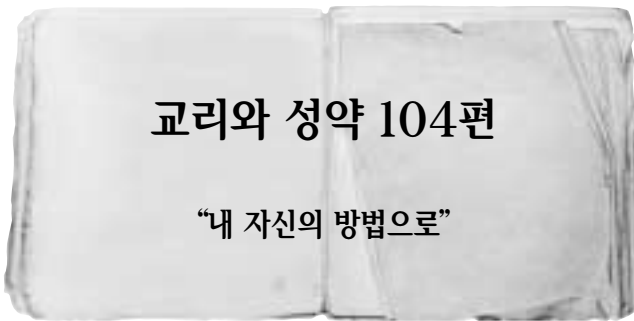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35편 24절은 교리와 성약 103편 7절의 전후 참조 구절이며, 교리와 성약 58편 4절은 교리와 성약 103편 12절의 전후 참조 구절이다. 이 전후 참조 구절들을 읽고 교리와 성약 103편에 있는 이 구절들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다 비유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3편 15~21절에서 교회 회장을 모세에 비유하셨다. (또한 교리와 성약 28:2; 107:91 참조) 교회 회장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을 열거한다.

라 직원 모집 포스터를 만든다

교리와 성약 103편을 받은 다음, 교회 지도자들은 시온 진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교리와 성약 103편 22~36절에서 시온 진영에 대해 말한 내용과 본 학습 지도서에 있는 교리와 성약 103편에 대한 소개를 생각해 본 후에 여러분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시온 진영 모집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상상한다. 노트에다 이와 같은 특수 부대에 사람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포스터를 그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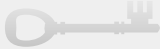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4편에 있는 계시를 주시기 2년 전인 1832년에 오하이오 주와 미주리 주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로 협동 교단을 조직하셨다. (교리와 성약 82:11~12 참조) 협동 교단은 헌납의 법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헌납의 법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의 경제난과 미주리 주의 핍박으로 인해 협동 교단을 당초 조직된 대로 지속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개책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04편을 주셨다.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해 헌납의 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검토하시고, 당시에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협동 교단을 재조직하셨다. 거기에는 미주리 주와 오하이오 주의 지도자들을 별도의 교단 혹은 조직으로 분리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초의 협동 교단에 참여한 교회 지도자들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헌납의 법을 적용할 준비를 하였다.



현재 교회는 초기의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협동 교단을 갖고 있지 않다. 오늘날 우리는 십일조와 금식 헌물을 포함한 다른 헌금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우리는 회원들이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협력과 기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 교리와 성약 103편에서 가르치는 원리는 십일조와 헌금을 “주님 자신의 방법으로”(교리와 성약 104:16) 바치는 우리의 시대에 적용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04편

[Immutable] 변경할 수 없는(2절) — 변경할 수 없는	[Abundance] 풍성한 것(18절) — 많은 양, 아주 풍부함
[Nigh] 이르렀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3, 59절) — 가까이, 근처의	[Tannery] 가죽 무두질 공장(20절) — 동물 가죽을 무두질하여 가죽을 만드는 곳
[Covetousness] 탐심(4, 52절) — 이기심, 욕심	[Mercantile establishment] 상점(39~41절) — 종합 상점
[Feigned] 지어낸(4, 52절) — 불성실한, 거짓의	[Reckoned] 헤아림을 받으리라(45절) — 셈을 받다
[Buffeting] 매질(9~10절) — 고문, 핍박	[Treasury] 금고(60~62, 64~69, 71절) — 금전이나 기타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
[Steward] 청지기(13, 56~57, 74, 77, 86절) — 어떤 것을 책임진 사람	[Exclusive of] 제외하고(63절) — 제외하고
[Stewardship, stewardship] 청지기 직분(11~12, 20, 22, 24, 30, 32, 37, 40~41, 44, 54, 63, 68, 72~73, 75절) — 청지기가 책임진 일	[Avails] 유익(64~65절) — 수입, 이익
[Accountable] 책임을 지게 함(13절) —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임해야 하는	[Token] 표징(75절) — 표시
[Handiwork] 손으로 한 일(14절) — 창조물	[Dictated] 지시하는(81절) — 전하다, 얘기를 듣다
	[Pledge] 담보로 맡기다(85절) — 대출금 상환을 위해 담보물을 내놓다

교리와 성약 104:13~18, 55~56 — 만물은 주님의 것이니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있을 당시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때로 잊고 있음을 나타내는 다음 얘기를 들려 주었다.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제게 그와 함께 자기의 목적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새로 산 자동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산 내 차 어떤가? 우리는 에어컨이 설치된 호화로운 차를 타고 편하게 시골을 지나 경관이 수려한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다소 교만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집일세.’ ...”

“... 그는 우쭐대며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나무 숲에서 호수, 호수를 낀 언덕, 목장 건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 ... 목장에 있는 가족 떼도 다 내 것일세.’ ...”

“그것은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후에 저는 그 친구가 궁전 같은 집에서 호화로운 가구들 사이에 죽어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저는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고 장례 행렬을 따라 그가 소유한 넓디 넓은 토지에서 키가 크고 체중이 꽤 나가는 사람이 누우면 딱 맞는 장방형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친구의 소유였던 토지가 누런 곡식과 푸른 알파와 하얀 목화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 곳은 한 때 소유하였던 그 친구를 언제 봤다냐는 듯이 잊어 버린 듯 하였습니다.” (Faith Precedes the Miracle[1972], 281~284)

교리와 성약 104:78~83 — “너희가 너희 모든 부채를 갚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과 가족에 화평과 만족을 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수입의 한도 내에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통을 주고 좌절케 하고 낙담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채무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1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04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세 가지를 한다.

가 핵심이 되는 단어를 택함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4편 1~10절에서 성약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셨다. 이 구절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개의 단어를 고른다. 노트에 각 단어를 적고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나 주님의 방식, 1부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식량, 주거 및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해 고생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4편 11~18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 이 성구들을 주의 깊게 읽고 노트에 다음 사항을 열거한다.
 -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 우리 중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면 문제에 중요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태도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
- 주님께서 이 성구에서 권고하신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을 최소한 세 가지 열거한다.

다 도표를 완성함

주님께서 초기에 있던 협동 교단을 재조직하셨지만, 헌납과 청지기 직분의 영원한 원리는 변경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4편 19~46절에서

청지기 직분에 관해 여러 형제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다. 노트에 다음과 비슷한 도표를 그린 다음, 교리와 성약 104편에서 읽은 것을 참조하여 도표를 완성한다.

교리와 성약 104	사람	가르침	약속
20~23절			
24~26절			
27절			
28~33절			
34~38절			
39~42절			
43~46절			

라 주님의 방식, 2부

사람들은 부채를 지면 부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쉽고, 빠르고, 또는 기적적인 방법을 찾는다. 큰 빚을 갚는다는 것은 어려우며, 갚는 데에는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크나큰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4편 78~83절에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쉽거나 빠른 방법은 아니지만 확실한 방법이다. 노트에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과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3편 22~35절에서 시온 진영, 즉 미주리 주로 가서 집에서 쫓겨난 성도들을 도우려 했던 그룹을 조직하도록 명하셨다.[본 학습 교재에 있는 교리와 성약 103편에 대한 소개 참조. 177쪽] 미주리 주의 탄클린 주지사는 성도들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재산을 되찾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민병대가 도와 줄 것이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약속했다. 그는 또 성도들이 잦은 군으로 돌아간 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스로 민병대를 조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온 진영은 바로 그 민병대 구실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도의 원수들이 가한 압력 때문에, 주지사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주 민병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태도를 바꾸었다. 주지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즈음에 시온 진영은 이미 미주리 주로 행군하고 있었다. 시온 진영의 대원이었으며 후에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의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팔리 피 프렛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우리는 주지사와 면담하였으며, 그는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서슴없이 인정하였지만, 온 나라가 내전과 유혈 상태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 민병대를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된 법을 집행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주지사는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고 토지를 팔도록 충고하였다.”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1985], 94)

시온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약 1,600킬로미터를 행군하는 동안 굶주림, 갈증, 지독한 날씨, 질병으로, 그리고 쉴 곳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다. 것처럼 힘든 노고와 고생을 하고 나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에게 권고의 말씀을 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교리와 성약 105편의 계시를 받았다. 주님은 이 계시에서 시온이 당시에 구속받을 수 없는 이유와 시온이 구속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을 추가로 알려 주셨다. 주님은 105편에서 그분께서 시온 진영의 대원들의 희생을 받아들이셨고, 그들이 기꺼이 하려 했던 일에 대해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대원들에게 말씀하셨다. 일 년 후 십이사도 정원회와 칠십인 제 1정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두 정원회의 과반수가 시온 진영을 따라 행군한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의 충실함을 입증하고, 행군을 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로부터 배우고,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해서 1,600킬로미터를 행군했겠는가? 우리가 자신해서 어려운 과제를 도울 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주님은 교회를 이끌 특별한 지도자가 필요하였다. 시온 진영은 충실한 자가 시험을 받고 주님의 사업을 돕고자 하는 결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늘날 미래의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05편

[Provisions] 식량(머리글) — 보급품	:[Consistently] 일치하게(24절) —
[endowed, endowment] 엔다우먼트,	일치하여
엔다우먼트를 받음(11~12절, 18절,	:[Execute, executed] 행하여,
33절) — 엔다우먼트, 엔다우먼트를	실행하며(25, 34절) — 이루어
받다	:[Redress] 시정하라(25절) —
[Lay waste] 황폐하게 하였나니(15절)	시정하다, 바로잡다
— 황폐케 하다, 파괴하다	:[Constrained] 하지 않을 수 없게
[Blaspheme] 모독하지(15절) —	하고(32절) — 강제하다, 강요하다
성스럽고 거룩한 것을 조롱하다	:[Ensign] 기(39절) — 깃발, 기치

교리와 성약 105 머리글 — 시온 진영의 역사 개요

주님께서 시온 진영의 대원을 모집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주신 후에(교리와 성약 103편 참조), 교회 지도자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준비를 하였다.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위험이 따르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소집에 용감하게 자원하였다. 폭도들은 이미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을 잔혹하게 대하였으며, 또 다시 그러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태였다.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최초의 사도들 중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히버 시 김볼은 당시의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1834년) 5월 5일에 출발하였는데, 실로 계기는 엄숙한 아침이었다. 저와 형제들은 그 쪽 지방과 미주리 주에 있는 원수들로부터 이 땅에서 우리를 없애 버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을 두고 떠나면서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었다.” (in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945], 40) 커틀랜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원해 간 사람들의 가족들을 돕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군대”(교리와 성약 105:26)는 5월 초에 행군을 시작했다. 그들은 도중에 오하이오 주, 미시간 주 및 일리노이 주에서 온 신입 대원들과 합류했다. 그들은 군대와 같은 일정을 지켰다. 새벽 4시면 기상을 하고 하루에 무려 56킬로미터 정도씩 행군했다. 그들은 또한 군대식 훈련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군대와는 달리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찬송가 및 복음 공부를 하였다.

불행히도,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고초나 지도자들의 결정에 대해 불평했다. 한 번은 분쟁이 너무나 극심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들에게 다음 날 진영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징조를 보게 되리라고 경고했다. 다음 날 진영의 거의 모든 말들이 병들거나 절룩거렸다. 선지자는 대원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로 단합한다면 말들은 바로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오쯤 되어, 원한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 사람의 말을 제외한 모든 말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시온 진영의 대원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겨낸 어려움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수 년 후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이렇게 간증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선지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과, 그와 함께 1,600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에게 전해지며 그 계시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in *Journal of Discourses*, 13:158)



피싱 강

브리검 영 회장은 시온 진영에서 겪은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 임무를 마치고 커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리검 형제님, 이번 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꼭 무엇을 얻기 위해 간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번에 얻은 지식은 기우가 굳이가 살았던 군 전체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식의 가치는 재산과 부의 보고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 *Journal of Discourses*, 2:10)

시온 진영이 미주리 주에 도착하자 원수들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었다. 미주리 주에 있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피싱강에서 야영할 준비를 하면서 말을 타고 진영으로 몰려왔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총으로 무장한 다섯 사람이 말을 타고 진영으로 와서 우리에게 ‘아침이 되기 전에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욕설에는 온갖 악마의 악의가 다 담겨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철저한 파괴를 맹서한 잭슨군의 폭도들과 합세하기 위해 리치몬드와 레이 군에서 60명이, 클레이 군에서 70명이 더 올 것이라고 했다.” (*History of the Church*, 2:102~3) 그러나 선지자는 시온 진영의 대원들을 위로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잠시 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였다. 시온 진영의 대원들 대부분은 부근에 있는 침례교회로 피신한 반면, 폭풍이 폭도들의 계획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몰몬 군대”와 싸우려는 계획을 포기하였다.

일부 대원들은 싸우지 말라고 한 교리와 성약 105편에 있는 주님의 계시에 실망하여 선지자와 주님에게 불평을 늘어 놓았다. 그 결과 콜레라가 진영을 휩쓸었다. 충실했던 일부 대원을 위시하여 14명의 대원이 사망하였다. 때때로 의로운 사람들도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통을 겪는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범법한 자들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회개하면 질병은 물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말은 성취되었다.

시온 진영은, 일부 대원들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성취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05편 19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신앙의 시험”이 되었다. 일부 대원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반면, 충실한 자들은 그들이 겪은 경험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최초의 십이사도 중 아홉 사람이 시온 진영에 참가했던 회원이었으며, 최초의 일곱 명의 칠십인 회장과 칠십인 제 1정원회의 다른 63명의 회원들도 역시 그러했다. 주님은 이 경험을 이용하시어 누가 충실했으며 그분께서 누구를 신뢰할 수 있었는지를 아시려 하셨던 것 같았다. (또한 교리와 성약 105:35 참조)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05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목록을 만든다

1.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5편 1~6절에서 “개개인이 아니요 교회에 관하여 말하거나 나의 백성의 범법이 아니었다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당시에 시온이 건설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점을 돌이켜 보신 것이다. 이 구절을 공부한 다음, 주님께서 백성들이 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 것을 열거한다. 시온의 대업을 보다 완전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설명한다.
2. 주님은 9~12절과 31절에서 교회 회원들이 시온을 세우는 데 필요한 보다 많은 것에 대해 설명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일보다, 아직 행하지 못한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한다.
3. 이 구절에서 배운 것을 통해,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을 설명한다.

나 예를 든다

교리와 성약 105편 6절에서 가르친 원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훌륭한 영향을 주었던 예를 든다.

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시온 진영에 참가한 다음 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가정한다. (여러분은 “경전을 이해함” 편에 있는 역사 개요를 복습할 수 있다.) 우선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05편 17~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대원들에게 말했을 때 각 대원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각 대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다.



시온 진영

1. 중년의 아버지. 지도자들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 좌절하였으며,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1,600킬로미터를 걸었다.
2. 나이든 회원. 힘든 경험이었지만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언제나 기꺼이 행하려 했으며, 그 경험에 대해 감사를 느낀다.
3. 최근에 개종한 미혼 청년. 행군을 하는 동안 일부 회원들의 온당치 못한 행동을 보고 약간 실망하였으며, 새로 입교한 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라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1. 교리와 성약 105편 23~40절에서 읽은 내용을 근거로 두 개의 목록을 만든다. 첫번째 목록에는 주님께서 “주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성도들(미주리 주)에게 말씀하신 것을 열거한다. 두 번째 목록에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열거한다.
2. 목록에 열거된 사항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4년 초에 시온 진영의 대원을 모집하고 자금을 모금하면서, 교회의 여러 지부를 방문했다. 그 시기에 그는 1831년에 입교한 올리버 카우드리의 큰 형인 워렌과 함께 뉴욕 주 프리덤에 체류하였다. 그 후 선지자가 말했다이 심히 바쁜 달(History of the Church, 2:170 참조)에 그는 워렌 카우드리에게 지시하는, 교리와 성약 106편의 계시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106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부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 워렌에게 그의 부름에 대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부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06편

- | | |
|--|--|
| [Adjoining] 인접한(2절) — 이웃의, 곁에 있는 | [Scepter] 홀(6절) — 통치권을 상징하는 막대기 |
| [Gird up your loins] 허리를 동이고(5절) — 자신을 준비시키다 | [Vanity] 마음에 헛된 것(7절) —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망 |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06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봉사의 부름

1.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106편을 통해 워렌 카우드리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을 주셨는가?
2.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부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카우드리 형제가 위로와 격려를 받은 계시의 말씀 내용을 나열한다. 여러분의 목록에서 두 가지 사항을 택하여 그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한다.

나 교리와 성약 106편을 자신에게 적용함

교리와 성약 106편이 여러분과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은 부름에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한다.

다 차이점을 유의해서 봄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106편 4~5절에서 서로 다른 두 무리의 백성과 그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다. 두 무리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재림과 관련하여 두 무리에는 어떤 차이점은 있는가?



신권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멜기세덱 신권과 비교하여 아론 신권의 권세와 권능은 무엇인가? 각 신권의 직분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직되는가? 왜 신권이 필요한가?

교리와 성약 107편을 보면 신권에 관한 많은 질문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계시는 1835년에 십이사도가 부름을 받은 직후 십이사도 정원회에 주어졌 것이다. (이 경륜의 시대의 최초의 십이사도 정원회의 명단은 교리와 성약의 앞 부분에 있는 “교리와 성약의 진실성에 대한 십이사도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아가 교회의 신권과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감리하기 위한 그들의 부름에 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계시는 현 경륜의 시대의 신권 지침서와 비슷하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07편

- [Order] 반차(3, 9~10, 29, 40~41, 71, 73, 76절) — 하나님의 신권 권능의 조직
- [Appendage] 부속(5, 14절) — 부속물, 추가
- [Administer] 집행하느니라(8, 12, 20절) — 지시하며 관리하다
- [Officiate] 수행할(9~12, 17, 33절) — 기능을 발휘하다, 행하다
- [Stead] 대신하여(11절) — 대신
- [Conferred upon] 부여되었음(13절) — 주어지다
- [Keys] 열쇠(15~16, 18, 20, 35, 70, 76절) — 관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리
- [Commune] 친교를 나누며(19절) — 대화하다, 얘기를 나누다
- [Communion] 친교(19절) — 다정한 우정
- [Mediator] 중보자(19절) — 의견이 다른 두 개인이나 무리를 평화로운 관계로 맺어 주려는 사람
- [Especial] 특별한(25절) —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로 떨어짐
- [Unanimous] 만장일치(27절) — 통일된, 전체의 합의로
- [Validity] 효력(27절) — 관능
- [Temperance] 절제(30절) — 자제
- [Abound] 풍성하면(31절) — 다량으로 발견되다, 풍부하다
- [Traveling high council] 순회 고등 평의회(38절) — 십이사도 정원회
- [Evangelical ministers] 축복사(39절) — 축복사
- [Residue] 나머지(53절) — 남은 수
- [Bestowed] 주었더라(53, 92절) — 은사를 주다, 수여 받다
- [Archangel] 천사장(54절) — 최고 지위에 있는 천사
- [Exempt] 면제되는(81, 84절) — 면하다, 책임을 지지 않는
- [Solemnity] 엄숙하게(84절) — 진지함, 품위
- [Edifying] 교화하느니라(85절) — 강화하다, 강하게 하다
- [Slothful] 게으른(100절) — 나태한

교리와 성약 107:1, 6 — 레위 신권

모세의 시대에는, 멜기세덱 신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또는 아론) 신권만이 계속 남게 되었다.(교리와 성약 84:23~26 참조) 그 신권은 레위 지파의 남성들에게만 부여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신권은 레위 신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107편 1절은, 레위 신권의 권리와 권능은 아론 신권에 속한다.

교리와 성약 107:2 — 위대한 대제사 멜기세덱



멜기세덱에 대해 읽으려면 조성, 창세기 14장 25~40절을 참조한다. (엘마서 13:14~19; 교리와 성약 84:6~14)

교리와 성약 107:5 — 신권은 교회의 어떤 직분보다 위대함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신권은 그 안에 있는 어느 직분보다 위대하다. 신권에 권세, 존엄, 또는 권능을 더 해 줄 직분은 없다. 모든 직분은 신권으로부터 그 직분에 따른 권리, 특권, 은혜 및 권세를 받는다. 이 원리는 하나의 원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신권은 원이며, 원의 각 부분은 신권 내의 부름 또는 직분을 말한다. 원의 각 부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원 전체의 권세를 가져야 한다. 먼저 신권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신권 내에서 직분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그 신권은 합당한 개인에게 부여되며 신권을 부여 받은 사람들은 신권의 직분에 성립된다. 그러므로 신권과 교회의 모든 직분은 신권에 부속된다. 말하자면 직분은 신권에서 나오는 것이며 신권에 부속되는 것이다. 직분은 중요성에 있어서 신권에 뒤진다. ...”

“더욱이 멜기세덱 신권 내에서는 한 직분에서 다른 직분으로의 승진이란 있을 수 없다. 장로라면 누구나 교회의 사도 또는 회장과 같은 신권을 지니게 되지만, 사도나 회장의 직책은 왕국에서 보다 큰 관리 임무를 갖게 된다.” (*Mormon Doctrine*, 595~596)

교리와 성약 107:15~17, 68~73 — “아론의 실제 자손”

조셉 필립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교회에는 축복사로부터 축복을 받고 레위의 자손임을 선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독의 직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계시는 문자 그대로의 아론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지, 레위의 자손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자손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아론의 자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교리*, 3:80)

교리와 성약 107:23~38 — “권세가 동등한” 정원회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7편 24절에서 교회 회장이 사망하면 십이사도 정원회는 제일회장단과 “권세와 권능이 동등[하다]”고 가르치셨다. 이 까닭은 그들이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며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3절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십이사도는,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일을 한다.

칠십인은 “사도들의 정원회와 권세가 동등”하다. (교리와 성약 107:26) 이 성구는 칠십인은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능에서는 십이사도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그러나 칠십인은 십이사도와 제일회장단처럼 교회의 총관리 역원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십이사도의 지시 아래” 일을 할 때(34절), 그들은 교회의 권세와 관련해서는 동등하다.(따라서 그들의 직함은 “총관리 역원”으로 칭하게 됨) 칠십인은 이러한 자격으로 전 세계에서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는”(34절) 것을 도울 수 있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07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아 중 다섯 가지를 한다.

가 이해를 키움

1. 교리와 성약 107편 1~4절에 의하면, 대신권을 멜기세덱 신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교리와 성약 107편 2절의 “경전을 이해함” 편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참조 성구를 읽는다. 노트에, 멜기세덱에 관해 배우는 것을 적되, 그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신권을 소유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적는다.

나 퀴즈를 적용

교리와 성약 107편 1~20절에서 배운 것을 이용하여,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는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퀴즈를 작성한다. 각 질문 뒤에 해답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성구를 적는다.

다 도표를 만든다

교리와 성약 107편에서 신권의 직분과 정원회에 대해 배운 것을 정리한다. 노트에 다음 모양의 도표를 그린 다음, 적혀 있는 성구에서 배운 것을 적는다.

교회 회장(교리와 성약 107:8~9, 65~67, 82, 91~92절 참조)	제일회장단(21~22, 27, 33, 78~79절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23~24, 27~28, 30~31, 33, 35, 38~39, 58절 참조)	칠십인(25~28, 30~31, 34, 38, 93~98절 참조)
대제사(10, 12, 17절 참조)	장로(10~12, 60, 89~90절 참조)
감독(13~17, 68~76, 87~88 참조)	제사(10, 61, 87~88절 참조)
교사(10, 62~63, 86절 참조)	집사(10, 62~63, 85절 참조)

라 중요성을 설명함

교리와 성약 107편 27절에 의하면, 교회를 관리하는 정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는가?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마 여러분이 그 곳에 있다면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7편 41~57절에서 아담과 그의 가족에 대해 말씀하셨다.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축복사로서의 아담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2. 이것은 오늘날의 축복사의 역할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바 예를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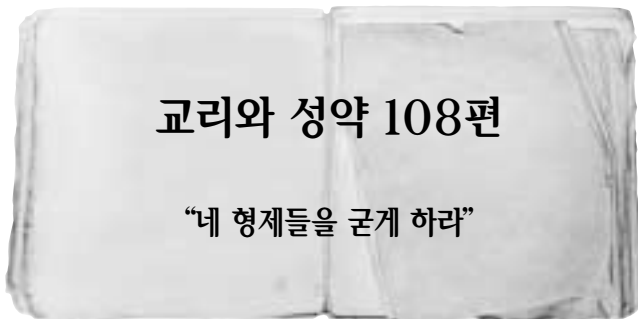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07편 85절은 집사 정원희 회장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에 적혀 있는 책임의 네 가지 중요한 분야 즉 '통할하며, 회의를 열며, 가르치며, 덕을 품도록 깨우치'는 각 분야에 대해, 집사 정원희 회장이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예를 든다.

사 여러분의 경험

교리와 성약 107편 91~92절은 교회의 회장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구절들 가운데 있는 내용 중 한 가지에 대해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체험했던 경험을 적는다.

아 “모든 사람”의 책임

노트에 교리와 성약 107편 99~100절을 요약하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사람의 책임과 그분의 경고라는 것을 강조한다.



교리와 성약 107편 99~100절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배우라고 권고하고 있다. 라이먼 셔먼은 이 권고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을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 그는 시온 진영의 대원이었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 일곱 사람의 칠십인 회장 중 한 사람이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나(불시의 사망으로) 성임을 받지 못했다. 셔먼 형제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가서 자신의 의무에 대해 알고자 했다. 교리와 성약 108편의 계시는 주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교리와 성약 108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셔먼 형제에게 주신 권고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셔먼 형제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08편

[Hither] 이리(1절) — 이 곳으로	: [Right] 권리(4, 6절) — 권능과 특권
[Vows] 맹세(3절) — 성약하고 약속하다	: [Exhortations] 권면(7절) — 가르침, 지시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08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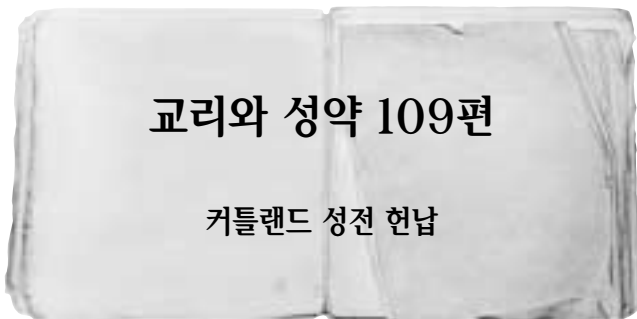
가 설명함

노트에 다음 성구를 적고 각 구절의 의미와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1. “네 영혼이 숨을 얻고” (교리와 성약 108:2; 또한 1절 참조)
2. “다시는 내 음성에 항거하지 말라” (2절)
3. “이제부터 더욱 조심하여 … 네 맹세를 지키라” (3절)
4. “참고 기다리라” (4절)
5. “너는 … 기억될 것이요” (4절)

나 목표를 정함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108편 7절에서 라이먼 셔먼에게 네 가지 방법을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라고 권고하셨다. 노트에 네 가지 방법을 적는다. 각 방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개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계획과 그 실천 방법을 말한다.



여러분은 성전 헌납식에 참석할 적이 있는가? 성전 헌납 기도에서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109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의 성전인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할 때 드린 기도이다.



그는 헌납을 하기 전에 영감의 영으로 이 기도문을 작성하였으며, 헌납 기도에서 그것을 읽었다. 그 후 이 기도문은 헌납 기도의 모형이 되었다. 모든 성전 헌납식의 기도문은 영감을 받아 작성되어 헌납식을 거행하도록 지명된 형제들이 낭독하였다.

교리와 성약 109편에 있는 기도는 헌납 기도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의 모형이 되기도

한다.

커틀랜드 성전은 교회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님은 이 성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신권의 열쇠, 즉 산 자와 죽은 자에게 구원의 의식을 베풀 수 있는 열쇠를 전해 주셨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는 기이한 영적인 나타내심이 있었다.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본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천사들을 보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헌납식이 있던 날 저녁 성전에서 모임을 갖던 중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 “조지 에이 스미스 형제가 일어나 예언하기 시작하였을 때 성전을 채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고, 온 회중이 동시에 일어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이들은 영화로운 시현을 보았고, 나는 성전에 가득한 천사를 보았으며, 그 사실을 회중에게 외쳐 전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성전 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성전 위에서 머물러 있는 불기둥 같은 빛을 보고는) 그 때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보고 놀랐다.” (History of the Church, 2:428)

성전 헌납식의 순서로, 합창단이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31장)을 불렀다. 이 노래의 가사는 윌리엄 터블류 펠프스가 그 모임을 위해 지었으며, 이 찬송가는 그 후 성전 헌납식에서 계속 불리고 있다.

교리와 성약 109편을 읽으면서, 성전과 후일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찾아본다.

- | | |
|--|--------------------------------------|
| [Naught] 허사(30절) — 아무 것도 아님 | [Fostering] 양육하는(69절) — 도움, 격려 |
| [Slanders] 비방(30절) — 비난, 거짓 | [Connections] 연고자(71~72절) — 관계 |
| [Anointing] 기름부음(35절) — 부름, 성임 | [Perpetuated] 영속되게(71절) — 보존되다, 기억되다 |
| [Seal up the law] 율법을 인봉하게(38, 46절) — 진리에 대해 증거하다 | [Petitions] 간구(77~78절) — 요청, 기도 |
| [Untoward] 패역한(41절) — 순종하지 않는 | [Seraphs] 스랍(79절) — 천사 |
| [Indignation] 노여움(52절) — 불쾌, 정당한 노여움 | [Acclamations] 환호(79절) — 찬양의 소리 |
| [Remnants] 남은 자들(65, 67절) — 전체와 분리된 일부 사람들, 남은 무리들 | |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09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성전에서 올려 넘치는 축복

선지자는 교리와 성약 109편 11절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을 간구했다. 다음의 각 성구나 여러 성구들에 대해, 선지자가 교회 전체를 대신하여 어떤 축복을 간구했는지를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109:12, 13, 14~15, 21, 22~23, 25~30, 35, 38. 이러한 축복들은 성전 예배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

1. 교리와 성약 109편 47~72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기도해 준 개인 및 그룹들을 열거한다.
2. 선지자가 여러분이 열거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가? 그 이유를 설명한다.
3. 여러분의 목록에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이나 그룹 둘을 택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다 예를 든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기도를 드린 후로 교리와 성약 109편 54~67절에 언급되어 있는 어떤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예를 든다. 여러분의 예를 통해서 선지자가 간구한 일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 그들에게 이유를 설명함

1. 성전이 헌납된 후에 비회원 친구로부터 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냐고 설명하겠는가?
2. 교리와 성약 109편에 있는 어떤 성구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09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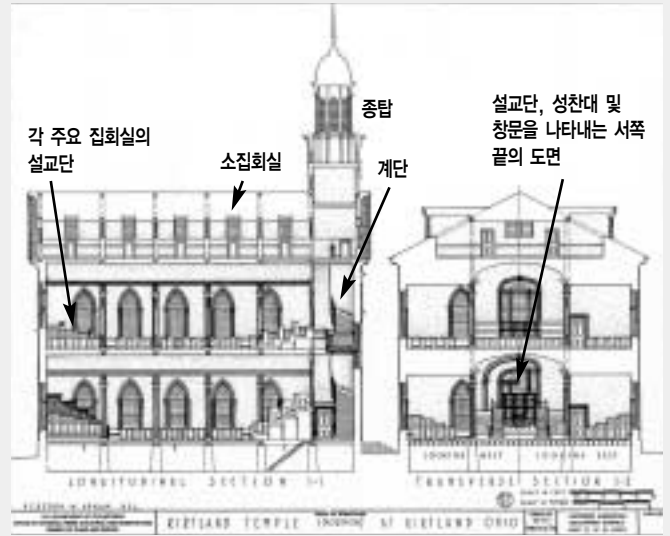
- | | |
|---|-----------------------------------|
| [Manifest] 나타내실(5절) — 알려지게 하다 | [Bear] 전하다(23절) — 나르다 |
| [Salutations] 인사(9, 19절) — 인사 | [Tiding] 소식(23절) — 소식, 메시지 |
| [Threshold] 문지방(13절) — 입구, 문 | [Prevail] 이길(26절) — 지배하다, 우위를 점하다 |
| [Constrained] ~하지 않을 수 없는(13절) — 촉구하다, 재촉하다 | |

교리와 성약 110편

주님께서 커틀랜드 성전에 몸소 나타나시어 열쇠가 회복됨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헌납 기도에서 성도들이 성전을 지어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실 곳”(교리와 성약 109:5)을 가지실 수 있게 하려 하였다고 말하였다. 교리와 성약 110편은 그 같은 간구가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주님은 110편에서 그분이 몸소 나타나시어 성전을 그분의 집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나타나신 직후에 세분의 다른 하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중요한 신권의 열쇠를 회복하였다.



교리와 성약 110:11 — 모세와 이스라엘의 집합

주님은 수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지로부터 전 세계에 분산시키거나 이동시키셨다. 주로 이스라엘의 북 왕국에 살았던 열 지파는 기원전 721년에 앗수르인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다. 남부 유다 왕국에 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그곳에 남아 있던 다른 지파의 잔류민들과 함께, 리하이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다시 로마인들에 의해 분산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신권을 모독하며 교회를 버리고 왕국에서 떠났기 때문이었다. … 이스라엘은 배도로 인해 분산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함과 거역으로 인해 진노하신 주님은 그들을 지상의 열방 가운데 있는 이단자들 사이에 분산시키셨다.”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515)

구주께서 커틀랜드 성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신 후에, 구약의 선지자 모세가 나타났다. 그는 회복된 복음의 축복의 일환으로, 잃어버린 열 지파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을 집합시킬 수 있는 열쇠를 회복해 주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스라엘의 집합은 참된 교회에 입교하여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439)

교리와 성약 110:12 — 일라이어스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열쇠를 가져왔는가?

“일라이어스”는 길을 예비하는 사자에게 주어지는 칭호이다. 교리와 성약 110편에 나오는 일라이어스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일라이어스가 가져온 열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오직 성전 의식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셨다]”(교리와 성약 110:12)

교리와 성약 110:13~15 — 엘리야가 음

구약의 마지막 구절에는 가족을 인봉하는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말라기 4:5~6 참조; 또한 제3니파이 25; 교리와 성약 2편 참조) 더욱이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이 약속을 기억하며, 식탁에 엘리야를 위해 자리를 비워 놓고 예배의 일부 순서에서는 문을 열어 두어 상징적으로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엘리야가 커틀랜드 성전에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10편

- [Sacred desk] 성찬대(머리글) — 성찬대
- [Veils] 휘장(머리글) — 커튼(성전에는 커튼이 쳐져 있으며, 천정으로부터 이것을 내려 성전을 교실이나 은밀한 회의를 위한 방으로 분리할 수 있다)
- [Veil] 휘장(1절) — 가리개, 뒤편을 가리는 것
- [Countenance] 얼굴(3절) — 용모, 얼굴
- [Advocate] 변호자(4절) — 옹호자, 다른 사람의 대의를 호소하는 사람
- [Endowment] 엔다우먼트(9절) — 영적인 은사
- [Dispensation] 경륜의 시대(12, 16절) — 복음이 인류에게 전해지는 기간

교리와 성약 110:2 — 성전의 설교단

아래의 도면은 커틀랜드 성전의 내부를 나타낸다. 구주께서 성전의 서쪽 끝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점에 유의한다. 도면은 설교단과 설교단의 독특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설교단은 교회의 감리 역원을 위한 자리이다. 그들은 성전 헌납식을 비롯하여 특별한 모임을 갖는 동안 그 곳에 앉는다.

나타난 1836년 4월 3일이 유월절 기간 중이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엘리야가 회복한 열쇠로 인해 성도들은 시온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고 가르쳤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시온산의 구원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침례반을 만들어 모든 의식 즉 침례, 확인, 씻음, 기름부음을 받으며, 머리 위에 성인과 인봉의 권세를 받고, 죽은 모든 조상을 위한 일을 하여, 그분들이 첫째 부활에 나아와 영광의 보좌에 들어 올려질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구속받게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기에 조상의 마음을 자녀에게 묶어 주는 고리가 있으며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67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엘리야가 부여한 이 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인봉되어,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있고, 자녀가 영원히 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가족이 영원한 가족으로서 존속되고, 죽음도 그들을 가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참담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낼 위대한 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2:106)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10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목표를 만든다

교리와 성약 110편에서 언급한 네 차례의 방문을 다음과 비슷한 도표로 만들어 정리한다. 110편에서 배운 것을 도표에 기입한다.

성구	누가 나타났는가?	그가 무엇을 말했으며 무슨 일을 했는가?	그가 말하고 행동한 것은 왜 중요한가?

나. 중요한 단어와 구절

교리와 성약 110편 1~10절에 언급된 구주의 시현을 통해 다음 각 구절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1. “휘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걸리고” (1절)
2. “너희의 변호자니라” (4절)
3.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5절)
4.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라” (7절)
5. “이 거룩한 집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8절)
6. “수천 수만의 마음은 ... 크게 기뻐하리라” (9절)

다. 예언의 성취

교리와 성약 110편 9~10절의 예언이 어떻게 우리의 시대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예언의 성취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설명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라. 무엇을 위해 문이 열렸는가?

모세, 일라이어스 및 엘리야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의 열쇠를 주었다. 열쇠란 말은 그 권능으로 인해 어떤 축복이 닫히거나 열린다는 개념을 상징한다. 커틀랜드 성전에서 열쇠가 회복된 결과(교리와 성약 110 참조)로 교회와 세계는 어떤 축복과 기회를 누리게 되었는가?



윌리엄 베게스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가서, 살렘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회가 미주리 주에서 박해를 당하고 커틀랜드 성전의 건축으로 인해 당면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은 이 숨겨진 보화를 찾기 위해 살렘에서 베게스를 만났다. 그들이 살렘에 도착하자, 베게스는 보화가 있는 곳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았다.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1:141 참조) 주님께서 이 경우에 선지자의 진실하지만, 어리석은 소망을 처리하신 방법은 그분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11편

- [Follies] 어리석음(1절) — 어리석은 행동 : [Tarry] 머물라(7~8절) — 기다리다, 체류하다
- [Instrumentality] 도구(2절) — 영향력, 노력 : [Signalized] 신호하여(8절) — 알려지게 하다, 시사하다
- [Expedient] 필요(3절) — 적절한, 바람직한 : [This place you may obtain by hire] 너희가 세를 주고 얻어도 좋으리라(9절) — 이 곳을 세낼 수 있다.
- [Form acquaintance] 사귄(3절) — 사귀다, 좋은 관계를 맺다

교리와 성약 111:2 — 주님은 교회를 위해 살렘에 무슨 보화를 간직해 두셨는가?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를 따라 매사추세츠 주 살렘에 간 사람들에게 살렘에 있는 보화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 5년 후인 1841년에 에라스투스 스노우(이 사람은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는 교리와 성약 111편에 있는 계시의 사본을 받은 다음, 임무를 가지고 살렘으로 파견되었다. 하이럼 스미스는 그에게 그 계시가 성취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스노우 형제는 살렘에 1년 이상 체류하면서 100명의 개종자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교리와 성약 111: 9~10 — 살렘의 “이 도시의 더 옛적의 주민과 설립자”에 대해 힘써 조사하는 것과 이 도시에 “보화가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매사추세츠 주 살렘에서 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보화는 에섹스군의 기록을 말하며, 이 곳에서 “이 도시의 더 옛적의 주민과 설립자에 관하여 부지런히 조사”(교리와 성약 111:9)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 온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최초의 조상을 비롯하여, 초기 교회 회원들의 많은 조상들이 살렘에 거주하였었다. 소년 시절, 조셉 스미스는 다리 수술을 받고 요양하고 있을 당시 삼촌인 제시 스미스와 함께 잠시 동안 살렘에 살았다.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수술 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조셉은 곧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이 때부터 더욱 호전되어 마침내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되었다. 그가 회복되어 여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바다 바람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그는 건강을 위해 삼촌 제시 스미스와 함께 살렘으로 갔다. 이에 대해 그는 실망을 하지 않았다” (History of Joseph Smith, 58)

주님께서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관한 교리를 계시해 주셨을 때 이 기록을 간직해야 하는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11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그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11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주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나 이 계시에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111편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그것을 받게 한 사건과, 그것을 받고 난 후의 사건을 적는다. (또한 본 학습 지도서에 있는 교리와 성약 111편에 대한 소개와 “경전을 이해함” 편 참조)

다 예를 든다

1.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11편 11절의 앞 부분에서 그의 종들에게 행하도록 요청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예를 든다.
2.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리와 성약 112편

십이사도의 업무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07편 23, 33, 35절에서, 십이사도 정원회는 그분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북 아메리카 대륙을 떠난 최초의 선교사 그룹은 히버 시 김볼 사도와 올슨 하이드 사도가 이끌었다. 그들은 1837년 7월에 영국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맞은 첫번째 일요일에 프레스톤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하였다. 그 날은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토마스 비 마쉬에게 교리와 성약 112편의 계시를 주신 날이었다.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해 이 경륜의 시대에 그분의 사업을 지시하시면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열쇠 및 권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12편

[Alms] 구제(1절) — 헌물	: [Be not partial towards them in
[Abased] 낮추었으므로(3절) — 겸손하다	: love above many others] 네 그들을
[Let thy habitation be known in Zion] 네 처소가 시온 안에 있음을 알게 하고(6절) — 시온에 살다	: 편벽되게 사랑하지 말고(11절) — 네
[Rebuke] 꾸짖음(9절) — 회개를 요구하다	: 형제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총애하거나
[Slanderer] 비방자(9절) —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자	: 편애하지 말라
[Perverseness] 패역함(9절) — 사악함, 부패	: [Effectual] 효과적인(19절) —
	: 효과적임, 유용함, 효능있는
	: [Blasphemed] 모독한(26절) —
	: 하나님과 성스러운 것들에 대해
	: 불경하게 말하다
	: [Recompense] 갚아 주리라(34절) —
	: 갚음, 보상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12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십이사도의 책임을 열거한다

교리와 성약 112편을 읽은 것을 근거로 (1) 십이사도 정원회와 (2)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의 책임을 열거한다. 각 책임에 대해 여러분이 찾은 성구를 적는다.

나 만일 ... 하면, 그러면 ... 하리라 (If ... , The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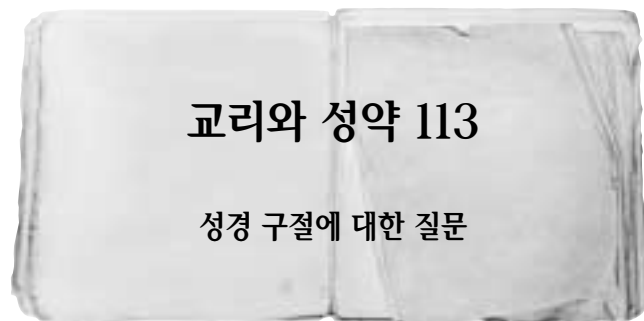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실 때,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함께 설명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중요한 일일] 행한다면, [받게 될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가 쉬울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같은 “만일 ... 하면, 그러면 ... 하리라”는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주의 깊게 경전을 보아야 한다.

교리와 성약 112편 3, 10절 및 21~22절을 공부하고, 여러분 자신의 표현으로 “너희가 ... 할 진대, 그러면 주님은 ... 하시리라”고 설명하는 세 개의 예문을 적어본다.

다 적용 방법

1. 교리와 성약 112편 20절에서 가르친 원리가 연차대회 말씀, 교회 잡지에 있는 총관리 역원의 메시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발표하신 공식 선언, 그리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책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2.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12편 24~26절에서 후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한다.
3. 24~26절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 30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13

성경 구절에 대한 질문

교리와 성약 113편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사야서의 일부 성구에 대해 문의한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실려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의 해당 성구 옆에 배운 내용을 기록해 두면 좋을 것이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13편

[Ensign] 기호(6절) — 사람들이 : [Bands] 줄(9~10절) — 묶는 줄
 집합하게 될 깃발 또는 기치 :

교리와 성약 113:1~6 — 즐기, 싹 및 뿌리

다음 그림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으로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질문한 이미지(형상)를 해설한 것이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13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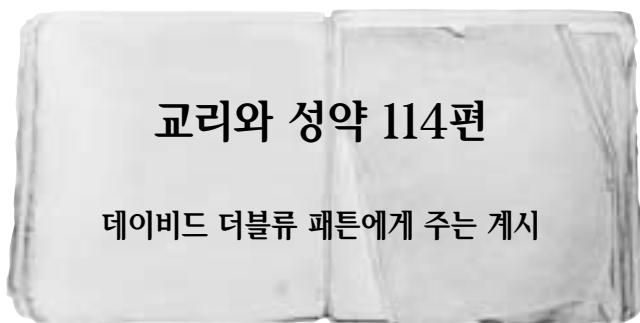
가 질의응답

1. 교리와 성약 113편에 있는 질문을 열거하고 주님의 답변을 요약한다.
2. 주님의 답변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교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11장 및 52장을 찾아볼 수 있다.)

나 중요한 단어와 구절을 찾음

교리와 성약 113편 7~10절에 있는 질의 응답은 후일에 있을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이 구절에서 논의된 개념을 열거한 내용이다. 노트에다, 각 개념과 더불어 그 개념에 대해 말해 주는 구절에서 단어나 구를 적어 넣는다.

1.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한 허락
2. 이스라엘 집안의 구성원
3. 사악함으로 빚어진 한계
4. 전세에서 예임됨



교리와 성약 114편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에게 주는 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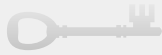
가족 중 한 사람이 선지자로부터 처음으로 선교사 부름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흥분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은 교리와 성약 114편에 있는 계시를 통해 봉사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선교사로서의 봉사를 이행하지 못했다. 부름을 받고 6개월이 지난 뒤, 그는 1838년 10월 25일 크록크 강 전투에서 죽었다. 이에 앞서 패튼 장로는 “주님께 순교자의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는 사실을 선지자에게 알렸다. 선지자는 이를 듣고 심히 감동하여 크나큰 슬픔을 표시하고 그(패튼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처럼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원가를 간구할 때, 대개 그 사람은 그것을 얻습니다.’” (Lycurgus A. Wilson, *Life of David W. Patten: The First Apostolic Martyr* [1900], 67)

성구를 이해함



교리와 성약 114편

[Disposition] 처분(1절) — 물건을 매각하거나 누구에게 물건을 보관하도록 주선함
 [Merchandise] 상품(1절) — 소유물
 [Planted] 심어(2절) — 배치를 받다, 위치를 정하다
 [Bishopric] 감독 직분(2절) — 관리 책임의 부름

교리와 성약 114:2 — “다른 사람들이 그들 대신에”

이 계시를 받을 당시, 많은 교회 회원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비난하였으며, 핍박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 중에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14편 2절을 통해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세월이 흐르면서 배도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돕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지명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기필코 완수될 것이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14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행해진 일을 설명함

주님은 교리와 성약 114편 1절을 통해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 장로에게 “그의 상품을 처분하도록” 요구하셨다. 이 같은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한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패튼 장로가 요구 받았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나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이 와드에 있는 17세 된 한 제사의 친구들이라고 가정한다.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수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교리와 성약 114편과 경전의 다른 구절에서 배운 것을 이용하여, 그가 내린 결정을 왜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다.



교리와 성약 115편

파웨스트의 성전

“복부 미주리 주의 성도들은 [1838년] 여름 내내 부지런히 곡물을 심고 통나무 집을 지음에 따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리라는 밝은 전망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잦은 군의 시민과 화해하여 그들의 중심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그라는 한편으로 그들은 당시 살던 곳에서 변역의 꽃을 피우고자 했다. 계시에 의해 파웨스트는 성전을 건립할 예정지로 알려졌으며(교리와 성약 115:7), 이듬 해 봄 십이사도 정원회는 영국으로 선교사 사업을 떠나기 전(교리와 성약 118:4)에 성전 부지를 헌납하려 하였다. 파웨스트에서 받은 계시를 통해 교회의 공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확인되었으며(교리와 성약 115:4), 지속적으로 교회에 재정적인 안정을 주고 회원들을 축복할 십일조 제도를 확립하였다.(교리와 성약 119, 120)” (in Daniel H. Ludlow, ed., *Encyclopedia of Mormonism*, 5 vols. [1922], 2:926)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15편

[Standard] 기(5절) — 깃발 또는 기치와 같은 상징
 [Refuge] 피난처(6절) — 대피소, 안전한 곳
 [Recommence] 다시 시작할지이다 (11절) — 다시 시작하다

교리와 성약 115:1 — 누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보좌들인가?

“1837년 9월 3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열린 한 대회에서 올리버 카우드리, 조셉 스미스 일세, 하이럼 스미스, 그리고 존 스미스가 보좌 보좌로 지지되었다. “그 때 교리와 성약 115편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오직 조셉 스미스 일세와 존 스미스만 보좌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1838년 4월 26일) 하이럼 스미스는 제일회장단의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의 자리를 이어받았고,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286쪽)

교리와 성약 115:14 —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성전이 건립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당시[1838년] 파웨스트에는 150채의 가옥이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상점과 훌륭한 학교 건물이 있었다. 대평원 한가운데 마술처럼 도시가 생겨났다. ...”



미주리 주 파웨스트

“1838년 7월 4일에 성전의 초석이 놓이게 되었으나 ... 박해의 폭풍이 기세를 발휘하면서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그 곳의 성도들은 다시 유랑의 신세가 되었다.” (Smith and Sjodahl,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742)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15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각 낱말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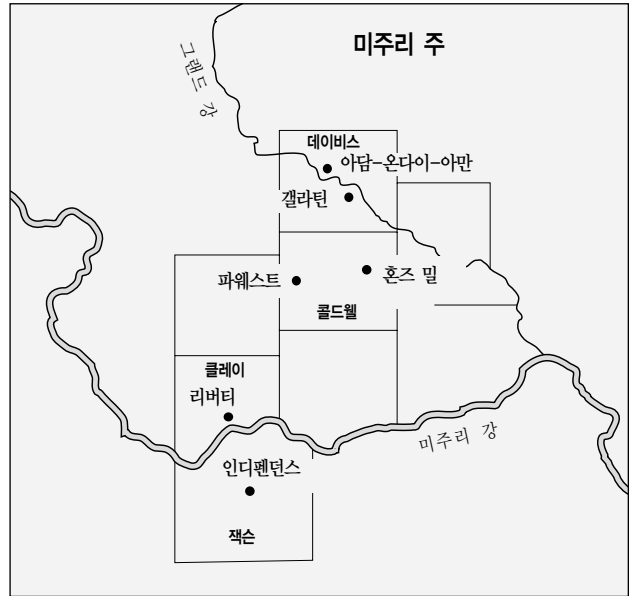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15편 4절에 명시된 교회의 정식 명칭의 각 단어를 생각해 본다. 공책에 단어 하나 하나가 지닌 중요한 의미와 각 단어가 교회에 대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한다.

나) 편지를 쓴다

친구 한 사람이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세상이 불안정하고 무서워지고 있다는 염려를 한다고 가정한다. 친구의 걱정을 이해하고 교리와 성약 115:4~6에서 배운 것을 이용하여 미래의 어려운 시기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친구에게 설명하는 편지를 공책에 적는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아담이 구주께서 재림을 대비해 나타나시어 참석하시게 될 성스러운 집회를 감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다니엘 7:9~14 참조) 교리와 성약 27편은 그 모임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116편에서 그 모임이 열리게 될 장소를 알게 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16편

[Ancient of Days]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1절) — 최초의 인간인 아담



교리와 성약 116:1 — “아담-온다이-아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쿱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아만은 아담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 하나이다. 순수한 아담의 언어에서 영어로 옮겨진 이름인 아담-온다이-아만은 계시를 통해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번역하지 못한 이름이다. 우리가 판단하건대, 아담-온다이-아만이 아담이 살았던 장소 또는 하나님의 땅을 의미한다는 견해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처음으로 이 이름을 사용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관계를 맺었던 초기의 형제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Mormon Doctrine*, 19~20)

교리와 성약 116:1 — “아담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심판의 날에 수천명, 수십만 명이 모이게 되는 아담의 자손들의 집합은 거친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최대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 대회 또는 평의회에서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가진 자는 모두 청지기 직분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아담 역시 그리 할 것이며, 그런 다음 그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을 넘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자기 자손을 다스리는 왕자로서의 부름과 확인을 받고 정식으로 이 직에 부름을 받아 영원히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왕 중 왕과 만군의 주로서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집합의 회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며, 대회에서 몇 차례의 회합이 열리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집합은 이 세상의 태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신권의 집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하게 되고, 재능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들이 받은 열쇠와 성역을 선포하며, 비유의 얘기처럼 청지기 직분에 대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것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의 열쇠를 지금까지 가졌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의로운 자들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악한 자의 심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각자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 완전한 보고가 있는 후 모든 열쇠와 권세가 정리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지상의 의로운 통치자로 정해질 것입니다. 대회에서 그분은 신권의 권리로 집합한 수많은 사람의 일치된 목소리에 의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이 멸망하는 큰 날에 앞서 일어날 것이며, 복천년 통치를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The Progress of Man, 3rd ed. [1944], 481~82; see also Bruce R. McConkie, The Millennial Messiah: The Second Coming of the Son of Man [1982], 578~588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16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기사를 쓴다

교리와 성약 27편 및 116편을 읽은 것을 근거로 아담-온다이-아만의 회의에서 보고 듣게 될 사실에 대한 기사를 쓴다. 필요한 경우 참고에 도움이 되도록 각주와 “경전을 이해함” 편을 이용한다.

교리와 성약 117편

“명실상부한 감독이 되라”

생을 마친 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한 기쁨”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계시에서 언급된 일부 형제들은 회개를 해야 했으나 형제 한 사람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칭찬을 받았다.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인 이들 각자에게 하신 말씀에 유의하면서 그 권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17편

[Tarry] 머물지(2~3절) — 지체하다, : [Moneychangers] 돈 바꾸는
순종하기를 기다리다 : 자들(16절) — 수수료를 받고 돈을
[Turned out for debts] 빚을 갚기 : 빌려주는 사람 또는 기업
(5절) — 빚을 갚기 위해 매각하다 :

교리와 성약 117:1~2 — 주님은 알고 계셨음

“주님은 성도들이 집합하여 속히 파웨스트시를 건설하라고 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115:17] 커틀랜드 진영으로 알려진 515명의 일행이 1838년 7월 6일에 커틀랜드를 떠나 시온으로 갔다. 9월 14일에 불과 260명의 대원만이 남고 나머지 대원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진영은 10월 4일 아담-온다이-아만에 도착하였다. 마크스, 휘트니 및 그랜저는 모두 이 일행의 대원이 아니었다. [올리버 그랜저는 벌써 파웨스트에 와 있었다. 그는 117편의 계시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윌리엄 마크스와 뉴얼 케이 휘트니에게 전하고, 속히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파웨스트의 조셉 스미스는 당시에 누가 시온으로 떠났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다.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 윌리엄 마크스와 뉴얼 케이 휘트니에게 시온으로 갈 것을 요구하시고, 성도들에게 커틀랜드의 재산에 관한 지시를 주셨다.” (Smith and Sjodahl,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744)



아담-온다이-아만에 있는 라이먼 화이트의 두 번째 오두막집

교리와 성약 117:8 — “올라하 시네하의 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올라하 시네하의 들, 곧 아담이 거주하였던 장소는 아담-온다이-아만의 일부이거나 부근에 있음에 틀림없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2:97)

교리와 성약 117:8 —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을 탐내어

“주님이 시온에 있는 성도들의 무리에 함류하라고 명하셨을 때 커틀랜드에 있는 그들의 재산에 집착한 자들은 가장 현명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제공하실 것에 비한다면 한 조각의 땅덩어리는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 더구나 주님이 그의 지혜로 그의 뜻에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땅이든 무엇이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도록 하실 수 없을 것인가? (마가복음 10:28~30 참조)”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289쪽)

교리와 성약 117:11 — 니골라당

니골라당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2장 6, 15절에 나온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사람들은 니골라당이 우상숭배의 관행을 초기 교회에 도입하려 하였다고 믿고 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가 기록하기를 니골라당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활하면서 교회의 신분을 유지하려 하였던 교회 회원들이었다고 하였다. ... 그들의 특별한 행위와 교리에 관계없이 니골라당의 명칭은 교회의 기록에 그들의 이름이 등재되기를 바라면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의 대의에 자신을 바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446)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17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주님께서 무엇을 제외하셨는가?

뉴욕 주를 떠나 오하이오 주로 가고, 다시 오하이오 주를 떠나 미주리 주로 가라는 요구를 받은 성도들의 경우처럼 여러분도 집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상상한다.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17편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 어떻게 하면 보다 용이하게 그와 같은 이동을 할 수 있을까?

나 소개문을 쓴다

1. 올리버 그랜저가 여러분의 와드 또는 지부의 젊은이들에게 말씀하러 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를 소개하러 한다고 가정한다. 교리와 성약 117편 12~16절을 이용하여 그를 위한 짤막한 소개문을 쓴다.
2. 12~16절을 다시 읽고 올리버 그랜저의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써 넣는다. 그러한 성구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생애에서 이루어야 할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개인 일지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 중 몇 가지를 적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18편

새로 부름받은 사도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1837년과 1838년에 커틀랜드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간증을 상실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에 부름 받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중 4명(윌리엄 이 매클렐른, 룩 존슨, 라이먼 존슨 및 존슨 보인틴)이 배도를 하여 파문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십이사도

정원회에 공석이 생겼으며, 이들을 채워야 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었다는 것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었는가? 우리는 압박과 어려움을 직면하고서도 변함없이 충실하였던 사람들을 우러러 존경해야 한다. 여러분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새로 부름 받은 사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 중 두 사람은 나중에 교회의 회장이 되었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18편

[Fallen] 떨어져 나간(1절) — 배도한 : [Promulgate] 선포하고(4절) — [Effectual] 효과적인(3절) — 효과적인 : 발표하다, 선언하다

교리와 성약 118:4 — 사도들은 다음 해 봄에 어디로 갈 예정이었는가?

교리와 성약 118:4에서 언급한 “큰 물”은 대서양을 말한다. 주님은 십이사도들에게 바다를 건너 영국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였다.

교리와 성약 118:5 — 사도들은 파웨스트로 돌아갔는가?



“미주리 주의 주민들은 주님께서 약 1년 후인 1839년 4월 26일에 모이라고 명하신 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심을 하고 십이사도의 사업을 방해하고 물문주의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계시를 받은 날과 지정된 날짜 사이의 기간 동안 ‘교회 전체가 미주리 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미주리 주에서 누군가 후기 성도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 그것은 마치 인간의 생명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특히 십이사도의 경우는 더했습니다. 계시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성전의 초석을 놓을 때가 되었을 때, 지사의 포고령에 따라 미주리 주에서 추방된 후 교회는 일리노이 주에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와 팔리 피 프랫은 예수에 대한 간증 때문에 미주리 주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성취해야 할 때가 가까워 오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십이사도는 4월 26일에 파웨스트에 모여 성전의 초석을 놓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주리 주의 주민들은 영원한 여러 신들의 이름을 걸고 조셉 스미스를 통해 전해진 기타 모든 계시가 성취된다 해도 초석을 놓는 일 만큼은 불가능할 것이며, 지정된 그 날에 초석을 놓는 일은 결코

성취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업을 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런 행위에 대한 그러한 뜻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Wilford Woodruff, in *Journal of Discourses*, 13:159)



“그러나 사도들은 명 받은 의무를 더 미룰 수 없게 되었다. 1839년 4월 25일 밤에 몇몇 사도들은 충실한 소수의 형제, 대제사, 장로, 그리고 제사들과 함께 파웨스트에 도착했다. 자정이 조금 지난 4월 26일 새벽에 그들은 파웨스트의 성전 부지에 모여 대회를 열었다.” (Smith,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96~197)

“브리검 영이 감리했으며 서기인 존 테일러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 평의회는 주님의 집의 건축 부지로 갔다.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십이사도 사명에 관한 찬송가를 불렀다.”

“주님의 집을 지을 명공인 알페우스 커틀러 장로는 남동쪽 모퉁이 부근에 커다란 돌을 굴러 계시에 합당하게 주님의 집의 기초를 놓을 것을 권하였다.”

“십이사도 중 참석한 사람은 브리검 영, 허버 시 김블, 올슨 프렛, 존 이 페이지 및 존 테일러였으며, 그들은 배도한 사람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윌포드 우드럽과 조지 에이 스미스를 성임하였다.” (*History of the Church*, 3:336~338)

“몇몇 사도가 기도를 드린 후에, 함께 ‘아담-온다이-아만’을 부르고 나서 사도들이 떠났다.”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292쪽)



존 테일러는 1836년에 침례 받았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충실하였다. 선지자가 순교 당하던 당시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카테지 감옥에 있었으며, 교회의 3대 회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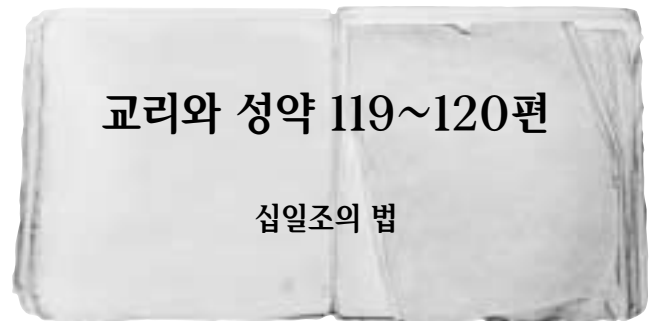
존 이 페이지는 1833년에 침례를 받았다. 그는 여러 차례 선교사로 봉사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나, 후에 배도하여 1846년에 파문되었다.



윌포드 우드럽은 1833년에 침례를 받았다. 그는 영국에 복음을 소개하는 일을 도왔으며, 8개월 사이에 1,8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는 교회의 4대 회장이 되었다.



윌라드 리차즈는 1836년에 침례를 받았다. 그는 사도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선지자가 순교 당하던 당시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카테지 감옥에 있었다. 그는 후에 브리검 영 회장의 보좌로 봉사하였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18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이유를 나열한다

교리와 성약 118편과 함께 “경전을 이해함” 편을 읽는다.

1. 사도들이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모이기 어려웠던 이유를 나열하고 그들이 파웨스트에 간 이유를 열거한다.
2.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18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그들이 용기를 내어 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나 방법을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118편에서 주님께서 효과적인 선교사의 특성으로 제시하신 것을 찾아본다.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선교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119~120편

십일조의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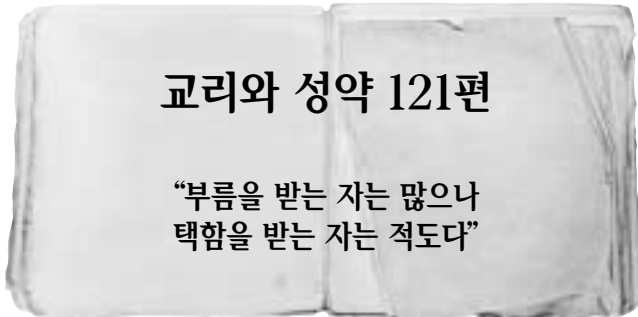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십일조의 율법이 도입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은 교회에 헌납의 법을 주셨으며, 회원들은 이 법에 따라 재산을 헌납하고 청지기 직분을 받아야 한다는, 어겨서는 안 되는 영원한 성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그것이 곧 해의 왕국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숙한 성약을 맺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어겨 그들의 머리와 형제 자매의 머리 위에 끔찍한 벌과 박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의 왕국의 법은 한동안 또는 시온이 구축될 때까지 철회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더리는 빛을 지고 있는 데다가 이를 상환할 방편이 없어서 심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1834년 7월 29일에 엄숙한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할 헌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 중 십분의 일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녀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법을 순종케 하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D.H.C., 2:174~175) 그러나 교회 전체가 이 율법을 받는 것이



교리와 성약 119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왜 십일조를 내는가?

1. 교리와 성약 119~20 및 “경전을 이해함” 편을 읽은 내용과 부모, 교사 및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을 토대로 교회의 십일조 사용 용도를 나열한다.
2. 십일조가 쓰이는 용도를 누가 정하는지를 설명한다.
3. 정직한 십일조를 냄으로써 받는 축복에 대한 두 번째 목록을 만든다.



교리와 성약 121편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여러분은 실망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있는가? 1838년 10월 27일에 미주리 주지사인 릴번 터블루 보그스는 악명 높은 몰몬 근절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몰몬은 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공공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근절되거나 주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in History of the Church, 3:175) 나흘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미주리 주민들에게 배신 당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교회의 회원이며 성도들을 보호할 것으로 여겨졌던 힐클 대령은 의용군 장교들이 지사로부터 받은 근절령을 시행할 필요 없이 쉽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와 기타 몇몇 사람들과 면담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해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즉각 이 요청을 수락하고 의용군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선지자와 그의 일행]은 시민 대 시민으로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대접을 받기는커녕 전쟁 포로로 체포되어 형언할 수 없는 경멸의 대접을 받았으며, 그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현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수 마일 밖에서도 들리는 천 여명 이상의 목소리가 내는 요란한 부르짖음과 고향 소리, 폭포처럼 우리에게 쏟아내는, 끔찍한 욕설이 가미된 위협과 저주는 아무리 강심장을 지닌 사람이라도 기절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몹서리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 우리는 보초들이 에워싸고 지켜보는 가운데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보초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

“의용군은 마을로 가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약탈하고, 무고하고 죄없는 주민들을 학대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헐벗게 만들었다.” (History of the Church, 3:188~191)



리버티 감옥

다음 수 주일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일행은 학대를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며, 강제로 추운 날씨에 먼 거리를 행군하게 되었다. 1838년 12월 1일 그들은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들은 유죄를 입증할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1839년 3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선지자 조셉은 모든 수감자의 서명이 들어 있는 긴 편지를 받아 적었다. (비록 선지자는 두 번째 컷은 첫번째 컷에 연결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두 개의 편지로 되어 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 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이제껏 쓰여진 편지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이다. 사실 그것은 겸손한 가운데서 받은 영감의 결과이다. 그것은 기도이며 예언이고 주님으로부터 계시에 의해 주어진 응답이었다. 그 편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쓸 수 있었다. 이런 컷[그들의 고통]들을 생각하면 선지자가 그의 영혼의 고뇌로부터 구출될 것을 부르짖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간구에서 그의 동료들을 위한 관용과 사랑의 영이 풍기었다.’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종교 324~325] 295~296쪽)”



교리와 성약 121~123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쓴 편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기록은 교리와 성약 1876년판에 최초로 포함되었다.



주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약사[1996], 51쪽)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21편

[Pavilion] 장막(1, 4절) — 천막 또는 차양
 [Penetrated] 파고들게(2절) — 간구를 듣다
 [Adversity] 역경(7절) — 시련, 고난
 [Hoar frost] 흰 서리(11절) — 흰 서리, 언 이슬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16절) — 봉사하도록 지명된
 [Severed] 단절되리라(19절) — 차단되다
 [Vipers] 독사(23절) — 독이 있는 뱀
 [Aspire] 갈망하여(35절) — 소망하다, 탐욕을 부리다
 [Gratify] 만족시키려(37절) — 충족시키다
 [Disposition] 기질(39절) — 경향
 [Unfeigned] 거짓 없는(41절) — 순수한, 진지한

[Guile] 간교함(42절) — 기만
 [Reproving] 꾸짖음(43절) — 친절한 의도로 점잖게 시정하다
 [Betimes] 제때에(43절) — 일찍이, 신속하게
 [Sharpness] 날카롭게(43절) — 명료함
 [Esteem] 여기지(43절) — 간주하다, 여기다
 [Bowels] 가슴(45절) — 마음(경전에서 가슴은 이때쯤 사람의 감정의 중심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된다)
 [Garnish] 장식하라(45절) — 아름답게 하다, 장식하다
 [Distil] 적시리라(45절) — 조금씩 내리다
 [Scepter] 홀(46절) — 막대기, 권위의 상징

교리와 성약 121:3 — “부당한 처사”란 무엇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기타 교회 지도자들이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과의 교리와 성약 121편 소개 편 참조, “8,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릴번 더블류 보그스 지사가 발한] 근절령을 벗어나기 위해 미주리를 가로질러 동쪽의 일리노이 주로 갔다. 그들은 한겨울에 떠나도록 강요받았다. 그래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브리검 영이 성도들을 지휘하며 가능한 모든 도움을

교리와 성약 121:7 — 역경의 이점

“사람은 생애에서 당면하는 역경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생애 동안 고통과 고뇌를 겪고 용기를 갖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는 연단하는 자의 불을 통과하며, 우리의 생애에서 무가치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은 불순물과 같이 녹여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훌륭하고 완전하며 굳건하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룩한 형상은 영혼으로부터 반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바쳐야 할 희생의 일부입니다. 삶의 시련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성스런 목자인 주님의 고요한 속삭임에 귀를 더 잘 기울이게 됩니다.’” (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83쪽)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이 주님의 벌이라고 잘못 믿기도 하나, 고통의 원인과 고통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의 결과로 또는 우리의 부주의나 범법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큰 시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84쪽) 그와는 달리, 고통 중에는 질병과 기능 장애 등 육신의 약함과 부정함에서 오는 것도 있다. 그러나 또 사악한 자가 그들의 선택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가운데 선택한 수단에도 그 원인이 있다. ...”

“... 조셉 스미스가 겪은 투옥과 기타 가혹한 불법 행위에 대해 브리검 영 회장은 선지자는 그가 겪은 가혹한 시련으로 인해 38년 동안에 시련을 겪지 않고 천 년을 산 것보다 더 완전하게 발전했다고 말씀했다.”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296쪽)

교리와 성약 121:34~36 — 부름을 받는 자와 택함을 받는 자

해롤드 비 리 회장은 교리와 성약 121:34의 앞 부분을 인용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 성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지상에서 선택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준비한 것보다 더 높은 직분에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예입되었던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에서는 고귀하고 위대한 영으로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 지상에서 그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74년 6월호, 34쪽)

교리와 성약 121:38 — “가시채를 뒷발질하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시 또는 몰이용 막대기는 쇠를 입힌 뾰족한 막대기로서 가축을 모는 데

사용된다. 복음의 의미로 “가시체를 뒷받질하며”는 우리가 의로운 방향으로 진보하도록 권하는 하나님의 계명, 또는 영적인 느낌을 물리치거나 반항하는 것을 말한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21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선지자를 위한 위로의 말씀

1.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 121편 1~3절에서 주님께 드린 질문을 여러분 자신의 표현으로 적는다.
2. 선지자가 성도들에 대해 큰 슬픔을 느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이었나? (필요하다면, 이 과의 교리와 성약 121편의 소개와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하여 도움을 얻는다)
3. 7~10절을 통해 선지자를 위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자신의 표현으로 적는다.
4. 7~10절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직면해야 할 시련과 어려움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 결과를 설명함

때로는 사악한 자들이 충실한 자를 핍박한 것으로 인하여 외견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121편 11~25절을 읽고,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과 대적하여 싸운 자에게 일어날 결과를 설명한다. 특히 다음의 낱말과 구절이 여러분의 답변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눈멀게 하였음, “남김없이 임하게,” 쓸어버림을 당하게, 단절되리라, 멸시받으리라, 신권, 맺들.



주님의 종을 핍박하는 자들은 “연자 맺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왔으리라.” (교리와 성약 1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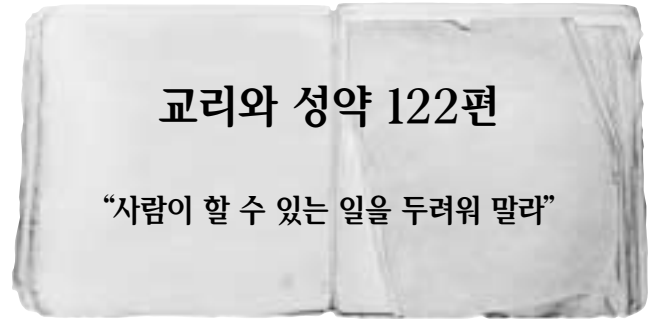
다 약속을 헤아림

주님은 교리와 성약 121편 26~33절을 통해 충실한 자가 받게 될 축복을 약속하셨다. 경전 구절에서 축복의 수를 헤아려 보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에 대해 적는다.

라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121:34~36

교리와 성약 121편 34~46절은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신권 소유자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한다. 이 성구들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신권의 권리”와 “하늘의 권능”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3. 하늘의 권능은 어떤 원칙에 따라 통제를 받는가?
4. 신권 소유자는 어떤 원인에 의해 신권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가?
5. 의로운 신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6.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따금 느끼듯이, 인생은 공정치 않으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121~123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일행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또는 재판도 없이, 4개월 동안 리버티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다. 교리와 성약 122편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게 한 이유를 지적한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22편

[Derision] 조롱(1절) — 조롱, 경멸	∴ [Gape open the mouth wide after
[Perils] 위험(5절) — 위험	∴ thee]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Billowing surge] 몰아치는 큰 파도(7절) — 바다의 커다란 파도	∴ 벌려(7절) — 너를 잡기 위해 크게
[Hedge up] 가로막을지라도(7절) — 봉쇄하다	∴ 벌리다
	∴ [Bounds] 한계(9절) — 한계

교리와 성약 122:7 — 역경과 고통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시험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혹한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친히 산에서, 깃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유혹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마태복음 4:11) 들었던 사실에서 이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때때로 여러분이 한창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J. Williams [1996], 192; 교리와 성약 121:7의 “경전을 이해함” 편 138쪽 참조)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22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시련을 받고 있을 때 도움을 구함

1.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 상심하게 될 때, 이따금 하늘을 우러러 보며 이렇게 묻는다. “하필이면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교리와 성약 121:2~3을 복습하면서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라는 원망 대신에 그가 문의한 질문을 나열한다.
2. 선지자가 그와 교회 회원들이 그러한 시련을 견뎌야 하는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그에게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셨다. 교리와 성약 122편 5~9절을 근거로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요약한다.
3. 교리와 성약 122편에서 감명을 준 것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적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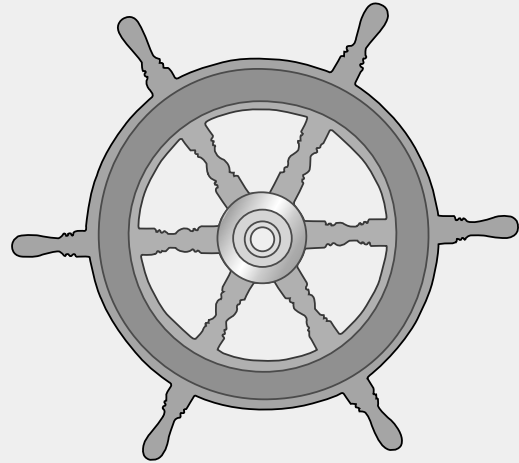


최후의 심판에서 온 인류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요한계시록 20:12) 것이다. 교리와 성약 123편을 공부하면서 심판 때에 사용될 수 있는 일부 기록에 대해 배울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이 최후의 심판에 앞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알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23편

[Propriety] 타당한(1절) — 올바름, 적절함	· [Nefarious and murderous impositions] 무도한 살인 행위(5절) — 사악한 살인 행위
[Affidavits] 선서 공술서(4절) — 선서를 하고 구술한 진실에 대한 기록된 증언	· [Enjoined on us] 우리에게 분부하신(6절) — 우리에게 요구하다
[Libelous] 중상모략하는(4~5절) — 거짓되고 상처를 입히는	· [Imperative] 의무(7, 9, 11절) — 필수적인 것
[Concatenation of diabolical rascality] 일련의 극악한 만행(5절) — 사악한 거짓의 모음	· [Riveted] 박았고(7절) — 고정시키다, 움직일 수 없게 하다
	· [Futurity] 장래(15절) — 미래
	· [Helm] 키(16절) — 배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



“지극히 큰 배도 폭풍이 일 때에는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진로를 유지함으로써 심히 큰 도움을 받는도다.” (교리와 성약 123:16)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23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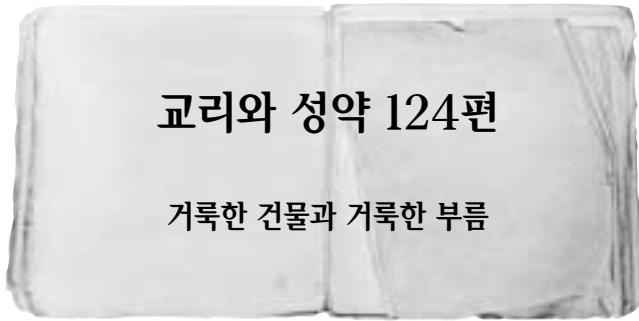
1. 여러분이 1839년 당시 교회 회원이라면, 123편 1~5절에 있는 주님의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2. 5~15절에서 배운 것을 근거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나열한다.
3. 교회의 미래 세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기록은 어떤 것인가?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의 교회

“성도들은 미주리 주에서 당한 핍박으로 인해 북동쪽으로 322km를 돌아다니던 끝에 미주리강을 건너 일리노이 주로 갔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보다 유리한 여건을 찾게 되었다. 결국 성도들은 미개발된 커머스 시 부근에 땅을 샀다. 이 땅은 사실상 늪으로 된 허허 벌판이었으며, 건물도 조잡하고, 그나마 몇 채 되지도 않았다. 성도들은 땅에서 물을 빼내고 집을 지었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가족을 작은 통나무집으로 이주시켰다. 커머스 시는 후에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이라는 뜻 가진 나부 시로 바뀌게 되었다.” (경전 안내서, “나부, 일리노이 주(미국)”, 44~45쪽)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나부에서 그 곳에 성전을 지으라는 계명(교리와 성약 124:26~27 참조)을 비롯하여 교리와 성약 여러 편(교리와 성약 124~129, 132)을 기록하였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존 테일러 장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인 하이럼의 순교에 대해 목격한 것을 문서로 기록한 것도 바로 나부시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교리와 성약 135 참조)

성도들은 1846년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나부 성전을 짓고, 시온의 와드와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으며,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시작하였다. 핍박이 심해지자, 브리검 영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그 지역을 떠나 서쪽으로 향하였다.



교리와 성약 124편

거룩한 건물과 거룩한 부름

일리노이 주 나부 시에서 교회의 초창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세부 사항이 많이 있었다. 교리와 성약 124편에는 두 채의 중요한 건물과 각 개인에게 주어야 할 수많은 부름에 대한 지시가 실려 있다.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성전과 성전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찾아본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직접 관계되는 실질적인 지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는가? 그분은 오늘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24편

- | | |
|---|--|
| [Proclamation] 선포(2절) — 공식적인 발표 | [Integrity] 고결(15절) — 충실함, 정직, 선함 |
| [Befall] 닥칠(5절) — 일어나다 | [Guile] 간사함(20절) — 기만이 가득함 |
| [Day of visitation] 징벌의 날(8, 10절)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 [Antiquities] 골동품(26절) — 귀중한 옛 소유물, 조상 전래의 가재 도구 |

- | | |
|--|--|
| [Refuge] 피난처(36절) — 피난 장소, 안전한 장소 | [Stock] 주식(63절) — 투자, 회사 가치의 몫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한 금전 |
| [Memorials] 정성의 표시(39절) — 기록, 등록 | [Essaying] 힘써(85) — 모색하다, 시도하다, 해보다 |
| [Oracles] 계시(39, 126절) — 계시 | [Redound to] 높이다(87절) — 기여하다 |
| [Statues] 규례(39절) — 율법 | [New Translation] 새 번역(89절) — 성경의 조셉 스미스 역 |
| [Deign] 생각하고 있음이나라(41절) — 적절하다고 여기다 | [Abase] 낮출지어다(114절) — 겸손하게 하다 |
| [Consolation] 위로(53절) — 위안 | [Recompense] 보수(121절) — 대금 |
| [Plants of renown] 유명한 수목(61절) — 교회 지도자들 | 지불, 보상 |
| [Constitution] 정관(63절) — 기본 규칙 또는 규정 | |

교리와 성약 124:2 —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질”

주님은 일리노이 주 나부 시에 교회의 스테이크를 세워 “시온의 모퉁잇돌”이 되게 하며, 궁전처럼 아름답게 하라고 명하였다. 주님은 그분의 충실한 성도들을 모으실 때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고 그들에게 명하였다. (교리와 성약 115:5)

교리와 성약 124:2~6 — “모든 국민에게 ... 엄숙하게 선포하라”

“주님의 이 지시는 1854년에 이르러야 성취되었다. 이 문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발표할 때까지 상황은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304)

교리와 성약 124:6 — 시온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 계시를 받은 1841년에 이 아름다운 도시에는 약 3,000명의 주민이 있었다. 일리노이 주 입법부는 헌장을 발표하였는데, 나부 시는 그 헌장에 의거하여 자유 시 정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의용군을 편성하고, 대학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거기에 성전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흠어진 성도들이 집합하고 있었으며, 일리노이 주의 정착촌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영국의 선교 사업도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 계시를 받은 당시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었다. 교회는 잠시 안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다.” (Smith and Sjodahl,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768)

교리와 성약 124:19, 130 — “데이비드 패튼을 내가 나에게로 데려왔느니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은 1838년 10월 25일 미주리 주 크록크 강 전투에서 사망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허버 시 김볼 장로는 패튼 장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갔다. 김볼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전에 그에게 것처럼 소중했던 복음 원칙은 세상과 작별을 고하는 시간에도 영예롭게 지켜져 이별의 시간에 그에게 힘과 위안을 주었으며,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없애 주었다. 그는 견고하지 못하여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외쳤다. ‘오 그 사람들이 나처럼 했었더라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이 놓여 있노라!’”

“그는 자신이 임종하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그를 돌보아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건, 부디 믿음만은 부인하지 마시오!” (in “History of Brigham Young,” *Millennial Star*, 1864년 7월 16일, 454~455)

교리와 성약 124:22~24, 56~83, 119~121 — 나부 하우스



“선지자는 일종의 호텔인 나부 하우스의 건축을 성전의 건축만큼이나 시급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나부 하우스를 성도들이 ‘부유하고 기품 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841년 10월 2일에 건물의 초석이 놓여졌으며, 몰몬경의 원래 원고 등을 포함하여 여러 귀중한 기록들을 그 곳에 묻었다. 지도자들은 설교를 통해 호텔에서 일하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재정과 노동력이 빈약하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1844년 3월에 조셉 스미스는 성전 건축을 보다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속속의 건축을 연기하였다.”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243)

교리와 성약 124:25~36 —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복사 업로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43년에 행한 말씀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비롯하여 성전과 성전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신권의 원칙과 율법을 세상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백성의 집합에 근거를 두어 마련토록 한 것은 세상이 놓이기 전에 천국 회의에서 마련된 계획이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집합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셨으나, 그들은 집합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셨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창세 이전에 천국에서 제정된 신권의 의식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만인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분의 백성을 집합시켜, 여러 의식과 엔다우먼트, 씻음 및 기름부음 등을 대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님의 집을 짓고자 하신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목적 때문이다. 주님의 집에서 거행되는 여러 의식 중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이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주님의 집에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준비된 침례반에서 그 의식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셨다.” (*History of the Church*, 5:423~424)

현대의 경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처음 언급된 것은 교리와 성약 124편 29~36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가르침은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1840년 10월자로 된 십이사도 정원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교리를 여러분이 이미 들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모든 것을 이 편지로 다 말해 줄 수는 없으나, 이 교리는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 이미 실시되었던 의식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29]

“내가 이 교리를 공공연하게 처음으로 밝힌 것은 [1840년 8월 15일] 시모어 브라운 형제의 장례식 설교에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주제에 관해 교회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임명된 자들의 도움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죽은 친척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능히 죽은 자의 침례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경전과의 일치성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대함을 그 어떤 사람들의 사상보다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History of the Church*, 4:231)

“위의 계시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은 주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 성전 밖에서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 하에서만 수락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나부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이 의식을 미시시피 강에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선지자는 1841년 10월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나부 성전의 침례반이 완공될 때까지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침례반은 11월에 완성되었으며, 그 달 21일에 침례가 다시 시작되었다.(교리와 성약 124:27~30 참조)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307쪽)

교리와 성약 124:28 — 28절에서 언급된 ‘신권의 충만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고든 비 힐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외에도, 주님이 십이사도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성신권의 열쇠로서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독특하고 훌륭한 의식들을 포함하여 많은 축복들이 더해집니다.

그러한 의식 안에서만 ‘신권의 충만한 것’(교리와 성약 124:28)의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61쪽)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남성도 그 곁에 여성이 없이는 신권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131:1~3 참조] 다시 말하면 자매님이 그 성스런 곳에서 바로 형제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매님은 형제님이 받는 모든 것들을 공유합니다. 물론 형제와 자매는 각각 개별적으로 엔다우먼트에 포함된 의식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곁에 없으시는 형제님 혼자 최고 높은 의식, 즉 인봉 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73쪽)

교리와 성약 124:87~91, 97~102 — 윌리엄 로

윌리엄 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제2보좌로 부름을 받고 기타 소수의 사람만이 약속받은 축복과 은사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충실하지 못하였고, 1844년 4월 18일에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행동”으로 파문을 당하였다. (History of the Church, 6:341) “윌리엄 로는 조셉의 보좌이기는 하지만 조셉의 절친지 원수요, 비방자임이 밝혀졌다. … 그는 일부 미주리 사람들과 공모하여 조셉 스미스의 생명을 앗아가기로 했다는 것이 후에 밝혀졌다. … 그러나 그는 마음 속으로 살의를 품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예절이 바르고 온유하였다. 기만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in History of the Church, 7:57)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24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마를 한다.

가 성전의 목적을 찾아본다

1. 교리와 성약 124편 25~41절을 읽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성전 건축의 이유를 나열한다.
2. 나열한 이유 중 두 가지를 택하여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말한다. 이를테면 성전 의식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말한다.

나 결과를 설명한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24편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중요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지자 조셉에게 말씀하셨다.

1. 교리와 성약 124편 42~48절에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주님께서 ‘만일’이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열한다.
2. 42~48절에서 배운 것을 “만일~그렇다면”의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한다. 하나의 문장으로는 순종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설명하고, 나머지 다른 문장으로는 불순종으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를 설명한다.

다 원리를 설명함

니파이전서 3장 7절에서 니파이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신앙을 보였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24편 49~54절에서 성도들이 그분께서 요구하신 것을 충실히 행하려 하였지만 완수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셨다. 이 두 가지의 성구를 비교하고 그것이 가르치는 순종의 원리를 설명한다.

라 하이럼 스미스의 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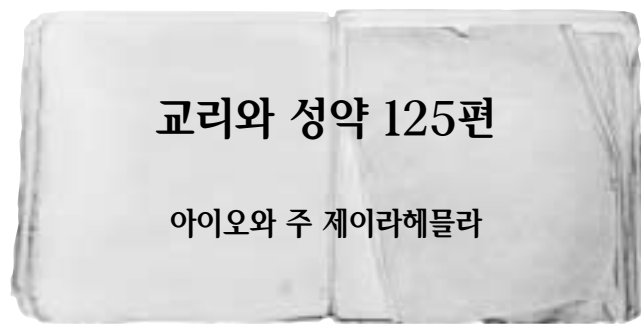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24편 91~96절은 하이럼 스미스의 부름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1. 하이럼 스미스의 의무와 책임을 나열한다.
2. 그는 누구를 대신하여 새로운 부름을 받았는가?

마 지도자들을 확인함

교리와 성약 124편 124~144절을 찾아 다음 신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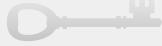
1. 축복사
2. 교회 회장
3. 제일회장단 보좌
4.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5.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 고등 평의원
6. 대제사 회장
7. 장로 정원회 회장단
8. 칠십인 회장단
9. 감독단



아이오와 주의 한 도시가 어떻게 해서 물문경의 제이라헤물라의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도시의 위치는 어디이며, 주님은 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미주리 주에서 쫓겨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리노이 주에서 안식처를 찾았다. 그 중 일부는 나무에서 미시시피강 건너 편 아이오와 주에 정착하였다.” 이 계시[교리와 성약 125]는 그러한 이동에 대하여 가르친 것인데, 그들이 아이오와 주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일리노이 주 방면으로 모여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다. 성도들이 아이오와 주에 거주하도록 처음으로 제안한 자는 아이작 깬랜드 박사인데 그 사람은 나무 시가 건설되었던 그 땅을 팔았던 사람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캘런드씨가 데이비드 터블류 로저스에게 한 편지에서 성도들이 아이오와에 거주하기를 제안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로 그들이 “살인, 약탈, 강도가 자행되고, 몹시 악한 자들까지도 때로는 고위 관리자의 위치에 오르는” 연방 주 정부보다 미 합중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것이 폭도들로부터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직 주로 승인되지 않은 아이오와 주에 거주하도록 제안했다. 그는 또한 아이오와 주지사 로버트 루카스에게도 편지를 했는데 루카스는 오하이오의 “물문”을 잘 알고 있었으며, 물문들을 훌륭한 시민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이다. (Essentials in Church History, 220쪽)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311쪽)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25편

[Territory] 준주(1절) — 아직 추가 : [Essaying] 힘쓰고(2절) — 기도하다, 되지 못한 미국의 일부 : 해보다

교리와 성약 125:3~4 — 제이라헤들라와 나스빌

미주리에서 피신한 성도들 중 일부는 미시시피강 서쪽 아이오와 몬트로즈와 나스빌 마을 주위에 정착하였다. 교회는 그 지역에서 약 8,094 헥타르의 땅을 매입하였으며, 주님은 제이라헤들라라는 도시를 건설하도록 명하셨다. 성도들이 1839년에 도착하였을 때, 이들 마을이 자리잡은 아이오와 주 리 카운티의 인구는 2,839명이었다. 1846년이 되어 인구는 12,869명으로 늘어났다. 1846년 성도들이 서쪽으로 떠났을 때, 이들 정착촌은 버려졌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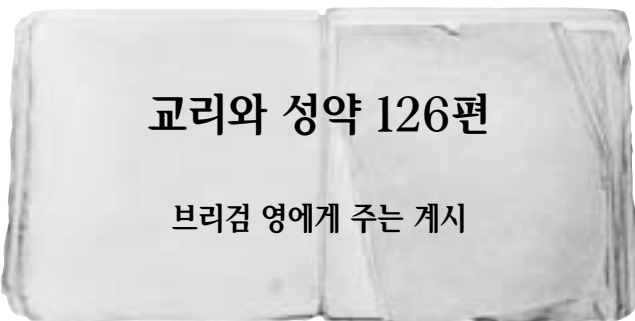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25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지도를 그림

교리와 성약 125편의 내용과 합본(영문) 뒤에 있는 지도를 이용하여 미주리 주 잭슨군, 일리노이 주 나부 시, 아이오와 주 몬트로즈를 나타내는 지도를 공책에 그린다. 성도들은 미주리 주에서 나부와 몬트로즈 지역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 하였는가?



교리와 성약 126편

브리검 영에게 주는 계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여름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브리검 영은 1832년에 침례를 받은 이후 영국에서 1년간 봉사한 것을 비롯하여 1841년까지 여러 차례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교리와

성약 126편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미래의 선교 사업에 대해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영 회장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을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26편

[Toil] 수고(2절) — 고투, 노력

교리와 성약 126:1 — “요구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브리검 영에게 다시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몇 차례 단기간의 선교 사업을 하였다. 배도를 한 존 시 베네트가 교회에 대해 거짓을 퍼뜨리고 다닐 때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영 회장은 사람들을 만나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 여행했다. 그는 또한 나부 성전의 기금을 모금하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미합중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여행을 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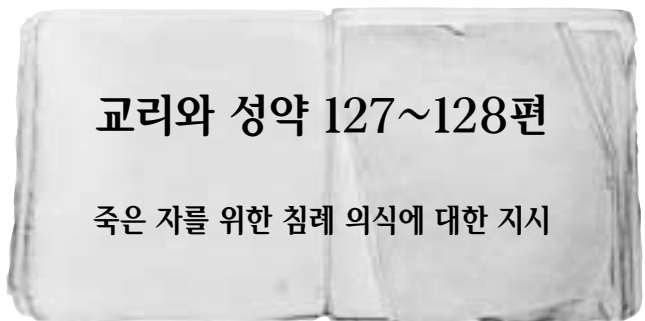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26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구절을 설명함

1. 주님은 교리와 성약 126편 1절에서 브리검 영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계시를 통해 배운 것을 근거로 하여, 주님께서 브리검 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이 성구는 여러분이 교회의 부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교리와 성약 127~128편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에 대한 지시

교리와 성약 127편과 128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기록된 것이다. 그는 적들의 무자비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은신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때가 바로 영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기였다.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서 밝혀졌던 것들을 빛 가운데로 다시 드러낼 것이며, 과거에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밝혀 줄 것이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81)라고 말했다.

127편과 128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일리노이 주 나부 시의 교회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이다. 이 서한은 그가 적들을 피하기 위해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쓴 것들이다. 그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에 대해 가르침을

주었는데, 이 의식에 관해서는 선지자가 1840년에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교리와 성약 124:25~36의 “경전을 이해함” 편 참조, 142쪽) 교리와 성약 127~128편을 공부하면서 선지자가 숨어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점에 대해 선지자 자신은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아본다.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교리를 더 잘 알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했는지 상상해 본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교리를 계시로 주셨다.

유타 개척자 빌름의 국제단체



황폐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2:1~3 참조)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행하여진 모든 사업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사명은 이 세상에 대하여 대단한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의 인봉과 부모와 자녀와의 인봉의 문제까지 포함되어, 태초로부터 끝날까지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통합과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이 결합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28:18]

“이 인봉의 권능이 지상에 없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혼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무질서가 질서를 대신하게 될 것이나, 인봉의 권능이 있음으로 해서 만사가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율법으로 다스려지고 통제되므로 이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땅이 황폐해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를 이어주는 결봉의 사슬, 곧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버림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서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 2:108~109)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27편

[Pretensions] 주장(1절) — 주장	...	[Metē] 재어(3절) — 측정하다
[Transact] 처리할(1절) — 주선하다, 행하다	...	[Recompense] 보응(3절) — 대가 지불하다
[Wont] 익숙해진(2절) — 익숙한	...	[Archives] 기록 보관소(9절) — 기록 보관 구역, 도서관

교리와 성약 128편

[Certify] 확인하노라(2절) — 확인하다	...	[Summum bonum] 최고의 선(11절) — 최고의 선
[Obviate] 피하기(3절) — 피하다, 예방하다	...	[Similitude] 닮은 것(13절) — 닮음
[Contemplating] 깊이 생각하고(6절) — 고려하다	...	[The first man] 첫 사람(14절) — 아담
[In their own propria persona] 친히(8절) — 친히	...	[Consolation] 위안(21절) — 위로
[Annulled] 폐지될(9절) — 뒤집어 엎다, 역전시키다	...	[Anthem] 찬양(22절) — 찬송가
[Precedent] 선례(10절) — 기존 관행, 보기	...	[Fuller's soap] 표백하는 자의 잣물(24절) — 표백을 위해 사용되는 강한 비누
	...	[Purge] 연단하여(24절) — 제련하다

교리와 성약 128:16~18 —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사 영감 © IRI

죽은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위해 성전의 다른 의식을 행할 수 있다. 이 모든 의식은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만일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주께서 오실 때에는 온 땅이 완전히

교리와 성약 128:24 — 레위의 아들들과 저들이 주님께 바치는 제물

“역사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을 포함한 레위의 아들들은(출애굽기 6:16, 18, 20 참조)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였으며,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출애굽기 25~28; 민수기 8:24~26; 10:21 참조) 오늘날의 레위의 아들은 주님께 의해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들이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 (교리와 성약 84:31~33) 질 것이다. 그들은 각각 ‘예비적 복음의 열쇠’ (교리와 성약 84:26~27)를 지닐 책임이 있고, ‘대신권 과 그 의식(성전 사업)을 집행할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 (교리와 성약 84:19~21) 날 것이다. 만약에 오늘날 주님의 종들이 이 성스런 청지기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교리와 성약 84:34)가 될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이 성스런 의식에서 의로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 그들은 시온산의 구원자가 된다. 봉사를 통하여 그들이 드리는 희생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을 포함한 레위의 자손들이 바치는 ‘의로운 헌물’이 될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님께 바쳐질 것이다.”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319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27~128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바 중 네 가지를 한다.

가 신문 기사를 작성함

여러분이 1842년도의 신문 기자이며, 인터뷰를 위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은신처에 있다고 상상한다. 교리와 성약 127편 1~3절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 선지자가 은신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그가 느꼈을 느낌에 대한 간략한 신문 기사를 작성한다.

나 책임을 열거함

교리와 성약 127:5~10과 128:1~5에서 배운 것을 근거로 하여, 성전 기록

서기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열거한다.

다) 답변을 작성함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성전과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해 얘기를 들은 친구가 있다고 가정한다. 여러분의 친구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란 무엇이며 그것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 127편과 128편에서 배운 것을 근거로 그러한 질문에 답변을 한다. 답변에서 반드시 권능의 중요성, 인봉의 권능 및 연결하는 줄, 영원한 가족, 및 엘리야를 얘기하도록 한다.

라) 열거하고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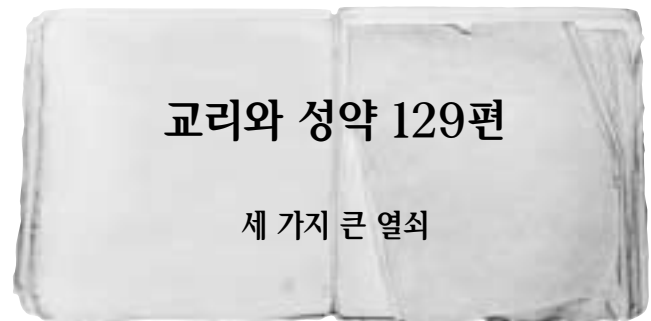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28편 20~21절을 복습하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언급한 하늘의 사자를 열거한다. 그가 복음을 회복하는 동안 계속해서 계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마) 포스터를 만든다

1. 당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그가 교리와 성약 128편 22절을 쓴 것에 대해 어떤 감명을 받았는가?
2.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과 복음에 대한 그의 열의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만든다.

바) 성구를 비교함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13편 1절에서 “레위의 아들들”이 후일에 바치게 될 제물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13편 1절의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 26쪽) 이 구절에서 배운 것을 교리와 성약 128편 24절과 비교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하면 예언된 제물이 이루어질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129편

세 가지 큰 열쇠

여러분은 천사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천사는 누구인가?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29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세 가지 큰 열쇠”(9절) 또는 하늘의 사자를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을 전해 주셨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29편

[Just men made perfect] 완전하게 된 : [Contrary to] 어긋남(7절) — 에 의인(3절) —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 반대하여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 : [Order] 질서(7절) — 규칙

교리와 성약 129:1 — 천사와 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로 칭할 수 있으나 교리와 성약 129편의 천사라는 용어는 “부활한 자로서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영들이란 아직 이 지상에 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사망하여 그들의 육과 영이 분리되어 육신이 없는 자들이다.”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320쪽)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나부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에 내린 지시에서 “천사와 성역을 베푸는 영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전자는 부활되었거나 승천된 몸을 입은 영으로서 육체를 입은 자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후자는 몸이 없는 영으로서 육체를 얻지 못한 영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육체가 무덤에 있을 동안) 영육에 가서 그의 사명 중의 일부를 수행했다. 이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구속 사업은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며, 그는 안식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천사[부활된 존재]로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320쪽; 또한 베드로전서 3:18~20 참조)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29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 129편에서 계시로 전한 “세 가지 큰 열쇠”를 나열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이거나 영인지, 아니면 악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는가?
교리와 성약 130편은 교리에 관해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모아 놓은 것이다.
각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주제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30편

[Sociality] 사귀(2절) — 사회적인 질서	∴ [Irrevocably] 변경될 수 없게
[Sectarian notion] 종파적 관념(3절)	∴ 선포된(20절) — 변경될 수 없게
— 다른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	∴ 정하고 만들다
[Reckoning] 계산(4절) — 계산	∴ [Predicated] 근거를 두나니(20~21절)
[Commencement] 시작(12절) — 시작	∴ ~을 기초로 하여
[Suffice] 만족하고(15절) — 충분하다	∴

교리와 성약 130:8~10 — “우림과 둠뭉”은 무엇인가?

경전 안내서의 “우림과 둠뭉”(224쪽)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30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세 가지를 한다.

가 퀴즈를 만든다

교리와 성약 130편에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가르침과 답이 수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여덟 가지 문제를 적되, 다음 성구 블록에서 각각 한 가지 문제씩 내도록 한다. 1~3, 4~7, 8~9, 12~17, 18~19, 20~21, 22~23. 각 질문 뒤에 답을 적어 둔다.

나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130: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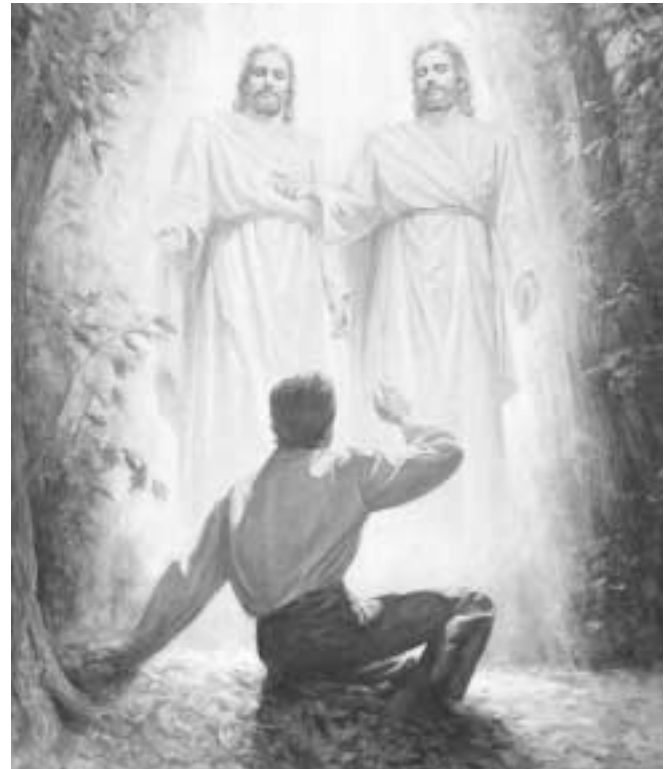
노트 한 페이지의 중간에다 아래로 선을 긋는다. 왼쪽에는 인생에서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둘러 쌓인 사람의 그림을 그린다. 오른쪽에는,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적거나 그린다. 교리와 성약 130편 18~19절을 이용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서, 다음 세상에서도 소중한 것을 나타내는 그림에 제목을 붙이거나 슬로건을 만든다.

다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130:18~19

교리와 성약 130편 20~21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축복을 받는 것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어떤 계명들에는 지혜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약속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기타 계명들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보다는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8 참조) 세 개의 다른 계명과 각 계명에 약속된 축복을 열거한다. 약속들이 구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인지를 표시한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것을 여러분의 부모나 교회 지도자와 토론한다.

라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130:22~23

교리와 성약 130편 22~23절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오래 된 교회 회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교리는 대부분의 다른 기독교의 믿음과는 다르다. 신화의 참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생활의 세 가지 면, 즉 생각, 행동 및 기도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열거하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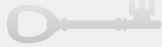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31~132편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진리는 회복된 가장 위대한 계시 중 하나다. 해의 왕국의 결혼과 영원한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해의 왕국의 결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약속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의 영광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약속보다 더 훌륭한 약속이 있는가?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31편

[He cannot have an increase]
그는 증식할 수 없느니라(4절) —
그는 영원한 세상에서 발전할 수 없거나 자녀를 가질 수 없다.

교리와 성약 131:1 — 해의 왕국의 세 가지 등급이란 무엇인가?

“주님은 해의 왕국의 세 가지 등급 중 두 곳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 대하여는 교회에 계시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추측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높은 등급의 해의 왕국 곧 승영에 대하여는 많은 것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그 곳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모든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교리와 성약 76편 50~70절에서 주님은 해의 왕국의 높은 등급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셨다.”(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325)

교리와 성약 131:1~4 —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의 성약”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들,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성전에서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은 사람들만이 해의 왕국에서 승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in Conference Report, 1973년 10월, 120; or Ensign, 1974년 1월, 100)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의 집에서의 가장 높은 의식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등하게 받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사랑하는 아내 덴첼과 제가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했던 때였습니다. 아내가 없다면 저는 신권의 가장 높고 가장 영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우리의 훌륭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될 수도, 귀한 우리 손자들에게 할아버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7쪽)

교리와 성약 131:5 —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란 자신의 부름과 택함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신권의 축복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부름과 선택을 분명히 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에 참되고 충실하게 산다면, 영생으로 결봉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무조건적인 영생의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성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계시와 예언의 영으로써 자신이 영생에 이르도록 인봉되었음을 아는 것을 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31:5)

“특별히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성역 말년에,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부름과 선택이 더 확실해지고 하늘에서 ‘아들아 네가 높이 들리우리라’고 선포하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의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40쪽)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자신이 이 시대에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성취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무릇 나는 주 네 하나님이고, 참으로 세상 끝 날까지와 모든 영원을 통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는 진실로 내가 네게 네 승영을 인봉하고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를 위하여 네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보좌를 예비하리라.’”(교리와 성약 132:49)

교리와 성약 131:6 —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지식은 어떤 것인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선지자는 인간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위대하고 세력있는 수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의 빛 가운데서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예지가 부족합니다.”

“예지는 진리의 빛이며, 예지 즉 진리의 빛을 가진 자는 악마를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지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노력합니다.”(구원의 교리, 1권, 271)

교리와 성약 131:7~8 — “모든 영은 물질이니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육체와 영의 근저까지 파고 내려가서, 철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우리는 육체와 영 사이의 물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물질로 구성된 데 반해 영은 물질과는 다른 요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영은 물질입니다. 다만 육체보다 더 순수하고 활발하며 정제된 물질이며, 육체보다 먼저 존재했고, 육체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육체가 흠으로 변하면 육체를 떠나 존재할 것이며, 부활할 때 다시 육체와 결합하게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95쪽)

교리와 성약 132편

[Efficacy] 효과(7절) — 힘, 효과	: [Remit, remitted] 용서(46절) — 용서
[Principalities] 통치권(13, 19절) — 권능으로 다스리는 지역	: [Cleave unto] 결합(54절) — 매달리다, 함께 머물다, 충실하게 남아 있다
[Seeds] 자손(19절) — 자녀, 후손	: [Espouse] 맞이들이고(61절) — 결혼
[Strait] 협착(22절) — 좁다, 제한되다	: [Exempt] 면제(65절) — 용서
[Buffetings of Satan] 사탄의 매질(26절) — 우리의 의로운 노력에 반대하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	

교리와 성약 132:1 — 소실이란 무엇인가?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소실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고대에 그들은 제2의 부인들로 취급받았으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당시 유행했던 카스트 제도에서 소실이라고 불리지 않은 부인들이 누렸던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경륜의 시대에는 복수 결혼의 관행과 관련된 소실은 없었다. 그 이유는 일부 여성들이 소실로 정해진 카스트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Mormon Doctrine*, 154~155)

교리와 성약 132:7 —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 인봉”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신의 인봉과 확증의 권능인 약속의 성령에 대해 한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성령에 의해 성약을 맺거나 의식을 받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을 통해 그 축복을 추구하는 자가 참되고 충실하면 그에 따르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76:50~54 참조)

“예를 들면, 최고의 복음 의식인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성약이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러한 축복을 구하는 결혼한 부부에게 위대한 축복이 쏟아지도록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통해 그와 같은 결혼은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성스럽게 될 것입니다. 결혼 당사자가 각각 별개의 개체를 지킬 수 있으면서도 그들의 성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휘감아 떨어질 수 없게 된 두 그루의 포도나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동반자를 생각합니다.”

“약속의 성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의식과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성약, 맹세, 서약 및 행해지는 의식들이 행해질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봉은 불의에 의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여서 인봉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축복 집행자의 고결성과 권능에 관계 없이 축복이 인봉되지’(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2권, 87쪽) 않음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약속의 성령에 의해 성약이나 의식을 인봉하는 것은 그 약속이 하늘과 땅에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41쪽)

교리와 성약 132:15~16 — 우리는 왜 영원한 결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현 경륜의 시대의 초기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영원한 결혼에 관한 교리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 때까지 나는 혈연 관계의 애정과 동정심을 단지 현세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야 하며, 마음이 천국과 같은 상태에 적합하도록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떼어 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의 아름다운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며,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도록 해 주는 공감대와 애정이 영원하고 성스러운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도 바로 조셉으로부터입니다. 조셉은 저에게

우리가 이 애정을 가꾸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영원토록 증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 반면 영원한 결합의 결과는 그 후손이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전에도 저는 사랑을 했지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수하게 한층 고양되고, 이 천박한 영역의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제 영혼을 들어올려 마치 대양과도 같이 넓게 펼쳐 주는 승화된 느낌으로 사랑을 합니다.”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1985], 259~260)



영원한 결혼에 대한 세상적인 대안에 대해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고든 비 헐클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꾸민 이야기이지만, 그 원리만은 사실에서 따온 것입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고

장미가 만발할 때 사랑이 결실을 보게 된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자니라는 남자가 매리라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매리 난 너를 사랑해, 내 아내가 되어 주고, 자녀를 낳아 재미있게 살아 봅시다. 그렇지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건 원치 않아. 좀 살다가는 이별을 하는거야” 달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지켜보던 그녀는 “자니 참으로 훌륭해요. 자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랑해요. 정말로 저의 남편과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 주세요. 그렇지만 얼마 동안만 살다가 그 다음엔 작별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가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서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데도 이들은 죽음으로 영원히 결별되는 관계를 택한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4년 11월호 44쪽)

교리와 성약 132:26~39 — 성전 결혼이 승영을 보장하는가?

교리와 성약 132편 26절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어떠한 영혼에게라도 회개하지 않고 승영에 이를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 성구에는 회개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회개가 함축되어 있으며, 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와 성약 132편 26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이것과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마태복음 12장 31~32절을 전혀 읽거나 들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 기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 그는 또한 썩혀 불에 던져지는 자니, 아버지의 공의로 인하여 그들이 그 곳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느니라. 또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로 인하여 그는 주신 말씀을 이루시나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느니라. 또 부정할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땀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제3니파이 27:17~19)

“그러므로 26절에서 언급된 자는, 죄를 지었으나 완전히 회개하여 그 죄에 대한 보상을 기꺼이 치르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승영의 축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구원의 교리, 2권 84~85)

교리와 성약 132편 27절에서, 주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132:27 — “성신을 거스리는 모독”

성신을 거스리는 모독을 범하는 사람들은 어쩌서 살인이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이 죄를 짓는 사람은 가인처럼 루시퍼에게 자신을 파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영원히 증오하게 되며, 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생겨 능력만 있다면 주님의 사업에 대적하여 싸우고 파멸시키려 하며,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등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으려 할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비참한 영혼의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눈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방법이 회개하지 않는 영혼 속에 숨어 들어, 그 영혼은 성령이 떠나고, 마침내 영적인 암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암흑이 자라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증오로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롭고 참된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는 악한 것에 의하여 압도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불경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구원의 교리, 1권 46~47)

교리와 성약 132:58~66 — 복수 결혼

교리와 성약 132편 58절에서 66절은 “복수 결혼에 관한 율법”을 다루고 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교회 초기에 복수 결혼의 실시를 명하셨으며, 1890년에 윌포드 우드럽 회장을 통해 주님은 복수 결혼의 관행을 중지시키셨다. (공식 선언-1 참조) 브루스 알 맥콩기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복수 결혼은 구원이나 승영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니파이와 그의 백성들은 한

명 이상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거부당하긴 했어도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줄곧 베풀었던 영원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은 승영에 관한 교리의 전모를 계시로 요약해 주셨으며, 승영은 곧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132:1~28) 그 후에 그는 복수 결혼은 교회 회장의 승인에 의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명백한 단서와 함께 복수 결혼에 관한 원칙을 더해 주셨다.(교리와 성약 132:7, 29~66)”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열쇠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거두어 들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 오늘날 복수 결혼을 하려는 모든 사람은 사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Mormon Doctrine, 578~579)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31~132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바 중 다섯 가지를 한다.

가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131:1~4

1. 교리와 성약 131편 1~4절을 읽고, 주님께서 해의 영광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는 도표를 만든다. 도표의 일부로서, 이들 성구에서 말하는 요구 조건을 열거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의 영광의 등급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2. 해의 영광 가운데 한 등급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다른 것들은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교리와 성약 131편 1절과 131편 1~4절에 대한 “경전을 이해함” 편 참조)

나 퀴즈를 만든다

교리와 성약 131편 5~8절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여러 주제에 관해 받은 내용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 성구들을 검토하고, 5절, 6절, 7~8절의 각각에 대해 퀴즈 문제를 하나씩 적어본다. 각 질문에 대해 반드시 답을 적어 두도록 한다.(필요할 경우, “경전을 이해함” 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다 약속과 주의 사항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결혼 성약의 영원한 본질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 따르는 약속과 경고도 주셨다. (교리와 성약 132:1~6 참조) 노트에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주의 사항을 적는다.

라 정의를 적는다

1. 교리와 성약 132편 7~14절을 읽은 것을 토대로 “약속의 성령”을 정의하고 그것이 결혼과, 또 교회에서의 모든 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필요할 경우, “경전을 이해함” 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2. 기혼자가 그들의 결혼이 “약속의 성령에 의해 … 인봉”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마 영원한 결혼이란 무엇인가?

일부 교회 회원들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성전 결혼만 하면 영원한 결혼과 영생이 보장된다고 잘못 믿고 있다.

1. 성전 결혼이 영원한 해의 영광의 결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성전에서 결혼을 하는 것 이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가? (교리와 성약 132:7, 26 참조; 또한 필요할 경우, 도움을 얻기 위해 교리와 성약 132편 26~39절에 대한 “경전을 이해함” 편을 참조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2. 교리와 성약 132편 26~44절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으로 판단하건대 어떠한 상황이 영원한 결혼 약속을 취소시킬 수 있는가? (필요하면 교리와 성약 132편 26~39절의 “성구를 이해함”을 참조한다.)

바 왜 영원한 결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교리와 성약 131편 1~4절과 교리와 성약 132편 6~7, 15~20, 46~49절을 복습한다. 교리와 성약 132편 15~16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도 읽는다.

1. 여러분이 배운 것에서, 결혼과 가족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2. 왜 영원한 결혼은 노력할 가치가 있는가? (노력이라는 말에는 계획, 일, 희생 및 기도가 포함된다.)
3. 여러분은 영원한 결혼을 대비하여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133편

구주의 오심을 준비함

교리와 성약 133편의 계시는 133편의 앞 편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편들보다 훨씬 전에 받았다. 1831년 11월 1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를 출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교회의 연차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주님은 “계명의 책”을 출간하려는 결정을 승인하셨으며, 현재

교리와 성약 1편으로 알려진 이 책에 대한 “서문”을 계시해 주셨다. 대회를 마치면서, 모인 사람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후일의 위대한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를 가졌다. 선지자는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께 간구하였으며, 133편에 있는 계시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의 초판에서는 이 계시를 부록이라고 불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존 에이 윌스 장로는 그것은 서문(서문-교리와 성약 1편)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표제라고 했다. 그 두 편은 축소된 형태로 책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

“부록이란 저자가 책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강한 의도를 나타내거나, 내용을 좀더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 덧붙이는 내용이다.” (The message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G. Homer Durham [1969], 17)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교리와 성약 1편과 133편을 읽고 회복의 목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각 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필히 일어나게 될 일에 관해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구를 이해함



교리와 성약 133편

[Prefacing] 기록 서문(머리글) —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	∴ [They who are in the north countries] 북방 나라들에 있는 자들
[Relative to] 대하여(머리글) — 대하여	∴ (26절) — 이스라엘 가문의 “잃어버린 지파”
[Subsequently] 후에(머리글) — 나중에	∴ [Stay themselves] 머물러 있지(26절) — 뒤로 물러서다
[Make bare his holy arm] 거룩한 팔을 드러낼(3절) — 그의 권세를 보이다	∴ [Prey] 먹이(28절) — 사로잡은 어떤 것들
[Tarry] 머물도록(4절) — 머물다, 기다리다	∴ [Rend] 가르코(40절) — 찢어서 열다
[Bear the vessels of the Lord]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5절) — 주님의 사업을 하도록 지명됨(구약 시대에는,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장막과 주님의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 또는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도록 지명을 받는다)	∴ [Errand] 심부름(58절) — 일
[four winds] 사방(7절) — 모든 방향	∴ [Thrash] 타작하리라(59절) — 갈라내다(그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과정을 말하며,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세상의 “밀”을 안전한 곳으로 모으고, 남은 쭉정이는 불태우는가를 상징한다.)

교리와 성약 133:5~14 — 바벨론

고대에, 바벨론은 바빌로니아라고 불린 지역의 수도였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바벨론의 여러 통치자들은 그것을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시기에 그들이 거둔 세상적인 성공을 전시하는 명소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세사적이고,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교훈이 되었다. 즉 우리가 세상과 같이 될 경우, 우리는 그로 인해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바벨론은 세사적인 것과 사악함과 그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평화와 의로움을 나타내는 시온의 도시와는 반대가 된다.

교리와 성약 132:26~35 — 에브라임 자녀에게 주어진 “더욱 풍성한 축복”

고대에,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아들이 받는 몫의 두 배를 받았다. 여분의 한 배는 나머지 가족 가운데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사용되었다. 주님은 이것을 영적인 축복에도 적용하셨다. 에브라임은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아들이었던) 요셉의 장자였다. (창세기 48:13~20; 신명기 33: 13~17; 역대상 5:1~2 참조)

후일에는,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먼저 집합하기로 되어 있다. 주님은 에브라임의 후손들에게 (회복된 진리, 신권의 권능과 열쇠, 또 다른 경전, 및 성전과 같은) 회복된 복음의 “더욱 풍성한 축복”을 위임하셔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가족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게 하셨다. 이러한 축복과 책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과 관계가 있으며 교리와 성약 133편 26~3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나타나 있다.

이 “더욱 풍성한 축복”은 에브라임 자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음의 성약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은 모두 해의 영광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구구처럼, 그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얻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특권을 활용해야 한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33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마 중 세 가지를 한다.

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133편 1~3절에서 주님께서 교회 회원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을 명하시면서 그분의 재림을 대비하여 그들이 준비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 다음, 4~14절에서 그분은 그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

1. 4~14절에서 주님이 주신 계명 중 적어도 다섯 가지를 적는다.
2. 그 성구들에서 주님께서 세 번 반복하신 계명은 무엇인가?(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전에다 그것을 표시할 수 있다.)
3.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시온, 즉 마음이 청결한 자들과 함께하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처를 옮겨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철학을 버려야 하며, 시온으로 들어오기 위해 우리는 시온의 철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Building Zion Today, Improvement Era, 1935년 4월호, 231쪽)

바벨론을 떠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4.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심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교리와 성약 133편 5절, 14~15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시온을 향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 주신 권고는 무엇인가? (창세기 19장 17~26절은 롯과 그의 가족이 악의 도시를 떠나면서 천사들의 당부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으로써 생긴 결과를 전해 주고 있다. 여러분은 창세기의 이 성구들을 교리와 성약 133편 5절을 위한 전후 참조 성구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님은 재림시에 여러 차례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나타나실 것이며, 이어서 “모든 육체가 그것들 함께”(이사야 40:5) 보게 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133편 2~3절과 17~25절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재림의 일부로 그분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의 모습이 보여질 방법과 장소를 열거한다. (교리와 성약 133편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에 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교리와 성약 45편 48~53절과 77편 11절 그리고 84편 2절을 참조한다.)

다 이해를 돕는다

교리와 성약 133편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적는다. (필요할 경우, 교리와 성약 133편 26~35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편도 참조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 교리와 성약 133편 44~5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몇 가지 진리를 열거한다.
2. 이러한 진리 중 두 가지를 적고, 그 두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 이유를 설명한다.

마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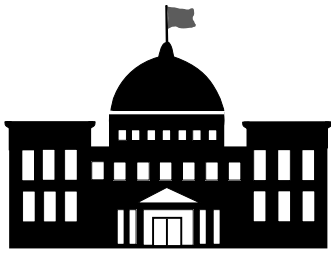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재림에 관한 경전의 말씀 가운데 악한 자들에 관한 내용을 의로운 자들에게(혹은 다른 방법으로) 적용시키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의 노트에다, 교리와 성약 133편 52~74절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두 개의 목록을 만든다. 첫번째 목록에는, 그 구절에서 구주의 재림 때에 의로운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적는다. 다른 목록에는, 악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지를 적는다.

바 선교사들에게 주는 권고

교리와 성약 133편은 주님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 더 큰 이해를 요구했을 때 받은 계시다. 여러분의 노트에다, 133편에서 선교사들이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가르침을 적고, 선교사들이 그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134편

정부에 관한 소신



전세계적으로 훌륭한 시민이 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많은 견해들이 있다. 주님은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계시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교리와 성약 134편을 읽으면서, 모든 나라가

이 계시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따른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또한 이 원리들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본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34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경전을 적용함

1. 교리와 성약 134편에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신념과 원리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교리와 성약 134편에서 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신념이나 원리를 설명한다.
 - 가. 한 여성이 고용주로부터 약간의 돈을 훔쳤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좋지 않은 느낌을 가졌으며, 감독에게 고백했다. 그녀가 회개하기 위해 어떤 보상이 따라야 하는가?
 - 나. 한 남자가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몇몇 기자들에게 교회는 그가 회원을 버릴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 다. 청소년 몇 명이 창문을 깨뜨리는 일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들이 창문을 깨뜨리는 것을 보았다. 친구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무시하자고 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교리와 성약 134편에 있는 성구를 토대로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두 개쯤 더 적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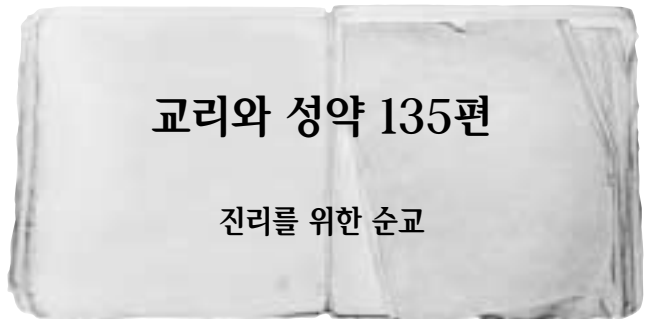
성구를 이해함

교리와 성약 134편

[Preamble] 머리말(머리글) — 공식 문서의 서문에 목적을 설명함	[Inalienable] 양도할 수 없는(5절) — 부인할 수 없는,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능력 밖의
[Instituted] 제정(1, 4절) — 설립되는, 시작되는	[Sedition] 치안 방해(5, 7절) — 정부에 대한 불충, 모반을 꾀하는 행동
[Inviolate] 침범당하는 일 없이(2절) — 신성한, 깨뜨릴 수 없는	[Deference] 복종(6절) — 순응, 순종
[Magistrates] 장관(3, 6절) —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	[Supplanted] 대치될(6절) — 대체하는
[Republic] 공화국(3절) — 법률을 만들고 집행할 대표를 선출하는 백성들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은 정부	[Anarchy] 무정부(6절) — 무법 천지, 규정과 정부가 없음
[Sovereign] 주권자(3절) — 왕, 군주, 통치자	[Regulating] 조정하는(6절) — 지시하는, 다스리는
[Amenable] 책임을 지되(4절) — 책임을 지는, 책임있는	[Proscribe, proscribed] 금지할(7, 9절) — 금하다
[Infringe upon] 속박하거나(4절) — 간섭하다, 제한하다, 어기다	[Conspiracy] 음모(7절) — 정부에 손해를 입히거나 전복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일함
[Prescribing] 정하는(4, 6절) — 제정하는	[Breach] 위반하는(8절) — 소동, 법률을 어김
[Dictate forms] 형식을 지시할(4절) — 행해져야 할 방법을 정확하게 정하다	[Redress] 시정(11절) —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다
[Suppress] 억압해서는(4절) — 한정하다, 제한하다	[Encroachments] 침해(11절) — 불법적인 방해
[Are bound] 받아야 하며(5절) — 도덕적인 책임을 지다	[Exigency] 위급한(11절) — 비상, 즉시 필요함
[Inherent] 고유하고도(5절) — 타고난	[Servitude] 노예의 신분(12절) — 속박, 노예

교리와 성약 135편

진리를 위한 순교



박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또 하나의 천성”(교리와 성약127:2)이 되었다. 1820년 첫번째 시현을 본 이래로 적들은 이 위대한 회복의 선지자를 적대시했다. 선지자가 나부에 있던 5년 동안은 위대한 계시가 주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기간이었던 반면, 끊임 없는 박해의 연속이기도 했다.

1843년과 1844년에 선지자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인도하도록 가르치고 준비시켰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교회를 그대로 놓아 두지 않았다. 1844년 6월 초에, 전에 교회 회원이었던 사람들과 이 사업을 적대하는 자들이 나부 익스포지터라는 신문을 발행했는데, 그 신문은 선지자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거짓 기사를 실었다. 이것은 서부 일리노이에서 성도들을 몰아낼 방안을 강구하던 그 지역의 반물물들 가운데 이미 붙어 있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되었다.

나부 익스포지터에 대한 조치로, 나부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나부 시 의회는 나부 익스프레스 인쇄소를 파괴하고 모든 신문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출판업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나부에 있는 판사에게 알렸으며, 선지자와 시 의회를 상대로 한 영장을 받아냈다. 그들은 그들이 해한 일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판사가 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적들은 이러한 판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지자와 다른 사람들을 회원이 아닌 다른 판사에게 제소하였으나 그들은 거듭 무죄로 방면되었다.

이번에는 일리노이 주 와샤에 있는 한 신문이 물문을 “지독한 악마”라고 불렀으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기를 사용” 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였다.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275 참조) 이 긴장되고 위험한 시기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일리노이 주의 주지사인 토마스 포드 주지사를 찾아가 도움과 이해를 구했다. 그러는 동안, 선지자의 적들도 주지사를 찾아가 그들이 물문들을 대항하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했다. 주지사는 선지자를 반대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 같았다. 선지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과 그의 형 하이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빨리 그곳을 떠날 계획을 세웠으며, 성도들을 서부로 이주시킬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계시로 알게 된 이주는 결국 일어나고야 말았다. 그는 자신이 떠나고 나면 박해는 가라앉으리라고 믿었다. 일부 교회 회원들은 선지자의 계획에 반대하면서, 그가 회원들을 두고 떠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홀로 박해를 감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목숨이 나의 친구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나에게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6:549) 그리고 그는 나부로 돌아갔다.



1979년 해럴드 아이 홀킨스 이스테이트 판권 소유

선지자 조셉 스미스, 하이럼 스미스 및 나부 시 의회 의원들은 폭동의 죄목으로 체포되어 카테지 감옥에 수감되었다. 6월 25일, 카테지 그레이 부대의 대장이자 반몰몬당의 활동적인 회원이었던 로버트 에프 스미스 치안 판사 앞에서 예심이 열렸다. 나부 시 평의회는 모든 의원들은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순회 재판소의 다음 개정 기간에 출두하도록 지시 받았다. 피소자들 중 대부분이 그 때 나부로 떠났지만 조셉과 하이럼은 주지사와 면담하기 위해 남았다. 그 날 저녁에 한 경관이 조셉과 하이럼에게 중대한 범죄인 반역죄에 대해 재판 받을 때까지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도록 스미스 판사가 승인하고 서명한 구속 영장을 갖고 왔다. 조셉과 그의 변호사는 심문 때 그런 혐의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속 영장은 불법이라고 항의했다. 그들은 주지사에게 항의했지만 주지사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278)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나부로 가게 되면 선지자와 하이럼 스미스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1844년 6월 27일, 목요일, 선지자는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처즈 장로와 함께 카테지 감옥에서 밤을 보낸 뒤 존스를 포드 주지사에게 보내, 폭도들이 감옥을 습격하여 스미스 형제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엿들었다는 것을 전하게 했다. 포드 주지사는 선지자에게는 그런 위험이 없을 거라는 다짐을 던진 존스에게 했다. 존스 형제는 감옥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용되지 않아 대신 나부로 돌아갔다. 포드 주지사 또한 나부로 돌아갔으나 그는 선지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그 날 오후, 선지자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는 존 테일러에게 “슬픔에 잠긴 나그네” (찬송가, 30장)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하이럼 스미스는 테일러 장로에게 다시 불러 달라고 부탁을 했다. 우울한 느낌이

그에게도 엄습해 왔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기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는 그 노래를 다시 불렀다.

그들은 이층 침실에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간수가 와서 감방 안으로 돌아가도록 제의했다. 그는 그 곳이라면 그들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윌라드 리처즈에게 그들이 감방으로 갈 경우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다. 리처즈 장로는 선지자에게 그들이 선지자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곳에서 함께 죽겠다고 말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리처즈 장로가 대답했다.(Roberts,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2:283)

존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감옥의 앞 쪽 창문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얼굴에 칠을 한 사람들이 감옥의 모퉁이로 몰려와 계단 쪽을 경망하는 것을 보았다. 다른 형제들도 이미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다. 내가 문 가로 갔을 때 하이럼 스미스 형제와 리처즈 박사는 이미 그것에 기대어 있었다. 자물쇠와 걸쇠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이 열리지 않도록 어깨로 문을 밀고 있었다.”(Gospel Kingdom, 359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다섯 시가 조금 지나자 감옥 바깥 문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렸으며, 간수에게 항복하고 총을 내려놓으라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분노하고 증오에 가득 찬 무질서한 민병대원들이 감옥으로 몰려왔다.”(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2:401) 문을 통해 들어온 총알이 하이럼 스미스의 얼굴에 맞았다. 밖에서 두 번째 총알이 날아와 등에 맞아 그는 바닥에 쓰러지며 “나는 죽노라” 하고 말했다. 선지자가 몸을 숙이며 말했다. “오, 하이럼 형!” 그는 페퍼박사 부르는 6연발 총을 집어 들고 힘없이 반격을 시도해 보았다. 존 테일러는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 했으나 그 순간 총에 맞았다. 그는 부상을 당했으나, 총알이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계를 맞추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시계는 순교 당한 시간 — 1844년 6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 16분 26초 — 을 영원히 가리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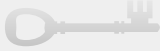
카테지 감옥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창문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 가는 도중에 그는 뒤에서 날아온 두 발의 총알에 맞고 밖에서 날아온 한 발의 총알에 정면으로 맞았다. 그는 마당으로 떨어지기 전에 잠시 창가에 멈추어 서 있었다. **교리와 성약 135:1 참조**

갑자기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물론들이 온다!” 그들은 오지 않았지만, 그 말에 폭도들은 재빨리 물러갔다. 사건의 경위를 들은 포드 주지사는 카테지 시가 보호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곳으로 향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복수를 하려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그들의 선지자는 죽었으며, 그들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아무런 보복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윌라드 리처즈 형제가 나무의 한 대중 모임에서 말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순교당한 선지자의 시신은 1844년 6월 28일에 나무로 돌아왔다. 그 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맨션 하우스에 와서 조문을 하고 그들을 잃은 것을 애도했다.

존 테일러 사도는 자신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었으므로, 세상에 전하는 증거로서 그 때 일어난 일을 공식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교리와 성약 135편을 읽으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성역이 여러분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수백만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35편

[Martyrdom] 순교(표제, 1절) — 진리를 위한 증인으로서의 죽음	⋮ [Henceforward] 이제 이후로(6절) — 이 시간 이후로
[Providence] 섭리(2절) —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살핌	⋮ [Scathe] 불태울(6절) — 말리다, 시들게 하다
[Void]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4절) — 비어 있다	⋮ [Impeach] 비난(7절) — 도전, 비판

교리와 성약 135: 5 — “그들의 유언은 효력이 있느니라”



선지자와 하이럼 스미스의 모친인 루시 맥 스미스는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힌 후에 우리가 시신을 보는 것이 허락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모든 신경을 긴장시키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시도록 간구했지만, 그 방에 들어서서 살해당한 두 아들이 내 눈앞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가족들의 흐느낌과 신음 소리, 그리고 죽은 아들들의 아내,

자식,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여보, 형’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은 감당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무너지듯 뒤로 물러나면서 영혼이 고뇌하는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가족을 버리셨나이까? 그 때 한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그들을 쉬게 하려고 내게로 데려왔느니라.’ ... 우리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장면들이 내 마음 속을 스치고 지나갔으며,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정직한 아들들이 보여 준, 그들 마음 속에 가득 찬 순진함과 동정심이 떠올랐다. 평화롭고 미소 짓는 듯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음성들을 듣는 듯 했다. ‘어머니, 저희를 위해 울지 마세요. 저희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간증 때문에 우리를 죽였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세한 것은 잠시일 뿐이며, 우리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History of Joseph Smith, 324~325쪽)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35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를 한다.

가 뉴스 보도를 작성한다

여러분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죽은 다음 날 카테지 감옥 밖에 서서 텔레비전 뉴스를 전하는 기자라고 상상해 본다. 상황을 보도할 시간은 45초 정도가 있다고 상상한다. 교리와 성약 135편과 본 학습 지도서에 있는 교리와 성약 135편에 대한 소개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써 본다.

나 목록에 추가한다

1. 교리와 성약 135편 3절 첫 문장에서, 존 테일러 장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성역에 관해 대담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것이 참된 이유를 설명한다.
2.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인류를 위해 공헌한 것을 열거한다.

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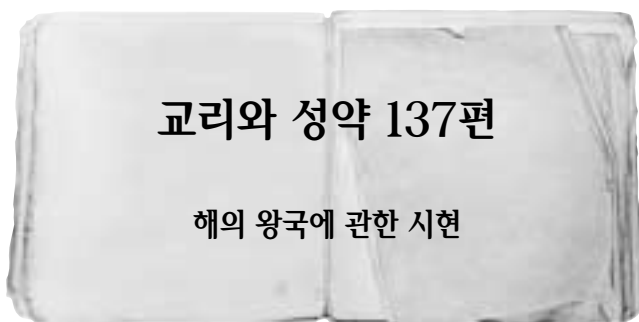
카테지를 향해 가는 동안, 하이럼 스미스는 이더서 12장 36~38절에 있는 선지자 모로나이의 말씀을 읽었다. 그 성구들과 교리와 성약 135편 4~5절을 참조하고, 그것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적어본다.

라 그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해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미친 영향을 적는다.



교리와 성약 136편에 관한 자료는 “서부로 이주하는 교회”(164쪽) 편에 들어 있다.



1832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심판을 받은 후에 거하게 될 왕국에 관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 주신 일련의 시현들을 보았다.(교리와 성약 76편) 그 시현을 통하여 그는 해의 왕국을 상속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담대한 용기로 간증을 지키며,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등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못한 탓으로 그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사람들에게 의해 침례나 다른 의식을 받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될 것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36년 1월에 받은 계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리와 성약 137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선지자 자신이 궁금하게 여겼던 점에 대해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가 궁금하게 여긴 것에 대해 응답해 주셨으며, 그의 모든 자녀들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명확하게 밝혀 주셨다. 선지자가 이 계시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가 약 3개월 후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중요한 신권의 열쇠를 받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 (교리와 성약 110:11~16 참조)

교회는 교리와 성약 137편에 수록되어 있는 계시를 교회의 공식적인 경전에 포함시키기 위해, 197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회원의 지지를 물었다. 그것은 처음에 값진 진주의 일부로 출판되었으나, 나중에 1981년 판부터는 교리와 성약 137편으로 출판되었다.(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참조)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37편

- [Transcendent] 심히(2절) — : [Tarry] 머물기(7절) — 체류하다, 영광스러운, 뛰어난 : 남아있다
- [Paved] 포장된(4절) — 단단하고, : [Years of accountability] 책임을 질 평평한 것으로 덮인 : 수 있는 나이(10절) — 여덟 살
- [Marveled] 기이히 여겼느니라(6절) — : 의아스럽게 여기다

교리와 성약 137:1 —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노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의 육신에 관해 나타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모든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밝혀지되, 이 필멸의 육신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전혀 육신을 갖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에게 밝혀”(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39)진다고 가르쳤다. 그러한 시현은 세상적인 것들과 연관이 거의 없어 보이게 하는 영적인 변형을 포함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4절에서 비슷한 경험을 설명했으며, 다른 선지자들도 시현의 변형에 대해 언급했다.(모세서 1:10~11 참조)



교리와 성약 137:5 —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 나의 형 앨빈”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큰 형 앨빈이 해의 왕국에 있는 것을 본 것은 분명 흥미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선지자가 이 시현을 보았을 때 그의 아버지 조셉 스미스 일세는 커틀랜드 성전 이층에 있는 같은 방에 있었으며, 그의 어머니도 생존해 있었다. 이것은 분명 선지자가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교리와 성약 137편 6절은 선지자가 교회가 회복되기 전에 죽은 그의 형 앨빈이 어떻게 해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기이하게 여겼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앨빈 스미스는, 천사 모로나이가 선지자를 방문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으며,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기 오래 전인 1823년 11월에 죽었다. 한 번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앨빈은 “우리 가족 중에 장남으로서 가장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 그에겐 간교함(속이는 마음)이 없었다. … 그는 어렸을 때부터 흠없는 삶을 살았다. … 그는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으며,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그를 방문했다.” (History of the Church, 5:126~127) 앨빈 스미스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한 목사는 그가 침례를 받거나 교회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다고 말했다. (“Another Testimony: Statement of William Smith, Concerning Joseph, the Prophet, *Desert Evening News*, 1894 년, 1월 20일, 11쪽)

교리와 성약 137:9 —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인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교회 회원들에게 책임과 위안을 주는 진리를 상기시켜 주었다.

“도덕적 선택의지나 개체성에 매우 긴밀하게 관련된 욕망은 ... 도덕적 선택의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비록 ... 천진 난만하여 그 욕망의 열매를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욕망은 진정한 결정자로 작용합니다.”

“욕망이란 갈급하는 마음 또는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의로운 욕망은 단순한 선호나 찰나의 느낌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유전자적 자유나 환경, 주변의 정황 등도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자아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자율이 지배하는 내면 영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개체성 및 책임 소재가 바로 이 영역 안에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을 즐기치게 소망한 바에 따라 우리가 궁극에는 무엇이 되며 영원토록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21; 또한 엘마서 41:3~6절 참조)

교리와 성약 137:10 — “어린아이가 ...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음”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책임질 수 있는 연령-8세-에 이르기 전에 죽을 경우 성전 의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여긴다. 주님은 그들에게는 침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다. (모로나이서 8:10~13 참조) 그들이 받아야 하는 성전 의식은 그들이 성약 안에서 출생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에게 인봉되는 의식 뿐이다.

서부로 이주하는 교회

한 겨울에 나무를 떠나 힘들게 아이오와를 횡단한 후에 성도들은 교회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다. 성도들이 서쪽으로 이주를 함으로써 솔트레이크 계곡에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새로운 생활 여건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동부의 가장 가까운 정착지로부터 1,600킬로미터나 떨어졌고, 태평양 연안에서도 1,280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곳의 기후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곳에서 농작물을 길러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곳에서 아직 어떠한 건물도 지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시시피 강가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쫓겨나 이 서부의 사막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전과 계시의 말씀에서 나온 시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37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성구 익히기 — 교리와 성약 137:7~10

1. 교리와 성약 137편 7~10절에서 해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열거한다.
2. 7~9절에 언급된 사람들이 해의 왕국에 가도록 준비를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3. 이 성구들은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4. 이 성구들은 우리의 책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나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1. 교리와 성약 137편 9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고려하실 두 가지 사항은 무엇인가?
2. 주님께서 언급하신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본다. 심판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의 예를 들어본다. 같은 상황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의 예도 들어본다.

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가족 중에 일곱 살 된 자녀가 교통 사고로 죽어 슬퍼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누군가 성전에서 침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137편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어린아이에게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또한 모로나이서 8장; 교리와 성약 137편 10절을 위한 “경전을 이해함” 참조)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사야 11:12)”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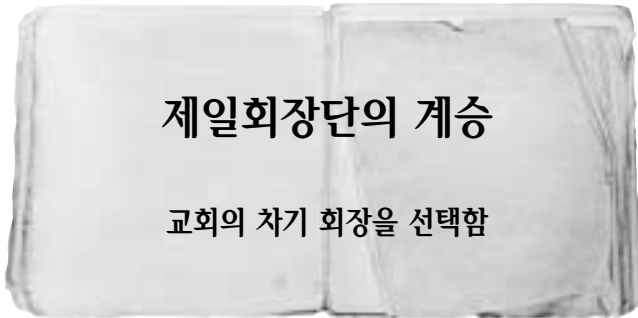
그 후 50년 동안 선지자 브리검 영, 존 테일러, 및 윌포드 우드럽이 내세운 “열방을 향한 이 기치”는 커다란 저항과 시련은 말할 것도 없고 평화와 성장의 세월을 겪었다. 선교사업은 멕시코, 미국의 서부, 폴리네시아, 및 유럽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세인트 조지, 로간, 맨타이, 솔트레이크 성전 등 네 개의 성전이 완공되고 헌납되어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영원한 의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초등학교가 조직되었다. 대륙 횡단 철도가 완공되어 유타의 성도들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교회와 몇몇 회원에 대한 박해가 다시 표면화되었다. 이 시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습격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우리의 유산, 98쪽 참조) 성도들은 복수 결혼을 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권리 박탈은 물론 성전을 포함하여, 교회의 재산권까지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는 일을 겪었다. 1890년에 주님께서는 윌포드 우드럽 회장에게 복수 결혼의 관행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주: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학생 학습 지도서*에서 마지막 7주 동안은 18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교회 역사 사건과 브리검 영부터 고든 비 힝클리까지 회장들의 가르침에 중점을 둔 내용을 다루게 된다. 여러분의 독서 과제(교리와 성약 136편; 138편 및 공식 선언 1, 2와 함께)는 *우리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사에서 교회사를 읽는 것과, 각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서 선정한 내용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독서 과제를 학습 지도서의 각 소개편 다음에서 보게 될 것이다. “성구를 이해함” 편은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편으로 대체될 것이다. 독서 과제물을 이해한 편은 우리의 유산의 독서 과제에 대한 낱말 도우미와 기타 통찰력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독서 과제물을 공부함” 편은 앞서의 “경전을 공부함” 편을 대신하게 되며, 학습 과제를 위해 하게 될 활동을 제공한다.

제일회장단의 계승

교회의 차기 회장을 선택함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 당했을 때 많은 회원들은 교회의 운명에 대해 걱정했다. 누가 선지자를 계승하여 교회를 이끌 것인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최초의 제일회장단 계승이 있었을 때, 회복된 교회는 겨우 14세된 어린이에 불과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선지자도, ‘시현’도 없었습니다. 카테지에서의 탄환이 교회, 계시, 선지자와 같은 값진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한 분의 생을 끝나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에 가득차 있었음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선교지역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돌아가신 선지자를 땅에 묻고나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선임 사도가 이미 모든 열쇠를 갖고 모세와 같이 서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70년 4월, 119)

제일회장단의 계승

1. “선지자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에서 살해되었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많은 회원들과 다른 지도자들은 나부를 떠나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이 지나서 그 소식을 들었다. 브리검 영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신권 지도자의 열쇠가 여전히 교회에 있음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 열쇠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에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은 주님의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누가 조셉 스미스의 후임자가 될지 전혀 몰랐다.”

2.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은 1844년 8월 3일에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나부로 왔다. 그 이전에 시드니 리그돈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권고에 어긋나는 길을 걷기 시작하여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그는 이미 나부에 도착해 있던 세 명의 사도와 만나기를 거절하고, 그 대신 일요일 예배에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말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아무도 조셉 스미스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자신이 받았던 시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교회의 보호자가 지명되어야 하며, 그 보호자는 시드니 리그돈,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를 지지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었다.”

3. “1844년 8월 6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던 브리검 영이 나부로 돌아왔다. 그는 누가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가에 관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을 원한다고 선언했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1844년 8월 8일 목요일에 모임을 소집했다. 시드니 리그돈은 아침 모임에서 한 시간 이상 말씀을 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의 입장을 지지했다.”

4. “다음으로 브리검 영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간결하게 말했다. 브리검 영이 말씀을 할 때 조지 큐 캐넌은 바로 조셉의 음성이었으며, 사람들의 눈에 선지자 조셉이 직접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회상했다. 윌리엄 시 스테인즈는 브리검 영이 선지자의 음성과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고 간증했다. 스테인즈는 ‘나는 그가 바로 조셉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말했다. 윌포드 우드럽



역시 그 놀라운 순간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만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가 조셉 스미스가 아니었다고 확신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간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목격한 이 기적적인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주님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브리검 영을 조셉 스미스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음을 확신했다.”

5. “오후 모임에서 브리검 영은 다시 말씀했으며, 선지자 조셉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갖도록 십이사도를 성임했다는 것을 간증했다. 그는 십이사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번성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사도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6. “영 회장은 말씀을 마친 후, 시드니 리그돈에게 말씀을 부탁했으나 그는 하지 않았다.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와 팔리 피 프랫이 말씀을 한 후 브리검 영이 다시 말씀했다. 그는 나부 성전을 완공하는 것, 광야로 가기 전에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과, 경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는 그는 조셉 스미스에 대한 사랑과 선지자의 가족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했다. 그런 후 성도들은 만장일치로 십이사도를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7. “소수의 다른 사람들이 교회 제일회장단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후기 성도들에게 승계의 고비는 지나갔다. 선임 사도이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던 브리검 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끌도록 선택한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은 일치하여 그를 지지하였다.”(우리의 유산, 66~67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제일회장단의 계승

- | | |
|---|---|
| [Seer] 선견자(1단락) —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 (모사이야서 8:13~17 참조) | · [Guardian] 보호자(2단락) — 보호하고 지키거나 보존하는 사람 |
| [Estranged] 멀어져(2단락) — 떨어져, 분리되어 | · [Adherents] 지지했다(3단락) — 지지했다. |
| | · [Endowment] 엔다우먼트(6단락) —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과 성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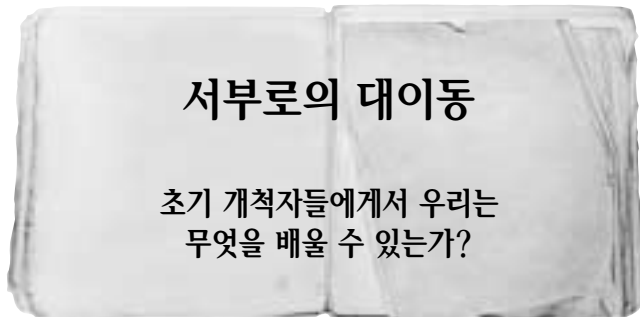
독서 과제물을 공부함



“제일회장단을 계승함”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가 그 당시와 지금

1. 브리검 영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실에 대한 기사를 복습한다.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이 당시 그 곳 맨 앞 줄에 앉아 있었다고 가정하고 간단한 일지를 적는다.
2. 이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과, 그분께서 교회를 인도할 선지자를 택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1990 Glen Hopkinson

강제로 나부를 떠나는 성도들

고든 비 힐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얻기 위해 과거를 돌이켜 보는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앞을 가로막고 있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간 사람들의 덕성을 살펴보는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별로 얻는 것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의 노고를 돌이켜 보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그들이 세운 초기의 계획들은 너무나 잘 가꾸어져 우리가 그 훌륭한 수확을 누리고 있습니다.”(“The Faith of the Pioneers,” Ensign, 1984년 7월호, 3쪽)

성도들이 일리노이에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로 이주한 이야기는 모든 종교 역사에서 감동적인 이야기의 하나가 될 것이다. 브리검 영 회장이 나부에서 솔트레이크까지 15,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인도한 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주가 될 것이다. 그것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영감과 기적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나라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1845년부터 1847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자신에게 묻는다.

나부를 떠날 준비를 함

1. “교회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1834년부터 성도들을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록키 산맥 서쪽으로 이주시키는 것에 이야기해 왔다.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탐험가들과 함께 실제적인 부지에 대해 토론하고, 정착할 만한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 지도를 연구했다. 1845년 말에 교회 지도자들은 서부에 관해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손에 넣었다.”
2. “나부에서의 박해가 심해져 감에 따라 성도들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1845년 11월에 나부는 떠날 준비로 한창이었다. 이주하는 동안 성도들을 이끌도록 백인 조장, 오십인 조장, 십인 조장이 부름 받았다. 100개의 그룹이 각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차 공장을 세웠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과 목수와 가구 제작자들은 밤늦게까지 재목을 다듬고 마차를 만들었다. 쇠를 구입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부로 파견하였으며, 대장장이들은 여행에 필요한 물건과 새로운 시운을 개척하는 데 필수적인 농기구를 만들었다. 가족들은 식료품과 가정용품을 모았으며, 저장 용기에 말린 과일과 쌀과 밀가루와 약품을 채워 넣었다. 그들은 공익을 위해 함께 일하였으며, 그토록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이상의 일들을 달성했다.”(우리의 유산, 69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서부로 떠날 준비를 함

- | | |
|---|---|
| [Rocky Mountains] 록키 산맥(1단락) — 북아메리카 서부 지방에 있는 산맥 | · [Wheelwrights] 수레를 만드는 사람(2단락) — 포장 마차의 바퀴를 만들고 수리하는 사람 |
| [Exodus] 이주(2단락) — 집단 출발 또는 이주 | · [Colonize] 개척(2단락) — 지역에 정착하거나 지역을 세우다 |

겨울 여행의 시련

3. “원래는 1846년 4월에 나부를 벗어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의 민병대가 성도들이 서부로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위협 때문에 십이사도들과 지도층에 있던 다른 시민들은 1846년 2월 2일에 서둘러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즉시 서부로 출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2월 4일에 출발하기로 했다. 브리검 영의 지휘 하에 성도들의 첫번째 그룹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열망은 커다란 시험에 직면했다. 왜냐하면 늦겨울의 날씨와 뜻밖의 봄비로부터 쉴 수 있을 영구적인 야영지에 이르기 전에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었기 때문이었다.”

4. “수많은 성도들은 박해자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위해 먼저 넓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 아이오와 땅으로 가야 했다. 여행 길의 위험은 황소가 수많은 성도들을 실어 나르던 보트를 발로 차서 구멍을 내 보트가 잠길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한 목격자는 그 불운한 승객들이 깃털 침구와 나무 막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판자, 또는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잡고 매달려서, 차갑고 무자비한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물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였다. ...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잠기지 않은 마차 폭대기로 기어 올라가서 보트에 있던 소들이 목적지의 강기슭으로 헤엄쳐 가는 동안 좀더 편하게 있었다.’ [Juanita Brooks, ed., *On the Mormon Frontier: The Diary of Hosea Stout*, 2권. (1964) 1:114; 또한 1:117 참조]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배 위로 구조되어 건너편 강기슭에 닿았다.”



© 1986 Glen S. Hopkinson

5. “처음으로 강을 건넌 지 2주 후, 그 강은 한동안 얼어붙었다. 얼음이라서 미끄럽긴 했지만 마차와 말의 무게를 감당해 주어서 보다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눈 속을 걸어가갈 때 성도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몹시 어려움을 겪었다. 강 건너편의 슈가 크리크 야영지에서는 계속 바람이 불어 눈이 거의 2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로 쌓였다. 그 후 눈이 녹는 바람에 땅바닥은 진흙탕이 되어 버렸다.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텐트와 마차와 서둘러 지은 오두막에서 웅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 주변의 모든 요소가 어울려 상황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6. “여행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이오와를 통과하는 초기 단계였다. 호세아 스타우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밤을 지내기 위해 침대 천으로 임시 천막을 지었다. 이 때 아내는 거의 일어나 앓을 수도 없었고, 어린 아들도 고열로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었다.’ [Juanita Brooks, *On the Mormon Frontier*: 1:117] 다른 많은 성도들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우리의 유산, 69~70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겨울 여행의 시련

[Evacuation] 벗어나기로 (3단락) — ~로부터 성도들을 이주시킴	• [Sported] 오르락내리락(4단락) — 떠밀려 가다
[Militia] 민병대(3단락) — 군인	• [Unrelenting] 무자비한(4단락) — 거칠거나 거센
[Imperative] 긴급한, 절대 필요함(3단락) — 절대로 필요한, 요구되는	• [Plodded] 걸어가갈(5단락) — 힘들어서 천천히 걷다
[Respite] 쉴 수 있는(3단락) — 휴식하다	• [Hastily erected] 서둘러 지은(5단락) — 급히 지은

모든 것 잘되리

7.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과 용기와 결심을 통해 추위와 굶주림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이겨나갔다. 윌리엄 클레이튼은 불과 한 달 후에 첫 아기를 낳을 아내 디안사와 그녀의 부모들을 두고, 나부를 떠나는 첫번째 그룹에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내가 잘 있는지 염려하면서 진흙 길을 걷고 추운 텐트에서 야영한 탓에 그는 신경이 몹시 쇠약해졌다. 두 달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아내가 안전하게 출산했는지를 알지 못했으나 마침내 ‘건강하고 통통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윌리엄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여러 세대 동안 교회 회원들에게는 영감과 감사의 송가가 될 노래를 썼다. 그것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라는 노래로서 유명한 그 가사에는 그의 신앙과, 역경 가운데서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 [James B. Allen, *Trials of Discipleship: The Story of William Clayton, a Mormon*(1987), 202쪽 참조]라고 노래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표현되어 있다. 그들의 뒤를 따랐던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희생하고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기쁨과 평화를 느꼈다.”(우리의 유산, 71쪽)



윌리엄 클레이튼은 찬송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의 가사를 썼다.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모든 것 잘되리

[Slogging] 걷고(7단락) — 힘들어서 걸음	• [Anthem] 송가(7단락) — 찬양 또는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가나 노래
[Wore his nerves thin] 신경이 몹시 쇠약해졌다(7단락) — 그를 걱정하게 하고 낙심케 했다	• [Adversity] 역경(7단락) — 비참함과 시련

윈터쿼터스

8. “성도들이 나부로부터 499킬로미터 떨어진 서부 아이오와의 정착지에 도착하는 데는 131일이 걸렸다. 그 곳은 그들이 1846년에서 1847년까지의 겨울을 지내고 루키 산맥으로 여행할 준비를 할 곳이었다. 그 때까지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1,609킬로미터나 되는 미국의 거대한 평원을 보다 빨리 건너가는 데 도움이 될 여행 지식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이듬해에는 111일 정도 걸려 그것을 해냈다.”

9. “많은 성도들이 미주리 강의 양쪽을 따라 정착했다. 가장 큰 정착지는 윈터쿼터스였는데 서부의 네브라스카에 있었다. 그곳은 약 3,500명 정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급세 안식처가 되었다. 성도들은 통나무 집이나 버드나무와 흙으로 만든 움집에서 살았다. 또한 미주리 강의 아이오와 쪽에 있는 케인스빌이란 곳과 그 주위에는 2,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살았다. 이 정착지의 생활에서 그들은 여행 중에 겪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여름에는 말라리아 열병으로 고통을 겪었다. 겨울이 되어 신선한 음식을 전혀 구할 수 없을 때는 전염성 콜레라, 괴혈병, 치통, 야맹증, 심한 설사로 고통을 겪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계속되었다. 남편인 새뮤얼이 스코틀랜드로 선교사업을 떠난 메리 리처즈의 말에 의하면, 여인들은 여전히 청소하고, 다림질하고, 세탁하고, 바느질하고, 편지도 쓰며, 부족한 식료품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신학 토론, 춤, 교회 모임, 파티 및 개척자 재연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여 메리는 윈터쿼터스에서의 성도들의 생활을 밝게 기록했다.”



네브라스카 주 윈터쿼터스

11. “남자들은 함께 일했으며, 종종 만나서 여행 계획과 미래의 정착지에 대해 토의했다. 그들은 질서있게 협력하여 캠프 외곽의 초원에서 가축을 몰아 풀을 먹였다. 또 들판에서 일하고 정착지 주변을 지켰으며, 제분소를 만들어 움직였고, 여행을 위해 마차를 준비했으며, 종종 과로와 병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들 중 몇몇은 비이거적인 사랑으로 들판을 갈아서 뒤따라올 성도들이 수확하게 될 작물을 심었다.”

12. “로렌즈 영의 아들인 존은 윈터쿼터스를 ‘몰몬의 밸리 포지’라고 불렀다. 그는 그 곳의 공동 묘지 가까이에 살았으므로 ‘너무나 자주 문 앞을 지나가는 작고 슬픈 모습의 행렬’을 목격하였다. 그는 옥수수 빵과 소금에 절인 베이컨과 소량의 우유로 차려진 자기 집의 식사가 ‘얼마나 초라하고 늘 똑같이 보였는지 회상하면서, 절절한 옥수수 죽과 베이컨에 너무나 식상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마치 약을 먹는 것과 같았고, 음식을 삼키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Russell R. Rich, *Ensign to the Nations* (1972), 92쪽 참조] 오직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해 주었다.” (우리의 유산, 71~72쪽)

[Revivals] 재연(10단락) — 종교적인 관심을 새롭게 하는 기간
[Foraged] 몰아 (11단락) — 먹이를 찾다
[Perimeters] 주변(11단락) — 가장자리 바깥

：“The Valley Forge of Mormondom”]
：“몰몬의 밸리 포지”(12단락) — 독립 전쟁을 하는 동안 미국 병사들이 밸리 포지에서 죽은 것과 비슷하게 많은 몰몬들이 고통 당하고 죽은 장소
[Trains] 행렬(12단락) — 사람들이 열을 지어 감
[Nauseating] 식상해서 (12단락) — 메스꺼운, 싫은

몰몬 대대

13. “성도들이 아이오와에 있는 동안 미 육군 병사 모집대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1846년 5월에 시작된 멕시코 전쟁에 참가할 파견대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나중에 몰몬 대대로 불리게 된 이들은 미국 남부를 가로질러 캘리포니아로 행군해 가야 했으며, 돈과 의복과 양식을 받게 되어 있었다. 브리검 영은 나부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고 각 병사들의 가족을 돕기 위한 돈을 조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써 남자들에게 참가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국가에 교회 회원들의 충성심을 보여 주고, 또 그들이 공유지와 인디언 지역에 임시로 거주하는 정당한 이유를 대 주는 일이었다. 결국 541명의 남자들이 지도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입대했다. 33명의 여인과 42명의 아이들이 그들을 따라갔다.”

14. “그 어려운 시기에 아내와 자녀들을 홀로 두고 떠나는 슬픔 때문에 대대원들에게 있어 전쟁터로 나가는 시련은 복합적인 것이었다. 윌리엄 하이드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15.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여름엔 불볕 같은 햇빛이 내리비치고, 겨울이 오면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 댈, 황량하고 쓸쓸한 외딴 평원에 마차를 제외하고는 집도 없는 처지에 있었다.”

16. “내겐 아내와 어린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연로한 부모와 남동생 한 명과 함께 남았다. 대부분의 대원들이 가족과 헤어졌다. … 그들과 다시 만날 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in *Readings in LDS Church History: From Original Manuscripts*, ed. William E. Berrett and Alma P. Burton, 3 vols. (1965), 2:221]



17. “몰몬 대대는 부족한 식량과 물,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휴식과 미흡한 의료 혜택, 급속한 행군으로 고통을 겪으며, 남서쪽의 캘리포니아로 3,267킬로미터를 행군해 갔다. 그들은 샌디에이고와 산루이스 및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윈터쿼터스

[Dugouts] 움집(9단락) — 언덕 가에 구멍을 파고 나뭇가지와 마른 흙으로 덮어 만든 집
[Epidemics] 열병(9단락) — 질병이 급속하게 퍼짐
[Scurvy] 괴혈병 (9단락) — 비타민 C의 결핍으로 생기는 질병
[Theological] 신학(10단락) — 종교적인

로스엔젤레스에서 점령군으로 주둔했다. 병적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제대하여 가족들에게 돌아가도록 허락 받았다. 그들은 미국 정부에 대한 수고와 충성으로 인해 그들을 지휘하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18. “제대 후, 많은 대원들이 잠시 동안 캘리포니아에 머물면서 일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은 북쪽의 아메리카 강으로 가서 존 셔터 제재소에서 일했는데, 그 곳에서는 1848년에 금이 발견되어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시를 재촉했다. 그러나 후기 성도 형제들은 그러한 행운을 잡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힘들게 아메리카의 평원을 가로질러서 서쪽의 록키 산맥으로 가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제임스 에스 브라운은 이렇게 설명했다.”

19. “그 이래로 나는 지상의 부가 있는 그 장소를 결코 보지 않았으며, 그것을 후회한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는 언제나 금보다 더 귀중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서 부를 보았고, 그대도 머물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지만, 4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바위 밑에도 언덕 위에도 시냇물 속에도 어디에든 금이 있어 ... 자넨 곧 혼자 설 수 있는 재산을 모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으며, 우리는 서약을 맺었고, 지켜야 할 원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왕국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이 광야와 처녀지와 사막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상태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부보다 의무가 먼저였으며,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는 길을 떠났습니다.’ [James S. Brown, *Giant of the Lord: Life of a Pioneer*(1960), 120]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의 어떤 물질보다 더욱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의 유산, 72~74)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물론 대대

[Battalion] 대대(부제) — 병사들이 모인 커다란 집단	...	[Discharge] 제대(18단락) — 제대, 집으로 돌아감
[Contingent of men] 파견대 (13단락) — 할당된 수를 채워야 할 사람의 수	...	[Precipitating] 재촉했다(18단락) — 일으키다, 가져 왔다.
[Endeavor] 노력(13단락) — 노력	...	[Capitalize] 잡다 (18단락) — 이용하다, 이점을 취하다
[Ordeal] 시련 (14단락) — 힘든 경험	...	[Inducement] 권유(19단락) — 격려
[Nativity] 고향(15단락) — 출생	...	
[Occupation troops] 점령 군 (17단락) — 점령한 지역을 지키는 군인들	...	

브룩클린 호의 성도들

20.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부에서 육로를 통해 록키 산맥으로 갔지만, 미국 동부의 어떤 성도들은 바다를 통해 여행했다. 1846년 2월 4일에 70명의 남자와 68명의 여자, 그리고 100명의 어린이들이 브룩클린 호를 타고 뉴욕 항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27,358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 항해 동안 애틀랜틱과 퍼시픽이라는 이름의 어린이 두 명이 태어났고, 12명이 죽었다.”



21. “6개월 동안의 여행은 몹시 힘들었다. 열대 지방의 더위 속에서 승객은 몹시 땀 흘렸고, 음식과 물도 모두 형편없었다. 케이프타운을 돈 후 그들은 후안 페르난데즈 섬에 상륙하여 5일 동안 휴식을 취했다. 캐롤린 아우구스타 퍼킨스는 ‘다시 한 번 단단한 땅을 보고 밟는 것은 선상 생활에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겼으며, 그 순간을 즐겼다.’라고 회상했다. 그들은 신선한 물에서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았으며, 과일과 감자를 모으기도 하고, 물고기와 뱀장어를 잡기도 하고, ‘로빈슨 크루소 동굴’을 탐험하며 섬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Caroline Augusta Perkins, quoted in “The Ship Brooklyn Saints,” *Our Pioneer Heritage* (1960), 506]

22. “1846년 7월 31일에 그들은 심한 폭풍우와 부족해지는 식량과 오랫동안 항해로 점철된 여행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곳에 머물러서 뉴호프라는 이름의 거주지를 세웠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레이트 베이진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갔다.” (우리의 유산, 74~75)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브룩클린 호의 성도들

[Tropics] 열대 지방(21단락) — 적도 가까이 있는 땅들	...	[Great Basin] 그레이트 베이진 (22단락) — 유타와 네바다 주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
[Terra firma] 단단한 땅(21단락) — 다른 땅	...	

계속되는 집합

23. “미국 전역과 다른 많은 나라에서 충실한 개종자들이 말을 타거나 걸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을 통해 자신의 나라와 고향을 등지고 성도들과 합류하여 록키 산맥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했다.”

24. “1847년 1월에 브리검 영 회장은 영감 받은 ‘이스라엘 진영에 관한 주의 말씀과 뜻 (교리와 성약 136:1)을 발표했다. 그것은 서부로 이주하는 개척자들을 다스리는 헌법이 되었다. 대대가 조직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도록 책임이 주어졌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과 탐욕과 다툼을 버려야 했다. 또 그들은 즐거우면 음악과 기도와 춤으로 감사를 보여야 했다. 주님은 영 회장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룬 대로 행하고 너희 원수를 두려워 말라’ (교리와 성약 136:17)고 하셨다.”

25. “첫번째 개척자 그룹이 윈터쿼터스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팔리 피프렛이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존 테일러가 영국 성도들의 선물을 갖고 뒤따라 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음 날 테일러 형제가 영국 회원들의 사랑과 신앙의 증거로서 여행자들을 돕기 위해 보낸 십일조를 갖고 도착했다. 그는 또한 개척자들이 행로를 계획하고 주위 환경에 대해 알게 해 주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하다고 입증된 과학 기구를 가져 왔다. 1847년 4월 15일에 브리검 영이 이끄는 첫번째 대대가 출발했다. 그 후 20년에 걸쳐 대략 62,000명의 성도가 그들을 따라 시온에 집합하기 위해 마차와 손수레로 평원을 가로질러 갔다.”

26. “도중에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놀라운 풍경도 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셉 모이너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가기 위해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버팔로 떼와 커다란 삼나무 언덕과 같이 이전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광대한 지역에 해바라기가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회상했다.”



27. “또한 성도들은 육체적인 피곤을 잊을 수 있도록 신앙을 고무시켜 주는 일들을 경험했다. 하루 종일 여행하고 모닥불에 요리한 음식을 취하고 나서, 남자와 여자들은 무리지어 모여서 그 날의 활동을 논의했다. 그들은 복음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도 부르며 춤도 추고 함께 기도했다.”
28. “성도들이 서서히 서쪽으로 나아감에 따라 죽음이 자주 그들을 찾아왔다. 1850년 6월 23일에 크랜달 가족의 수는 열다섯이었다. 그 주가 끝날 때까지 심한 전염성 콜레라로 가족 중 일곱 명이 죽었다. 다음 며칠 동안에 다섯 명이 더 죽었다. 그 후 6월 30일에 크랜달 자매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와 함께 죽었다.”
29. “성도들은 비록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여행하는 중에 많은 시련을 겪기는 했지만 단합, 협동, 낙천적인 정신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신앙과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함께 결합하여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찾았다.” (우리의 유산, 75~76)



© 1997 Glen S. Hopkinson

“이 곳이 바로 그 곳이다”

바라보았다. 서부의 태양에 어슴프레 빛나는 소금 호수가 있는 그 계곡은 시련과 예언의 대상이었으며, 그들과 그들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땅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피난처였다. 그 곳에서 그들은 록키 산 중의 강대한 백성이 될 것이었다.”

32. “몇 년 후에 영국에서 온 개종자인 리오 그리피스 베이커는 그녀가 솔트레이크시티를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다. ‘도시는 ... 네모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네모지게, 혹은 구획으로 반듯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각각의 구획은 10에이커였으며 그것은 8개의 지구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지구에 집이 한 채씩 들어 있었다. 나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내 느낌을 잘 분석할 수는 없지만 아마 길고 위험한 여행을 하는 동안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피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느낌이 가장 컸던 것 같다.’” [“Jean Rio Griffiths Baker Diary,” 1851년 9월 29일; in LDS Church Archives] (우리의 유산, 76~77쪽)

독서 과제를 이해함



계속되는 집합

- | | | |
|---|-----|---|
| [Kinds of conveyances] 여러 가지 교통 수단(23단) — 여행을 위해 사용된 탈 것의 종류들 | ... | [Dreaded plague] 심한 전염성(28단) — 무서운 질병 |
| [Constitution] 헌법(24단) — 문서화 된 법 | ... | [Prevailed] 가득 차 있었다(29단) — 다른 모든 것을 극복했다 |
| [Covetousness] 탐욕(24단) — 이기심, 욕심 | ... | |

이 곳이 바로 그 곳이다

30. “1847년 7월 21일에 첫번째 개척자 대대의 올슨 프랫과 에라스터스 스노우가 이주자들을 앞에서 이끌고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람이 간신히 헤치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란 풀과 농사 짓기에 좋은 땅과 계곡 전체를 흘러 다니는 여러 개의 작은 냇물을 보았다. 3일 후에 장티푸스를 앓고 있던 브리검 영 회장을 태운 마차가 계곡으로 들어서는 협곡 입구에 닿았다. 영 회장은 그 광경을 둘러보면서 그들의 여행에 대해 예언적인 축복을 해 주었다. ‘충분하다. 이 곳이 바로 그 곳이다.’”

31. “뒤따르던 성도들도 산에서 빠져나오자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유심히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이 곳이 바로 그 곳이다

- | | | |
|---|-----|---|
| [Preceded the emigrants] 앞서서 들어갔다(30단락) — 다른 여행자들보다 먼저 도착했다 | ... | Analyze 분석하다 (32 단락) — 자세히 조사하다 |
| [Refuge] 피난처 (31 단락) — 평화와 보호 | ... | [Prevailing] 가장 컸던 (32 단락) — 가장 평범한, 가장 강력한 |

오늘날 사람들이 물론 개척자들이 간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물론 개척자들이 걸어간 대부분의 길은 오늘날 추적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도와 함께 안내 책자도 마련되어 있다. 여행로 주변에 있는 재산의 일부는 교회 소유이며, 여행자들이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곳곳에 방문자 센터가 세워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로는 주 및 지방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 사람들은 여행자에게 소유를 돌아보게 허락해 준다. 이 길을 따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지방 정부의 법을 준수해야 하며,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독서 과제물을 공부함

“서부로의 대이동 (1845~1847)”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나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과 이야기를 참조하여, 여러분이 나무에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여행한 개척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가정하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짧막하게 적어본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나무를 떠나는 일, 아이오와를 횡단한 일, 윈터쿼터스에서의 생활, 평원 횡단, 그리고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분과 가족이 경험했던 일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여행하면서 보았던 장소들에 대해 적는다.

나 지금이 그때보다 쉬운가?

1. “서부로의 대이동(1845~1847)”을 위한 독서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날짜들을 차례대로 열거한다. 각 날짜 옆에는 일어난 일을 적는다.
2. 여러분은 오늘날이 1840년대보다 복음 대로 생활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 단락으로 적어본다.

다 길을 비교한다

1. 여러분의 노트에 북 아메리카와 남 아메리카의 지도를 간략하게 그려 본다. 독서 과제에 있는 내용과 경전 부록에 있는 지도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노트에 그린 지도에도 성도들의 본대와 물론 대대, 그리고 브룩클린 호의 성도들이 간 길을 대충 그려 본다.
2.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아 있었다면 성도들의 그 세 그룹 가운데 어느 그룹에 속하여 여행을 하고 싶은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136편

“모든 백성[은] ... 여러 부대로 편제를 갖추지니라.”

1847년 1월 11일, 나무를 떠난 지 거의 일 년쯤 되었을 때,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형제들에게 지난 밤에 선지자 조셉과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 이주를 하기 위해 부대를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Manuscript History of Brigham Young, 1846~1847, comp. Elden J. Watson[1971], 501~502) 3년 후에 영 회장은 네브래스카 윈터쿼터스에 있는 히버 시 김볼 장로의 집에 십이사도 정원회 가운데서 일곱 명을 불러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광야로 여행하기 위한 준비 문제를 토론했다. 그 날 저녁 브리검 영 회장은 계시에 의해 “주의 말씀과 뜻”을 받았으며,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렸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36편

[Statutes] 율례 (2절) — 율법	[Supplication] 간구 (29절) — 겸손한
[Tarry] 머물러 (6절) — 뒤에 남다	기도
[Proportion] 분배 (8절) — 몫, 부분	[Chastisement] 징계 (31절) — 교정
[Dividend] 부담 (8절) — 부분, 할당된 몫	[Contrite] 상한 (33절) — 회개하는
[Folly] 어리석음 (19절) — 어리석음	[Condemnation] 징죄 (33절) — 처벌이 따른 판결
[Made manifest] 알려지게 하다 (19절) — 알려지거나 밝혀지다	[Calamity] 재앙 (35절) — 어려움, 재난
[Tend to edifying] 덕성을 복돋움(24절) — 서로 가르치고 높임	[Taken in travail] 산기를 보이다 (35절) — 아기를 낳으려 함

교리와 성약 136: 34~36 — “너희를 내어 쫓은 국민이니라”

남북 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북쪽에 있는 여러 주들과 남쪽에 있는 여러 주들 간에 있었던 전쟁이다. 전쟁의 주요 쟁점은 주의 권리와 노예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87:1~7; 130:12~13 참조) 이 전쟁에서 죽은 미국 사람의 수는 다른 모든 전쟁에서 죽은 미국 사람의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전쟁이 발발한 지 일 년쯤 지난 후에 브리검 영 회장은 성도들은 서쪽에 있어서 안전했다고 말했다.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전쟁과 유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과 골짜기가 가로놓여 있고 그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 나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안전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있으며, 큰 은혜와 높임을 받고 있는 반면, 우리를 멀하려고 하던 원수들은 비참하게 되고 있습니다.”(in *Journal of Discourses*, 10:38~39)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36편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활동 나 또는 다를 한다.

가 가족 규칙 목록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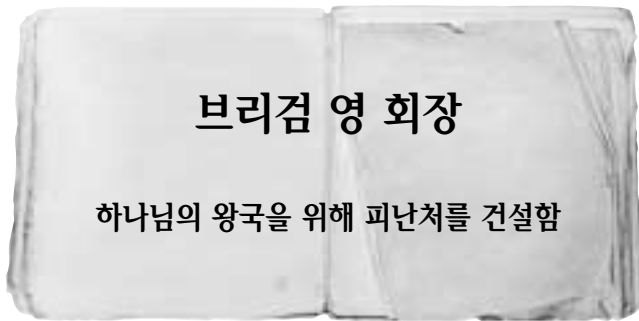
여러분의 가족이 개척자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상상한다. 교리와 성약 136편 1~32절에 있는 가르침을 토대로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가족에게 권하고 싶은 열 가지 가족 규칙 목록을 만든다. 각 규칙 옆에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성구들을 적어둔다.

나 도표를 그린다

교리와 성약 136편 3, 12~15절을 읽고, 성도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스스로 어떻게 편제를 갖추었는지를 보여 주는 도표를 그린다.

다 “너희를 내어쫓은 국민이니라”

교리와 성약 136편 33~43절에서 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살해당했으며, 그의 죽음과 성도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 미국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가르침을 적어도 다섯 가지를 찾아서 목록을 만든다.



개척자들이 처음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을 때, 그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매우 외지고 고립되어 있는 땅이었다. 그들이 두고 떠난, 물이 풍부한 동부의 농장과 비교하면 그 곳은 사막이나 다름없었다. 그 곳에 정착하는 데는 신앙과 노력이 요구되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1847년 말까지 이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으며, 네브래스카 윈터퀴터스와 아이오와에 있는 다른 임시 정착촌에 만이천 명 가량의 사람들이 먼저 도착한 사람들과 합류할 날을 기다렸다. 브리검 영 회장의 영감 받은 지휘 하에, 후기 성도들은 계속해서 루키 산맥으로 집합했으며, 사막을 정복하고, 안전한 정착지를 만들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상에 있는 많은 나라에 전파했다.

그의 생애(1801~1877)

1801년	6월 1일 버몬트 주 워팅햄에서 존과 아비가일 하우 영 사이에서 출생함	
1824년	23세, 10월 8일에 미리엄 위크스와 결혼, 그녀는 1832년에 죽음	
1832년	30세, 4월 14일에 뉴욕 주 멘돈 근처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방앗간 연못에서 침례받음	
1832~1833년	31~32세,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작은 개종자의 무리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데려옴	
1834년	32세, 2월 18일 메리 앤 앤젤과 결혼함, 그녀는 1882년에 죽음	
1835년	33세, 2월 14일에 몰몬경의 세 증인인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및 마틴 헤리스에 의해 최초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임됨	
1839~1841년	38~40세,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함	
1840년	38세, 4월 14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음	
1844년	43세, 6월 27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죽은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교회 지도자가 됨	
1846~1847년	44~46세, 솔트레이크를 향해 서부로의 이주를 인도한 다음 네브래스카 윈터퀴터스로 다시 돌아옴	

1850~1858년	49~57세, 초대 유타 주 지사로 일함
1853년	51세, 솔트레이크 성전의 초석을 놓음
1877년	76세, 8월 29일, 30년 이상 교회를 관리한 후에 솔트레이크에서 별세함

회장으로서의 임기(1844~1877)

1846~1847년	일리노이 주 내부에서 성도들을 인도해 냄
1849년	주일학교가 조직됨
1850년	선교사들을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및 하와이로 보냄
1851년	교회 회원들이 미국의 서부 지역과 일부 캐나다와 멕시코에 350개 이상의 정착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몰몬경을 처음으로 화란어로 번역하였음.
1853년	솔트레이크 성전 공사가 시작됨
1867년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이 완공됨; 교회 연차 대회가 그 곳에서 개최됨
1869년	청녀 조직이 시작됨
1877년	세인트 조지 성전이 헌납됨

유타에서 성도들을 정착시킴

1. “평원을 가로질러 성도들의 첫번째 일행을 성공적으로 유타로 인도해 온 브리검 영 회장은 이제 사막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관심을 돌렸다. 그의 비전과 지도력으로 인해, 한때 허허벌판이었던 사막이 성도들을 위한 번성하는 문명과 안식처가 되었다. 그의 솔직 담백한 지시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터전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게 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길을 찾아 떠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첫번째 성도들의 일행이 도착한 지 이틀 후, 브리검 영 회장과 몇 명의 십이사도는 영 회장이 나무를 떠나기 전에 시현으로 보았던 산 중턱에 있는 둥그런 절벽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절벽 아래로 펼쳐진 광활한 계곡을 내려다 보면서 세계의 열방이 이 곳에서 환영받을 것이며 성도들이 번영과 평화를 누릴 곳이 바로 여기라는 예언을 했다. 그들은 그 언덕을 엔사인(기치)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사의의 약속의 말씀에서 딴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이사야 11:12)”

3. “영 회장의 첫번째 공식적인 업무 수행은, 1847년 7월 28일에 성전을 건축할 중심 부지를 선정하여 사람들에게 성전의 설계와 건축에 대한 계획에

착수하도록 한 것이었다. 자신의 지팡이를 선정한 부지에 꽂고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성전을 지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선언은 바로 얼마 전 나무를 떠날 때 강제적으로 성전 예배 의식을 중단해야 했던 성도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음에 틀림없었다."

4. "8월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첫번째 개척자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해에 그들의 가족들을 계곡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기 위해 윈터쿼터스로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온 직후에, 브리검 영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제일회장단을 재조직할 때가 되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던 브리검 영이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그는 허버 시 킴볼과 윌라드 리차즈를 보좌로 선택했으며,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우리의 유산, 81~82쪽)



허버 시 킴볼



브리검 영



윌라드 리차즈

독서 과제를 이해함



유타에서 성도들을 정착시킴

[Haven] 안식처 (1단락) — 안전할 장소	• [Bluff] 절벽(2단락) — 언덕
[Quest] 찾아 (1단락) — 찾다	• [Ensign] 기치(2단락) — 사람들이 모여드는 깃발 또는 기

계곡에서의 첫번째 해

5. "1847년 여름이 가기 전에 두 그룹의 성도들의 일행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더 도착했으며, 약 2,000명의 회원들로 솔트레이크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때에 늦게 곡식을 심어 수확이 아주 적었으므로, 이듬해 봄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식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존 알 영은 이렇게 기록했다."

6. "초목이 자랄 때까지 기근으로 인한 고통은 극심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빵 한 조각 없이 지냈다. 쇠고기, 우유, 돼지풀, 시고 릴리, 엉겅퀴가 우리의 일상 식품이 되었다. 나는 가축을 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가축들을 지켜보면서, 엉겅퀴 줄기를 먹곤 하였다. 마치 소처럼 배가 팍 찰 때까지 먹곤 했다. 마침내 굶주림이 너무 극심하면 아버지께서는 나뭇가지에 걸려 새들이 쪼아 댄 쇠가죽을 건어서 요리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맛있는 수프가 되었다.' [John R. Young, *Memories of John R. Young*(1920), 64] 정착민들은 서로 돕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러한 힘든 시기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다."



7. "1848년 6월까지 정착민들은 5~6천 에이커의 땅을 경작했으며, 계곡은 점차 녹색으로 변해가고, 수확도 풍성해졌다. 그러나 성도들은 식량 위에 내려 앉은 거대한 메뚜기 떼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성도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그들은 도랑을 파서 물줄기를 메뚜기 떼로 돌려 놓기도 하고, 메뚜기 떼를 막대기와 빗자루로 쳐서 죽이거나 불에 태워 버리려 하였으나, 이 모든 노력이 다 소용없었다. 메뚜기 떼들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몰려왔다. 솔트레이크 스테이크 회장인 축복사 존 스미스는 하루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요청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거대한 무리의 갈매기 떼가 하늘에서 나타나 메뚜기 떼 위로 내려 왔다. 수산 노블 그랜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놀라고 있는 사이에, 그 갈매기들은 거의 굶주린 것처럼 메뚜기 떼들을 마구 휘저으며 계절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in Carter E. Grant, *The Kingdom of God Restored*(1955), 446] 성도들은 기쁨과 경이의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8. "성도들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힘을 내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곧 큰 발전을 가져왔다. 1849년 9월 캘리포니아로 여행하던 한 여행가가 솔트레이크시티를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냈다. '저는 이전에 이분들보다 더 질서있고, 성실하며, 근면하고 예의바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황무지인 이 곳에서 그들이 이처럼 많은 일을 해 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4~5천명이 거주하는 이 도시에서, 저는 단 한 명의 게으른 사람도, 그리고 불량자와 같은 그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곡식 수확에 대한 그들의 전망은 좋았으며, 모든 면에 있어서 영과 힘이 있었는데, 이는 제가 보았던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in B. H. Roberts, *Life of John Taylor* (1963), 202] (우리의 유산, 82~83쪽)

독서 과제를 이해함



계곡에서의 첫번째 해

[Marginal] 적외므로 (5단락) — 겨우 살 수 있을 만큼	• [Ravenous] 굶주린(7단락) — 무척 배가 고프
[waxed sore] 극심했다 (6단락) — 더 나빠졌다	• [Earnest, industrious and civil] 성실하며, 근면하며 예의바른(8단락) —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상냥한
[Herd boy] 가축을 치는 소년(6단락) — 들에 있는 소들을 돌보는 소년	• [Idler] 게으른 사람(8단락) — 일하지 않는 사람
[Dismay] 놀라지 (7단락) — 낙담과 슬픔	• [Like a loafer] 불량자와 같은 (8단락) — 게으른
[Hordes] 떼(7단락) — 무리	• — 게으른

탐험

9. "1848년 늦은 여름, 브리검 영 회장은 윈터쿼터스로부터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다시 여행을 했다.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환경에서 어떠한 자원이 유용한 것인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 많은 것들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로부터 구했지만, 영 회장은 또한 교회 회원들을 탐험대로 보내 약초와 이용 가능한 천연 자원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10. "그는 다른 정착지를 알아보도록 다른 탐험대도 보냈다. 탐험대는 이렇게 여행하는 동안 정착지로 적합한 지역뿐 아니라 광물 자원과 풍부한 목재와 수원과 초원 지대 등을 발견했다.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토지의 일부를 떼어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땅은 그들을 지켜 주는 청지기과 같았으므로,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으며, 현명하고 부지런하게 잘 관리되어야 했다."

11. “1849년 가을, 영 회장의 지시 하에 영구적인 이민 기금이 제정되었다. 그것의 목적은 교회의 중심지로 합류하기 위해 여행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큰 희생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 기금을 조성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그 결과 수천 명의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여행해 올 수 있었다.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올 수 있게 되면, 도움을 받았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재정적인 도움을 다시 갚도록 되어 있었다. 이 기금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상호 부조의 노력으로 성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다.”(우리의 유산, 83~84쪽)

Courtesy of BYU Museum of Art. All rights reserved.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탐험

[Medicinal] 약(9단락) — 치료

[Abundant timber] 풍부한

목재(10단락) — 많은 나무

[Land speculation] 땅 투기(10단락)

—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땅을 사고

되파는 일

[Stewardship] 청지기 (10단락) —

다른 사람을 위해 재산을 관리함

[Perpetual] 영구(11단락) — 계속되는

[Emigrating] 이주(11단락) — 정착을

위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함

손수레 부대

12. “1850년대에 교회 지도자들은 최대한 많은 이주자들에게 재정적인 원조를 줄 수 있도록 경비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손수레 부대를 만들었다. 이 방법으로 여행했던 성도들은 수레에 100파운드의 밀가루와 제한된 양의 식량과 소지품만 실은 다음, 수레를 끌며 평원을 가로질러 갔다. 1856년에서 1860년 사이에 10개의 손수레 부대가 유타로 여행해 갔다. 그 중 8개의 부대는 성공적으로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달했지만, 마틴과 윌리 두 부대는 일찍 돌아온 겨울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대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13. “이 불운한 부대의 일원이었던 넬리 푸셀은 평원에서 열 살이 되었다. 그녀의 양친은 모두 여행 중에 세상을 떠났다. 부대가 록키 산맥에 가까이 감에 따라 날씨는 더욱 추워졌고 식량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굶주림으로 너무나 약해져서 계속 행군할 수 없었다. 넬리와 그녀의 언니도 쇠약해졌다. 그들이 거의 희망을 포기했을 때, 부대의 지휘자가 그들을 마차로 데려갔다. 그는 넬리를 마차에 태우고 매기에게는 마차 옆에서 계속 침착하게 걸어가라고 말했다. 매기는 억지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다행히 동상에 걸리지 않았다.”

14. “그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여 평원을 횡단하면서 닳아버린 넬리의 신발과 스타킹을 벗었을 때 동상으로 인해 다리의 피부도 함께 벗겨졌다. 이 용감한 소녀는 고통스럽게 발을 절단했으며 그녀는 평생동안 무릎으로 걸었다. 그녀는 후에 결혼하여 여섯 자녀를 낳았으며 자신의 집을 돌보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렀다. [“Story of Nellie Pucell Unthank,” *Heart Throbs of the*

West, comp. Kate b. Carter, 12 vols.(1939~1951) 9:418~420 참조] 자신의 상황을 극복한 그녀의 결심과 그녀를 돌보아 준 사람들의 친절은 초기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에 대한 좋은 예이다. 그들의 모범은 그들의 뒤를 따르는 모든 후기 성도에게 훌륭한 유산이다.”



15. “마틴 손수레 부대의 일원으로 평원을 횡단하여 오랫동안 유타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전에 손수레 부대가 지급한 것 말고는 더 이상의 보급품이나 보호도 없이 평원을 횡단하도록 허락했던 것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그 노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귀를 기울이다가 마침내 일어나서 감정에 벅차 다음과 같이 말했다.”

16. “나는 그 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 우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을 겪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부대의 생존자가 비난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절대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17. “나는 병과 모자라는 음식 때문에 한 쪽 발을 다른 쪽 발 앞으로 내밀 수도 없을 만큼 약해져 있을 때 손수레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모래밭과 경사진 언덕이 보였습니다. 나는 저 곳까지 가서는 포기해야겠다. 왜냐하면 짐을 끌고 그 곳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 나는 그 모래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이르렀을 때 수레가 나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가 수레를 미는지 보기 위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때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곳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18. “손수레 부대로 오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내가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때도 그 이후의 어떤 때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 위해 치른 대가는 치러야 할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마틴 손수레 부대에 속하게 된 특권을 누린 것에 감사합니다.”[William Palmer, quoted in David O. McKay, “Pioneer Women,” *Relief Society Magazine*, 1948, 1월호, 8쪽]

19. “찬송가 책에는 용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문명의 변경 지대에서 살기 위해 멀리 여행했던 초기 교회 회원들에 대한 노래들이 실려 있다.

20. “그대, 왕국의 건설자들이여,
길을 따라 개척하며
매일의 모든 행위,
후세가 따를 길일지니
새롭고 굳건한 기초를 짓고
거친 개척지로 헤쳐 나갔네
명예로운 개척자여,
축복있을지니 전진하라, 언제까지나!”

21. “그들의 모범은 우리에게 우리의 나라에서 더욱 충실하고 용기있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22. “언제나 봉사하며,
사랑으로 이끌리어
용기와 꺼지지 않는 빛으로
모든 곳 비치네.
날마다 짐을 가볍게 하고
날마다 마음을 밝혀주고
날마다 희망을 안겨주니
축복있을지니, 명예로운 개척자여!” [“They, the Builders of the Nation,” 찬송가, 36장(영문)], (우리의 유산, 77~78, 80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손수레 부대

- [Perished] 목숨을 잃었다(12단락) — 죽었다
[Depleted] 줄어들었다 (13단락) — 써 버렸다
[Legacy] 유산 (14단락) —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커다란 가치가 있는 어떤 것
[In our extremities] 가장 어려운 시기(16단락) —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동안
- [On the outposts of civilization] 문명의 변경 지대(19단락) — 먼 변경 지대에 정착함
[Forgoing] 전진하라(20단락) — 집중적인 노력을 하여 나아감
[Beacon] 빛(22단락) — 안내하는 빛
[Radiating] 비치네 (22단락) — 비춤

선교사들이 부름에 응함

23. “일에 활기를 띠고 생활이 점차 안정되자, 브리검 영 회장은 관심을 교회로 돌렸다. 1849년 10월 6일 연차 대회에서, 그는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들과 함께 몇몇 십이사도 회원들에게 외국에서 선교 사업을 행하도록 임무를 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새 집, 그리고 아직 끝나치지 않은 일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지만 이 부름을 받아들였다. 에라스투스 스노우와 몇몇 장로들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으며, 로렌조 스노우와 조셉 토론토는 이탈리아로 여행했다. 애디슨과 루시아 번즈 프랫은 소사이어티 군도에 있는 에디슨의 이전 선교 지역으로 돌아갔다. 존 테일러는 프랑스와 독일로 부름 받았다 선교사들은 동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록키 산맥에서 새로운 시온으로 향하는 성도들과 만났다.”



24. “선교 지역에서 선교사들은 기적을 보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 교회로 인도했다. 훗날 교회 회장이 된 로렌조 스노우는 이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세 살짜리 사내 아이가 거의 죽은 직전에 이른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때가 그 어린이를 병으로부터 고쳐 주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날 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시해 주시기를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다음날 그 동반자는 그 사내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 날 오후 그들은 그 아이에게 병자 축복을 해 주었으며, 그들의 사업을 도와 주시도록 조용히

기도드렸다. 그 아이는 밤새 평온하게 잠이 들었으며, 기적적으로 완쾌되었다. 아이를 고쳐 주었다는 소문이 이탈리아 피드몬트 지역의 여러 계곡으로 퍼져 나갔으며, 선교사들에게 문의 열리고, 그 지역에서 첫번째 침례가 나왔다.” [Francis M. Gibbons, *Lorenzo Snow: Spiritual Giant, Prophet of God* (1982), 64쪽 참조]

25. “1852년 8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특별 대회에서, 106명의 장로들이 전 세계로 선교 사업을 나가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 선교사들은 후에 부름 받은 선교사들처럼 남미, 중국, 인도,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하와이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뿌려 놓은 씨앗들로 말미암아 훗날 선교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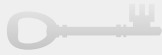
26. “에드워드 스티븐슨 장로는 스페인 지브랄타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은 그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는 그 곳에서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회복된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으며, 그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중 한 명이 거의 개종될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 당국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얼마 동안 감옥에서 보냈다. 석방된 후에 그는 두 명에게 침례 주었고, 1854년 1월까지 열 명의 회원을 둔 지부를 조직했다. 그 해 7월에는 여섯 명의 회원들이 아시아에 주둔한 영국 군대로 군복무를 하기 위해 떠났지만, 그 지부에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도력을 주는 한 명의 칠십인, 한 명의 장로, 한 명의 제사, 그리고 한 명의 교사를 포함한 열여덟 명의 회원들이 있었다.” [“The Church in Spain and Gibraltar,” *Friend*, 1975년 5월, 33쪽 참조]

27. “1852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지방 정부는 선교사들을 추방했다. 그러나 개종한 성도들은 1892년 전도 활동이 재개될 때까지 교회를 계속 유지해 나갔다. 티호니 장로와 마이헤아 장로가 특히 용감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옥 생활과 다른 많은 시련들을 견뎌냈다. 그들 각자는 성도들이 활동적이고 복음에 충실하도록 노력했다.” [R. Lanier Britsch, *Unto the Islands of the Sea: A History of the Latter-day Saints in the Pacific*(1986), 21~22쪽 참조]

28.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교회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이 시기가 시온으로 집합하는 시기였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엘리자베스와 찰스 우드 부부는 1860년에 남아프리카로부터 항해해 왔는데, 그들은 이 항해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엘리자베스는 한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으며, 그녀의 남편은 필요한 돈을 마련할 때까지 벽돌 공장에서 일했다. 엘리자베스는 아이를 낳은 지 24시간 후에 바로 배를 탔으며, 선장이 그의 침실을 그녀에게 내 주어 좀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그녀는 여행 중에 병이 들었고,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마침내 유타 주 필모어에 도착해 그 곳에서 정착해 살았다.”

29.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봉사한 나라의 성도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1857년 하와이에서의 선교 사업이 끝나갈 무렵, 심한 열병에 걸려 3개월 동안이나 선교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다행히 하와이의 충실한 성도인 마 마우히이 자매의 간호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조셉을 마치 자신의 친자처럼 극진히 돌보았으며, 이 두 사람 간에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후에 조셉 에프 스미스가 교회의 회장이 되었을 때, 호놀룰루를 방문하게 되었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바로 직후에 그는 한 눈 먼 여인이 인도되어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는 선물로 줄 탐스런 바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오세파, 이오세파(조셉, 조셉)’ 하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로 달려가 그녀를 껴안으며, 그녀의 볼에 수 차례 입맞춤을 하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 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Charles W. Nibley, “Reminiscences of President Joseph F. Smith,” *Improvement Era*, 1919년, 1월호, 193~194쪽 참조] (우리의 유산, 84~86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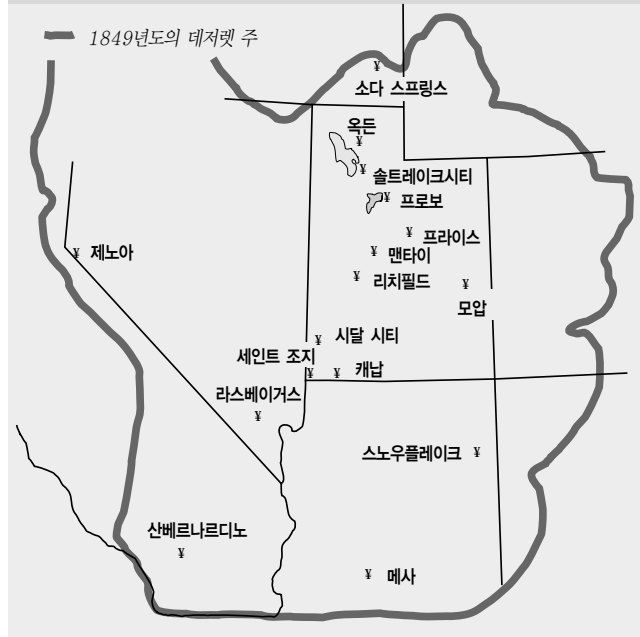
선교사의 부름에 응함

- | | | |
|--------------------------|-----|-----------------------------|
| [Domestic] (23단락) — 집 | ... | [Proselyting] 전도 활동(27단락) — |
| [Initial] 초기 (25단락) — 처음 | ... | 다른 사람들을 구주, 복음 그리고 |
| | ... | 교회로 개종시키려는 활동 |
| | ... | [Berth] 침실 (28단락) — 배에서 잠을 |
| | ... | 자는 곳 |

개척지로의 부름

30. “유타, 남 아이다호, 그리고 후에 아리조나, 와이오밍, 네바다 및 캘리포니아에 포함된 지역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연차 대회에서 부름 받은 개인이나 가족들에 의해 세워졌다. 브리검 영 회장은 수천 명의 새로운 정착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다.”

브리검 영 회장의 재임 중에 설립된
350개의 개척지 중 몇 개의 개척지



31. “브리검 영 회장의 생애 동안, 솔트레이크 계곡의 모든 곳과 주변의 많은 지역이 개척되었다. 브리검 영 회장이 세상을 떠난 1877년까지, 350여 곳 이상의 개척지가 건설되었으며, 1900년까지는 거의 500여 곳에 달했다. 초기에 교회의 관리 역원이었던 브리검 헨리 로버츠는, 물문들이 개척지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영 회장이 주었던 부름을 수행하면서 보여 주었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그들 각자의 비이기적이고 헌신적인 희생 때문이었다고 기록했다. [Russell R. Rich, Ensign to the Nations(1972), 347쪽에서 인용] 개척자들은 주님의 선지자를 따르기 위하여 물질적인 안락함이나 친구들과의 교제,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희생했다.”

32. “연차 대회에서, 영 회장은 외진 곳으로 이주할 부름을 받게 될 형제들과 그 가족들의 명단을 읽었다. 이 개척자들은 선교사로 부름 받은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그들이 해임될 때까지 지명된 곳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생필품들을 가지고 자비를 들여 그들의

새로운 터전으로 여행하였다. 그들의 성공 여부는 그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조사하고, 땅을 개간하며, 방앗간을 짓고, 대지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개수로를 파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목장 둘레에 울타리를 치며, 새로운 길을 닦았다. 그들은 곡물을 재배하고 채소를 가꾸며, 교회와 학교를 짓고, 인디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출생이나 사망 그리고 결혼식뿐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에도 서로 도우며 살아갔다.”

33. “1862년, 찰스 워커는 남 유타에 정착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는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이 곳에서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원리를 배웠다. 이 곳에서의 생활은 내게 순종이 하늘 아래나 땅 위에서 얼마나 위대한 원리인가를 보여 주었다. 나는 이 곳에서 지난 7년 동안 무더위나 추위, 굶주림과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며 생활하였으며, 마침내 곧 탐스러운 수확을 하게 될 많은 과실수가 있는 집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남겨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떠나야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로 내게 요구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Diary of Charles Loewil Walker, ed. A. Karl Larson and Katharine Miles Larson, 2 vols. (1980), 1:239]



34.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찰스 시 리치 또한 개척지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 브리검 영은 그와 몇몇 다른 형제들에게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241킬로미터 떨어진 베어 레이크 계곡에 정착하라는 부름을 주었다. 그 계곡의 정상은 매우 높았으며, 겨울 동안에는 눈이 덮여 있는 매우 추운 곳이었다. 리치 형제는 최근 유럽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으며, 그의 가족들을 떠나 다시 한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1864년 6월, 베어 레이크 계곡에 도착했다. 그 다음 해 겨울부터 봄까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활했는데, 다른 몇몇 형제들은 그 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리치 형제는 이 추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35.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것은 ...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도우며 이겨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저는 저 혼자만 남게 되더라도 이 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 회장님이 저를 이 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해임하고 이 곳을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이 곳에 남아 있겠습니다.’ 리치 형제는 그의 가족과 함께 실제로 그 곳에 남았으며, 그 다음 몇 십 년 동안 번영하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돕기 위해 기꺼이 그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했다. [Leonard J. Arrington, Charles C. Rich(1974), 264쪽 참조] (우리의 유산, 86, 88~89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개척지로의 부름

[Colonize] 개척지 (부제) — 새로운 마을을 세우다	[Locales] [지명된] 곳(32단락) — 장소
[Stemmed from] 비롯된 (31단락) — ~의 결과로 생기는	[Gristmill] 방앗간 (32단락) —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공장
[Material comforts] 물질적인 안락함 (31단락) — 기쁨과 행복을 향상시키는 소유물	[Adverse] 열악한 (33단락) — 어려운

인디언들과의 관계

36. “개척자들은 변방 쪽으로 더 나아가면서 인디언들과 자주 교류를 했다. 서부의 다른 정착민들과는 달리, 브리검 영 회장은 회원들에게 원주민인 인디언 형제 자매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도록 가르쳤다. 인디언 사이에서의 선교 사업이 아이다호 준주에 있는 새먼 강 지역의 포트 림하이와 유타 주 경계 지역 내의 콜로라도 강 상류에 있는 엘크 산에서 시도되었다. 영 회장은 또한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바느질을 하여 인디언 형제 자매들을 위한 의복 등을 만들도록 권고하였으며, 인디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모금하도록 지시했다.”

37. “성도들과 매우 가깝게 지낸 비회원 인사였던 토마스 엘 케인의 아내 엘리자베스 케인이 유타 주를 여행하고 있었을 때, 그녀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한 몰몬 여인의 집에 머물렀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직접 그 몰몬 여인이 인디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그 여인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여인은 준비한 저녁 식사에 손님들을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기다리고 있던 인디언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여인이 인디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여인의 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이 손님들이 먼저 오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드릴 음식만 차렸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음식도 준비 중이니까 다 되면 부르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믿을 수가 없었으며, 그 여인이 그 인디언들에게 정말 음식을 줄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그 아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에게 대접해 드린 것과 똑같이 저들을 위해 식탁에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인디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시중을 들며 그들을 대접했다. [Elizabeth Wood Kane, *Twelve Mormon Homes Visited in Succession on a Journey through Utah to Arizona*(1974), 65~66쪽 참조] (우리의 유산, 89~90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인디언들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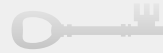
[Frontier] 변방 (36단락) — 광야	[Weary] 지쳐 있는 (37단락) — 피곤한
[Instituted] 설립하다 (36단락) — 조직하다	

신권 및 보조 조직의 기능

38. “영 회장은 말년에, 몇 가지 중요한 신권 책임을 설정하고 발표했다. 그는 십이사도들에게 모든 스테이크에서 대회를 열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유타 전역에 7개의 새로운 스테이크와 140여 개의 새로운 와드가 생겨났다. 스테이크 회장단, 고등 평의원, 감독단 및 정원회 회장단들의 임무가 분명히 정의되었으며, 수백 명의 형제들이 이 직책에 부름 받았다. 그는 교회 회원들이 십일조와 금식 헌물과 기타 다른 헌금을 바치고 질서있게 생활해 가도록 그들을 권고했다.”

39. “1867년 선지자는 조지 큐 캐논을 주일학교 책임자로 불렀으며, 수년 내에 주일학교는 교회의 영구적인 조직이 되었다. 1869년 영 회장은 그의 딸들을 모아 놓고 검소하게 살도록 특별한 지침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1879년 절제회 설립과 함께 이러한 권고를 교회의 모든 청년들에게 적용했다. 이것이 청년 조직의 시초이다. 1877년 7월 그는 첫번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유타 주 옥든으로 여행했다.”(우리의 유산, 90~91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신권 및 보조 조직의 기능

[Auxiliary] 보조 조직 (부제) —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처럼 신권 아래 있는 조직	[Superintendent] 책임자(39단락) — 지도자
[Clarified] 설정(38단락) — 어떤 것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전해준다	[Modest] 검소하게 (39단락) — 검소한, 단순한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는 솔트레이크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8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유혹이었다. 동부에서 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물결은 평원을 가로질러 솔트레이크 계곡을 지나갔다. 계곡에서의 열악한 환경을 불편하게 여긴 일부 교회 회원들은 마차에 짐을 싣고 떠날 차비를 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자신의 성도들의 집합 장소로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금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는 이 곳에 있는 편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 금과 은, 그리고 지하에 풍부하게 묻힌 광물 자원에 관한 한 이 나라와 견줄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 두시고 다른 사람들이나 그것을 찾게 하세요. 우리는 땅을 개간할 것입니다.”(in Brown, *Giant of the Lord*, 132~133) 일부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로 떠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장의 뜻을 충실히 따른 탓으로 그 해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1849년에 있었던 유명한 골드 러시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축복이 되었다. 상품들을 싣고 캘리포니아로 가던 상인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여, 그들이 배로 보낸 식품, 의복 및 연장 등이 이미 그곳 시장에 도착했음을 알고는, 그들의 상품들을 성도들에게 할값으로 팔았다. 금을 캐러 가던 사람들도 성도들에게 마차 수리를 의뢰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솔트레이크에서는 빈 마차를 끄는 일행을 파견하여 금광으로 빨리 가기 위해 짐을 가볍게 하고자 사람들이 길가에 버린 물건들을 모아 실어오게 하였다.

독서 과제를 공부함

“브리검 영 회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세 가지를 한다.

가 새로운 고향

1. 새로운 고향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상상한다. 여러분의 노트에다 “나의 추진 순서”라는 제목 아래, 다음 일들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순서대로 적는다.
 - 가.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한다.
 - 나. 특별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급식하고 기도한다.
 - 다. 씨를 뿌린다.
 - 르. 사업 진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 미. 성전을 지을 장소를 물색한다.
 - 비. 교회를 조직한다.
 - 스. 미래를 위해 영감에 찬 계획을 수립한다.
2. 1~11단락을 복습한다. 그런 다음, “개척자의 추진 순서”라는 제목 아래, 단락 속의 추진 사업들을 브리검 영과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처음 몇 달 동안 추진했던 순서에 따라 적는다.
3. 그 일들이 이루어진 순서로부터 여러분이 감명을 받은 점은 무엇인가?
4. 이 예는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나 찬송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는다

1. 20~22단락에 있는 “그대, 왕국의 건설자들이여”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주의 깊게 읽는다.
2. 여러분의 노트에 다음의 낱말과 구들을 적는다. 그런 다음 예로 든 각 낱말과 구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독서 과제물, 브리검 영 회장에서 찾아 여러분의 목록 옆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적어넣는다.
 - 가. 나중 사람을 위해 길을 만든다
 - 나. 거친 변방으로 몰아냄
 - 다. 전진함
 - 르. 봉사
 - 미. 사랑
 - 비. 용기
 - 스. 축복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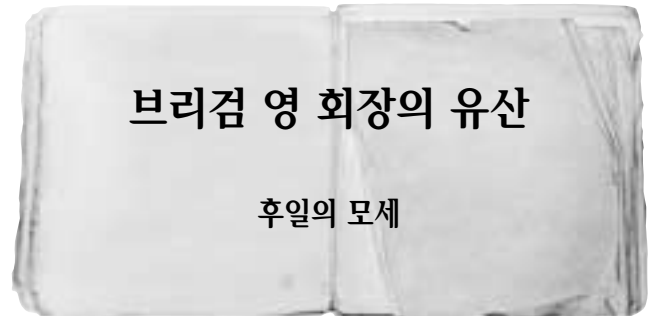
다 지도를 그린다

1. 여러분의 노트에, 간단한 세계 지도를 그린다. 그 지도에 브리검 영 회장이 선교사를 보낸 모든 나라를 표시한다. (23~29단락 참조)
2. 다음 질문에 대답한다.
 - 가. 이 나라들 중 어느 나라에서 가장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나. 먼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자녀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는가?
 - 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행하도록 부르신 일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 그 경험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는가?

라 이야기를 쓴다

브리검 영 회장은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 부름을 주어 현재의 유타 주와 그 인근에 있는 여러 주에 있는 지역들을 개척하게 하였다. 30~35단락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한다.

1. 새로운 지역 사회를 개척하도록 부름 받은 각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이름 옆에는 힘든 과제를 견디어 내는 사람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성품을 적는다.
2. 169쪽의 통나무 집 앞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본다. 여러분이 그 가족의 일원이라고 상상하고 브리검 영 회장이 여러분에게 그 지역을 개척하라는 부름을 주었을 때 여러분의 소감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쓴다.



제일회장단 보좌였던 조지 큐 캐넌 회장은 브리검 영 회장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여러분이 가서 영 회장의 설교를 읽고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지금 믿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읽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확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장래 일에 대해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듯이 말했고, 그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Gospel Truth, 1:328)

브리검 영 회장의 죽음과 유산

1. “지도자로서 브리검 영 회장은 실천적이고 정열적이었다. 그는 성도들에게 가르침과 용기를 주기 위해 교회의 모든 정착지를 여행했다. 말씀과 모범으로써, 그는 회원들이 교회에서 그들의 부름에 충실하도록 가르쳤다.”
2.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며, 영 회장은 뉴욕시의 한 신문 편집자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썼다.”
3. “지난 26년 동안 저의 노력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약 10만 명 정도의 후기 성도들이 이 경계 내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세운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시에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 우리의 공동체를 향상시키고 이롭게 하기 위해 학교와 공장과 제분소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세웠습니다.”
4. “저는 온 생애를 바쳐 전능하신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Hinckley, Truth Restored, 127~128쪽에서 인용함)

5. “1876년 9월, 영 회장은 구주에 대해 강한 간증을 하였다. ‘저는 예수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이시며, 구주요, 구속주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왔고, 그분의 약속을 저의 삶에서 확실히 이해했으며, 이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지식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Journal of Discourses, 18:233]



6. “1877년 8월, 영 회장은 매우 심한 병에 걸렸으며, 의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 때 그의 나이 76세였으며, 교회를 이끌어 온 지 33년이 되는 해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현대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온 정열적인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다. 그의 설교는 종교가 매일매일의 경험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었으며, 일상의 모든 면에서 감동을 주었다. 그는 서부 변경 지역에 대한 이해와 현명한 지침으로, 하늘의 축복으로써 사막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 것과 같은,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과업을 성취하도록 성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의 유산, 91쪽)

독서 과제를 이해함



브리검 영 회장의 죽음과 유산

[Dynamic] 정열적인 (6단락) — 힘있는

브리검 영의 가르침과 간증

7. 마태복음 5장 48절과 관련하여,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이 문장의 표현을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만큼 온전하라’ 그 이유는 기록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을 만큼만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방도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처럼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Discourses of Brigham Young, 80쪽)



8.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죽은 지 약 삼 년쯤 지난 후에, 브리검 영은 꿈 또는 시현에서 조셉 스미스를 보았다. 영 회장은 선지자에게 교회 회원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셉이 나에게 나아와서 매우 진지하지만 즐거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겸손하고 충실하여 항상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그로 인해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십시오. 작고 조용한 소리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 그들은 주님의 영광 기타 모든 영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영은 그들의 영혼에 기쁨과 평화를 속삭여 줄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 그들의 마음에서 악의와 미움과 다툼과 모든 악을 없애고,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무엇보다 그들의 소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Manuscript History of Brigham Young, 1846~1847, comp. Elden J. Watson[1971], 539쪽)

9. “내가 이 백성들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그들이 이 땅에서 큰 부를 얻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잊으며, 살찌고, 자신들을 교회에서 견여차 지옥으로 빠지게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폭도의 습격과 강탈, 가난, 온갖 박해를 다 견디어 낼 수 있으면서도 진실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부에도 견디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김블, 용서가 낳는 기적, 51쪽)

10.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하고 싶은 기분인지 어떤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 영이 기도하도록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기도다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Discourses of Brigham Young, 44)

11.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2천 년 전 또는 5천 년 전의 시절로 되돌아가 경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전을 읽으십니까? 경전을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경전을 읽고 계십니까? 이러한 느낌을 느끼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나 산책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처럼 ...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19쪽)

12. “저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과신한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도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여쭙보지도 않는 우를 범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무모한 확신에 의지하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그들의 지도자의 손에 맡긴 채 맹목적인 자기 안전 상태에 안주하고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경우, 그들이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고 염려됩니다.” (Discourses of Brigham Young, 135)

13. “사람들은 왜 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시온의 정든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바다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옵니다. 선원들이 말한 대로 배는 몹시 고전을 합니다. 한 탑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안 있을 테야. 이 배는 시온의 배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바다의 한 복판에 있는 걸. 상관 없어. 여기 안 있을 테야.’ 그는 이같이 말하면서 상의를 벗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갑니다. 이 사람은 빠져 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는 ‘시온의 정든 배’입니다. 우리들은 이 배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합시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83쪽)

14. “저는 조셉 스미스를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성임하셨으며,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열쇠와 권세를 받으신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 (Discourses of Brigham Young, 458~459)

15. “누가 조셉 스미스에 대적하는 일을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 못지않게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부모님들이 나보다 그를 더 잘 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도 나보다 그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셉 스미스가 이 지상에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 중에서 예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증인입니다.” (Discourses of Brigham Young, 459)

16. “회장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도록 맡기신 일을 하고, 그들에게 주신 권고에 순종하게 합시다. 그러면 왕국은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며, 왕국의 힘과, 그 중요성과, 그 규모 및 권세와, 지혜와, 예지와 영광이 계속 커질 것입니다.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으로서 창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한하신 지혜와 권세로 지지해 오신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Discourses of Brigham Young, 148)

독서 과제를 이해함



브리검 영 회장의 간증과 가르침

[Alter] 고칠 (7단락) — 바꾸다	∴ [Blind self-security] 자기 안전에
[Justified]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됨(7단락) — ~처럼 의롭게 됨	∴ 눈이 멀어(12단락) — 경솔하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음
[Malice] 악의 (8단락) — 다른 사람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 [Reckless confidence] 무모한 확신 (12단락) — 단지 지도자들의 지위만을 보고 그들을 믿음
[Strife] 다툼 (8단락) — 다툼, 말다툼	∴ [Thwart] 방해가 되다 (12단락) — 쳐부수다
[Wax fat] 살찌고 (9단락) — 가진 재산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참	∴ [Aught] 조금이라도 (15단락) — 무엇이란
[Bids them] 명령할 (10단락) — 하라고 말하다	∴ [Magnitude] 규모 (16단락) — 크기

독서 과제를 공부함



“브리검 영의 유산”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브리검 영에 대한 질문

1~6단락의 내용과 브리검 영의 생애와 회장의 재임에 대한 도표(165쪽)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브리검 영이 사도로 성임받았을 때, 연세는 몇이었으며, 교회 회원이 된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2.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다? (교리와 성약 121편 머리글 참조)
3. 브리검 영 회장 재임시 교회에서 시작된 일로 인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받은 축복을 다섯 가지 나열한다.

나 여러분 자신의 말로 써 보기

1. 7, 9, 13~16단락 중 세 개의 단락을 골라 여러분 자신의 말로 써 본다.
2. 각 단락을 적고 난 후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그 가르침으로 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의 예를 적어 둔다. 예를 들면, 10단락에 있는 가르침은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말씀들을 비교하기

1. 다음 성구를 읽고 여러분의 노트에 마련한 난에 참조 성구를 적는다.

다니엘 2:44~45; 마태복음 5:48; 니파이후서 32:8~9; 앨마서 24:30; 교리와 성약 11:12~14

2. 7~8, 10, 13, 및 16단락을 복습한다. 여러분의 노트에 적은 참조 성구 뒤에다 각 참조 성구와 가장 잘 맞는 성구 번호를 적는다.



존 테일러 회장

자유 수호자

성도들은 브리검 영 회장이 별세한 후에 몇십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정부는 많은 정치 및 종교 개혁 단체의 격려와 도움으로 복수 결혼 실시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개혁 단체들이 교회에 반대하는 거친 대중 매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1875년에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부 관리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 테일러 회장의 유능한 지도력 하에 성장과 확대를 계속했다.

그의 생애(1808~1887)

1808년	11월 1일, 영국, 밀른토르페 (Milnthorpe)에서 제임스와 아그네스 테일러 사이에 태어남	
1833년	24세, 1월 28일, 레오노라 캐논과 결혼, 그녀는 1868년에 별세함	
1836년	27세, 5월 9일, 캐나다 온타리오 조지타운에 있는 블랙 크리크에서 레오노라와 함께 침례를 받음	
1838년	30세, 12월 19일, 브리검 영과 허버 시 킴볼에 의해 사도로 성임됨	
1839~1841년	31~32세,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44년	35세, 6월 27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살해 당했을 당시 카터지 감옥에서 심한 부상을 당함	
1846~1847년	37~38세, 영국에서 두 번째 선교 사업을 함	
1849~1852년	40~43세, 프랑스와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함. 물론경이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출판되게 함	
1854~1857년	45~48세, 동부 여러 주의 선교부를 관리함	
1877년	68세, 8월 29일 브리검 영 회장의 사망 이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교회를 인도함	
1880년	71세, 10월 10일, 교회 회장으로 지지를 받음, 조지 큐 캐논 장로와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를 보좌로 둠	
1887년	78세, 7월 25일, 교회 회장으로 거의 7년간 봉사한 후에 유타 주 케이스빌에서 사망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877~1887)

1878년	초등회가 조직됨
1880년	값진 진주가 경전으로 받아들여짐
1884년	유타 주 로간 성전이 헌납됨
1886~1887년	더 많은 교회 회원들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보냄

존 테일러 회장

1. “브리검 영 회장이 돌아가신 후, 존 테일러 회장이 관리하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3년 동안 후기 성도들을 인도하였다. 1880년 10월 10일, 존 테일러는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되었다. 테일러 회장은 천부적인 저술가이자 저널리스트였는데, 그는 속죄에 관한 책을 출판하였으며, *타임즈 앤드 시즌즈*와 더 *몰몬*을 포함한 교회의 매우 중요한 정기 간행물을 편집하였다. 그는 여러 면에서 회복된 복음에 대한 그의 헌신과 용기를 보여 주었다. 한 예를 들면, 그는 자발적으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카테지 감옥에 갇혔으며, 그곳에서 네 발의 총탄을 맞기도 했다. 그의 개인적인 생활 신조인 ‘하나님의 왕국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의 유산*, 93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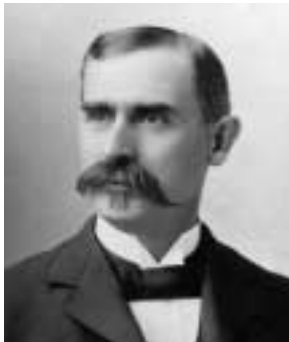


존 테일러 회장

[Periodicals] 정기 간행물(1단락) — : [Signified] 함축하고(1단락) —
잡지 : 보여주다

선교 사업

2. “테일러 회장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187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그는 사도로 부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세스 대처 장로를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을 주었다. 대처 장로와 다른 두 명의 선교사는 1879년 11월 13일 멕시코시티에 첫번째 교회 지부를 조직했는데, 지부 회장으로는 플로티노 시 로다카나티 박사가 부름 받았다. 로다카나티 박사는 스페인어 판 *몰몬경*에 관한 소재자를 읽고 테일러 회장에게 교회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한다는 편지를 보낸 후 개종한 사람이다.”

3. “십이사도 중 한 명과 세 명의 선교사들에 의해, 회복된 복음이 서서히 멕시코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되기 시작했다. 1881년 4월 6일에 대처 장로와 페라모르즈 영 장로와 파이스 형제는 해발 4,742미터에 이르는 포파카테페텔 산에 올라가 간단한 헌납식을 가졌다. 대처 장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멕시코 백성들이 그들의 목자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멕시코 백성들과 멕시코 땅을 헌납하였다.”

4. “대처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와 몇몇 선교사들이 추가로 더 멕시코에서 봉사하도록 추천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훗날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된 앤소니 더블류 어빈스를 포함한 몇몇 젊은이들이 멕시코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5. “밀턴 트레조는 스페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어떠한 종교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필리핀에서 군복무를 할 때, 그는 록키 산맥의 몰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을 방문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후에 그는 심한 병이 들었는데, 꿈 속에서 유타를 방문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병이 완쾌되었을 때, 솔트레이크시티로 여행을 했다. 그는 브리검 영을 만났으며, 복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멕시코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한 그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페인어로 된 *몰몬경*을 읽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6. “테일러 회장은 또한 미 서부에 사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불렀다. 아모스 라이트의 선교 사업은 와이오밍 주 윈드 리버 인디언 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쇼슨 족 가운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단 몇 개월만의 봉사로 라이트는 와사키 추장을 포함한 300여 명 이상의 인디언들을 침례 주었다. 또한 후기 성도 선교사들은 애리조나 주와 뉴멕시코 주에 거주하는 나바호 족, 푸에블로족 족 및 주니 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윌포드 우드럽은 호피 족, 아파치 족 및 주니 족 등과 같은 인디언들에게 1년 정도 선교 사업을 하였다. 암몬 엠 테니는 100명 이상의 주니 족 인디언들에게 침례를 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

7. “선교사들은 영국과 유럽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했다. 1883년, 유타 주 리하이에 살고 있던 독일 태생의 토마스 비싱거는 유럽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와 폴 해머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로 보내졌다. 그 지역은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였다. 선교사들은 법률로 전도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화들은 종종 종교적인 주제로 화제가 바뀌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도한 지 채 한 달도 못 되어, 비싱거 장로는 체포되어 두 달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석방된 후, 비싱거 장로는 자신을 고발했던 안토닌 유스트를 침례 주는 축복을 받았다. 유스트 형제는 체코슬로바키아 최초의 후기 성도가 되었다.” [Kahle Mehr, “Enduring Believers: Czechoslovakia and the LDS Church, 1883~1990” *Journal of Mormon History*(Fall 1992), 112~113쪽 참조]



8. “복음은 폴리네시아에도 전파되었다. 두 하와이 선교사인 키모 펠리오 장로와 사무엘 마노아 장로는 1862년에 사모아로 파송되었다. 그들은 약 50명의 사람들을 침례 주었으며, 마노아 장로는 사모아에서 25년 동안이나 자신이 개종시켰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1887년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조셉 에이치 던은 사모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마노아 장로와 그의 충실한 아내는 던 장로와 그의 아내 플로렌스 자매를 그들의 집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이는 마노아 장로에게 있어서 실로 20년 만에 사모아 지역 외의 교회 회원을 만나게 된 특별한 일이었다. 던 장로는 얼마 있지 않아 14명을 침례 주어 교회로 인도하였으며, 약 한 달 뒤에는 사모아 말로 첫 설교를 하였다. [R. Lanier Britsch, *Unto the Islands of the Sea: A History of the Latter-day Saints in the Pacific* (1986), 352~354쪽 참조] 그리하여 선교 사업은 그 섬에서 다시 한 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9. “1886년으로 접어들면서, 하와이 정부 관리들은 나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몰로카이 섬의 카라우파파 반도로 격리시켰다. 후기 성도였던 조나단과 키티 나펠라는 1873년에 그 곳으로 추방당했다. 키티 자매만 병에 걸렸으나, 솔트레이크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부부로 인봉된 조나단은 키티 자매 혼자 그 곳에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다. 후에 조나단도 병에 걸렸으며, 9년 후에 그의 친한 친구가 그를 방문했을 때는 예전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는 변해 있었다. 얼마 동안 그는 1900년까지 200여 명 이상이던 반도의 성도들을 관리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심한 병으로 고생하던 충실한 성도들을 잊지 않았으며, 그들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돌보기 위해 자주 그 지부를 방문하였다. [Lee G. Cantwell, “The Separating Sickness,” *This People* (Summer 1995), 58쪽 참조] (우리의 유산, 93~96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선교 사업

[Proselyting] 전파(2단락) — 선교 사업을 행함	∴ [Accusation] 고발 (7단락) — 죄를 씌움
[Nucleus] 한 명(3단락) — 다른 부분들이 둘러 모여 있는 중심 부분, 핵심	∴ [Leprosy] 나병 (9단락) — 심각한 피부 질병
[Initiated] 시작했다 (7단락) — 시작했다	∴ [Banished] 추방당했다 (9단락) — 강제로 쫓아내다
	∴ [Debilitating] 심한 (9단락) — 큰 타격을 주는

50주년 연차 대회

10. “1880년 4월 6일, 교회 회원들은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했다.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 50년마다를 희년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행사를 50년절이라고 불렀다. 테일러 회장은 생활이 궁핍한 회원들이 교회에 진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교회는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극빈자들’에게 300마리의 소와 2000마리의 양들을 나누어 주었다. [Roberts,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5:592 참조] 교회의 상호부조회 자매들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35,000부셀의 밀을 나누어 주었다. 테일러 회장은 또한 교회 회원들에게 특히 대공황기 중에 진 개인적인 빚을 면제해 주도록 강조했다. ‘지금은 50년절의 기간입니다.’ 라고 테일러 회장은 선언했다. [Roberts,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5:593] 후기 성도들 사이에는 용서의 정신과 기쁨이 가득했다.”



11. “1880년 4월 50주년 기념 연차 대회의 마지막 날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십이사도 중 열한 명이 대회 기간 동안 간증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초대 회원 중 한 사람이었던 올슨 프랫은 교회 회원 모두가 뉴욕 주 페이엠티의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에 모였던 이야기를 했다. 그는 후기 성도들의 시련과 집합, 박해와 고통에 대해 회상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아직도 함께 하고 있는 사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올슨 프랫 그는 ‘주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행하셨던 위대한 사업’에 관하여 간증했다. [Roberts,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5:590~591] 프랫 장로는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으며, 다른 충실한 후기 성도들처럼 끝까지 견딘 것에 대해 기쁨을 느꼈다.”



12.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기 2년 전, 존 테일러 회장은 어린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칠 조직을 설립하도록 지시하였다. 첫번째 초등학교 모임이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쪽으로 15마일 떨어진 파밍턴에서 시작되었다. 1880년대 중반까지 거의 모든 후기 성도 정착지에 초등학교가 조직되었다. 초등학교는 전세계의 수백만 어린이들이 속해 있는 조직으로 성장해 오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서 매주 복음의 가르침을 받으며, 음악과 교제를 통해서 축복받고 있다.”(우리의 유산, 96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50주년 연차 대회

[Moving] 감동적 (11단락) — 정서적으로 강한 느낌	∴ [Associations] 교제 (12단락) — 우정
-----------------------------------	---------------------------------

계속되는 박해

13. “1830년대 초에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 그리고 구약의 다른 지도자들이 한 명 이상의 처를 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선지자는 이에 대해 이해력을 주시도록 기도 드렸으며, 특정한 때에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수 결혼을 허용하시고 지시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조셉 스미스는

또한 하나님의 승인에 따라 곧 신권의 권능에 의해 선택된 후기 성도들이 한 명 이상의 처와 결혼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몇몇 후기 성도들이 나무에서 복수 결혼을 시작했으나, 이 교리와 그 시행에 대해서는 1852년 8월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공식적으로 공포되었다. 그 대회에서 브리검 영 회장의 지시를 받은 올슨 프랫 장로는 한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처를 갖는 것을 실시하는 것은 주님의 만유에 대한 회복의 일부(사도행전 3:19~21 참조)라고 발표하였다.”

14. “미국의 많은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은 부도덕하고 반기독교적이라고 여기는 복수 결혼 체제를 유타 주에 살고 있는 후기 성도들이 장려한다는 것을 알고 몹시 분개하였다. 교회와 회원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미 의회는 후기 성도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교회에 재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라 결과적으로 관리들은 한 명 이상의 처를 둔 남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에게서 투표권과 가정에서의 사생활 보장권 및 기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다. 수백 명의 충실한 후기 성도들과 몇몇 여성들이 유타,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미시간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 주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15.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인 많은 회원들에게도 박해가 심해졌는데, 특히 미국 남부 지역이 심했다. 예를 들면, 1878년 7월에 조셉 스탠딩 장로는 조지아 주 루머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후에 사도가 된 그의 동반자 루저 클로슨 장로는 겨우 죽음을 모면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성도들은 스탠딩 장로의 살해 소식에 매우 비통해 했으며, 수천 명이 솔트레이크의 태버나클에서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16. “존 김스, 윌리엄 베리, 윌리엄 조운스 및 헨리 톰슨 장로는 교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바꿔보기 위해 테네시 전역을 여행했다. 1884년 8월 어느 일요일 아침, 그들은 테네시 주 케인 크릭 근처에 있는 제임스 콘도의 집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김스 장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 때, 폭도 한 명이 숲에서 뛰어나와 그에게 총을 쏘았다. 그로 인해 김스 장로와 베리 장로가 목숨을 잃었다. 학교 교사였던 김스 장로에게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김스 장로의 죽음으로 인해 매우 애통해 하였다. 김스 자매는 43년 동안 미망인으로 지냈으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산파 일을 하였다. 그녀는 남편과 다시 만날 재회의 기쁨을 고대하면서 복음 가운데에서 생을 마쳤다. 많은 선교사들이 살해당하던 당시에 선교부 회장 대리로서 봉사하고 있던 브리검 헨리 로버츠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스 장로와 베리 장로의 시신을 무덤에서 몰래 파내어 유타로 옮겨 왔다. 유타 주의 많은 와드에서는 두 장로에게 경의를 표하는 추모식을 거행했다.”

17.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은 피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릴 때까지 채찍질

당하였으며, 많은 선교사들이 채찍질로 인한 심한 상처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당시에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18.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복수 결혼한 사람들을 수색하는 연방 보안관들의 체포망을 피하기 위해 잠적했다. 많은 가족들은 이 보안관들이 늦은 밤 집으로 침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조지 큐 캐논 회장, 로렌조 스노우, 루드가 클로슨, 브리검 헨리 로버츠, 조지 레이놀즈와 다른 많은 성도들이 투옥되었으며, 그들은 감옥에서 책을 저술한다든지, 감옥 내 학교에서 가르친다든지, 가족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 존 테일러 회장은 솔트레이크에서 북쪽으로 32킬로미터 떨어진 유타 주 케이스빌로 강제 추방당하였는데, 그는 1887년 7월 25일에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의 생을 다 바친 충실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우리의 유산, 97~98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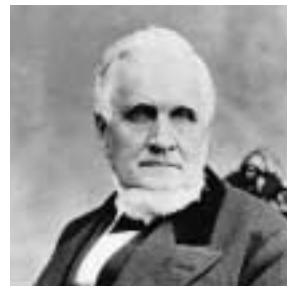


계속되는 박해

[Restitution] 회복 (13단락) — 회복	• [Midwife] 산파 (16단락) — 여인들이 자녀를 낳는 일을 돕는 여자
[Crusade] 운동 (14단락) — 어떤 동기를 지지하는 운동	• [Exhume] 파내어 (16단락) — 무덤에서 옮기다
[Legislation] 법률안 (14단락) — 법	• [Intrusions] 침입 (18단락) — 불법적으로 들어옴
[Curbed] 구속하고 (14단락) — 중지하다	• [Exile] 추방 (18단락) — 숨음
[Civil liberties] 시민[의] 자유 (14단락)~법에 의해 허락되는 자유와 기본 권리	•

존 테일러의 간증과 가르침

19. “여러분은 가정에서 기도를 하십니까? ...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감정이 기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성실한 소망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간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영을 키우며,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의 벗, 1984, 1월호, 14~15쪽)

20.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무를 다했을 경우 구원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in Journal of Discourses, 20:23)

21.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대항하는 영향력에 맞설 수 있게 해 주는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모든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 우리는 자신의 예지를 믿을 수 없으며, 자신이 소유한 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고, 지휘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시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Joseph Fielding Smith, Essentials in Church History, 23판, [1969], 495쪽에서 인용)

22.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일은 곤란해지고 뒤떨어지며 재밌대로 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며 종교에 따라 생활하고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의 평화는 강물처럼 흐를 것이며, 의는 바다의 물결처럼 밀려올 것입니다.’”(in *Journal of Discourses* 26:71)

23. “누구든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평화로움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가슴에 평화를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평화는 오로지 합법적인 규율과 하늘의 권능,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한해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The Gospel Kingdom: Selections and the Writings and Discourses of John Taylor*, sel. G. Ho., er Durham[1943], 319)

24. “사람이 능숙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지 않는 한 올바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영의 일부를 지니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올바르게 들을 수 없으며,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Gospel Kingdom*, 337~338)

25. 연차 대회에서 낭독한 1885년 4월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과거에도 종종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온을 세우셨으며, 그분의 사업은 계속 전진할 것이고, 그 일에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 모두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후기 성도들과 온 세상에 엄숙히 간증드립니다.”(in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권, [1965~1975, 3:12]



26. “저는 이러한 간증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뱃속에 있는 불처럼 느끼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 동안 찾고 있었던 그 축복들을 전파하고자 하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후일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계시해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in B. H. Roberts, *The Life of John Taylor*(1963), 78)



테일러 회장이 별세하자, 윌포드 우드럽을 정원회 회장으로 한 십이사도 정원회가 다시 교회를 관리하였다. 2년 후, 1889년 연차 대회에서 윌포드 우드럽을 교회 회장으로 하는 제일회장단이 재조직되었다.

우드럽 회장이 별세하기 약 6년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로렌조 스노우 회장과 개별적으로 만났다. 우드럽 회장은 “생각을 많이 한 끝에 힘을 내어” 스노우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이 이행해 주었으면 하는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세인트 조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얼마를 더 살지도 모릅니다. 스노우 형제님, 제가 죽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제일회장단을 조직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우드럽 회장은 그에게 이것을 계시로 간주하기를 바랐다. (“Memorandum in the Handwriting of President Lorenzo Snow,” *Elders' Journal*, 1906년 12월 1일, 110~111쪽)

1898년 9월 2일에 우드럽 회장이 별세한 후에, 스노우 회장이 성전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구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우드럽 회장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교회 제일회장단을 즉시 재조직하고, 이전의 회장들이 사망한 후에 그랬던 것처럼 기다리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in LeRoi C. Snow, “Remarkable Manifestation to Lorenzo Snow,” *Church News*, 1838년 4월 2일, 8쪽) 우드럽 회장의 장례를 치른 다음날, 십이사도들은 모임을 갖고 로렌조 스노우를 교회 회장으로 지지했다. 오늘 날까지, 회장이 사망한 후, 새로운 교회 회장은 빠른 시간 내에 지지를 받는다.

독서 과제를 이해함



존 테일러의 간증과 가르침

[Operation] 과정 (19단락) — 절차	...	[Sterling] 확실한 (23단락) — 순수한
[Cultivate] 배양하다 (19단락) — 키우다	...	[Legitimate] 합법적인 (23단락) — 법적인, 법적으로 타당한
[Bosom] 가슴 (23단락) — 마음	...	[Aright] 올바르게 (24단락) — 정확하게

제일회장단 재조직

브리검 영 회장이 별세하자, 십이사도 정원회는 정원회 회장인 존 테일러의 지시를 받고 교회를 인도했다. 제일회장단이 재조직되었으며, 1880년 10월에 연차 대회에서 지지를 받았다.

독서 과제를 공부함



“존 테일러 회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 그리고 활동 다 또는 라를 한다.

가 뉴스 기사를 쓴다

1860년부터 1900년까지, 미국에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단체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다.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했다. 여러분이 독서 과제로인 “존 테일러 회장”을 읽고 난 후, 그의 회장 재임시 이룩한 교회의 발전을 설명하는 신문 기사를 쓴다. 여러분이 쓰는 기사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시킨다.

1. 선교사들은 어떤 나라에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었는가?
2. 이 무렵 성전과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3. 지금부터 40년 후에는 교회 회원은 몇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4. 여러분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사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려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 기뻐해야 할 이유

10~11단락에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음 과제를 완성한다.

1. 존 테일러 회장이 1880년을 “회년”이라고 부른 이유를 설명한다.
2. 교회가 1830년부터 1880년까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열거한다.
3. 교회와 회원들이 행복함을 나타내기 위해 행한 일을 열거한다.
4. 여러분의 생애동안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열거하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다 존 테일러의 생애와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 교리와 성약 118편 1, 6절, 124편 127~129절, 135편 머리글, 1~2절, 138편 53~56절을 읽는다. 그 각 단락에서 존 테일러 회장에 관해 여러분이 배운 바를 열거한다.
2. 존 테일러의 생애와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도표(173~174쪽)와 1, 12, 18단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
 - ㄱ. 존 테일러는 몇 살에 침례를 받았는가? 그가 카테지 감옥에서 부상당했을 때는 몇 살이었는데? 브리검 영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존 테일러는 몇 살이었는데? 그는 언제 별세하였는가?
 - ㄴ.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에 계셨을 때 초등학교가 조직되었는가?
 - ㄷ. 188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나?

라 그분의 모범을 따른다

19~26의 각 단락과 관련하여, 오늘날 교회 회원들이 존 테일러 회장의 가르침과 권고를 적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는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복수 결혼의 종식을 선언했을 때, 교회에 대한 정부의 많은 반대 운동이 중단되었다. 유타는 미 합중국 정부의 대의원 제도를 완전하게 갖춘 주가 되었으며, 솔트레이크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어 헌납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과 전국으로 발행되는 신문들은 교회와 그 회원들을 계속 불신하는 부정적인 보도 운동을 벌였다.

그의 생애



1807년	3월 1일 코네티컷 주의 에이본 (현재는 파밍톤)에서, 아페크와 블라 톰슨 우드럽 사이에서 태어남
1833년	26세, 12월 31일, 뉴욕 주 리치몬드 근처에 있는 얼음인 강에서 침례를 받음
1834~1836년	27~29세, 미국 남부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37년	30세, 4월 13일 포에베 카터와 결혼함: 그녀는 1885년에 사망함
1837~1838년	30~31세, 미국 동부 지역과 폭스 아일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39년	32세, 4월 26일 브리검 영에 의해 사도로 성임됨
1839~1841년	32~34세,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43년	36세, 미국 동부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44~1846년	36~39세,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함
1847년	40세, 7월 24일에 브리검 영과 함께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옴
1887년	80세, 7월 25일 존 테일러 회장이 별세한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교회에 인도함
1889년	82세, 4월 7일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음; 조지 큐 캐논, 조셉 에프 스미스는 회장 보좌로 유임됨
1898년	91세, 9월 2일 교회 회장으로 9년 동안 봉사한 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별세함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887~1898)

1888년	5월 17일, 유타주 맨타이 성전을 헌납함
1890년	“공식 선언 1”이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짐; 주중 종교 교육반이 시작됨
1893년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함
1894년	계보(가족 역사 사업)와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을 강조함
1896년	매월 첫번째 일요일이 교회의 금요일로 지정됨

윌포드 우드럽 회장

1. “윌포드 우드럽은 교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 중 한 명이었으며, 또한 선지자적인 통찰력과 교회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했다. 그는 상세하게 일지를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초기 교회 역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는 존 테일러 회장이 별세했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약 2년 후에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2. “그가 교회를 인도하는 동안, 후기 성도에 대한 정치적인 박해의 정도가 더 심해졌으나, 교회는 더욱 발전해 나갔다. 성전이 유타 주의 세인트 조지, 로간 및 맨타이에서 운영되었으며, 솔트레이크 성전도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님의 집을 통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들의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대리 의식을 행할 수 있었다. 우드럽 회장은 평생 동안 가족 역사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조상을 위해 성전에서 많은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3. “다음의 이야기는 성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하고 있었던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1884년 5월 로간 제2와드의 헨리 벨라드 감독은 그의 집에서 성전 추천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벨라드 감독의 딸이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노는 중에 두 노신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 소녀를 부르더니 신문을 한 장을 건네 주며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리라고 말했다.”

4. “그 소녀는 그들이 부탁한 대로 그 신문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벨라드 감독은 그 신문이 영국에서 발행된 뉴베리 위클리 뉴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계보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와 그의 아버지의 친인척들에 대한 명단이 60여 개 이상 실려 있었다. 이 신문은 1884년 5월 15일자였는데, 발간된 지 겨우 3일만에 그에게 전해진 것이었다. 항공 수단이 있기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편물이 영국에서 미국 서부로 전달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리던 때였다. 이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5. “다음 날, 벨라드 감독은 그 신문을 성전으로 가져갔으며, 당시 성전 회장이었던 마리너 터블류 메릴에게 그 신문을 얻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메릴 성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벨라드 형제님, 세상 저편에 계신 누군가가 그들에 대한 사업이 행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며, 이 신문이 형제님의 손에 건네진다면, 형제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Melvin J. Ballard; *Crusader for Righteousness* (1966), 16~17쪽 참조] 그 신문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역사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6. “교회에 대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미정착지에 대한 개척을 강조하였다. 1885년 초기, 많은 후기 성도들이 주아레즈와 디아즈와 같은 개척지 마을들을 세우면서 멕시코의 소노라와 치우아후아에 정착했다.”



7. “교회 회원들은 개척을 위한 장소로서 북쪽의 캐나다 지역을 살펴보았다. 캐쉬 밸리 스테이크의 찰스 오 가드 스테이크 회장은 1886년 앨버타 남부에

후기 성도들의 공동체를 설립했다. 1888년 겨울까지 캐나다 서부에 살고 있던 후기 성도는 100명이 넘었으며, 1890년대 동안에는 더 많은 후기 성도들이 와서 관개 시설과 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였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앨버타에서 그들의 지도력을 발전시켜 나갔다.” (우리의 유산, 98~100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윌포드 우드럽 회장

[Meticulous] 상세하게(1단락) — 매우 주의 깊고 세밀하게	;	[Colonization] 개척(6단락) — 정착함
[Endowments] 엔다우먼트 (2단락) —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과 성약	;	[Immigrant] 이민자 (6단락) —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거주를 위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사하는 사람
[Kindred dead] 돌아가신 조상(2단락) — 돌아가신 친척	;	Irrigation 관개 (7단락) — 물을 댐
[Admonished] 권고하였다(2단락) — 강력하게 권하다	;	[Matured] 발전시켜 나갔다(7단락) — 능력을 향상시키다

공식 선언

8. “1880년대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미 합중국 정부는 복수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과 배심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심하게는 교회가 소유할 수 있었던 재산까지 제한하는 추가적인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 많은 가장들이 몸을 숨기게 됨에 따라 후기 성도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주님의 인도를 구하였다. 1890년 9월 23일 저녁, 선지자는 영감에 따라 교회 회원들에게 복수 결혼을 금하는 내용의 공식 선언을 썼다. 주님께서는 윌포드 우드럽 회장에게 복수 결혼의 시행을 중지하지 않는 한 미 합중국 정부가 성전을 강점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끝나게 되리라는 것을 시현을 통해 보여 주셨다.”

9. “1890년 9월 24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공식 선언을 지지했으며, 성도들은 189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 공식 선언을 승인했다. 오늘날 이 공식 선언의 내용은 교리와 성약에 공식 선언 1로 실려 있다.”

10. “교회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연방 관리들은 복수 결혼을 반대하는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후기 성도들을 사면한다고 공포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박해와 핍박이 그쳤다. 그러나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행했던 일을 하도록 저에게 명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모든 성전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감옥에 갇아야 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곳으로 가게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명을 받은 시간이 왔을 때, 저는 그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썼습니다.’ (‘성명서에 관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세 가지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 공식 선언 1 다음에 추가됨.) 복수 결혼의 공식적인 중단은 미 합중국의 의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다.” (우리의 유산, 100~101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공식 선언

[Deprived] 박탈(8단락) — 빼앗아 가다 : [Discontinuance] 중단(10단락) —
 [Manifesto] 공식 선언 (8단락) — 복수 : 종식
 결혼에 관한 정책 성명서 :
 :

계보 협회

11. “후기 성도들은 계보 협회를 창설하기 오래 전부터 돌아가신 조상들의 삶에 관한 기록들을 모았다. 윌포드 우드럽, 올슨 프랫 그리고 허버 제이 그랜트도 성전 의식을 대리로 행했던 수천 명의 조상들의 이름을 얻었던 사람들에게 속한다. 1894년, 제일회장단은 계보 협회를 조직하도록 지시했고, 초대 지도자로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를 불렀다. 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협회의 대표는 성전 의식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 세계로 여행하며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다녔다. 이 협회는 후에 교회의 가족 역사부로 발전했다.”



12. “189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우드럽 회장은 계보 사업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후기 성도들이 다음과 같이 행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계보를 찾아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봉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되도록 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이러한 인봉의 끈이 연결되게 하십시오. ...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진실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3:256~257] 후기 성도들은 지금도 계속 자신들의 돌아가신 조상들의 기록을 찾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성전 의식을 받도록 권고 받고 있다.”

13. “1885년부터 1900년까지, 많은 교회 회원들이 계보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로 초대되어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그들의 사업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또한 선교사 카드와 승인서가 제공되었다. 그들은 친척을 방문하고, 무덤에 있는 묘비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지방 행정 관청의 기록과 가족 성경을 연구하고, 성전 사업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는 값진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종종 그들에게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지시해 주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하는 영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James B. Allen, Jessie L. Embry, Kahile B. Mehr, *Hearts Turned to the Fathers: A History of the Genealogical Society of Utah, 1894~1994* (1995), 39~41쪽 참조 (우리의 유산, 101~102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계보 협회

[Parish] 지방 (13단락) — 자체
 교회가 있는 지역

솔트레이크 성전의 헌납

14.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그의 생애의 많은 부분을 성전 사업에 헌신했다. 그는 세인트 조지 성전의 초대 성전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맨타이 성전을 헌납하였다. 솔트레이크 성전의 초석이 세워진 지 40년이 지난 후,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이 역사적인 성전의 헌납을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 성전 헌납식은 1893년 4월 6일부터 18일까지 약 75,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Roberts,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6:236쪽 참조]



15. “4월 6일 첫 번 헌납식이 끝나고 우드럽 회장은 자신의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의 영광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 예언과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으며,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Wilford Woodruff Journals” (1833~1839) 1893년 4월 6일, 후기 성도 서고; 철자와 구두점은 현대식에 맞게 고쳤음] 몇몇 후기 성도들은 천사를 보았으며, 이미 돌아가신 교회 회장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본 성도들도 있었다.” [Richard Neitzel Holzapfel, *Every Stone a Sermon* (1992), 71, 75, 80쪽 참조]

16. “우드럽 회장이 자신의 90번째 생일 축하 모임에 참석했을 때, 수천 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템플 스퀘어에 있는 테버내클에 모여 그를 축하해 주었다. 그는 크게 감동하여,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그가 열 살 때 개신교의 주일학교에 참석해 사도와 선지자에 관해 읽었던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 주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살아 생전에 이 지상에서 한 번 더 사도와 선지자들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이제 그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서 있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그의 기도는 여러 차례 응답되었다.” [Matthias F. Cowley, *Wilford Woodruff*(1909), 602쪽 참조]

17. “그로부터 1년 후인 1898년 9월 2일에 우드럽 회장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던 중에 운명을 달리했다.” (우리의 유산, 102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솔트레이크 성전의 헌납

[Initial] 첫 번(15단락) — 처음

윌포드 우드럽의 가르침과 간증

18. “우리는 후기 성도들이 지금부터 자신의 계보를 최대한 추적하고,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인봉될 수 있게 하여, 이 고리가 최대한 멀리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십시오.” (*Discourses of Willford Woodruff*, ed. G. Homer Durham[1990], 157)

19. “나는 나의 어린 친구인 여러분에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하고 훌륭한 삶이 있으며 주님과 부모님과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

20. “...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창 때이자 아름다운 시기에, 이제까지 인간이 살았던 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한 경륜의 시대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할 인생의 무대로 걸어나갈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장차 살게 될 미래의 인생과 사람들 가운데서 행사하게 될 영향력과, 그리고 현재와 영원을 위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놓는 기반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을 진지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iscourses of Willford Woodruff*, 265~266)

21. “이 지상과 지상의 주민들 가운데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세력과 악마의 세력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백성들을 세우셨을 때, 아침의 아들, 루시퍼와 하늘에서 쫓겨난 수많은 타락한 영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움을 벌였던 시대가 언제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대와 세대에도 그러한 일을 행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업을 착수하실 때마다, 이들 세력은 그 일을 전복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Remarks Made at the General Conference on the Afternoon of Monday, 1896년 10월 5일, in the Tabernacle, Salt lake City,” *Deseret Evening News*, 1896년 10월 17일, 9쪽)

22. “우리는 지구 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성취시키는,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중요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Wilford Woodruff's Journal*, 1833~1898 Typescript, ed. Scott, G. Kenny, 9 vols. [1983~1985], 4:444; 철자는

현대식으로 고쳤음)

23.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빛과 진리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사와 관계없이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Discourses of Willford Woodruff*, 260)

24. “나는 구주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만물 위에 우뚝 서시기 위해 만물보다 낮아지신 그분의 생을 항상 우러러 보았습니다. ... 슬픈 일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구주께서는 만물보다 높아지시기 위해 만물보다 낮아지실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Discourses of Willford Woodruff*, 4)

25. “나는 어떤 특별한 은사와 은혜와 계시를 받고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시다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신의 작고 조용한 음성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iscourses of Willford Woodruff*, 45)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윌포드 우드럽의 가르침과 간증

[Graces] 은혜(25단락) — : [Dependency] 의지(25단락) —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특권 : 혹은 신뢰

윌포드 우드럽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사건들

1833년에 주님께서는 윌포드 우드럽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부르셨으며, 또한 그와 다른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르셨다. (교리와 성약 118편 머리글, 3~4, 6절 참조) 우드럽 장로는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갔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교회로 개종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1840년에는, 5개월 동안 우드럽 장로와 그의 동반자들의 노력을 통해 영국의 하버포드셔 지역에서 1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여기에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했던 약 600명 가량의 한 그룹도 포함된다. 우드럽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 곳 히드포셔어 선교부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전모는 하나님의 영의 작고 조용한 음성과 성신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는 일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빛과 진리를 위해 기도했으며, 주님께서는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in Matthias F. Cowley, *Wilford Woodruff, Fourth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History of His Life and Labors As Recorded in His Daily Journals*[1964], 120)

1856년에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교회 역사가가 부름 받았으며, 교회는 7,000여 쪽에 달하는 그의 개인 일지를 소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평생 동안 가르쳤던 많은 가르침과 그 동안 있었던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그의 부름이라고 생각했다. “악마는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노렸다. 악마가 나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 같다. 그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유 밖에 생각해 낼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올 경우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 및 장로들의 업적과 가르침을 남길 것이라는 사실을 악마가 알았기 때문인 것 같다.” (in Cowley, *Wilford Woodruff*, 477)

우드럽 장로가 세인트 조지 성전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미국 정부가 출범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의 영의 방문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성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했다. 우드럽 장로는 이들과 복음이 회복되기 전에 죽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및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기타 역사적인 사람들을 위한 성전 사업을 하는 일을 도왔다. (Journal of Discourses 19:229 참조)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내 생애에는 내가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 걸음 걸음마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27일에 있었던 분명한 상황에서 나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in Cowley, Wilford Woodruff, vi)

독서 과제물을 공부함

“윌포드 우드럽 회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친구에게 설명한다

교회가 복수 결혼을 중단한 것은 백 년도 더 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그 교리를 오해하고 있으며, 오늘날도 복수 결혼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8~10단락을 공부하고 복수 결혼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친구에게 무어라고 말할 것인지를 적는다. 교회 역사에 관한 몇 가지 자세한 내용들과 현대의 선지자를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한 소감을 포함시킨다.

나 우드럽 회장의 생애를 공부함

1. 교리와 성약 118편 1, 6절, 124편 127~129절, 136편 13절, 138편 53절과 공식 선언 1을 읽는다. 각 경전 말씀에서 윌포드 우드럽에 대해 배운 것을 열거한다.
2. 1~7, 11~17 단락과 그의 생애와 회장 직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다. (178쪽) 그가 기억되는 것은 어떤 업적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열거하고, 우리가 그 업적 모두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다 우드럽 회장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내가 내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역경을 이겨낼 것입니다.” (“A Remarkable Statement,” *Improvement Era*, 1914년 10월호, 1165쪽) 18~25 단락을 공부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드럽 회장은 교회 회원들이 어떤 일을 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지 적는다.
2. 여러분의 목록에서 세 가지 의무를 선택하고 각 의무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적는다.

공식 선언-1 및 “세 가지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

주님께서 복수 결혼을 종식시키심

교회는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복수 결혼을 계시해 주신 후에 그것을 실시했다. (교리와 성약 132:1~6참조) 복수 결혼의 반대에 따른 극심한 박해와 미국 정부가 통과시킨 법률 때문에,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주님께 교회가 해야 할 일에 관해 여쭙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계시와 시현으로 우리가 복수 결혼의 실행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제가 행했던 일을 하도록 저에게 명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모든 성전을 잃고 말았을 것이며, 저 또한 감옥에 갇어야 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곳으로 가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 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썼습니다.” (“성명서에 관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세 가지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 [공식 선언 1 다음에 추가됨], 6~7단락) 그가 받은 계시는 교회 회원들에게 제시되었으며, 회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것이 “공식 선언 1”로 불린다. 그것은 교리와 성약 138편 다음에 나와 있다.

경전을 이해함

공식 선언 1

- | | |
|---|--|
| [Press dispatches] 신문 속보 (1단락) | · 건물로서 솔크레이크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
| — 뉴스 기사 | · 사용되었음 |
| [Allege] 취지 (1단락) — 말하다, 주장하다 | · [Constitutional] 법률 (4단락) — 합법적인, 미국 헌법에 부합하는 |
| [Solemn] 엄숙하게(2단락) — 진지한 | · [Submit to] 행하도록 (4단락) — 순종하다 |
| [Solemnized] 거행되었다 (2단락) — 집행되었다 | · [Construed to inculcate] 해석할 수 있는 (5단락) — 가르치거나 승인하기 위해 이해를 하다 |
| [Territory] 준주 내 (2단락) — 유타가 추가 되기 이전의 준주 | · [Endowment House] 엔다우먼트 하우스 (3단락) — 템플 스퀘어에 있는 |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Move] 동의 (1단락) — 제의 : [Foregoing motion] 위의 동의 (2단락)
 [Binding] 지켜야 할 (1단락) — 요건 : — 앞서 제의한 것

“제 가지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

[Astray] 잘못된 길로 (1단락) — 잘못된 방향으로 : [Contemplate] 심사숙고하고 (8단락) — 생각하다, 숙고하다
 [Oracles] 계시 (1단락) — 계시 : [Felt disposed] 원하셨습니다 (9단락) — ~하려 했다
 [Confiscation and loss] 몰수와 상실 (5단락) — 정부가 소유권을 가진 : Decried 명하셨습니다 (9단락) — 명령하다
 [Adherence] 고수함 (5단락) — 순종 : [Thwart] 방해하지 (9단락) — 방지하다, 방해하다
 [Compelled] 강제적으로 (6단락) — 강요당함
 [Manifested] 나타내주신 (6단락) — 보여주다

공식 선언 1 — 공식 선언이 발표된 뒤에도 복수 결혼이 행해졌는가?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미국의 국경 밖에서 복수 결혼을 계속 실시했다. 그들은 미국 밖에서라면 새로운 복수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00년 1월 8일에,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공식 선언은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며, 교회는 이 곳(유타)과 다른 모든 주에서 일부다처 또는 복수 결혼의 실시를 단호하게 중지하였으며, 교회의 어떠한 회원이나 역원도 복수 결혼을 실시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가질 어떤 권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landers Are Refuted by First Presidency,” *Millennial Star*, 1911년 5월 4일, 275쪽)

일부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을 거절했다. 1904년 4월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일체의 복수

결혼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발표하며, 교회의 회원이든 역원이든 그와 같은 결혼을 거행하거나 실시한다면 그를 교회에 대해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회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교회로부터 파문 시킬 것입니다.”(in Conference Report, 1904년 4월호, 75) 그 이후로, 교회의 모든 회장은 반복해서 복수 결혼의 실시를 반대하는 가르침을 전했다.

경전을 공부함

공식 선언 1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공과를 가르침

공식 선언 1에 대한 공과를 가르친다고 상상한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발표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적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도 적는다.

1. 주님은 윌포드 우드럽 회장에게 복수 결혼에 관해 무엇을 계시해 주셨는가?
2. 당시 제일회장단 보좌로 있던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메시지는 성도들이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3. 교회 회원들이 살아계신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왜 중요한가?
4. “제 가지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의 첫번째 단락에서 우드럽 회장이 준 약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124편 49~50절을 공부하고 이 성구가 윌포드 우드럽 회장 당시의 복수 결혼 관행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확장의 기간

1898년부터 1951년까지, 로렌조 스노우, 조셉 에프 스미스, 허버 제이 그랜트 및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 네 분이 성장기의 교회를 인도하였다. “이 회장들은 말이 끄는 마차에서부터 우주로 여행하는 로켓에 이르기까지 교통 수단의 변천을 지켜보았다. 두 번의 세계 대전과 세계 대공황이 성도들을 변화시켰다. 이 기간 동안 9개의 성전이 세워졌다. 1901년에 50개의 스테이크에 대략 300,000명의 회원들이 있었다.”(우리의 유산, 105쪽)
 1951년까지 교회는 전세계적으로 180개의 스테이크에 1,111,000명의 회원이 있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

십일조에 관한 계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1898년에 별세하자, 선지자의 외투는 당시 85세의, 경험이 풍부한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어깨로 옮겨졌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역대 회장 가운데 이처럼 연로한 나이에 회장이 된 사람은 없었다. 후기 성도들은 커다란 희망을 갖고 낙관적으로 새로운 세기를 내다보았다.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은 계속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교회의 심각한 재정적인 부채는 해결되었다.

그의 생애(1814~1901)

- 1814년 4월 3일, 오하이오 주 만투아에서 올리버와 로제타 레오노라 페터본 스노우 사이에서 출생함
- 1836년 22세, 6월 19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를 가로지르는 세그리 강에서 침례받음



1837년	23세, 오하이오 주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38~1839년	24~25세, 미주리 주, 일리노이 주, 캔터키 주 및 오하이오 주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40~1843년	26~29세,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45년	31세, 1월 17일에 샤프테 메릴 스카이어스, 메리 아델라인 고다드, 사라 앤 프리차드 그리고 해리엇 아멜라 스카이어스와 결혼함
1849년	34세, 2월 12일에 히버 시 김볼에 의해 사도로 성임됨
1849~1852년	35~38세,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및 몰타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64년	50세, 샌드위치(하와이) 아일랜드에서 잠시 선교 사업을 함
1873~1877년	59~63세, 브리검 영 회장의 보좌로 봉사함
1885년	71세, 미국 서북부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함
1898년	84세, 9월 2일에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별세하자 9월 13일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음; 조지 큐 캐논과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유임됨
1901년	87세, 교회 회장으로 3년 동안 봉사한 후, 10월 10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함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898~1901)

1898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그에게 나타나 제일회장단의 재조직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최초로 전임 자매 선교사가 부름을 받았다.
1899년	십일조의 법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계시를 받음
1901년	멕시코, 일본, 뉴질랜드 및 독일에 새로운 선교부가 개설됨

로렌조 스노우 회장과 십일조

1. “우드럽 회장이 별세한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던 로렌조 스노우가 교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 잘 준비해 왔던, 현명하고 사랑이 많은 지도자였다. 그는 그 당시까지의 모든 후일의 선지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으며, 그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 온 사람이었다. 1900년 11월, 그는 성도들을 태버네클에 모이게 하였으며, 종종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선지자의 가족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선지자와 사적인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셉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 진리가 “가장 분명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자신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이었다.” [“The Redemption of Zion,” *Millennial Star*, 1900년 11월 29일, 754쪽]
2. “스노우 회장이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기에, 교회는 복수 결혼에 반대하는 연방 정부의 법률 때문에 야기된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스노우 회장은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부채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인도를 구하였다. 이듬해인 189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그는 유타 주 세인트 조지를 방문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그는 그 곳에서 열린 모임에서 말씀을 하던 중에 말씀을 잠시 멈추었는데, 잠시 후 그는

자신이 계시를 받았었다고 말했다. 교회의 성도들이 십일조의 법을 소홀히 했으며, 이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교회 회원들이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데 더 충실하면, 그들에게 축복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3. “선지자는 유타 전역에서 모임에 참석한 회중들에게 십일조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을 전했다. 성도들은 그의 권고에 따랐으며, 그 해에 성도들은 전년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십일조를 바쳤다. 1907년까지, 교회는 교회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갚을 충분한 기금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결국 교회의 모든 빚이 청산되었다.”

4. “1898년, 본부 청년 상호 향상회를 위한 리셉션에서, 조지 큐 캐논 회장은 제일회장단이 ‘현명하고 사려 깊은 몇몇 여성들을 선교사로 부르겠다’ [“Biographical Sketches: Jennie Brimhall and Inez Knight,” *Young Women’s Journal*, 1898년 6월호, 245쪽]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가 있기 전부터, 몇몇 자매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그들의 남편을 동행한 적이 있긴 했으나, 자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공식적으로 부름 받고 성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자매들에게는 선교사로 봉사할 의무가 없지만,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이 복음 선교사로서 이러한 특권을 행사했으며, 복음 선교사로서 용감하게 주님을 위해 봉사했다.”

5.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봉사하던 시기에 교회는 20세기를 맞았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당시, 교회는 43개의 스테이크와 20개의 선교부 및 967개의 와드와 지부가 있었다. 성도들은 283,765명에 달하였으며, 성도들 대부분이 미합중국의 록키 산맥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4개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교회 회원들에 관한 기사를 실는 출판물로는 *청소년 인스트러터*, *임프르브먼트 이라*, *청녀 저널* 등이 있었다. 최소한 새로운 한 개의 선교부가 곧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으며, 후기 성도들은 다음 백 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거의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이제까지 그들은 교회의 운명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우리의 유산*, 103~104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로렌조 스노우 회장과 십일조

- | | |
|--|------------------------------------|
| [Disabling] 심각한(2단락) — 무거운, 짓누르는 | ⋮ [Ambassadors] 대표자(4단락) — 공식적인 대표 |
| [Young Ladies Mutual Improvement Association] 청년 상호 향상회(4단락) | ⋮ |
| — 교회의 최초 청년 조직의 명칭 | ⋮ |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과 간증

6.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840년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상황으로서, 곧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내 기억에 새겨져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다. 나는 그 때 에이치 지 셔우드 장로의 집에 있었으며, 그는 종들을 고용하여 각각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주인에 관한 구주의 비유를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7. “그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동안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게 임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나의 이해의 눈이 열려 놀랍고도 경이로운 정도로 한낱 태양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게 되었다. 나는 내게 보여진 계시를 표현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8.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으며,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9. “나는 이것이 거룩한 대화였다고 생각한다.”(in Eliza R. Snow,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1884], 46)

10. “자매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누이 엘리자 알 스노우가 오래 전에 작사한 시를 읽어 보았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임에서 자주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 높은 영광 보좌,” 찬송가 139장 참조] 그 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역시 계심을’ 말해 줍니다. 자매 여러분들께서 충실할 경우 여러분의 어머니처럼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in LeRoy C. Snow, “Devotion to a Divine Inspiration,” *Improvement Era*, 1919년 6월호, 658쪽)

11. 윌포드 우드럽이 복수 결혼의 실사를 종식시킨 계시(공식 선언 1)를 받기 전에, 교회의 많은 회원들은 교회로부터 돈과 재산을 몰수하는 법률의 통과로 말미암아 십일조를 내는 것을 중단기로 하였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교회는 큰 부채를 지고 있었다. 1899년 5월 8일,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교회 회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타 주 세인트 조지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다. 말씀 도중, 그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말씀을 잠시 멈추었다. 그는 그 동안 십일조의 법이 얼마나 등한시되어 왔는지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힘있게 발을 내디디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완전한 십일조를 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며, 시온 전역에 자리잡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Discourse by President Lorenzo Snow,” *Millennial Star*, 1899년 8월 24일, 533쪽)



12. 침례를 받은 지 약 2주 후에, 로렌조 스노우는 더 큰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하러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기도를 드리려고 입술을 떼자마자 머리 위에서 비단 옷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곧 이어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더니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전신을 감싸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 그리고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신권 및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5월호 28쪽) (in Snow,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8)

13. 스노우 회장의 손녀인 엘리 영 폰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14. “어느 날 저녁 솔트레이크 성전에 있는 스노우 할아버지의 방을 찾아간 일이 있는데, 나는 수위가 퇴근하고 야간 경비원이 오기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정문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한 뭉치의 엽서를 꺼내셨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나와 해외 왕국실로 가는 큰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보다 서너 걸음을 앞서 걷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나를 멈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리아, 잠깐만, 이야기해 줄 것이 있다. 우드럽 회장이 사망하였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내신 곳이 바로 여기였다. 그분은 내게 나타나 지시하시기를 즉각 교회 제일회장단을 재구성하고, 전회장장이 사망했을 때처럼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회장을 계승하였단다.’”

15. “할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오셔서 왼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바닥에서 1미터 위에 서 계셨다. 그분은 마치 단단한 금판 위에 서 계신 것 같았다.’”

16. “할아버지는 나에게 구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말씀하여 주었고, 그분의 손, 발, 용모, 아름다운 흰 옷 등이 너무 희고 밝게 빛나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17.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다가 오셔서 오른 손을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것은 할아버지가 이 성전에서 구주를 보고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직접 간증하는 것이니, 기억해 주려므나’”(in LeRoy C. Snow, “An Experience of My Father’s,” *Improvement Era*, 1933년 9월호, 677쪽)



솔트레이크 성전 복도

독서 과제를 이해함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과 간증

- | | | |
|---------------------------|-----|---------------------------|
| [Couplet] 시(7단락) — 2행시 | ... | [Enveloping] 가리는 (12단락) — |
| [Composed] 작사한 (10단락) — 쓴 | ... | 덮는, 포장하는 |
| [Rustling]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 ... | [Corridor] 복도 (14단락) — 복도 |
| (12단락) — 부드럽고 분명한 소리 | ... | |

독서 과제물을 공부함

“로렌조 스노우 회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선교 사업을 준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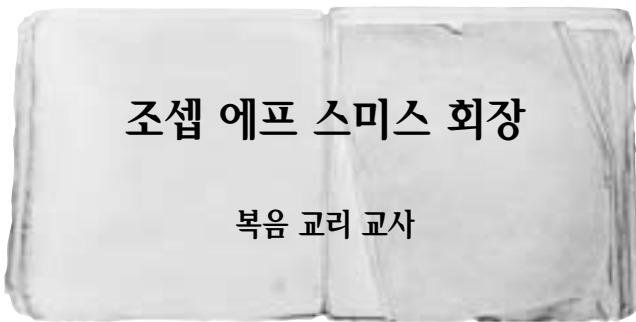
1. 교리와 성약 4편 1~7절을 읽고 그 곳에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서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특성들을 열거한다.
2.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그러한 특성을 지녔음을 나타내는 이야기, 사진, 또는 가르침을 그의 생애에서 다섯 개를 골라 적어본다.
3.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더욱 완전하게 발전시키고 싶은 특성 한 가지를 선택하고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또 그분야에서 더 잘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한다.



나 간단히 설명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십일조를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저는 십일조를 꼭 바쳐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34쪽)

1. 말라기 3: 8~12절을 공부하고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열거한다.
2. 독서 과제물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과 간증”(6~17단락)을 읽은 것을 토대로,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충실한 회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받았다고 생각되는 축복들을 설명한다.
3. 정직한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복음 교리 교사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 네 분의 제일회장단 보좌, 교회 총관리 역원직에서 52년간 봉사했으며, 교회 회장으로서 17년 동안 봉사했다. 그는 설득력있고 부드럽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쳤다.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그의 성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저는 ... 제 마음 속에 영을 받아왔으며,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앞에서 ... 나의 구속주는 살아계[시]다[는] ... 사실을 알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 v)

그의 생애(1838~1918)

1838년	11월 13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하이럼(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형과 메리 필딩 스미스 사이에서 출생함
1844년	5세, 그의 부친이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 있는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 당함
1848년	9세, 황소가 이끄는 마차를 몰고 아이오와 주 윈터쿼터스에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옴(약 1,600킬로미터)
1852년	13세, 5월 21일에 솔트레이크시티 크리크에서 침례 받음; 9월 21일에 모친이 사망함
1854~1857년	15~19세,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60~1863년	21~24세,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66년	27세, 5월 5일에 줄리아 램슨과 결혼함. 7월 1일에 브리검 영 회장에 의해 사도로 성임되고 제일회장단 보좌로 성별됨. 브리검 영, 존 테일러(1880), 윌포드 우드럽(1889), 그리고 로렌조 스노우(1898)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음
1874~1875년	35~36세,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함
1877년	38세,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다시 봉사함
1901년	62세, 교회 회장으로 지리받음
1918년	80세, 11월 19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함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901~1918)

1902년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 잡지를 출간함(The Children's Friend)
1907년	교회가 부채에서 벗어남
1911년	교회에서 청남 조직의 일부로서 미국 보이 스카우트를 활용하기 시작함
1912년	세미나리를 시작함
1914년	여성을 위한 최초의 교회 잡지가 출간됨
1915년	가정의 밤이 시작됨
1918년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시현”(교리와 성약 138편)을 받음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생애

1. “조셉 에프 스미스는 미주리주에서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인 1838년 파웨스트에 있는 성전 부지 근처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태어났다. 조셉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하이럼 스미스는 미주리 주 리치몬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메어리 필딩 스미스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다.”
2. “조셉이 어렸을 때, 그의 가족은 미주리 주에서 일리노이 주 나부로 이사를 했는데, 바로 그 곳에서 그가 평생동안 잊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카테지 감옥에서 살해 당했던 것이다. 조셉은 아버지가 말을 타고 카테지 감옥으로 끌려가던 중에, 그를 번쩍 들어 올려 입맞춤하고 내려

주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또한, 어느 날 밤 그의 이웃이 어머니에게 아버지 하이럼의 살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창문을 두드리던 그 무서웠던 기억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의 시신이 나무에 있는 맨션 하우스의 관 속에 누워져 있던 광경도 그는 뇌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었다.”



3. “소년 조셉은 그 날 밤 사이에 어른이 다 되어 버린 것 같았다. 메리 필딩 스미스와 그녀의 가족들은 나무에서의 탈출 행렬에 합류했다. 일곱 살 된 조셉은 마차를 모는 일을 했다. 조셉이 열세 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으며, 그가 열여섯 살이 되기 전에, 그는 샌드위치 군도(현재의 하와이 군도)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가 호놀룰루에 도착한 지 3개월 후, 그는 원주민으로 유창하게 말하게 되었다. 그를 성별했던 십이사도 팔리 피 프랫과 올슨 하이드가 그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었다.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선교 사업을 떠났는데 이번에는 영국에서 3년 동안 봉사했다.”



4. “브리검 영 회장으로로부터 사도로 성임 받았을 때, 조셉은 겨우 28세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 그는 교회의 네 명의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다. 1901년 10월,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셉 에프 스미스는 교회의 6대 회장이 되었다. 그는 복음 진리에 정통하고 해박하기로 이름 나 있었다. 그의 설교와 저술은 복음 교리라는 제목으로 편집되었는데, 이 책은 교회의 중요한 교리서 중의 하나가 되었다.”



5.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발전해 나갔다.

십일조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와 이에 대한 성도들의 충실한 이행으로, 교회는 지고 있던 모든 부채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 변영의 시기가 뒤따라, 교회는 성전과 예배당과 방문자 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교회의 역사적인 장소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또한 솔트레이크시티에 교회 행정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은 아직도 교회의 본부로 사용되고 있다.”

6. “스미스 회장은 전 세계에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1906년 스위스 베른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그는 팔을 펴고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땅에 많은 성전이 들어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 곳에 가서 여러분의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구속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 대륙의 첫번째 후기 성도 성전인 스위스 성전이 거의 반 세기 후에 스미스 회장이 예언의 말씀을 하였던 그 도시의 근교에서 헌납되었다. 스미스 회장은 1913년에 캐나다 앨버타의 카드스톤에 성전을 지을 땅을 헌납하였으며, 1915년에는 하와이 성전을 지을 땅을 헌납하였다.”



7. “1900년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유타로 집합하지 말고 성도들이 거하는 곳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고 권고했다. 1911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과 제일회장단의 두 보좌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우리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땅에 그대로 남아서 전도 사업을 돕기 위한 영구적인 성격의 회중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n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4:222]

8. “스미스 회장은 별세하기 6주 전에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중요한 계시를 받았다. 그는 시현으로 영의 세계에서의 주님의 성역을 보았으며, 충실한 성도들이 영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계시는 1976년에 값진 진주에 첨가되었으며, 1979년에 교리와 성약 138편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유산*, 105~107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생애

[Rap] 두드리던 (2단락) — 노크	∴ [Expound] 설명하다 (4단락) —
[Exodus] 탈출 (3단락) — 대규모 출발	∴ 가르치다
[Teamster] 마차를 모는 일(3단락) — 말이나 소를 모는 사람	∴ [Congregation of permanent character] 영구적인 성격의 회중 (7단락) — 영구적인 지부와 와드
[Tongue] 원주민어 (3단락) — 언어	∴ [Redemption] 구속 (8단락) — 구원
[Fluently] 유창하게 (3단락) — 아주 잘, 쉽게	∴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과 간증

9.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과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특히 몇몇 경전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관련된 특정 성구들을 성도들이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1916년 6월 30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교리 해설서를 발표하였다. 이 해설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사이의 사업 목적에 있어서의 일치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의 그분들의 뚜렷한 역할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아버지라는 용어가 경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양자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353쪽) 이 교리 해설서는

아버지라는 용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즉, 그는 하늘과 땅의 아버지이다. 그는 그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아버지이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에 의해 아버지가 되신다.

10. “[한 가지] 아버지’의 경전적인 의미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
11. “... 우리가 또한 여호와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사업에 있어서 엘로힘이신 아버지의 집행인이었습니다. ...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종일관 하늘과 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 그의 창조가 영원한 것이기에, 그는 하늘과 땅의 영원한 아버지로 불리기에 진정 합당합니다.”
12.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서 고려되는 [또 다른] 의미에는 그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영생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에 있습니다. ...”
13. “...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며, 그를 통해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많은 계사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 [교리와 성약 11:28; 34:1~3; 35:1~2; 39:1~4; 45:7~8 참조]
14.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
15. “아버지’라는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 가족과의 모든 관계에서 아들이신 예수는 엘로힘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대표하였으며, 지금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로 알려진 전세에서 육신을 입기 전의 상태에서 진실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서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그가 부활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5:43; 10:25, 30; 14:28; 17:11, 22; 제3니파이 20:35; 28:10; 교리와 성약 50:43 참조)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고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말씀과, 행동과, 관련된 권세, 권능 및 신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358~360쪽)
16. 1909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과 제일회장단의 그의 보좌들은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7.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영과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떠한 형태였습니까?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 따라서 우리는 ‘영의 아버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태초의 인간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의 ‘본래의 형상 (히브리서 1:3)이십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지상을 걸으셨으며, 그의 제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으니’ (요한복음 14:9) 우리가 사려깊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이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즉, 닮았다는 뜻)이요, 또한 그의 아버지는 인간의 형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필멸의 지상 생활 동안뿐만 아니라 그의 탄생 이전 그리고 부활 이후까지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첫번째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분명 그분은 그 첫번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

19. “‘최초의 인간’이며 우리의 위대한 선조인 아담도, 그리스도처럼 전세에서 영으로서 살았으며, 그리스도처럼 그도 합당한 육체를 입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산 영’이 되었습니다. 전세에 관한 교리는 후일에 분명하고 자세하게 계시되어, 신비한 문제로 남을 뻔한 인간 기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필멸의 상태로 경험을 맛보기 위해 일시적인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영으로서 하늘 부모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집에서 성숙하게 양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즉 아담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었던 이후로, 이 지상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기 전에 영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0. “아담이 이 지상에 있었던 최초의 인간이 아니었으며, 최초의 인간은 하등 동물로부터 진화한 것이었다는 몇몇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담이 ‘모든 사람들 중에 첫 사람 (모세서 1:34)이었다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를 우리 인류의 최초의 부모로서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334~336쪽)
21. “고대와 현대의 거룩한 계시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의 직계 자손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지고하시고, 승영에 이르신 인간입니다. ... 그는 올챙이와 원숭이 그리고 사자와 코끼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과 같은 이성과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The Origin of Man,” *Improvement Era*, 1909년

11월호, 75, 77~78, 80~81쪽)

22.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일찍 죽은 유아는 부활시에 어린 아이로 나타난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를 가리켜 ‘당신은 부활한 후에 그 영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그의 아들을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후에는 회복과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저의 영혼에 많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러한 원칙이 알려진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32쪽)

23. 1915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과 제일회장단의 그의 보좌들은 “스테이크 회장, 감독 및 시온에 있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24.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가정의 밤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격려합니다. 이 가정의 밤 시간에 아버지과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집에 모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

25. “성도들이 이 권고에 따르면, 분명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가족간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순종심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마음에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을 유혹하는 나쁜 영향이나 유혹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348~349쪽)

26. “젊은 시절을 사악함과 죄 가운데 보내고 만년에 의로움으로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들일 것이고, 사람이 전 생애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기보다는 뒤늦게라도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힘을 허비하였다는 것이며, 오직 주님께 드리기에 변변치 못한 봉사만 그에게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뒤늦게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행동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후회와 고통이 따릅니다만 활력이 넘치는 젊은 시절에 주님께 봉사하는 사람은 위로와 큰 보상을 얻게 됩니다.” (“A Lesson for the Boys,” *Improvement Era*, 1906년 2월호, 338쪽)

27.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젊은 시절에 꾸었던 꿈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28. “꿈에서 나는 여행을 하고 있었으며, 너무 늦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여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마침내 나는 훌륭한 저택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고 훌륭했습니다. ... 나는 이것을 향해 빨리 뛰어가다가 “목욕탕”이라고 써진 표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목욕탕으로 들어가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벌의 회교 깨끗한 가먼트가 있었습니다. ... 나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대한 문으로 보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고, 그 문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저를 약간 책망하는 듯이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그의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조셉, 너는 너무 늦었구나’ 그러나 저는 자신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9.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끗합니다.”

30. “그분은 나의 손을 잡더니 안으로 잡아당기고는 문을 잠갔습니다.”(복음 교리, 497~498쪽)

31. “하루는 조셉 에프 스미스가 첫번째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작은 대열의 마차로 단거리 여행을 한 후에 야영을 했습니다. 그 때 술에 취한 몇 명의 반몰몬 무뢰한들이 말을 타고 야영지로 쳐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몰몬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그들의 통행로로 침범하는 ‘몰몬’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먼저 이 약탈자들을 만나는 일이 조셉 에프 스미스의 책임이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나무를 주우러 야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을 때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보았을 때, 먼저 다른 형제들처럼 숲속에 숨거나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들에게서 도망을 가야 하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는 팔에 나무를 잔뜩 안고 야영 불을 피워 놓은 곳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불에 던지려 하자 손에 권총을 든 한 괴한이 젊은 장로에게 총을 겨누면서 술 취한 불량배만이 할 수 있는 저주를 퍼부으며, 만나는 모든 ‘몰몬’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외치면서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도 몰몬이냐?’



32. “그는 악한 눈을 바라보면서 서슴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철저하고 순수한 진짜 몰몬이요.’”

33.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대답은 이 악한이 총을 내려 놓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그는 당황하여 이 선교사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4. “당신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자, 악수합니다. 젊은 친구여. 나는 확신을 가진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반갑소.”

35. “조셉 에프 스미스는 나중에, 이 사람으로부터 총알 세례를 받을 것 같았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 무리의 지도자로 보이는 그 사람이 말을 타고 떠나자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 물러갔으며, 몰몬들은 더 이상 방해 받지 않았다.” (Joseph Fielding Smith, comp., *Life of Joseph F. Smith*, 2nd ed. [1969], 188~189쪽)

36. “우리는 의를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에 대해 말하던 모든 진리를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파나 종교를 막론하고 그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거부하게 될 진리의 원리를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어디에서 오든 모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진리는 일어설 것이며 견디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신앙, 어떠한 사람의 종교, 세상의 어떠한 종교 단체도 진리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종교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헛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진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세워진 주님의 이 위대한 사업에 배어 있어, 곧 진리가 철두철미하게 이 사업의 기초와 근간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와 더불어 계시며, 주님의 사업은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그분의 사업입니다. 어떠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성공할 것입니다.”(in Conference Report, 1909년 4월호, 7쪽)

37. “나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 사실을 온 몸으로 느낍니다. 나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고, 나의 하나님, 곧 구주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이것을 나의 영혼으로 느낍니다. 나는 완전히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복음 교리, 64쪽)

독서 과제물을 이해함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과 간증

[Designate] 지명 (9단락) — 이름	[Endow] 부여하다 (21단락) — 축복하다, 수여하다
[Exposition] 해설 (9단락) — 설명	[Nurturing] 양육하는 (22단락) — 돌보고 키움
[Affirmed] 확인하다 (9단락) — 분명하게 가르쳤다	[Stature] 신장 (22단락) — 크기
[Antemortal] 전세 (15단락) — 지상 생활 이전	[Inauguration] 취임, 개시 (24단락) — 시작
[Ascertain] 확인하다 (17단락) — 찾아내다	[Beset] 괴롭힘 (25단락) — 고통, 재앙
[Progenitor] 선조 (19단락) — 조상	[Follies] 실수 (26단락) — 실수, 어리석음
[Reared to Maturity] 자라서 성숙하게 되다 (19단락) — 성인으로 자랐다	[Consolation] 위로 (26단락) — 위로
[Inhabited] 거주하다 (19단락) — ~에 살았다.	[Garments] 가먼트 (28단락) — 옷
[In like manner] 같은 방법으로 (19단락) — 이러한 방법으로	[Reprovingly] 꾸짖듯이 (28단락) — 부드럽게 꾸짖는 방법으로
[Primal] 최초의 (20단락) — 첫번째	[Permeates] 배다 (36단락) — 채우다
[Lineal offspring of deity] 하나님의 직계 자손 (21단락) — 하나님의 직계 후손	[Instrumentality] 도움, 방편 (36단락) — 노력과 일
	[Fiber of my being] 온 몸, 온 마음 (37단락) — 내 영혼의 일부

독서 과제물을 공부함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스미스 회장의 생애를 복습함

스미스 회장의 생애와 회장의 직무를 공부하고, 그가 몇 살 때 다음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열거한다.

1. 부친 하이럼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있었다. (교리와 성약 121편 머리글 참조)
2. 부친과 삼촌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살해당했다.(교리와 성약 135:1절도 참조하기 바람)
3. 그는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포장마차를 몰았다.
4. 히버 시 킴블 회장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5. 모친이 별세했다.
6. 그의 최초의 선교 사업을 하러 갔다.
7. 사도로 성임되었다.
8. 첫번째 부인과 결혼했다.
9. 공식 선언 1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10. 교리와 성약 138편에 있는 시현을 받았다.
11. 사망하셨다.

나 모범을 찾아본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후기 성도가 되려면 세속적인 목표와 쾌락을 포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직한 성품과 진리에 대한 사랑과 원리에 대한 충실함 그리고 진리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 (“Principle, Not Popularity,” *Improvement Era*, 1906년 7월호, 733쪽) 그의 생애를 통해 그가 참된

후기 성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예를 들어본다.

다 목록을 작성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생애와 회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도표(186쪽)에서 세미나리가 처음으로 조직된 시기와, 교회가 보이 스카우트를 채택한 시기와, 가정의 밤이 시작된 시기를 알아보고 적는다. 이러한 일들이 가족과 개인이 오늘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거나 피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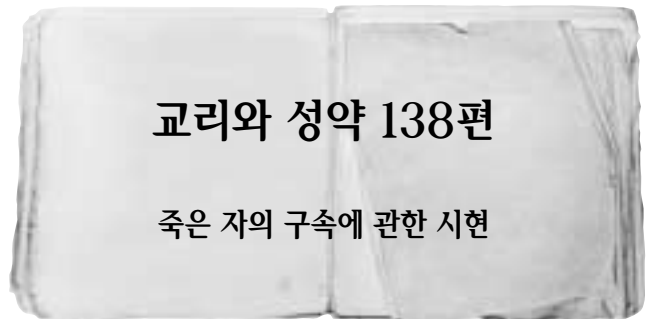


교회의 첫번째 세미나리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랜타이트 세미나리에서 열렸다.

라 그의 가르침을 숙고한다

9~37단락에 있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하고, 다음 질문에 대답한다.

1. 교리와 성약 25편 1절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2. 인간과 기타의 형상을 한 동물이 갖고 있는 천부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3. 어려서 죽은 아이는 어린이로 부활하는가, 아니면 성인으로 부활하는가?
4. 가정의 밤을 가질 경우 약속되어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5. 인생에서 청년 시절은 왜 중요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경우에 청년 시절을 허비하게 되는가?



“8개월 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에게 의로운 영들이 영의 세계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에 관한 영광스러운 계시가 주어졌다. 1918년 10월 3일, 스미스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있던 중에 성경을 펴고 베드로전서 3장 18~20절과 4장 6절에서 구주께서 영육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읽었다. 그는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던 중에 시현이 열리면서 ‘수많은 죽은 자들’이 영의 세계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의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또한 주님께서 다른 자들을 임명해서 그 가르치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구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스미스 회장은 이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들에게 설명했으며, 그들은

만장일치로 이것을 계시로 받아들였다. 1976년에 이 계시는 교회의 경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으며, 곧 교리와 성약 138편으로 명명되었다.”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493)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이에 어디에 계셨는가?

2. 교리와 성약 138편 11~12절을 읽으면 구주께서 방문한 자들과 방문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어떤 것을 더 알 수 있게 되는가?
3. 스미스 회장은 예수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신 것에 대해 어떤 질문을 갖고 있었는가? 그는 어떤 대답을 받았는가?(25~37절 참조)
4. 스미스 회장은 성전의 중요성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50~60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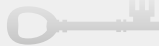
다 수많은 의로운 영들

1. 교리와 성약 138편 38~52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스미스 회장이 영의 세계에서 본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한다.



2. 53~56절에서, 스미스 회장이 영의 세계에서 본 사람들 가운데 교회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스미스 회장이 그들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적는다.
3. “수많은 영들” 가운데 어쩌면 함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다섯 사람의 이름을 추가로 열거한다.(39, 49절 참조)
4. 38~56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낱말과 구를 열거하고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적는다.

경전을 이해함



교리와 성약 138편

[Reflecting] 깊이 생각 (2절) — 생각함, 숙고함	[Defiled themselves] 자신의 몸을 더럽힌 (20절) — 죄짓는 생활을 선택하는
[Redemption] 구속 (2절) — 구원	[Radiance] 빛 (24절) — 영광, 빛
[Made manifest] 보여 준(3절) — 보여 준	[Endeavoring] 노력하는 (25절) — 노력하는
[Reverted] 떠올랐느니라 (5절) — 돌아왔다	[Commissioned] 부여하시고 (30절) — 관능을 주시다
[Primitive] 초기 (5절) — 고대, 초대, 예전	[Vicarious baptism] 대리 침례 (33절) —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는 침례
[Quickened]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7절) — 살아나다	[Sojourn] 머무르면서 (36절) — 여행
[Similitude] 모형 (13절) — 비슷한 것 또는 비교할 수 있는 것	[Foreshadowing] 미리 보여주다 (48절) — 미리 제안함
[Advent] 오시어 (16절) — 오다	[Bear record] 증거하며 (60절) — 간증하다
[Sleeping dust] 잠들고 있는 육신(17절) — 육체적으로 죽은 몸	
[Conversed] 이야기하고 (18절) — 말하다	

경전을 공부함



교리와 성약 138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편지를 쓴다

때는 1918년 10월이라고 가정하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시현을 보게 된 주변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편지를 친구에게 쓴다. 시현을 보기 전이나 시현을 보는 도중 스미스 회장이 하고 있었던 일, 시현에 대한 간단한 요약, 그리고 교리와 성약 138편 1~6절, 28~2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한 단락으로 정리하여 편지의 내용에 포함시킨다.

나 스미스 회장은 무엇이 대해 알게 되었는가?

교리와 성약 138편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베드로전서 3장 18~20절과 4장 6절(교리와 성약 138편 7~10 참조)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

주님을 섬길 것을 결심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은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최초의 교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지닌 힘의 일부가 크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크게 존경했습니다.” 파우스트 회장은 히버 제이 그랜트가 젊은이로서

어떻게 야구공도 제대로 못 던지고, 필체도 엉망이며, 노래할 때 음정도 맞출 수 없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했다. “평생토록 연습을 통해 그분은 노래 실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지만 그분이 정통했던 야구나 글씨만큼은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랜트 회장은 그분이 좋아하는 랠프 왈도 에머슨이 한 말에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면 그 일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은 그 일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54~55쪽) 발전하겠다는 결심은 평생 그랜트 회장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였던 존 룽든 장로는 같은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였던 클리포드 이 영 장로가 들려 준 다음과 같은 경험을 전해 주었다. “[그랜트 회장께서] 서거하시기 3~4주 전쯤에 영 형제가 그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랜트 회장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간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실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Conference Report, 1958년 10월, 70)

그의 생애 (1856~1945)

- | | |
|------------|---|
| 1856년 | 11월 22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제메다리아 모간 그랜트와 레이첼 리지웨이 이반즈 그랜트에게서 태어나다. 브리검 영 회장의 보좌였던 부친이 9일 후에 사망하다. |
| 1872년 | 16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 업무 및 사업 분야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다 |
| 1877년 | 20세, 11월 1일에 루시 스트링햄과 결혼하다. 그녀는 1893년에 사망하다. |
| 1880년 | 23세,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 받다 |
| 1882년 | 25세, 제일회장단 보좌인 조지 큐 캐넌 회장에 의해 사도로 성임되다. |
| 1883~1884년 | 26~27세,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
| 1901~1906년 | 43~48세, 일본에서 최초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한 후에 영국 및 유럽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다. |
| 1916년 | 60세,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 되다 |
| 1918년 | 62세,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서거 후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
| 1945년 | 88세, 5월 14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하다 |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918~1945년)

- | | |
|-------------------|---|
| 1919, 1923, 1927년 | 하와이, 앨버타, 아리조나에서 성전을 헌납하다 |
| 1921년 | 독신 성인들을 위해 최초의 교회 프로그램을 조직하다 |
| 1924년 | 연차 대회 최초의 라디오 방송 중계 |
| 1925년 | 남아메리카 최초의 선교부를 조직하다 |
| 1926년 |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이 시작되다 |
| 1930년 | 교회가 설립 일백 주년을 기념하다 (당시 회원수는 약 670,000명) |



1936년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조직하다
1941~1944년	세계 제 2차 대전 동안 군 복무 중인 교회 회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생애

1. “1918년 11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작고하기 직전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던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형제님은 큰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누가 그분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Editorial,” *Improvement Era*, 1936년 11월호, 692쪽] 1882년부터 사도로 봉사해 온 히버 제이 그랜트는 그의 나이 62세에 교회의 제7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2. “젊었을 때부터 히버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결의를 보였습니다. 미망인인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독자였던 그는 자기 포래의 다른 소년들과 쉽게 어울려 놀지 못했습니다. 야구 팀에서 운동을 하려 하면, 소심하고 서투른 솜씨 때문에 그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으며, 아무도 그를 팀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하는 대신, 그는 여러 시간 끈기있게 계속해서 공 던지는 연습을 하였으며, 결국 다른 팀 선수가 되어 몇몇 지방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소년 시절, 구두 닦는 일보다 부기 계원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부기 계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부기 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글씨를 아주 잘 써야 했지만, 그의 글씨가 얼마나 약필이었는지 그의 친구 두 사람은 그의 글씨가 꼭 암탉이 이리저리 찍어놓은 발자국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는 실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글씨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글씨를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게 되어, 결국에는 대학에서 습자를 가르치게 되었으며,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종종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였으며,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4. “그랜트 회장은 현명하고 성공적인 사업가였는데, 그의 이러한 사업 수단은 전세계가 공황에 처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던 때에 교회를 인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립하는 것이 정부가 아닌 주님과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5. “1930년대에, 전 세계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성도들도 대공황기에 실업과 가난의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1936년,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결과, 그랜트 회장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모든

회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제정했습니다. 제일회장단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는, 가능한 한 게으름의 해독을 일소하고, 실업 수당의 해악을 없애며, 독립적이고, 근면하며, 검소하고, 자존하는 시스템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세워보는 데 있습니다. 노동은 교회 회원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다시 한 번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제일회장단, Conference Report, 1936년 10월, 3쪽]



6. "집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알버트 이 보우웬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복지 계획의 실제적인 장기 목표는 수여자 와 수혜자인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특징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들의 내부 깊은 곳에 내재된 가장 훌륭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풍부하게 잠재된 영의 결실을 맺는 데 있습니다.'"
[교회 복지 계획 (복음 교리반 학습 과정, 1946년), 44쪽]

7. "1936년 본부 복지 위원회가 교회의 복지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파이오니아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해롤드 비 리는 위원회의 관리 책임자로 부름 받았다. 후에 데저렛 인더스트리스 상점이 실업자나 지체 부자유자들을 돕기 위해 세워졌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농장이 조성되고, 생산 사업이 실시되었다. 오늘날 복지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가난한 교회 회원들과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는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len L. Rudd, *Pure Religion: The Story of Church Welfare Since 1930* (1995) 참조]



8. "선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동안, 그랜트 회장은 어떤 흔하지 않은 개종에 도움을 주었다. 개신교의 이탈리아인 목사였던 빈첸초 디 프란체스카는 자신의 교회를 향해 뉴욕 시의 거리를 걷던 중에 잣대미 가득한 통 속에서 표지가 없는 책 한 권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 책을 집어 들고, 책장을 넘겨보았다. 그는 책에서 니파이, 모사이야, 엘마, 그리고 모로나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책의 이름과 출처에 대해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읽고 감명을 받았으며, 책의 진실성에 대해 기도해 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해 보았으며,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하고 특별한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처럼 기쁘고 즐거운 느낌이 나의 영혼에 위안을 주었으며,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 회원들에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그의 행위에 대해 그를 징계했으며, 심지어는 그에게 그 책을 태워버리도록 지시했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9. "후에 그는 이탈리아로 돌아왔으며, 1930년 그 책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발행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유타에 있는 교회 본부로 편지를 썼으며, 그 편지는 그랜트 회장에게로 전달되었다. 그랜트 회장은 그에게 이탈리아어판 물본경을 보냈으며, 그의 이름을 유럽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에게 보냈다. 전시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빈첸초는 여러 해 동안 침례를 받을 수 없었으나, 결국 1951년 1월 18일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시칠리 섬에서의 최초의 회원이 되었다. 5년 후 그는 스위스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돈 빈첸초 디 프란체스카, "나는 그 책을 불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88년 6월호, 14쪽 참조]



10. "1922년 5월 6일, 그랜트 회장은 교회의 첫 라디오 방송국을 헌납했다. 2년 후에 그 방송국은 연차 대회 실황을 방송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총관리 역원들의 연차 대회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1929년 7월, 태버나클 합창단은 영적인 음악과 메시지를 방송하는 주례 방송 프로그램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첫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매주 방송되고 있다."

11. "그랜트 회장은 1945년 5월 14일에 서거하였다.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27년간의 재임은 브리검 영 회장의 봉사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긴 기간이었다." (*우리의 유산*, 107~110쪽)

독서 과제를 이해함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생애

Reared 자랐던 (단락 2) — 성장했던	: Abolished 일소하고 (단락 5) —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기 (단락 5) — 전세계에 걸쳐 있었던 극심한 빈곤의 시기	: 끝내고, 제거하고 Re-enthroned 다시 한 번 높이 평가되어야 (단락 5) — 다시 힘을 되찾아야
Self-reliant 자립할 수 (단락 5) — 스스로를 돌볼 수	: Latent 잠재된 (단락 6) — 숨어 있는
Idleness 게으름 (단락 5) — 나태	: Destitute 궁핍한 (단락 7) — 가난한, 빈곤한
Dole 실업 수당 (단락 5) — 정부에서 대가 없이 주는 돈과 혜택	: Bore consolation 위안을 주었으며 (단락 8) — 위안을 가져다 주었으며

히버 제이 그랜트의 가르침과 간증

12. 1925년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도박에 관해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는 어떠한 형태의 도박도 변함없이 반대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를 받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요행이 갖는 게임이나 직업 또는 사업은 어떠한 것이든지 배격해야 합니다. 부모하게 투기심을 조장하거나 특히 교회 회원,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지역 사회가 항상 지녀야 할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저해하거나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배격해야 합니다." ("Gambling,"



Improvement Era, 1926년 9월호, 1100쪽에서 인용)

13.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많은 교회 회원들이 전쟁터로 나가야 했으며, 때때로 서로를 대적하여 싸워야 했다. 194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낭독된 성명서에서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이렇게 말했다.

14.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과 평화의 복음, 인내와 오래참음의 복음, 용납과 용서의 복음, 친절과 선한 행위의 복음, 자애와 형제애의

복음입니다. ...”

15. “의로운 이의 영혼 속에는 증오가 차지할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

16. “... 증오는 사탄에게서 태어나며,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증오를 몰아내어야 하며, 그것이 다시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17. “백 년 동안 교회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인도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교리와 성약 134편 1~6, 8절을 인용했다.]

18. “이런 원리들에 순종하여, 교회 회원들은 싸우러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때 조국을 지키러 나가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

19. “... 현재의 전쟁에서 양쪽 진영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그들의 조국을 위하여 참으로 장렬하게 전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 백성들은 단지 우리가 이미 언급한 원리 아래서 그들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 속해 있는 나라에 충성하여 복무할 따름입니다. ...”

20. “... [교리와 성약 98편 4~7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에 ... 순종하여 헌법에 따라 교회의 형제들이 충성을 바쳐야 할 국가의 군복무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우선시되는 그들의 의무는 그 부름에 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부름에 따르고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그들이 살인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21. “전세계가 사상 최악의 전쟁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습니다. 교회는 범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독실한 회원들이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국가의 무죄한 전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양편에서 모두 그들은 가정, 조국,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우리 형제들은 같은 하나님에게 그의 이름으로 승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옳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시기에 그분의 방법으로 갈등을 공정하게 규명하실 것입니다. ...”

22.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복무를 하고 있든지, 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깨끗하게 생활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와 의로움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을 그분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도 드리는 대로 생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과 승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42년 4월, 90~91, 93~96쪽)

23.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밤 여러분 앞에 서 있음을 제가 아는 만큼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뜨거움과 차가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도,

슬픔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픔의 시각에, 고통의 시각에, 죽음의 시각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간증 드립니다.” (“Farewell Address of Apostle Heber J. Grant,” Improvement Era, 1901년 7월, 691쪽)



독서 과제를 이해함



히버 제이 그랜트의 가르침과 간증

[Unalterably opposed to] 변함없이 반대해 (단락 12) — 한결같이 반대해	∴ [Sovereignities] 주권국 (단락 21) — 국가
[Forebearance] 용납 (단락 14) — 인내	∴ [Sovereign] 최고의 (단락 21) — 최고의
[Wholly] 전적으로 (단락 21) — 완전히	∴ [Betides you] 여러분에게 일어나든지 (단락 22) — 여러분에게 일어나든지 또는 닥쳐오든지

독서과제를 공부함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가 두 가지 목표를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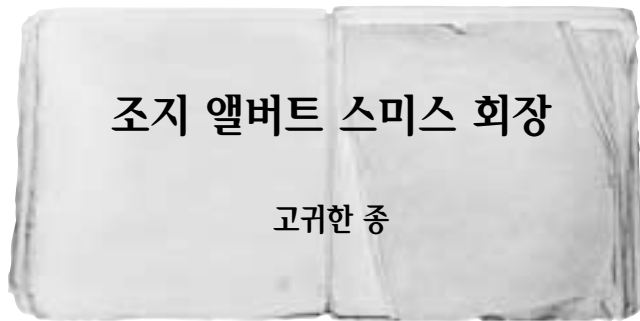
1. 1~11 단락을 공부하고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업적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다섯 가지를 열거한다.
2.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들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또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난관들에 관해서 짧게 한 단락으로 적어 본다.
3. 달성하고 싶은 두 가지 목표를 적어 보고, 또 그것들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어려움을 말해 본다.

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지침

다음 상황을 읽고 나서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어떤 가르침, 또는 간증이 각 상황에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찾아본다. 또한 각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또,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1. 올리비아의 가장 친한 친구가 교통 사고로 최근에 목숨을 잃었다. 그녀는 마음이 매우 흔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관해 의심을 하고 있다.
2. 제임스는 백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복권을 살 생각이다. 그는 그런 큰 돈을 실제로 쓸 수 있다.

- 스티븐은 전시에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이다. 그는 자신이 적군을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
- 마리아는 직업을 찾느라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정부에 매달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쉽고, 그렇게 하면 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제일회장단 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솔트레이크의 가로 정비반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주니스 버트는 한 감동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날 아침에 그가 속한 가로 정비반 직원들이 길가의 도랑에서 큰 얼음 덩어리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직원들은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임시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임시 직원이 얇은 스웨터 하나만을 입고 추위에 떨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턱수염을 멋있게 기른 훌쭉한 남자가 그 직원 옆을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아침에는 더 많이 입어야 해요. 코트는 어디에 있소?’ 그 직원은 입을 코트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그 직원에게 건네주며 ‘이 코트는 이제 당신 것이요. 두꺼운 모직이라 따뜻할 거요. 나는 바로 이 길 건너편에서 일하고 있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같은 사우스 템플이었습니다. 교회 본부 건물로 코트도 없이 일상 업무를 보기 위해 가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이었습니다. 사심이 없고 너그러운 그분의 행동은 온유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형제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성도의 빛, 1990년 7월호, 55~56쪽)

그의 생애 (1870~1951)

- | | |
|------------|--|
| 1870년 | 4월 4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존 헨리 스미스와 사라 파 스미스 사이에서 태어나다 |
| 1891년 | 21세, 남부 유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다 |
| 1892년 | 22세, 루시 에밀리 우드럽과 결혼하다; 그녀는 1937년에 사망 |
| 1892~1894년 | 22~24세, 미합중국 남동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아내 루시가 합류하다 |
| 1903년 | 33세, 조셉 에프 스미스에 의해 사도로 성임하다 |
| 1919~1921년 | 49~51세,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다 |
| 1921년 | 51세, 교회의 청남 프로그램의 지도자가 되다 |



- | | |
|-------|---------------------------------------|
| 1943년 | 73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다 |
| 1945년 | 75세,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서거 후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
| 1951년 | 81세, 4월 4일 생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하다 |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945~1951년)

- | | |
|-------|---|
| 1945년 | 제 2차 세계 대전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세상의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다; 아이다호 주 아이다호폴스에 성전을 헌납하다 |
| 1946년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고통받고 있던 유럽 성도들에게 식품과 기타 물자를 보내기 시작하다 |
| 1950년 | 새벽반 세미나리가 시작되다 |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생애

-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뒤를 이어 교회의 회장이 되었다. 평생 복음 가운데 생활하면서 행복을 찾아온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모든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조언과 권고에 따름으로써 온 결과였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48년 4월, 162쪽]
- “하나님의 계명과 교회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하는 것은 스미스 회장의 가족에게 있어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의로운 모범이 되어 왔다.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촌이며, 브리검 영 회장의 보좌였던 그의 친할아버지 조지 에이 스미스의 이름을 물려 받았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아버지인 존 헨리 스미스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보좌로서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33세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 받았다. 1903년부터 1910년까지 아버지 존 헨리와 조지 앨버트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함께 봉사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함께 봉사했던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42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했다. 그는 남부 유타 지역에서 철로를 위한 측량을 하던 중에 과도하게 햇빛에 노출되어 두 눈이 손상을 입고 거의 장님이 가까게 되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했다. 봉사하던 시기에 가증되는 압박과 필요 사항으로 인해 그의 약한 몸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급기야

1909년에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다. 완전한 휴식을 요하는 의사의 처방이 나온 뒤 그는 자신감을 잃었고,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까지 갖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었다.”

4.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스미스 회장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는 꿈속에서 큰 호숫가에 있는 아름다운 숲을 보았다. 숲을 지나 얼마 동안 걷고 있던 중에,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할아버지 조지 에이 스미스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조지는 할아버지에게로 서둘러 가려 했으나, 벌써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곁에 와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네가 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알고 싶구나.’ 조지의 마음 속에 그의 지난 생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할아버지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꿈은 조지의 영과 육체에 새로운 힘을 주었으며, 그는 곧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후에 그는 종종 그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sel. Preston Nibley (1948), 110~112쪽]

5.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1945년부터 1951년까지 교회 회원 수가 백만명에 도달했으며, 아이다호 폴스에 성전이 헌납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선교 사업이 다시 계속되었다.”

6. “또한, 전쟁으로 인해 궁핍하게 된 유럽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점차 조직화되었다.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의류품과 다른 생필품들을 기부하도록 권고하였다. 스미스 회장은 수집한 음식과 의류와 침구류를 유럽에 보내는 데 승인을 받기 위하여 당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에스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다. 스미스 회장은 그 모임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 해리 에스 트루먼 미국 대통령, 허버트 모우 유타 주지사

7. “트루먼 대통령이 말했다. ‘왜 회장님은 그 곳에 그것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들의 화폐는 이제 별로 가치가 없는데요.’”

8.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들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의 말씀은, 그것을 그들에게 그냥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습니까?’”

9.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우리는 그냥 줄 것입니다. 그들은 비탄에 잠겨 있는 우리들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잉여물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정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보낼 것입니다.’”

10.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이 옳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47년 10월, 5~6쪽]



11. “기부된 물자들이 해외로 발송되기 위해 유타에서 분류되고 포장되는 동안, 스미스 회장이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왔다. 후하게 기부된 많은 양의 생필품들을 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분 후 그는 입고 있던 새 오버 코트를 벗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보내십시오.’ 함께 있던 몇몇 사람들이 추운 겨울 날씨에 그 코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기어코 그것을 보내게 했다.” [Rudd, *Pure Religion*, 248쪽 참조]

12.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가 유럽 선교부를 재개설하고, 구호 물자가 잘 분배되는지 살피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임무를 지명받았다. 벤슨 장로는 초기에 라인 강변에 위치한 독일의 칼스루헤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벤슨 장로는 그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3. “‘우리는 마침내 모임 장소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곳은 한 블록 안에 위치해 있었으며, 폭격으로 일부가 파손된 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임에 함께할 것이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가 오기를 바라며, 그 모임에서 두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들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을 때, 저는 제 생애에서 처음으로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6년 내지 7년만에 마침내 그들이 시온의 대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시 방문했다는 것을 실감했던 것입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을 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으며, 신발조차 신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 위대한 후일의 사업에 대해서 간증했으며, 주님께 자신들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그들의 눈에서 신앙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47년 4월, 154쪽]

14. “벤슨 장로가 맡은 많은 임무 중에는 특히 유럽 전역으로 갈 화물차 127량 분의 식품, 의류, 그리고 의약품의 분배를 감독하는 임무가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나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독일 츠비카우의 새로운 예배당을 헌납하고 있을 때, 나이가 지긋한 한 형제가 눈물을 흘리며 몬슨 회장에게 다가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이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분에게 가시면 그분이 미국 교회 회원들이 모은 식품과 의복 등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생명을 구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Gerry Avant, “War Divides, but the Gospel Unites,” *Church News*, 1995년 8월 19일, 5쪽에서 인용]

15. “네덜란드의 성도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던 독일 성도들에게 기독교적인 봉사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네덜란드 성도들은 전쟁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후에 미국 교회의 회원들에게서 복지 지원을 받았었다. 1947년 봄, 그들은 그들 자신의 복지 활동을 실시하도록 요청 받았으며, 그들은 그러한 복지 활동을 열정을 가지고 행하였다. 그들은 먼저 큰 수확을 기대하면서 감자를 심었다.”

16. “이 시기에, 구 동독 선교부의 월터 스토버 선교부 회장이 네덜란드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황폐하고 굶주림에 처해 있는 독일 성도들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네덜란드 선교부의 코넬리우스 제페이 선교부 회장은 회원들에게 전쟁 기간 동안 그들의 적군이었던 독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재배한 감자를 나누어 줄 수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성도들은 기꺼이 동의했으며, 그들의 감자 수확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했다. 수확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으며,



네덜란드 성도들은 75톤의 감자를 독일에 있는 그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낼 수 있었다. 일 년 후에 네덜란드 성도들은 90톤의 감자와 9톤의 훈제 청어를 독일 성도들에게 보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Rudd, *Pure Religion*, 254~261쪽 참조]

17. “성도들이 보여 준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표현은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에게는 전형적인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널리 밝혀 나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함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49년 4월, 10쪽] (*우리의 유산*, 110~114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생애

[Succeeded] 뒤를 이어 (단락 1) — 계속하여	[Panorama] 파노라마 (단락 4) — 완전한 광경
[Paternal grandfather] 친할아버지 (단락 2) —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Stamina] 힘 (단락 4) — 힘
[Episodes] 번역 안되어 있음 (단락 3) — 시기, 때	[A surplus] 잉여물 (단락 9) — 여분의 것
[Eroded] 잃었고 (단락 3) — 점차 없어졌고	[Commodities] 생필품 (단락 11) — 식품과 의류
[Aggravated his tension]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었다 (단락 3) — 그의 좌절감을 증가시켰다	[Desolation] 황폐 (단락 16) — 고난, 슬픔, 비통
	[Herring] 청어 (단락 16) — 조그만 물고기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가르침과 간증

18. “어렸을 적에 저는 주님의 계명이 저를 인도하기 위한 그분의 율법이며 규칙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율법에 불순종하면 형벌이 따르리라고 생각했으며, 아이였을 때, 저는 주님께서 이생의 일들을 조정하시고 만사를 정하시므로, 어떤 특정한 율법에 순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곧 보복이 내려질 것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면서 다른 관점에서 교훈을 배웠으며, 지금 저에게 주님의 율법은 ...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달콤한 음악일 따름입니다. 율법들은 사랑이 있는 부모의 충고이며, 권고일 뿐입니다. ...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때는 율법이 감당해야 하는 무서운 이름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모든 면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부드러운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Conference Report, 1911년 10월, 43~44; 또한 모사이야서 2:41 참조)

19.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아름답게 여겨진 것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공통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해의 왕국에서 높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 스테이크 화장이나 심지어도 정원의 회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해의 왕국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승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최대한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해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율법들을 계속해서 준수한다면, 승영에 이를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Conference Report, 1933년 10월, 25쪽)



20. “저의 할아버지 [조지 에이 스미스 사도]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주님의 영역과 악마의 영역 사이에는 분명하게 그어진 경계선이 있다. 너희들이 그 경계선에서 주님의 편에 선다면 그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어 잘못 행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나, 그 선을 단 1센티미터라도 넘어서 악마의 편으로 간다면 그 유혹자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며, 또 그 유혹자가 성공한다면 너희들은 주님의 영을 잃게 되어 적절하게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1. “때때로 어떤 일을 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나는 그 경계선의 어느 편에 있는가? 제가 안전한 편인 주님의 편에 있기로 결심했다면, 매번 올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혹이 온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현명하게 결정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안전이 있습니다.’”

22.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모든 행복은 그 경계선에서 주님의 편쪽에 있으며, 모든 슬픔과 실망은 그 경계선에서 악마의 편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comp. Preston Nibley (1948), 42~43쪽)

23.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옳은 일을 하도록, 그리고 의롭게 되도록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부 회장이었던 알웰 엘 피어스 장로가 들려준 이야기, Conference Report, 1951년 4월, 114쪽)



24. “저는 언젠가 저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후에 이렇게 말한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배운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귀하의 교회도 다른 교회들 만큼이나 좋군요.’ 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 큰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인간의 자녀들에게 더 중요하지 않다면, 저는 지금 저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께서 지니고 계신 진리와 덕성을 빼앗아 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약점을 찾거나 선생을 비판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생께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선생을 질책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선생의 형제로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산을 자발적으로 주고 있으며, 우리 마음에 사랑을 지니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을 행할 것과, 죄의 상태에 있는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권유하고,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덕성을 간직할 것을 권장하겠다는 소망으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은 간직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더욱 좋은 것을 전하게 하여, 여러분이 더욱 행복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돕고 싶습니다라고 말씀 드리기 위해 이 나라로 왔습니다.”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12~13쪽)

25.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날(안식일)이, 이 위대한 국가의 노는 날, 즉 하나님께서 먼 옛날에 주신 계명을 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따로 정한 날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간을 괴롭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괴롭힐 슬픔과 고난 가운데 많은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분의 훈계를 무시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Conference Report, 1935년 10월, 120쪽)



26. “이 필멸의 세상에서 80세가 넘도록 세상의 많은 지역을 여행하며 많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 아래 조직한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광야로 쫓겨난 이 교회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한 것과 같은 신권의 권세와 권능 아래서 움직이고 있음을 과거보다 현재에 더욱 잘 알게 되었음을 여러분께 간증 드립니다. 제가 살아있음을 알고 있듯이 저는 이 점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과 제가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친 다른 모든 일에 대해 그분께서 제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있으며, 또 제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압니다. 만인에 대한 사랑과 친절을 가슴 속에 지니고 이러한 간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After Eighty Years,” Improvement Era, 1950년 4월호, 263~264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가르침과 간증

[Retribution] 천벌 (단락 18) — 형벌 : [Berate] 질책하러 (단락 24) —
[Demarcation] 경계 (단락 20) — 분리 : 책망하러
또는 한도

독서과제를 공부함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가 그분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여러분이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을 회견할 기회를 가졌다고 가정한다. 단락 1~17을 공부한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그가 어떻게 대답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적는다.

1. 무엇이 귀하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의 가족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 이유는?
3. 귀하의 이웃들에게 베푼 봉사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4.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널리 주고 자애를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가르침을 적용한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가르침과 간증”을 읽고 그의 가르침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가르침 5 가지를 선택한다. 각 가르침에 대해, 스미스 회장이 가르친 내용이 도움이 되거나 답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묘사해 본다. 각 상황을 묘사한 후에는 스미스 회장이 가르친 진리가 어떻게 각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범세계적인 교회

20세기의 후반 50년 동안 교회는 전례 없는 성장을 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에 이르기까지 유능하고 영감 받은 교회 회장들의 지도력 아래서, 선교 사업은 확장되어 왔으며, 교회 회원 수는 110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성전이 전 세계 도처에 있어 여러 나라에서 더욱 많은 성도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복음의 가장 높은 의식들을 베풀고 있다. 참으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면서, 교회를 “희미한 데서 그리고 캄캄한 데서”(교리와 성약 1:30)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관해 언급하면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전능하신 이의 후일의 사업, 곧 옛 선인들이 말씀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씀한 이 사업이 바로 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지상에 오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으며, 학문의 웅대한 개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노력과 성취에 관한 한 모든 시대 중 가장 위대한 시대입니다. ...”

“우리는 모든 시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중대하고 엄숙한 역사 의식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시대는 최후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며, 과거의 모든 시대는 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전진 과정의 어느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을 훌륭히 다스리기 위해 오십니다. 아무도 그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분의 재림의 때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환영의 날이 될 것입니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9~90쪽)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1898년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한때 향수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그는 한 마을을 걸어 가면서 “보도에서 몇 미터 들어간 곳에서 공사 중인 한 건물을 보았다. 정문 위에는 돌로 만든 아치가 하나 있었는데, 주춧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 더 이상했던 것은, 보도에서 복게 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치에 조각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나는 동반자에게 말했다. ‘정말 특별하네요! 가서 새겨진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돌에 있던 메시지가 눈에 확 들어왔을 뿐 아니라,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고귀한 하나님에게서 온 것 같았다. 메시지는 이러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행하라.’”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돌아섰으며, 동반자에게 돌아와서 그 메시지를 들려 주었다.”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 선교사로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그 날 아침 내게 주어진 메시지였다.” (Cherished Experiences from the Writings of President David O. McKay, comp. Clare Middlemiss [1955], 174~175쪽)

그의 생애 (1873~1970)

- 1873년 9월 8일 유타 주 현츠빌에서 데이비드와 제넷 이반스 맥케이 사이에서 태어나다
- 1881년 8세, 생일에 침례를 받다. 부친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다.
- 1897~1899년 24~26세,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행하다
- 1901년 27세, 대학 시절의 연인 에머 레이 리스와 1월 2일에 결혼하다. 그녀는 1970년에 사망
- 1906년 32세, 조셉 에프 스미스에 의해 사도로 성임되다
- 1918~1934년 45~61세, 주일 학교 회장



- 1920~1921년 47~48세, 전 세계의 선교부 순방 여행: 많은 나라를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하다
- 1922~1924년 49~51세, 유럽 선교부 회장
- 1934~1951년 61~77세, 히버 제이 그랜트 및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보좌
- 1950년 77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다
- 1951년 77세,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서거 후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 1970년 96세, 1월 18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하다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951~1970년)

- 1955~1956년 스위스 및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전을 헌납하다
- 1958년 뉴질랜드와 하와이에서 교회 대학을 설립하다; 뉴질랜드와 런던에서 성전을 헌납하다; 북아메리카 대륙 이외의 지역에서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뉴질랜드)
- 1961년 교회 협의의 프로그램이 시작되다
- 1964년 캘리포니아 주 오글랜드에서 성전을 헌납하다
- 1966년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브라질)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

1.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보좌로서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다. 1951년 봄, 스미스 회장의 건강이 다소 호전되었을 때, 맥케이 회장과 그의 아내 에머 레이 자매는 그 동안 연가해 왔던 캘리포니아에서의 휴가를 위해 솔트레이크를 떠나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하룻밤을 묵기 위해 유타 주 세인트조지에서 머물렀다. 다음날 아침 일찍 맥케이 회장이 일어났을 때, 그는 교회 본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솔트레이크로 돌아온 지 며칠 후에 스미스 회장은 뇌일혈로 쓰러졌으며, 이로 인해 1951년 4월 4일 세상을 떠났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교회의 제9대 회장이 되었다.”

2. “맥케이 회장은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이전부터 잘 준비해 왔다. 그가 여덟 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영국으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떠맡아야 했다. 그의 두 누나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농장 일이 데이비드의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맥케이 형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내가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자 맥케이 자매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데이비드와 제가 모든 일을 잘 꾸려갈 거예요!’ [Llewelyn R. McKay, *Home Memories of President David O. McKay* (1956), 5~6쪽에서 인용] 부모의 신앙과 헌신은 어린 데이비드의 마음속에 전생애를 통해서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32세가 되던 1906년 그는 십이사도 평의회로 일원으로 부름 받았으며, 교회 회장이 되기까지 45년 동안 십이사도 평의회와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과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보좌로서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다.”



3. “맥케이 회장은 전세계에 걸친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기 위해 광범위한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영국과 유럽, 남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 및 기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다. 유럽에 있는 동안, 그는 런던과 스위스에 있는 성전 건축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 제일회장단에서의 봉사가 끝나기 전에,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축복과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거의 전세계 모든 곳을 방문했다.”

4. “맥케이 회장은 모든 성도들에게 매년 최소한 한 명의 새로운 회원을 교회로 데려 오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격려하면서 선교 사업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라는 권고의 말씀을 반복한 것으로 유명하다.”

5. “1952년, 복음 선교 사업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공식적인 전도 계획이 처음으로 전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내졌다. 그 계획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것에는 영에 의한 가르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하나님의 특징, 구원의 계획, 배도와 회복 및 물몬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곱 가지 선교사 토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숫자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되었다. 1961년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선교 부장들을 위한 첫번째 세미나를 가졌는데, 선교부 회장들은 가족 회원들이 친구나 이웃과 우정 증진을 한 다음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선교사와 공부하게 할 수 있게 하도록 가족 회원들을 격려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들을 위한 언어 훈련 프로그램은 1961년에 수립되었으며, 후에 선교사 훈련원이 건축되었다.”

6. “맥케이 회장의 재임 기간 중, 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교회 회원들에 의해 아시아에서의 성장을 위한 씨앗들이 심어졌다.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유타 주 아메리칸 포크 출신의 한 사병은, 일단의 미군 병사들이 길을 지나가는 동안 한국 민간인들을 옆으로 비켜 서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젊은 교회 회원은 그와 반대로, 길을 비켜 서서 한국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도록 해 주었다. 그는 또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곁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어느 날 그는 친구 다섯 명과 함께 영내에 있는 식당에 갔다. 음식을 기다리는 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그는 식탁에 앉아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한 한국인 노무자가 음식이 든 식판을 들고 그에게 나타났다. 그는 막대기가 하나 뿐인 그의 팔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아, 팬찮습니다. 저는 그저 사병입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이 대답했다. ‘받아주십시오. 당신은 최고의 기독교인입니다.’” [George Durrant, “No. 1 Christian,” *Improvement Era*, 1968년 11월호, 82~84쪽]

7. “1967년까지 선교사와 군인 형제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매우 효과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물몬경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스테이크와 와드가 조직되었다.”



8. “선교사들은 또한 일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 성도들은 몇 년 동안 교회의 대표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전쟁 후에 일본에 주둔했던 후기 성도 군인 형제들은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1945년, 타츠키 사토는 차를

정중히 거절했던 후기 성도 군인 형제들에게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침례 받게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그의 가족들도 침례의 물가로 인도되었다. 엘라웃 리차즈가 타츠키 사토 형제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당시에는 군인이었으나 나중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 된 보이드 케이 팩커 형제가 사토 자매를 침례했다. 사토 형제의 가정은 많은 일본인들이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들었던 장소로 사용되었다. 얼마 후 제2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군인의 신분으로 일본인들과 전투를 한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일본의 여러 도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9. “한편 필리핀에서의 교회 성장도 2차 대전 후에 주둔했던 미군 형제들의 노력이 컸는데, 1961년부터 교회가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한 젊은 필리핀 여성은 물몬경에 대해 듣게 되었으며, 몇 명의 후기 성도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녀는 자기와 잘 알고 지내던 정부 관리들을 만나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어 그들에게 필리핀에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윽고 그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으며, 몇 개월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선교 사업을 위해 그 땅을 재헌납했다.”

10. “1950년대 동안 이루어진 교회의 극적인 성장의 결과, 맥케이 회장은 신권 협의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해롤드 비 리 장로를 위원장으로 한 이 위원회는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 프로그램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연구하도록 임무 지명을 받았다. 1961년 제일회장단의 승인에 따라 리 장로는 모든 교회 교과 과정 자료의 계획, 저술 및 시행을 관리할 정책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미 많은 자료들도 이전에 교회 보조 조직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지시가 내려진 것은 복음이 전세계에 있는 다양한 언어와 연령층의 모든 회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쳐지기 위해 프로그램과 공과 자료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1. “교회는 또한 교회의 사명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 복지 사업, 선교 사업 및 가족 역사 사업 등이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다른 변화들을 가져왔다. 조셉 스미스 시대부터 교회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던 가정 복음 교육이 영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교회 회원들을 돌보기 위한 방법으로 1960년대에 재차 강조되었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집회소 도서실이 설립되었고,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또한 시작되었다. 1971년 교회는 총관리 역원의 감독 하에 어린이를 위한 프렌드, 청소년을 위한 뉴이라, 그리고 성인을 위한 엔사인 등 세 개의 영어 판 잡지를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는 여러 선교부마다 독자적으로 발행해 온 외국어 판 잡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금은 한 종류의 잡지가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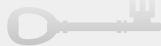
12.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행복의 근원과, 현대 생활의 시련과 유혹에 맞설 가장 확실한 방편으로서 가정과 가족 생활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그는 종종 그가 자신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의 아내 에머 레이 자매로부터 받은 끊임없는 내조에 대해

이야기했다. 맥케이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에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복음의 원리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갖는 가정의 밤을 시행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13. “상호부조회는 가정과 가족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지자를 지지했다. 나부에서 처음 창립된 이래로, 상호부조회는 수천 명의 회원들을 포함하는 큰 조직으로 발전해 왔다. 이 여성들은 상호부조회를 통해 받는 가르침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로 인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축복을 받았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벨 에스 스페포드 자매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유능한 지도자인 스페포드 회장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여성 평의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국가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14. “맥케이 회장은 1970년 1월에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거의 20년간 교회를 감리했으며, 재임 기간 동안 교회 회원 수가 거의 3배로 증가했고, 전세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우리의 유산, 114~119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

[Preliminary] 준비 (단락 3) — 초기	...	[Private] 사병 (단락 6) — 미함중국
[Urging] 격려하면서 (단락 4) — 장려하면서	...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
[Admonition] 권고의 말씀 (단락 4) — 상기시키는 것, 권고	...	[One stripe on his arm] 막대기가 하나뿐인 그의 팔의 계급장 (단락 6) — 군대에서 군복에 부착하는 이등병 계급장
[Convened] 가졌는데 (단락 5) — 열렸는데	...	[Implementation] 시행 (단락 10) — 사용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가르침과 간증

15. “가정은 어린이들이 인생의 교훈, 곧 진리, 명예, 미덕, 자제심, 교육의 가치, 정직,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특권을 배우기에 가장 좋고 또 가장 효율적인 장소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서 그 어떠한 것도 가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Family Home Evening Manual [1968], iii쪽)

16. “행복한 결혼 생활의 씨앗은 청소년기에 [심어집니다]. 행복은 [결혼] 제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소년 시절과 구혼 기간 동안에 시작됩니다.” (Pathways to Happiness, comp. Llewelyn R. McKay [1957], 49쪽)

17. “모든 이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이상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며, 특별히 그분의 생애이며, 그분께서는 참으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며 가장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18.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지하게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며, 여러분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대부분 결정할 것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51년 4월, 93쪽)

19. “참된 물문 가정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면 기뻐하며 머물러 쉬기 원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Gospel Ideals [1953], 169쪽)

20. “우리가 가정보다 사업이나 쾌락이나 부수입을 우위에 둔다면, 그 순간부터 영혼을 격하시켜 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가정보다 사고 단체에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기회에 도달하지 못하고 진정한 남성이 되는 최종 시험에서 낙방했다는 큰 수치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순간입니다.”

21. “비록 초라한 오두막 속에서 생활한다 해도 그 곳에 사는 가족이 화합하고 사랑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미래의 인류에게 다른 어떤 부귀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으며, 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순수한 가정에 있는 순수한 마음은 하늘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항상 들릴 정도로 하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A Prophet's Counsel, Church News, 1968년 9월 7일, 4쪽)

22.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으로 천국은 이상적인 가정의 연속이라고 마음 속으로 그려 봅시다.” (Gospel Ideals, 490쪽)

23.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맥케이 회장의 다음과 같은 권고를 인용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더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29쪽)



24.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는 부모는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일관성 있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잡힌 집안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경함은 예절 교육의 표준이 낮음을 나타내는 악입니다. 불경스러운 감탄사를 쓰는 것은 계시의 영을 몰아 내게 되는 것입니다.” (Gospel Ideals, 420쪽)

2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에, 우리의 부름에, 특별히 복음의 기쁜 소식을 친구들과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의 책임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여성과 어린이들을 예전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은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은 더 훌륭하게 하는 것입니다.” (Every Member a Missionary, Millennial Star, 1961년 10월호, 469쪽)

26.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였던 로버트 엘 심슨 장로는 게으름을 피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면서 맥케이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인용했다. “한 사람을 가늠하는 참된 척도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72년 10월호, 146쪽; 또는 Ensign, 1973년 1월호, 113쪽)

27. 제일회장단 보좌였던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젊은이들이 선교 임지에 있으면서 영을 따르는 일을 머뭇거리므로써 영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고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경우는 바로 맥케이 회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입니다. ‘한번은 선교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의 속삭임에 응하지 않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십시오. 그 속삭임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행할 용기를 지니십시오.’”(Conference Report, 1975년 4월, 110쪽; 또는 *Ensign*, 1975년 5월호, 74쪽)

28.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저의 간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분께 했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이다’(요한복음 20:28)라는 말 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

29. “저는 그분께서 겸손과 의로움 가운데서 그분을 찾는 종들에게 말씀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 지상에 있는 그분의 왕국에 관계된 일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30. “저는 그분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식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이나 저에게는 실제적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그 영광을 온 지상에 비출 것임을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재함과 이 회복된 교회의 신성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68년 4월, 9~10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가르침과 간증

[Compensate] 보상할 (단락 15) — 메울, 대신할	· [Bespeaks] 나타내는 (단락 24) — 보여 주는, 설명해 주는
[Linger] 머물러 (단락 19) — 계시며	· [Breeding] 예절 교육 (단락 24) — 자녀 교육, 아이 교육
[Club] 사교 단체 (단락 20) — 사교를 위해 모이는 장소	· [Blessings] 축복의 외침
[Profanes] 불경하게 사용하는 (단락 24) — 부적절하게, 존경심 없이 사용하는	· 불경스러운 감탄사를 쓰는 것 (단락 24) — 기록하지 않은 낱말들
	· [Confer with] 말씀하실 (단락 29) — 말씀하실

독서과제를 공부함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글짓기

단락 1~14를 공부한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감탄할 만한 일과, 그의 모범이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짧은 글을 짓는다.

나 지도를 그린다

1. 경전에 있는 지도들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세계 지도를 그린다.
2. 맥케이 회장이 방문했던 지역과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교회가 커다란 성장을 보인 지역에 색칠을 한다.
3. 그가 스테이크를 조직한 지역에 별 표시를 한다.
4. 그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교회 학교가 시작된 지역에 X 표시를 한다.
5. 그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성전이 헌납된 지역에 T 표시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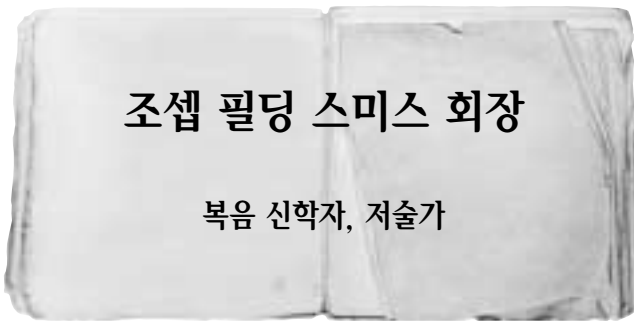
다 집 장식 하기

최근에 성전에서 결혼하고 집을 어떻게 새로 장식할 것인지를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1. 집에 있는 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평면도를 노트에 그린다.
2. 독서 과제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가르침과 간증”에 있는 말씀들을 게시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에 그 말씀의 단락 번호를 적는다. (어떤 말씀들은 한 단락보다 길 수 있다. 각 방에 하나 이상의 말씀을 넣을 수 있다.)
3. 평면도 아래에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단락 19에 있는 맥케이 회장의 가르침을 정문 옆에 걸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도 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복음 신학자, 저술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당시 제6대 교회 회장이며 부친이었던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에 의해 1910년 4월 7일 사도에 성임되었다. ...”

“하이럼 스미스의 손자였던 스미스 회장은 ... 조셉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교회 회장이 되었던 세 번째 사람이었다. ...”

“[그는] 교회 교리 및 교회 역사에 관한 많은 저술을 통해서 교회 문학에 끊임없는 기여를 했다.

“그는 복음 원리에 대한 평생에 걸친 헌신을 통해서, 십이사도 평의회와 회원들이 참으로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했던, 많은 사랑을 받던 지도자였다.”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Becomes Tenth President of the Church*, Improvement Era, 1970 2월호, 3쪽) 스미스 회장의 생애와 가르침에 관해 읽으면서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만의 성품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그의 초기 생애에서 찾아본다.

그의 생애 (1876~1972)

1876년	7월 19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와 줄리나 램슨 스미스 사이에 태어나다
1884년	8세, 생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아버지에게 침례받다
1893년	16세,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에 참석하다
1898년	21세, 루이 에밀리 서틀리프와 결혼하다
1899~1901년	22~24세,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다
1901년	24세,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다
1908년	32세, 첫 아내의 사망 후에 에델 레이놀즈와 결혼하다
1910년	33세,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에 의해 사도로 성임되다
1921~1970년	44~93세, 교회 역사가로 봉사하다
1938년	61세, 두 번째 아내의 사망 후에 제시 이반스와 결혼하다
1945~1949년	68~72세, 솔트레이크 성전의 성전 회장
1951년	74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1970년	93세,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서거 후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1971년	94세, 세 번째 아내 사망하다
1972년	95세, 7월 2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하다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970~1972)

1970년	아프리카에 최초의 스테이크 조직 (남아프리카)
1970년	아시아에 최초의 스테이크 조직되다 (일본)
1971년	최초의 교회 지역 대회가 개최되다 (영국)
1972년	유타 주, 옥든과 프로보에 성전이 헌납되다
1972년	교회 회원수 3,218,908 명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생애

1.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당시 거의 93세가 되신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교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는 조셉 에프 스미스 전 회장의 아들이었다.”

2. “소년 시절, 조셉 필딩 스미스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여, 열 살이 되기 전에 몰몬경을 두 번이나 읽었으며, 걸어다닐 때도 경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 무도회장에서 그가 보이지 않으면, 친구들은 건초 저장 창고에서 경전을 읽고 있는 그를 발견하곤 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 어렸을 적을 돌이켜 보면, 처음으로 글을 읽을 수 있었을 때부터,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경전을 연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글을 읽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진 사업을 알아보는 데서 더욱 큰 기쁨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30년 4월, 91쪽]



3. “이처럼 어려서부터 연구한 덕분에 경전과 교회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쌓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말씀과, 거의 스물 네 권이나 되는 저서와, 교리를 주제로 한 수많은 중요한 기사의 토대가 되었다.”

4.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아시아(일본 동경)와 아프리카(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첫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교회 회원 수가 늘어나자, 스미스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전세계적으로 지역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지역 대회를 여는 관례를 시작함으로써 회원들이 총관리 역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그러한 대회가 열린 곳은 영국의 맨체스터였다. 전세계 사람들에게 더욱 훌륭하게 봉사하기 위해, 보건 담당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아 기본적인 건강 원리와 위생을 가르쳤다. 이내 많은 나라에서 200명 이상의 보건 선교사들이 봉사하게 되었다.”

5. “1912년 이래, 교회에서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인접한 건물에서 열리는 세미나리 공과를 후원했다. 1920년대에는, 후기 성도가 많이 다니는 단과 및 종합 대학에서 종교 교육원 과정이 시작되었다. 1950년대에는, 세미나리 새벽반 공과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1,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게 되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비회원들은 15~18세의 후기 성도들이 종교 학습반에 다니기 위해 일주일에 닷새를 새벽 다섯 시 반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1970년대 초에, 가정 학습 세미나리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전세계의 후기 성도 학생들은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스미스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세미나리와 대학부 등록수는 극적으로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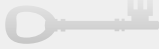
6. “197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스미스 회장은 마지막으로 행한 대중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세상의 온갖 폐악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화를 희망하며, 현실적, 영적인 변영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회복된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하고 있는 일이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지상에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의 빛, 1972년 12월호, 8쪽]

7. “교회의 회장으로 2년 반 동안 봉사한 후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그의 딸 집에서 95세를 일기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일평생을 담대하게 주님께 봉사했다.” (*우리의 유산*, 121~123쪽)



교회 최초의 지역 대회는 1971년 8월, 영국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지시 아래 개최되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가 연단에 계시다.

독서과제를 이해함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생애

[Recollection] 돌이켜 보면 (단락 2) — 기억해 보면	...	[Sanitation] 위생 (단락 4) — 청결
[An extensive] 광범위한 (단락 3) — 폭넓은	...	[Adjacent] 인접한 (단락 5) — 이웃한
[Administration] 재임 기간 (단락 4) — 회장 재임	...	[Inheritance] 거할 수 (단락 6) — 거하는 장소, 보상
	...	[Engage in] 하고 있는 (단락 6) — 관련되어 있는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과 간증



8. “복음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미루는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면전에서 함께 하는 영생을 훔치는 도둑과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회원들이 우리 가운데도 복음의 원리를 준수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 서두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69년 4월, 121쪽)

9.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영이라는 찬만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자 원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행하여질 수 없는 이 성스러운 의식을 주님의 집에서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남자도 혼자서 승영에 이를 수 없으며, 어떠한 여자도 이 축복을 혼자서 누릴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인봉되며, 계속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승영에 이르게 되고, 계속 발전하여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그것이 주께서 그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구원의 교리, 2:40)

10. “누가 쓴 책이고 어떠한 내용의 책이건 그것이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책은 버려야 합니다. 나의 말이나, 교회의 지도자나 어떠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그의 가르침이 계시와 일치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규정짓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광하는 자나, 저울로서 4권의 표준 경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표준 경전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의 가르침을 측량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원의 교리 3:176)

11. “이 교회의 회원이라면 물론경을 여러 차례 읽고 철저히 심사숙고하여, 이 경전이 진실로 전능하신 분의 영감을 받은 기록이며, 그 역사는 진실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12. “...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물론경을 열심히, 그리고 상세히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61년 10월, 18쪽)



13. “저는 복음의 회복에 대해, 우리 구속주의 사명에 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부름과,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륜의 시대에 이 사업의 세위짐에 대해 간증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세상의 구속주,

인간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속하셨으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참되고 충실하다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56년 4월, 58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과 간증

[Procrastination] 미루는 행위 (단락 8) — 해야 할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기다림	...	[Exaltation] 승영 (단락 9) — 신이 됨
[Haste] 서두름 (단락 8) — 서두름, 긴급	...	[Square] 일치되지 (단락 10) — 부합되지

단락 13 — “때가 찬 경륜의 시대”란 무엇인가?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함께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과 그에 따른 구원 의식을 제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는 복음의 경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일 — 위함을 무릅쓰리요”, 성도의 벗, 1977년 5월호, 2쪽) 우리는 “때가 찬 경륜”(에베소서 1:10)의 시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다.

독서과제를 공부함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그리고 활동 나 또는 다를 한다.

가 치료방법 찾기

1. 여러분이 의사라면, 치료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병은 어떤 것인가? 그 이유는?
2. 단락 2~3과 5~6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세상의 영적인 “질병” 몇 가지를 열거한다.
- 나. 이러한 질병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어떤 “치병”을 제시하였는가?
- 다. 스미스 회장은 젊었을 때 어떻게 영적인 질병을 피하였는가?
- 라. 여러분 생활에서 세미나리는 어떻게 이러한 “치료책”이 될 수 있었나?

나 도둑 막기

귀중한 물건을 도난 당한 적이 있었는가? 그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1. 단락 8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 가. 어떤 귀중한 소유물을 우리는 도난 당할 수 있는가?
 - 나. 어떻게 도난 당하는가?
 - 다. 그것을 훔친 도둑은 누구인가?
2. 단락 11~12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물몬경에서 미루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구절과 영생에 관해 말해 주는 구절을 찾는다.
 - 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정”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는다.

다 일지를 적는다

단락 9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성전에서 최근에 결혼한 사람처럼 일지를 적어본다. 일지를 적으면서 다음 질문에 관해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대답을 포함시킨다.

1. 어느 성전에서 인봉 받고 싶은가?
2.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 때, 왜 성전에서 인봉되는 것이 중요한가?
3. 그 곳에 누가 참석하기를 바라는가? 그 이유는?
4.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더욱 더 주님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해롤드 비 리 회장의 장례식 연설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리 회장을 “가장 고귀하고, 강력하며, 전심전력한 하나님의 종이자, 예임되었던 거대한 삼나무 한 그루”로 묘사했다. (L. Brent Goates, Harold B. Lee: Prophet and Seer [1985], 595쪽) 또 다른 경우에, 킴볼 회장은 리 회장이 “무엇에든지 노력하고, 참되며, [교회의] 프로그램에서 교육받고, 영적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았다. ... 우리는 이분이 이미 훈련 되고 영적인 분이셨음을, 성장하여 그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아 왔다.

그가 발표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에서 목자요, 사람들의 지도자이며, 주님의 선지자요, 외투를 가진 이의 음성을 인식하였다.”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467쪽) 라고 설명했다. 리 회장의 생애와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의 생애를 빛내고 또 세상에 축복을 줄 것이라고 그가 믿었던 단순하고 개인적인 믿음에 유의한다.

그의 생애 (1899~1973)

1899년	3월 28일 아이다호 주 클리프톤에서 새뮤얼 리와 루이자 빙햄 리 사이에 태어나다	
1907년	8세, 6월 9일 바비 폰드에서 일요일에 침례받다	
1916년	17세, 아이다호 주에서 학교 교사로 일을 시작하다	
1920~1922년	21~23세, 미합중국 서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	
1923년	24세, 편 태너와 결혼하다	
1932년	33세, 솔트레이크시티 정부에서 지도자가 되다	
1935년	36세,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조직하도록 부름받다	
1941년	42세, 히버 제이 그랜트에 의해 사도에 성임되다	
1961년	62세,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 조직된 교회 협의 프로그램의 의장으로 지명되다	
1963년	64세, 첫번째 아내의 사망 후에 프레다 젠슨과 결혼하다	
1970년	70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1970~1972년	71~73세,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제1보좌	
1972년	73세,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1973년	74세, 12월 26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하다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972~1973)

1972년	독신 성인을 위한 독신 성인회 조직
1973년	교회 건강 봉사, 사회 봉사, 복지 프로그램이 함께 조직되다. 농업 선교사가 세상의 여러 지역으로 파견되어 사람들이 농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일을 돕다. 교회 회원수는 3,306,658 명이었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의 생애

1.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사망하시고 난 다음날,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회원인 해롤드 비 리 회장의 가족은 가정의 밤 시간을 가졌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참되게 신앙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복음에 따라 살거라.’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 메시지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교회 회장으로서 가진 첫 기자 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러한 험난한 시대에 개인과 나라의 구원은 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Francis M. Gibbons, Harold B. Lee: Man of Vision, Prophet of God [1993], 459쪽]

2. “해롤드 비 리 장로는 1972년 7월 7일에 73세의 나이로 교회의 회장이 됨으로써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 이후 최연소로 회장이 된 사도였다. 그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109쪽 참조)을 지도하라는 부름을 받은 1935년 이래로 교회의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그는 또한 교회 프로그램의 단순화와 상호 관련화를 유도한 교회의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 검토 작업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하늘로부터 받은 영감에 신속히 대응하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다.”

3. “리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두 번째 지역 대회를 감리했다. 이 대회에 모인 교회 회원들은 후기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제일회장단을 가장 먼저 지지한 성도들이 되었다. 리 회장은 모임이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것은 ‘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키는 데 도구가 되어 온 ...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노고를 인식하고 치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4.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 사는 성도들에게 멕시코시티에서 지역 대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자매는 집집마다 다니며 빨래를 해 주겠다고 했다. 다섯 달 동안 그녀는 이웃의 옷을 빨아 주고 돈을 모아 대회장에 갈 수 있었으며, 모든 모임에 참석했다. 많은 성도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일하고 돈을 저축했으나 음식을 살 돈이 없어 대회 기간 동안 끼꺼이 금식을 하기도 했다. 것처럼 희생을 치른 성도들은 거대한 영적인 힘을 보상으로 받았다. 어느 회원은 대회가 ‘내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이 곳에서 대회 기간 동안에 느꼈던 사랑을 잊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Jay M. Todd, “The Remarkable Mexico City Area Conference”, *Ensign*, 1972년 11월호, 89, 93, 95쪽 참조]

5. “리 회장은 재임 기간 중에 성지(팔레스타인 지역)를 방문했는데,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 회장 자격으로 그 곳을 방문한 사람은 그분이 처음이었다. 그는 또한 비교적 소규모의 성전들이 곧 건립될 것이며, 장차 온 세상에 성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 “1973년의 성탄절 다음 날, 리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서 18개월 정도밖에 봉사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영적인 거인이 그의 영원한 처소로 돌아간 것이다.” (*우리의 유산*, 123~124쪽)

[Instrumental] 도구가 되어 온 (단락 3) : [This dispensation] 이 경륜의 시대
— 매우 도움이 되는 : (단락 5)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Pesos] 돈 (단락 4) — 멕시코에서 : 이전의 마지막 시기
100 센터보에 해당하는 돈의 단위로, :
센터보는 돈의 기본 단위이다 :

해롤드 비 리의 가르침과 간증



7. 해롤드 비 리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이웃집 담장 너머로, 마당에 쓰러져 있는 건물들을 보고는 그곳을 탐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담장을 올라가고 있을 때, 한 음성이 그에게 말했다. “해롤드야, 그 곳에 가지 말아라.” 훗날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누가 제 이름을 부르려는가를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들판의 저쪽 끝에 계셨기에 제가 그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 곳에 가지 말라고 저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그 때 이후로 저는 인간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과정들이 있으며, 그 과정에 의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에 관한 시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문의 여지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The Way to Eternal Life”, Ensign*, 1971년 11월호, 17쪽)

8. “저는 영이 가르쳐 준 것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장소는 어떠한 곳에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저는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이스라엘교회 회원들이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성령의 동반자ship, 그 지시, 위안, 그리고 인도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할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변자로서 감리하도록 이 곳에 세우신 이분들에게 그들이 끼꺼이 귀 기울일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권고들에 순종할 때에만 그들에게 올 수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43년 4월, 129쪽)

9. “이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성도의 빛*, 1974년 3월호, 43쪽)

10. “인생에 관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회개하는 방법에 관해 가르치는 데 만족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죄의 무서움에 관해 새겨 주어야겠다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도덕적인 죄를 범한 후에 따르는 지옥의 밤에 관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경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Youth and the Church* [1945], 90쪽)

11. 당시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헨리 데 테일러 장로는 경전 공부의 중요성에 관한 리 회장의 말씀을 인용했다. “우리가 매일 경전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간증은 점차 약해지며, 우리의 영성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9쪽)

12. “간증이라는 것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허물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달빛만큼이나 잡아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다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President Harold B. Lee Directs Church: Led by the Spirit,” Church News*, 1972년 7월 15일, 4쪽)

독서 과제를 이해함

해롤드 비 리 회장의 생애

[Curriculum] 교과 과정 (단락 2) — : [Correlation] 상호 관련 (단락 2) —
가르침, 교육 과정 : 통합 관계

13.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경전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경전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경전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측정하고 싶다면, 누가 기록하였든지에 관계없이 네 가지 표준 경전에 의해 그것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표준 경전에 있지 않다면, 추측, 곧 인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가정해서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전에 있는 내용과 모순된다면,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이 우리가 모든 진리를 측정하는 표준입니다.” (“Using the Scriptures in Our Church Assignments,” *Improvement Era*, 1969년 1월호, 13쪽)

14. “경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는 오늘날 현재 바로 이곳에서 선지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Teachings of Harold B. Lee*, 4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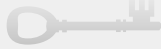
15.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다음 6개월간의 그의 지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거든, 본 대회의 말씀이 적힌 책자가 나오는 대로 한 권 구입해서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의 문제에 관한 한 주님께서 하신 최근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이들도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리와 성약 68:4 참조) 될 것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73년 10월, 168; 또는 *Ensign*, 1974년 1월호, 128쪽)



16. “저는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알고 있음을 저의 신성한 간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또 결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적들이 교회 안팎에 있더라도, 이 교회는 성공적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이며, 또 인간이 행하는 모든 노력들과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만들어진 무기들이 길가로 넘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음을 또한 간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아심을, 그분께서 높은 위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각 회원들과도 그분에게 알려져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매일 교통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73년 10월호, 37쪽)

독서 과제를 이해함



해롤드 비 리의 가르침과 간증

[Processes] 과정들 (단락 7) — 방법들, 수단들	...	[Contradicts] 모순된다면 (단락 13) — 반대되다, 상반되다
[Mouthpieces] 대변자 (단락 8) — 대변인	...	[Undermine] 약화시키려 (단락 16) — 약하게 하려, 멸하려고
[Content ourselves] 만족하기 (단락 10) — 만족하다	...	[Be borne off] 승리를 쟁취할 (단락 16) — 승리를 얻을
[Fragile] 허물어지기 쉬운 (단락 12) — 섬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잃어버리는	...	[Forged] 만들어진 (단락 16) — 만들어진
[Couched in] 기초를 두어야 (단락 13) — 사용하여 가르쳐야, 담겨 있어야	...	[Communion] 교통하고 (단락 16) — 연락하고
	...	[Agencies] 매개체 (단락 16) — 방법

독서 과제를 공부함



“해롤드 비 리 회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그리고 활동 나 또는 다를 한다.

가 증거를 찾는다

1. 단락 1을 살펴보고 해롤드 비 리 회장이 그의 가족들과 교회 회원들에게 준 것으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권고를 찾아본다.
2. 단락 4를 살펴보고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의 성도들이 다음과 같은 리 회장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였다는 증거를 열거한다.

가. “신앙에 충실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3. 여러분이 변호사라고 가정한다.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성도들의 충실성을 변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말을 짧은 단락으로 적어 본다.

나 친구를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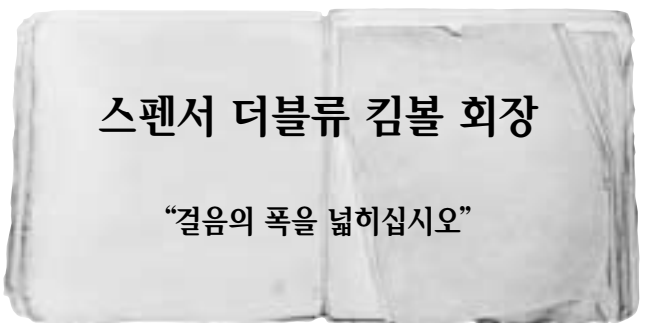
최근에 내린 한 친구의 결정이 그 친구를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락 7~10을 살펴보고 그 친구를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을 열거한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시킨다.

1.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위협이 존재하는가? (단락 9~10 참조)
2. 어린 해롤드 비 리가 보이지 않는 위협에 접근하지 않도록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이었나? (단락 7 참조)
3. 성령이 주는 안전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락 8 참조)

다 포스터를 만든다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청소년 대회를 계획하는 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가정한다. 여러분의 임무는 대회 주제를 홍보하는 것이다. 단락 11~15를 살펴보고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본다.

1. 리 회장이 위의 단락들에서 가르친 내용에 근거한 주제
2. 그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리 회장이 말한 문장이나 어구
3. 리 회장이 가르친 내용을 나타내고 그 주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두 장의 그림
4. 젊은이들이 생활에서 힘을 찾는 데 이 주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에 관해, 당시 제일회장단 보좌였던 고든 비 항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사업에 [발전을 위한] 박자를 가하셨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분의 [분명한] 나팔 소리에 맞춰 걸음의 폭을 넓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그분의 시현과

계시는 국적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할 데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4쪽) 김볼 회장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의 “비전과 계시”의 증거를 찾아본다.

그의 생애 (1895~1985)

1895년	3월 28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앤드류 김볼과 올리브 올리 김볼 사이에 태어나다
1903년	8세, 생일에 부친에 의해 침례 받다
1916년	11세, 어머니가 사망하다
1914~1916년	19~21세, 미국 중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다
1917년	22세, 11월 16일 카밀라 아이어링과 결혼하다
1943년	48세, 허버 제이 그랜트 회장에 의해 사도에 성임되다
1946년	51세,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일하도록 지명되다
1964~1967년	69~72세, 남아메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감독하다
1972년	77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1973년	78세, 해롤드 비 리 회장의 서거 후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1985년	90세, 11월 5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하다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973~1985)

1974~1985년	전세계에 21개의 성전이 헌납되다
1976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에게 주어진 계시가 경전에 추가되다 (교리와 성약 137~138편 참조); 칠십인 제1정원회가 조직되다
1978년	신권에 관한 계시를 받다 (공식 선언-2 참조)
1979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건립된 올슨 하이드 메모리얼 가든을 헌납하다; 교회의 1,000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경전 학습 자료가 추가된 킹 제임스 성경의 출판
1982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라는 부제가 물문경에 추가되다
1984년	지역 회장단이 처음으로 부름받다; 교회 회원수 5,641,054명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

1. “리 회장이 서거한 후에 십이사도 선임 회원이었으며,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익히 알고 있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가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그의 성대는 암으로 인해 대부분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나지막하면서도

선 음성으로 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음성을 좋아했다. 겸손과 헌신, 업무 추진 능력 및 “행하라”라는 자신의 슬로건으로 잘 알려진, 김볼 회장은 전력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



2. “김볼 회장은 지도자들에게 [교회 회원들이]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충실하게 생활해 오지 못했으나, 어떤 면에서 우리는 처해진 상황에 만족해 하며 자족감을 느껴 왔다”는 점을 지적한 뒤, 바로 그런 때에 지금은 유명한 슬로건이 된 “걸음의 폭을 넓히십시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지상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각자 자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선교사들의 수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설교를 마치면서, “참으로, 여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계십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39쪽 참조]

3. “김볼 회장의 적극적인 지도력 하에서, 더 많은 회원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갔다. 1977년 8월에 김볼 회장은 바르샤바로 여행을 하던 중에 폴란드 땅을 헌납하고 주님의 사업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축복했다. 선교사 훈련원이 브라질과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및 일본에 세워졌다. 1978년 6월에 그는 전세계적으로 선교 사업에 크게 힘써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표했다.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인의 후예들에게는 신권이 거부되었으나, 이제 신권과 성전 축복은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

4. “1978년 6월 계시가 있기 전 여러 달 동안, 김볼 회장은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들과 더불어 아프리카인의 후예들에게 신권의 권능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관해 논의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의 온전한 축복이 합당한 교회 회원들에게 부여될 수 없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 선교부를 개설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서,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극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합당해야 하고, 그러한 계시를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시를 받으면 훌륭하게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혼자서 참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성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제 온 영혼을 다하여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그 문제를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님, 저는 옳은 일만을 하기를 원하나이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451쪽]

5. “김볼 회장은 그의 보좌 및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과 함께 성전에서 특별 모임을 갖고, 흑인 남성들에게 신권을 부여하는 것에 관해 기탄없이 의견을 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제단 주위에 무릎을 꿇고 김볼 회장이 소리내어 기도드렸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그 때에, 끊임없는 간구와 깊은 신앙으로, 때가 되고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주님은 그 누구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에게 성신을 부으셨습니다.” [“All Are Alike unto God,” Charge to Religious Educators, 2nd ed. (1981), 153쪽] 모든 합당한 남자가 신권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음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

6. “제일회화단은 1978년 6월 8일자로 신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교회의 합당한 모든 남자 회원은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신권에 성임될 수 있다’고 계시하셨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1978년 9월 30일에, 연차 대회에 모인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취한 조치를 만장 일치로 지지했다. 이 서한은 교리와 성약에 공식 선언-2로 나와 있다. ...”

7. “김볼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재조직되었으며, 세 시간으로 통합된 일요일 모임 일정이 시행되었고, 성전이 빠른 속도로 건립되었다. 1982년 당시, 전 세계적으로 22곳의 성전이 설계 또는 착공 단계에 있었는데, 그 때까지의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수였다. 또한 김볼 회장은 실 새 없는 여행 계획을 세워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지역 대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모임에서,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돌보지 않은 채 가능한 한 빠짐없이 각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 힘을 북돋워 주고 축복해 주는 기회를 가졌다.”

8. “많은 나라의 교회 회원들이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성스러운 구원의 의식을 받기를 열망했다. 그 중에는 여러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선교부 회장으로 일한 바 있는 스웨덴 출신의 한 후기 성도도 있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스웨덴 성전 기금으로 헌납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그 나라에 성전에 건립되리라는 것을 발표하기 오래 전의 일이었다. 김볼 회장이 성전 건립을 발표했을 때, 그가 헌납한 기금에 이자가 발생하여 상당한 액수가 되었다. 성전이 헌납된 직후, 성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았던 이 충실한 형제는 돈을 바쳐서 성전 건립에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성전에서 그의 부모에게 인봉되었다.”



김볼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성전 건축이 증가되었다. 프랑크푸르트 성전은 현재 교회 회원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 많은 성전들 가운데 하나이다.

9. “싱가포르의 어느 부부는 가족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인봉을 받고 성전 축복을 받기로 결심하고,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끝에, 성전에 갈 수 있었다. 그들은 예전에 그들을 가르쳐 주었던 선교사의

집에 머물렀다. 식품점에 들른 동안 그 자매는 남편과 선교사와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삼푸병 하나를 들고 울고 있었다. 그녀는 성전에 가기 위해 그녀가 치른 희생 가운데 하나는 무려 7년 간을 삼푸 한 번 써 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주님의 집에서 의식을 받으으로써 가족이 함께 영원히 결합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지금, 자신의 희생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리 크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0. “김볼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인 1979년에도 또 하나의 큰 발전이 있었다. 교회가 새로운 영어판 흥정역 성경을 발행한 것이다. 본문은 변함이 없었으나, 성경을 공부할 때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를 전후 참조할 수 있도록 각주가 추가되었다. 대형 주제별 색인과 성경 사전이 현대의 경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되었다. 이 판에는 각 장마다 새로운 머리글이 들어갔으며 흥정역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영감역에서 발췌한 것이 포함되었다.”

11. “1981년에는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새롭게 합본한 경전이 발행되었다. 여기에는 새로운 체계를 갖춘 각주와 장과 편에 대한 새로운 머리글, 지도 및 색인이 포함되었다. 이 무렵, 교회는 또한 다른 여러 나라 말로 후일의 경전을 번역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12.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의 인품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혼잡한 비행장에서 날씨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던 한 젊은 아기 어머니가 두 살 난 딸과 함께 줄 뒤 쪽에 서서 목적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임신 두 달째라 어린 아이를 안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딸을 바닥에 내려 놓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배고픔에 지쳐 울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선뜻 이들을 도와 주려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이를 울게 내 버려 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13. “어떤 신사분이 우리에게 와서 친절한 어조로,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제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울고 있는 어린 딸아이를 안아 올려 포근히 감싸고 등을 토닥거리 주었습니다. 그는 딸 아이에게 껌을 씹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진정하자, 그는 아이를 그대로 안고서 제일 앞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동의를 하는 듯이 보였으며, 그는 다시 앞에 있는 비행기표 확인대로 가서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곧 떠나게 되어 있는 비행기 좌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의자로 데리고 가 제가 완전히 평정을 되찾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스펜서 터블류 김볼 사도의 사진을 보았는데, 그가 바로 비행장에서 처음 보았던 그분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스펜서 터블류 김볼, ed. Edward L. Kimball and Andrew Kimball Jr. (1977), 334쪽]

14. “김볼 회장은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고통을 받았으나,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항상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근면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는 교회의 회장으로 12년 동안 봉사하고 1985년 11월 5일에 별세했다.” (우리의 유산, 124~129, 131쪽)

독서 과제를 이해함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

[Thrust in his sickle] 전력을 다해 (단락 1) — 주님을 사업을 행하여, 열심히 일하여	[Importuning] 끊임없는 간구 (단락 5) — 탄원
[Complacency] 만족 (단락 2) — 만족, 안전하게 느낌	[Providences] 번역 안되어 있음 (단락 5) — 커다란 선하심
[Dynamic] 적극적인 (단락 3) — 힘입어 넘치는데	[Administration] 재임 기간 (단락 7) — 재임
[Conferred upon] 부여될 (단락 4) — 주어질	[Consolidated] 통합된 (단락 7) — 통합된
[Fervency] 열심히 (단락 4) — 힘과 소망	[Yearned] 열망했다 (단락 8) — 갈망했다, 간절히 바랐다
[Solemnity] 순연한 (단락 4) — 맑은 정신	[Accrued] 발생하여 (단락 8) — 때문에 증가하여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과 간증

15. “모든 청년이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교회의 대답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주님의 대답도 같습니다. 이 대답을 확대하면 교회의 모든 남자 회원은 자신의 십일조를 내야 하는 것처럼,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세상의 추한 것에서 벗어나며 주님의 성전에서 해의 왕국의 결혼을 계획해야 하는 것처럼, 분명히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74년 9월호, 33쪽)



16. “나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스스로 경전을 발견해야 하며, 또, 한번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리고 또다시 재발견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얼마나 소중한 재산입니까!’, 성도의 빛, 1985년 12월호, 4쪽)

17. “저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분이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때 다시금 몰두하여 경전을 상고하면, 주님과과의 간격은 다시 좁혀지고 영성이 회복됩니다.”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135쪽)

18. “인간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를 몰아내고 계속해서 안일과 무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과 재난의 문들을 닫아 버린다면, 우리의 그러한 훌륭한 친구와 은인들을 배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제심을 배울 때 고난은 그를 성도로 만듭니다.” (Faith Precedes the Miracle, 98쪽)

19.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며, 주의를 기울여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에서 우리들 서로가 봉사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봉사 행위’, 성도의 빛, 1976년 12월호, 1쪽)

20.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김볼 회장이 일하는 속도를 늦추게 하려고 했던 경험에 관해 말했다. “제 삶은 제 구두와 같이 봉사하느라 다 닳아졌습니다.” (‘He Is at Peace’, Ensign, 1985년 12월, 41쪽)

21. “안식일은 우리가 합당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룩한 날이다. 일과 오락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안식일에는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며, 안식일에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공과를 준비하며, 복음을 공부하고, 명상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수면을 취하며, 건전한 책을 읽고, 그 날 갖는 모든 교회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할 때 태만 죄를 범하게 된다.” (용서가 낳는 기적, 94쪽)

22. “이 강한 자들과 고대 선지자들의 간증에 나는 나 자신의 간증을 더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23. “그는 나의 친구요, 구주요, 주님이요, 하나님입니다.”

24. “진심으로 나는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의 영을 지녀, 해의 영광에서 그와 함께 영생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112쪽)



25. “존 테일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를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간증을 여러 형제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74쪽)

독서 과제를 이해함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과 간증

[Divinity] 하나님 (단락 17) — 하나님	[Abstinence from] 삼가는 것 (단락 21) — 하지 않는 것, 피하는 것
[Expel] 몰아내고 (단락 18) — 내던지고	[Insufficient] 충분하지 못하다 (단락 21) — 충분하지 않다
[Anguish] 고뇌 (단락 18) — 고통, 고난	[Inheritance] 번역 안되어 있음 (단락 24) — 거쳐, 보상
[Benefactors] 은인들 (단락 18) — 우리를 돕는 사람들	

독서 과제를 공부함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그리고 다른 활동 나~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목록을 만든다

1. 단락 1~2를 읽고 킴볼 회장이 사용했던 두 가지 슬로건을 찾아본다.
2. 단락 7~9를 살펴보고, 킴볼 회장과 다른 성도들이 이 슬로건들을 어떻게 성취했는지에 관한 예를 열거한다.
3. 단락 15와 21을 읽고, 킴볼 회장이 이러한 슬로건을 성취하기 위해 성도들을 가르친 방법을 목록으로 만든다.
4. 이러한 슬로건들을 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나 신문 기사 작성하기

여러분이 지역 신문의 기자라고 가정한다. 킴볼 회장과 좌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락 10~11, 16~17을 살펴보고 새로운 후기 성도판 경전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다. 좌담의 일부로 다음 질문들에 답한다.



1. “경전이 귀하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귀하의 교회 회원들은 후기 성도판 경전의 어떠한 특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3. “후기 성도판 경전이 어떤 방법으로 후기 성도들에게 도움과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다 그림 그리기

1. 단락 20을 읽는다. 킴볼 회장은 그의 생애를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2. 봉사하는 생애에 관한 킴볼 회장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린다.
3. 단락 12~14를 살펴보고, 봉사에 관한 킴볼 회장의 가르침을 묘사하는 글을 간략하게 적어본다.

라 설명한다

1. 단락 22~24를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킴볼 회장에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을 노트에 적는다.
2.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예를 생활에서 들고 또 참조 성구 목록을 만든다.

- 가. 친구
- 나. 구주
- 다. 주님
- 라. 하나님

공식 선언-2

모든 합당한 남자는 신권을 받을 수 있다



후기 성도들이 모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한 가지 원리는 우리가 현대의 계시를 믿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없다면 신회에 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교회 회장이나 와드의 감독이 될 것인가? 어떻게 알 것인가? 물론경의 선지자 야곱은 이렇게 가르쳤다. “자기에게 계시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의 길에 대해 알지 못하니, 그런즉 형제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경멸히 여기지 말라.”(야곱서 4:8) 공식 선언-2를 공부하면서 이 중요한 계시가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주었던 커다란 축복을 깊이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공식 선언-2

- [Advise] 발표할 것을 (단락 2) — 말하도록, 알려주도록
- [Extended meditation] 오랜 명상 (단락 2) — 오랜 기간 동안의 진지한 심사숙고
- [Unanimously] 만장일치로 (단락 2) — 모두 동의하여
- [Subsequently] 이어서 (단락 2) — 나중에
- [Expansion] 확장 (단락 4) — 성장과 퍼짐
- [Affords] 주는 (단락 4) — 제공하는
- [Preceded] 전에 있었던 (단락 5) — 과거에 봉사했던
- [Supplicating] 탄원하였고 (단락 5) — 탄원하기
- [Regard for] ~에 관계 (단락 6) — 주목하여, 고려하여
- [Insure] 주의깊게 (단락 6) — 확인하기 위해
- [Hearken] 귀를 기울이며 (단락 7) — 듣고 순종하고
- [Constituent assembly] 회중 (단락 8) — 교회 연차 대회에 모인 성도들
- [Signify] 그 뜻을 표시해 (단락 8) — 보여 주기

공식 선언-2 (단락 8) — “주의 말씀과 뜻”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되신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들이, “성신으로 감동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경전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교리와 성약 68:4) 된다고 계시하여 주셨다.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들이 선지자들의 영감받은 권고에 순종할 때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하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흠어”(교리와 성약 21:6)버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경전을 공부함

공식 선언-2를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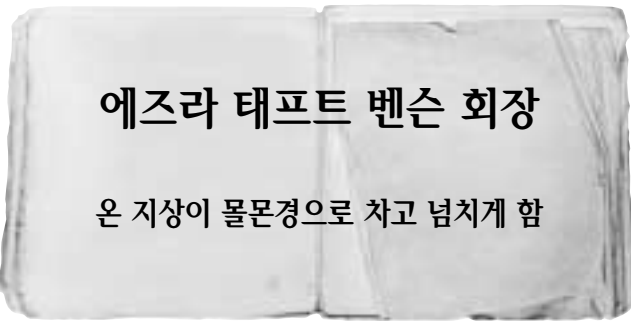
가 편집인에게 편지를 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신권에 관한 발표가 언론에 알려진 직후, 일리노이 주 시카고의 한 공항에 있었다고 말했다. “저는 신문 가판대에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에는 ‘몰몬, 흑인에게 신권을 주다’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제목으로 ‘김볼 회장,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 한 부를 사서 작은 제목 가운데 주장이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보기에는 그 글자가 빨간색 네온 사인으로 번쩍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결 편 비행기를 타기 위해 복도를 걷는 동안 나는 지금 시카고의 이 혼잡한 공항을 걷고 있다. 그런데 나는 바로 이 계시의 증인이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 거룩한 영향력을 느꼈다. 나도 그 일부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 신문의 편집자는 그 계시가 참되다는 것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 편집자뿐 아니라, 인쇄인도 기자도 신문 배달부도 별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사실을 별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환히 알고 있는 내용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23쪽)

여러분이 1978년 7월에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헤이트 장로가 언급한 신문 머릿 기사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208~209쪽)에서 단락 3~6과 공식 선언-2의 단락 3~8을 읽는다. 그리고 나서 시카고 트리뷴지의 편집인에게, 그 계시가 단지 “주장” 이상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는 증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편지를 작성해 본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온 지상이 물론경으로 차고 넘치게 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전기를 쓰기 전에 세리 엘 듀는 벤슨 회장의 생애를 조사하였다. 그 작업을 마치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끝맺었다. “한 선지자의 생애를 세심하게 조사하고, 나아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든다. 전기 작가는 너무도 많은 것들—좋은 나쁜 것, 시련과 승리, 기쁨과 고통 등을 보게 된다. 한 사람의 생애를 분석하고, 통찰하고, 그 사람의 기여도, 그의 꿈과 노력, 그의 동기 등등에 관해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전기작가들이 갖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책임들이다. 처음부터 나는 벤슨 회장을 신성한 부름을 지닌 분으로 존경했다. 그러나 연구하고 읽고 생각할수록 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 참으로 훌륭한

분인가를 더욱 더 깨닫게 되었다. “두 자매는 또한 그 저술 작업으로 인해 알게 된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 그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xi쪽)

그의 생애 (1899~1994)

1899년	8월 4일 아이다호 주 휘트니에서 조지 티 벤슨과 사라 덩클리 벤슨 사이에서 태어나다
1907년	8세, 생일에 아이다호 주 휘트니에 있는 로간 리버 카날에서 침례받다
1921~1923년	21~24세, 영국에서 선교 사업
1926년	27세, 9월 10일에 플로라 스미스 아뮤센과 결혼하다; 그녀는 1992년에 사망
1943년	44세,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에 의해 사도에 성임되다
1946년	46세,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를 시작하다.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 전쟁으로 황폐해진 교회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도와 주다.
1952~1960년	53~61세, 미합중국 농림성 장관
1964~1965년	64~66세, 유럽 선교부 회장
1973년	74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1985년	86세,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서거 후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1994년	94세, 5월 30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하다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985~1994)

1985~1993년	전 세계에서 9개의 성정이 헌납되다
1990~1992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독일의 동 베를린에 선교부가 조직되다. (이 모든 지역들의 정부는 그 이전에 선교 사업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아르메니아, 우간다, 케냐, 짐바브웨, 우크라이나,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그리고 콩고가 복음 전도 지역으로 헌납되었다.
1992년	교회의 1,900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1994년	교회 회원수 9,024,368명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생애

1.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서거한 후,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교회 회장이 되었다. 그는 재임 초기에 물론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그는 ‘몰몬경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줍니다’라고 강조하고, 이 책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인간이) 다른 어떠한 책보다도 이 책의 교훈 대로만 살아 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역설한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재확인했다.” [A Witness and a Warning

(1988), 3, 21; 또한 *History of the Church*, 4:461 참조

2. “1986년 연차 대회에서,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종 로렌조 스노우에게 재정적인 구속으로부터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십일조의 원리를 재강조하라는 영감을 일깨우셨습니다. … 이제, 우리 시대에 주님은 물론경을 재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계시하셨습니다. …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데, 우리가 매일 그 책을 펴두고 그 계율에 따라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모든 자녀와 교회에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5~86쪽] 전 세계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 약속된 축복을 받았다.



3. “벤슨 회장은 교만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198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니파이 민족이 멸망당한 원인으로 ‘교만’을 꼽고, ‘교만을 정복하여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교만의 해독제는 겸손, 곧 은유함과 순종’이라고 권고했다.”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7~8쪽]



4.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던 중에 복음 생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52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격려에 힘입어, 그는 미국의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농림성 장관 임명을 수락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미국 대통령의 각료로 일한 것은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8년 동안 그 직책에서 일하면서, 미국 정부의 농업 정책을 지도하고 수행해 나가는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데다 고결한 인품까지 갖추어 국내외로부터 폭넓은 존경을 받았다. 그는 각국의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대표들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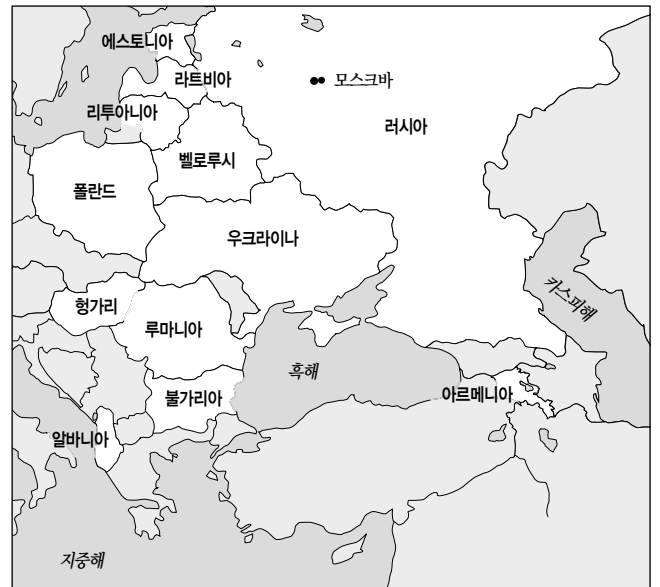
5. “벤슨 회장의 지도 하에,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1987년 8월 28일에, 그는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에서 프랑크푸르트 성전을 헌납했는데, 이는 1964년에서 1965년까지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둔 유럽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던 그로서는 뜻깊은 일이었다.”

6.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에 있는 프라이버그 성전은 1985년 6월 29일에 헌납되었다. 이 헌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건축을 가능케 한 많은 기적 때문이다. 1968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독일 민주 공화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곳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참되고 충실하게 생활하신다면, 다른

나라의 교회 회원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75년에, 똑같이 이 나라를 지명 받고 방문한 몬슨 장로는 영감을 받아 주님에게 그 땅을 헌납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시여, 이 시간이 이 땅에 있는 당신의 교회의 회원들에게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는 ‘성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진심어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했다. 그의 영감에 찬 약속과 예언의 뜻이 담긴 헌납 기도 내용이 실현되었다.”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65쪽; 또한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39쪽 참조]

7. “1989년 3월 마지막 날에, 후기 성도 선교사들에게 독일 민주 공화국의 입국이 허락되었다. 1989년 11월 9일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과 기도가 응답되어 동서 유럽에 놓여 있던 장벽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개종자의 침례와 교회 건물이 증가되기 시작했다. 1990년 5월 1일에 독일 드레스덴에 새로 완성된 예배당의 일반 공개시에 교회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된 개종자가 있었다. 선교사와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은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그는 물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읽었으며,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Garold and Norma Davis, “The Wall Comes Down”, *Ensign*, 1991년 6월호, 33쪽 참조]

8. “1991년 6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연주회를 마친 후에 가진 연회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부통령은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로써 교회는 이 거대한 공화국 내에서 대중적 기반을 얻게 되었다. 1990년대에, 수많은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과 중부 및 동부 유럽 제국들, 즉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국가 등이 복음 전파를 위한 지역으로 헌납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입대 또는 신축 교회 시설물이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충만한 복음의 간증을 얻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 폴란드에 처음으로 세워진 후기 성도 집회소의 헌납식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집회소가 “고통 받는 영혼들에게 평화의 대피소가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식처” [Church News, 1991년 6월 29일, 12쪽]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 축복은 많은 나라에서 복음의 평화와 기쁨을 찾는 성도들의 생활에서 성취되고 있다.”



벤슨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 국가들을 복음 전도 지역으로 헌납했다.

9. “교회의 회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벤슨 회장이 선교 사업을 강조한 결과, 그의 임기 말에는 약 48,000명의 선교사들이 295개 교회 선교부에서 봉사하기에 이르렀다.”

10. “또한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다른 종교를 믿는 회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더욱 늘려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원조는 교통을 구제하고 장기적인 면에서 자립심을 키워 주는 것이다. 많은 양의 식량, 의복, 의료품, 담요, 현금 및 기타 물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보건의 사업, 문맹 퇴치 교육 및 기타 봉사 업무를 펴는 장기적인 사업이 제공되었다. 이 자선 사업은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11. “연로하여 병약해진 테다 사랑하는 아내 플로라를 잃고 삼심한 벤슨 회장은 주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담대하게 마치고, 1994년 5월 30일에 94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그의 뒤를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하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가 승계했다.” (우리의 유산, 133~136쪽)

독서 과제를 이해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생애

[Reaffirmed] 재확인했다 (단락 1) — 그의 간증을 더했다	[Antidote] 해독제 (단락 3) — 치료약, 구제법
[Precepts] 교훈 (단락 1) — 가르침, 계명	[Barriers] 장벽 (단락 7) — 벽, 제한
[Financial bondage] 재정적인 구속 (단락 2) — 부채	[Leased] 임대 (단락 8) — 빌린
[Sup] 퍼들고 (단락 2) — 취하면 (매일) 물몬경을 공부할 것을 권유하는 은유적 표현)	[Haven] 안식처 (단락 8) —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장소
[The inner vessel] 그들의 안 (단락 3) — 그들의 생활, 그들의 생각, 의도 및 소망	[Foster] 키워주는 (10절) — 축신하는, 도와주는
	[Literacy training] 문맹 퇴치 교육 (단락 10) —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교육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과 간증



12. “우리가 물몬경을 읽지 않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온 교회가 정죄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죄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84:56) 주님은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새 성약 곧 물몬경과 내가 그들에게 준 이전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말로써만이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까지 그들은 이 정죄 아래 머물러 있으리니’ (교리와 성약 84:57)

13. “이제 우리는 물몬경에 관해 좀더 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더욱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시온의 자녀 위에 쏟아질 징계와 심판이 여전히 머물러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84:58) 우리는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5쪽)

14. “진실로 물몬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나,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물몬경이 진실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으나, 그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그 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물리치는 더욱 큰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임수를 피하는 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곧고 좁은 길’에 머물러 있는 힘을 찾게 됩니다. 경전은 ‘생명의 말씀’ (교리와 성약 84:85 참조)이라 불리우며, 물몬경에 있는 것보다 더 참된 것은 어느 곳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에 주리고 목마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15.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물몬경이 여러분 개인에게와 교회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엄숙하고 깊이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7쪽)

16. “물몬경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친히 모퉁잇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되는 종석입니다. 그것은 권세와 명백함으로 주님의 실재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수 세대 동안, 원본을 변경시킨 필생이나 번역자나 부패한 종교가들의 손을 거쳐 전해 내려온 성경과는 달리, 물몬경은 단 한번의 영감에 의한 번역 단계를 거쳐 저자에게서 독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주에 대한 그 간증은 분명하며, 오염되지 않고, 권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구주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비로운 탄생과 그의 완전한 생과 그의 영화로운 부활의 실재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물몬경은 그러한 모든 진리에 대하여 명백하고 틀림없는 말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또한 속죄의 교리를 가장 완전하게 해설해 줍니다. 참으로 이처럼 거룩하게 영감받은 이 책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종석입니다.”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쪽)

17. “우리는 자주 스테이크 내에서의 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참석률을 늘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는 젊은이들의 백분율을 높이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왕국의 성장에 중요하고도 크게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원 개개인과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전 연구에 몰입한다면, 이러한 기타 모든 활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간증이 증가되고 헌신이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은 강화되고 개인적인 계시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말씀의 힘’,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9쪽)

18.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평안한 마음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To the Rising Generation’, New Era, 1986년 6월호, 5쪽; 또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4쪽 참조)



19. “어머니라는 말보다 더 신성한 단어는 세속적 또는 거룩한 기록을 통틀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일보다도 더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

20. “영원한 가족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가정을 감리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사랑을 주고,

가르치고 또 지시를 해야 합니다.”

21.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고, 사랑을 주고,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계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o the Mothers in Zion [pamphlet, 1987], 1~3쪽)



22. “교만은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죄이며, 큰 악입니다. ...”

23.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 즉 운유함과 순종입니다.” (앨마서 7:23 참조) ...

24. “하나님은 겸손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수도 있고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앨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앨마서 32:16)

25. “스스로 겸손해지도록 합시다.”

26.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고 그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존중하며, 우리와 같이 또는 더 높이 올려 줌으로써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38:24; 81:5; 84:106 참조)

27. “우리는 권고와 징계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곱서 4:10; 힐라만서 15:3; 교리와 성약 63:55; 101:4~5; 108:1; 124:61, 84절; 136:31; 잠언 9:8 참조)

28.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제3니파이 13:11; 14절; 교리와 성약 64:10 참조)

29. “우리는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모사이야서 2:16~17 참조)

30.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전파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앨마서 4:19, 31:5; 48:20 참조)

31. “좀더 자주 성전에 감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32.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58:43; 모사이야서 27:25~26; 앨마서 5:7~14, 49절 참조)

33.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며, 우리 생활에서 주님을 앞세움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제3니파이 11:11; 13:33; 모로나이서 10:32 참조)

34. “겸손해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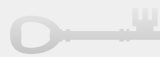
35. “이 사업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하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영입니다. 나는 영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영을 받아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됩시다.”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4쪽)

36. “이 사업에 있어서 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60쪽)

37. “나는 지금부터 많은 해가 지나지 않아 세상이 깨끗하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교리와 성약 76:41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며, 이 때는 권세와 큰 영광을 지니고 오셔서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43:26~33 참조)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며, 그 후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후서 9:15, 41 참조) 하나님은 육체로 있을 동안 행한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앨마서 5:15 참조)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98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과 간증

[Condemnation] 정죄 (단락 12) — 문책, 책망	...	[Enmity] 적대감 (단락 26) — 증오
[Implore] 간구합니다 (단락 15) — 요청합니다, 탄원합니다	...	[Vanquish His foes]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단락 37) — 그의 적들을 정복하시고
[Preside] 감리하도록 (단락 20) — 이끌도록	...	

독서과제를 공부함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콜라주 만들기

단락 1~10을 읽고 벤슨 회장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그리거나 신문이나 잡지에서 찾아본다. 각 그림의 제목을 붙이고 그것들을 오려내어 콜라주로 만들어 노트 또는 별도의 게시판에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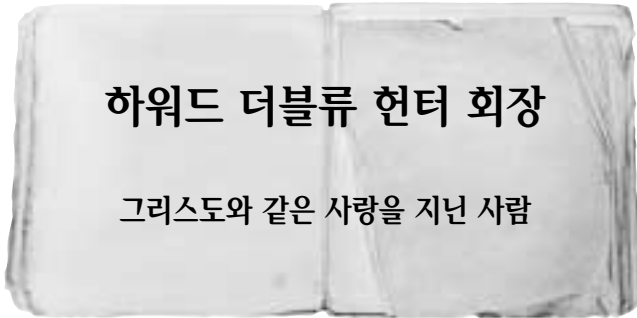


나 짝 맞추기 연습

1. 다음의 참조 성구를 노트에 세로로 적는다.

- 가. 앨마서 31:5
- 나. 앨마서 41:10
- 다. 교리와 성약 42:13~14
- 라. 교리와 성약 84:54~57
- 마. 제3니파이 27:5~8
- 바. 이사야 64:1~3
- 사. 앨마서 5:22~23
- 아. 앨마서 56:47~48

2. 단락 12~37 가운데서 각 성구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단락 번호를 각 성구 옆에 적는다. 하나 이상의 단락이 해당될 수 있다.
3. 벤슨 회장의 가르침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감명을 주었던 가르침 하나를 선정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의미를 설명한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지닌 사람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그 중심을 둔다면, 그 어떠한 것도 영원히 잘못될 수 없습니다.” (“Fear Not, Little Flock,” Brigham Young University 1988~1989 Devotional and Fireside Speeches [1989], 112쪽) 헌터 회장은 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 따라 생활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그분께서 교회 회장으로 계시던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놀라웠던 일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그분에게 아주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회원들은 구주의 속성이 그분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활을 보다 그리스도답게 만들고 성전을 우리 예배의 중심으로 하라는 그분의 예언적 메시지에 놀라운 방법으로 화답했습니다.” (“Howard W. Hunter: Man of God”, Ensign, 1995년 4월호, 26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의 한 예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성격이 온유하신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은 청년 시절에 일자리를 거절할 적이 있었는데, 그 까닭은 그 일자리를 수락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분과 함께 하루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치도록 일한 뒤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 보니 그분은 말없이 저의 구두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그 일을 끝내기를 바라셨던가 봅니다.” (“Meek and Lowly”, Brigham Young University 1986~1987 Devotional and Fireside Speeches [1987], 61쪽)

그의 생애 (1907~1995)

1907년	11월 14일 아이다호 주, 보이시에서 존 윌리엄 헌터와 벨리 매리 라스무센 헌터 사이에 태어나다
1919년	12세, 4월 4일 (부친의 허락을 기다렸다가) 침례받다; 6월 21일 감독에 의해 집사에 성임되다
1931년	23세, 6월 10일에 클라라 (클레어) 메이 제프스와 결혼하다
1950년	42세, 캘리포니아에서 새벽반 세미나리 도입을 위한 위원회의 의장



1959년	51세,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에 의해 사도에 성임되다
1964~1972년	56~64세, 교회 계보 협회 회장
1970~1972년	62~64세, 교회 역사 편찬위원
1975~1993년	67~85세,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여행하다; 브리검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를 헌납하다
1983년	75세, 첫번째 아내가 사망하다
1988년	80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1989년	81세, 4월 10일 이니스 버니스 이진과 결혼하다
1994년	86세,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1995년	87세, 솔트레이크시티에서 3월 3일 사망하다; 교회 회장으로 9개월 동안 봉사하다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994~1995)

1994년	플로리다 올랜드 성전을 헌납하고 교회의 2,000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하다
1995년	유타 주, 바운티폴 성전을 헌납하다; 교회 회원수 9,338,859명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생애

1. “1994년 6월 6일, 회장으로 부름 받은 뒤 가진 첫번째 기자 회견에서,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그의 교회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범, 특히 주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과 소망과 자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저는 우리가 서로 더욱 친절하고, 더욱 예의 바르고 더 겸손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간구합니다.”



3. “그는 또한 교회의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주님의 성전을 회원님의 위대한 상징으로서,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성약을 위한 거룩한 장소로서 정하십시오. 내 마음 속의 가장 깊은 바람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Church News, 1994년 6월 11일, 14쪽] 수많은 교회 회원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그들의 생활에 실천하여 더욱

깊이 있는 영성으로 축복 받았다.”

4. “헌터 회장은 매우 진보된 정신의 소유자였다. 이는 교회에 대해 대단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 그의 모든 기량을 요구하는 임무를 지명 받았다. 그는 성지에 교회에서 역점을 둔 브리검 영 대학교 예루살렘 근동 연구 센터를 설립할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 협상하고 이 건물의 건축을 감독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센터는 감람산에서 뻗어나온 스코프스 산에 위치해 있다. 그 곳에는 이 선택 받은 땅과 그 백성들(유대인과 아랍인), 그리고 예수님과 고대의 선지자들이 걸었던 장소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생들이 거주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센터는 그 안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건물의 아름다움은 그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



브리검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

5. “헌터 회장은 일생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는 신앙과 강인함으로, 위중한 건강상의 문제와 장기간의 만성 질병과 첫번째 부인과의 사별 및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냈다.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봉사했으며, 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수없이 여행하고 많은 일을 했다. 그의 모범은 다음과 같은 그의 메시지와 일치했다. ‘빛나간 자녀 때문에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재정적인 곤란과 감정적인 긴장으로 가정과 행복이 위협당한다면, 생명이나 건강을 잃어야 하는 경우, 여러분 영혼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회하는 길과 절망은 즐겨 부르는 찬송가와 같이 주님께 이르는 곧고 좁은 길입니다.’”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64쪽]

6. “헌터 회장이 1994년 11월 11일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교회의 2,000번째 스테이크의 창설을 감리한 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 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업은 힘차고 활기 있게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선조 리하이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들의 후손에 관한 약속은 멕시코에서 성취되었으며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Church News, 1994년 12월 17일, 3쪽 헌터 회장이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할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는 극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가 교회의 회장이 되었을 때, 멕시코, 브라질 및 칠레 등의 국가에는 150만 명 이상의 후기 성도들이 있었으며, 그것은 당시 유타에 살고 있던 교회 회원들보다 더 많은 수였다.”

7. “헌터 회장은 단 9개월 동안 교회 회장으로 봉사했으나, 그의 자비심과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는 훌륭한 모범으로 그를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유산, 136, 138~139쪽)

8.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젊은 시절의 헌터 회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여동생 도로시 헌터 라스무센은 두 남매가 어렸을 때의 감미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 주었다. ‘오빠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을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했던 오빠는 늘 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잘하고요. 오빠는 동물을 좋아했는데, 길 잃은 가축이 있으면 어김없이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집 옆에는 관개용 개울이 있었는데 어느 날 ... 여러 명의 이웃 꼬마들이 개울물에 고양이 새끼를 집어 넣으며 장난치고 있었다. 새끼가 물에서 나오면 다시 물 속에 집어 넣곤 했는데 꼬마들은 싫증이 날 때까지 몇 번이고 그 장난을 되풀이했다. 도로시는 이렇게 말했다. ‘오빠가 지나가다 말고 (새끼 고양이를) 구해 줬는데 새끼는 반쯤 죽어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고양이 새끼를 집에 데리고 왔지요. 어머니는 새끼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식구들은 새끼를 담요에 싸서 따스한 난로 가까이 두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살아났으며, 그 후로 그들은 그 고양이를 여러 해 동안 키웠다. ‘오빠는 것처럼 다정했습니다. 제 평생에 오빠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도로시는 말했다.” (“독수리의 자취”, 성도의 빛, 1994년



9.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롤런 지 크레이븐 장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수 년 전 헌터 회장이 다시는 걷지 못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회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앙과 의지는 그 소식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헌터 회장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남에게 알리지 않고 매일 그 어렵고도 힘든 물리 치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몇 달 동안 헌터 회장의 십이사도 정원회 동료들은 정원회 모임을 할 때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매일 헌터 회장의 회복을 간구하였습니다.”

10. “몇 달 후, 어느 목요일 아침, 저는 성전에서 갖게 되는 모임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헌터 회장의 사무실로 갔으나, 헌터 회장이 이미 성전으로 떠나셨는데 걸어가셨다는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성전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헌터 회장을 따라 잡았을 때, 그분은 보행 연습기에 의지하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 헌터 회장이 [모임] 방으로 들어가자 십이사도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 헌터 회장은 십이사도에게 감사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도움과, 저의 의지력과, 또한 무엇보다도 십이사도 형제님들의 신앙으로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27~28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생애

[Supernal] 거룩한 (단락 3) — 하늘에서 오는	∴ [Fortitude] 강인함 (단락 5) — 결의, 용기
[Keenly] 철저히 (단락 4) — 명확하게, 정확하게	∴ [Debilitating] 만성 질병 (단락 5) — 무력하게 만드는, 약화시키는
[Acquisition] 구입 (단락 4) — 구매	∴ [Fanfare] 알리지 (단락 9) — 공개적으로 보이지

하워드 더블류 헌터의 가르침과 간증

11. “구주께서는 결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값없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주셨으며, 그분의 은사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맹인들에게 시력을 주셨으며,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청력을,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다리를, 불결한 이들에게는 정결을, 허약한 이들에게는 온전함을, 그리고 생명이 없는 이에게는 숨을 주셨습니다.”

12. “그분의 은사는 짓밟힌 이에게는 기회였으며, 압제받는 이들에게는 자유, 회개한 이들에게는 용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희망,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는 빛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봉사를,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필멸의 생명들에게 부활, 구원, 그리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 “우리는 그분께서 주셨던 것처럼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거룩한 은사입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

14. “... 이 성탄절에 다름을 치유합시다. 잊혀진 친구를 찾아 봅시다. 의심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신뢰로 채우십시오. 편지를 쓰십시오. 유순한 대답을 하십시오. 청소년들을 격려하십시오.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의 충성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감정을 버리십시오. 적을 용서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점검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부드러워지십시오. 좀더 많이 웃으십시오. 감사를 표하십시오. 낯선 사람을 맞이하십시오.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십시오. 지상에 있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즐기십시오. 사랑으로 말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해 말하십시오. [저자 미상의 글에서 인용] (“To Give of Oneself Is a Holy Gift,” Prophet Tells Christmas Gathering,” *Church News*, 1994년 12월 10일, 4쪽)



15. “저는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지역 사회와 국가 조직으로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불신앙의 세찬 파도를 이기고 득의만만하게 걸으며, 의심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남아 있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그분에게서 눈길을 돌린다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세상의 많은 유혹들, 즉 우리를 도와 주고 구할 수 있는 그분을 따르기보다 격렬하고 파괴적인 힘과 광기를 따른다면, 필연적으로 분쟁과 슬픔과 절망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16. “엄청난 파도에 압도당하여 물 속에 잠길 것 같고 우리 신앙의 배가 깊은 바다에 삼켜질 것 같을 때 우리 모두가 폭풍우와 어둠 가운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27)는 구주의 부드러운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19쪽)

17. “태초로부터 모든 세대는 극복해야 할 일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극복하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몇 가지 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전세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18.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겸손해지고, 단련되며,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가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 그들의 입장을 더 잘 고려할 줄 아는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19.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의로운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덜 의로운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목적 이외의 것을 위해 계획된 시련과 예언은 결코 없었습니다.” (성도의 빛, 1995년 5월호, 특별 부록, 13쪽)

20.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는 것은 무엇이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부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들은 곧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족에게 손을 얹으시면, 가족은 생명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96쪽)

21.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의 유일하고도 참된 구원이시며,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평안이 그분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염원하는 영광, 그리고 사람들과 나라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보상, ‘우리의 영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상들은 어떤 것이든 결국 무익한 것입니다. 다른 위대함도 어떤 것이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져 가고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65쪽)

22.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를 전하도록 부름받고 성임된 나는 그가 살아 계심을 이 부활 절기에 간증드립니다. 그는 영화로운 불멸의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구주이시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는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와 베드로와 바울과 그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니파이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우리 경문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20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하워드 더블류 헌터의 가르침과 간증

[Inestimable] 헤아릴 수 없는 (단락 11) — 측량할 수 없는 [Yeans] 염원하는 (단락 21) — 열심히 바라는
[Downtrodden] 짓밟힌 (단락 12) — 좌절한 [Grandeur] 위대함 (단락 21) — 아름다움, 영광
[Forgo a grudge] 약감정을 버리십시오 (단락 14) — 상처받은 마음을 용서하십시오

독서과제를 공부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활동 나, 그리고 다 또는 라를 한다.

가 헌터 회장 알기

독서과제 단락 1~10과 함께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생애와 당시 제일회장단에 관한 도표(216쪽)를 공부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1. 헌터 회장이 침례 받아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는 몇 살이었는가?
2. 사도로 성임 되었을 때는 몇 살이었는가?
3. 두 번째로 결혼 했을 때는 몇 살이었는가?
4. 헌터 회장은 어느 성전들을 헌납했는가?
5. 그가 직면했던 최소한 두 가지 역경은 무엇인가?
6. 어느 국가에 이천 번째 스테이크가 있었는가?
7. 1994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떤 세 국가에 유타 주보다도 더 많은 교회 회원수가 있었는가?
8. 헌터 회장은 얼마 동안 교회 회장으로 봉사했는가?



나 업적 찾기

1. 헌터 회장의 생애에서 여러분이 감명 받은 업적을 최소한 다섯 가지 열거한다. 각 업적 뒤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품을 각기 다르게 적어 본다.
2. 여러분이 열거한 것에서 어떤 성품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다 바로 잡는다

1. 다음의 각 문장은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틀리게 적은 것이다. 다음 문장을 올바르게 고친다.
 - 가. “저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친구들의 생애와 모범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단락 1 참조)
 - 나. “저는 우리가 서로 더욱 친절하고, 더욱 예의 바르고 더 기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간구합니다.” (단락 2 참조)
 - 다. “내 마음 속의 가장 깊은 바람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단락 3 참조)
 - 라. “우리가 우회하는 길과 절망은 우리 구주께 이르는 길을 따라 튀어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단락 5 참조)
 - 마. “구주께서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좀처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값없이 또 판단하지 않고 주셨으며, 그분의 은사는 세상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락 11 참조)
2. 위 문장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올바른 문장이 올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더 훌륭한 이유를 설명한다.

라 구주에 관해 살펴 보기

1. “하워드 더블류 헌터의 가르침과 간증”(단락 11~22 참조)에서 얼마나 많은 글이 구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2. 헌터 회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친 내용을 열거한다. 그 열거한 것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내용을 표시한다.
3. 헌터 회장께서 우리가 구주에 관해 알고 느끼기를 원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나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나는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회장으로 처음 5년 동안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남극 대륙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대륙에 사는 교회 회원들을 방문했다. 그는 199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저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

“... [여러 해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렇게 할 힘이 있는 동안은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 6월에 90세가 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다리에 힘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 사이에 있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교회 회장을 만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ooking into the Faces of Faithful Latter-day Saints”, Church News, 2000년 3월 4일, 8, 13쪽)

그의 생애 (1910~)

1910년	6월 23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와 에이다 비트너 힝클리 사이에 태어나다	
1919년	8세, 4월 28일 아버지에 의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침례 받다	
1930년	20세, 어머니가 사망하다	
1933~1935년	23~25세,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다	
1935~1958년	25~47세, 교회 여러 부서의 직책에서 일한 후에 교회 선교사 위원회에서 전임으로 일하다	
1937년	26세, 4월 29일 마조리 페이 힝클리와 결혼하다; 주일학교 본부 임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다	
1958년	47세,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성임되다	
1961년	51세, 사도로 성임되다	
1981~1995년	71~84세, 제일회장단에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1981), 에즈라 테프트 벤슨(1985), 하워드 더블류 헌터(1994) 회장의 보좌	
1995년	84세,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다	

회장 재임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 (1995~)

1995년 십이사도 지역 대표의 해임과 지역감리 역원이라는 새로운 부름을 발표하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 발표되다

- 1996년 모든 회원들이 정규적인 성전 참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소규모 성전 건축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 1997년 지역 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은 지도자들로 칠십인 정원회가 추가로 조직하다; 전 세계적인 칠십인 정원회가 포함 5개에 이르다
- 1998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남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며 전 세계를 여행하다
- 1999년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교회를 소개하다; 나부 성전의 재건축을 발표하다
- 2000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새로운 컨퍼런스 센터를 헌납하다; 그 해 초에 교회 회원수가 10,752,986 명이었으며, 그 해 여름 동안에 1,100만 명을 넘어서다

교회 회장으로서는 처음 5년 동안 그는 거의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면서, 58개국을 방문하고, 220만 명의 교회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으며, 24개의 성전을 헌납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생애

1. “헌터 회장이 운명한 다음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교회의 회장이 되었을 때, 그는 제일회장단의 중점 사항이 무엇이 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계속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앞서 사셨던 분들이 더욱 크게 이루셨던 위대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가족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그렇습니다. 교육에 온 힘을 모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내와 관용의 정신을 보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Church News, 1995년 3월 18일, 10쪽]
2. “교회의 지도자로서 힝클리 회장이 광범위하게 경험을 쌓은 것은 그가 회장으로 봉사하는 데 좋은 준비가 되었다. 그는 1961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다.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는 동안에, 회장들이 연로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분들을 위해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다.”
3. “젊은 시절에,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그가 받은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은 어려운 책무를 수행해 나간 그 기간 동안에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다소 실망을 하고 있던 그는 부친에게, ‘저는



제 시간과 아버지의 돈을 축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편지를 썼다. 얼마 후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짧은 서신을 받았다. ‘사랑하는 고든, ... 네가 보낸 편지를 받아 보았다. 단 한 가지만 충고하마. 네 자신을 잊고 일하러 나가거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4. “힝클리 회장은 그 당시의 일을 이렇게 말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가복음 8:35) 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연결된 그 말씀과 그 약속 때문에 나는 이층으로 올라가 ...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일하러 가겠노라고 주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그 때 그러한 결심을 한 이후로 훌륭한 많은 일이 세계 일어났습니다.’” [Gordon B. Hinckley: Man of Integrity, 15th President of the Church, 비디오 카세트 (1994)]



5. “힝클리 회장은 항상 하나님과 미래를 믿는 불굴의 낙천가로 유명하다. ‘힝클리 회장은 “만사가 잘될 것입니다.”라는 말로 가족과 친구들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되풀이해서 확신을 줍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노력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만사가 잘될 것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성도의 빛, 1995년 6월호 특별부록, 6쪽]

6. “어떤 기자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나고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요, 또한 가장 훌륭한 문제는 성장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는 교회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성전을 포함하여, 더 많은 건물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지금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입니다. 성전의 건축이 현재 진척되고 있는 추진력으로 시행되어 나갔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47개의 성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건축까지의 과정에 있는 성전은 13개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계속해서 지을 것입니다.’ [Church News, 1995년 3월 18일, 10쪽] 또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감에 따라 물문경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7. “힝클리 회장은 교회의 극적인 성장에 개인적으로 연관된 경험이 많다. 1967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했을 때,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섞여 있는 청중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에게서 나는 일본 내의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위대한 미래를 봅니다. 우리는 겨우 시작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느껴 왔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이 위대한 나라에 시온의 스테이크가 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ddresses,” AV 1801; LDS Church Archives]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일본에는 100,000여 명의 후기 성도와 수많은 스테이크와 선교부, 지방부 및 성전이 들어섰다.”



8. “힝클리 회장은 또한 필리핀에서의 교회 성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 나라에서는 1973년, 마닐라에 스테이크가 처음 세워졌다. 20년 후, 그가 교회의 회장이 되었을 때는 300,000명 이상의 필리핀 회원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았으며, 그 나라에 성전도 들어섰다. 힝클리 회장은 한국과 중국 및 동남 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의 교회의 성장에도 큰 관심을 보여 왔다.”

9. “아시아에서 영성을 지닌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가는 필리핀의 어느 스테이크에서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을 부르도록 지명 받은 한 총관리 역원의 경험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여러 명의 신권 소유자들을 접견하고 난 그는 이십 대 중반의 형제를 스테이크 회장으로 불러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그는 젊은 형제에게 옆방으로 가서 잠시 시간을 갖고 보좌들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그 형제는 30초 만에 돌아 왔다. 총관리 역원은 그가 잘못 안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으나,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영을 통해서 제가 스테이크 회장이 되리라는 것을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 보좌들을 선택해 놓았습니다.’”

10. “전 세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그처럼 많은 일을 한 힝클리 회장이 그의 재임 기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통계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은 1996년 2월에는 미국 밖의 회원들이 미국 안의 회원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노력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70쪽] ...

11. “어느 총관리 역원은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힝클리 회장을 가장 잘 보필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요, 관리 대제사자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에 부름 받은 그분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아가세, 나아가세, 나아가세!’라고 말하며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제프리 알 홀랜드, “President Gordon B. Hinckley,” 13쪽] (우리의 유산, 139~143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생애

[Our predecessors] 앞서 사셨던 분들 (단락 1) — 우리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 [In conjunction with] 연결되어 (단락 4) — 와 함께
[Forbearance] 관용 (단락1) — 참음	• [Irrepressible] 불굴의 (단락 5) — 멈추게 할 수 없는
[Infirmities] 연로 (단락 2) — 약함, 질병	• [Optimism] 낙천가 (단락 5) — 희망적인 태도
	• [Adjoining] 옆 (단락 9) — 붙어있는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과 간증

12. “장래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봅니다.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봅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그들의 힘, 그들의 선함, 그들의 충실함의 질적인 면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정에 관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충실함이 있는 훌륭한 분위기 속에 섞여서 스스로 사회성을 배웁니다. 그들은 강하고 충실한 후기 성도,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부름을 받을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기 성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We Must Look After the Individual”, Church News, 2000년 3월 4일, 13쪽)



13.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 의미있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

14. “... 이처럼 구주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상징물을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합니까? 어떤 표적이나, 어떤 예술 작품, 어떤 형태의 표현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어떤 상징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15. “그분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비열하고 거짓되고 무례한 짓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하고 품위있고 고결한 행위로 우리가 받고 있는 그분의 이름의 상징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16. “우리의 생활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표현하는 상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희망”, 성도의 빛, 1995년 4월호, 4, 7쪽)

17.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재능을 갈고 닦아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개발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속 받은 신성한 속성의 일부로 오는 자비의 특성을 여러분 안에서 갈고 닦으십시오. ...”

18. “여러분은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재능이 없거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고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재능이 커지고

세련될 것이며, 그러한 재능은 타인이 인정해 주는 참자아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빛”,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98쪽)

19. “우리의 집에 질서를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을 다 써 가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빛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21. “교회에서는 자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이 심각한 부채를 지고 있을 때, 자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고 있을 때, 그는 속박 속에서 독립도, 자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3쪽)



22.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오랜 친구와 단체들을 떠나 색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요구까지 하는 새로운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23. “개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개종자들이 길을 찾도록 그들을 돕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합니다. 개종자 한 사람에게 세 가지, 곧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모로나이서 6:4)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

24. “현재 개종자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개종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개종자 모두를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47~48쪽)

25. “이 [창조된 지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예로운 창조 사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분의 일을 쉬기 전에 마지막 결작품으로 이브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118쪽)



26. “저는 조셉 스미스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에 한 번, 집사로 처음 성임받은 열두 살 때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스테이크 신권 모임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이셨기 때문에 단상에 앉으셨고, 저는 예배당 뒷줄에 앉았습니다. 그 많은 남자 회중이 일어나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27. “저는 그분들이 힘차게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소년 조셉을 부르셨다는 간증을 마음 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그 간증을 유지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51쪽)

28. “오늘 아침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더욱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거룩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

29. “... 저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 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 저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증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

30. “예수님은 저의 친구이십니다. 저에게 것처럼 많은 것을 준 사람도 없습니다. ...”

31. “그분은 저의 모범이십니다. ...”

32. “그분은 저의 교사이십니다. ...”

33. “그분은 저의 치료자이십니다. ...”

34. “그분은 저의 지도자이십니다. ...”

35. “그분은 저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그분의 생명을 주시으로써, 죽음에 따르는 영원한 어둠의 심연으로부터 저와, 우리 각자,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끌어 올리기 위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

36. “그분은 저의 하나님이시며 저의 왕이십니다. ... 그분의 영광에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

37. “...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통해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께 다가갑니다.”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83~85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과 간증

[Cultivate] 계발하십시오, 키우십시오 : [Preeminently] 특별히 더욱 (단락 28)
(단락 17~18) — 발전시키십시오 : — 무엇보다도
: [Abyss] 심연 (단락 35) — 구덩이

독서과제를 공부함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 그리고 활동 다 또는 라 가운데 한 가지를 한다.

가 헝클리 회장에 관해 알기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의 생애와 제일회장단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그는 어디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는가?
2. 선교 사업 중에 어떤 성구가 주님과 성약을 맺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
3. 그가 교회의 전임 직원과 총관리 역원이 된 이후로 몇 분의 교회 회장을 알고 지내었는가?
4. 그는 제일회장단에서 보좌로서 얼마 동안 봉사했는가?
5. 홀랜드 장로는 우리가 선지자를 지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나 낙천적이 됨

1. 사람들이 그들의 국가 또는 세계의 현재 상황 또는 환경 때문에 언짢게 되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2. 헝클리 회장은 스스로를 낙천가로 묘사했다. 낙천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묘사한다. 단락 5를 살펴보고 헝클리 회장이 낙천가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3. 단락 6~11을 공부하고 교회 회원이 낙천적이 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열거한다.
4. 여러분은 자신을 낙천가라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아니면 그 이유는?

다 여덟 가지 칭호 만들기

“고든 비 헝클리의 가르침과 간증”에 있는 여덟 가지 글 (단락 12, 13~16, 17~18, 19~21, 22~24, 25, 26~27, 28~37)의 각각에 대해 제목을 붙인다. 그 말씀의 주요 주제를 나타내는 어구를 헝클리 회장이 말한 내용에서 찾아 제목을 붙인다. 예를 들어, 단락 13~16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더욱 좋은 일 택하기

헝클리 회장은 교회 회원들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종종 권유했다. 단락 12~37에서 발전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권고한 열 가지 방법을 열거한다. 열거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다음 주 동안 향상시키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을 택한다. 그분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행할 것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1995년 9월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궤변들에 대해, 표준과 가치에 관한 많은 속임수에 대해, 서서히 세상을 오염시키는 많은 유희에 대해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해 왔으며, 미리 경고합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이 교회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하여 말씀해 왔던 가족에 관한 표준과 교리와 관습을 선언하고 재확인하기 위해 이제 교회와 세상에 한 공식 선언을 발표합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0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효도와 기쁨 (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무로써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히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몇 가닥 훌륭한 성취를 수반한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무로써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례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원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의 문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생애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라 주 총회(제104회)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이 임의로 임의로 낭독한 것이다.

© 1995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출판부, (The Family: A Proclamation To The World, 1995) Printed in Korea, 2002, 2020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2.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3.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4.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5.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6.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랑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7.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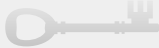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8.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9.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1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Solemnly] 엄숙하게 (단락 1) — 진지하고 공손하게

: [An heir of] 의 상속자 (단락 3) — 상속 받거나 받는 사람

[Be perpetuated] 계속되게 한다 (단락 3) — 지속되게 한다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단락 4) — 자녀를 가져 땅에 가득하게 하라
[Procreation] 출산 (단락 4) — 자녀를 갖는 능력

: [Sanctity] 존엄 (단락 5) — 거룩함
: [Discharge] 이행 (단락 6) — 달성
: [Necessitate] 필요가 있을 (단락 7) — 요구할
: [Adaptation] 조절할 (단락 7) — 특정한 환경에 맞추기 위한 변화

독서과제를 공부함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단락을 암기한다

공식 선언에 있는 9단락 가운데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암기한다. 필요한 경우 공식 선언을 보고 3번을 써 보으며 암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가족 한 사람이 지켜 보는 가운데 기억하여 다시 써 본다. 또는 필요한 경우 공식 선언을 보고 여러 번 큰 소리로 반복하여 읽고 나서 가족 한 사람에게 암송해 보일 수 있다.

나 짝 맞추기

노트에 세로로 숫자를 1~9까지 적고 다음 주제 각각을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있는 9 단락의 하나와 짝을 맞춘다. 일부 단락은 한 가지 주제 이상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 | | |
|--------------------|-------------------|
| 가. 낙태 | 가. 하나님의 심판 |
| 나. 가정의 밤 | 다.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 |
| 다. 자녀 훈육 | 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 욕구 |
| 라. 확대가족 | 하. 안락사 |
| 마. 부성 | 거. 산아 제한 |
| 바. 동성간의 결혼 | 너. 구원의 계획 |
| 사. 성전 결혼 | 더. 자살 |
| 아. 결혼 생활에서 각 성의 역할 | 러. 국법 |
| 자. 가족 안에서의 의사 결정 | 머. 아동 학대 |
| 차. 간음 | 버. 이혼 |

다 강한 결혼 관계를 이루기 위한 제언 목록

1. 가족 선언문의 단락 7에서 성공적인 결혼 및 가족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가지 제언을 열거한다.
2. 그러한 각각의 제언을 따르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이다: 기도 —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한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며 저명한 심장 외과 의사인 리셀 엠 벨슨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1984년 4월에 제가 병원의 수술실을 떠나 성전의 다락방(제일회장단과 사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들어 오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인간의 심장에 대한 저의 평생에 걸친 관심은 예기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름을 구한 적은 없었지만, 이전에 외과 의사로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마음을 고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신뢰와 주님의 대표가 되는 특권에 합당하게 되도록 겸손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름 받고 지지 받아 성임된 한 사람, 즉 우리 주님의 특별한 열 다섯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물문경에 나오는 다음의 중요한 주제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니파이후서 25:26)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4쪽)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다음 간증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2000년 1월 1일자로 발표하고 서명한 것이다.

1. “이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2.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신약의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 (사도행전 10:38)셨고 오히려 그 때문에 멸시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평화와 선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이신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병자를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에 관한 진리와 전세의 실재와

지상 생활의 목적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3.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무고한 혐의로 정죄받고 폭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4. “우리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5.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 (고린도전서 15:20)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방문하셨으며,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그분의 다른 양들 (요한복음 10:16)에게도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현대에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오래 전부터 약속된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9)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6. “선지자 조셉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와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7.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교리와 성약 110:3~4)

8. “이 선지자는 그분에 관해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9.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10.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 (교리와 성약 76:22~24)

11. “우리는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들이 되셨’ (에베소서 2:20)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12. “우리는 그분이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0:5)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 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13. “합당하게 성임 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애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기록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Commemorate] 기념하며 (단락 1) — 기억하며, 축하하며	[Firstfruits of them that slept]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단락 5) — 처음으로 부활하신 이
[Millennial] 천 년 (단락 1) — 천 년	[Ushering in] 여셨습니다 (단락 5) — 시작하셨습니다, 소개하셨습니다
[Profound] 심오한 (단락 1) — 깊은	[Countenance] 얼굴 (단락 6) — 모습 (특별히 얼굴)
[Despised] 멸시 당하셨습니다 (단락 2) —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Your advocate] 너희의 변호자 (단락 7) — 너희를 대신하여 말하는 이
[Entreated]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락 2) — 권유하셨습니다, 촉구하셨습니다	[Bearing record] 간증하는 (단락 9) — 증거하는
[Instituted] 제정하셨습니다 (단락 3) — 세우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Begotten] 낳으신 (단락 10) — 영적으로 거듭난
[Spurious] 무고한 (단락 3) — 잘못된	[Flesh] 육체 (단락 12) — 사람
[Vicarious gift] 대신한 ... 선물 (단락 3) —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고난을 겪으며 치루신 값	[Duly] 합당하게 (단락 13) — 적절하게, 공식적으로
[Solemnly] 엄숙하게 (단락 4) — 심각하고 진지하게	

단락 4, 9 — “독생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부모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니파이전서 11:21 참조)와 니파이가 시현을 통해 본 ... 마리아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지상의 과거나 미래에서 그러한 부모를 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필멸의 속성으로 인해 그분은 ‘필멸의 권세, 즉 육과 영이 분리되는 죽어야 할 권세 [브르스 알 맥콩키, *The Promised Messiah*, 471쪽]를 지니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신성 때문에 그분은 ‘불멸의 권세, 즉 영원히 살거나, 다시 말해 죽음을 택했다가 ... 다시 일어나 불멸을 누릴 수 있는 권세 [Promised Messiah, 471쪽]를 지니셨습니다.”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6쪽)

단락 5 —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무엇인가?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가르침과 간증”(204쪽)에 있는 단락 13에 대한 “독서 과제를 이해함” 편을 참조한다.

독서과제를 공부함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 이름과 칭호

1.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살펴보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용한 이름 또는 칭호를 적어도 열 개를 열거한다.
2. 열거한 각 이름과 칭호 뒤에, 각 이름 또는 칭호가 구주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적는다.
3. 하나의 칭호를 선택하여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나 사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1. 교리와 성약 107편 23절을 읽고 노트에 다음 문장을 완성한다. “사도는 ... 이다.”
2.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있는 단락 1, 4, 11~13을 살펴본다. 교리와 성약 107편 23절에 언급되어 있는 책임을 사도들이 성취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사도들이 사용한 구절들을 열거한다.

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1.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적는다.
2. 예수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짧은 글을 한 단락으로 적는다.



1842년 존 웬트워스라는 이름의 한 신문 편집자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와 신조에 관해 질문을 했다. 선지자는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적어 “후기 성도의 기원과 성장 및 박해와 신앙”을 설명했다. (*History of the Church*, 4:535) 그는 교회의 교리와 신조 몇 가지에 관하여 13개의 성명문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글이 신앙개조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188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경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값진 진주 “소개” 참조)

신앙개조에 관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엘 톰 페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엔 우리 종교 원리들의 직접적이고도 간결한 말씀이 들어 있으며, 그것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거룩한 통찰력에 대한 강한 확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신앙개조와 그 가르침의 교리를 공부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 여러분이 구주의 교리를 공부할 때 지도 받을 지침으로서 신앙개조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회복된 주님의 참된 교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란 확신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24쪽)

경전을 이해함



신앙개조

[Transgression] 범법 (2절) — 계명을 어김	[Dictates] 지시에 (11절) — 지시, 명하는 바에
[Remission] 죄사함 (4절) — 용서	[Conscience] 양심 (11절) —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인 느낌
[Prophecy] 예언 (5절) — 계시	[Subject] 복종할 (12절) — 순종하는, 복종하는
[Administer in] 집행하기 (5절) — 수행하기	[Magistrates] 장관 (12절) — 판사
[Primitive Church] 초대 교회 (6절) — 신약 성서 시대 동안 조직된 교회	[Chaste] 순결 (13절) — 성적 순결
[Pertaining to] 관한 (9절) — 대하여	[Benevolent] 인자 (13절) — 친절하고 자애로운
[Literal] 문자 그대로 (10절) — 실제로	[Admonition] 훈계 (13절) — 충고, 권고
[Paradisiacal glory] 낙원의 영광 (10절) —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 낙원	

신앙개조 제1조 — 신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으로 구성되는 신회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회를 구성하는 이들 세 분이 서로 분리된 개체임을 간중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순한 영체가 아니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부활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심을 간중합니다.”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3쪽; 또한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신앙개조 제2조 — 아담과 이브의 타락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무지의 상태를 떠나기를 선택한 (니파이후서 2:23~25 참조)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을 기독교계에서는 타락 또는 아담의 범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져 나갔 ... 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입니다. ...”

“그들의 후손도 역시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니파이후서 2:22~26 참조) 그러나 아담과 이브의 후손은 그들의 범법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에서 결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우리의 첫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범법으로 인해 영원히 고통당해야 함은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불공정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구주와 구속주의 역할로서 예수의 속죄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13쪽; 또는 신명기 24:16 참조)

신앙개조 제3조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를 아담의 죄로부터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로마서 3:23)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구주입니다. 리하이는 그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 (니파이후서 2:7)

“생명을 바쳐 영적인 사망을 이기신 구주의 승리를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하며 주님께서 제정하신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

“신앙개조 제3조는 구주께서 주신 조건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69쪽; 또한 교리와 성약 19:16~19 참조)

신앙개조 제4조 —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네 가지 [신앙개조 제4조의 원리와 의식]는 복음의 모든 원리와 의식 중에서 첫째 되는 것입니다. 니파이인들에게 전한 구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원리와 의식을 따른 후에는 반드시 전 생애 동안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 (제3니파이 27:16)”

“첫째 되는 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에 따른 후에 인간은 선악간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행위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73년 4월, 175쪽; 또는 Ensign, 1973년 7월호, 120쪽; 또는 니파이후서 31:10~15 참조)

신앙개조 제5조 —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 내에서 회원들을 부름에 지명을 하는 권리는 어떤 단계에서든지 상위 직원 또는 상위의 여러 직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명은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회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직분을 애써 구하거나 직책을 맡기 위해 요령을 부리거나 사람들의 선심을 얻기 위한 선거 운동도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은 시끄럽지 않은 평화의 방법이며, 요란한 광고도 금전적인 비용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도, 자만심도, 야망도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 아래, 한 가지 되풀이 되는 질문, 곧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역원을 선출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용하고 심사 숙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성신으로부터 확인 받기 위한 엄청난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53쪽; 또한 히브리서 5:4 참조)

신앙개조 제6조 — 참된 교회의 조직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이렇게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 교회가 회복된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주님의 초대 교회의 기초가 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들려졌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하여 선지자와 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개혁되거나 개정되거나 재조직된 것이 아니며, 한 분파도 아닙니다. 이 후일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7쪽; 또한 에베소서 4:11~14 참조)

신앙개조 제7조 — 영의 은사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신권 축복을 할 때 주님의 종은 성신의 감동에 따라 축복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늘의 권능이 임하도록 그의 신권을 행사합니다. 그러한 축복은 교회의 모든 영적인 축복의 열쇠를 갖고 있는 벨기세텍 신권 소유자에 의해 주어집니다." (교리와 성약 107:18, 67)

"신권의 축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권의 축복은 필요한 모든 자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요청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신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영적인 힘이 필요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어머니는 아기를 낳기 전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후기 성도 가족들은 합당한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 결혼을 할 때 신권의 축복을 주었던 특별한 경우를 기억할 것입니다. 신권의 축복은 자녀들이 다른 목적으로, 즉 학교, 군복무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요청하기도 합니다. ..."

"이제까지 말씀드린 상황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가끔 위로와 권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축복들은 대개 아버지나 남편 또는 가족 중 다른 장로에 의해 주어집니다. 그것들은 축복받는 개인의 영적인 인도를 위해 가족 기록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37쪽; 또는 교리와 성약 46:11~26 참조)

신앙개조 제8조 — 경전에서 가장 큰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고든 비 힐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성경과 함께 훌륭한 경전인 물몬경에 대해 간증을 갖게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 책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 번이고 읽었으며 그 책이 가진 아름다움과 깊이와 권세를 맞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조셉 스미스는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시골인 뉴욕에서 대부분을 살았던 젊은이였는데, 그토록 짧은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균형이 맞으나, 책의 속성상 매우 복잡하고, 등장 인물도 너무나 많고, 그 범위 또한 너무나 광범위한 책을 어떻게 써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 언어와 사상과, 지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서 '정말 참된 책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감동적인 영감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51~52쪽; 또한 에스겔 37:15~17 참조)

신앙개조 제9조 — 우리는 계속되는 계시를 믿는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특징은 ... 주님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계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주님의 교회는 이전의 주님의 교회에 존재했던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진지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업을 관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성스러운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계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신에 의한 계시의 원리는 주님의 교회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시를 받습니다. 교회의 회원 개개인들도 진리를 확신시켜 주는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7쪽; 또한 아모스 3:7 참조)

신앙개조 제10조 — 그리스도께서 집합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제, 이스라엘의 집합은 참된 교회로 들어오고 또 그들이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언어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집합의 율법에 따르고 있는 것이며, 또 이 후일에 성도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439쪽)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준수한다면,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싸우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겠다고 ...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해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42년 10월, 49쪽; 또한 교리와 성약 45:64~71 참조)

신앙개조 제11조 — 종교의 자유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퉁기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배의 자유를 믿고, 지지하며, 옹호하고, 지원하며,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부, 정치 제도, 교회, 종파, 종단, 또는 예배 그룹도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의 예배할 자유를 거부하거나 그들에게 강제로 예배하는 체계 또는 방법을 부과한다면, 그 조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담대히 선언한다."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657쪽; 또한 앨마서 21:22 참조)

신앙개조 제12조 — 국법에 순종함

엘 톰 페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을 순종하고 존중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정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세계의 열방에 봉사하는 교회는 현실적 및 영적인 면에서, 그 안에 포함된 개인 생활에 건전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75쪽; 또한 교리와 성약 134:1, 5 참조)

신앙개조 제13조 — 어떻게 유덕해질 수 있는가?

고든 비 힐클리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우리는 인간의 덕성이 경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깨끗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이 읽는 책에 주의하십시오. 외설물을 다루는 잡지나 책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크게 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에게 자제심을 약화시키도록 자극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고 그 대가로 오직 의지력을 약화시키고, 찬한 욕구만을 자극시키는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됩니다.”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61~62쪽; 또한 빌립보서 4:8 참조)

경전을 공부함

신앙개조를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사 중 다섯 가지를 한다.

가 우리가 믿는 것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

교회에 관해 비회원인 친구가 했던, 또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질문 다섯 가지를 적는다. 각 질문에 대해 답하는 데 사용될 만한 구절을 신앙개조에서 열거한다. 예를 들어, 비회원 친구가 “후기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라고 묻는다면, 신앙개조 제1, 3, 4, 6, 8, 10조를 사용하여 대답할 수 있다.

나 신앙개조 외우기

엘 톰 페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이 신앙개조를 암기하고 각 조에 들어 있는 원리에 대해 잘 알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 될 ... 것입니다.”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23쪽)

1. 신앙개조를 외우는 것이 어떻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한 단락으로 적는다.
2. 13개조로 된 신앙개조에서 4개조를 외우고 그것들을 가족의 한 사람 앞에서 적어 보거나 반복해 본다.

다 신앙개조 가르치기

신앙개조 가운데 임의의 1 조에 대해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15분 정도의 공과를 준비한다. 이 공과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전 이야기, 참조 성구, 질문, 개인 경험, 그림, 실물, 또는 여러분의 간증을 활용한다.

라 찬송가와 신앙개조

각각의 신앙개조에 대해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을 활용하여, 같은 진리 또는 교리를 가르치는 찬송가, 또는 노래를 적어도 한 곡 열거한다. 여러분의 경전에 있는 신앙개조 옆에 찬송가 번호, 또는 노래 제목을 적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찬송가의 색인에서 “경전”과, 어린이 노래책에서 “주제”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다)

마 구원의 계획의 일면

신앙개조 1~4조를 읽고 그 곳에 언급되어 있는 구원의 계획의 일면들을 열거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족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도표를 만든다.

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

신앙개조 5~10조를 살펴보고 주님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나 어구를 열거한다. 비회원인 친구에게 여러분이 열거한 것들에 관해 그가 믿고 있는 바를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 친구의 믿음에 대해 상상하게 경의를 표한다. 믿음 사이의 차이를 토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보를 요청한다.) 배운 것을 한 단락으로 적어본다.

사 후기 성도의 권리와 책임

1. 노트에 다음 상황들을 열거한다.

- 가. 운전하는 동안 제한 속도를 넘는 것
 - 나. 종교적인 복장을 한 사람을 놀리는 것
 - 다. 선교사 토론을 들으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
 - 라. 국가의 지도자들이 주는 권고에 따르는 일을 거부하는 것
 - 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
 - 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
 - 사. 성적인 표현이 나오는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 아. 여러분 동네에 예배 장소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
 - 자. 저속한 몸짓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
 - 차. 여러분의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2. 신앙개조 11~13조를 살펴보고 각 상황 뒤에 그것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는 신앙개조를 열거하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3. 신앙개조 11~13조에 있는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에 관해 최소한 세 가지 글로써 여러분의 행동 규범을 적어본다. 각 글은 “나는 (무엇을) 하겠다” 또는 “나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사용한다.

교회사에서의 우리의 위치

신앙의 유산

회복된 교회의 역사 공부를 통해 우리 앞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신앙과 헌신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 이후로 많은 교회 회원들이 참된 후기 성도의 영감에 찬 모범을 보여 주어 왔다. 그러나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영광된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앞서 살다 가신 충실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충실함, 근면, 희생,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만들 수 있다. 무엇 보다도,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의 교회 역사는 아직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교회사에서의 우리의 위치

1. “우리는 각기 교회 역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회원들은 대대로 복음을 믿고 주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하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침례의 물에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서 자신의 몫을 수행하기 위해 거룩한 성약을 맺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회원들이 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에 살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신앙의 유산을 창조해 내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여건에 처해 있든지, 시온을 건설하는 대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아 구주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이다.”



2. “새로운 회원이거나, 오래된 회원이거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들로부터 신앙과 희생의 유산을 물려 받고 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를 비롯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현대의 개척자가 된다. 우리는 온 세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다.”
3.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의의 원리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육시킨다.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아 준다. 많은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바칠 것을 선택한 자녀가 선교 사업을 떠난다. 헌신적인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봉사하라는 부름을 기꺼이 받아 들인다. 수많은 시간을 말없이 봉사하여 조상의 이름을 찾아내고 거룩한 성전 의식을 수행하여 얻는 축복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4. “우리는 각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다음과 같은 사명을 성취시켜 나가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는 1842년에 이렇게 예언했다.”
5.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어떠한 간악한 손도 이 사업이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박해가 들끓고 폭도들이 연합하여 군대가 모이고 중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퍼질 때까지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할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모든 지방을 찾아가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History of the Church, 4:540]

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 동안에는 교회가 매우 소규모였으나, 그는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운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최근에 교회가 극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 우리가 영원히 설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희생을 바칠 수 있는 시기에 산다는 것은 큰 특권이다.” (우리의 유산, 145~146쪽)

독서과제를 이해함



교회사에서의 여러분의 위치

[Nurtured] 키운 (단락 1) — 양육한	∴ [Calumny] 중상 (단락 5) — 그릇되고
[Legacy] 유산 (단락 2) — 전통	∴ 악의에 찬 말
[Unhallowed] 간악한 (단락 5) — 기록하지 않은	∴ [Defame] 있을지라도 (단락 5) — 그릇되게 받들다
	∴ [Clime] 지방 (단락 5) — 지역

독서과제를 공부함



“교회사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가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여러분의 위치

- 단락 1~6에서 교회에서의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와 어구를 열거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대략적으로 10년 전에 여러분의 도시 또는 마을에 교회 회원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지금은 얼마나 있는가? (필요한 경우 이 질문에 대해 부모 또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 2년 후에 교회 회원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3. 여러분의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일은 무엇인가?
 4. 미래의 세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나 간략한 역사를 적는다

여러분 지역의 교회 역사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최소한 두 명 만나서 이야기 한다. 지역의 교회 역사에 관한 사진, 역사책, 일지, 일기, 또는 신문 기사를 찾아본다. 여러분 지역에서의 교회 역사를 간략하게 적어 보고, 알게 된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참여해야겠다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었는지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용어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리와 성약은 참된 책임입니다. 이는 그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분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46쪽)

교리와 성약에는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계시들이 담겨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에 나오는 많은 사람, 장소,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교리와 성약을 공부할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읽는다. 여러분이 계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사람들

다음 내용은 교리와 성약에서 읽게 되는 몇몇 중요한 사람들에 관한 간략한 역사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세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교리와 성약 135:3) 하였다. 그는 1805년 12월 23일에 태어났다. 그의 초기 생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현, 천사 모로나이의 방문에 관한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는 조셉 스미스-역사 5~54절을 참고한다. 조셉 스미스는 하늘에서 온 사자에게서 신권을 받았으며 또 많은 계시들을 받았다. 그는 몰몬경을 번역하고 출판했으며, 또 그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참된 교회를 회복하였다.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적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여러 번에 걸쳐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으며, 많은 고난을 겪었다. (교리와 성약 121:123편 참조) 그와 그의 형 하이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들의 간증으로 인해 1844년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교리와 성약 135편 참조)



에머 헤일 스미스는 1827년 1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결혼했으며, 그가 몰몬경의 번역을 시작했을 때 그를 위해 기록했다. 그녀는 상호부조회의 초대 회장이었으며, 최초의 교회 찬송가를 선곡했다. (교리와 성약 25:1~15 참조; 또한 132:51~56 참조) 그녀는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었다. 어린 자녀들 여러 명이 죽었으며, 남편 조셉 또한 적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녀는 교회가 유타로 이동하였을 때 일리노이 주에 남았다. 그녀는 1879년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사망했다.



하이럼 스미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형이었다. 처음부터 하이럼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동생을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알았으며, 그 같은 간증에 충실했다. (교리와 성약 11편 표제, 6~26절; 23:3; 52:8; 124:15, 124절 참조) 그는 회장 보조와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으며, 또 교회 축복사였다. (교리와 성약 124:91~95 참조) 그는 동생과 함께 카테지 감옥에서 목숨을 바침으로써 참된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간증으로 남겼다. (교리와 성약 135:1~7 참조)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조셉 에프 스미스와 손자인 조셉 필딩 스미스는 교회 회장이 되었다.



조셉 스미스 일세(조셉 스미스-역사 48~50절; 교리와 성약 4편 머리글; 23편 머리글, 5절; 90:20, 25~26절; 102:3; 124:19; 137:5 참조)는 매사추세츠 주, 탑스필드에서 1771년 7월 12일에 태어났다. 24세에 **루시 맥 스미스**(교리와 성약 137:5)와 결혼하여 버몬트 주에 정착했다. 연속적인 농사 실패와 재정적 손실로 조셉 스미스 일세는 가족과 함께 쿠모라 산 근처인 뉴욕 주 팔마이라 인근 지역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조셉 스미스 일세는 주님의 선지자로서의 아들의 부름을 항상 지지했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50절 참조) 그는 교회가 조직되던 1830년 4월 6일에 침례 받았다. 조셉 스미스 일세와 두 아들, 하이럼과 새뮤얼은 몰몬경 금판의 목격자였다. (몰몬경 앞 부분의 “여덟 증인의 증언” 참조) 조셉 스미스 일세는 교회 초대 축복사이며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다. 그는 1840년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사망했다.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는 열한 자녀를 두었다. 첫번째 자녀는 아들이었으나 출생 시에 죽었다. 다른 아들로는 엘빈(조셉 스미스-역사 1장 56절; 교리와 성약 137:5~6 참조), 하이럼(위의 “머리글 표제, 4절; 61:35; 66:8; 75:13; 102:3, 34; 124:141 참조), 조셉(앞 부분 조셉 스미스 이세에 관한 설명 참조), 새뮤얼(교리와 성약 23편 머리글, 4; 61:35; 66:8; 75:13; 102:3, 34; 124:141), 에브라임(11일 동안 생존), 윌리엄(교리와 성약의 앞 부분에 있는 “교리와 성약의 진실성에 대한 십이사도의 증언” 참조) 그리고 돈 카를로스가 있다. 딸로는 소프로니아, 캐서린, 루시가 있다. 새뮤얼 스미스는 교회 최초의 선교사였으며 나부에서는 감도단에서 봉사했다. 그는 많은 박해를 겪었으며, 그의 형 조셉과 하이럼이 죽임을 당하고 약 1개월 후에 36세로 사망했다.



마틴 해리스는 뉴욕 주, 팔마이라의 부유한 농부였다. 그는 젊은 조셉 스미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며 그의 생활비를 도와 주었다. 선지자가 몰몬경을 번역할 때 잠시 동안 조셉 스미스를 위해 기록을 했다. 나중에 그는 몰몬경 초판 5천부의 인쇄 비용을 대기 위해 농장의 일부를 팔았다. (교리와 성약 3편 머리글, 12~13; 5:1~15, 24~32; 10편 머리글; 19편 머리글, 25~41절 참조) 그는 금판에 대한 세 특별한 증인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평생 동안 그 간증에 충실했다. (몰몬경 앞 부분의 “세 증인의 증언”; 교리와 성약 17편 머리글, 1~9; 58:35~39, 104:24~26; 조셉 스미스-역사 61~65절 참조) 마틴 해리스는 1838년 교회를 떠났으나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해 1870년에 유타로 와서 1875년에 재침례를 받았다. 그는 1875년에 사망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1806년 버몬트 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해 알게 되어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던 조셉의 부모의 집에 사는 동안 선지자의 부름에 대해 특별한 증거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6편 머리글, 14~24절 참조) 1829년 4월에 올리버 카우드리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로 갔다. 그는 선지자가 금판에서 몰몬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서기가

되었다. (교리와 성약 8편 머리글, 1~12절; 9편 머리글, 1~14절 참조) 그는 금판의 세 특별 증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몰몬경 앞 부분의 “세 증인의 증언”; 17편 머리글, 1~9절 참조) 그는 신권 권능이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많은 다른 계시를 받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있었다. (교리와 성약 13편 머리글; 18:37; 20:3~4; 21편 머리글; 27:8, 12; 28편 머리글, 1~16; 47편 머리글; 69편 머리글; 104:28~30; 110편 머리글, 1~16; 111편 머리글 참조; 또한 조셉 스미스-역사 1장66~72절 참조) 그는 또한 교회 회장 보조로 봉사했다. (스미스, 구원의 교리, 1:200 참조) 올리버 카우드리는 1838년 교회를 떠났으나 1848년 돌아와서 재침례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124:95 참조) 그는 유타 주로 이주하기 전에 1850년 미주리 주에서 3월 3일에 사망했다.



피터 휘트머 일세와 그의 아내 **매리**에게는 세 명의 딸과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다. 딸 가운데 하나인 **엘리자베스 앤**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결혼했으며 (위의 “올리버 카우드리” 참조) 두 번째 딸인 **낸시**는 생후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사망했다. 그리고 세 번째 딸인 **캐서린**은 하이럼 페이지와 결혼했다. (교리와 성약 28편 머리글 참조) 다섯 아들은 몰몬경 금판에 대한 증인들이었다. (몰몬경 앞 부분의 “세 증인의 증언”과 “여덟 증인의 증언” 참조) **데이비드 휘트머**는 교회를 종교 단체로 등록시키는 서류에 서명한 여섯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훗날 미주리 주에서 교회 지도자로 봉사했으며 1838년에 교회를 떠났다. (교리와 성약 14편 머리글, 11절; 17편 머리글, 1~9절; 18편 머리글, 9, 37~39절; 30:1~4; 52:25 참조) 휘트머 가족은 1829년 몰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조셉 스미스와 에머, 그리고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금전, 음식, 그리고 거처를 제공하였다. 교회는 1830년에 뉴욕 주, 페이에트에 있는 휘트머의 집에서 조직되었다. (교리와 성약 21편 머리글 참조)

시드니 리그돈은 오하이오 주의 멘토르에서 목사로 있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은 후에 1830년 교회에 가입하였다. 그는 1833년부터 1844년까지 교회 제일회장단에서 보좌로 있었으며 다른 많은 교회 직책에서 봉사하였다. (교리와 성약 35편 머리글, 3~6절; 36:2, 5절; 58:50, 57~58절; 63:65~66; 71:1; 76편 머리글, 11~24절; 82:11; 90:6, 21절; 93:44, 51절; 102:3; 124:125~126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망 이후, 그는 교회의 “보호자”로서 교회를 인도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회원들은 십이사도를 지지하였다. 그는 십이사도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1844년에 파문 당하였다.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1830년에 교회에 가입하였으며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 (교리와 성약 35편 머리글; 36편 머리글, 1~7절; 41:9~11; 42:10; 50:39; 51:1~4, 18절; 52:24; 57:7; 58:14~16, 24~25, 61~62절; 60:10; 64:17; 82:11; 124:19 참조) 파트리지 감독은 미주리 주에서 많은 박해를 겪었으며 1840년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47세로 사망했다.

조셉 나이트 일세는 1826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알게 되었으며 관심을 갖고 회복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그는 선지자 조셉보다도 나이가 30세 이상 많았으며 몰몬경의 번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종종 그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었다. 여기에는 선지자와 그의 아내가 1827년 쿠모라 산에서 금판을 가져 오던 날 사용했던 마차가 포함된다. 나이트 형제는 성도들이 나부에서 탈출하던 동안인 1847년에 아이오와 지역의 피스가 산에서 사망했다.

뉴얼 케이 휘트니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상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1830년에 교회에 가입했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훌륭한 친구가 되었다. 선지자와 그의 가족은 한 동안 휘트니의 집에 머물렀으며 그 곳에서 교리와 성약에 있는 여러 편의 계시를 받았다. 뉴얼 케이 휘트니는 교회의 제2대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1847년에 교회의 관리 감독이 되었다. (교리와 성약 63:42~46; 72편 머리글, 1~8절; 78:8~10; 82:11~12; 84:112; 93:50; 96편 머리글, 2절; 104:39~42; 117:1~2, 11절 참조) 그는 1850년 유타에서 사망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는 초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에머 스미스의 보좌였다.



토마스 비 마쉬는 이 비 그랜딘의 인쇄소에서 막 나온 몰몬경 한 권의 처음 16쪽을 읽은 후에 1830년 교회에 가입하였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다. (교리와 성약 31편 머리글, 1~13절; 52:22; 56:5; 112편 머리글, 1~19절; 118:2 참조)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분노를 품고 미주리 주에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1838년에 교회를 떠나 1839년에 파문 당했으나 1857년에 재침례를 받았다.



팔리 피 프랫과 그의 동생 **울슨 프랫**은 1830년 교회에 가입했으며 이 경륜의 시대의 초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었다. 팔리 피 프랫은 교회를 위해 많은 선교 사업을 수행했다. (교리와 성약 32편 머리글, 1~2절; 34편 머리글; 49:1~3; 50:37; 52:26; 97:3~5; 103편 머리글, 30, 37절; 124:127~129 참조) 그는 많은 설교와 찬송가를 썼으며, 그것은 교회에 의해 출판되었다. 그는 유타에 도착한 초기 개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미합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수행하던 도중 1857년에 죽음을 당하였다. 울슨 프랫 또한 교회를 위해 많은 선교 사업을 수행하였다. (교리와 성약 34편 머리글, 1~10절; 52:26; 75:14; 103:40; 124:127~129; 136:13 참조) 교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는 26편의 계시를 교리와 성약에 추가하였으며, 문장과 단락을 절로 나누고,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에 처음으로 주를 달아 넣었다. 그는 종교 및 과학을 주제로 하여 많은 저서를 썼으며 유타에 도착한 초기 개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1881년 사망할 때까지 45년 이상을 사도로 봉사했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용어

배도

신약 성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복음을 가르치고, 사도들을 택하고, 그의 교회를 조직하였다. 그의 속죄, 사망, 그리고 부활 이후에 사람들은 사도들을 거부하고, 복음의 교리를 변경시켰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지상에서 거두어졌다. 참된 교회에서 이러한 “배교하는 일”(데살로니가후서 2:3)을 배도라 부른다.

회복

주님께서 배도 때문에 과거에 지상에서 거두어졌던 복음 및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물문경을 번역하였다. 주님은 또한 신약 성서 시대에 지상에 있었던 신권 권능, 성약, 의식, 영적 은사, 교회 조직 등을 회복하였다. (신앙개조 4, 7, 9조 참조)

이스라엘의 집합

구약 성서는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다고 전하고 있다. (창세기 32:28; 35:10 참조)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12 지파” 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린다. 경전의 어떤 곳에서 그들은 “야곱의 자손(자녀)”이라고 불리며, (시편 105:6; 교리와 성약 109:61 참조) 다른 곳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교회 회원들 또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 또는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불린다. (니파이후서 29:14; 교리와 성약 103:17 참조)

그들의 간약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 10 지파는 정복당하여 포로로 끌려갔다. (열왕기하 17:18~23; 니파이전서 22:3~4 참조) 이들 지파들은 “잃어버린 열 지파”라 불린다. “유다” 또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 나머지 지파들 또한 훗날 정복당하여 흩어졌다. (니파이후서 6:8~11 참조)

주님께서는 후일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였다. (예레미야 16:14~15; 니파이전서 22:24~25; 니파이후서 9:1~2 참조) 이 집합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및 참된 교회의 회복과 함께 시작되었다. 교회 회원들은 처음에 미합중국의 뉴욕 주에서 집합하였다. 나중에 주님께서는 회원들에게 오하이오 주, 컬럼비아에 집합하라고 말씀하였다. (교리와 성약 37:1~4 참조) 1831년 주님께서는 몇몇 회원들에게 교회를 위한 집합지를 미주리 주에 준비하라고 명하였으며 (교리와 성약 57:1~2 참조), 1838년까지 나머지 교회 회원들이 그 곳에 집합하였다. 하지만 몇몇 회원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적들에 의한 박해 때문에 1839년에 교회는 일리노이 주 나부로 이동을 하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망 이후, 박해로 인해 회원들은 일리노이 주를 떠나야만 했으며, 주님께서는 미합중국의 서부에 있는 집합지로 교회를 인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모으시겠다는 그의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교회를 건설하라는 명을 받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이든 가족 단위로 온 지면에 세워진 시온의 스테이크로 모여서 온 지상이 복음의 결실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온 건설”, 성도의 벗, 1978년 1월호, 18쪽)

교리와 성약의 역사

1833년에 미주리 주에서 출판된 “완성되지 않은” 계명의 책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님에게서 받았던 65편의 계시가 담겨 있었으나 그 책에는 다른 내용들도 있었다. (교리와 성약 1:6 및 교리와 성약 1편 머리글, 67, 69~70절 참조) 1835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님에게서 받았던 새로운 계시들이 계명의 책에 출판되어 있던 계시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으로서 출판되었다. 교리와 성약의 이 판에는 103편이 있었다. (두 개의 편이 66편으로 있었다.) 그 이후로 교회 회장들은 추가로 많은 계시들을 받았으며 그들 중 일부는 교리와 성약에 추가되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하워드 터블류 헌터 장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의 모든 자녀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항상 종들과 함께 하시며 전세계에서 그의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했다. (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98쪽)

조성 (조셉 스미스 역 흥정역 성경)

성경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잃어버려졌거나 변경되었다. (니파이전서 13:24~29 참조)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을 수정하라고 명하였다. (교리와 성약 35:20; 41:7; 45:60~61; 73:3~4; 93:53 참조) 이러한 수정을 조셉 스미스 역 또는 조성이라고 부른다. 조성의 일부 변경 사항을 교회에서 출판한 경전 안내서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성경 번역을 행함에 따라 주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계시들을 그에게 주었다. (교리와 성약 76: 77; 86; 91; 93; 113; 132편 참조; 또한 모세서; 조셉 스미스-마태 참조)

헌납의 법

헌납의 법은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지상에 있는 그의 왕국 건설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교리와 성약 104:11~18 참조) 교회 초기에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할 것을 선택한 회원들은 그들의 금전과 재산을 감독에게 주고 청지기 몫(금전, 재산 및 다른 책임들)을 돌려 받았다. 그들이 감독에게서 받은 것이 그들의 소유 재산이 되었으며, 그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 그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해 감독에게 돌려주었다. (교리와 성약 42:30~39) 헌납의 법은 회원들이 교만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해의 왕국에서 생활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주어졌다. (모세서 7:16~20 참조) 한 동안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했으나 이 율법에 따라 온전하게 생활할 수 없었다. (교리와 성약 105:1~5, 9~13 참조) 오늘날 십일조, 금식 헌금, 데저렛 인터스트리에의 기부, 교회 복지 프로그램, 시간과 재능을 나눠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행하고 있는 다른 희생들이 모두 헌납의 법의 일부이다. (교리와 성약 119편 머리글 참조)

시온

교리와 성약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온이라 부른다.

- “바음이 청결”(교리와 성약 97:21)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이를 보살피는 사람들의 무리 (또한 모세서 7:18 참조)
-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지역에 대한 다른 이름. (교리와 성약 57:1~3 참조) 교리와 성약에서 “시온의 땅”이라는 구는 미주리 주의 이 지역을 일컫는다.
- 장차 미주리 주에 세워질 도시. (교리와 성약 45:64~71; 84:2~4 참조; 또한 신앙개조 제10조 참조) 1830년대에 교회 회원들은 시온을 세울 (시온의 율법에 따라 생활할)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는 시온의 도시가 장차 언젠가는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교리와 성약 58:3~7; 101:16~21; 105:1~5 참조)
- 선지자 예녹의 성. (교리와 성약 38:4; 45:11~14; 또한 모세서 7:16~21 참조)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리와 성약 21:7~8; 68:25~30)

시온 진영

시온 진영은 1834년 “시온의 땅”(교리와 성약 103:22; 또한 머리글 및 22~35절 참조)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했던 약 200명의 남자와 몇몇

여자 및 어린이로 이루어진 무리에 대한 이름이다. 그들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위의 “시온” 참조) 그리고 폭도들에 의해 강제로 가정을 떠나야 했던 교회 회원들을 돕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미주리까지 1,450킬로미터를 넘게 여행하였다. 시온 진영이 미주리에 도착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기다리는 것이” (교리와 성약 105:9; 머리글 및 1~19절 참조)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온 진영에서 순종하고 충실했던 남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훗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각 편의 머리글

교리와 성약의 각 편 앞에는 머리글이 있어 그 편을 소개하고 있다. 머리글에는 계시가 주어진 시기, 주어진 대상,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를 주던 당시의 얼마 간의 교회 역사를 말해 준다. 각 편을 공부하면서 각 편 머리글을 항상 읽어야 한다.